

[전체도서목록으로 →](#)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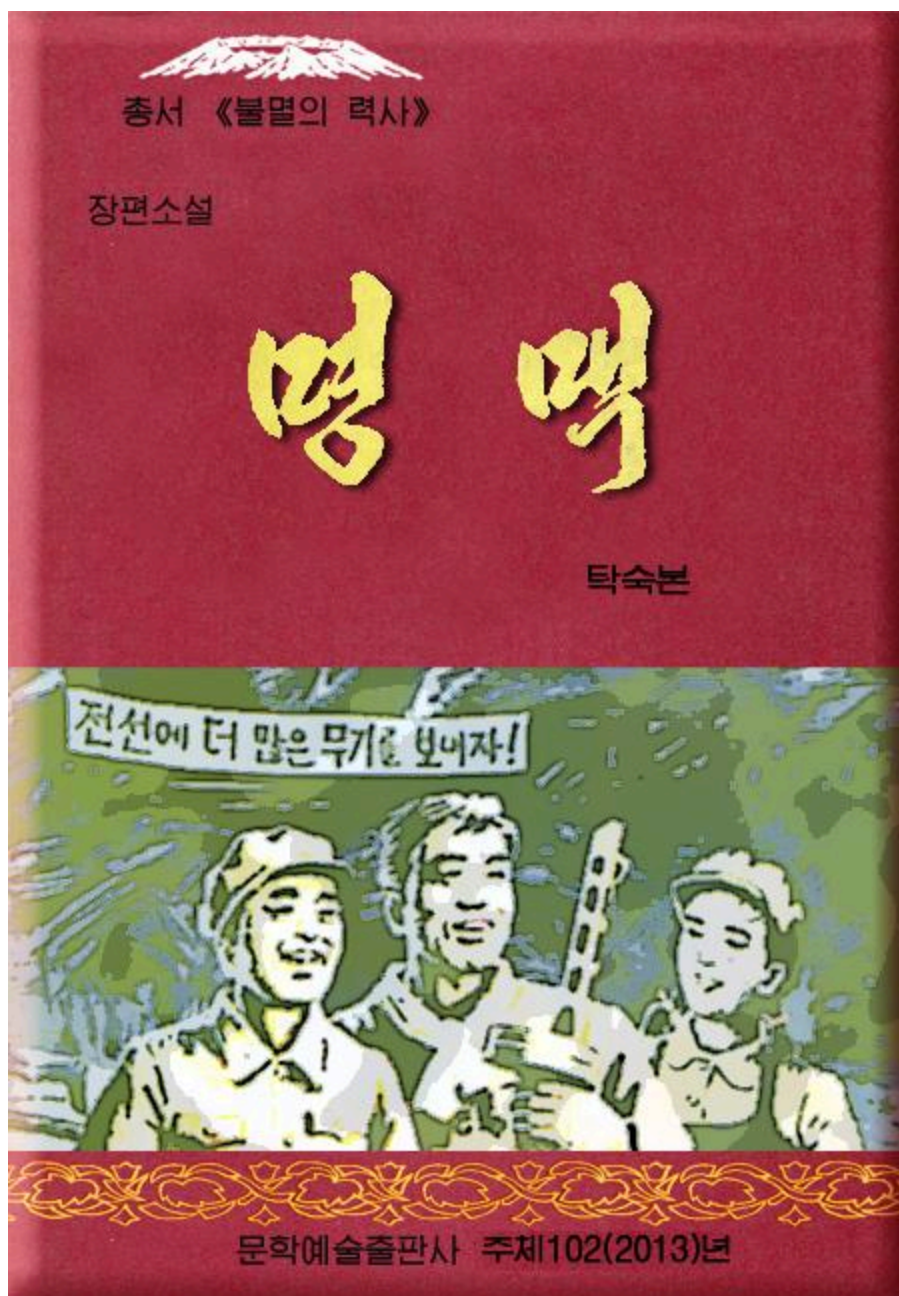
명맥

탁숙본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102 2013 [2015-09-03]

- 이 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



머리이야기

인류의 정치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거의 어느 나라나 다 침략자도 방위자도 무기제작에 끊임없이 힘을 넣어왔다. 그것을 소홀히 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멸망하였으니 조선의 근대력사에도 그러한 망국의 비사가 피로 적혀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피바다를 건너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정의의 무력건설에 힘을 쓰신것은 바로 그때분이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자위의 무력은 필수적이다. 해방은 되었으나 미제가 조국땅 절반을 강점하고있는 현실은 무력건설을 시급히 다그칠것을 요구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 해방직후 북조선행정10국을 내오신후 토론하신것이 인민생활과 관련된 소금문제였는데 그날 소금문제를 토의한 끝에 국가보안사업과 총기류생산문제가 논의되였다. 이 논의에는 당 및 군사일군들도 행정10국 국장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탁을 마주하고 주련이 앉아있는 간부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기회에 병기생산문제를 토의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평천리에 병기공장을 하나 크게 차려놓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병기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통속적으로 말한다면 총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데 대해 토론해봅시다.》

총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참으로 여기에는 나라의 존망문제와 직접 연결되어있는 대단히 심각하고 복잡한 정치, 경제, 군사적문제가 포괄되어있는것이였다.

《우리가 병기공장을 차려놓자면 우선 병기기술자, 기능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김책동무가 사방 뛰어다니며 병기기술자, 기능공들을 수소문해보았습니다. 김책동무가 먼저 그 료해한 경형을 알려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김책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김책은 수첩을 펼치며 천천히 일어섰다. 이 며칠새 퍼그나 과로한듯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졌다. 불살이 깎이여서 관자뼈가 별로 두드러져보였으며 눈이 깊숙이 패여들어가고 부르튼 입술에 허연 버캐가 내뿜혀있었다.

《제가 직접 만나본 병기기술자는 현재 한사람뿐입니다. 지응모라고 1944년에 도쿄제국대학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일본군속 히다찌전기회사에서 얼마간 일하다가 평천병기제조소에 조동되어 저격무기를 설계한 동무입니다.》

《그러니까 병기기술자는 지응모라는 사람 하나뿐이란 말인가요?》

회의탁 제일 앞자리에 앉은 김용범이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본것은 한사람뿐입니다. 일제의 병기공장문서들을 뒤져보는 과정에 중국 동북지방의 병기창에 박홍근이라는 병기기사가 있었다는것을 알아냈지만 그 행처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박홍근은 지응모와 도쿄제국대학 기계공학부에서 같이 공부한 기술자인데 한해 아래학년이였다. 그는 1945년 1월 대학졸업후 중국 동북지방의 병기창에서 병서번역을 하며 주로 탄약제조에 참가했었다. 그 과정에 어떤 반일운동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해방과 함께 출옥하여 서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김책이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박홍근은 지응모기사와 막역한 사이입니다. 지응모는 다시는 무기설계를 하지 않겠다고 뻔대던 사람인데 장군님께서 설복하여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셨습니다.》

김책은 지응모를 통해 박홍근을 서울에서 데려오기만 하면 일제시기 동북지방의 병기창에서 기능로동을 한 병기공도 찾아낼수 있을것 같다고 하였다.

《여기 평양 평천병기제조소에도 총을 만들던 조선인기능공들이 더러 있겠는데...》

산업국장이 코허리에 내려앉은 검은테안경을 추슬러올리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해방전에 일본군속광산에서 기사로 복무한 당시 우리 나라에 몇명 안되는 공학기사이며 경제전문가였다. 병기공장은 산업국장인 그에게 있어서 관심하지 않을수 없는 문제였다.

《평천병기제조소엔 없습니다. 50줄에 들어선 김만수라는 중늙은이 한명이 그곳에서 수십년 일하였지만 그는 연공입니다. 병기기능공이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지난 10월 2일 병기제조소자리를 돌아보실 때 그 로인과 지응모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담화하셨습니다.》

김책은 수첩을 접고 자리에 앉았다. 병기기술자, 기능공에 대해서는 그이상 더 말할것이 없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만년필뒤등으로 집무탁을 다독이며 일군들을 쪽 둘러보시였다.

《현재 형편은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병기공장을 어떻게 건설하고 무기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의견들을 말하시오. 참, 허가이동무가 장악한 무기기술자가 한명 있지요? 이름이 고정환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

얼굴이 희멀쭉하고 이마가 넓은 사람이 틀지게 일어나 정중히 대답을 올리였다. 조선의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당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조국으로 온 그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낯설어서 서먹서먹해하였다. 그러면서도 희고 넓은 이마밑에서 번쩍거리는 그의 눈에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혁명사업을 해온 우월감에 가까운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있는듯 했다.

그가 장악한 고정환은 씨비리군수공장에서 로동도 하고 조선의 어느 공업대학에서 병기공학을 제2전공으로 공부한 두뇌가 명석한 기술자라고 했다. 고정환은 조만간 조선으로 오게 된다.

《제 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이 일어섰다. 《의견을 말하기 전에 김책동지에게 한가지 묻고싶은것이 있습니다. 병기기술자들인 지응모, 박홍근기사들의 사상동태와 그들의 출신관계를 알고싶습니다.》

방안의 모든 사람들이 뜻밖인듯 눈을 치뜨며 산업국장을 돌아보았다. 출신문제가 제기되면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군 하던 그가 감히 병기기술자들의 출신환경문제를 따지고있으니 놀라왔던것이다. 산업국장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김일성동지께서 하시였다.

《지응모동무의 아버지는 룡천교회 목사입니다. 그는 아직 장가는 안들었는데 애인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선천교회 목사입니다.》

《선천교회 목사라면 최학순이가 아닙니까? 룡천교회牧사는 지군일입니다.》

평남, 평북지구에서 지하활동을 많이 한 김용범이 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있었다. 그들 두 목사는 곽산군출신으로서 마음들이 곱지만 일찍부터 교활한 미국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터여서 미국을 하느님의 나라로 여길 정도로 숭미사상이 아주 짙다고 하였다. 그것은 지웅모자신도 솔직히 터놓은 말이였다. 특히 두 목사는 살생을 반대하는 불교도인이상으로 일체 총기류에 대하여 도리를 짓는 신자들이였다. 총이란 살륙기구이기때문에 하느님의 계를을 어기는 이단적인 물건이라는것이였다.

《박홍근의 아버지는 교육자라는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저 이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따뜻한 눈길로 산업국장을 바라보시였다.

《제가 주제님께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따져물은것은 그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총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산업국장은 잠간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였다.

《나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총은 매우 위험합니다. 민수공장의 오작품은 단지 경제적손실을 보게 하지만 총오작품은 경제적손실과 인명피해를 입힙니다. 총이니까요.》

산업국장의 갱뿔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덮이였다. 병기기술자가 미국사람들을 숭상하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께름한 모양이였다. 병기생산을 목적으로 내온 평천리의 평양기계제작소가 산업국산하에 속해있으므로 그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이제 비로소 부유출신인 자기를 못미더워하고 경원시하는 사람들을 탓할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국장동무, 자신을 믿는다면 지응모동무를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 다른 걱정은 말고 총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 그 의견을 말해보시오.》

김일성동지께서 웃으시며 우선우선하게 말씀하시었다. 그제서야 산업국장은 본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총기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것이 없습니다. 저는 권총조차 손에 쥐여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알고있는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병기공업은 산업혁명이후 기계공업이 일정한 수준에 오른 다음에, 다시말해서 일반기계공업의 토대우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것입니다. 물론 산업혁명이전에도 무기생산을 하였지만 그것은 유치한 수공업적제품들입니다. 당면하게 어떤 총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것부터 토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총을 만들겠는가?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현대적인 총입니다. 옛날 화승총 같은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늦어도 2~3년안으로 발전된 나라들에 못지 않는 현대적인 저격무기들과 총탄, 포탄을 계열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가지 현대적인 포들도 팡팡 생산하여야 합니다.》

산업국장은 자기의 타산이 김일성동지의 의도와 엄청나게 엇갈리고있다는데 놀라고 당황해서 입이 굳어져버렸다. 그는 병기공장을 차리되 처음 5~6년동안은 준비단계로 삼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면서 점차 소형병기설비들을 하나씩 들여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기초를 다져놓은 다음 본격적인 무기생산을 시작해야 된다는것이 그의 초보적인 설계안이였다.

《국장동무,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 굳어져있는 산업국장에게 재촉하시였다.

《예... 제 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산업국장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맥없이 주저앉았다.

허가이가 주먹을 입에 대고 몇번 헛기침을 하고나서 무게있게 일어섰다.

《저 역시 병기공업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일성동지의 전략적인 구상을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허가이의 자신있는 발언에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 시선을 모았다.

《조선의 병기공업은 백지입니다. 기술자도 기능공도 자금도 자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기공업은 완전히 제로!... 예, 령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할건 없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약소민족을 도와주는 쏘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원하면 쏘련에서 저격무기공장 한두개쯤은 당장 보내줄것입니다. 쏘련동지들은 북조선의 국방은 자기네가 맡아줄테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쏘련에서 공장이 들어올 때에는 자연히 기술자, 기능공들도 따라오게 될터이니 즉시 공장을 가동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토의하겠지만 병기공장을 내오기 위한 방향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허가이는 일어설 때처럼 주먹을 입에 대고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김책, 안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들을 끄덕이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도 쏘련의 국제주의적원조를 타산하고 평천리에 병기공장을 내올 결심을 하시였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2~3년안으로 현대적인 저격무기를
계열생산할수 있겠는가.

《또 의견들을 들어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너그러운 표정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그이상 좋은 방도가 나올것 같지 않습니다. 확실히 쏘련에서 당사업을 하던분이
다른것 같습니다. 앞이 환히 트입니다.》

어느 국장인가 일어나서 허가이를 추어올리였다. 이때 산업국장이 또 일어섰다.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산업국장은 민망스러운듯 허리를 꺾어부정하고 조심스레 김일성동지의 존안을
살피였다.

《예, 어서 말하시오.》

《쏘련의 국제주의원조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손실을 입은 쏘련은 아주 가난해졌으며 따라서 누구를 원조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딱히 알수 없지만 돌아가는 말은 쏘련의
내각부수상이 조선에 있는 적산을 쏘련으로 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지 자기의 눈으로 쏘련사람들이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제철, 제강소의 기계설비들을
쏘련으로 실어가는걸 보았습니다. 그 기계들은 조선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것으로서 적산이 아니라 다름아닌 우리 인민의 재산입니다.

물론 그후 **김일성**장군님께서 적산을 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지만 어쨌든 이런 형편에서 쏘련사람들이 값비싼 군수공장을 우리에게 선사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

산업국장은 방안에서 일어나는 소음때문에 말을 중동무이하고 엉거주춤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방안의 소음으로 하여 기가 질려버린 산업국장에게 말씀하시였다.

《국장동무, 일없습니다. 하고싶은 말을 다 하시오.》

《제… 하고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현대적인 병기공장을 당장 차려놓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쏘련사람들이 군수공장을 세워주고 우리가 제발로 걸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기술을 비롯한 물질적원조를 해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만 그러한 최선의 경우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잘못 뒤틀리면 우리가 녹아납니다. 경제란 그런것입니다.》

산업국장은 말없이 쏘아보는 허가이의 날카로운 눈길을 일별하고 자리에 앉았다.

《자, 또 의견들을 내놓으시오.》

김일성동지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였으나 의견을 내놓기가 저어되여서인지 누구도 일어서지 않았다.

《이제는 더 나올 의견이 없을것 같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보건국장이 정중히 일어나서 그이께 청을 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집무탁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서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때건 좋으니 찾아와 의견을 나누어봅시다. 어지간히 시간도
 갔기때문에 내가 좀 말하겠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 옛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허허허...
 》

김일성동지의 소탈하신 웃음소리는 엇갈린 의견들로 어성버성해졌던 방안사람들에게
 화기로운 기분을 돋구었다.

그이께서 추연한 눈길을 보내시는 창문으로 늦가을의 담담한 저녁해빛이
 스며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호기심어린 못시선을 받으며 말쑼을 시작하시였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갓 시작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때야말로 자나깨나 총을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나는 원래 유격대창건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자력으로 무기를 해결할데
 대한 원칙을 세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총 한자루를 얻기 위해 연약한 녀인들까지도 빨래방치로 순사의 머리통을 깨는
 위험한 모험을 하였습니다.

간도동무들이 혁명승리의 테프를 선참으로 끓은 쏘련공산주의자들이 후진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지 않겠는가, 수류탄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자면서
 쏘련원동군사령관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추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그이의 발자국소리는 세월을 거슬러흐르는 추억의 물결소리마냥 방안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우리는 왜놈들과 싸우기 위해 유격대를 창건했지만 수류탄이 없어 곤란을 겪고있다, 한달에 수류탄을 1만개씩 만드는 공장을 하나 주면 일본놈과 더 잘 싸울수 있겠으니 도와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아주 절절하게 꽤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답이 없었습니다.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줄수 없다는 통지도 안해왔습니다. 쏘련사람들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 혁명을 해나가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것이며 남들의 원조는 부차적이라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체로 수류탄을 만들어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수류탄식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집무실을 거니시던 **김일성**동지께서 의미깊이 자문하며 방안사람들을 둘러보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행정10국 국장들중에 항일유격대원들이 폭탄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몇명밖에 안되였다.

《나는 폭탄이요, 수류탄이요 하는것은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다, 화약만 있으면 된다, 우리 조상들도 화약을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왜 못만들겠는가고 생각하고 화약제조법을 연구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러는 과정에 화약의 기본원료인 염초를 민간에서도 생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였다.

《나는 중국동북에서 공부할 때에도 중국사람들이 검은 화약을 만드는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사람들은 명절때마다 명절놀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폭죽을 터치곤 하였는데 그 주원료가 검은 화약입니다.

변소간자리나 외양간, 마구간바닥의 흙을 파서 거른 물을 가마에 넣고 졸이면 초산(질산)이 됩니다. 내가 유격대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초산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어 폭탄을 자체로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력갱생이라는 4자성구를 좌우명으로 자주 외우기 시작한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작탄강습을 조직하고 유격대에서 더 많은 작탄과 무기를 만들어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 전반기에는 여러곳에 병기창들이 꾸러지고 1930년대 후반기에도 곳곳에 병기창들이 생겨났다.

《병기창들에서는 차츰 기술이 발전되고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위력있는 작탄과 함께 여러가지 새로운 무기들도 수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나무로 대포도 만들어췌습니다. 무기뿐만아니라 탄알도 재생하여 췌습니다. 선반이며 볼판, 췌빠, 후라이스반 같은 공작기계들이 없는 촌야장간에서 현대적군수공장에서나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던 작탄도 만들고 총도 만들었으며 약통실, 퇴관, 점화약 등 다 우리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항일혁명을 할 때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원조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털어놓고말해서 소련이나 그밖의 다른 나라에서 원조받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놈들의 무기를 빼앗기도 하고 우리자체로 만들기도 하고 어췌든 모두 자체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력으로 무기를 해결하는 원칙을 버리고 소련의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하였더라면 유격대는 인차 그때 종말을 고하고말았을것입니다. 내가 하췌다던 옛말이란 이런겁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으로 와 의자에 앉으시었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이께서는 어떤 력설이나 해설이 아니라 과거에 실재하였던 옛말 하나를 하셨습니다.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병기공장건설방략에 대한 그이의 견해와 립장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안다는 그것이 곧 신념으로 되는것은 아니었다. 중요한것은 알게 된 그것을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허가이에게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시었다. 그 사람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채 묵중히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그가 김일성동지의 말씀에 공감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표정만으로써는 알수 없으시었다.

또 한사람이 눈을 꼭 감은채 돌부처마냥 까딱없이 앉아있었다. 그는 행정10국 국장들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재정국장이였다. 일제시기 반일운동에 많이 참가한 경제전문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나라에 몇명 안되는 기사, 전문가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여 행정10국 국장자리에 앉히시었다.

《재정국장동무,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깨를 흠칫하며 눈을 뜬 재정국장은 두손을 맞잡고 일어섰다.

《장군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성은 지혜로운 두뇌보다 더 많은것을 창조한다>는 격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총이 절실히 필요했기때문에 야장간에서도 폭탄도 만들고 총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병기공장을 차리면 작탄경험이 있는 항일투사들을 인입시키자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일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병기공장의 숲이 무성하게
될것입니다.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 명쾌하게 웃으실 때 허가이도 눈을 떴다. 그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으면서 긴숨을 내쉬었다. 그의 무거운 한숨속에는 그 무슨
슬픈 속대사가 있는듯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두운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허가이를 바라보며 진중히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해외조선이주민들속에는 우리 민족이 열등한 약소민족이여서 남들이
장갑차를 타고 대포, 기관총을 쏘 때 조선사람들은 화승총을 메고 뛰어다녔다고 하면서
더부살이처럼 큰 나라에 붙어살수밖에 없다고 한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의 일부 정치가들은 조선민족은 열등민족이여서 자체로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다고 모욕하고있습니다.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창조한 우리 민족이 과연 열등민족이겠는가?》

불현듯 그이의 안광에서 섬광이 번뜩이였다.

《한때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은 만방에 명성을 떨쳤고 깨끗하고 고상한 도덕은
세계의 찬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민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찬란한 문화는 인류의
기술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력사를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사람은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무기를 놓고 한번 역사를 더듬어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세시대에 우리 인민이 만들어쓴 포무기종류만 하여도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고 하시였다. 수리포, 신포, 쇠마탄, 완구, 자자포, 자자총통, 현자총통, 호준포, 해자총통 등 수십가지로서 이런 포들은 나무로 만든것도 있고 쇠로 만든것도 있었다. 그중에는 거의 현대포에 가까운것도 있었다.

선조들이 만들어 리용한 신기전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무기였던가.

신기전은 세나라시기로부터 리용한 불화살(화포)을 발전시켜 중세기에 창안제작한것인데 반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계단식으로 날아가게 한 고급한 무기였다.

신기전은 크기, 형태 및 반작용화약통의 구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으로 나누고있는데 그중 대신기전은 약통, 외통, 지화, 소발화 등 반작용기구가 네 부분으로 되어있어 탄알을 발사하면 현대의 로케트처럼 네 계단으로 반충력을 일으켜 멀리 날아가게 만들어진것이였다.

신기전은 16세기 말기에 있었던 임진조국전쟁때 경주성을 되찾는 전투와 리정암의 행주산성전투를 비롯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신기전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은 그 시기에 벌써 4명을 태울수 있는 《비거》라는 날아다니는 기구를 만들어 리용한 일도 있었다.

《신기전은 오늘의 방사포와 로케트의 시원이고 비거는 비행기의 원조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우리 인민의 슬기가 깃들어있는 이런 병기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사대주의를 하면서 정권쟁탈과 개인향락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가다보니 우리 나라가 뒤떨어진 후진국으로 되였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우리 조선사람들이 화승총을 메고다닌것은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를 하였을뿐아니라 무관을 무시하고 문관만 내세우고 우대한 문관지상주의가 빚어낸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결코 민족이 멸등하기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물론하고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음성이 거대한 성량으로 방안의 공기를 진동시키였다.

허가이의 얼굴이 불깃해지면서 관자노리에 굵은 동맥이 돌아올랐다. 무릎우에서 가늘게 떨리는 그의 손가락들이 관자노리에 불거져나온 푸른 피줄의 박동에 맞추어 무릎뼈를 다독이였다.

《오늘 무기생산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우리에게는 필요성과 함께 지혜로운 두뇌도 있음을 자부해야 합니다. 재정국장동무, 그렇습니다. 두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재정국장을 향해 두손가락을 펴보이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러면 우리는 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자력갱생한 항일유격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항일유격대식자력갱생이란 당시 야장간에서 풍구질을 하여 총알과 폭탄을 만들어낸 식의 자력갱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자고 옛말을 한게 아닙니다. 오늘의 항일유격대식자력갱생이란 그 어떤 역경도 디디고 올라서는 불굴의 투지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슬기, 남이 한걸음을 내디딜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디디는 진취성과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수 있다는 혁명적인 배짱에 과학기술을 안받침하는 자력갱생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을 마치시였을 때 방안에서는 요란한 박수가 터쳐나왔다.

허가이도 곁따라 박수를 쳤으나 자력갱생의 병기건설로선에 공감했는지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자력갱생은 진리이며 인간의 생존방식이였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력갱생에 의해 발전하였다. 인류가 유치한 원시적인 작업도구를 리용한것으로부터 오늘의 산업시대로 발전하게 된것도 자력갱생하였기때문이다.

항일유격대식자력갱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리해하고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게 된것은 그때로부터 3년후 1948년 12월이였다.

그때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우리 나라 기관단총국가시험사격이 만점으로 합격되었던것이다.

평천리병기공장에서 기관단총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저격무기들과 총탄, 포탄, 수류탄들의 계열생산이 이루어지고 바야흐로 각종 포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미제침략자들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조선은 병기공업의 유년기에 200년이 넘는 현대군수공업의 역사를 가진 미제와 싸우게 되었다.

제 1 장

포성이 울리는 속에서 려명이 트고있었다.

은하수와 별자리들이 희미하게 빛을 바래고 동녘하늘이 푸름푸름해진다.

평양시가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보통강기슭에 차를 멈추시고 어둑한 새벽빛에 싸인 강변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의 뒤로 군관복을 입은 부관과 사민복에 기관단총을 멘 젊은이가 조심스레 따라갔다.

한가울의 새벽날씨는 사뭇 쌀쌀하였다. 이따금 소슬한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주변의 나무들에서 후둑후둑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이께서는 한쪽가지들이 뭉쳐 부러져나간 강가의 수양버들앞에서 문뜩 걸음을 멈추시였다. 상처입은 외팔모양의 수양버들옆으로 무너진 강뚝과 비수의 섬광처럼 희번뜩이는 강물이 내다보이였다. 남쪽 어디에선가는 여전히 둔중한 포소리가 울려왔다.

《장군님, 이젠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초조히 시계를 들여다보고있던 부관이 그이께 한걸음 다가서며 안타까이 아뢰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돌과 흙이 험상하게 파헤쳐진 강뚝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냥 서계시였다.

《어떻게 쌓은 강뚝인데 이렇게 마사버리다니...》

그이께서 흙무지에 구겨박혀있는 판돌 하나를 두손으로 들어올리시였다. 무너진 석축의 잔해였다.

1946년 봄 그이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단 55일동안에 오랜 세월 재난으로 이어지던 눈물의 보통강을 웃음의 강으로 전변시키신 새 조선의 락원의 뚝이 상처를 입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판돌을 강뚝자리에 내려놓고 희벗이 어둠이 가시여지기 시작하는 강변을 둘러보시였다.

쿵, 쿵... 포소리는 점점 더 잦아졌다. 이제 날이 밝으면 적기의 공습이 또 시작될것이다.

전쟁의 포성이 울린지도 벌써 석달, 이 땅의 귀중한 창조물들과 천연재부들이 총탄, 포탄, 폭탄에 마사지고 불에 타고 연기에 그슬고있었다. 집이 무너지고 강다리들이 끊어지고 가로수들이 부러져나갔다. 해마다 추분, 한로철이면 이 나라 푸른 하늘로 대렬을 짓고 날아오군 하던 기러기떼도 이 가을엔 보이지 않고 그대신 적비행기들이 까마귀처럼 무시로 몰려와서 도시와 마을들에 마구 불을 뿜어댔다.

《지동무!》

김일성동지께서 기관단총을 메고서있는 이제 스물예닐곱 되여보이는 사민복차림의 젊은이를 돌아보시였다. 그가 바로 우리 나라 기관단총의 첫 설계가인 지응모였다. 간밤에 군자리병기공장에서 갑자기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사령부에 들렀던 그는 그길로 영문을 모른채 그이를 따라 여기까지 왔었다.

《응모동무, 피곤하지?... 온밤 자지 못했으니.》

《피곤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전 하루밤 새우지만 장군님께서는 늘 이렇게...》

군인처럼 절도있게 대답을 올리던 지응모는 목이 메여서인지 뒤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직까지도 그는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자기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평북도 룡천군의 이름있는 목사의 아들인 지응모는 일본제국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공부할 때 무기설계가로 될 생각은 꼬물만큼도 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대학에서는 병기공학도 취급하였는데 그때 그는 동료들에게 반룡조로 이런 말을 했었다.

《하느님은 총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총을 만드는 사람을 더 나쁘게 보네. 그때문에 무기제조업자는 죽으면 련옥을 거치지 않고 제창 제일 무서운 지옥칸으로 끌려간다네.》

사실 이것은 그의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독실한 그리스도교인이며 목사인 아버지한테서 자주 들어온 소리였다.

그러던 목사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지옥의 문과 통해있는 살륙무기제조소인 평천병기제조소에 끌려온것이였다. 태평양전쟁시기 일제는 실력이 높은 공과대학졸업생들을 강제로 병기공장들에 보냈었다.

지응모는 이러한 희비극적인 운명의 희롱속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병기전문가, 무기설계가로 되었다.

그러나 과거는 어떻든간에 오늘의 지응모는 온넛을 무기생산에 쏟아붓는 열정적인 무기설계가, 무기애호가였다.

지응모의 인생전환은 1945년 10월 2일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전 병기제조소가 있던 평천리를 시찰하신 그날을 계기로 일어났다.

그날 **김일성**동지께서 깨여진 벽돌조각들과 쇠붙이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병기제조소구내길을 걸으면서 먼저 찾으신것이 곧 사람, 장차 조선의 병기를 생산할 인재였다. 일본이 망하자 평천병기제조소도 풍지박산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가고 두사람만이 남아있었는데 그중의 한사람이 지응모이고 다른 한사람은 50대에 이른 김만수라는 중로배의 연공이었다.

당시 병기제조소의 광경은 너무도 처참하였다. 부지면적은 넓었지만 건물은 하나도 성한것없이 다 파괴되었다. 평천리에서 살륙무기를 만들어내던 일제가 도망치면서 모조리 다 파괴해버렸던것이다. 놈들은 모든 기술문헌과 공구, 형타, 원료, 자재들을 창고안에 걷어넣고 모조리 불태워 재가루로 만들었으며 일부 중요한 설비들은 청진항으로 해서 배에 싣고 가려다가 우렁찬 해방만세소리에 바빠맞아 배를 폭파시켜 청진앞바다에 처넣어버리는 비렬한짓을 하였다.

이날 **김일성**동지께 병기제조소의 피비린 역사를 겨끔내기로 말씀드린 사람들이 지응모와 김만수였다.

평천병기제조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었다. 김만수는 1916년에 조업을 시작한 최초의 평양병기제조소때부터 소년로동을 강요당했던 오랜 연공이었다.

처음 만수는 선반공으로서 총을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막일을 하였다. 그 역시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드는 일을 하기가 싫었던것이다. 그래서 선반을 돌리라고 강요하는 십장놈에게서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기계를 쥐지 않고 막일을 하다가 마침내는 연공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응모는 이곳에 배치된 이후 병기설계를 하여 졸업증과 기사자격증을 받았었다. 당시 일제는 현장에서 실력을 보여야만 졸업증도 주고 로임도 높여주었다.

지응모는 **김일성**동지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조선사람을 죽이는 총을 직접 만들어낸 죄인입니다. 극형을 받아야 할 역적입니다.》

지응모는 법정에 오를 각오를 가지고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어낸 병기와 병기부속품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다 말씀올리었다.

《친일파역적들은 다 도망쳐갔는데 당신은 왜 도망치지 않고 여기 남아있소?》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김만수가 허리를 꺾어버리고 지응모를 두둔하였다.

《장군님, 이 기사는 선량한 목사의 아들입니다. 하고싶어 한 일이 아니옵니다. 이 기사는 사형을 받을지언정 여기 조금 남아있는 기계들을 잘 보관했다가 나라에 바치자고 했습니다.》

《허허허... 그러고보면 역적이 아니라 애국자로군.》

그때 지응모는 **김일성**동지의 웃음소리가 폭포소리처럼 느껴졌다.

《지응모동무, 오늘 동무를 알게 된것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기를 만들어야지?》

《장군님, 제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신다면 기계공장에 가서 힘껏 일을 해서 지은 죄를 씻고저 합니다.》

《총을 안 만들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땅바닥에 떨어져있는 누런 총탄껍지를 집어들며 웃음기를 띠고 말씀하시였다.

《일제놈의 총은 만들고 조선의 총은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장군님! 사람 죽이는 총을 더는… 만들고싶지 않습니다.》

불현듯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지응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뇌와 번민으로 응어리진 뺨뺨에서 짜나오는듯 한 기름같은 눈물이였다.

《응모동무, 사람을 죽이는 총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고 인민을 보호하는 총을 만들라는거요. 살인귀들을 죽이는 총을 말입니다. 동무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데 하느님도 무슨 무술이 있기때문에 사탄을 이기는게 아니겠소. 이제부터는 동무가 인간을 살륙하는 모든 비인간적인것들을 쓸어버리는 정의의 총을 만들어 악인을 소멸해야 합니다. 평천리에 조선의 병기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동무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요에 의해 하는 일은 잘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며칠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고 결심을 내리시오. 동무네 과학자들이 말했소, 힘이 없는 정의는 무효이고 정의없는 힘은 포악이라고…》

그것이 바로 5년전 이맘때 10월초에 있던 일이였다.

《지응모동무!》

잠시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있던 지응모는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에 고개를 쳐들었다.

《우리에게 총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지금쯤은 우리가 미제침략자들을 남쪽땅에서 완전히 내쫓았을거요. 우리는 총이 없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소, 총이 넉넉했더라면 우리 전사들이 피를 적게 흘릴수 있었고 전쟁을 속전속결할수 있었소.》

지응모는 불시에 가슴이 터지는듯싶어 부지중 입술을 깨물었다.

《저희들이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총이 넉넉치 못한것은 전적으로 우리 무기제조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런 말을 듣자는게 아니요. 해방후 우리 병기공장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창조물은 사실상 신화에 나오는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상징이었소. 내 말하자는건 우리 나라 현대무기생산력사가 너무도 짧다는거요.》

그 력사는 해방후 3~4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렬강들의 현대무기생산력사는 2백년이상이나 되었다.

우리는 현대병기공업의 유년기에 전쟁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해방후 몇년동안 하루를 십년맛잡이로 병기공업을 발전시킨 덕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된벼락을 안길수 있었다.

전쟁이 개시된지 한달반동안에 우리 인민군대는 남조선괴뢰군의 기본력량과 미제의 주력을 답새겨 남조선의 90프로이상 지역에 공화국기발을 꽂고 인구의 92프로이상을 해방하여 미제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런데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으며 남쪽땅 마지막구석인 부산바다기슭에까지 쫓겨갔던 미제가 패망에 직면하게 되자 부랴부랴 태평양방면에 배치되어있던 륜해공군전부와 지중해함대의 일부 그리고 15개 추종국가의 군대들까지 끌어모은 수십만의 대병력을 조선전선에 들이밀게 하여 지난

9월 하순부터 나라의 군사정세가 급변하게 되었다. 《유엔군》간판을 내건 수천대의 비행기가 조선의 하늘을 뒤덮고있고 수백척의 함선들이 바다를 에워쌌다.

적아간의 군사력량에서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었다.

최고사령부에서는 시급히 군사력량을 정비보충하고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반격을 가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일시적후퇴를 하도록 각 부대들에 명령을 내리었다. 이것이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이었다.

인민군대와 함께 내각을 비롯하여 성, 중앙급 기관들도 소개지로 떠난지 벌써 여러날이 되었다. 평양시민들도 거의다 안전지대로 소개되어 이 새벽의 평양시가는 인적기없이 조용하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을 떠나지 않고 최고사령부에 남아 전선과 후방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계시었다.

이 엄혹한 시각에 그이께서 지응모를 부르신것이다.

《장군님,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 어떤 일도 다 해내겠습니다.》

《고맙소. 털어놓고 말하면 너무 어려운 과업이여서 그러오. 나는 지금 전선사령관 김책동무를 기다리고있소.》

지응모는 극도의 긴장속에서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었다.

《김책전선사령관은 아군의 전략적후퇴를 보장하기 위해 월미도전투와 서울방어전투를 지휘한데 이어 평양방어전투를 지휘해왔소. 나는 략동강계선에 있던 인민군연합부대들이 성과적으로 철수한 조건에서 김책전선사령관에게 한시바빠

최고사령부로 돌아올데 대하여 여러번 무전을 날리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고
 연락군관에게 당원증만 보내여왔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말씀을 끊으시였다. 불현듯 가슴이 저려나고 목이 메어
 말씀을 이으실수 없었다.

그 당원증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김책에게 있어서 당원증은 장군님을 따르는 녀이였고 심장이였다.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당, 필승불패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그의 신념이였고 의지였다. 하기에
 김책은 언제나 당원증을 자기 육신의 한 부분처럼, 심장처럼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쟁의
 불비속을 헤쳐다니였었다. 노도처럼 적진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던 남진의 길에서도,
 서울, 인천방위를 지휘하는 불바다속에서도 단 한번도 당원증을 몸에서 떼낸적이 없는
 김책이였다. 그런데 최고사령부의 부름을 받은 준엄한 이 시각에 그는 어찌하여 어느
 한순간도 몸에서 떼낸적 없던, 심장처럼 간직한 그 당원증만을 최고사령부에
 올려보냈는가. 그 당원증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과 전략적후퇴의 길을 지켜내려는
 김책의 비장한 결사의 맹세가 담겨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으나 김책의 당원증을 보시는 순간 연락군관에게 엄하게 물으시였다.

《전선사령관은 오지 않고 왜 동무가 이 당원증을 가지고 여기로 왔는가?》

《장군님!》

몸을 떨며 오열을 씹어삼키는 연락군관의 충혈된 눈에서 피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이께서는 그 눈물을 보며 한층더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전선사령관에게 말하십시오. 김책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김일성**성**이도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이것은 바로 지응모가 최고사령부에 도착하기 몇시간전에 있는 일이었다.

김일성**성**동지께서는 그때의 일이 다시금 감쳐와 포성이 울리는 새벽하늘 먼곳에 눈길을 보내시였다.

《김책이!...》

조용히 그러나 절절히 김책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지응모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응모동무, 최고사령부의 부름을 받은 김책부수상이, 전선사령관이 왜 당원증만을 보냈겠소?》

그이께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있는 남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어둠이 가시여지는 희뽁한 새벽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있었다. 지응모는 그 별이 마치도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지키는 전사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왜 당원증만을 보냈는가?)

거기에는 너무도 큰 의미가 담겨있어 연락군관이 그러했듯 지응모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있었다.

《응모동무!》

이윽고 새벽공기를 울리는 김일성**성**동지의 부르심에 지응모는 눈물을 씻으며 머리를 쳐들었다.

《인천, 서울방위전투를 지휘하고 돌아온 전선사령관은 수도방위를 위해 전사들과 함께 한목숨바칠 각오를 하고있소. 현재 총이 모자라니 그들은 모두 그런 각오를 하고있단 말이요. 원쑤들 천놈, 만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우들이...》

지웅모는 가슴에 북받치는 격정으로 하여 그이의 마지막말씀을 정확히 가려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벌써 자신이 위대한 영웅서사시의 주인공들속에 함께 서있다는 더없이 긍지롭고도 비장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장군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어떤 일도 다 해내겠습니다.》

결연히 웨치며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이께서는 지웅모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었다.

《우리 전사들이 총만 넉넉하면 왜 그런 모진 생각을 하겠소? 그래서 나는련락군관에게 700정의 기관단총을 보내주겠다고 했소. 기관단총만 담보되면 김책부수상은 최고사령부로 돌아올거요. 병사들이 결사전을 하겠다는데 전선사령관이 그들을 버리고 어떻게 오겠소... 내가 동무를 부른것은 700정의 기관단총때문이요.》

(아, 그래서 장군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데리고 평양시가를 돌아보시는구나!)

지웅모는 인두에 지지우는듯 눈뿌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물때쳐서 다시금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응모동무, 700정의 기관단총을 될수록 빨리 만들어내야 하오. 이것은 이미 군사위원회결정으로 채택됐소.》

《장군님!..》

지응모는 격한 목소리로 그이를 불렀으나 자신의 웨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저 북받치는 걱정을 참을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부른것이다.

《나는 처음 병기공장 지배인이나 당위원장을 부르려다가 이 과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담당자인 동무를 먼저 찾았소. 실지 700정을 만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기관단총설계가이며 병기기사인 동무가 제일 잘 알수 있기때문이요.》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어제 군사위원회에서는 군자리병기공장을 제2계단작전방침에 따라 수풍지구로 들여보내 수류탄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결정도 채택했소. 그러니 공장설비들을 수풍으로 옮기는것과 함께 70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하여야 할 두개의 어려운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었소.》

《군자리병기공장을 수풍으로 이설하게 됩니까?》

지응모는 놀라서 눈을 홑뜨며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병기공장을 이설한다는것이 간단하지 않기때문이였다. 그는 전쟁 제2계단작전기간에는 부득불 무기생산을 중단하게 되리라고만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물론 평천리병기공장을 군자리로 옮길 때처럼 공장설비들을 몽땅 떠옮기는것은 아니고 우선 수류탄생산과 일부 무기생산에 필요한 설비들만을 옮기자는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간단한 일이 아닐거요. 평천리병기공장을 군자리로 옮길 때에 동무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평천리병기공장을 평남도 성천군 군자리로 옮긴것은 인민군대가 한창 남진하고있을 때였다. 군자리병기공장은 광산굴속에 전개한 우리 나라의 첫 지하공장이였다. 공장을

이곳에 옮긴 덕에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폭격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고 기관단총과 각종 공격용포들, 포탄, 총탄, 수류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었을뿐아니라 공장의 규모도 훨씬 늘일수 있었다. 해방초기에는 백명도 되지 못하던 공장종업원이 이제는 1만명가까이로 늘어났다. 군자리 백양산밑에는 일본광주놈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욕심스레 파먹던 아연광산 옛굴들이 많았다.

지난 7월 공장이설 당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수송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200여대나 되는 군용화물자동차와 수백명의 군인들을 보내주시었다.

하지만 이설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적비행기들이 끊임없이 달려드는 속에서 진펄과 기복이 심한 자드락길, 물웅덩이와 파괴된 도로들로 200여대의 자동차를 몰고가는것도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육중한 설비들을 자동차에 싣고부리우는 작업은 더 어려웠다.

수백기나 되는 집채같은 병기설비들을 백수십리의 먼곳으로 이설하였으니 그것은 하나의 도시를 옮기는것과 맞먹는 일이였다. 하지만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이 어려운 이설작업을 한주일동안에 해치우고 련이어 무기생산을 했었다.

《병기공장을 군자리로 옮길 때 김만수아바이가 희생됐지. ...》

그때의 일을 추억에 떠올리시는 **김일성**동지의 음성은 퍼그나 같리시였다.

《해방직후 평천리병기공장자리를 돌아보러 갔을 때 지웅모동무를 두둔해주던 만수아바이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의 맏아들도 병기공장 로동자로 일하다가 1949년에 반동놈들에게 희생되었지요.그의 이름이 김영욱이었던가. 병기공장을 군자리로 이설할 때는 안하길이라는 기계공청년이 희생되고...》

지응모는 뜨거운것이 명치를 북받쳐올라 저도 모르게 눈을 꺾 감았다. 지난날 병기공장에서 벌어진 세부적인 사건들과 평범한 노동자들의 이름까지도 잊지 않고 깊이 새겨두고계시는 **김일성**동지의 사랑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던것이다.

《이제 병기공장동무들이 수풍으로 옮겨가자면 그때보다 더 힘들수 있습니다. 수류탄생산을 위한 일부 설비들만을 옮기지만 이전처럼 자동차를 낼 형편이 못되어 전체 성원이 도보행군을 해야 합니다. 적기의 공습은 그때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수풍으로 가서 수류탄을 생산해야 합니다.

왜 수류탄을 생산해야 하는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북부 산악지대에서는 수류탄이 왕입니다. 놈들을 골안에 몰아넣고 수류탄벼락을 안기면 됩니다. 늦어서 한두달후에는 우리가 재진격하게 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재진격의 구상을 펼치고계시누나!)

《응모동무! 이제 김책부수상을 군자리로 내려보내자고 하오. 부수상을 불렀소. 전선사령관을 부른것만 보아도 우리가 병기공장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알수 있을거요. 수풍으로 이동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것은 700정의 기관단총이요. 응모동무, 할수 있겠소?》

지응모는 아직 아무런 타산도 없었으나 비장하게 대답을 올리였다.

《장군님,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응모동무, 보통 어려운 과업이 아니요. 나는 어떤 가능성을 내다보고 동무들에게 과업을 맡기는게 아니요.

다만 확신한것은 700정의 기관단총만 더 있으면 우리 병사들이 큰 손실이 없이 필요한 시간만큼 평양방어전투를 해낼수 있다는거요.》

지응모는 이윽히 침묵을 지키었다. 문제의 심각성에 마음이 무거워졌는지 부관도 그이께 자리를 뜨시자는 독촉을 못하고 묵중히 서있었다.

《날이 밝는군. 평양시가를 좀더 돌아봅시다. 다니면서 생각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 강기슭에서 돌아서시였다.

이윽고 그이를 모신 풀색군용승용차가 희뵈히 밝아오는 보통강기슭의 깨여진 포도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갔다.

《응모동무, 월미도방어전투소식은 다 알고있겠지?》

김일성동지께서 옆자리에 앉은 지응모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히 물으시였다.

《예,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것은 모를거요. 전지가 있으면 읽어보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글 타자문 한통과 영어활자로 된 인쇄문 한통을 지응모에게 주시였다. 우리 글로 된 타자문은 월미도방어전투에 참가한 해안포중대 전투원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전투상보였고 영어인쇄문도 역시 월미도전투에 대하여 기록한 영국 로이터통신자료였다.

《지동무, 두통 다 읽어보시오. 번역문도 있지만 동무는 영어를 잘 알기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왔소,》

지응모는 후두두 뛰노는 가슴을 붙안고 먼저 우리 나라 글로 된 타자문에 전지불을 비치였다.

2

지응모는 상처입은 평양시가로 천천히 미끄러져가는 승용차안에서 온 신경을 모두어 월미도전투상보의 한자한자를 뜯어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차창밖을 내다보며 월미도전투상보의 격렬한 글줄들을 속으로 더듬으시였다.

《월미도전투, 이것은 세상사람들에게 반드시 다 보여주어야 할 피사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물과 분노의 웨침을 담은 가장 비장하고 가장 숭고한 혁명적비극의 전투상보를 세상에 전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허두를 댄 월미도전투상보의 글줄들이 그대로 우뢰같은 소리로 변환되어 귀전에서 메아리치는것 같으시였다.

포 4문을 가지고있는 인민군대 한개 해안포중대와 한개 보병중대가 방어하고있는 월미도로 미제침략자들이 5만여명의 병력과 1 000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함선을 가지고 달려들어 0.66평방키로미터밖에 안되는 작은 섬이 불바다로 되었다고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섬이 불덩이로 된 처절한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며 격분을 참지 못해 주먹을 움켜쥐시였다.

제가 지른 전쟁의 불에 제가 타죽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미제는 제놈들의 육해공군들뿐아니라 추종국가들의 군대들까지 끌어모은 20여만의 대병력과 수많은

비행기, 함선, 탱크들을 조선전선에 들이민것이였다. 그리하여 랑동강계선에서 《총공세》를 진행하는 한편 인천에 상륙하려고 월미도를 것처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월미도용사들은 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 미제를 완전히 타승하였다.

월미도전투상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월미도방위자들은 아군 1명이 적군 1 000여명을 당해야 하고 1문의 포가 적의 1 000문의 포, 수많은 비행기, 함선들과 맞불질을 하여야 하는 불바다의 3일간 전투에서 적구축함 3척을 포함하여 각종 함선 13척을 격침, 격파하고 수만명 적의 상륙을 지연시킴으로써 인천-서울지역 방어부대들에 귀중한 시간을 보장해주었으며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인류해전사에 없는 불멸의 공적을 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대목을 상기하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였다.

《귀중한 사람들, 우리 월미도영웅들은 한명도 돌아오지 못했다, 한명도…》

그이의 눈귀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이께서는 월미도영웅들이 거의다 인간의 생이 영원하다고 생각되는 시절인 10대, 20대의 청춘들이여서 더욱 가슴이 아프시였다.

월미도전투상보에는 이런 글도 씌여있다.

《…조그마한 쪽배 하나가 파도에 밀려 나무잎사귀처럼 동동 떠서 초토화된 월미도기슭에 와닿았다, 배안에는 뜻밖에도 머리가 흐트러지고 온몸이 피로 랑자해진 녀인 한명이 포탄 두발을 가슴에 붙안고 누워있었다.

각일각 생명이 꺼져가는 속에서 녀인은 시꺼멓게 불에 그슬은 월미도용사들을 올려다보며 간신히 마지막말을 남기었다.

<저는 서울 룡산철도공장의 녀당원 심옥심입니다... 포탄 두발을... 가져왔어요. 한가지 부탁은... 서울에 16살나는... 김은순이라는... 제딸이 있는데... 이 편질... 전해주세요.>

심옥심은 뚝 부릅뜬 눈으로 밀려오는 적함들을 쏘아보며 숨을 거두었다. 녀인의 피젖은 편지에는 <은순아, 서울신문에 모셨던 **김일성**장군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북으로 가거라.>라는 짧은 글이 씌여있었다.

아, 원한을 품고 쓰러진 녀당원이여! 그대의 유언을 인천방어전투를 지휘하는 전선사령관 김책동지에게 꼭 전하리라!》

이것은 월미도용사들이 최후결전에 나서기 직전에 있던 일이였다.

형체없이 불에 그슬고 상처입은 월미도용사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답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지막전보문을 날리고 적들을 향해 사자와 같이 돌진하였다. 그들의 전보문에는 물론 심옥심녀당원의 부탁도 담겨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용맹한 투사들에게 다문 10문의 포와 100발의 포탄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살아서 돌아올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으시였다.

우리 인민군대가 일껏 락동강계선까지 나갔다가 돌아서게 된것도 총이 모자랐기때문이었다. 그때 소련으로부터 무기원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실현될수 없었다.

이제 **김일성**동지께서 더욱 굳게 간직하시게 되는것은 오직 자위적인 국방건설만이 조국의 운명을 지켜낼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해방후 그만큼이라도 병기공업을 추세웠기망정이지 우리 공화국의 운명은 이미 끝장난지 오랬을것이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무기생산을 계속하실 결심을 굳히시였다. 그이께서 병기공장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수풍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대량 생산하도록 군사위원회결정을 채택하신것은 바로 그때문이었다.

요즘 **김일성**동지께서는 12살 어린신 나이에 단신으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가시던 일을 유난스레 자주 추억하게 되시였다. 그때 지나가신 직고개와 명문고개, 오가산령들은 대낮에도 사나운 맹수들이 어슬렁거리는 무시무시한 백리무인지경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무서움보다는 거기에 있는 모든 맹수들이 뛰쳐나와 왜놈들을 모조리 물어메쳤으면싶은 동화적인 공상을 하며 컴컴한 숲속을 헤쳐가시였었다.

놀라운 일은 요즘 그이께서 어린시절 독립의 날을 고대하며 애끓는 공상속에서 바라보셨던 그 땅, 북부내륙의 천연요새지들에서 실지로 성난 맹호의 대부대가 뛰쳐나와 침략자들을 모조리 물어메치게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신것이였다. 다시말해서 나라의 군사정세가 변화되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게 된 전쟁

제2계단기간에 북부내륙의 요새지들에 현대적인 지하병기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길 착상을 하신것이다.

그이께서는 현재 군자리지하병기공장에 기관단총직장, 박격포직장을 비롯한 각종 병기생산직장들이 꾸려져있는 조건에서 북부내륙의 깊은 후방에 지하공장의 건설면적을 조성하기만 하면 이미 꾸려놓은 무기생산직장들을 독립적인 병기공장들로 확대발전시켜 삼시에 수많은 무기공장들을 일떠세울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병기공업을 발전시키면 그에 따라 전반적기계공업수준도 높아져 병기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강대한 중공업토대도 마련할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십분 가능하며 전쟁2계단작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말그대로 역경을 순경으로 돌리는 전화위복의 경륜적인 착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부내륙의 천험의 요새지들에 우리 식의 철벽의 지하병기생산기지들을 꾸릴 결단을 이미 내리시였다.

승용차는 여전히 평양시가지를 돌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월미도전투상보문을 들여다보며 타자종이장을 눈물로 적시고있는 지응모를 묵묵히 지켜보시였다.

월미도전투상보를 다 읽은 지응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나서 련이어 영문으로 된 로이터통신자료를 집어들었다.

로이터통신은 월미도전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했을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풍자적색채가 짙은 그 글의 마지막대목만을 보아도 짐작할수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유감은 오늘 영국땅에 유명한 비극작품들을 인류에게 선사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없는 사실이다.… 손바닥만 한 섬에 연합군의 1 000대의 비행기, 미태평양함대의 500척이 넘는 함선, 10군단의 수만명의 선견대병력을 투입하여 시간당 2 000발이상의 포탄을 날리며 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장군의 <공로>를 만약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어 제 눈으로 보았다라면 200여년의 승리의 전쟁사를 기록한 미합중국이 오늘의 조선전쟁으로 하여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고 야유하는 <20세기 미국의 비극>이라는 세계적인 비극작품을 창작했을까 누가 알랴. …》

로이터통신은 월미도에 상륙한 미군의 한 장교가 저들의 5만여명의 병력, 1 000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함선을 대항하여 싸운 인민군대의 력량이 한자리수의 포를 가지고있는 두개의 중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분열을 일으킨 자료도 마지막결구에 덧붙이었다.

승용차는 모란봉기슭에 이르러 발동을 멈추었다. 거기에 한 군관이 군마의 고삐를 쥐고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차에서 내려 레의 군관과 이야기하실 때까지도 지응모는 월미도전투상보에서 받은 충격때문인지 눈을 감고 승용차안에 그냥 앉아있었다. 그는 승용차가 벗어선것도, 김일성동지께서 차밖으로 나가 기다리고계시는것도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그는 말투레질소리를 듣고야 차문을 열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응모동무, 뭘 그렇게 생각했소?》

《장군님, 포와 포탄이 모자라 희생된… 월미도용사들을 생각하니… 저희들의 죄가 많습니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기어이 70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하겠습니다.… 1939년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녀투사들이 장군님의 명령대로 600벌의 군복을 지어낸것처럼… 돛바늘을 갈아 재봉바늘을 만들어 재봉기를 돌린것처럼…》

《됐소, 됐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목이 메여 떠듬거리는 지응모의 잔등을 두드려주시었다.

항일투사들의 무기제작경험을 배우기 위해 그들과 자주 접촉해온 지응모는 진심으로 항일혁명정신을 본받고저 노력하는 사람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이 고맙고 대견스러우시였다.

《응모동무, 웁소.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소. 자, 이제 헤어집시다. 빨리 이 말을 타고 군자리로 가시오.》

그이께서는 군관이 쥐고있는 말고삐를 지응모에게 넘겨주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 김책부수상이 오면 곧 군자리로 보내겠소. 군자리에 가면 거기 동무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시오.》

《장군님, 알겠습니다.… 장군님께서 빨리 여기를 뜨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일없소.… 응모! 조심히 가라구…》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 지응모를 꼭 그러안으시였다.

흰히 동이 트는 새날의 신비로운 빛이 굳게 포옹한 수령과 전사를 부드럽게 비치고있었다.

3

군자리지하병기공장 소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천정도 벽도 바닥도 수억년세월 자연의 동란속에서 굳어지고 비틀어지고 변성된 태고의 바위들로 되어있는 이 굴간에서 변화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공장당확대위원회가 열리고있었다.

집행석에는 당위원장 현무광, 산업성 병기생산국장 고정한, 지배인 리환구가 탁상을 마주하고 앉아있고 그밖의 회의성원들은 돌뿌다귀가 울퉁불퉁 뺨여져나온 굴바닥에 널판자들을 깔고앉아있었다. 원래 현무광당위원장은 최고사령부의 부름을 받은 지웅모가 돌아온 다음 모임을 조직하려고 하였으나 병기생산국장 고정한이 내려와서 군자리철수문제를 불같이 독촉하여 앞당기게 되었다.

론쟁의 초점은 군자리에서 철수하느냐, 여기 남아서 결사전을 하느냐 하는것이였다.

누군가가 이제는 할수없이 공장을 남겨두고 자리를 뜨는 길밖에 없다고 하자 제일먼저 열을 올린 사람은 기관단총직장 강선작업반장 류일룡이였다. 병기공장의 최고강선기능공인 그는 성질이 몹시 급하고 충격을 조금만 가하면 화약처럼 폭발하는

사람이었다. 맨 뒤쪽에 앉아있던 그는 쇠덩이같은 크고 시커먼 주먹을 휘두르며 사납게 웨쳐댔다.

《뭘, 후퇴하자구요? 쇠덩이를 주물러 총을 만드는 우리가 정신있는 소립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목을 매 끌어도 난 못 가겠습니다.》

류일룡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아서 가뜩이나 공명이 잘되는 굴안이 장갑차가 굴러가듯이 와릉와릉 울리었다. 쇠기둥같이 억센 체구, 칼자리같은 허연 허물자리와 피멍같은 시꺼먼 반점들이 엉켜있는 철색의 너부죽한 얼굴, 초리가 내리드리운 눈썹... 류일룡은 외모부터 우락부락해보이는 병기공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포탄직장 선반작업반 반장 유락종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병기공장의 최고선반기능공이었다.

지금 병기공장에서는 유락종을 《포탄직장 선반작업반 반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전선지원청년작업반 반장》이라는 부름에 더 습관되어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가 기관단총직장 총신가공작업반장과 토론하고 당조직의 지지속에 두 작업반에서 전선지원청년작업반운동을 발기하였기때문이었다.

선반절삭기능의 제1인자이고 전선지원청년작업반운동의 발기자인 그를 병기공장사람들은 모두가 존경하였다.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이제 26살의 청년이지만 노동자들은 그를 로장처럼 어렵게 대하였다.

유락종은 품성이나 성격, 기질에 있어서도 류일룡이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류일룡은 아무때건 건드리면 폭발하는 지뢰이라면 유락종은 필요한 시간에만 터지는 시한탄이라 할가, 아무튼 그는 침착하고 조용하다가도 필요한 때에 용맹을 떨치고 열정을 내뿜는 웅심깊은 사람이였다.

유락종이와 류일룡은 외모에서도 판이하였다. 류일룡은 울퉁불퉁한 거친 얼굴이지만 유락종은 전체적으로 매끈한 미모의 청년이였다. 류일룡이보다 다섯살이나 아래인 유락종에게 있어서 또 하나 특이한것은 격술을 잘하는것이였다.

유락종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강선작업반장 류일룡동무와 같은 생각입니다. 피와 땀이 배여있는 공장을 남겨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기관단총직장에는 조립하면 쓸수 있는 총이 수백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박격포직장을 비롯하여 포탄직장, 총탄, 수류탄직장들에도 생산중에 있던 반제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무기들을 빨리 손질해서 공장을 지켜냅시다.》

《철수하지 않고 싸우잔 말이지. ...》

현무광당위원장과 지배인사이에 앉아 노동자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고정환이 생각깊은 어조로 중얼거리더니 지배인 환구를 돌아보았다.

《지금 공장에 조립할수 있는 반제품 아브또마트(기관단총)가 얼마되는가?》

쏘련에서 병기공학기사증을 받았고 씨비리땅크공장에서 로동을 한적도 있는 고정환은 아직까지도 무기이름을 부를 땐 조선말보다 로어가 입에 올라있었다.

《한 400여정은 될겁니다.》

《400정? 괜찮아. 그런데 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다 조립할수 있을까? 적들은 코앞에 와있소.》

700정의 기관단총을 만들데 대한 전투임무가 떨어진것을 모르고있는 이들은 400정이라는 이 수자도 엄청난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폭격에 전주대 하나 온전히 서있는게 없습니다. 전기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고정환이 지배인과 일문일답을 하고있을 때 기관단총직장 총신가공작업반장 조규성이 일어섰다. 그가 바로 유락종이와 함께 전선지원청년작업반운동을 발기한 사람이였다.

총신처럼 몸매가 곧바르고 단단해보이는 조규성이드 병기공장 초창기로동계급이며 류일룡, 유락종들과 같이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여러번 받은 고급기능공이였다.

《전기가 없어도 항일유격대의 병기수리소 투사들처럼 일하면 못할게 뭘니까. 장군님께서 우리한테 산에서 폭탄 만드시던 이야기랑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관단총직장 작업반장들중의 한사람으로서 며칠내로 40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해내겠다는걸 맹세합니다.》

조규성의 선동적인 토론이 모임참가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듯 침울하게 가라앉아있던 장내에 활기가 살아났다.

《종소!》

고정환이 주먹으로 탁상을 꺾 눌렀다. 《로씨야사람들은 철공은 남성적이고 목공은 여성적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이 옳은것 같소. 철공중에도 총을 만드는 철공은 강철의 사나이들이지. 동무들의 기세를 보니 나도 힘이 생깁니다.

400정의 기관단총만 조립해도 대단한 무장이요. 안 그렇소? 지배인동무.》

《예, 무장도 무장이지만 종업원이 1만명 가까이 되니만큼 이 인원이면 공장 하나쯤은 보위하고도 남습니다. 사단병력이 아닙니까!》

고정한의 의도를 알아차린 리환구가 방금전의 우유부단한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다.

방안은 한층더 술렁거리었다. 모임참가자들이 흥분에 떠있을 때 포탄생산직장 책임기사 박홍근이 화약시약들에 험상하게 튼 손으로 코허리에 내려앉은 검은테안경을 추스르며 일어섰다.

고정한은 흰 이마가 두드러지고 뒤통리가 나온 박홍근의 재사형의 얼굴을 꺾꺾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고정한이 쌀쌀하게 말했다.

《뭐요? 말하오.》

《철수하느냐, 여기 남아서 공장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상급의 지시를 받은 다음 토론할 문제가 아닐가요?》

《동무, 여기 앉아있는 국장은 뭐요? 상급이 아니고 허수아비요? 무기를 가지고있는 병기공장에서는 빠르찌잔을 하라는것이 바로 상급의 지시요.》

고정한은 빨찌산이라는 말도 로씨야어로 하였다. 그는 방안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한음계 높이였다.

《그렇소. 우리는 빠르찌잔을 해야 합니다. 이자 류일룡동무는 목을 매 끌어도 군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심정을 리해할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군자리지하공장을 어떻게 건설했는가? 평천리에서 군자리로 병기설비들을 옮겨올 때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두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 작업장들이랑 회의실이랑 어떻게 꾸렸는가?》

열정적으로 내뿜는 고정환의 수사학적인 질문은 회의참가자들에게 곱팡내 풍기는 침침하고 어지러운 군자리폐갱을 확장정리하여 공장설비들을 들여놓던 간고한 나날들을 감회롭게 돌이켜보게 하였다.

평천리에서 군자리로 공장설비들을 이설했을 때 애초에는 굴이 비좁고 버럭더미와 오물들이 어지럽게 쌓여있어 공장설비들을 들여놓을 형편이 못되었다. 그래서 백양산밑 난장에 각종 기계설비들이 눈이 모자라게 산재되어있었다. 그무렵 몸소 전선사령부에 나가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긴장한 속에서도 군자리실태를 료해하시고 군자리폐갱을 확장하여 무기생산면적을 조성하는 한편 공장로동계급의 생활터전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군사위원회지시로 동발용목재와 건설자재를 비롯하여 수많은 생활도구들을 군자리에 보내주시었다.

공장당위원회는 굴어구와 작업장에 《싸우는 전선에 한시바빠 총포탄을 보내주자!》,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과 신임에 심장을 바치자!》라는 글을 붙여놓고 폐갱확장정리를 다그쳤다.

굴간확장공사에 폭약을 쓰면 능률이 나겠지만 수류탄과 탄알을 하나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순전히 인력으로 정대와 메로 굳은 암석을 뜯어냈다. 버럭과 오물을 걷어내기 위해 온 종업원들이 질통을 지고 낮에 밤을 이어 어둡고 비좁은 굴속을 달리었다. 합숙식당

취사원들도 난장에서 밥을 지어가지고는 밥버치를 이고 국은 통에 퍼담아 지게에 지고 굴간으로 날라왔다.

굴안확장공사도 간고하였지만 덩치 큰 기계설비들을 굴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또한 여간 힘들지 않았다. 웬간한 설비들은 레루에 태운 밀차로 실어나를수 있었으나 짐채처럼 큰 설비를 다루느라 어깨에 피가 지고 손발이 터지고 입술이 부르텼다.

군자리지하공장은 이렇게 꾸려진것이였다.

고정환은 이때를 상기시키고나서 주먹을 쳐들었다.

《피와 땀으로 생명을 바쳐 꾸려놓은 이 공장을 어떻게 내버리고 가겠는가? 지켜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이미 생산한 무기도 있고 조립할수 있는 기관단총도 400여정 되니만큼 우리는 빠르찌잔투쟁을 하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박홍근동무가 상급의 지시요, 뭐요 하며 뿔뿔한 소리를 했는데 며칠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황해도당위원장을 불러다가 해주사람들은 구월산에 들어가고 사리원, 봉산사람들은 곡산에 들어가 빠르찌잔을 하라고 하셨소. 여기 성천군당에서도 빠르찌잔부대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고 하오. 무기생산자들인 우리야 얼마나 유리한가. 당장 로동자빠르찌잔부대를 조직합시다.》

고정환은 내각부수상으로부터 제2계단작전기간 자기가 병기공장을 책임지도록 과업을 받았다고 강조하고나서 계속하였다.

《우리 빠르찌잔부대는 그전날 방직공들과 농민까자크들로 구성되었던 차빠예브부대보다 대렬구성에서나 무장장비에서 더 월등하오.

위임에 따라 노동자빠르찌잔부대는 내가 직접 지휘하겠소. 부대정치위원은 공장당위원장이 해야 하고 참모장은 공장지배인이 맡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초급지휘성원들은 차후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빠르찌잔은 물론 려단이나 사단급이요.》

《국장동지가 빨찌산을 지휘하겠다고니 신심이 생깁니다. 우리 공장사람들이야 빨찌산에 대한 상식조차 부족하지요.》

지배인의 말이였다. 후퇴하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열을 내어 자기 주견을 발표하였으나 그는 말없이 심사숙고하는 표정을 짓고 이윽도록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고정한의 립장과 견해를 간파하자 비로소 그쪽으로 붙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자신의 립장을 명백히 한것이다. 그는 병기생산국장이라는 고정한의 직위나 직책보다는 그의 뒤에 펼쳐져있는 으리으리한 배경이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고정한은 허가이를 비롯한 쏘련에서 나온 큰 정치간부들과 친분관계가 있을뿐아니라 쏘련 붉은군대의 간부들도 알고있었다.

(병기생산국장에게 빨찌산지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부수상은 누구일까? 교육을 맡은 부수상인 홍명희는 아닐게고 김책부수상은 고국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다 전선에 나가있고... 그렇다면?)

문득 환구의 머리에는 언제인가 박헌영부수상이 고정한을 병기생산국장자리에 앉히우기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본인이 있는 앞에서 격찬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실지 그가 보기에도 고정환은 쏘련의 병기공장에서 로동단련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실력가이니 적어도 산업성 부상이나 보위성 부상자리쯤은 타고앉아있어야 할 재목이라고 생각되었다.

기억력이 비상한 고정환은 쏘련에서 발간된 병기공학편람을 거의다 뜯금으로 외우고있었다. 그러니만큼 자존심도 높았다. 직위상으로는 허가이, 박창옥이들보다 훨씬 낮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우습게 보고있었다.

고정환은 지응모와 박홍근에 대해서도 일본기사라고 하며 업수이 여기였다. 그러다가 언제인가 한번 **김일성**동지로부터 《동문 왜 그들을 일본기사라고 하는가. 그들은 일본기사가 아니라 조선의 기사요. 그들은 일본에서 배운 공학지식보다는 항일투사들의 무기제작경험과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여 조선식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들이요.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그들에게 기사증을 수여했소.》 하고 엄한 꾸중을 들은 후부터 그들을 내놓고 허수히 대하지 못하였다.

지배인의 지지를 받은 고정환은 현무광쪽으로 머리를 돌리었다. 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현무광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자고 호소하는 고정환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좋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의견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현무광에게 있어서 상급의 지시란 **김일성**동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지시였다. 그는 고정환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국장동무, 지응모동무가 어제 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사령부로 갔습니다. 병기공장의 일로 부르신것 같은데 빨찌산부대를 조직하는 문제는 그가 돌아온 다음 이야길 들어보고 아귀를 지읍시다.》

《병기공장의 일이라면 당위원장이나 지배인을 부를게지 하필 기관단총직장 책임기사를 부르시겠소? 내 생각엔 지응모 개인과 관계된 문제가 생긴것 같소. 전화 한통이면 되는건데 장군님께서 이 긴장한 때에 사람을 부르시겠소?... 장군님께서는 지금 병기공장에까지 생각을 돌리실 여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소, 동무들?》

고정환은 낮빛이 표표해져서 회의성원들을 쪽 둘러보았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병기공장은 건설 초창기부터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령도속에서 장성발전해왔으며 그 과정에 공장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그이와 혈육의 관계를 가지고 고락을 같이해왔었다. 오늘 토론한 류일룡, 유락중, 조규성이들과 상급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한 박홍근이도 다 **김일성**동지와 깊은 연고관계를 맺고있는 사람들이였다. 특히 지응모와 박홍근은 **김일성**동지로부터 나라의 인재라고 노상 치하를 받아온 공장에서 쌍벽을 이루는 병기기사들이였다.

현무광이 지응모를 기다리자고 한것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제나 병기공장의 대소사를 다 맡아 보살펴주신 **김일성**동지의 사랑을 굳게 믿고있기때문이였다. 적들이 코앞에 와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어찌 **김일성**동지께서 병기공장에 대해 잊으실수 있겠는가.

현무광은 이제 그이께서 반드시 제2계단작전에 따르는 병기공장에 대한 중요교시가 있으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지배인동무도 지응모동무를 기다리자는거요?》

장내의 침묵이 계속되자 고정환은 현무광에게 등을 돌려대며 지배인을 돌아보았다.

《제 생각은 국장동지의 말씀대로 장군님께서 어떤 개인문제로 지응모를 부르신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도 그렇고 가시아버지될 사람도 그렇고 모두 총자체를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마의 흥기로 보는 목사들입니다. 지응모동무가 서른살이 가까와오도록 아직 장가를 못들고있는것은 애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지응모가 병기공장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딸을 줄수 없다는거지요.》

조용하던 장내가 술렁거리였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버지 지목사나 가시아버지가 될 최목사가 다 미국에 대한 숭배심이 많은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런 조건에서도 지응모동무를 믿어주셨지만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땅에 기여들고있는 엄중한 시각에는 지응모의 집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알아볼것들이 있어 부르셨을겁니다.》

지배인의 장황한 력설이 끝나자 고정환이 탁상을 두드리며 입을 벌리였다.

《그렇소. 지응모동물 기다리는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적이 코앞에 와있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그 사람을 기다리겠소. 류일룡동무! 어디 동무 좀 말해보시오. 지응모동물 기다리자는가? 아까는 펄펄 뛰던 사람이 왜 그렇게 잠자코 있소.》

고정환은 목을 빼들고 장내의 뒤편을 넘겨다보았다. 그는 성미가 급한 류일룡은 틀림없이 지응모를 기다리자는 의견에 반대표를 던지리라고 확신하고있었다.

류일룡은 왁살스럽게 앞사람의 어깨를 짚으며 솟구치듯이 일어섰다.

《빨찌산을 조직하자는데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되 대오편성은 당위원장동지 말씀처럼 지응모기사가 온 다음에 하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황해도당위원장한테 가르치심을 주신것처럼 우리 병기공장에 대해서도 꼭 무슨 말씀이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으니까요. 예, 장군님께서 지기사를 부르신것은 어떤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이 병기공장문제와 관련된거라고 봅니다.》

고정환의 얼굴이 대뜸 이그러졌다.

《동문 결국 절충주의를 하려는건데 무슨 로동계급이 그 모양이야?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선이 명백해야지. 뭐가 무서워 두편의 비위를 다 맞추려고 그러는가. 진짜로동계급은 그러지 않아!》

《제가 비위를 맞춘다고요? 허허, 참!》

류일룡은 어처구니가 없는듯 턱을 쳐들며 코웃음을 쳤다. 빈정거리는듯 한 그 웃음소리가 고정환의 신경을 크게 건드리었다.

《그런데 왜 박홍근기사앞에선 꿈쩍을 못하고 발라맞추기질을 하는가. 동무에 대해 신소한 사람이 있소, 여론도 돌고… 오늘 보니 떠도는 말이 틀리지 않는것 같아. 무슨 약점이 있어서 박기사앞에서 꿈쩍을 못하는가?》

《어느 놈이 그따위 개수작을 해요? 그 소릴 한게 누구야? 당장 대갈통을 까버리겠어.
》

류일룡은 주먹으로 앞사람의 잔등을 내리쳤다. 그 바람에 잔등을 얻어맞은 사람이
아부재기를 쳤다.

《아아, 이 사람아, 어째 나보구 이 야단인가.》

방안에 웃음이 떠돌았다. 사람들을 웃긴 그 사람은 리병혁이라는 나이지극한
용접공이었다. 그도 **김일성**동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노동자였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여기서 누구라고 공개하진 않겠지만 우리한테
류일룡동무에 대한 문제를 신소한 사람이 있소. 사실 이 공장에 문제가 많단 말이요.》

고정환이 술렁거리는 사람들을 엄하게 둘러보았다.

《모두 알고있는것처럼 지금 나라의 정세는 긴장해질대로 긴장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면 우리는 빠르찌잔을 조직하면서 검사검사로 대렬을 좀 정리하자고 합니다.
해방직후에는 기술자, 기능공이 부족해서 어중이떠중이를 다 그러모았는데 이젠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고정환이 서늘한 눈빛을 하고 장내에 찬바람을 몰아왔다.

《내가 자주 말하군 했지만 지난 쏘도전쟁시기 쓰팔린동지는 유럽지역에 있던
군수공장들을 씨비리후방지역으로 옮겨올 때... 후퇴시기 말이요. 군수공장대렬을
깨끗이 정리했소. 계급적으로 모호하거나 현행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성실치 못한자들은
모조리 대렬에서 내쫓아버렸소. 그야말로 계급적으로 알쫘한 사람들만 골라서 대렬을
꾸렸단 말이요. 화약과 무기를 다루는 군수공장이기때문이요.》

고정한은 한결 목소리를 가라앉히었으나 불긋한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에서는 독이 풍기었다.

《쏘도전쟁때 군수공장대렬을 정리하였기때문에 당시 내가 일하던 씨비리땅크공장에서든 1년만에 땅크를 팡팡 생산하여 꾸르스크격전장에 수많이 보냈소. 그 전투를 앞두고 씨비리횡단철길우로는 땅크를 실은 열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었소. 그때 쓰딸린동지가 이런 계급적원칙에서 군수공장대렬을 정예화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장갑의 대부대가 어떻게 꾸르스크별판을 뒤덮을수 있었겠소. 꿈에도 생각할수없는 일이요.》

고정한은 류일룡이 앉아있는 뒤컨에 시선을 주며 잠바앞자락을 더 활짝 헤치였다.

《우리가 평천리병기공장을 꾸릴 때 류일룡동무문제를 심각히 논의 한것도 병기공장은 보통기계공장들과는 성격이 다르기때문이요. 다 아는 일인데 뭐 숨길게 있소. 저 류일룡동무가 어디에 있다가 병기공장에 들어왔는가. 3년형교화중에 있다가 장군님의 특별지시로 석방되어 이 공장에 입직된 동무요. 오늘은 당원이 되고 작업반장까지 하고있소. 그렇게 내세워주니 이제 안하무인이 됐단 말이요. 잔뜩 코가 높아져서 국장앞에서 개수작이니 대갈통을 깨놓겠다느니... 도대체 그게 무슨 놈의 말버릇이야? 국장은 그렇다치고 여기 앉은 대중을 무얼로 보는가? 동무가 무에 잘나고 뻗뻗해서 떡떡거려?》

드디어 고정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내는 얼어붙은듯 조용해졌다.

《국장동무, 거 뭐 교화소이야기까지 꺼내며 그러시오?》

고정한의 뜻밖의 발언에 현무광이 당혹해하며 그를 자제시키려고 하였다.

《아니, 오늘이야말로 그런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환경지배론은 유물변증법에 토대한 맑스주의인식론의 중요분야의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는 인간의 사상과 성격을 환경의 영향과 떼여놓고 고립적으로 분석하면 큰 오류를 범한다고 하였다. 그는 실지 병기공장의 골간을 이루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경력을 수첩에 기록해두고있었다. 지배인, 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지응모, 박홍근, 류일룡, 유락중, 조규성 등 병기공장사람들이 걸어온 길과 과거의 환경이 그의 비망록수첩에 다 적혀있었다.

고정환이 만장판에서 상기시킨 교화소이야기로 하여 류일룡은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거슬러올라오는것 같았다. 불현듯 3년전 재판장에서 한 판사의 목소리가 귀가에서 울리었다.

《피고 류일룡은... 평안남도 온천군 구읍리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동을 하며 방랑하다가 중국 동북의 병기창에 징용으로 끌려가 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 강선기능을 소유하여 일제의 살륙무기를 수없이 생산하였다. 왜놈병사들이 가지고다니는 어느한 보총에는 63578973이라는 번호옆에 야나가와 이찌료라는 이름이 새겨져있는데 이것은 피고의 이름이다. 그것은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의 표식이다. 피고는 일제 말기 그곳 병기창 감독놈에게 중상을 입혀 극형을 받았으나 이상하게 5일만에 석방되어 다시 살륙무기를 제조하였다. 피고는 해방전의 이 경력을 인정하는가?》

그렇다, 그것이 류일룡의 해방전경력을 집약한 기록문이었다. 일제시기 조선사람으로서 무기공장에서 강선작업을 한것은 극히 드문 일이였다.

강선작업이란 총신이나 포신안에서 탄알이 돌면서 나가도록 라선행의 홈선을 파놓는 작업으로서 고도의 정밀성과 정결성을 요구하는 기능로동이였다. 그러므로 기능도 높고 책임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강선작업을 맡기였다.

고정한의 목소리가 또다시 그의 귀청을 때리였다.

《쏘련뿐아니라 제국주의나라들에서도 무기공장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합니다. 화약과 총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기때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 병기창에서 일할 때 박홍근동무도 감옥살이를 했소. 그는 감옥안에서 해방을 맞았소. 저 류일룡동무도 극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긴 했는데 저 동무만은 5일만에 석방되어 작업장에서 총을 만들다가 해방을 맞았소.

어떻게 저 동무만은 5일만에 석방됐는가? 이게 아직 해명되지 못한 수수께끼란 말이요.》

류일룡은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내 더러워서...》

벌떡 일어난 류일룡은 바위벽에 나무틀을 대고 만들어놓은 회의장 뒤쪽널문을 걸어차고 나가버렸다.

그는 한참 걸어가다가 누구인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앞에 앉아있던 용접공 병혁이 따라오고있었다.

《이 사람아, 회의도중에 말도 안하고 훌쩍 나오면 어찌자는건가. 고국장이 임자더러 바꾸닌패당이라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불러오라고 했네.》

《바꾸닌패당이라는건 또 뭐요?》

류일룡은 낮을 찌프리며 소리쳤다. 로씨야 무정부주의의 대표자인 바꾸닌에 대해 그가 알수 없는 일이었다.

《넌들 알겠나. 반동적인 나쁜 패당인 모양이네. 분을 삭이고 조금 있다 들어오게. ...》

류일룡은 될대로 되라 하고 허청허청 걸어갔다. 그는 굴밖으로 나왔다. 무엇때문에 굴밖으로 나왔는지 알수 없었다.

4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있었다.

류일룡은 목표도 없이 덧대놓고 걸어갔다. 우수수 락엽을 떨구며 불어오는 음산한 비바람이 그의 얼굴에 산뜻산뜻한 물방울을 끼얹었다. 비발속을 누비며 정신없이 걸어가던 류일룡은 통개가 굵은 늙은 소나무등어리가 앞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우뚝 멈춰섰다. 하마트면 잎이 다 말라서 꺾어져버린 나무가지끝에 눈을 찌를번 하였다.

《63578973!》

여덟자리의 긴 수자가 새겨진 총번호가 그의 머리에 금석문처럼 새겨져 빠져나가지 않았다.

류일룡은 비내리는 가을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억속에서 퇴색되어가던 병기창의 지긋지긋한 작업장이 고정환의 든장질로 하여 다시 선명한 색채를 띠고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류일룡은 병기창에서 독살스러운 왜놈감독의 감시를 받으며 매일 16~18시간동안 고역을 치르었다.

그렇게 4년을 살았다. 눈썰미가 있고 천성적으로 손재간이 빼여진 그는 보통사람들은 4~5년동안 전문견습을 받고도 잘 익히지 못하는 강선기능을 견습을 받지 않고도 1년만에 완전히 익혀었다. 이 천부의 재능이 그를 불행한 운명으로 이끌어갔다.

1945년 8월초부터 병기창 외벽과 담벽에는 반일을 선전하는 삐라가 자주 나붙곤 하였는데 그무렵 류일룡은 피로에 몰려 작업중 강선공구를 부러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때 감독놈은 일부러 공구를 부러뜨렸다고 생트집을 쓰며 류일룡을 구두발로 차고 가죽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렷다.

콘크리트바닥에 쓰러진 류일룡은 순간에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태업하라는 삐라를 보고 네놈은 일부러 공구를 부러뜨렸단 말이야. 그 공구가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알기나 해. 나쁜 놈!》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류일룡은 《악!》하고 울부짖으며 일어나서 옆에 놓여있는 총신으로 감독놈의 머리를 내리쳤다. 어찌나 세차게 내리쳤는지 감독놈은 입으로 피를 토하며 작업장구석에 나딩굴었다. 그때 만약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이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감독놈은 그의 손에 틀림없이 죽고말았을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류일룡은 헌병대에 끌려가 이틀동안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였다. 놈들은 반주검이 된 그를 병기창감방에 처박았다.

당시 병기창감방은 상, 중, 하 세 부류로 갈라져있었다.

상동감방에 해당하는 《죄수》는 극형처분할 대상들이였고 중은 10년이하의 징역에 넘길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하는 병기공장과 구치소안에서 잡일을 시키다가 별일이 없으면 이미 하던 본래의 작업을 다시 시킬 대상들이었다.

류일룡은 상동감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감방에는 두명의 《죄수》가 먼저 들어와있었다. 그중 한사람은 반일빠라사건에 관계한 정치범이였고 다른 한사람은 기술문헌번역을 고의적으로 외곡하여 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실험설비를 순간에 하늘로 날려보낸 사건으로 구금된 지식청년이였다. 일본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이 병기창에 강제로 끌려온 22살의 지식청년인, 그가 바로 박홍근이였다. 이들은 반주검이 된 류일룡을 살려내기 위해 정성껏 간호하였다. 정치범으로 들어온 나이지긋한 사람은 자기 팔을 물어뜯어 생명이 스러져가는 류일룡의 입에 한방울두방울 피를 떨어뜨려 넣어주었다. 그 덕인지 아니면 한창 혈기가 왕성한 때여서인지 일룡은 며칠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 감방안의 사람들과 통성을 하게까지 되었다.

《형님을 살려내자고 이분은 제 입으로 자기 살을 물어뜯어 피를 받아 먹이였습니다. 우리들은 다 아무때건 죽게 될 사형수들이지만 죽어가는 형님을 그대로 내버릴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왜놈들이 망할 날은 시간문제이고 또 근일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진군의 령을 내리셨다니 일이 잘만 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수도 있지요.》

안경을 낀 젊은 지식인 《죄수》 박홍근이 류일룡에게 이런 말을 해준 이튿날 깊은 밤에 감방의 철문이 열리더니 독살스럽게 생긴 옥리가 눈을 부라리며 《상동 15번, 나오라!》 하고 소리쳤다. 그것은 류일룡의 번호였다.

상동감방에서 밖으로 나오는것은 다시 돌아올수 없는 저승길,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여태 이렇게 불리워나가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우리보다 늦어 들어온 류형님이 먼저 가시누만요.》

박홍근이 류일룡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었다.

《우리들중 누구든 살아남으면 형님의 고향에 기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구읍리 류일룡> 이것을 머리속에 깊이 새겨넣었습니다.》

류일룡은 마침내 감방밖으로 끌려나갔다. 밖은 캄캄하였다. 죄수차에 실린 그는 어디로 끌려여가는지 알수 없었는데 한참 가다가 내려서 들어선 곳은 천만뜻밖에도 자기가 일하던 강선작업장이었다.

《에또, 우리는 당신을 관대히 용서하고 다시 일을 시킨다. 일에 태만하고 나쁜짓을 하면 더는 용서하지 않고 교수형에 처한다. 알겠는가?》

병기창 총관리자인 소로다라는 놈이 하는 말이였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이튿날에 왜놈의 《천황》이 항복서를 썼다는 소식이 전해진것이다.

왜놈이 망하는것은 기정사실로 되어있었지만 이처럼 빨리 조선이 해방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병기창주임을 비롯하여 일본관헌들은 너무도 급작스러운 패망으로 하여 병기창의 노동자들과 감옥안의 《죄수》들을 처리하지 못한채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류일룡은 해방의 소식을 들은 그날로 귀향의 길에 올랐다. 기차와 자동차를 미처 얻어탈수 없어 한족들이 빼안즈(채찍)를 총소리처럼 땅땅 울리는 마차우에 올라앉아 이국의 광야를 달리었다. 때로는 마차마저 얻을수 없어 도보로 몇백리씩 걷고걸어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그리운 조국땅으로 들어섰다.

아, 고향땅에서의 늙은 홀어머니와의 상봉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눈물겨운것이었던가. 그리고 어머니가 보아둔 고향처녀와의 결혼식, 꿀같은 신혼생활, 기계공장에서의 보람찬 노동... 손재간이 많은 그는 남포기계공장에서 높은 생활비를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행복에 도취한 그는 가장집물이 늘어나고 돈주머니가 불어나는데 재미를 보게 되었다. 재물이란 바다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하는것이다. 류일룡은 작업장의 쇠붙이들로 살금살금 기호제품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다. 집안살림이 부쩍 늘어나 동네사람들로부터 《류자본가》라는 별명이 붙게까지 되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진 그는 사람들로 부터 어떤 비난을 받는지도 모르고 국가재산으로 계속 기호철제품을 만들어 팔아먹었다. 마침내 그는 법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심리과정에 국가재산횡령 및 탐오랑비건보다도 일제의 병기창에서 살륙무기를 제조한 문제가 더 엄중시되었다.

류일룡은 검사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때 병기창에서 강선공구를 부러뜨려 왜놈감독한테 매를 맞았다는데 일부러 공구를 부러뜨렸는가?》

《고의적으로 부러뜨린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여 졸다가 그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일부러 부러뜨렸다고 하면 유리할수 있었으나 그는 법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감독놈에게 중상을 입혀 극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어 5일만에 석방되었는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군. <천황>폐하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든지, 아니면 왜놈들을 위해 무슨 개짓을 했든지 좌우간 쪼간이 있소. 그렇지 않구야 어떻게 5일만에 석방되어 다시 제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겠는가?》

《아니요. 나는 서약서를 쓴것도 없고 개짓을 한 일도 없소. 당신은 날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성미 급한 류일룡은 눈을 부릅뜨고 검사에게 소래기를 질렀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구 소릴 치며 야단이야! 일본군 라남병영에 있던 어느 한 보충에 63578973이라는 번호와 야나가와 이찌료(柳一僚)라는 이름이 새겨있었다. 야나가와 이찌료는 너의 왜정때 이름이다. 어떻게 되어 그 보충에 네 이름이 새겨있는가? 그건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의 표식이야. 솔직히 말하라!》

《나한테 그런게 없소. 내 이름이 야나가와 이찌료이지만 나는 한 일자, 룡 룡자를 쓰는 이찌료(柳一龍)지 한 일자, 동관 룡자를 쓰는 이찌료(一僚)가 아니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예심은 석달이나 끝었다. 그는 재판에서 3년형을 받았다.

그가 교화소에 들어온지 녀달가까이 되었을 때였다.

관리원이 그에게 소장이 찾는다면 소장방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여 영문을 모른채 허둥지둥 달려갔다.

소장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방안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책을 비롯하여 몇명의 점잖은 사람들이 와있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들중에 류일룡을 취급한 재판소 판사와 담당검사도 끼여있는것이였다.

(나를 사형하려는것이 아닌가?)

이런 억측을 한 일룡은 온몸의 피가 굳어지는듯 하였다.

김책이 공포에 질려있는 류일룡을 의자에 앉히고 서류가방에서 푸른 겹가위를 썬 문건을 꺼내었다.

《최근 **김일성**장군님께서 교화중에 있는 류일룡동무를 료해하고 그를 석방시킬데 대한 교시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화소소장에게 한 말이였다.

류일룡은 저도 모르게 눈을 홑뜨며 벌떡 일어섰다.

(사형이 아니라 석방이란 말인가?)

류일룡은 그것이 생시의 일로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널뛰듯 하였다.

김책은 문건을 펼치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한자한자 또박또박 그루를 박아 읽어주었다.

《…최근 필요에 따라 현재 교화중에 있는 류일룡동무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사업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3년교화형을 지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의 죄과는

기계공장에서 나오는 자투리쇠붙이로 기호제품을 만들어 팔아먹은것인데 일제시기 병기창에서 왜놈의 살륙무기를 생산한데 대하여 문제시하고 3년교화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일제의 강요에 못이겨 할수없이 노예로동을 한것을 범죄로 보고 법적처형을 한다면 해방전에 일제기관에 복무한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십보백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류일룡동무를 취급한 재판소, 검찰소일군들중에도 해방전 일제기관에 복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일룡이 바로 앞에 앉은 검사가 기침을 짓는 바람에 김책은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류일룡동무가 석달동안 예심을 받고 녀달가까이 교화소에서 교양을 받았으니만큼 이제는 그를 석방시켜야 합니다. 그 동무의 범죄건은 4개월정도의 로동단련이면 충분하기때문입니다.

예심문건을 보면 류일룡동무가 민주교양을 잘 받지 못해 개인리기주의적인 행위를 하였지만 비교적 솔직한 동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동무는 해방전 병기창에서 강선공구를 부러뜨려 왜놈감독한테 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검사가 그 문제를 심리하면서 고의적으로 공구를 부러뜨렸는가고 물었을 때 류일룡동무는 본의아닌 실수로 부러뜨렸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시말해서 반일감정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공구를 부러뜨렸다고 대답할수 있는 조건이지만 이 동무는 사실그대로 예심에 불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이 동무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지 않고 모두 나쁘게만 보려고 했습니다. 류일룡동무가 병기창 감독놈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극형처분을 받고 감옥에 끌려들어갔다가 5일만에 석방된데 대하여 검사는 의심하면서 친일서약서같은것을 쓰지 않았는가고 강박하였습니다. 이때에도 류일룡동무는 사실그대로 자기는 그 까닭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는 법앞에서 속인다고 하면서 그에게 압력을 가했을뿐아니라 친일서약서를 쓰고 석방된것으로 예심문건을 작성하여 중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당시 병기창주임놈은 고급기능공들은 감옥안에 오래 넣어두지 않고 끌어내다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놈들에게는 류일룡을 죽이는것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실컷 부려먹을대로 다 부려먹고도 죽일수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놈들의 흥책을 류일룡동무는 전혀 모르고있었기때문에 검사의 물음에 명백한 대답을 줄수 없었습니다.

민주조선의 법일군들은 자본주의법관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인도주의적이고 애국적인 립장에서 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강선기능공은 류일룡동무 하나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없는 죄명까지 씌워 형을 늘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리로운것이 무엇입니까? 법일군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민과 혁명의 리익인것입니다.》

《으흐흑 ...》

류일룡은 마침내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 녀인들처럼 목놓아울었다. 어떻게 되어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버러지만도 못한 죄많은 놈에게 것처럼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었다.

판사와 검사는 죄인처럼 얼굴을 푹 수그리고 앉아있었다.

《류일룡동무, 울지 말고 내 말을 듣소.》

김책이 오열하는 류일룡을 진정시키고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바쁘신 속에서도 동무문젤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치셨소. 동문 이걸 몰라서는 안되오.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는것을 제일국사로 보신 장군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병기기술자, 기능공들을 하나둘 모아들이시였소. 그리하여 1947년초에는 벌써 평천리병기공장에 각종 병기시설들을 들여왔히고 그것을 다룰수 있는 기능공들을 한두명씩 갖추어놓았지만 강선기를 다룰수 있는 기능공만은 한명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던중 류일룡이라는 고급강선기능공이 국가재산탐오랑비죄로 3년교화형을 받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강선기능공을 아끼지 않고 교양도 하지 않아 교화를 받게 만든데 대하여 가슴아파하시면서 나에게 해당 법기관에 찾아가 동무가 교화를 받게 된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과업을 주시였소.》

그리하여 김책은 류일룡을 취급한 검찰소와 재판소는 물론 그가 생활하던 공장과 거주지역에까지 찾아가 자세히 료해하고 예심문건과 재판문건들을 **김일성**동지께 가져다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준비사업으로 한창 바쁘신 때에

류일룡에 대한 법문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류일룡의 문제를 료해하고 확인하는데 한달이상의 날자가 걸리였다.

《바로 이렇게 되여 동무의 문제가 바로잡히게 되였소... 자, 이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늙은 어머니와 안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갑시다.》

얼마후 류일룡은 김책과 함께 반짐차운전칸에 올랐다.

반짐차는 교화소마당을 지나 곧추 뻗은 자동차길을 달리였다. 그는 비로소 공민의 자격으로 조국의 하늘과 땅을 바라보게 되였다. 모든것이, 지어 자동차의 발동소리마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두시간 남짓이 달려 자동차가 몇어선 곳은 순화강다리가 가까이 바라보이는 농촌마을이였다. 거기서 그의 집은 멀지 않았다. 눈석이물로 하여 불어난 허연 강물이 대지의 누릿한 빛갈과 회화적인 색조화를 이루어 류일룡의 가슴에 사뭇 찌릿한 감회를 자아냈다.

《류동무, 이젠 내리시오. 동무가 지내 흥분할것 같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동문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오.》

《예?!》

류일룡은 놀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서다가 운전칸 천정에 머리를 짓조았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또다시 소스라쳐 놀라며 한자리에 굳어졌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몇명의 수원들과 함께 회색봄외투자락을 가볍게 날리며 걸어오시는분은 분명 초상화를 통해 익힐대로 익힌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그다음의 일들을 그는 정확히 기억할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도 놀라고 격동되어 **김일성**동지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다.

《장군님, 이 동무가 류일룡입니다.》

김책이 그를 소개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렇구만. 류일룡동무로구만. 여러번 사진을 보아서 내가 잘 알고있지.》하고 밝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재판소와 검찰소의 법문건에 붙어있는 류일룡의 사진을 이미 깊이 익혀두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을 떨며 어쩔줄 몰라하는 류일룡의 어깨를 두드리시다가 옆에 서있는 수원들에게 이 동무가 바로 우리 나라의 유일한 강선기공이라고 소개하시고 순화강다리쪽을 바라보시였다.

《류일룡동무의 고향이 구읍이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류일룡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구읍사람들도 저 순화강다릴 자주 건너다니군 하지.》

그이께서는 강물을 가로지른 란간이 없는 나무다리를 가리키시였다.

류일룡이 적지 않게 건너다닌 다리였다.

동북의 병기창으로 끌려가기 전 10대와 20대초에는 샛로동을 하느라 저 다리를 많이 건너다녔고 해방후에는 기호철제품을 팔아먹기 위해 일요일마다 건너다니군 했었다. 그러고보면 수치스러운 교화소생활과 연결되어있는 다리였다.

《지금도 이 고장 늙은이들은 저 다리를 되다리라고 합니다. 되다리의 되자는 대국(중국)이라는 대자의 변형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모두거리로 하시는 말씀이었다.

《청일전쟁때 청나라군인들이 평양으로 쳐들어오는 일본군들을 막기 위해 저 다리목에서 싸움을 벌리었는데 그때부터 되다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김일성동지께서 의미심장히 자문하며 천천히 몇걸음 옮기시었다. 청일전쟁이라면 먼 옛일처럼 생각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고작 50여년전의 일이었다. 청일전쟁의 증견자 순화강다리도 그 시각엔 흘러간 옛시절의 피비린 싸움을 되새기며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듯 했다.

《다 알고있는것처럼 1894년에 전라도 고부지역에서 반침략반봉건적구호밑에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농민군이 열흘남짓한 사이에 전라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자 곤경에 빠진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농민봉기군에게 타협을 설교하는 교활한 술책을 쓰는 한편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는 비렬한 반역행위를 하였다. 왜놈들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조선봉건왕조를 보호해준다는 구실밑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조선에 출동시켰다.

이렇게 되여 결국 우리 나라에 두 나라 외국군대가 들어와 판을 치게 되었다. 그해 6월 13일 조선봉건왕조는 청나라와 일본에 농민내란은 이미 진정되었으므로 철병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왜놈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조선침략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되어있던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 7월 25일에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먹이를 놓고 두 승냥이가 싸우는격이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렇게 비분에 잠겨 청일전쟁의 역사를 상기시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순화강다리를 가리키시었다.

《그때 저 순화강다리가 피에 젖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패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 평양으로 쳐들어간 왜놈들은 우리 인민들의 재물을 닥치는대로 약탈했습니다. 국가의 재물을 약탈한것만 해도 쌀은 4 600여섬, 말은 250여필, 금은 100여키로그램, 은은 400여키로그램, 엽전 역시 굉장한 수자였다고 합니다.》

류일룡은 두 나라 침략군의 총탄과 칼부림에 상처입고 피에 젖은 조선의 산과 강과 들판이 눈앞에 어려왔다.

《나라의 군력이 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패한것도 왜놈들에 비해 무기가 변변치 못했기때문이에요. 왜놈들은 신식무기인 외알배기총을 가지고 공격하였지만 조선군대와 청나라 군대는 그때까지도 화승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왜놈들의 신식무기를 보고 <베르단>이라고 했습니다. 류일룡동무,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만 하오?》

류일룡은 고개를 숙인채 대답을 못 올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었다.

《우리 나라가 이제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워서는 안됩니다. 그러자면 나라를 지킬수 있는 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무는 총을 만드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기술을 여태 저 하나의 돈벌이에만 써먹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니요. 매를 맞고 천대를 받으면서 왜놈의 총을 그렇게 많이 만든 동무가 왜 제 나라 총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소? 동무와 같이 중국 동북에 있던 일제병기창에서 고생한

박홍근동무는 총을 만들겠다고 평천리병기공장에 찾아왔는데 동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었소?》

《장군님, 전 죽어마땅한 놈입니다. 처벌해주십시오.》

류일룡은 봄별에 눈이 녹아 질적질적해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을 늘이며 전물을 일으켰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무슨 처벌을 또 받겠소. 잘못된 일은 고치면 되오. 어서 일어나오.》

그이께서는 부들부들 떨고있는 류일룡의 팔을 친히 잡아 일으켜세우고 흙물이 묻은 그의 손을 종이로 닦아주시었다. 일룡의 굵은 눈물방울이 그이의 손잔등에 락수처럼 떨어져내렸다.

고개를 수그린채 눈물을 짓던 류일룡은 그제야 흙물이 묻고 앞코숭이가 문드러진 **김일성**동지의 가죽신발을 보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멀고 험한 길을 걸으셨구나!)

교화소에서도 아침마다 신문독보를 하기때문에 **김일성**동지께서 눈비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 방방곡곡을 현지도하시는 소식을 듣곤 하였던것이다.

류일룡은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머리를 쳐들었다.

《장군님,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평천리병기공장으로 가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원들을 돌아보며 크게 웃으시었다.

《이 동무가 성질이 급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쿡발에 서슬을 치겠구만. 허허허... 일룡동무, 지금 늙은 어머니와 안해가 얼마나 걱정하고있겠소. 어머니와 안해를

만나보고... 한 열흘 집일을 돌보고 공장으로 나오시오. 차츰 공장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놓겠으니 이사도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서 집으로 가보라고 하시며 남포쪽을 가리키시었다. 서쪽하늘가에서 불덩이같은 저녁해가 이글이글 붉은빛을 뿌리고있었다.

어디선가 느닷없이 요란한 말투레질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류일룡은 깊은 추억에서 헤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살진 부루말 한필이 진창길에 네굽을 박차며 내달리고있었다. 기관단총을 어깨에 매고 군마를 몰아가는 사람은 지응모였다.

비는 어느덧 멎고 먼 하늘에서 꾸르릉꾸르릉 천둥이 울고있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지응모인가?)

류일룡은 어쩐지 자기가 지금 어떤 환각속에서 헤매이는것 같아 지응모의 모습이 굴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멍청히 서있었다. 어제 여기를 떠날 때에는 지나가는 화물차를 얻어타고 간다고 한 지응모가 날개달린 전설의 룡마같은 살진 군마를 타고왔기때문이었다.

류일룡이 되짚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안에서 지응모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저릉저릉 울리고있었다. 그는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채 회의장 복판에 서서 왼손을 흔들며(그는 왼손잡이였다.)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를 따라 평천리, 역전거리, 장대재와 남산재언덕, 서평양거리, 보통강기슭 등 평양시가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무기생산과 관련한 뜻깊은 말씀을 들은데 대하여, 월미도방위자들의 전투상보를 읽고 강한 충격을 받은데 대하여, 군사위원회결정에 따라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급히 수풍으로 들어가 수류탄을 기본으로 한 무기생산을 다그치는 한편 빠른 시일안으로 70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하여 평양방어사령부에 보내야 한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어려운 과업을 맡은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중요사업들을 조직지휘하기 위해 김책부수상동지가 군자리로 내려오게 된다는데 대하여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덧붙이였다.

《지금 평양시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철수하였지만 장군님께서는 적의 포성이 가까이에 울려오고있는 평양에 그냥 남아계십니다. 우리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이 수풍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떠나시지 않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병기공장 로동계급 한사람, 한사람은 원쑤 백놈, 천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회의장은 격정의 파도에 휩쓸렸다.

지응모는 굴속에 메아리치는 만세의 함성이 가라앉았을 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이 타고다니는 군마를 저에게 주시면서 빨리 군자리에 내려가 70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하기 위한 토론을 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저는 군마를 타고 달려오면서 몇번이나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장군님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자,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공장이설작업도 하고 최단기간내에 기어이 70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하여 평양방어사령부에 보내자 하고...》

저는 20명의 성원으로 기관단총생산결사대를 무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20명결사대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발인원들에 대한 제 복안을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지응모는 기관단총멜끈을 움켜쥐며 집행석에 앉은 세사람 현무광, 고정한, 리환구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지배인이 얼핏 고정한을 스쳐보며 킁킁 마른기침을 하였다. 뜻밖에도 지응모가 나타나서 일시 당혹해있던 고정한은 무슨 뜻에서인지 왼손으로 턱을 쓸어만지면서 바른손 지시손가락으로 책상을 다독일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기사동무, 복안을 발표하십시오!》

현무광이 넓은 이마에 깊은 주름살을 말아올리며 검실한 큰 눈을 가늘게 찌프리였다.

이윽고 20명 결사대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지응모의 높은 목소리가 회의장의 긴장한 공기를 흔들었다.

포탄직장 선반작업반 반장 유락중, 용접공 리병혁, 장기진, 김정길, 김영식...

20명의 이름을 다 부를 때까지 귀를 강구고 앉아있던 류일룡이 솟구쳐 일어섰다.

《내 이름은 왜 없는가?》

류일룡의 고함소리에 모두가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기관단총을 조립하는 결사대인데 왜 기관단총 강선작업반장의 이름이 없는가 말이요. 지기사동무까지 이 류일룡을 믿지 못하는가요? 그래 정말 나를 숨아내자는거요?》

《숨아낸다는건 무슨 소리요?》

지응모가 어리둥절해하며 반문하였다. 방금전 회의장에서 고정한이가 병기공장대렬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며 새삼스레 류일룡의 과거사를 꺼들어댄 일을 모르고있는 지응모로서는 어정쩡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류동문 수풍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제 병기공장가족들까지 수만명의 대집단이 수풍으로 이동하자면 조직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류일룡동무의 이름을 지적하셨습니다.》

류일룡은 눈을 홉뜨며 당혹해하였다.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류일룡의 이름을 지적하셨는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문스러워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적기의 공습이 심한 조건에서 수만명의 대집단이 단꺼번에 한 대렬을 지어 이동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여러개의 편대로 나누어 행군하되 류일룡동무와 같이 수풍으로 가는 길을 잘알고있는 동무들을 매개 편대에 배치하여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류일룡동무 결사대에서 제외시킨겁니다.》

《난 그런줄은 모르고... 제 잘못했습니다.》

류일룡이 사죄하며 자리에 앉자 지응모는 방금 자신이 발표한 20명 결사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지기사동무가 발표한 결사대성원들에 대해 나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책부수상동지가 내려오신다니 그때 군사위원회결정집행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론할수 있도록 각자가 준비합시다.》

현무광은 이렇게 강조하고 20분간 휴회를 선포하였다. 회의참가자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김책이 군자리에 도착한것은 그로부터 한시간 남짓이 지나서였다. 관자뼈가 두드러지도록 수척해진 김책의 얼굴을 보고 회의성원들모두가 놀라고 가슴아파하였다.

그러나 불비속을 헤쳐온 전선사령관 김책은 활달한 기분으로 모든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줄곧 웃음을 지었다. 김책에게 있어서 그들은 모두 낮익고 친근한 사람들이였다.

《그런데 지배인동무가 왜 보이지 않소?》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김책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지배인은 고정환을 바래우러 나가고 없었다. 현무광이 휴회를 선포했을 때 고정환은 자기도 수풍으로 떠날 차비를 해야겠다며 가버린것이다. 그러나 실은 김책이 내려온다는 소리에 마음이 켕기여 자리를 피한것이였다.

《고국장이 여기에 내려와있었소?》

김책이 묻는 말이였다.

《예, 내려와서 회의를 한틀 하고 갔습니다.》

현무광이 고정환의 참가하에 지금까지 진행한 회의정형을 자상히 보고하였다.

김책은 군자리에 와있었음에도 자기를 만나보지 않고 훌쩍 떠나가버린 고정환에 대해 저으기 불쾌감을 느끼었다.

워낙 김책은 박헌영, 허가이, 박창옥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고정환이란 사람을 좋게 보지 않았다.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김책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박헌영이와 허가이였다.

김책은 지응모가 먼저 내려와서 군사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기본적으로 전달하였기때문에 긴말을 하지 않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2계단방침에 대하여 몇마디 더 강조하였다.

《동무들이 몇시간전까지만 하여도 빨찌산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토론을 했다는데 물론 그 심정은 이해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지방에서 빨찌산투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무들 병기공장앞에는 보다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지응모동무를 통해 오늘 동무들이 월미도방위자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락동강계선에서 부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왜 발걸음을 북으로 돌려야 했습니까? 총! 총! 포탄! 이것이 부족했기때문입니다. 총, 포탄을 생산해야 할 동무들이 우리의 생명인 무기탄약생산을 췌버리고 빨찌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를 누가 생산하겠습니까?》

회의장의 분위기가 엄숙해지고있을 때 지배인 환구가 혈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부수상동지, 내려오셨습니까.》

그는 이마에 송글송글 내뿜은 땀방울을 문대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다.

《그래 고국장은 떠났소?》

김책은 언짢게 물었다.

《예, 수풍으로 떠날 차비를 해야겠다며…》

《좀 더 기다렸다가 나를 만나보고 갈게지 뭐가 그리 급해서 범한테 쫓기듯이 달아난단 말이요. 빨찌산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누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김책의 눈썹이 우로 치켜졌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리환구는 주눅이 들어 떠듬거리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집행석옆에 엉겨주춤 서있었다.

김책은 몇발자국 걸어나오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다시말하지만 동무들은 빨찌산이 아니라 총과 탄알을 만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선형편은 대단히 엄중하오.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2년밖에 안되는 우리 군대가 이른바 세계<최강>을 떠벌이는 미국군대와 추종국가들로 무어진 <유엔군>과 맞섰소. 한마디로 말해 세계자본주의군대 전체와 우리 인민군대가 싸우게 됐습니다. 미제는 10월 초순에 유엔총회에서 거수기들을 발동시켜 자본주의나라 침략군놈들에게 <유엔군>모자를 씌워 전조선을 강점할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놈들을 쳐갈겨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느냐 아니면 다시 일본놈대신 미국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노예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놈을 쳐갈겨야 합니다. 그러자면 동무들이 더 많은 총과 탄알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생산을 그만두고 빨찌산을 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지요.》

이때까지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고 애써 침묵을 지키고있던 류일룡이 불쑥 일어났다.

《부수상동지! 이 미련한 놈이 장군님의 뜻도 모르고 여기를 철수하지 말자고 선동했습니다. 목을 매 끌어도 안 가겠다고 발버둥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신변잡사를 놓고 시시껄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무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수류탄도 팡팡 생산하고 기관단총도 만듭시다.》

류일룡이 두주먹을 추켜올리며 크게 웨치자 모임참가자들이 일시에 소리를 모아 화답하였다.

《웁소. 동무들의 과업은 첫째도 둘째도 총과 탄알을 만드는거요. 그것이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바이고 장군님의 뜻이요. 동무들이 다 체험했지만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하면 무슨 일이든 성사됩니다. 해방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해있는 조건에서 국방은 쏘련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의 병기공장을 건설하는데 대해 반대해나섰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철저히 자위로선을 견지하고 군력을 키우는 일을 제1차적인 요구로 제기하셨습니다. 국방을 쏘련에 의존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될번 했습니까?

이번 전쟁은 장군님의 자위로선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락동강계선에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서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총이 부족한데도 있었지만 군사교조주의자들이 장군님의 지시를 옳게 집행하지 못한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간첩을 비롯한 나쁜 놈들이 중요기관에 들어박혀있었던것과도 관련됩니다.

지금도 나쁜 놈들이 암해책동을 벌리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듣자니 최근 여기 병기공장에서 원인 모르게 기계가 파손되고 부속품들이 잃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책의 눈에서 돌연 서리발같은 빛이 뿜어나왔다.

《때문에 동무들은 장군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동무들이 빨찌산을 조직하자는데 대해 적극 지지해나서면서도 장군님의 지시를 기다리자고 했다는데 그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이 장군님의 지시인가, 어느 개인의 지시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보고 집행해야 합니다.》

《부수상동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은 몸이 백조각이 나도 해내겠습니다.》

류일룡은 또다시 주먹을 흔들며 크게 웨치고는 장내를 둘러보았다.

회의참가자들모두가 그의 말에 열렬히 공감하고 호응하였다.

김책도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나를 보내시면서 병기공장 동무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 동무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몇번이나 외우셨소. 그리고 우리가 평양을 떠나는것은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략적견지에서 취한 조치라고 하시면서 이제 곧 평양으로 다시 나온다는것을 동무들에게 특별히 강조할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장은 뜨거운 감동에 휩싸였다. **김일성**동지의 다심한 사랑에 누구라없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일성**장군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신념이 그들의 가슴속에 더욱더 깊이, 뜨겁게 자리잡히고있었다.

김책은 이날 구내식당에서 삶아가지고온 고구마로 간단히 저녁을 하고나서 공장이설문제와 700정의 기관단총생산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집행하여야 할 문제들을 토론하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떠날 차비를 하였다. 그를 따라 굴밖으로 나온 현무광은 《부수상동지, 우리 집에도 안 들리고 그냥 가시겠습니까?》하고 못내 서운해하였다.

그전에 병기공장에 오면 현무광의 집에 들러 무렵없이 음식을 들며 즐겁게 룡담도 하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던 김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다. 집에 들러 다문 한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밥이라도 한끼 들고갔으면 하는 현무광의 마음을 읽은 김책은 애뜻이 말하였다.

《현동무, 내 언제 동무의 청을 거절한적이 있었소? 그러나 오늘은 정말 집에 들릴새가 없소. 지금 장군님께서 날 기다리고계실거요.》

김책은 품속을 더듬으며 어두운 밤길을 내다보았다. 그의 손이 가닿은 그 품속에 **김일성**동지께 드렸던 조선로동당 당원증이 있는것이다.

바로 열다섯시간전 최고사령부마당에서 그리운 **김일성**동지를 만나뵈던 감격이 되살아올라 김책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었다.

《김책동무!... 왔구만, 왔어...》하고 웃으며 반기시던 그이의 격한 음성이 지금도 김책의 귀가에서 쟁쟁히 울리고있었다.

《김책동무! 전선사령관의 당원증을 가지고온 연락군관을 꾸짖어 돌려보낼 때 내 마음은 좋지 않았소. 웬일인지 1932년 남만원정을 떠나는 길에서 차광수를 꾸짖던 일이 생각났댔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마당가에 서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시였다.

않는 어머니를 남겨두시고 떠나신 남만원정의 길, 어머니께서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샅빨래와 샅바느질로 한푼두푼 모으신 돈 20원을 가슴에 품고 멀고먼 남만원정의 길을 떠나시는 **김일성**동지의 마음은 얼마나 번거롭고 아프셨던가. 게다가 첫걸음부터 행군은 간고했다. 행군도중 어느 길목에선가 중무장한 적의 큰 부대와 맞다들려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기적이라 할지 갓 조직되어 실전경험도 없는 반일인민유격대가 필사전을 벌려 좋은 무기를 갖춘 왜놈군대를 완전히 소멸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속에서도 여러명의 전사자가 나왔다.

이름도 모를 이국의 산등성이에 전우들을 묻은 유격대원들은 모두 오열을 터치며 영결식을 하였다.

《김책동무, 나는 그때 대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눈물에 함뱍 젖은 대원들의 얼굴입니다. 칠성판도 깔아주지 못하고 맨땅에 묻은 전우들을 생각하니 정말 칼끝에 가슴이 저미우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앞두고 우리는 울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원들에게 슬픔을 이겨내자고 호소하고 출발구령을 내렸습니다. 대원들은 눈물을 씻으며 나의 구령에 따라 정렬했으나 한사람만은 무덤앞에 어푸러진채 일어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차광수동무였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던 생각을 하면...》

김일성동지께서는 마당가에 서있는 들메나무아지를 움켜쥐고 눈을 감으시었다. 소슬한 가을바람에 나무아지들이 우수수 설레이며 누런 잎사귀들을 내리떨구었다.

《김책동무, 생각해보시오. 유격대참모장이란 사람이 무덤을 불안고 엎드려있으니 어떻건단 말이요. 나는 룡선으로 뛰어올라가 차광수의 어깨를 마구 잡아흔들었습니다.

<광수, 이게 무슨 꼴이요? 일어나지 못하겠소?>

내가 어떻게나 크게 고향을 질렀는지 차광수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한테 것처럼 성내는 나를 처음 보았지요. 눈물에 얼룩진 차광수의 얼굴을 보니 내 가슴에서련민의 정이 끓어번졌습니다. 그래 목소리를 좀 낮추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한 기상을 하고 꾸짖었습니다.

<대원들이 우릴 보고있는데 참모장이 이러면 되겠소? 칠전팔기(일곱번 넘어졌다가 여덟번 일어난다는 뜻)의 기개로 싸우자고 대원들에게 호소하던 참모장자신이 첫걸음부터 이게 뭐요? 이게 과연 이신작칙인가?)

차광수는 나를 바라보며 전물을 일으키더니 무슨 뜻에서인지 머리를 흔들고는 비칠거리며 행군대렬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대렬앞에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때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고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녀달후에 차광수가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때 맨처음 떠오른것이 전우의 무덤앞에 어푸러져 오열을 토하던 차광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날 차광수에게 것처럼 모진 말을 했던가? 좀 더 따뜻한 말을 할수 없었던 말인가?>

나는 대원들이 보지 않는 곳에 홀로 서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국의 낯선 산등성이에 묻은 전우들은 <ㅌ, ㄷ>시절부터 고락을 같이한 동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차광수도 사실상 이겨내기 힘든 극도의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도 차광수를 꾸짖은 일을 후회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는 당원증을 보내온 김책동무에게 따뜻한 말을 못했습니다. 김책이 오지 않으면 나도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연락군관을 꾸짖어보냈습니다.》

《장군님! 그보다 더 뜨거운 말씀이...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김책은 끝내 터지는 오열을 참아내지 못하고 젊은이들처럼 어깨를 세차게 떨었다.

《김책동무, 그만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수많은 전우들의 희생으로 해서 내 가슴은 멍이 들었습니다. 김책동무,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무슨 막다른 골목에 들었다고 김책이 나에게 당원증을 맡긴단 말이요. 일시적으로 군사정세가 긴장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확고합니다. 전선사령관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 김일성과 함께 멀고먼 혁명의 길을 가야 할 김책이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빨간 외상약을 바른 김책의 손을 따뜻이 감싸주시었다. 서울방위전투를 지휘할 때 폭탄과편에 굵직한 손이었다.

《어디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겠소?》

비오듯이 흘러내리는 눈물의 걱정때문에 김책은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뜨겁게 맹세를 다지고있었다.

《내 다시는 장군님의 속을 태워드리지 않으리라!》

김책은 지금 이 시각도 자기를 기다리고계실 **김일성**동지를 생각하고있었다. 빨리 돌아가 그이께 보고를 올리고 또다시 새로운 전구로 떠나야 했다.

이것을 알게 된 현무광은 더는 김책을 만류할수 없었다.

이윽고 김책의 차는 둔중한 발동소리를 울리며 바람소리 소연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사흘후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은 드디어 수풍지구에서의 강행군을 시작하였다. 한편 20명결사대원들은 군자리굴속에서 700정의 기관단총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전투를 벌리였다.

이날 공장당부위원장은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맹세문과 그무렵에 발간된 공장신문특간호를 가지고 평양으로 달리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지응모에게 주신 날래고 용맹한 부루말을 타고갔다.

줄곧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린 그는 정확히 1시간 15분만에 최고사령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지 않아 책임부관에게 맹세문과 특간호를 넣은 나무함을 붉은 보자기에 싼채로 맡기고 되짚어 북으로 달리였다. 당부위원장도 수풍으로 강행군하는 한 대렬을 지휘하게 되어있었던것이다.

제 2 장

1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이 올려보낸 맹세문을 읽고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겨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그이의 집무탁우에는 《우리 민족의 영명하신 지도자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이라는 표제를 단 흰모조지뭉음과 푸른 등사잉크로 찍은 병기공장신문 《새별》 특간호가 놓여있었다.

이날 봉화산 서쪽기슭을 오르내리며 5키로메터나 되는 보통강제방뚝의 보존상태를 살살이 살펴보고 어슬막에 집무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저녁도 들지 않고 책임부관이 드리는 나무함을 썬 보자기부터 푸시였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면서 맹세문의 몇구절을 외워보시였다.

《...영명하신 장군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부름따라 이제 수풍에서 수천수만개의 수류탄을 생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한개한개의 수류탄은 적들의 최종량급폭탄보다도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원썩들의 머리우에 죽음의 불벼락을 안기게 될것입니다. ...》

《고맙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마치 옆에 앉아있거나 하듯이 걱정이 어린 어조로 뇌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수풍으로 역차게 행군해가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시였다.

한편 가슴도 아프시였다. 몇달전 평천리에서 군자리로 병기공장을 이설할 때에는 군용화물자동차를 무려 200여대나 동원시키었는데 이번에는 고작 두대밖에 못 보내시였다.

군자리에서 수풍까지는 거의 500리에 이르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그것은 평천리에서 군자리까지의 거리에 4~5배나 되는것이였다.

물론 이번에는 공장설비들을 몽땅 떠옮기지 않고 수류탄을 비롯한 일부 무기생산에 필요한 설비만을 가지고가지만 순전히 도보로 500리길을 행군해간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게다가 적비행기들의 행패가 비할바없이 심해진 조건에서 가족들까지 합하면 수만명이나 되는 대집단이 이동하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이 번거로와지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제야 공장신문 특간호를 집어드시였다. 병기공장에서는 한주일에 한번씩 등사기로 신문을 발간하지만 가끔 정간호수에 관계없이 특간호를 발간하였다. 수풍에로의 강행군을 앞두고 이번에 발간한 특간호는 거의 《로동신문》 지면만 한 크기로 4면에 걸쳐 많은 글을 실었다. 그야말로 특간호였다.

《500리강행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특간호의 사설이 1면의 절반을 채웠다. 그밑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자력갱생폭탄>에 대한 옛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된 편집부의 글과 《700정의 기관단총을 기어이 기한전에 만들어내겠다》라는 지응모의 결의글이 실리었다.

특간호 2면에는 《평천리병기공장의 수리개였던 김만수연공작업반장과 꿈많은 기계공이었던 안하길청년에 대한 이야기》라는 소개기사가 대서특필되어있었다.

《김만수... 안하길?!》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소개기사를 다시 들여다보시었다.

...신들메를 동이고 수풍에로의 강행군을 준비하고있는 이 시각 우리는 지난 7월, 평천리병기공장을 이설하던 때의 일들을 새삼스레 돌이켜보게 된다.

미제의 폭격만행이 계속될것을 예견하시여 평천리병기공장을 평안남도 성천군 군자리 갱도안으로 이설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고 친히 여러 직장들의 이설순위까지 짜주신 김일성장군님!

한개 직장의 중량급기계설비만 하여도 수백대가 넘는데 이런 직장들이 15개이상이나 되고 거기에 여러 분공장들까지 있어 그것을 옮긴다는것은 한개의 도시를 이동하는것과 같은 굉장한 작업량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단 한주일동안에 이 대이동작업을 끝내였다.

우리는 지금도 그때 병기국의 한성룡지도원이 내려와서 격동된 목소리로 읽어준 군사위원회명령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거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명령 제OOX호

…보위성에서는 평천리병기공장 이설사업에 화물자동차 200대와 상하차로력 800명을 보장하며 한주일안으로 공장이설사업을 끝낼것을 명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1950년 7월 X일》

《만세!》

군사위원회명령을 전달받은 공장회의장에는 돌연히 만세의 환호성이 터졌다.

이때 제일먼저 연단에 뛰어오른 사람이 김만수연공아바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한주일안에 공장을 옮기라고 보위성에 명령하시였지만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병기공장 로동계급이웨다. 장군님의 령대로 한주일을 넘기지 맙시다. 지금 전선에서는 총과 탄알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는데 빨리 이사를 해서 무기를 생산해야지요. 정말 시간이 급하웨다. 우리 연공작업반에서 선두기러기처럼 맨 앞장에서 자기 본분대로 공장이사짐을 나르겠다는걸 여러분들앞에 맹세합니다. 왜놈의 종살이를 하며 개, 돼지처럼 살아가던 때를 잊어서야 되겠습네까. 미국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비록 늙은 몸이지만 연공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연공아바이의 토론은 길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뒤이어 지응모, 유락중, 박홍근, 조규성, 류일룡 등 공장의 핵심들이 한주일이내로 공장이설을 끝낼데 대한 결의토론들을 하였다.

그날로 전투의 불이 붙었다.

《어기영 치기영, 어기영 치기영…》

사방에서 들려오는 목도군들의 힘찬 먹임소리, 땅을 진감하는 자동차발동소리, 병기공장은 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김만수아바이는 빈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선두기러기가 되어 연공작업반원들을 전투의 제1선에 불러내어 백열전을 벌리었다.

집채같은 기계설비들이 자동차결에 운반되면 이 50대의 수리개는 이동식기중기를 끌고와 복합활차에 쇠바줄을 걸고 그 육중한 물건들을 마치 요술사와도 같이 공중 띄워 자동차적재함에 손쉽게 올려놓곤 하였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설비들을 매번 그런 방법으로 싣고 부리우고 하느라면 세월이 없었다. 한주일동안에 도저히 이설작업을 끝낼수 없었다. 그때 기계이설작업을 총지휘하던 지응모가 자동차길이만 하게 경사지게 땅을 파서 땅과 적재함이 수평에 놓이게 하면 기계를 힘들게 들지 않고도 손쉽게 상차할수 있다는 묘안을 내놓았다.

그의 제기에 공감한 상차대원들이 자동차적재함이 땅과 수평이 되게 만든 다음 10미터철판을 가져다대고 밀어보니 아무리 무거운 기계도 밀에 베아령을 단것처럼 적재함우로 굴러들어갔다.

이 소박한 상차창의고안이 공장이설작업을 단축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상차작업방법이 풀리자 짐을 만재한 자동차들이 연속 경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열을 지어 달리였다.

자동차대렬은 무한궤도의 철갑차처럼 무연한 들판길, 울퉁불퉁한 산자드락길, 수렁지는 진창길, 물매진 언덕길을 짓이기며 달리고달리였다.

그런데 자동차대렬이 들판길을 한창 달리고있을 때 남쪽하늘에서 가증스러운 적기들이 나타났다.

《항공! 항공이다!》

여기저기서 저마다 웨쳐대는 다급한 소리...

썩썩기편대가 기수를 돌려 한바퀴 선회하더니 자동차를 향하여 내리 쏘히며 기총탄을 퍼부어댔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기총탄... 개활지대여서 어디에 피할데도 없었다.

《다른 길이 없다. 최대의 속도로 달려 먼지연막을 치라!》

지응모의 웨치는 소리였다. 그의 림기응변대로 자동차대렬이 속도를 가하자 길우에 먼지구름이 형성되었다.

적기들은 어방치기로 기총사격을 해댔다. 한편 폭격기들이 날아와 폭탄을 떨어뜨렸다.

한 자동차에 불이 달렸다.

운반대원들은 차우에서 불길과 필사적으로 싸웠다. 부상자도 화상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화염속을 뚫고나가던 자동차 한대가 폭 주저앉았다. 차바퀴가 기총탄에 뚫렸던것이다. 바퀴가 내려앉는 바람에 차에 실려있던 설비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적재함을 들부시었다.

설비들이 밀으로 쏟아지려는 위기일발의 순간 한 젊은이가 표범처럼 날렵하게 뛰어내려 앓 하고 소리치며 쏟아지는 기계에 어깨를 들이댔다. 뒤따라 운반대원전원이 밀으로 기울어지는 기계설비에 결사적으로 몸을 들이댔다. 그러나 2톤이나 되는 거물의

기계는 전투대원들을 깔아뭉갠듯이 점점 더 밑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뒤에 멈춰선 자동차들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었다.

《얏차! 얏차!》

기울어지던 거물이 수십명사람들의 힘에 떠밀리어 천천히 제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만세!》

위기는 모면되었다. 이때 썩썩기 한대가 또다시 기수를 돌려 자동차를 향하여 내리쏘아대었다. 기총탄이 소낙비처럼 쏟아져내리었다.

운반대원들은 설비를 몸으로 덮었다. 한쪽에서는 급강하하는 적기를 향해 기관단총을 갈기였다. 썩썩기 한대가 꼬리에 불을 달고 뺑소니를 쳤다. 한대의 비행기가 불에 타버리자 놈들은 겁에 질렸는지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운반대원들은 먼지와 재가루를 털고 일어섰다. 그런데 한 청년만은 선반기의 한쪽모서리를 그러안은채 굳어져버렸다. 그의 잔등이 붉은 피로 질벅해졌다. 그는 이제 스물세살의 청년기계공 안하길이었다. 그렇다, 기울어지는 기계에 맨 선참으로 어깨를 들이댔던 그 청년이었다.

동무들이 그를 그러안고 울음을 터뜨리었다.

《눈을 뜨라! 하길아! 왜 말 한마디 없느냐!

군자리에 가서 더 많은 총을 만들자고 작업반궐기모임에서 선참으로 결의토론을 한 네가 죽다니...》

방금까지 래일의 꿈을 두고 꽃을 피우던 청년, 지웅모기사처럼 자기도 병기기사가 되겠다고 늘 책을 옆에 끼고다니던 청년, 숨진 안하길을 품에 안은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비통한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그칠줄 몰랐다.

그로부터 며칠후, 평천리에서의 상차작업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유락종이 지휘하는 선반작업반 상차대원들이 차 두대를 실어보내고 세번째 차에 상차작업을 하고있을 때 만수아바이가 소재절단기와 200톤함마기를 끌고왔다. 그것을 싣고 선반 두대를 더 실으면 상차작업은 끝나게 된다.

《이젠 시름이 놓이는군. 이 사람 작업반장, 마지막차인데 담배나 한대 피우고 짐을 싣으세.》

김만수아바이가 담배쌈지를 꺼내며 유락종에게 하는 말이였다. 상차작업을 시작한지 엿새, 바야흐로 승리의 테프를 끊게 될 아바이는 이제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며 두툼한 마라초를 입에 물었다.

《안하길이란 잘못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장군님, 명령대루 한주일전으로 끝냈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릴수...》

아바이는 담배연기에 개키여 기침을 짓었다. 쪼프린 그의 눈에 멀건 눈물이 돌았다. 아바이는 누에처럼 구부러든 마라초재를 털고 한숨을 쉬었다. 《글쎄, 하길이 그녀석이 왜 죽는단 말인가.》

《아바이, 어찌겠습니까. 전쟁이 아닙니까. 희생이 있을수 있지요. 아바이의 맏아들 영옥동무도 작년에 반동놈과 싸우다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저 소재절단기가 바로 영옥동무가 만든거지요.》

유락종은 자동차적재함과 수평으로 연결된 10밀리미터철판우에 놓여있는 소재절단기를 가리키었다. 그렇다. 그것은 김만수의 맏아들이 만든 소재절단기였다.

《우리 영옥녀석이 임자한테서 선반기술을 배웠지.… 자, 이제 짐을 싣으세. 마지막짐일세.》

만수아바이는 일손을 붙이려고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바로 이때 항공감시대에서 고동이 자지러지게 울고 정문앞에 달려있는 종이 땡땡-요란하게 신호를 내었다. 벌써 남쪽에서 날아온 적색새기가 공장쪽을 향해 대가리를 숙이며 내리꽂히었다. 피할 사이도 없었다.

런이어 따르륵따르륵 기총탄이 자동차주변에 먼지를 폭폭 일구며 땅에 박히고있었다. 첫 공습을 면한 유락종은 웨쳤다.

《동무들, 설비는 우리의 생명이다. 빨리 빼돌리자!》

유락종은 김만수아바이를 도와 소재절단기를 붙이 번쩍나게 적재함우에 올려놓았다.

다음 자동차를 빼고 몸을 돌리는 순간 두번째로 내리꽂히는 색새기를 보고 유락종이 《엎드렷!》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적기의 흰 배때기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뒤이어 따르륵따르륵하는 기총사격소리… 폭격기까지 날아들어 폭탄을 팡팡 터치며 폭풍과 흙먼지를 사람들에게 마구 들썩웠다.

공장주변에 있는 고사포부대에서 적기를 향하여 불을 뿜어올리었다.

《지끈, 팡팡… 따르륵따르륵…》

공중과 지상에서 울리쏘고 내리쏘는 총탄들이 부딪치는지 퍼런 불찌가 번개의 섬광처럼 창공에서 번쩍거리었다.

그런 속에서 유락종은 마지막상차작업을 끝낸 자동차를 뽑고있었다.

그 순간 또 한대의 썬새기가 유락종을 향하여 내리쬐지고있었다.

썬새기의 날개밑에서 시뻘건 불이 번쩍거리고 파르륵파르륵 기총탄이 우박처럼 흙모래땅에 쏟아져박히었다.

이때 유락종은 누구인가가 자기 몸을 사정없이 덮치는것을 느끼었다. 맹렬한 고사포사격에 질겁한 적기들이 달아나버렸을 때에야 유락종은 자기 몸을 덮은 사람이 김만수아바이임을 알았다.

유락종은 일어날수가 없었다. 김만수아바이가 그를 꼭 그러안고있었기때문이었다.

《아바이, 비행기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일어납시다.》

유락종이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유락종은 붉은 피로 랑자해진 자기의 웃옷을 보았다. 아바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였다.

유락종은 만수아바이를 두손으로 부둥켜안고 일어났다.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만수아바이!

《아, 아... 이 어찌된 일이요...》

유락종이 울부짖는 소리에 경악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아바이! 만수아바이!》

사람들은 제가끔 아바이를 불렀으나 묵묵부답이다.

마지막이사짐을 싣고 아바이가 숨지다니... 아바이가 마라초를 피우지 말고 짐을 싣었던들 이런 변고가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지 않았을가.

유락종은 그것을 후회하며 통곡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공장직맹위원장이며 포탄직장 직장장인 김인호도 뛰여오고 병원에서 의사 럽민희도 위생가방을 메고 달려왔다.

《아바이, 아바이!... 이놈은 살리면서 가면 난 어떻게 하라는거요. 아!-》

사람들이 황소영각같은 울음을 터치는 유락종의 품에서 아바이를 떼내여 정문옆 깨끗한 잔디밭에 옮겨다 눕히었다.

녀의사가 세련된 동작으로 만수의 옷동을 헤집었다. 행여나 하고 응급처치를 하려 하였으나 적의 기총탄알이 아바이의 등을 뚫고들어가 가슴을 헤치고 지나갔다. 그의 몸에는 폭탄파편도 여러개 박혀있었다.

녀의사의 눈에서 솟구쳐나오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아바이의 피젖은 가슴에 비물처럼 떨어져내렸다.

사람들모두가 아바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염발이 진한 빠름한 턱, 도드라진 큰 코, 잔주름에 둘러싸여 어딘가 멀리를 노려보며 꾸짖는듯 한 부릅뜬 눈, 아직도 빛을 잃지 않은 새까만 머리칼... 아바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설음이 북받쳐 가슴을 치며 오열하였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때 한 녀인이 분연히 말하였다.

《여러분, 이젠 빨리 떠나자요. 모두 군자리에 가서 총을 만드어요! 미국놈의 비행기를 단방에 떨구는 고사포를 만드어요. 원쑤를 갇자요.》

울음을 터치던 사람들은 녀인을 돌아보았다. 눈물에 벌겋게 부어오른 눈자위를 손수건으로 훔치며 서있는 그 녀인은 김만수아바이의 안해 지금순이었다.

《우리 령감은 해방전에 여기 평천리병기제조소에서 개, 돼지보다도 더 천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해방후부터 사람대접을 받고 당원까지 됐지요. 장군님께서 우리 령감을 끄찍이도 위해주셨소...》

지금순녀인은 울음이 북받쳐 더는 말을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싶어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이것은 멀지 않은 석달전에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수풍으로 강행군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문글에서 시선을 떼고 긴숨을 쉬시였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겠는가!》

그이께서는 신심에 넘쳐 혼자소리로 뇌이시고 다시 신문글에 시선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4면이나 되는 특간호의 글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으시였다. 다만 1면에 실린 《**김일성**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자력갱생폭탄>에 대한 옛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은 대강 훑어보시였다. 읽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하실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그것은 1945년 11월 21일 인민들에게 소금을 충분히 공급할데 대한 북조선 행정10국 국장모임이 있는 뒤끝에 병기공장건설문제를 논의하면서 들려주신 자력갱생폭탄제작에 대한 그이의 옛이야기를 실은 글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소개글의 마지막결구만은 한자한자 심중히 읽어보시였다.

《아, 그날에 하신 장군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장군님께서 친히 세워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병기공장의 빛나는 발전력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혁명의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

자력갱생! 이 글을 기발에 새기고 어서빨리 수풍으로 달려가 멸적의 수류탄, 자력갱생의 폭탄을 생산하자!...》

전화의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이께서는 병기공장에서 때마침 발간한 신문 특간호가 수풍으로 행군해가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에게 고무적힘으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맹세문과 신문 특간호를 나무함에 넣고 보자기에 싸시였다. 그것을 문헌고에 보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먼 세월이 흐르면 귀중한 력사문헌자료로 될수 있었다.

마침 부관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장군님, 이젠 저녁을 드셔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제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밤 10시가 지났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가?... 병기공장에서 보내온 맹세문과 신문 특간호를 잘 보관하시오. 그리고 래일은 아침일찌기 어딜 좀 가야겠소. 아침 6시에 출발할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알았습니다.》

부관은 조용히 그러나 절도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쿵 쿵...

밖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있었다.

2

무거운 짐들을 등에 진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대렬이 10여명씩 조를 무어 북으로 행군해갔다. 적들의 공습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적은 인원으로 대오를 편성한 수백여개의 소편대는 새 소개지에 가서 즉시 수류탄생산을 할수 있도록 저마다 수류탄주형틀, 바이스, 탁상볼반 같은 기계설비들을 분해하여 등에 지고 행군하였다. 모두 쇠붙이들이여서 짐이 여간 무겁지 않았다.

행군하는 사람들의 머리위에 차거운 가을비가 을씨년스럽게 휘뿌리고있었다. 비물이 고인 진창길에는 힘겹게 굴러가는 소달구지바퀴며 무겁게 옮겨짚는 여러 형태의 발자국들이 무질서하게 찍혀지고있었다. 그속에는 류일룡이 끌고가는 달구지들도 있었다. 그는 이번에 병기공장 가족대렬을 책임지고 인솔할 과업을 받았다. 가족대렬들도 거의 다 도보행군을 하였으나 로약자들을 위해 석대의 소달구지를 마련하였다. 지금 류일룡이 끌고가는 달구지들에는 임신부들과 로인들이 앉아있는데 그중에는 잘 걷지 못하는 그의 늙은 가시어머니도 있었다. 안해와 어린 두 딸은 걸어가게 하였다.

그는 등에다 만짐을 진채로 석대의 달구지를 혼자서 다루었다. 로약자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앞뒤를 오가며 달구지를 살폈다. 그러다가도 도보행군을 하는 가족대렬이 길을 헛들가싶어 가닥길이 나질 때마다 여기저기 숨가쁘게 뛰어다니며 길안내를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편대들의 대오가 점점 흐트러지고 대오의 간격도 무질서해졌다.

류일룡의 부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커졌다.

《작업반장동무, 등짐을 달구지에 올려놓으세요. 여기 자리가 많은데...》

달구지에 앉아있는 만삭이 된 한 녀인이 대렬을 수습하느라 등짐을 지고 뛰어다니는 류일룡을 보기가 민망스러워 달구지안의 자리를 좁히며 하는 말이였다. 그 녀자는 리창일이라는 포탄직장 작업반장의 아내였다.

《아주머니, 내 걱정은 말고 무사히 수풍까지만 가주시요. 제발 로상에서 아이를 낳지 말고요. 허허허.》

류일룡은 달구지를 타고 《호강》하는 로약자들의 송구한 마음을 녹잡혀주느라 일부러 너스레를 떨며 우스개소리를 하였다.

어제 중낮때 공장마을을 떠난 가족대렬은 이제 겨우 30여리남짓이 길을 축냈었다. 밤에도 행군을 한 선두로동자대렬은 벌써 청천강다리목어방에 이르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류일룡은 로약자가 많은 가족대렬에서는 밤행군을 될수록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이번 행군에서 한사람의 희생자도 내지 말데 대한 장군님의 간곡하신 당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었다.

그가 달구지를 뒤에서 밀며 언덕길을 툭아오르고있을 때였다. 수염을 깎지 않아 입주변이 구두술같은 키 큰 사람이 행군대오와 반대인 남쪽방향으로 경정경정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강덕근이라는 공무동력직장 전공이었다.

류일룡이 강덕근을 의아하게 지켜보며 소리쳐 물었다. 강선작업반에 전기사고가 생기면 언제나 덕근이가 와서 고쳐주곤 하여 그들은 서로 무렵없는 사이였다.

강덕근은 안해의 해산날자가 박두해서 데리고가다가는 산모도 애기도 다 놓칠것 같아 그를 홀로 떨구고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가 해산을 거들어주고 돌아와야겠다는것이였다. 갓 마흔에 첫 버선이라고 그의 안해는 시집와서 10여년만에 태기가 있어 마흔살이 가까와오는 이제 비로소 그리도 바라던 애기를 보게 되였다. 덕근이 끔찍이 아이를 기다리던터라 안해의 임신은 그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란리통에 몸을 풀게 되어 안해와 토론한 끝에 그를 집에 떨구고 덕근이만 혼자 떠나왔던것이다.

류일룡은 덕근의 안해가 당장 몸을 풀게 된 임신부라는것을 모르고있었거니와 해산날자가 박두한 안해를 집에 떨구고온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했다. 한세대도 아닌 천여세대의 가족을 장악하다보니 그런 빈틈이 생기였다.

《동무, 정신이 있소? 당장 해산할 처를 떨구고 오다니... 가족대렬을 맡은 내가 그걸 모르고있는데 잘못이네만 왜 나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나. 당장 데려오게. 이 달구지에 한사람은 더 탈수 있네. 가다가 몸을 풀면 무어라나, 여기 우리 가시어머니랑 아이를 받아줄 내인이 많으니 어서 데려오게. 이 장소에서 기다리겠네.》

류일룡은 달구지를 끌고가던 황소 한마리를 내서 덕근에게 주며 빨리 갔다오라고 하였다. 황소가 말보다는 빠르지 못해도 그것도 밭에 땀이 나면 삼십리길은 한시간이면 넉넉히 갔다올수 있었다.

《잔말 말고 소를 타고 달려가게. 올 때도 처와 함께 소를 타고오게. 처가 떨어지지 않게 꼭 붙들구 오게.》

류일룡의 우격다짐을 어느 누가 이겨내겠는가.

덕근은 울며겨자먹기로 소를 타고 달리였다. 어렸을 때 소몰이를 많이 한 덕근은 소를 아주 잘 탔다. 살진 누런 황소는 무섭게 영각을 하며 네굽을 안고 달리는데 그 속도가 말에 못지 않았다. 사람들은 소를 타고 달리는 덕근을 보며 허리를 쥐고 웃어댔다.

류일룡은 엎어진 김에 쉬는 격으로 덕근이 올 때까지 가족대렬에 휴식명령을 내리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시간이 지나도록 덕근은 돌아오지 않았다. 성미가 불같은 류일룡이 더는 앉아서 기다릴수가 없었다. 화가 통한 그는 남아있는 암소 두마리중 탄탄하게 생긴 놈을 골라타고 공장사택마을로 때려몰았다.

그가 덕근의 집마당에 들어서자 방안에서 애바르게 부르짖는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난 못 가요. 벌써 배가 아파나는데 이런 몸을 끌고 어딜 간다구 그래요. 내 걱정은 말구 당신이나 공장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왜 돌아왔어요. 예구, 속타라...》

《어쩐다?》

류일룡은 토방에 뛰어올라 지게문을 벌컥 열어제끼고 다짜고짜 소레기를 질렀다.

《이건 도대체 뭐야? 술한 사람이 기다리고있는데...》

《여보게, 고함지르지 말게. 애기 지우겠네,》

방 길마리에 앉아있던 덕근이 느닷없이 뛰여든 류일룡을 눈이 켜해서 올려다보았다. 그는 찢찢 매다가 기여드는 목소리로 자기는 갈 형편이 못된다고 사정하였다.

《못 간다는게 무슨 소리요? 놈들이 들어오면 병기공장 사람들을 곱게 놓아둘줄 알아. 죽네, 죽어. 그래서 병기공장 가족들만은 같이 데리고 후퇴시키는거야.》

《못 가겠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판에.》

《그래, 아주머니도 같은 생각이요?》

류일룡은 배를 그러안고 앉아있는 덕근의 안해에게 눈을 부라리었다.

《못 가겠어요. 이 몸으루 어떻게 가요.》

《썩 그만두라!》

성이 똑같이 오른 류일룡의 관자노리에서 시퍼런 동맥이 풀떡거리었다.

《시라소니같은것들때문에 괜히 시간만 빼앗겼군. 안 가겠다고 버티는 반동들을 데려가선 뭘해.

...평소에 일을 착실히 하길래 염통만은 곳곳한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영 뼈대가 없는 반편이군. 네간놈을 믿구 술한 가족대렬을 로상에서 기다리게 하구 여기까지 기신기신 찾아온 나도 미물은 미물이다. 에익, 똘!》

류일룡은 침을 탁 내뱉고 마당으로 나왔다. 방안에서 녀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뭐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에 서있는 두마리의 소영뎡이에 채찍을 갈겨댔다.

그가 황소를 타고 암소의 고삐를 끌면서 공장 사택마을을 지나 백양산굽이를 돌고있을 때 남쪽하늘에서 비행기의 폭음이 울려왔다. 얼핏 뒤를 돌아보니 《B-29》 비행기 4대가 흰 날개를 거만하게 펼치고 이쪽으로 날아오고있었다. 그놈의 배때기밑에서 어떤 검은 물체가 번뜩거리더니 잠시후 쑈 하는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팡 파르릉 하고 하늘땅이 깨여지는듯 한 소리가 귀청을 때리었다. 폭격에 놀란 황소가 미친듯이 우왕 하고 영각을 치며 높이 올리뛰는 바람에 류일룡의 몸이 공중에 허양 날렸다가 탄탄한 돌판에 떨어져내렸다. 그는 대번에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구질구질 비가 내리고있었다. 그의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버려 온몸이 우들우들 떨려났다.

처음 한순간은 정신이 뻥뻥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 비내리는 산기슭에 누워있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후에야 강덕근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폭격을 만난 생각이 났다.

타고오던 소 두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가슴을 찔렁하게 하는것은 행군길에 남겨두고온 가족대렬이었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지는것으로 보아 자기가 대여섯시간은 실히 혼절해있었던것 같았다.

그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흙투성이가 된 온몸이 된매를 맞은것처럼 저려났으나 다행히 걸을수는 있었다.

그는 비속을 누비며 정신없이 내달리었다. 그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가족대렬은 린근마을에 들어가 비를 그으면서 그때까지 류일룡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대렬에 남겨두었던 암소 한마리마저도 기총탄에 맞아 죽어버려서 각을 떠서 고기와 뼈다귀들을 각자들의 짐속에 집어넣었다고 했다. 결국 세마리의 소를 하루새에 다 잃어버렸다.

《더러워서. 덕근이놈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군.》

류일룡은 성이 나서 쌍욕을 해댔다.

(군자리에 남은 지응모기사네 일은 제대로 되는지?)

류일룡은 그속에서도 70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하고있는 결사대원들을 걱정하였다. 그리고 눈을 슴뻑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가?》

오매에도 그리운 장군님이시였다.

3

김일성동지를 모신 풀색군용승용차는 만수대언덕을 내려 모란봉 남쪽기슭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갔다. 길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평양시가는 심산속같은 깊은 정적에 묻혀있었다.

뒤좌석에 자리를 하신 그이의 옆에는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이 앉아있었다. 앞좌석에 운전사와 나란히 앉은 부관은 사냥총을 무릎우에 얹어놓은채 초조한 표정으로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승용차의 시창은 동쪽지평선우에서 거의 수평으로 비치는 아침해빛에 부딪쳐 반사경처럼 번쩍거리었다.

그이께서는 이날 이른새벽에 해방산, 창광산, 남산재, 장대재, 만수대 등 평양중심구역의 산들을 차례차례 올라가보시였다. 원쑤들의 폭격에 처참히 상처입은 산들이었다.

부관은 물론이고 연락군관과 운전사도 어지간히 마음들이 초조해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적들은 남쪽가까이에 기여들어오고있고 멀지 않은 곳에서 끊임없이 포성이 울리고있건만 그이께서 너무도 여유작작하게 평양시안을 돌아보고계시기때문이었다. 더우기 알수 없는 일은 아침에 부관더러 자신의 사냥총을 가지고 차에 오르게 하신것이였다. 그 사냥총으로 말하면 1948년 12월 평천리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기관단총시험사격을 하던 날에 그이께 선물로 올린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태 몇년이 되도록 한번도 쓰시지 않고 소중히 간수해두고계시였다. 그런데 적들이 가까이 다가오고있는 이때 뜻밖에도 사냥을 하시려는듯 고이 간수해두고계시던 사냥총을 들고 차에 오르게 하신것이였다. 무시로 총탄, 폭탄이 우박치듯 하는 지금은 사냥할만 한 곳도 없고 또 사냥할 여유도 없었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는 평양시주변의 야산들과 시중심부의 공원, 유원지들이 수십종의 나무들로 숲이 무성해져 그속에서 꿩, 방울새, 피꼬리, 딱따구리 같은 여러가지 날새들이 우짖고 못짐승들이 뛰어다니였다.

그러나 적비행기들이 날아들며 기총탄과 폭탄들을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모든 자연동물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어 이제는 새소리조차 들어보기 어렵게 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아침 산들에 오르실 때마다 부관과 연락군관에게 장끼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가 주의깊이 귀를 강구어 들어보라고 하셨지만 장끼소리는커녕 혼하디혼한 참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못내 아쉬워하며 기어이 평사냥을 하고 떠나시려는지 모란봉숲속을 헤쳐보라고 하시었다.

어느덧 승용차는 모란봉기슭에 이르렀다. 그이께서는 차를 멈추게 하고 서둘러 물매진 모란봉산길을 오르시었다. 부관도 사냥총을 들고 연락군관과 함께 그이의 뒤를 따라갔다. 불에 탄 나무등걸과 움푹 패인 폭탄구멍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준엄한 전쟁은 평양의 제일명산 모란봉에도 처참한 상처를 입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늑처럼 움푹 패워진 폭탄구멍이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비물이 고여있는 구멍이안에 솟검뎡이가 된 나무그루터기들과 불에 그슬린 지저깨비들이 뚱뚱 떠다니었다.

《력사이래 모란봉이 이렇게 상처입어본적은 없소.》

그이께서 폭탄구멍이를 가리키며 격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고구려의 도읍 평양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다. 고구려초기부터 큰 성시라는 뜻에서 평양이란 이름이 생겨났으니 그때부터 평양의 발전력을 보아도 1 5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있었다.

427년에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에 옮기었고 고려시기에도 평양을 나라의 서쪽지역에 있는 수도라는 뜻에서 서경이라 불렀다. 고려의 역대왕들은 여러번 수도를 개경(개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였다.

《대동강을 따라 늘어선 능수버들이 특이한 풍치를 돋구는 도시라 하여 민간에서는 류경이라고도 불렀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을밀대쪽을 바라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평양은 해방후 민주수도로 되어 그 이름이 세계 각지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민주조선의 상징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민의 도시로 자랑을 떨치게 되었소.》

그런데 미제승냥이들이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수백수천개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총탄을 퍼부어 수많은 문화재보와 살림집들을 파괴하고 수도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동무들, 보라. 미제승냥이들이 우리 모란봉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고 불타버린 나무등걸과 폭탄구덩이들을 가리키시였다. 성글게 서있는 나무들사이로는 무너진 벽체들과 재더미들이 널려있는 황폐화된 거리가 내다보이였다.

그이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상처입은 모란봉을 어루만지시듯 부서진 바위돌이며 불타버린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였다.

오래동안 지속된 무거운 정적... 문득 어디선가 울리는 이상한 소리가 모란봉의 정적을 흔들었다.

《가만, 저게 무슨 소리요?》

김일성동지께서 손을 흔드시는 바람에 사냥총을 어깨에 메고있던 부관이 가슴앞으로 총구를 내뺀치며 소리가 울린 쪽을 긴장하게 노려보았다.

《동무들, 저 소리를 듣소? 장끼가 울고있소.》

김일성동지께서 반색을 지으며 산 옷쪽을 가리키시였다.

깡- 깡-

을밀대쪽에서 장끼의 진동적인 울음소리가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누비며 그 무슨 타악기의 아름다운 음향처럼 울려왔다.

부관은 숫제 사냥총가목을 어깨에 받친채 여차하면 내갈기려는듯 소리나는쪽을 겨누고있었다.

《동무, 총을 쏘자고 그래? 총을 내리우시오!》

김일성동지께서 부관을 꾸짖으시였다. 그러나 인차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모란봉에 깡이 있구만. 전쟁통에 날새와 산짐승들이 다 달아난줄 알았는데 깡이 있소. 접때 지웅모가 왔을 때 저 장끼소리를 들려주지 못한게 한이요. 그는 조국의 나무와 풀, 날새와 산짐승들 그 모든 자연부원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무요. 그런 사랑을 안고 기관단총도 설계하고 이 사냥총도 만들었소. 우리의 총은 그런것이요. 지금 지웅모네가 700정의 기관단총을 만드느라 고생할거요.》

그이께서는 부관의 손에 들려있는 사냥총을 애뜻이 쓸어만지시였다.

《동무들, 모란봉에 장끼가 있으니 꼭 까투리가 있을거요. <깡깡 푸드득 장끼갈제 아로롱 까투리 따라가듯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허허허.》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며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그러시며 불타오르는듯 한 붉은 장미빛두건을 쓰고 오색령롱한 털로 목을 장식한 조선뽕은 류달리 아름다울뿐아니라 고기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경제적가치도 있다고 하시었다.

《우리가 모란봉에 올라와보길 잘했소. 나는 뽕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산을 오르내렸소.》

부관과 련락군관은 반사적으로 눈을 치뜨며 서로들 마주보았다. 가까이에서 적의 포성이 울리고있는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런것을 알아보기 위해 품을 내여 산발을 타신것이 놀랍게만 생각되었던것이다.

《전쟁이 일어난지 녀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나라의 자연부원들이 수없이 손실당했소. 가슴아픈 일이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동식물들이 들장날수 있소. 강원도와 함경도의 깊은 산들에는 이마에 임금 왕자를 새긴 조선뽕들이 많았는데 화약내를 맞고 다 달아났다고 하오.》

장끼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한줄기 세찬 바람이 가랑잎과 재티들을 흩날리며 동북쪽으로 줄달음쳐갔다.

《이다음 평양에 돌아오면 무너진 보통강방뚝도 다시 보수하고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하겠소.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에 보금자리를 잃고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날새와 짐승들에 대해 꿈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모든 날새와 짐승들이 사라져가는 지금은 사냥총을 쏘 때가 아니요. 내가 사냥총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한것은 뽕을 사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자에게도 총이 있어야 하오. 다시말하지만 우리의 총은 그런것이요.》

그이의 의미심장한 말쑥에 부관은 무겁게 머리를 수그리었다. **김일성**동지를 늘 몸가까이에 모시고다니는 부관은 매일과 같이 이렇게 새라새로운것을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이젠 내려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 아래길로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원래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우리 조선을 먹어보려고 갖은 악랄한 짓을 다해온 조선의 백년숙적이요.》

그이께서는 폭탄구덩이옆에 널려있는 불에 그슬린 나무가지 하나를 집어드시고 미제의 조선침략력사를 해부하시였다.

1834년에 벌써 미국무원에서는 무역으로 조선을 략탈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고 1845년에는 조선에 대한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조선개방안》을 국회에서 토론하였다.

1866년 8월 조선에 대한 미제의 피비린 조선침략력사의 서막을 열어놓은 《서면》호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사람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평안도와 황해도의 연해를 오르내리며 총, 포탄으로 각종 도발책동과 살인, 략탈만행을 감행한 《웨난도아》호와 《차이나》호는 또 어떤 침략선들이였던가.

미제는 이밖에도 여러번 조선에 대한 무력적인 침공을 기도하였으나 매번 나라를 위해 떨쳐일어선 우리 인민에게 매를 맞고 도망치군 하였다. 하지만 미제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1882년 제물포에서 마침내 침략적인 《조미조약》을 조작하고야말았다. 이 조약을 계기로 하여 영국, 도이췌란드, 이딸리아, 짜리로씨야, 프랑스, 벨지끄, 단마르크

등 여러 자본주의나라 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적인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해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격노하신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사실상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게 강요한 침략적인 <강화도조약>과 <조미조약>으로 하여 조선의 식민지화과정은 촉진되였고 마침내는 사대주의자들의 매국배족적행위로 하여 나라가 망해버리고말았소. 봉건통치배들이 군력을 키우지 않고 사대주의를 하며 권력다툼만 하다나니 우리 민족이 망국의 치욕을 당하게 됐소. 빼앗긴 나라를 찾기까지 우리 혁명가들과 애국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이것은 참을수없이 원통한 일이였다.

김일성동지를 모신 일행은 어느덧 모란봉기슭 차도로에 이르렀다.

그이께서는 차문곁에 서서 대동강쪽에 시선을 돌리시였다. 룡라도의 버드나무들이 저 멀리 바라보이시였다. 미제침략선들의 침략의 행적이 기록되어있는 대동강은 유유히 흘러내리고있었다.

《우리는 참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해방을 맞이했소. 그런데 미제날강도들이 또다시 남쪽땅에 기여들어 전조선을 집어삼킬 옛꿈을 되살려 전쟁의 불을 질렀소. 그러나 어렵도 없소. 오늘 우리가 일시 사랑하는 평양을 떠나게 되지만 이제 몇달안으로 침략자들에게 된매를 안기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이께서는 며칠전에 읽은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의 맹세문을 되새겨보시였다. 이제 그들이 수풍에 가서 만들어내는 총과 수류탄들이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고용병들의 머리위에 죽음의 불벼락을 안기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시였다.

그이께서 철석같은 그 믿음을 안고 10월 11일에 하신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라는 방송연설은 이미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울려퍼졌다.

그이께서는 방송연설을 집필하신 날에 각 성들에 특별지시문들을 내려보내셨는데 그중에는 병기공장 로동계급과 관련된 지시문도 있었다.

《산업성 병기생산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관단총 700정을 생산하기 위하여 군자리에 남아있는 동무들의 식량과 부식물을 보장하며 정주에 보관되어있는 솜옷을 수풍지구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수류탄생산을 하게 될 군자리병기공장 종업원들에게 공급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자리지하갱도에서 기관단총을 제작하고있는 지웅모네 결사대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그러자 어째서인지 항일유격대병기창들에서 울리던 풀무질소리, 망치소리, 줄칼소리들이 귀에 쟁쟁하시였다. 그리고 그 병기창들에서 무기를 제작하던 박영순, 박두경, 손원금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시였다.

그들의 인간상에서의 핵은 강쇠같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였다. 손원금이와 같은 사람은 화약을 제조하다가 중상을 입고 실명된 상태에서도 조금도 비관하지 않고 《비록 두눈을 잃었지만 나에겐 심장이 있고 두팔, 두다리가 남아있다.》하고 《인터나쇼날》 노래를 부르며 손더듬으로 쇠줄을 자르고 작탄을 조립한 강철의 투사였다.

《지웅모네도 꼭 해낼것이다. 유격대병기창의 투사들을 그대로 닮은 동무들이니까!》

그이께서는 군자리가 있는 서북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매지구름이 떠도는 그 하늘에 천둥이 울고있었다.

4

그 시각 20명 결사대원들이 전투를 벌리고있는 군자리에도 비가 내리였다. 끈질기게 내리던 보슬비는 점차 굵어지면서 바람을 일꾸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 가을비는 기세를 돋구기 시작했다. 굴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초병처럼 까딱없이 서있던 늙은 소나무는 비바람에 항거하듯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몸을 기운껏 가누며 쇠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비바람은 그 건너편에 서있는 황철나무를 공격했다. 황이 든 잎사귀를 순식간에 뜯어내여 보기 처량한 벌거숭이로 만든 비바람은 군자리사택마을로 줄달음쳐갔다. 미친바람은 축축히 젖은 벽체들을 때리고 어느 한 빈집의 양철지붕을 마구 벗겨놓더니 전주대들을 뿌리채 뽑아버릴듯 기승을 부리며 사납게 달려들었다.

인적이 사라진 사택마을 골짜길로 도랑물이 때아닌 장마비를 만난듯이 철철 넘쳐흐르고 시뿌연 남쪽하늘에서는 우뢰인지 포성인지 알수 없는 폭음이 간단없이 울리고있었다.

이밤 지응모는 캄캄한 굴속에 앉아 맹세문 밑에 적혀있는 20명 결사대원들의 이름을 전지불로 하나하나 비쳐보고있었다. 유락중, 리병혁, 김영식, 림민희, 김정길, 장기진, 리선수... 스무명중 3명만이 민청원이고 17명은 당원이었다.

이들은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이 모두 수풍으로 강행군을 시작한 어제 낮부터 700정 기관단총생산을 위한 결사전에 진입했었다.

전투에 앞서 공개당총회를 하였다.

세포위원장이 공장신문 특간호에 실린 자력갱생폭탄에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옛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간단한 구두보고를 하였다. 뒤이어 결사대원들이 불같은 결의토론들을 하고 20명 결사대원들중 유일한 녀성인 림민희의사가 맹세문을 읽었다. **김일성**장군님의 명령대로 700정의 기관단총을 기어이 기한전에 생산하여 평양방어사령부에 보낼데 대한 필사의 결의를 다진 그 맹세문 밑에 20명 결사대원전원이 자기의 이름들을 새기였다.

마지막으로 지응모가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미진된 부분품에 대한 선반가공, 기관실조립, 탄창조립, 성능검사사격에 이르기까지의 조립공정순위에 따라 전투분담을 하고 주먹을 머리위로 높이 쳐들며 피성같은 소리로 구호를 웨쳤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자!》

《집행하자! 집행하자! 집행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결사의 맹세를 다지는 20명 결사대원들이 웨치는 함성이 지하전투장을 찌릉찌릉 울리였다.

그때부터 결사대원들은 저마다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일손을 다그쳤다. 쇠밥을 날리는 선반기소리, 축구명을 뚫어대는 드릴소리, 부속을 맞추는 손마치소리...

그런데 전투가 한창 고조되고있을 때 별안간 조명등이 꺼지고 굴속에 메아리치던 기계소리가 일시에 숨을 죽이였다. 굴속은 까막나라가 되였다. 지하병기공장으로 공급되던 전기가 끊어버린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청천벽력이였다.

전기는 생명이였다. 전기가 없이는 기관단총을 조립할수 없었다. 쇠를 깎는 선반기와 금속을 열처리하는 가열로를 비롯하여 일체 모든 병기설비들이 전기를 통해 가동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작업장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20명 전원이 떨쳐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였으나 사고요소를 찾아낼수 없었다. 도달된 결론은 적들의 폭격에 지하병기공장으로 들어오는 전력선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지하병기공장의 전력체계를 잘 알고있는 잠입간첩의 암해책동으로 빚어진 사고라는것이였다.

또 하나의 엄중한 사태는 20명 결사대원들이 전투기간에 먹을 식량이 없는것이였다. 하루분의 식량밖에 없었다. 쌀을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리부장이 식량을 내놓지 않고 가버린것이다. 경리부장은 지응모에게 전투기간은 물론이고 전투를 끝내고 수풍으로 행군해갈 때까지의 식량을 지하창고에 남겨두고 간다고 했었다. 먹을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있던 지응모는 창고안에 쌀이 없다는것을 뒤늦게야 알고 경리부장을 찾았지만 이미 그는 자리를 뜨고 없었던것이다.

경리부장이 나쁜 놈인가?

참으로 뜻밖의 일들이 벌어져 지응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웅모는 결사대를 총책임진 대장으로서 자기 사업에 빈틈이 많았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식량은 주민구역에 나가 구해올수 있지만 전기는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형편은 절망적이였다. 하지만 맥을 놓을수 없는 지웅모였다. 이제 밤 9시부터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당, 민청련합회의를 하게 되여있었다. 회의시간이 박두하여 지웅모는 움쭉 일어섰다.

도간도간 켜놓은 화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굴속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는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20명 결사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듬어보고있었다.

지웅모는 먼저 3명의 민청원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기관단총직장 민청위원장 김영식, 그는 바로 석달전에 희생된 김만수아바이의 막내아들이였다. 지웅모는 아버지와 형님을 적들에게 빼앗긴 그를 누구보다도 믿었다.

민청원 김정길, 그는 앞으로 작가가 될 꿈을 꾸고있는 이제 20살의 청년이였다. 어려서 지주집머슴을 사는 아버지를 도와 여물을 썰다가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잘리워 군대에 나가지 못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방아쇠를 당겨야 할 손가락이 없는것이다. 그러나 정길은 군사지식이 있고 병기제작기술을 배우려는 열성이 비상하며 일반상식이 많은 박식가였다.

장기진, 고급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진급할 시기에 전쟁이 일어 공장에 들어온 18살 나 어린 청년이였다.

김정길리와 장기진은 서로 형제처럼 친근하면서도 생산전투에서 경쟁심이 남달리 강하였다.

지웅모가 이 두 청년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지난 7월 전선지원청년작업반에서 방열통고정축 뺑가공에 대한 경쟁총화를 할 때였다. 그날 바른손 지시손가락이 없는 김정길리가 단연 제1등의 영예를 쟁취했고 장기진은 2등을 했었다. 전선지원청년작업반 반장들인 유락중, 조규성들이 1등의 영예를 쟁취한 김정길에게 경험담을 말하라고 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는것이였다. 그는 그 긴 서사시를 뜯금으로 몽땅 외우고있었다. 그 청년은 열렬한 문학청년이였고 김일성장군님의 백두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는 애국청년이였다. 그날 뺑가공에서 김정길리보다 10개를 더 깎지 못해 1등의 영예를 쟁취하지 못한 장기진이 또한 경쟁총화에서 놀라운 발언을 하였다.

《동지들,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는 왜 김정길동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일하면서도 뒤진단 말입니까? 그보다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고요? 김정길동무는 손가락 하나가 없지만 나는 열손가락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1등을 하고 나는 2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같은 조건에서 남에게 뒤져도 부끄러운 일인데 나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정길동무보다 부족품을 10개나 깎지 못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세 민청원은 이런 청년들이였다.

나머지 17명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모두 김일성장군님앞에서 병기공장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것을 굳게 맹세를 다진 그이의 접견자들이였다.

지응모는 1948년 8월 23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그 바쁘신 때에 **김일성**동지께서 병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추억되었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 정일룡, 고정환, 현무광 등 여러 간부들과 공장의 책임기사들인 지응모와 박홍근을 데리고 현장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 그날 제일먼저 들리신 곳이 류일룡이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강선기작업장이고 그 다음에 들리신 곳이 바로 이번에 700정 기관단총제작에 망라된 20명 결사대의 한 성원인 리병혁이 일하는 용접작업장이었다. 쇠붙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그 어수선했던 용접작업장은 공장간부들도 좀해서는 찾아보지 않는 곳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들리셨을 때 리병혁은 용접면을 쓴채 산소와 아세틸렌의 불길이 뿜어나오는 용접고대로 쇠붙이를 한창 녹여붙이고있었다.

《여기선 복면용사가 싸우고있구만,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쇠붙이를 녹여붙이는 리병혁을 지켜보시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용히 웃으시었다. 지배인이 달려가서 리병혁의 잔등을 급하게 두드리었다.

《동무, 장군님께서 오셨소.》

리병혁이 화닥닥 놀라며 용접면을 벗어제끼었다.

《한창 일하는 동물 괜히 놀라게 만드누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눈이 둥그레 서있는 리병혁에게 손이나 잡아보자고 하시었다. 순간 리병혁은 자기도 모르게 뒤걸음을 치며 두손을 등뒤에 숨기었다. 그는 40대 초반에 이른 용접공이었다.

그이께서 손을 잡자고 청하시는데 손을 뒤로 숨기는것은 겸손을 벗어난 큰 실례라고 할수 있었다. 그래서 현무광이 당황해하며 《저 동무의 손이 좀... 상처가 많고 험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일하다가 손에 허물이 생긴것 같은데 나는 그런 손을 더 잡아보고싶습니다.》

《장군님께서 잡으실 손이 못됩니다. 저는 해방전에 왜놈용접공의 심부름질을 하다가...》

리병혁은 울먹거리었다. **김일성**동지의 너그러운 인품에 어느새 어려움도 잊어버리게 된 그는 해방전 왜놈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일을 죄다 말씀올리었다.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일을 할 때에는 왜놈들이 곁에도 오지 못하게 했던 일이며 왜놈용접공이 자리를 뜬 틈이면 몰래 용접고대를 잡아보곤 하다가 어느날 감독놈에게 들켜 매를 맞던 일이며 그놈에게 달려들었다가 용접고대에 얼굴을 지지우던 일에 대해서 그는 울면서 말씀올리었다.

《그놈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에게 달려들어 조선놈의 새끼가 다시는 용접고대를 찢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제 열손가락을 모조리 문질러버려 손가락병신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내가 여러번 병기공장에 와보았지만 이런 용접공이 있는줄은 몰랐소. 세상에 악착하다 악착하다 해도 일본제국주의놈들같은것은 없습니다.》

《장군님, 저는 해방이 되어 일본놈에게 빼앗겼던 열손가락을 다시 찾았습니다. 평양제1병원에서 여러차례 정형수술을 해주어 이렇게 용접기를 잡고 그리도 하고싶던

용접을 마음껏 하고있습니다. 공장병원의 민희선생이 그때 저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그 손을 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병혁이의 손을 잡아 손가락 하나하나를 모두 펴보시였다.

《아직 손이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쓰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장군님, 일없습니다. 용접하는덴 불편이 없습니다.》

《왜 일없겠소. 이제 동평양에 적십자병원을 크게 건설하는데 한번 더 수술을 합시다. 내가 직접 병원의사들에게 과업을 주겠소.》

《장군님!... 정말... 황공합니다... 제 죽을 때까지 나라의 병기를 만드는 일을, 으흐흑...》

김일성동지께서는 흐느끼는 리병혁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병혁동무, 로동당은 꼭 동무의 손을 고쳐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고 뜨겁게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평천리병기공장은 우리 나라 병기공장의 모체공장이라고, 이 공장의 로동자들을 앞으로 병기공업의 기둥으로, 골간으로 되게 잘 키워야 한다고 거듭 교시하시고 포탄직장 선반기작업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곳에서는 유락종이 대형선반기로 박격포아가리의 재질로 되는 합금박판을 깎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먼발치에서 유락종이 작업하는 모습을 대견스레 바라보시면서 저 동무가 일하는것을 보면 요술사의 신기한 재능을 보는것 같다고, 류일룡, 유락종동무들은 우리 나라에 몇명 안되는 최고급병기기능공들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현무광이 《유락종, 류일룡동무들이 선반과 강선작업에서 제1인자라고 하지만 박영순항일투사동지앞에선 머리를 숙입니다. 박영순동진 기계를 쓰지 않고 순전히 손으로 강선을 치고 쇠를 깎는데 기계로 한것보다 더 정교합니다. 그래 모두 혀를 찹니다. 류일룡동무가 이번에 강선공구를 새로 창안했는데 그건 박영순동지가 유격대무기수리소에서 하던 강선작업방법을 도입한겁니다. 유락종, 류일룡동무도 박영순동지만 오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떠받듭니다.》 하고 두손으로 떠받드는 시늉을 하여 수원들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유락종이 이쪽을 돌아보고 눈이 화등잔처럼 되어 어쩔바를 몰라했다.

《유동무, 작업에 방해를 주어 안됐소. 좀 쉬시오.》

몸둘바를 몰라하는 유락종의 곁으로 다가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실지 유격대무기수리소에서 일한 동무들이 병기공장로동자들의 기능기술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유락종의 이마에 나있는 허물자리를 찬찬히 살펴보고 수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이 동무의 이마에 나있는 저 상처자리도 방금 들은 용접공동무의 손과 비슷한 가슴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사연을 친히 말씀하시였다.

유락종은 12살때부터 14살까지 천내탄광에서 고역을 치르였다. 아버지는 오소리굴보다 더 비좁은 굴안에서 질통을 진채로 탄밭에 묻혀 목숨을 잃었다. 어머니도 오소리굴에서 생매장되였다. 그때 14살나는 형과 누이동생은 동냥길에 나서고 유락종은 부모들이 죽은 오소리굴에서 소년로동을 하였다. 어린 나이에 그 고역을

이겨낼수가 없어 그가 굴속에서 뛰쳐나와 흘러간 곳이 성진제강소였다. 그곳에서 유락종은 일본놈선반공의 기대청소공이 되었다. 기대청소공이 하는 일이란 일본놈기능공이 일을 끝내면 기대에서 쇠팅을 말끔히 걷어내고 기대를 깨끗이 닦고 기름까지 쳐서 다음날 작업준비를 해놓는것이였다. 일본놈들은 조선인기대청소공에 대해서는 기능공이 일하는 모습조차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 기대를 돌려본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였다. 어느날 선반공이 없는 사이 청소를 끝내고 너무도 호기심이 나서 선반 시동단추를 누르고 선반을 조종해보고있는데 별안간 그의 머리에 쇠팅치가 날아들었다. 감독놈이 선반을 조종해보고있는 그의 머리를 인물대조이개로 사정없이 내리친것이다. 유락종은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머리에서 선지피가 흘러 작업대발판을 붉게 물들이였다.

유락종은 다 죽었다가 이틀만에 정신을 차렸다. 유락종의 이마에 생긴 허물은 그때 입은 상처자리였다.

유락종은 성진제강소에서 해방을 맞은 다음에야 그리도 배우고싶던 선반을 다루게 되였을뿐아니라 헤어졌던 동생과 형님도 찾게 되였다. 유락종은 성진제강소에서 오늘의 병기공장 당위원장인 현무광을 알게 되였는데 그가 병기공장으로 소환되여올 때 같이 따라왔다.

《현무광, 유락종동무들이 성진제강소에서 일할 때부터 나는 그들을 알고있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유락종에게 장가를 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유락종은 언제인가 한번 말씀올린 자신의 일신상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잊지 않고 상세히 읊기시는 **김일성**동지의 은정에 목이 메여올라 아무런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현무광이 유락종을 대신하여 아직 장가를 못들었다고 아뢰었다.

《좋은 동무이니 이제 좋은 처녀가 찾아올거요. 장가를 들 때에는 나한테 알리시오.》

그이께서는 이날 수십개나 되는 작업장을 다 돌아보시고 맨 마지막으로 공장병원에 들리시었다. 그이께서는 북받치는 감격으로 하여 어쩔줄몰라하는 려민희에게 리병혁용접공의 손을 고쳐주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데 대해 높이 치하해주시고 의학공부는 어디서 했는가, 고향은 어디이고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고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이번에도 현무광이 녀의사경력을 간추려 말씀올리었다.

려민희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현재 서울에서 대학교수로 있고 미술가인 오빠도 서울에 있었다. 포탄직장 책임기사 박홍근은 려민희의 양오빠이며 애인이었다.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날 당시 려민희의 아버지와 한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박홍근의 부모들은 학생시위대렬에 끼였다가 일제의 총탄에 맞아 희생되였다. 려민희의 아버지 려정식교원은 그때 박홍근의 부모시신을 안장한 후 어린 그를 집에 데려다 한식구로 만들고 그의 아버지 홍식과 어머니 숙근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홍근이라고 하고 대학공부까지 시키었다.

1945년 10월 2일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고 인생전환을 하게 된 지응모는 그후 서울에 가서 대학시절부터 각근히 지낸 박홍근을 평양으로 데리고왔다.

봉천(심양)병기창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박홍근은 마침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오려던 참이었다.

박홍근이 평양에 온 이후 립민회는 내내 기회를 엿보아오다가 1946년 5월 밀선을 타고 입북하여 지응모, 박홍근의 연줄로 평천리병기공장병원 의사로 입직하게 되었다. 립민회가 한사코 입북을 기도한것은 이미 박홍근이와 헤어질수 없는 관계를 맺은 때문만이 아니었다. 박홍근이로부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립민회에게 있어서 북조선은 동경의 세계였다.

녀의사의 지나온 경위에 대한 현무광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딸을 얼마나 보고싶어하겠소. 동무도 부모님들이 무척 그리울게요. 미제와 리승만매국역도들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소. 이미 남조선을 식민지화한 미제는 북조선까지 삼켜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의 군력을 키우지 않으면 또다시 미제의 식민지가 되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민회동무,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장군님, 나라의 병기를 생산하는 귀중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제 힘껏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결의를 다지는 립민회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지금 당생활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민회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수그리였다. 병기공장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선교사들의 검은 손때가 묻어있는 서울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인 립민회의

입북경위에 대해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생들중에는 송미사대주의자들이 많고 지어는 미중앙정보국의 첩자로 활동하는자들까지 있었기때문이었다.

지웅모의 정치적보증이 없었더라면 민희는 병기공장에 들어올 엄두도 낼수 없었다.

《당생활을 하지 않는것 같은데 민희동무, 앞으로 당원이 되시오. 조선로동당의 기발을 보시오. 거기엔 마치고 낮과 붓이 그려져있소.》

《장군님말씀대로 수양을 하여 꼭 조선로동당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믿음에 더없이 감격한 민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렘민희는 그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가슴에 지니게 되었다.

결사대에 망라된 17명의 조선로동당원,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김일성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믿음직한 동무들인가.

이런 동무들과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엄혹하였다. 전기가 끊어져 모든 기계들이 멎어버리고 식량은 하루분의 여유밖에 없었다. 이제 아무리 연합모임을 하여도 전기문제는 해결할 방도가 나오지 못할것 같았다. 전투를 시작한지 벌써 하루가 지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굴속을 걸어가던 지웅모는 별안간 《선반기가 돌아간다.》 하는 소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정에 매달린 전등을

올려다보았다. 불은 켜지지 않았다. 의아쩍은 생각이 들어 소리나는쪽에 얼핏 시선을 돌리었다.

여러 동무들이 선반기앞에 줄을 서서 피대를 당기고있는 속에서 유락종은 선반을 돌리고있었다.

《대장동무, 이걸 좀 보시오. 선반기가 돕니다, 하하하.》

세포위원장이 몇명의 동무들과 함께 피대를 당기면서 하는 말이였다. 내용을 알아보니 그것은 유락종의 창안품이였다. 전력공급이 중단된 조건에서 수동식으로 선반을 돌릴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유락종은 선반기들에 걸려있는 피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선반주축을 돌릴 결심을 하게 되었던것이다.

작업대우에 오작난 탄창들이 기름등잔대용으로 되여 심지를 태우며 어둠을 밝히고있었다. 그 불빛속에서 일부는 선반기를 돌리고 한쪽에서는 방열통런결축을 바이스에 고정시키고 줄칼로 뿅뿅 끌고있었다. 전기가 없으니 모두가 다 수공로동을 하고있었다.

그때 지응모는 선반기앞에 매달려있는 시퍼런 쇠조박을 띠여보고 저건 무슨 쇠조박인데 매달고있는가고 물었다.

《김만수아바이의 몸에서 빼낸 폭탄과편입니다. 전우의 복수를 위해서...》

세포위원장의 말에 지응모는 눈을 홉뜨며 유락종을 돌아보았다.

(유락종이 여태 저 과편을 간수해두고있단 말인가?!)

지응모는 그의 손을 짹 움켜쥐었다.

《유동무, 고맙소, 고맙소.》

지응모의 눈에서 눈물이 끓어올랐다. 그는 정말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작업의 승산을 본것은 아니었다. 결사대원들이 불타는 적개심으로 선반기를 돌리고있지만 수공로동과 수동식선반으로는 생산속도를 보장할수 없기때문이었다. 절박한것은 시간이었다. 계획날자였다.

지응모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유동무, 우리는 빨리 700정의 기관단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낼수 있을까?》

《예, 해내야지요. 우리는 해냅니다. 토끼와 거북기의 뛰기내기를 생각해보시오. 쉬지 않고 뛰면 토끼를 이깁니다. 우리는 70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할 때까지 철야투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응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제부터 매일 꼬박 밝히며 전투할수 있을까? 무기제작에서는 순간적으로 조는 일도 허용하지 않았다. 깜빡 조는 그 순간때문에 오작품이 나오게 되고 그밖에도 여러가지 엄청난 후과가 빚어질수 있는것이였다.

유락종은 지응모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는 작업중에 졸지 않기 위해 4시간에 한번씩 30분간 휴식하면서 쪽잠을 자자는겁니다. 런던 철야전투를 하는 동무들이 일단 잠이 들면 깨어나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기상시간이 되면 그날 직일관이 기관단총련발사격으로 기상신호를 울리자는것입니다. 물론 식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3시간 자고 21시간 일하는것으로 되는데 하루 21시간만 만가동하면 능히 기한전으로 70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유락종이 이렇게 말하자 결사대원들중 제일 나이가 어린 민청원 장기진이 나서며 덧붙이였다.

《예, 21시간이면 됩니다. 결사대결의모임에서 결정된 저의 뺑가공하루작업량이 10개인데 줄칼로 쓰는 방법으로 수공로동을 해보니 2시간에 한개는 넉넉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무시간이면 10개를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3시간만 자면 졸지 않습니다.》

지응모는 열결에 장기진의 손을 보았다. 줄칼질을 하여 찌지고 부르트고 피멍이 든 손이였다.

(대장이 걱정만 하고있을 때 이들은 훌륭한 생각을 하고있었구나. 장군님께선 늘 나에게 로동계급에게서 혁명성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지응모는 젖어드는 눈으로 새삼스레 결사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련합모임을 생각하고 왔는지 련민희녀의사를 내놓고는 다 모여있었다. 그는 저녁식사후 식량공작을 떠났다. 남동무들은 모두 시간이 모자라는 생산자들이기때문에 비생산자인 자기가 가야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떠났다.

《의사는 아직 오지 않았소?》

지응모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누구에게라없이 걱정스레 물었다.

《민희선생이 떠난지가 한시간밖에 안되니 벌써 오지는 못할겁니다.》

세포위원장이 그를 안심시키였다.

(의사가 아무리 고집을 해도 남동물 보낼걸 잘못했군.)

지웅모는 손목시계에서 눈을 떼고 입을 열었다.

《이렇게 모였으니 결국 연합모임이 되었는데 내 의견을 좀 말합시다. 동무들이 참 좋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견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에서도 풀수 없는 난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제품에 대한 열처리문제였다. 제품가공이나 선반작업은 전기가 없이 수동식으로 할수 있지만 열처리만은 불가능하였다.

지금까지 병기공장에서는 전기가열로를 리용하여 금속제품에 대한 열처리를 하였다.

《대장동지,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숯불로 열처리를 합시다. 야장간에서처럼...》

누구인가 제기하자 용접공 리병혁이가 그 의견을 조용히 부정하였다.

《숯이 어데 있소? 숯이 있다해도 그러자면 열처리로를 개조해야 하는데 지금형편에서 그럴 시간이 있소?》

그 순간 지웅모는 용접공의 손에 들려있는 산소용접기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불현듯 그의 머리에서 령감의 불꽃이 튀기였다.

(저 용접기는 전기가 아니라 산소와 아세틸렌불길로 쇠를 녹여붙이는 용접기이지.)

지웅모는 서둘러 병혁의 곁으로 다가갔다.

《병혁동무, 지금까지 그 용접기를 쥐고 일하면서도 왜 생각을 못했소? 그걸로 달구어 열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소. 열처리란 다른게 아니요. 온도를 높여 금속립자의 성질과 조직을 변형시키는 공정입니다. 승산이 보이는데 한번 시험삼아 해봅시다.》

지웅모의 묘안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리병혁은 지체없이 산소통을 끌어다놓고 열처리제품에 냅다 불을 쏘아댔다.

세차게 노줄로 뽑어나오는 산소불은 잠간사이에 제품을 시뵔질게 달구었다.

손목시계를 꺼내놓고 시간을 측정하면서 구령을 치는 지응모의 신호에 따라 제품은 기름통안으로 철렁철렁 떨어져 들어갔다. 그럴 때마다 기름가마안에서는 췌- 칙칙 하는 소리와 함께 시허연 물김이 피여오르며 기름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응모는 시간을 맞추어 기름가마에서 제품을 꺼내여 바이트날로 때려보았다.

챙강, 챙강... 바이트날에 맞은 제품은 진동적인 아름다운 음향을 울리었다. 그것은 금속이 잘 익었음을 알리는 제품의 대답이었다. 열처리가 되지 않은 제품에서는 딱딱 마치면서 강철소리가 제대로 울리지 않는다.

지응모는 경비용으로 가지고있는 기관단총을 분해하여 금속의 마찰 진동음을 대비하여보았는데 역시 똑같은 소리를 냈다.

《우리 대장이 제일이다, 제일! 지난 여름 공장이설때처럼 우리 대장이 이번에 또 멋진 창의고안을 했다.》

리병혁이 너무 기뻐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어린아이처럼 꺽충꺽충 뛰었다.

《아니, 내가 제일이 아니라 동무들이 제일이고 영웅입니다. 세포위원장동무, 모든 문제가 풀렸으니 이것으로 연합모임을 대치하고 이젠 전투를 벌립시다.》

세포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지응모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결사대원들을 쭉 둘러보았다.

《현재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동무들의 의견대로 다음 휴식시간은 새벽 2시 30분부터 3시까지로 합시다. 직일당번은 새벽 3시에 기관단총런발사격으로 기상구령을 울리시오. 김정길동무!》

《옛!》

김정길은 느닷없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어정쩡해졌으나 군인처럼 힘있게 대답하였다.

《동무는 이제 당장 경비용기관단총을 가지고 려민회의사를 찾아가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2시전으로 돌아와야 하겠소. 자, 이젠 모두 자기 작업장으로 돌아가 전투를 시작합시다.》

저마다 요란한 발자국소리를 내며 자기위치로 달려갔다. 작업장마다에 기름불이 켜지고 곳곳에서 쇠불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쟁강쟁강 울려나왔다.

웁웁 쇠밥을 날리는 선반기소리, 샤르릉 샤르릉 무쇠를 쓰는 줄칼질소리, 붕붕거리는 용접소리, 철렁철렁 기름가마에 단쇠가 떨어지는 소리, 쇠악- 칙칙 기름가마에서 물김이 뿜어나오는 소리...

기관단총조립제작단이 연주하는 지하천척막장의 장엄한 선률에 맞추어 춤을 추는 전투원들의 불그림자가 마치도 파도처럼 넘실거리었다.

5

려민회는 한손에 권총을 쥔채 둥글황소를 앞세우고 군자리로 가는 큰길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서는 무릎까지 드리운 무명뎃저고리를 입은 농촌늙은이가 따라갔다.

저녁녘에 내리던 가을비는 멎어버리고 하늘이 들리었다.

보름을 가까이 하는 둥근달이 멀리 백양산마루에 올라앉아 푸른빛을 뿌리고있었다. 질푸른 달빛에 안긴 대지는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다만 밤길을 걸어나는 두사람의 발자국소리와 길마에 쌀가마니를 싣고 느릿느릿 걸음을 떼는 둥글황소의 구리방울소리가 유난스레 울리었다.

민희는 군자리병기공장에서 20여리 떨어진 안택골농촌마을에서 쌀 두가마니를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전혀 낮도 모르는 어느 한 농가에 들러 식량을 구하러 온 사정이야기를 하자 주인집늙은이가 해방후 장군님덕에 제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어찌 쌀을 아끼겠느냐며 소길마에 햃쌀 두가마니를 싣고 따라온것이였다. 알고보니 주인로인은 아들을 군대에 내보낸 후방가족이였다.

20명이 쌀 두가마니를 가지고 아껴먹으면 10일은 넉넉히 지탱할수 있었다.

예상밖에 일이 순조롭게 되여 민희는 한시름 놓게 되였다. 하지만 한가닥 무거운 의혹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였다. 결사대원들의 식량을 쌀창고에 넣어두고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경리부장의 일이 도저히 리해되지 않았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무사할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수풍으로 가지 않고 적들에게로 돌아섰는가? 그렇게 보기에는 평시에 너무도 정직하고 성실한 경리부장이였다.

민희는 전기공급이 갑자기 끊어진것도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어쩐지 지금 간첩과괴암해분자들이 병기공장주변을 맴돌고있는것 같아 몸서리가 쳐지였다. 사실 병기공장은 놈들이 제일 눈독을 들이고있는 곳이였다. 전쟁전에도 최영달이라는 간첩놈이 병기공장에 잠입하여 파괴암해공작을 하다가 들장이 날 무렵에 합숙식당에

불을 지른 다음 현장에서 맞다들린 김만수아바이의 맏아들 김영옥을 흉기로 찔러죽이고 남으로 도망쳤었다.

민희는 점점 무섭증이 생기었다. 이따금 길옆의 나무들이 술렁거릴 때마다 괴한이 나타나서 길을 막아나설것만 같아 머리끝이 쭈뼛해지곤 하였다.

민희는 공포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다른데로 돌리었다. 흥근오빠는 지금 수풍으로 가고있을테지. 어데쯤 갔을가?

문득 5년전 가을 서울에서 갑작스레 박흥근이와 헤어지던 애달픈 추억이 감쳐왔다. 그날은 박흥근의 량부모님들의 16돛제를 지낸 이튿날이었다. 박흥근이 작별인사를 할 때 민희의 아버지 럼교수는 쓸쓸히 눈물을 지었으나 맏오빠 민정은 어두운 표정을 하고 내키지 않아했다.

《네가 가는 길을 굳이 막지는 않겠으나 나는 네 인생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체 정치에는 오불관언하고 순수 기술을 하는게 좋아. 병기기술은 정치와 밀착되어있어. 병기창에서 감옥살이까지 했으면 이에서 신물이 나겠는데 또 병기기술이야? 그리고 네가 이제 평양에 가서 총을 만들어 미국을 당하겠느냐? 웃기는 일이야. 나는 미술을 전공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체 이데올로기적인 그림은 안그리고 순수 미술을 하겠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제일 어지러운게 정치다.》

박흥근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민정을 설복하거나 그와 논쟁할 시간이 없었던것이다. 그날 밤 럼민희는 역에까지 따라나와 흐느껴울며 박흥근을 바래주었다. 그날 서울역에서 박흥근을 데리러 온 지응모를 처음 보았다.

그밤 서울에서 있는 그들의 슬픈 작별은 이듬해 봄 평천리병기공장에서 상봉의 기쁨으로 이어졌다. 그날부터 흘러간 하루하루는 모두가 다 레사롭지 않은 날들이었다.

결코 기쁜 날만 있는것은 아니었다.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받으며 남몰래 눈물을 흘린 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후에 있는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변이 민희로 하여금 흔들림없는 신념을 간직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1948년 8월 23일 평천리병기공장병원에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은 날이었다.

《…조선로동당의 기발을 보시오. 거기엔 마치와 낮과 붓이 그려져있소.》

그날에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지금도 민희의 귀에 쟁쟁하였다. …

《서라! 꿈짜말아!》

별안간 민희는 누구인가 뒤로 달려들어 권총을 든 자기 손을 움켜쥐며 소리치는 서슬에 소스라쳐 놀라며 한자리에 굳어졌다. 추억은 사라지고 놀라운 현실이 그 녀자를 얼떨떨하게 하였다. 뒤로 달려들어 민희의 권총을 빼앗은 괴한은 앞으로 돌아나와 무작정 늙은이와 민희의 몸을 수색하였다. 이때 길가의 버들숲속에서 또 한놈의 괴한이 나타나서 경계하는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빙빙 돌아갔다. 두놈 다 서른살 미만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다.

민희의 몸을 수색하던 놈이 버들숲쪽을 향해 소리쳤다.

《선생님, 다른 무기는 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자 중절모에 검은색안경을 끼고 자주색골덴잠바를 입은 사나이가 버들숲을 헤치며 천천히 걸어나왔다.

《민희선생! 식량을 구해가지고 옵니까?》

그는 색안경을 벗으며 민희를 향해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순간 민희는 또 한번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병기공장 경리부 지도원이었다. 공장사람들은 마흔살을 훨씬 넘긴 이 나이지긋한 지도원을 흔히 방아바이라고 불렀다. 원래 외무성에서 중요한 일을 하었는데 무슨 일로 너타박을 받은 이후 지능이 떨어지고 어딘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어리숙해져서 직업을 돌리게 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한때 외무성에 있었다지만 로무자처럼 늘 작업복을 입고다니며 경리부의 궂은일, 마른일을 도맡아하는 《근면하고 어진 사람》이었다.

《아니, 방아바이가 수풍에 가지 않고 어떻게 여게 있어요?》

민희는 전혀 판모습으로 나타난 방아바이의 거동에서 《이놈이 나쁜놈이었구나!》 하고 직감하였지만 태연하려고 애썼다.

《나야 결사대원들의 식량을 보장해주기 위해 남았지요. 경리부장이 그 임무를 나에게 주고갔으니까요, 허허허.》

방아바이는 너털웃음을 치고 민희에게서 권총을 빼앗은 젊은 괴한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놈한테서 권총을 받아준 방가는 《내 권총과 같은거로군! 이게 군자리병기공장에서 만든게지.》 하고는 달빛에 권총을 비쳐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서있는 청년에게 소를 끌고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놈이 소고삐를 쥐자 안택골로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녀석! 개망종짓을 하더니 이젠 강도질을 하며 돌아치느냐?》

서로 알고있는 사이인것 같았다.

《이 두상태기가 뭐 강도?》

그녀석은 대뜸 늙은이의 면상을 대갈통으로 받아넘기였다. 늙은이는 억- 하고 숨췄어지는 소리를 지르며 길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녀석은 소고삐를 쥐고 버들숲속으로 꿰질러 들어갔다. 버들숲을 지나면 큰길과 직각으로 사귀는 긴 골짜기가 뻗어있다.

방가눔은 민회를 돌아보며 공화국의 당, 정권, 법기관들이 모두 북으로 소개하여 들어간 지금이야말로 저런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활개칠수 있는 문자그대로 무정부주의세상이 되었다면서 껄껄 웃었다. 그리고는 옷을 털며 일어서는 안택골늙은이에게 제법 측은해하는 어조로 말하였다.

《령감! 집으로 돌아가보시오. 다시는 병기공장사람들을 도와주어서는 안되겠소. 이제 열흘안팎으로 미군이 들어옵니다. 로동당세상은 끝장이 났소. 알겠소?》

늙은이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소를 떼우고 빈몸으로 비칠비칠 걸어가는 늙은이의 뒤모습을 이윽히 지켜보고있던 방가눔은 곁에 서있는 젊은이에게 《저 령감을 따라가서 적당히 처리하라!》 하고 지시하였다. 그자의 긴 말상이 이그러지면서 이마의 주름살들이 버러지처럼 꿈틀거리였다. 대낮처럼 밝은 달빛은 그자의 흰자위 많은 눈과 두툼한 입술까지도 선명하게 비쳐주었다. 평시에 것처럼 어리숙하고 순진해보이던 그자의 얼굴이 이제는 온통 살기에 찬 악마의 얼굴로 보이였다.

병기공장사람들중 이놈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 이제는 단들이 남았는데 좀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병기공장 쌀창고가 텅텅 비어있지요? 나는 누구인가 쌀을 비력질하러 다니리라는걸 예견하고 이 길목을

지키고있었소. 그러나 의사선생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어느새 그렇게 용맹해졌소? 이제는 할수 없소. 선생은 지응모네가 있는 저 굴속으로 다시는 가지 못합니다. 두 길이 남아있소. 내 말을 들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수밖에 없소. 어느길을 택하겠소?》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예요?》

민희는 온몸을 떨면서 반문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소? 선생이야말로 어리석은 녀자요. 도대체 무얼 얻어먹을게 있어서 로동당을 한사코 따라가고있소? 스스로 호박을 쓰고 돼지굴로 들어가는 격이요. 서울에는 선생의 부모님들과 오빠가 있지요. 그들은 미국사람들의 편에 돌아선지가 오래입니다. 고정한국장이 왜 공장대렬을 정리하겠다고 하는지 알고있소? 바로 당신네들을 처리해버리자는거요. 이제 보시오. 지응모라는 사람도 몇날 붙어있지 못합니다.》

방가눔은 그러면서 지응모의 아버지와 가시아버지될 사람은 일찌기 미국정탐 에쓰 엘 로버츠와 인연을 맺고 신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들을 신학교에서 공부시키고 목사로 키워준 미국선교사 윤산은이가 다름아닌 미국정탐 에쓰 엘 로버츠라는것이였다.

《로동당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소?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당신네들을 믿어주고 안아줄거요. 똑똑히 알아두시오. 미중앙정보국의 국외지부는 교회, 상사, 출판사, 식당, 병원, 사회단체, 연구소 같은 간판을 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거미줄처럼 늘어져있소. 미중앙정보국의 혈관은 전 지구를 덮었소. 분명히 말해주겠는데 나도 그 망에 들어있는

한사람이요. 병기공장사람들이 생각하고있는 머저리 방아바이가 아니요. 전기도 바로 어저께 내가 끊어버리고 식량도 내가 없애버렸소.》

순간 림민희는 분노의 피가 끓어번지며 얼굴로 울기가 확 뻗어올라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절통한 마음으로 몸을 떨면서 방가놈의 뒤로 곧추 뻗은 길을 내다보았다.

100여메터 전방에서 길은 산굽이를 꺾어들어간다. 지하병기공장까지는 아직 10여리길이 남아있었다.

민희는 일껏 얻어가지고온 식량을 간첩놈에게 빼앗긴것이 원통하였다.

이제 다시는 동지들의 곁으로 갈수 없단 말인가?

방가놈은 전방을 주시하는 민희의 시선에서 무엇을 각성했는지 버들숲쪽으로 급히 비켜서며 긴장하게 길 좌우편을 살피었다. 그리고는 량손에 쥔 권총을 가슴앞으로 모으며 다우쳐물었다.

《아, 이젠 대답하시오. 두 길중 어느 길을 택하겠소? 당신의 요구대로 해주겠소.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요. 빨리 대답하시오.》

전방을 내다보던 민희는 저도 모르게 놀라며 몸을 흠칫하였다.

방가놈은 민희가 공포에 떨고있다고 생각했는지 《살아야지 무엇때문에 죽겠소. 선생이 우리편에 돌아서면 나도 칭찬을 받고 선생도 환영을 받소.》 하고 중얼거리었다.

그러나 그때 민희가 놀란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전방에서 이상한것을 발견하였기때문이였다. 분명 어깨에 총을 멘듯 한 웬 사람이 저쪽산굽이를 돌아 이쪽으로 마주 걸어오는것을 띠여보았던것이다. 달은 밝았지만 100여메터 거리에 있는

사람의 얼굴까지는 똑똑히 가려볼수 없었다. 걸어오던 그 사람도 이쪽의 사람들을 띠여보았는지 우뚝 멎어섰다.

웬 사람일가? 민희는 방가놈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 어딘가를 유심히 바라보는척 하였다.

《뭘 그렇게 목을 빼들고 보는가? 구원자가 찾아올것 같아서? 기대하지 마시오. 이미 여기는 우리 구역이 다 됐소, 미군을 마중할 사람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있소. 민희선생도 그 대렬에 들어서라는거요.》

《좀 앉아서 생각하겠어요.》

민희는 몇발자국 옮겨가서 오금을 꺾었다. 총을 멘 정체모를 사람의 그림자가 길가의 버들숲속으로 사라졌다. 버들숲의 흔들림이 파도처럼 이쪽으로 빠르게 번져왔다.

그 사람이 접근해오는것이 분명했다. 민희의 심장은 어지럽게 뛰놀았다. 그러나 민희는 머리를 싸권채 연방 한숨을 쉬었다.

《로동당세상은 끝장났는데 뭘 그렇게 생각할게 있소? 설사 끝장이 나지 않아도 그것들한테 의심을 받으며 살게 있소? 나는 유럽의 공산국가들과 많이 관계하였기때문에 잘 알고있소. 공산국가들에선 일단 의심을 받으면 살아나지 못하오.》

방가놈은 바른손에 든 권총을 내려다보며 코노래를 부르듯 흥얼거리었다.

《군자리병기공장에서 만든 이 권총이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품은 민희의사, 흥근기사, 지응모기사의 가슴을 겨누지는 이미 오래되오. 그런데 민희선생은 자기와

자기 부모님들과 오빠 그리고 자기 애인을 죽일 총을 만들어줍시사 하고 식량을 구하러 다니고있으니 이런 희비극이 어디 있소?》

버들숲의 잔파도는 이미 지척에 밀려왔다.

문득 인기척을 느꼈는지 방가눔은 눈을 치뜨며 버들숲쪽을 돌아보았다. 바람이 불면서 버들숲이 술렁거리었다.

민희는 벼랑끝에 서있는것처럼 아슬아슬하였다.

한동안 버들숲쪽을 긴장하게 지켜보던 방가눔은 군자리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흥, 700정의 기관단총을 만들겠다구? 어렵도 없다. 내가 있는 이상 저 굴속으로 쌀은 한키로도 들어가지 못한다. 총을 못 만들어! 총을 만들기는커녕 모두 캄캄한 굴속에서 굶어죽게 만들테다!》

순간 웬 사람이 비호처럼 버들숲속에서 뛰쳐나오며 방가눔에게 기관단총 런발사격을 가하였다. 방가눔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중 떠올랐다가 길바닥에 나떨어졌다.

《이놈의 새끼, 뭐가 어쨌다구? 우릴 굶겨죽이겠다구?》

뚜루룩 뚜루룩...그 청년은 그놈의 몸뚱아리에 한탄창을 다 풀어버리는것 같았다. 그는 김정길이었다.

이것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렘민희는 솟구쳐일어났으나 엄청난 사태에 얼이 빠져 멍청히 서있었다. 위험을 모면했다는 안도감보다도 경악감이 더 커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한참 지나서야 그는 땅바닥에 뿌려진 두개의 권총을 거두어 들고 몸을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정길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여길 왔나?》

김정길은 극도의 흥분으로 민희의 묻는 말도 듣지 못한듯 펄펄 끓는 눈으로 방가놈의 피죽탕이 된 얼굴을 쏘아보았다.

《민희선생님!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정길이 오히려 반문하였다.

《정길이, 가면서 이야기하자요. 이 자리를 빨리 떠나지 위험할것 같아요.》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민희는 걸어가면서 방가놈과 불의에 맞다들리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김정길도 지응모대장의 명령을 받고 민희를 찾아 떠나게 된 전말사연을 알려주었다.

《내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놈을 사로잡아야 했을텐데...》

정길은 순간적인 분격을 참지 못해 기관단총에 재운 수십발의 탄알을 모두 발사해버렸던것이다.

6

김일성동지를 모신 군용승용차는 산자드락길을 천천히 달리고있었다. 뒤좌석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쪽잠에 드신듯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신채 지그시 눈을 감고계시였다. 운전사는 어찌다 잠간 드신 그이의 쪽잠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극력 조심히 몰았다.

먼길을 지나온 그이의 승용차 앞머리에는 먼지가 뽀얗게 오르고 차바퀴들은 흙물에
게발라져있었다. 운전사는 미처 차를 정비하고 청소할 사이가 없었다. 오늘 오전만
하여도 그이께서는 강동이남지역의 여러 도시와 농촌들을 다니며 후퇴조직정형을
료해하시는 한편 평양방어사령부가 차지한 인민군방어진지들을 시찰하시였다.

이 며칠새 그이께서는 차안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셨을뿐 방안에서는 한번도
주무셔보지 못하였다. 방금전에도 차안에서 문건을 보시다가 피로한듯 눈을
감으시였다. 매일과 같이 그이의 결론을 받을 긴급문건들이 날아들기때문에 달리는
차안에서 문건처리들을 하여야 하시였다.

운전사도 그래, 부관도 그래 **김일성**동지께서 쪽잠에 드신줄로 알고 한껏 정숙을
지키고있지만 그이께서는 주무시는것이 아니였다. 병기생산국장 고정환이 사죄문과
함께 올려보낸 건의서를 읽고 마음이 무거워져 깊이 생각을 더듬고계시는것이였다.
고정환은 사죄문에서 자기가 접때 군자리병기공장에 내려가 본의아니게 **김일성**동지의
의사와는 저촉되게 빨찌산투쟁을 선동한데 대하여 절절히 반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도의 책임간부들에게 하신 교시를 병기공장의 실정에 맞게 깊이 연구하지 않은데다
박헌영부수상이 병기공장종업원들을 데리고 빨찌산을 해보라고 권고한바도 있어 그런
오유를 범했다고 하였다.

고정환은 그날 회의장에서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의견을 제기하는 동무들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욕설을 퍼부은데 대해서도 솔직하게 비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김책을 통하여 그날 병기공장당위원회확대회의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본적으로 알고계셨던터여서 고정환의 솔직한 반성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시였다. 그러나 십여장이나 되는 긴 사죄문과 함께 올려보낸 그의 건의서를 읽고 사뭇 심중해지시였다.

그는 건의서에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나라의 군사정세가 급변된 조건에서 전시체제에 맞게 병기공장을 보위성에 소속시키고 종업원들에게 군복을 입히자는것이였다.

고정환은 건의서에서 이렇게 제기하였다.

《병기공장의 규률을 강화하고 내부비밀이 적들에게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병기공장을 보위성에 소속시키고 전체 종업원들에게 군복을 입혀 철저히 군사화하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기생산국이 책임지고 계급적원칙에서 병기공장대렬에 대한 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제기하였다.

고정환은 대렬정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금 병기공장대렬에 적간첩놈들이 잠입해있는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병기국에서 병기공장의 무기들을 인수해갈 때마다 어김없이 적비행기가 나타나서 폭격을 감행하고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능히 짐작할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병기공장을 지하에 넣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놈들의 폭격으로 하여 무기생산이 중단된지 오랬을것입니다.》

고정환은 이러한 엄중한 사태가 병기공장대렬을 엄격히 정리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병기공장의 규률상태는 바꾸닌무정부주의를 련상시킬만큼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졌다고 개탄하였다. 그 하나의 실례로 류일룡작업반장이

공장당위원회확대회의때 비판이 접수되지 않는다고 하여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회의장에서 제멋대로 뛰쳐나가버린 사실을 들었다. 고정환이 두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지배인과 당위원장에 대한것이였다.

《공장당위원장과 지배인의 호홉이 맞지 않아 공장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당위원장이 기사, 기능공들을 지내 감싸주어 그들이 지배인의 지시 같은것은 현신짜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속에서 가족주의적인 요소까지 나타나 지배인의 기능이 마비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저에게도 책임이 많습니다. 늦게나마 각성하게 된 저는 무정부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출당철직시키고 신원이 불명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대렬밖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정환의 건의서는 너무도 상상밖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며칠전에 병기공장신문 《새별》 특간호를 읽어보고 당사업이 비교적 잘되고있고 공장종업원들의 사상준비상태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시였다. 며칠전에 공장에 내려갔다는 김책의 반영도 좋았고 직접 만나보신 지응모에게서도 좋은 점을 느끼시였다. 병기공장에서 지금까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무기생산을 정상화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곳 노동계급의 열의가 높고 단결되어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물론 한두명의 나쁜 놈들이 대렬내에 끼여있을수 있지만 그것때문에 무슨 《꼴라크》 숙청사업처럼 소동을 일으키며 대렬정리사업을 할 필요는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작용하는것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 현실과 사람을 보는 고정환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것 같으시였다. 시각이 비뚤어지면 좋은것을 나쁘게 보고 나쁜것을 좋게 볼수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정한의 사상적결함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계시었다. 김책이 전쟁전에 벌써 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자일뿐아니라 성미마저 괴벽스러운 고정한을 병기생산국장자리에서 떼자고 여러번 제기하는것을 그이께서 놓아두고 교양하자고 하시였었다.

그러나 고정한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것을 다 잘못 보았을것인가?

류일룡은 아직 세련되지 못한 당원이였다. 만장판에서 쌍욕을 퍼붓고 회의장을 뛰쳐나온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간과해둘수 없는 일이었다.

깊은 생각을 더듬으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웃몸이 앞으로 밀리어나가는듯 한 느낌에 눈을 뜨시였다. 승용차가 멎어있었다.

《차를 왜 멈췄소?》

《이제부터 차길이 더 험해집니다. 좀 주무십시오.》

순박한 소년처럼 무척 천진하고 고지식한 운전사는 어쭙은 표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올리였다. 그는 차가 들추면 그이께서 주무시지 못할것 같아 제동을 밟은것이다.

《동무가 피곤하겠소. 눈을 좀 붙이시오. 그동안 나는 부관동무와 함께 바람이나 쏘겠소.》

그이께서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승용차는 산허리를 감도는 고개길에 멎어있었다. 밑에는 우묵한 골짜기가 내려다보이고 멀리 북쪽으로는 여러개의 산봉우리들이 밋밋한 산줄기를 타고 웅기중기 솟아있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음, 성천군관내에 들어섰구만. ...》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고 차체에 걸레질을 하고있는 운전사를 돌아보시였다. 《동무도 자지 않겠으면 여기 와서 같이 산천구경이나 합시다. 차청소는 개울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하고.》

그이께서는 병기공장이 있는 군자리쪽을 생각깊이 바라보시다가 교시를 이으시였다. 《보다싶이 성천일대는 우묵한 지형을 이루었는데 대동강의 지류인 비류강에는 십이봉이라고 불리우는 열두개의 봉우리가 비류강에 어울려 아주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있소.》

그이께서는 성천땅의 자랑인 그 열두개 봉우리도 적들의 폭격에 상처를 입었다고 가슴아파하시였다.

《성천은 력사가 오랜 고장이요.》

그이께서는 여기 성천읍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성천객사가 있다고 하시였다.

객사란 봉건통치시기 지방고을에 출장가는 벼슬아치들을 대접하고 숙박시키려고 만들어낸 관청건물의 하나이다.

그이께서는 성천객사의 중심건물은 본채인 동면관과 강선루라고 하시면서 동면관은 그 부속건물까지 합치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객사유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관서8경의 하나로 이름있는 강선루는 역시 관서8경의 으뜸으로 꼽는 평양의 련광정 못지 않게 아름다운 루정이요.

련광정이 대동강기슭의 바위우에 서있는것처럼 강선루도 비류강절벽우에 아름답게 서있소. 이 건물은 동면관에서 류숙한 국가관리나 외국사신들을 위한 연회장으로

리용되었소. 고려때 세워진 이 건물은 외래침략자들에 의해 여러차례 불탄것을 우리가 해방후 잘 복구하여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만들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면관과 강선루는 우리 나라의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폭격속에서도 그 건물이 아직 용케 남아있다고 교시하시고 이렇게 물으시였다.

《동무들도 강선루야 봤겠지?》

《예, 지나다니며 그저 먼발치에서 보았습니다. 그전에 전 고적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어했는데 장군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부터 사람이 제 나라 역사를 모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나라 고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고...》

운전사가 어줍게 웃으며 말꼬리를 흐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우리 아버지는 늘 진정한 애국자가 되려면 자기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셨소. 역사를 잘 알아야 우리 인민이 얼마나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고 봉건통치와 사대주의가 얼마나 유해로운것인가를 알수 있소. 그리고 지리를 잘 알아야 자기 나라 지형과 기후풍토에 맞게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고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소.

우리 나라는 산이 많소. 특히 남쪽에 비해 북쪽에, 서부에 비해 동부지역에 더 많소. 그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별판이 많은 쏘련이나 중국식전법으로 싸워서는 안됩니다. 실례로 우리 나라와 같은 산악지형조건에서는 포를 쓰는 경우에도 평사포와 배합해서 82밀리박격포, 120밀리박격포 같은것을 많이 리용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82미리박격포는 구조가 간단하고 중량도 무겁지 않기때문에 포수들이 포에 빨리 정통할수 있고 보병이 가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보병지휘관들이 매 군인들에게 포탄을 두발정도씩 휴대시키고 다니다가 적들과 조우하게 되면 82미리박격포를 제격 전개시키고 몇발만 쏘아갈겨도 적을 손쉽게 제압하고 공격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있었다. 120미리박격포는 참호와 반대경사면에 있는 목표들, 차폐가 심하여 평사포들이 사격하지 못하는 곳에도 임의로 사격하여 적의 유생력량을 소멸할수 있으므로 산악지형조건에 매우 편리한 포였다. 특히 박격포의 화력진지는 기복이 심한 산악지대에서 어디든지 임의의 장소를 선택할수 있기때문에 지형을 옹게 리용하여 배치하면 적의 비행기나 포화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수 있었다.

실지 적들은 우리의 박격포진지를 진압하는것을 매우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보병대대장들과련대장들, 병기공업부문 간부들속에는 박격포를 과소평가하고 사거리가 먼 평사포에만 관심을 돌리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그게 바로 군사교조주의였다.

《나는 벌써 일제놈들에게서 빼앗은 박격포를 써보면서 박격포의 우월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방후 정규무력을 건설할 때 보병구분대에 82미리박격포중대를 두고 보병부대에 120미리박격포중대를 내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천리병기공장을 차려놓을 때에도 기관단총을 비롯한 각종 저격무기와 함께 박격포생산과 박격포탄생산을 먼저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평사포보다 박격포와

중곡사포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 보시오. 이제 미제침략자들이 들어오면 저런 골안에 몰아넣고 박격포로 답새겨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량편에 산을 끼고 길게 누워있는 골안을 내려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악지대에서는 수류탄도 대단히 위력하다고 하시였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있다가 좁은 골안에 몰아넣고 어물거리는 적들에게 수류탄을 안기면 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힐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래서 이번에 병기공장동무들에게 빨리 수풍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젠 또 가볼가. 련락군관이 지금 백원고개에서 기다릴수 있소. 거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 오르시였다.

승용차는 산허리를 누비며 빠르게 달리였다. 그이께서는 고정환의 건의서 종이묶음우에 흰종이를 올려놓고 글을 쓰시였다.

《군복을 입히는 방법으로 규률을 강화할것이 아니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규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장대렬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기생산국의 기본임무는 생산지도이지 대렬정리사업이 아닙니다.

류일룡동무에 대해서는 더 료해하여보고 국장동무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장당위원회에서 엄중히 취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현무광당위원장에게 따로 지시를 주겠습니다. 지배인과 당위원장의 호홉이 맞지 않는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빨리 바로잡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적의견을 제때에 제기하기 바랍니다.

1950년 10월 x일 김일성》

그로부터 30여분 지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백원고개에 오르시였다. 련락군관이 고개마루에서 군마의 고삐를 쥔채 초조히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래 어떻소, 제대로 다 됐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기 바쁘게 련락군관에게 급히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후방총국장이 책임지고 황해도에 있는 쌀과 숨 그리고 염전들에 쌓여있는 소금을 강계나 만포에 가져다 보관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는데 그 집행정형을 알아오도록 련락군관에게 임무를 주시였던것이다.

《장군님, 후방총국장은 밑에 지시문만 내리떨구고는 먼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쌀, 숨, 염전밭 소금들이 다 적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뭐요?!》

그이께서는 무척 놀라시였다. 그 쌀과 숨, 소금들은 새로 편성되는 인민군예비부대와 후퇴한 기관, 기업소들에 공급할 군수예비물자였다. 그런데 그것이 몽땅 적들의 손에 들어갔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였다.

《그걸 적들의 손에 넘기다니, 그게 어떻게 모아진 물자라고.》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고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으시였다. 후방총국장의 무책임성으로 하여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그이께서는 고개마루를 안타까이 거니시다가 《군자리병기공장엔 아직 들려보지 못했겠지?》 하고 물으시였다.

《예, 시간이 바빠 먼저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남쪽을 바라보시었다. 산줄기와 골안들, 자주빛버덩밭들을 지나 먼곳에 백양산의 정수리가 석양빛에 번쩍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우물정자모양으로 삼노끈을 동인 지함 두개를 차안에서 꺼내시었다.

《수고스러운대로 이걸 가지고 군자리로 가시오. 이게 무언고 하니 성천약밤입니다. 10여일전에 성천목사가 약으로 쓰라고 나한테 보낸건데 이거라도 군자리결사대원들에게 맛보입시다. 예로부터 성천은 밤고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아마 그들은 밤맛도 못 보고 전투할거요. 요즘 반동놈들이 병기공장주변을 맴돌수 있으니 동무도 주의해야겠소.》

련락군관은 지함 한개가 20키로그램의 무게는 실히 될상싶은 두개의 지함을 군마잔등에 얹고 단단히 결박했다.

그이께서는 두개의 봉투를 련락군관에게 주시었다.

《군자리에 갔다가 인차 수풍쪽으로 가시오. 이 문건을 고정한국장에게 주시오. 그리고 이 편지는 병기공장당위원장에게 주시오. 말을 타고 냅다 달리느라면 길가에서 그들을 만날수 있을거요. 우리가 병기생산국장에게도 정주지역에 있는 솜옷과 담요, 탄약을 안전지대에 보관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또 지시문이나 떨구고 제 먼저 후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꼭 만나야 하겠소. 련락군관들이 늘 수고하는데 어찌겠소.》

《장군님, 저희들이야 무슨... 장군님께서 건강을 돌보셔야 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련락군관에게 지형도를 보이며 교시하시었다.

《비행기를 주의하시오. 20일 아침에 덕천골에서 만납시다. 자, 그럼...》

련락군관은 그이께 거수경례를 드리고 말잔등에 뛰여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자리로 내달리는 련락군관의 뒤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인적없는 백원고개에 서계시였다.

7

북으로 뻗은 순천, 구장사이의 신작로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다.

병기공장대렬이였다. 공장을 떠날 때 입었던 옷들은 땀과 비물에 젖어 후줄근해지고 신발창들은 바닥이 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발마저 없어서 거털이 난 신발에 천을 가져다대고 노끈이나 새끼오리 같은것으로 얼추 동여매고 지척지척 힘겹게 걸어갔다.

중낮무렵 사람들은 산골물이 흘러내리는 개울가에 흠어져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이란 새까맣게 구운 강냉이, 군고구마 같은것들이였다. 그것도 많지 못하여 허리를 꺾어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며칠째 무염식사를 하다나니 얼굴이 부석부석해진 사람들도 있었다. 공장을 떠날 때 길량식준비에 관심을 두었지만 소금에 대해 소홀히 하였다.

이때 류일룡이 자루를 둘러메고 달려왔다.

《소금이요, 소금을 구해왔소.》

소금이란 소리에 어른, 아이 할것없이 먹던것을 팽개치고 와르르 달려왔다.

가족대렬을 인솔하여가던 첫탕에 적기의 공습으로 달구지도 소도 다 잃어버린 류일룡은 그때부터 임신부와 로약자들을 데리고 힘겹게 대오를 이끌어왔었다. 그는

산판에 뛰어들어가 물푸레나무를 꺾어다 지팡이를 만들어 로악자들과 임신부들의 손에 쥐여주었으며 만삭이 된 리창일 안해의 신발이 폭격때 잃어진것을 알고는 자기 로동화를 벗어 신겨주었다.

《덤비지들 말아라. 골고루 노나줄테니.》

류일룡은 막아서는 조무래기들을 진정시키며 소금자루를 헤치고 조그마한 손들에 한줌씩 놓아주었다. 어른들이 들고온 뒤웅박이며 오지그릇들에도 조금씩 놓아주었다.

삼시에 소금자루가 거덜이 났다.

그들과 얼마간 떨어진 산기슭의 평퍼짐한 돌에 앉아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편지를 여러번 곱씹어 읽고있던 현무광은 가족대렬을 보살피느라 소금자루를 들고 뛰여다니는 류일룡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류일룡이도 그랬지만 현무광의 입술은 온통 부르텔다. 이번 행군에서 누구보다도 걸음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한 사람이 현무광이었다. 그는 공장을 떠난 선발대가 수풍으로 가는 길에 길을 헛갈려 강계방향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희천가까이에까지 달려갔었다. 거기서 선발대를 따라잡아 수풍으로 가도록 길을 바로잡아주고 되짚어 남쪽길로 돌아와 구장에서 길목을 지켰다. 그곳에 있어야 청천강다리를 건너 수풍으로 가는 길을 명백히 알려줄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구장에 도착하여 하루가 지나니 로동자소부대들이 우줄우줄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길목을 지켜서있는 당위원장을 보자 너무도 기뻐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어떤 녀성로동자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로동에 단련된 녀성들이지만 적기의 공습과 비바람에 시달리며 이렇게 몇백리 강행군을 해보기는 평생 처음이었던것이다.

녀인들의 옷주제는 땀과 흙먼지에 절고 여기저기 갈퀴고 찢기여 말이 아니었다. 그들속에 열대여섯 나보이는 소녀가 끼여있어 물어보니 서울에서부터 인민군대를 따라온 은순이라는 소녀라고 했다. 알고보니 은순이가 바로 김책이 자주 외우던 서울 영등포구 룡산철도공장의 오랜 녀당원인 심옥심녀성의 딸이었다.

월미도방어전투를 하는 인민군대를 원호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그 녀성의 가슴에는 딸에게 남긴 유서가 있었다고 했다.

《은순아… 김일성장군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북으로 가거라!》

피에 젖은 그 유서를 생각하며 현무광은 은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은순아, 이제부터 우리 공장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자!》

현무광은 소녀를 병기공장의 로동계급으로 키우리라 마음다지였다.

잠시 휴식하며 대오를 점검해보니 아직 계획된 인원의 3분의 1도 도착하지 못했다. 이무렵. 구장뒤로 램전, 자작, 개천, 각암 등의 길우에는 군자리병기공장대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움직이고있었다.

현무광은 가족대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들을 찾아 개천쪽으로 남행길을 잡아돌아가던중 최고사령부련락군관을 만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군자리에서 기관단총을 생산하는 20명 결사대원들이 전기공급이 끊어진 속에서 쌀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다싶이 하며 전투를 하고있다는것, 경리부의 방지도원이란 놈이 미중양정보국과 련계된 간첩이었다는것이다.

또한 천만뜻밖의 일은 현무광에게 보내온 김일성동지의 친서였다.

그것은 공장당위원회사업에 대한 걱정의 편지였다. 달리는 차안에서 쓰신 그이의 편지를 읽은 현무광의 가슴은 찢기듯 하였다. 그이의 편지를 통해 고정환이 **김일성**동지께 사죄문과 건의서를 올린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일성**동지의 친서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제기된 문제에서 0.01프로라도 해당되는것이 있으면 성근하게 접수하고 고쳐야 합니다. 지배인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지배인은 노를 짓고 당위원장은 키를 잡아야 공장이라는 배가 빨리 정확히 갈수 있습니다.

류일룡동무에 대한 교양사업을 동무가 잘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 동무가 당회의에서 야비한 발언을 하고 회의도중에 제멋대로 뛰쳐나간것이 사실입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놓고 사상투쟁도 하고 필요하다면 조직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현무광은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 근심을 드린것이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사실 류일룡은 세련되지 못한 당원이었다. 천연스레 일을 잘하다가도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지난날 사람 못살 세상에서 이지러진 성미가 되살아나 물의를 일으키곤 하였다. 당위원장은 마땅히 이 점에 주의를 돌리고 꾸준히 교양하여야 했었다.

현무광은련락군관과 헤어진 후 개천어방의 이 골안에서 류일룡이네 가족대렬을 만나게 되었다. 류일룡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옷은 군데군데 찢어지고 입술은 온통 부르텔으며 상처자리가 많은 불편에는 피딱지가 붙어있었다, 신도 못 신고 형짚으로 감싼 발에는 진흙물이 게발려있었다.

어미닭처럼 가족대렬을 품에 안고 수백리길을 헤쳐온 그의 간난신고가 첫눈에 알리였다.

《당위원장동지, 여기로 오십시오. 왜 거기 따로 앉으시겠습니까?》

류일룡은 현무광쪽을 건너다보며 소리쳤다. 그는 물론 자기네 당위원장이 김일성동지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알수 없었다.

현무광은 친서를 정중히 품에 간수하고 류일룡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당위원장동지, 이 감자를 하나 맛보십시오. 소금에 찍어 들면 별맛입니다. 이 짠 물건을 왜 소금이라고 했는고 하면 이것도 금처럼 귀한 물건이여서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귀한 물건을 잊어버리고 온탯에 이렇게 꿀탕을 먹고있습니다.》

류일룡이 별로 침중해있는 현무광의 기분을 둔구느라 감자 한알을 쥐여주며 일부러 법적 떠들었다.

《이 소금은 어디서 구했소?》

현무광이 류일룡의 손바닥에 놓인 소금에 감자를 찍으며 물었다.

《며칠째 소금을 못 먹어 뱀에 털이 날 지경이여서 앞마을에 찾아가니 마침 거기에도 후퇴하는 사람들이 한무리 앉아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동탄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병기공장가족들이 소금때문에 고생하고있다는 사정이야기를 하자 점잖은 웬 늙은이가 달구지에 실은 소금자루를 내놓으며 통채로 가져가라고 했다는것이다.

알고보니 그 늙은이가 바로 지난 기간 지응모기사한테서 가끔 들은적이 있는 성천목사 서성덕이었다. 그 목사로 말하면 청년시절 지응모의 아버지 지균일목사와 양촌 신학교에 같이 다닌 사람이었다.

《서성덕목사가 지웅모기사의 안부도 물으며 어찌나 반가와하는지… 그 목사한테서 소금도 얻고 해방후 장대재레배당 지하실에서 간첩무리들을 잡아낸 희귀한 이야기도 듣고오는 길입니다.》

《그거 좀 들어보지요.》

모두들 호기심이 동해서 이야기를 청했다. 현무광이도 듣고싶었다.

해방전 중구 장대재기슭에는 평양시에서 제일 큰 교회당인 장대현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는 1893년에 아포삼렬이라는 미국선교사가 세운 것이었다. 아포삼렬이라는 이름은 아포라는 영어식발음에 조선사람들이 좋아하는 3자를 붙여서 미국과 조선이 앞으로 한몸으로 될것을 하느님에게 빈다는 의미로 지은 번지기이름이었다. 장대현교회에서 그후 여러 장로교회들이 분리되어 전국 각처로 퍼져나갔다. 성천교회도 그렇고 평안북도 선천에 있는 유명한 선천교회도 장대현교회의 후속이었다.

미국선교사들이 모두 그러하듯 아포삼렬은 조선을 먹기 위해 미국놈들이 파견한 침략의 척후병이었다.

해방전 장대현교회에는 염화식이라는자가 감리사(선교사 다음가는 교직)라는 간판을 걸고 박이량이라는 미국정탐배의 지령을 받으며 반역행위를 하였다.

해방후 이놈은 장대현교회의 지하실에 무전기까지 가져다놓고 인민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음모책동을 벌리었다. 이자는 박이량의 지령에 따라 악질종교인들로 반혁명조직을 못하고 교활하게 여러가지 정치행사에까지 합법적으로 참가하면서 북조선의 민주제도를 반대하는 악랄한 해독행위를 하였다. 염화식에게 항시적으로 지령을 주는 박이량은

당시 평양주재 미군대표부에 와있던 남조선대사 무쵸의 줄개인 캐놀과의 런계밑에 북반부의 종교조직을 지휘하였다.

어느날 평양 장대재밑에 있던 서도려관의 깊숙한 안골방에서 캐놀은 박이량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박이랑씨, 당신의 이름은 미중앙정보국에 금문자로 찍혀있습니다. 이름과 고향, 가족관계, 경력이 카드화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국정보국의 최고지도자 도노만장군의 수표가 찍혀있소. 도노만장군이 당신을 알고있다는것은 미국대통령 트루만이 알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당신은 언제든지 미국에 갈수있는 특권이 주어졌소.》

그리고는 미국독수리국장이 깊숙이 찍힌 려권을 박이량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후 장대현교회의 지하실비밀이 드러나 염화식은 체포되고 반혁명조직패당들은 모두 일망타진되었으나 박이량만은 묘하게 어디론가 꼬리를 사리고말았다. 이놈은 이 조직뿐만아니라 평양지방에 침투되어있던 여러 반동단체들과 간첩암해분자들을 쥐고있는 비교적 큰 놈이었다. 체포된 염화식을 통해 장대현교회당의 지하실비밀은 말짱 드러났으나 박이량이 쥐고있던 다른 선들의 비밀은 아직 모를것이라고 한다.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끗 떠오르는 생각은 김만수연공아바이의 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영달놈도 박이량인지 박삼량인지 하는 이놈의 줄개가 아니었던가 하는겁니다.》

류일룡이 이야기를 마치며 자기 생각을 덧붙였다. 이때 불시에 머리위로 직승기가 날아와서 이야기판이 깨여졌다. 모두가 고개를 젓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사의 얼굴을 가려볼수 있을 정도로 낮추 떠서 빙빙 돌아가던 직승기에서 간드러진 목소리로

방송원계집년이 불쌍한 남녀로소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날아왔으니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라,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한 《자유의 세계》가
 당신들을 기다리고있다고 꼬여냈다.

《뚜루룩!...》

류일룡이와 포탄직장 직장장인 김인호가 등에 지고있던 기관단총을 와락 벗겨들고
 직승기를 향해 올리쏘았다.

직승기는 꿈무늬를 사리면서 종이뭉치를 마구 뿌리었다. 하얀 종이쪼박들이
 눈송이처럼 날리며 떨어져내렸다.

로동자들은 가랑잎마냥 흩어져내리는 뼈라장들을 찢어버리고 혹은 옷을 말리우느라
 피워놓은 불무지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얼마후 남쪽하늘에서 우르릉거리며 적기편대들이 갈가마귀떼처럼 날아왔다.

《빨리, 저 산탄으로 은폐하시오!》

현무광이 푸른 소나무들이 서있는 옆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제는 로인들과
 녀인들까지도 비행기공습에 익숙되어 숲속으로 달려가 나무등에 몸을 숨기었다.

탁, 탁, 탁... 기총탄이 소나무줄기들에 들어박히는 소리가 마치 도끼날로 나무찍는
 소리처럼 귀청을 때렸다.

갈가마귀들은 한바탕 짓어대고 돌아가버렸다. 다행히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나무뒤에 서있으면 기총탄은 얼마든지 막아낼수 있었다.

《자, 힘든대로 이젠 또 길을 걸어야 하겠수다.》

류일룡이 골짜기로 나와 구령을 치자 남녀로소의 가족대렬이 일제히 따라나와 행군준비를 하였다.

지팡이를 짚은 로인, 그릇을 머리에 인 녀인, 조그마한 잔등에 보짐을 진 조무래기들...

현무광이도 천천히 가족대렬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울리는 사나운 고함소리에 무춤 몇어섰다. 가족대렬은 강물처럼 골짜길로 굽이굽이 흘러가고있는데 류일룡이 대렬꼬리에서 열에닐곱 되여보이는 나어린 청년을 세워놓고 옥을 해대고있었다.

《정말 한심한 녀석이다. 두호령감이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구 제때에 보골 해야지.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해?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

《누가 떨어질줄 알았나요. 따라오리라 생각했지요.》

젊은이의 볼부은 대답이었다. 그는 포탄직장에 있는 청년이었다.

(두호령감이 떨어졌다는건 무슨 소린가?)

현무광은 어정쩡해진채 천천히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두호령감이란 새로 꾸린 훈장제작직장 작업반장이었다. 지난 7월 공장이설작업을 할 때 희생된 김만수연공아바이의 사돈이었다. 지난해 최영달이라는 반동놈에게 희생된 김영옥의 가시아버지가 바로 두호였다.

《어쨌든 넌 사람구실 못하겠다. 사람이 둘씩이나 없어졌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있었으니... 큰 사달이 나지 않았나... 멍텅구리야, 멍텅구리...》

류일룡의 모욕적인 욕설에 젊은이도 발끈하였다.

《내가 뭇때문에 류작업반장한테 보고한단 말이요. 내가 뭐 가족대렬이야요? 다리에 상처를 입어 잘 걷지 못하다보니 가족대렬에 끼우게 됐지요. 두호아바이와 영숙아주머니도 가족대렬이 아니라 직장대렬이니 류작업반장동진 상관할게 없어요.》

《뭇이 어쨌다구?》

《상관하지 말란 말이야요!》

젊은이는 낮이 새파래서 쏘아붙이고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러자 류일룡이 달려가 그의 땃다시를 거머쥐더니 《요놈의 자식, 사람이 없어졌는데 상관하지 말라구? 꼭뒤에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이.》 하고는 뺨을 후려갈겼다.

《류동무! 그게 무슨짓이요?》

현무광이 소리치며 달려가 청년의 목에서 류일룡의 손을 떼어버리었다. 그리고는 류일룡에게 눈을 부라리며 재차 소리쳤다.

《동무, 또 한번 혼나보고싶어 그래?》

류일룡이 어찌나 놀랐는지 눈을 까뒤집고 물밖에 난 물고기처럼 큰 입을 열었다닫았다 하였다. 것처럼 성난 당위원장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보니 동문 정말 당원자격이 없소. 로동당원이 민청원을 때리다니... 동무는 아무래도 조직문제를 봐야 할것 같소. 이걸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당위원회에 주신 의견이요.》

《당위원장동지,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빈말이 아니요. 이제 보니 확실히 동문 당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장군님께 배은망덕한 인간이요. 수풍에 가서 동무의 조직문제를 보자고 하니 준비하오. 자신의 당생활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시오.》

당위원장의 얼음같이 찬 질책에 류일룡은 여전히 열빠진 사람처럼 멍청히 서있었다.

《어서 대렬을 인솔하오. 가보시오. 난 저 동무와 좀 이야기해야겠소.》

현무광은 류일룡을 먼저 보내고 그뒤로 걸어가면서 포탄직장 청년에게 두호가 떨어지게 된 사연을 물었다.

《당위원장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호아바이가 몸이 편치 않아 기본대렬에서 떨어져 가족대렬에 끼우게 됐는데… 순천 함박골어방에서 좀 쉬겠다고 하면서 풀밭에 주저앉는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가던 영숙아주머니가… 두호아바이의 딸입니다.… 영숙아주머니가 속상해하면서 아바이더러 뒤에는 우리 대렬이 없다고 이게 마지막대렬이니 힘들어도 쉬지 말고 따라가자고 하더군요. 전 그러는걸 보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아… 방금전에 류반장한테 말했습니다.》

청년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떠듬거리면서 여기까지 힘들게 말하고는 고개를 푹 수그리었다. 들어보니 확실히 청년에게 잘못이 많았다.

《한심하오. 왜 진작 말하지 않고 백리길이나 지나와서야 보글 했소?》

《전 그들이 따라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입은 다리가 너무 아파 누굴 관심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현무광은 부지중 긴 한숨을 지으며 남쪽길을 돌아보았다.

두호는 당원이 아니었다. 그는 하도 손재간이 좋고 기능이 높아 작업반장의 책임을 맡고있지만 지난 기간에 말썽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었다. 류일룡이처럼 두호 역시 개인리기주의로 해서 소문을 낸 사람이다.

언제인가 두호는 장차 작가가 되려고 열심히 책을 읽고있는 김정길에게 《듣자니 임자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게 책읽는거라고 하는데 나는 돈을 세여보는 일이 제일 재미있네, 호호호.》 하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다고 한다.

두호는 이런 사람이였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에 쉬파리가 모여들듯이 나쁜 놈들은 두호와 같이 돈세기를 좋아하고 물욕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마련이다. 전쟁전에 병기공장에 기여들었던 최영달이라는 간첩암해분자도 두호에게 돈과 물건으로 환심을 사면서 여러가지 잔심부름을 시키였다. 한번은 그놈이 두호에게 석유 두초롱을 사달라고 하면서 그보다 몇배나 되는 목돈을 찢러주었다. 두호가 그런 횡재를 마다할수 없었다. 그 며칠후 새벽 2시경에 최영달이놈은 불을 지르려고 합숙식당과 창고외벽에 석유를 와락와락 뿌려댔다. 마침 그때 김영욱이가 밤늦도록 지응모, 박홍근의 합숙방에서 자기의 창안제작품인 강재절단기의 크랭크축에 대한 기술적방조를 받고 나오다가 영달이놈을 발견하여 격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김영욱은 주먹으로 그놈의 면상을 후려치고 목조르기를 시도하였지만 그놈이 괴춤에서 빼여든 칼로 영욱이의 급소를 찢었다. 목을 조이던 영욱이의 손이 스르르 풀려나자 영달은 솟구쳐일어나 기름뭉치에 불을 달아 합숙담벽에 집어던지였다.

벽체에 불꽃이 튕기자 삼시에 합숙은 세찬 불길에 휘말려들었다. 그놈은 반정신이 나갔는지 검은 연기타래와 함께 합숙지붕으로 뻗어오르는 불길을 지켜보며 미친듯이 웃어대고는 담장을 경충 뛰어넘어 어디론가 몸을 사리었다.

그로부터 2~3분 지나서야 합숙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영욱이는 그날에 벌어진 일을 다 말하고 두시간만에 병원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으로 하여 영달이가 반동놈이었다는것을 알게 된 두호는 머리칼과 턱수염을 마구 잡아뜯으며 회한에 몸부림쳤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때부터 두호는 딸과 영욱이 그리고 사돈집앞에 지은 죄책감으로 하여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숨을 쉬며 살아갔다. 하지만 사돈집에서는 두호를 조금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서 살자니 적적하고 외롭겠다며 며느리를 본가집에 보내여 아버지와 같이 지내게 하였다.

이것은 1949년에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생활경위가 있는 두호이기에 현무광은 어쩐지 마음이 가볍지 못하였다.

현무광은 도중에 떨어진 두호부녀를 찾아볼 결심을 하고 포탄직장 청년에게 말하였다.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힘들지만 떨어지지 말고 대렬을 따라가오. 난 볼일이 있어 좀 이따 뒤로 따라가겠소.》

현무광은 포탄직장 청년이 저쯤 앞에 걸어갔을 때 서둘러 남쪽길로 돌아섰다. 두호부녀가 앉아서 쉬었다는 함박골까지라도 가볼 생각이었다. 그는 두호에 대한 걱정과 함께 **김일성**동지의 심려의 편지와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으로부터 전해들은

군자리의 결사대원들에 대한 무거운 생각이 한데 겹쳐 온몸이 짓눌리우는듯 하고 머리가 옥신거리었다.

가을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지고있었다.

8

군자리굴속은 한점 불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과 깊은 정적에 묻혀있었다. 그 새까만 굴속에서 이따금 《으흐흐… 아아하.》 하는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4시간에 한번씩 차례지는 30분 휴식시간때이면 결사대원들은 뿔아떨어져 무의식속에서 그런 신음소리를 내지르곤 하는것이다.

휴식구령이 내린지 10여분, 이제 20분 지나면 기관단총 런발사격소리와 함께 결사대원전원이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또다시 백병전을 벌리게 된다.

결사대원들은 이렇게 굴속에서 한주일을 지냈다.

최악의 조건에서 전투를 하면서도 20명 전원이 한사람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계획을 넘쳐하고있는것은 **김일성**동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때문이었다. 전투를 시작한지 사흘째되는 날, 식량이 아예 거덜이 났을 때 최고사령부련락군관이 불쑥 성천약밤 두지함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련락군관이 전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은 20명 결사대원들을 감격으로 흐느끼게 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거라고 못내 걱정하시면서 성천교인들이 군당을 통해 자신께 선물로 보내온 약밤이 있는데 그거라도 몇알씩 맛보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동무들의 손이라도 잡아보고싶지만 시간이 허락치 않는다고 안타까와하시며 저더러 대신 가서 인사를 전하라고, 전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동무들은 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결사전을 벌리는 고마운 동무들이요.>라고 거듭거듭 외우시면서 밤은 구워먹어야 영양도 잘 흡수되고 맛도 있으니 구워먹게 하라고 다심히 이르시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전하는 련락군관도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련락군관은 시간이 촉박하여 인차 떠나갔다.

결사대원들은 그때부터 사랑의 약밤으로 끼를 에우며 (약밤은 한사람당 매끼 100그램씩 5일간 먹을수 있는 량이었다.) 밤에 낮을 이어 전투를 벌려 이제는 최후돌격전에 들어서게 되었다. 계획된 날자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가장 큰 난관으로 제기되고있는것은 기관단총조립의 마지막공정인 성능검사시험사격이었다.

지금까지는 굴속에 사격장을 꾸려놓고 화불을 비쳐가며 450여정의 기관단총에 대한 성능시험사격을 해왔지만 이제는 사격장이 화약내와 연기로 짙게 차서 더는 시험사격을 할수가 없게 되었다. 전기가 끊어져 통풍기도 숨을 죽이게 되니 사격장은 물론 모든 작업장의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련민회의사는 결정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사대원전원이 오염공기에 중독되어 엄청난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남은 이틀동안에 기관단총을 더 조립하여

건당으로 성능시험사격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간단한 작업량이 아니었다. 지응모는 건당성능시험을 그만두고 10정에 하나씩 선택시험을 해볼 생각까지 했다가 급기야 머리를 저었다. 비록 한순간이나마 그런 비량심적인 생각을 했다는것이 죄스럽고 부끄러웠다. 여기서 만드는 제품은 보통상품이 아니라 총이기때문에 단 한정이라도 불비한것이 인민군대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되었다.

《아아하- 아이고.》

또다시 어디선가 가위에 눌리운듯 한 괴로운 신음소리가 굴속의 정적을 깨뜨리었다. 지응모는 등잔불을 들고 신음소리가 일어나는쪽으로 찾아갔다. 선반기주변에 널판자들을 깔고 다섯명의 노동자들이 통잠들을 자고있는데 한사람이 몸을 뒤채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지르고있었다. 결사사람들은 물론 신음소리를 내지르는 본인도 깊은 잠에 폴아떨어져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지응모는 몸을 뒤채이며 신음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얼굴에 등잔불을 비치였다. 그는 유락종이였다. 전기로 돌려야 할 선반기를 똑심으로 돌리면서 누구보다도 제일 강도높은 로동을 하고있는 사람이 유락종이였다.

지응모는 기가 막혀 망연히 서있었다. 등뒤에서 자박거리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불그림자가 굴벽에서 널름거리였다. 녀의사 렬민희가 찾아왔다.

《대장동지, 왜 주무시지 않고 여기 와 계세요?》

《유동무가 자꾸 소리를 지르누만.》

지응모는 한숨을 쉬며 유락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렬민희는 유락종이가 아니라 불그림자속에 어렴풋이 드러난 지응모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한주일사이에

지응모의 얼굴은 너무도 수척해져 판사람처럼 되었다. 살갓맑던 얼굴이 버쩍 말라
꺼칠꺼칠해지고 언제나 정기있게 번쩍이던 거뒸한 눈이 쑥 들어가보이였다. 넓고
시원하던 이마에는 마구 형클어진 머리칼이 드리워져있었다.

《너무 피곤하니 소릴 지르게 되지요. 별일 없을거예요. 난 오히려 대장동무가
쓰러질가봐 무서워요. 30분 휴식시간엔 꼭 주무셔야 해요.》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소!》

지응모는 그 무엇에 반항하듯이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우리 동무들중엔 폐와 심장이 나쁜 동무들이 있는데 그런 동무들이 걱정이요.
어떻게 하나 이틀동안을 견지해야겠는데... 30분 휴식시간중 20분간 잠을 자고
10분간은 굴속에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소.
의학적으로 볼 때 10분간 잠을 더 자게 하는게 좋소,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는게 좋소?
》

렘민희는 안타까운듯 입술을 깨물었다.

《10분간 바깥공기를 마시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난 이번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걸 절감하게 됐어요. 우리한테 오시고싶지만 시간이 허락치 않아 못
오신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의 의미도...》

렘민희는 울먹이며 뒤말을 잇지 못하였다. 순간 지응모는 무엇인가 예리하고
뜨거운것이 가슴을 지지며 훑어내리는듯 하여 저도 모르게 널판에 주저앉았다.
련락군관으로부터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누구보다도 강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지응모일지도 모른다.

그는 작업복주머니에서 구운 밤 한알을 꺼내여 새삼스레 들여다보았다. 문득 성천목사 서성덕의 얼굴이 비쳐왔다. 이번에 여러 교인들과 함께 성천약밤을 한알한알 골라서 **김일성**장군님께 올린 서성덕목사는 병기생산에 대해서도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는 애국적인 교인이었다.

(같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와 이순이 아버지는 왜 그렇지 못할가?)

지응모는 선반기동체에 등을 기대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순이란 그의 약혼녀였다. 그를 만나본지도 2년이 되었다. 박홍근이와 럽민희의 관계가 그러한것처럼 지응모와 최이순의 사랑도 어지간히 중심이 깊었다.

지응모의 고향은 지금 부모들이 살고있는 평북도 룡천이 아니라 거기서 150여리 떨어진 목가적인 풍경이 짙은 광산군 초장부락이라는 농촌마을이었다.

100호남짓한 이 마을앞으로는 광산땅에서 제일 큰 독래강이 푸른 띠처럼 대지를 아름답게 휘감고 서해로 유유히 흘러간다. 이 강을 거슬러 끝까지 올라가느라면 천마산줄기의 마지막끝에서 광산땅을 굽어보며 우뚝 솟아있는 거령산과 맞닿아있게 된다. 이 산에서부터 천마산골짜기가 시작되는데 독래강은 바로 이 골짜기 덩굴속에 발원을 두고있다. 거령산이 독래강의 시원인것처럼 지응모와 이순이의 사랑도 머루, 다래넝쿨이 덩굴을 이루고 갖가지 혼성림이 무성한 거령산숲속에서 싹트고 자라났다.

원래 광산땅은 물산이 풍족했다. 농토가 기름져서 예로부터 다른 지방에 비해 낱알걱정을 적게 하였다. 산속에는 머루, 다래, 삽주, 도라지, 고사리, 고비 등 산열매와 산나물이 가득했고 온갖 유지림이 우거졌으며 약초류도 수십가지나 되었다. 그리고 거령산밑으로 물결쳐나간 낮은 산들에는 떨기나무와 풀이 무성하여 집짐승방목에도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산도 좋거니와 바다길이 또한 가까와 해삼, 조기, 칼치, 송어, 숭어, 반지, 산치, 낙지 등 물고기류와 새우, 백하, 조개 등 서해안에 있는 해산물들은 무엇이든 빼놓지 않고 다 있었다.

이런 지리학특성으로 하여 이 지방이 일찌기 외인들의 눈독에 들게 되었다. 제일먼저 이 고장을 삼킨자들은 미국놈들이었다. 이 광산땅에 와서도 미국인들이 그리스도교리를 설교하며 술한 돈과 재물을 긁어모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쓰 엘 로버츠였다. 이놈의 조선식이름은 윤산은이었다. 침략의 길잡이 미국선교사들은 1885년에 국왕을 회유기만하여 서울에 배제학당이라는것을 세우고 선교사 스크랜톤은 녀성들을 상대로 하는 리화학당을 세웠다. 이 시기 평양의 양촌 신양리에도 신학교가 문을 열고 서북조선일대의 적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종교교육을 주었다. 바로 여기에 제1진으로 광산에서 이순이 아버지 최학순이 와서 공부하였다. 그다음 최학순의 주선으로 지응모의 아버지 지균일이 공부하였다.

최학순은 신학교를 마치자 로버츠(윤산은)의 지원속에 처음에는 광산례배당에서 목사로 있었고 얼마후 선천에 서부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지은 다음에는 그곳 목사로 들어앉게 되었다. 그후 최학순의 도움으로 광산교회당 장로로 있던 지균일이라도 룡천교회당을 설립하고 목사로 되었다.

선천목사로 되면서 최학순은 고향 초장부락을 떠나 선천으로 왔으며 지균일 역시 고향을 떠나 룡천으로 오게 되었다. 그때 응모는 겨우 소학교 2학년이고 최이순은 한해 아래반이었으나 부모들간에는 이미 이들의 혼약을 하느님앞에서 엄숙히 맺어놓은터였다. 그렇게 된것은 바로 광산의 명산 거령산과 관계되어있었다.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노상 거령산숲속에 들어가 산열매도 따먹고 소꿉놀이도 하며 자연을 즐긴 지응모와 최이순이 어떤 때는 다람쥐를 잡느라 해묵은 락엽을 밟으며 정신없이 산비탈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고사리, 고비따위의 산나물을 뜯는데 재미가 들어 해저무는줄도 모르고 덩불속을 뒤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늦은 저녁에 산속 깊은 곳에서 뚝비를 만나 오도가도 못하고 나무밑에 쪼그리고앉아 오돌오돌 떨며 밤을 지새운 일도 있었다.

비내리는 어둠속에서 번개불이 번쩍거리고 승냥이들의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순이는 《오빠, 오빠, 난 무서워.》 하고 응모의 품으로 기여들었고 응모는 그래도 사내라고 보호자인양 이순이를 꼭 그러안고 《이순아, 무서워말라. 승냥이가 오면 내가 그놈의 대갈통을 까버릴테다.》 하고 안심시키었다. 응모와 이순이의 행방을 몰라 그날 두 집에서 다 뜯눈으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에야 사연을 알게 된 최학순은 지군일에게 찾아가 《이게 분명 하느님아버지께서 보살피 점지해준거라고 보오. 앞집 응모와 우리 이순이는 하늘이 만들어준 천상배필이요.》 하고 그날 밤의 일을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하느님과 련결시켜보는 독실한 그리스도교인이 된 지군일이라도 그날의 일을 범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글쎄올시다. 범연한 일같지 않소이다. 우리들이 하느님을 믿는 덕인가 봅시다.》

이것이 지응모와 최이순의 혼약발단이였다. 당시 이순이네는 부자집은 못되여도 땅마지기나 가지고있는 부유중농층에 속하였고 응모네는 겨우 밥술이나 먹는 자작농이였다.

응모와 이순이네는 조상대대로 곡산초장부락에서 의종게 지냈지만 그들의 혼약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최학순이네가 지군일이네 집을 더 성의껏 도와주었다.

지응모는 룡천에 이사간 다음에도 소학교시절까지는 최이순이와 드문히 만나곤 하였다. 그러나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서로 만나는 기회가 극히 드물었다.

이순이가 오산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나가 리화전문에서 공부하고있을 때 지응모는 일본에 건너가 히로시마고등학교 2년을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에서 공부하였다. 둘이 다 나이가 들도록 공부를 하다나니 결혼은커녕 서로 만나볼 기회조차 없었다. 거기에 태평양전쟁의 발발, 대학졸업후 군속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지응모는 23살 계선을 넘기고 이순이는 22살에 접어들었다. 그 시기는 조혼이 많은 때여서 남자도 여자도 20살만 넘기면 이른바 화촉지전(결혼식)의 때를 놓쳤다고 부모들이 야단을 치던 때였으니 지응모와 이순이의 부모들도 예외로 되지 않았다.

두 집 부모들은 지응모가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오면 인차 성례를 치르기로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은 지응모가 살륙의 무기를 만드는 일제의 병기제조소에 끌려갔기때문이었다. 그대로 결혼시키면 그리스도교의 계를을 어기는것으로 되어 두 집에서는 결혼이란 말을 감히 입밖에 옹기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루속히 왜놈들이 망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해방후에도 지응모는 총을 만드는 일에서 손을 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극성을 부려 두 집 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1948년 12월 10일 조선로동당 당원이 된지 꼭 1년이 되는 이날에 지응모가 당세포로부터 친미종교인인 아버지를 교양할데 대한 분공을 받고 룡천 자기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가 집마당에 들어서면서 놀란것은 자기 집이 몰라보게

달라진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집은 룡천군의 제일가는 지주집 아들인 장도영의 일가족속들이 가지고있던 집이였다. 그자가 남으로 도망가면서 최학순에게 넘겨준것을 최학순이가 지균일목사에게 쓰고살도록 해주었던것이다. 배구장만 한 큰 안뜰을 가진 ㅁ자형의 빠리집은 외형부터가 요란하였다. 방만 해도 본채에 아래웃방, 부엌, 대청과 잇닿아있는 안방이 있고 맞은켠에 붙어있는 사랑채에도 방이 여러칸 있고 헛간과 고간이 곁달려있었다. 가장집물이 또한 으리으리하였다. 룡다리우에 놓여있는 흰 자개박이장식함과 그 곁에 놓여있는 의농이며 사방침들은 전에 보지 못하던 고급한 가구들이였다.

지웅모는 부모님들이 악질적인 지주족속들이 가지고있던 집을 쓰고살고있는것이 꺼름직하였다. 그는 장도영이란자를 잘 알고있었다. 박홍근을 데리러 서울에 갔을 때 우연히 그자를 길가에서 만나기까지 했다.

지웅모는 정확히 1년 8개월만에 만난 부모들에게 이 집을 당장 내버리고 본래 살던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지목사가 노발대발하였다.

《야, 이 집 걱정은 말고 네 처신부터 잘해라. 네녀석이 사람죽이는 총기류를 만드는것을 하기때문에 이순이네와 우리 두 집이 늘 초상난 집처럼 지낸다. 바로 이틀전에도 최목사 내외분이 찾아와서 너에 대해 얼마나 섭섭한 소리를 하고갔는지 알기나 하느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이 난다더니 넌 왜 하필 그것을 하고있느냐?》

《아버지, 그에 대해선 더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총을 설계하고있습니다.》

총이라는 말에 룡다리에 앉아 사방침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있던 지근일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도대체 총이라는게 뭐냐?》 하고 소리쳐 물었다.

《말그대로 총입니다. 아버지도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고있지요? 일본놈들이 기관총과 대포를 쏘고있을 때 우린 겨우 화승총을 들고다녔어요. 다시는 우리 나라가 식민지노예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 총을 만드느 겁니다. 우리 나라에도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창건됐습니다. 그러니 총이 필요합니다.》

《야, 동경 가서 실컷 공부해가지고 왜 하필 총기류 만드느것을 해서 집안에 화단이 생기게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사람이 없어 하필 네깡 녀석한테 총을 만들라구 부탁하시겠느냐. 난 네말이 믿어지질 않는다.》

《아버지,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총을 만들고있습니다. 남쪽에 미국군대가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미국놈들이란 살인마이고 미국은 침략국입니다.… 술한 일본사람들을 원자탄으로 죽인것도 미국입니다.》

《야, 하느님을 노엽힐 말을 언감 내앞에서 하는거냐? 하느님의 나라인 미국을 침략국이라고? 살인마라고? 일본이 진주만을 치니까 미국이 성이 나서 일본에 원자탄을 쏘다. 그래서 이남땅을 해방하지 않았느냐.》

지웅모가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는 당초에 들어줄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리하여 지웅모는 그리스도교의 허위적인 본질을 하나하나 까밝히였다. 조선의 어린이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주었다고 하여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긴 악귀가 바로 성경책을 들고다니는 미국선교사 허시모라는 놈이였다. 고아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병원지하실에 데리고가서 피를 뽑아 인체실험을 하여 아이들을

말리워죽인것도 미국선교사였다. 이순이네가 살고있는 선천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 제발 눈을 뜨세요. 지금 아버지의 몸에는 미국선교사놈들이 감아준 독사가 칭칭 감겨있어요. 제발 그 성경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십시오.》

그러자 지균일은 예수를 모욕한다고 길길이 뛰면서 어찌되어 목사의 집안에 저런 이단자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성경책을 믿음의 기둥으로 삼고 한생을 신자로 살아온 아버지를 한순간에 설복하고 리해시킨다는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설복을 시키기는커녕 아버지와 응모사이에 틈만 더 넓혀지고말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허연 수염발을 떨며 대청마루가 드릉드릉 울리도록 고함을 질러 용모와의 의절을 선고했다.

《이놈, 없는 돈을 마련해서 실컷 공부시켜놨더니 하느님을 배반해? 배은망덕한 놈, 이 애비를 욕되게 하는건 참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건 참을수 없다. 알았느냐? 이놈, 오늘부터 네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썩 내앞에서 사라져라, 어서!》

지균일은 얼굴을 좌우로 부들부들 떨며 땅이 꺼져라 발까지 굴렀다.

그러자 어머니는 령감에게 《어쩌면 그리도 모지시우. 그게 하느님의 계륵이요? 의절이란 말을 그리도 쉽게 하다니...》 하며 대청마루 한쪽에 쭈그리고앉아 설분을 토했다.

일이 이쯤되고보니 지응모는 더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 집을 떠나 평양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떠나올 때 룡천중학교에서 예능교원을 하고있는 동생 응제에게 전후사연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들을 부탁했다.

지응모가 평양에 돌아온 날은 12월 11일이였다.

그가 공장에 출근을 하자 세포위원장은 성급히 물었다.

《기사동무, 갔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응모는 말문이 막혀 한숨만 내쉬였다.

《왜 말을 못하시오? 목사 딸과 깨끗이 결산했는가요?》

이순이와 인연을 끊으라는것이 또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응모에게 주는 권고였다. 지응모의 곡절많은 사랑에 대해서 동정해주는 당위원장 현무광까지도 그 여자와의 인연을 끊을것을 바랐다. 하지만 한번 정을 준 여자를 떼버린다는것은 조런치 않은 일이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있는 지응모의 침울한 얼굴에서 모든것을 간파한 세포위원장은 좋지 않은 낯색을 지으며 서운한 소리를 하였다.

《숨기지 않고 말하면 기사동무가 선천목사의 딸과 인연을 끊지 않는이상 당생활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상급당의 요구입니다. 이때문에 당위원장동무도 머리를 앓습니다. 고정한국장과 지배인동지는 당원명단에서 기사동무의 이름을 그어버리라고 야단합니다. 오죽하면 기사동물 집에 보냈겠습니까? 선천목사는 세상이 다 알고있는 첫손가락에 꼽히는 친미종교인입니다. 아버지도, 가시아버지될 사람도 일등친미목사들이니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한지붕을 쓰고 당생활을 할수 있겠는가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있습니다.》

세포위원장은 래일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기관단총국가시험사격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국가간부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부들은 틀림없이 기관단총설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게 될것이다.

《지기사동문 그동안 장군님으로부터 큰 믿음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입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후 3년이 가까와오도록 기사동무의 가정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기사동무자신도 사상적인 면에서는 그 어떤 전진이 없습니다. 그것은 선천목사의 딸과 결별하지 못하는 그 하나를 보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이순이는 시간관계로 만나지 못하고왔는데 내 오늘중으로 결별하자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지응모는 분연히 결심을 다지고 나왔다.

그는 가슴에서 피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10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썼다. 서로 잊어버리자는 그 쓰라린 편지는 그날로 평천리우편통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온밤 잠을 자지 못한채 뜯눈으로 력사적인 감격의 날 1948년 12월 12일을 맞이하였다.

이날은 일요일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온 나라 인민들이 휴식을 즐기고있는 이날 오전에 당, 정권기관, 군사일군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을 수행하고 공장주변에 꾸려진 사격장으로 나오시였다. 그러자 그곳에 대기하고있던 공장일군들과 기관단총생산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기술자, 노동자들이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였다. 물론 그 자리에는 지응모도 있었다.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관단총을 세워놓은 총가결으로 가시여 총 한자루를

뵈어드시였다. 총가목으로부터 격발기손잡이, 탄창, 방열통, 조성조문장치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살펴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은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듭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어느 한 내무성일군에게 가까이 와서 기관단총을 보라고 이르시였다. 그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기술을 가지고는 기관단총을 만들수 없다고 불가능성을 내놓다가 정작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불땀이 없어 망신스럽다고 시비질을 하던 사람이였다. 불가능설을 고집한 사람들이 비단 그 일군 하나뿐이 아니였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기관단총을 공개적으로 시험해보는 날입니다. 나라앞에 점열받는 날입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국가시험사격을 시작합시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이 떨어지자 국가시험사격조직자인 김책이 사격직일관에게 시험사격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격장좌지는 서서 사격을 할수 있게 흥장을 깊숙이 파고 주변에는 곱게 떼장을 입히였다. 사격좌지 전방 100미터지점에는 목표판이 세워져있었다.

사격직일관이 사격좌지며 사격목표판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있는가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고나서 **김일성**동지께 정보로 다가가 힘차게 보고를 올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하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사격장에는 엄숙한 정적이 깃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격좌지로 걸어나가는 사격수들을 감회롭게 지켜보시였다.

지금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을 생각하실가 하고 지응모는 생각하였다.

어찌하여 장군님의 안광에서 저렇듯 물기가 번쩍이는것일가.

이 시각 그이께서는 기나긴 세월속에 새겨진 민족의 피어린 역사를 더듬고계실지 모른다. 일제의 조선침략력사와 미제의 조선침략력사, 망국의 《한일합병》, 독립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국광야에서 한줄 흙으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애국지사들... 한자루의 총과 목숨을 바꾼 항일투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사품치는 두만강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하고 마지막말을 남기고 숨진 투사도 있었다.

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신 두자루의 권총, 어머님께서 목숨을 내대고 나르신 총들... 참으로 총과 더불어 엮어진 장군님의 추억은 거의 모두가 가슴어이는 아프신 추억이리라.

총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호신부이고 목숨 그자체이다.

《땅! 땅! 땅!》

지응모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사격수들이 틀어진 총구에서 번쩍번쩍 불이 뿜어나오고있었다. 사격장에 메아리치는 총소리에 나무가지에 앉아있던 새떼들이 축포마냥 좌- 소리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목표판을 쌍안경으로 바라보고계시였다. 지응모는 목표판중심에 탁, 탁, 탁 소리치며 연방 들이박히는 명중탄의 불꽃을 몸으로 느끼고있었다.

사격수들은 단발사격으로부터 점발사격도 하고 런발사격도 하였다.

사격수들의 사격이 끝나자 요란한 박수소리가 런발사격소리처럼 울리였다.

《만세,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사격장을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속에서 기관단총국가시험사격을 끝마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표기수들이 가지고온 목표판들을 사격좌지우에 얹혀놓고 모두 함께 목표판을 보자고 하시였다. 이때 누구보다도 긴장한것은 지응모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지시봉을 들고 목표판을 가리키시였다.

《제1사격수가 쏜 목표판입니다. 처음에 쏜 단발사격은 세발 다 10점안에 명중되었습니다. 두번째 짧은 점발도 다 10점안에 들어갔는데 그중 한발이 10점원안에서 1시방향으로 약간 편차되었습니다. 세번째 목표는련발사격인데 12발이 모두 10점안에 들고 한발이 11시로 약간 편차되었습니다. 총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의 기관단총이 만점으로 합격되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박수를 치시자 또다시 모두가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힘껏 손뼉들을 쳤다.

손뼉을 치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1시, 11시방향으로 약간씩 편차되었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있었다. 지응모도 그 시간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어정쩡해하는 그들의 표정을 일별하신 수령님께서 시간표시의 의미를 해설해주시였다.

《1시, 11시편차라고 하는 표기법은 우리가 산에서 쓰던 표기방법입니다. 목표판을 <+>로 4등분하고 시계바늘방향으로 탄착점을 밝힌것입니다. 편차를 <우예로, 아래로, 좌로, 우로.>라고 하는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명백히 탄착점을 밝혀주기 위한 탄착점표기방법입니다.》

지응모는 장군님의 설명을 들으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얼마나 통속적이며 구체적이고 명백한 탄착점표기방법인가. 시험사격채점이 끝난 다음 전체 참가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사격을 하시고 뒤이어 지응모, 유락중, 류일룡, 박홍근 등 기관단총설계자, 제작자들모두가 총을 쏘았다. 시험사격장은 환희와 걱정으로 들끓었다.

이때 **김일성**동지께서 지응모를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지응모동무, 고생끝에 락이란 이런거요.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동무의 국수는 언제 먹을수 있겠소? 허허허.》

순간 지응모는 전날 밤 이순에게 써보낸 결별의 편지를 상기하며 부지중 전신을 떨었다.

며칠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김일성**동지께서 현무광을 부르시여 엄하게 타이르시었다.

《누가 지응모동무한테 파혼편지를 쓰게 했소? 동무를 병기공장 당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내가 뭐라고 말했소? 바로 지응모동무와 같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주고 당을 믿도록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지. 어떤 간부들은 그 동무더러 당의 지붕아래 같이 있을수 없는 사람이라고 못살게 군다는데 그 동무야말로 당원의 자격이 있소. 그 동무는 술한 반대자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기관단총을 만들지 않았는가. 항일투사들의 무기제작경험을 가장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배운 사람도 지응모동무요. 바로 그런 동무이기때문에 그가 우리 식의

기관단총을 설계할수 있었습니다. 남의 혼사에 패풍을 치고 파혼을 시키는게 조선로동당인가?...》

2년전 겨울 현무광이한테서 전달받은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지응모의 뇌리에 석문처럼 새겨져있었다...

(장군님! 이 불민한 놈은 아직 제 아버지 하나도 교양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응모는 죄스럽게 뇌이며 눈을 떴다. 곁에 있던 림민희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지응모가 자는줄 알고 가버린 모양이었다. 널판을 깔고 누운 선반조결사대원들은 여전히 세상모르고 굳잠에 들어있었다. 휴식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땅! 땅! 땅! 뚜루룩...》

굴안을 모조리 들부시는듯 한 요란한 총성이 귀청을 때렸다.

기상신호였다.

결사대원들은 언제 잠을 잤더냐싶게 널판을 차고일어나 비호같이 선반기동체에 달라붙었다.

무쇠를 에이는 선반기소리, 줄칼질소리, 기름가마에 떨어진 단쇠가 물김을 뿜어대는 소리. 굴속은 도가니처럼 들끓었다.

땅! 땅! 땅!

시험사격장에서는 연방 총소리가 울리였다.

성능검사사격, 이것은 무기생산의 최종공정이였다. 그때문에 그 소리는 작업장에서 전투를 벌리는 결사대원들에게 힘을 주고 책임성과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총조립장에서는 전투원들이 사격장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이제는 작업이 마감단계에 들어서서 부속가공을 끝낸 유락종이도, 용접작업과 열처리작업을 끝낸 병혁이도 그리고 병원의사 민희까지도 방열통련결축을 줄칼로 쓸고있는 김영식, 장기진의 일손을 돕고있었다.

김정길이 일손을 놀리면서 즉흥시를 읊었다.

우리는 총을 만든다

육박전에 나선 용사마냥

적들을 향하여 찌르고 까고 쏘며 내달린다

발길 손세 온몸과 팔과 다리 약진으로 뛰나니

미제원썹놈들을 까부신다 족친다 쳐갈긴다

달리고달리자 뛰고날자 빨리빨리 더 빨리...

김정길의 즉흥시에 반주를 하듯 사격장에서는 《따르릉... 땡! 땡!》 하고 연방 총소리가 울리었다.

시를 읊는 김정길의 얼굴에서는 비지같은 땀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이렇게 한시간남짓이 지났을 때였다.

작업장을 돌아보고있는 지응모에게로 두 그림자가 너울거리며 달려와서 다짜고짜 급한 소리를 하였다.

《책임기사동무, 야단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들은 사격조장과 사격수였다.

《무슨 일이요?》

《성능검사를 못하겠습니다. 사격장안의 연기가 이젠 빠지지 않습니다.》

《가보지요.》

지웅모는 사격장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사격장입구에 들어서자 숨이 짝 막히었다. 연기와 화약내로 가득찬 사격장안은 사격수들의 기침소리로 소연하였다. 연기때문에 사람도 목표판도 보이지 않았다.

《야외에서 사격을 하면 안될가요?》

누구인가 제기하였다.

《그건 절대로 안되요. 반동놈들이 지금 여기를 주시하고있소. 그런 모험을 하다간 지금까지 해놓은 일을 다 망쳐버릴수 있소. 사격장을 지하구락부로 옮기시다.》

지하구락부는 공간이 넓어서 연기가 덜 찰수 있었다. 그대신 구락부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 통풍이 되지 않는 불리성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다.

사격장은 곧 지하구락부로 옮겨졌다. 출입구에 사격좌지를 만들고 맞은편 암벽에 목표판을 세웠다. 사격좌지로부터 목표판까지 50미터구간에 수십개의 등잔불을 매달았다.

지웅모는 기관단총을 들고 사격좌지에 들어서서 목표판을 겨냥해보았다. 목표판표식들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시험사격은 할수 있을것 같았다.

《시작해보지요.》

지웅모의 지시가 떨어지자 성능검사사격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굴안에 크게 울리었다.

뒤이어 벼락치는 소리같은 총소리가 굴안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30분이 지나자 총소리가 다시 멎어버리면서 《책임기사동지, 목표판이 안 보입니다. 연기가 안 빠집니다.》 하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굴안을 울리었다. 구락부안이 연기로 가득차서 목표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는 사격할 형편이 못되었다. 역시 구락부는 사격장으로서는 적합치 않았다.

생각끝에 마침내 지응모는 화불을 들고 목표판쪽으로 걸어갔다.

사격수들은 지응모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지응모는 목표판 바로 옆에 다가서서 왼손에 거머쥔 화불을 머리위로 높이 쳐들며 소리쳤다.

《사격수, 사격을 계속하라! 목표판이 보이는가?》

《아니, 저런?》

지응모는 목표판에서 1미터도 되나마나한 거리에 서있었다. 총탄이 조금만 빗나가면 사정없는 총알이 그의 가슴이든 다리든 머리든 꿰뚫고 나가게 된다. 왼손잡이인 그의 손에 쳐들린 화불은 목표판을 환하게 비치며 주홍빛으로 불타오르고있었다.

《대장동무! 그런 방법으로는 사격시험을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사격수들은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때 별안간 웬 사람이 지응모의 곁으로 날아와서 화불을 뺏아들었다.

《책임기사동문 저쪽으로 물러서시오. 여긴 내가 설 자립니다.》

그는 유락종이었다.

《아니, 동문 제일을 하지 않고 여긴 왜 왔소?》

지응모가 성이 나서 소리쳤다.

《걱정마십시오. 우리 일은 끝났습니다. 성능검사만 하면 만세요, 만세!》

《그렇소?》

지응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결사대원들이 모두 사격장에 모여서있었다.

《자, 쏘라!》

유락종이 목표판겉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며 사격구령을 내렸다.

《유동무, 물러나시오! 대장의 허락도 없이 이런 무규률적인 행동이 어디 있소?!》

지응모가 유락종의 손에서 화불대를 뺏으려고 하였다.

《책임기사동무, 오늘만은 이 유락종의 명령에 복종해주길 바라오. 사격수동무 쏘시오.》

《젠장, 못 쏘겠소! 누굴 살인자로 만들자고 그러오?》

사격수는 총을 내던지고 사격좌지에 주저앉았다.

이때 세포위원장이 무슨 종이장을 들고오더니 렴민희에게 화불겉에 가서 읽으라고 하였다. 그것은 결사대원들이 전투를 앞두고 꺾기모임을 하면서 랑독했던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맹세문이었다.

렴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문을 읽었다. 그 맹세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우리는 대장의 명령일하에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고 맡겨준 기관단총을 기어이 기한전으로 생산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맹세문랑독이 끝나자 지응모가 화불을 들고 목표판앞에 나섰다. 타오르는 화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전설의 무사를 연상케 하였다.

《동무들! **김일성**동지께 올린 우리의 맹세문이 한갓 치레거리로 쓴것인가? 아니다! 그러니 모두 장군님께 맹세한 그대로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시오. 사격수 정동무, 주저말고 사격좌지 앞으로 나오시오!》

총을 던지고 물러났던 사격수가 사격좌지로 걸어나왔다.

《유락중동무! 목표판으로부터 40보밖으로 앞으랏!》

군대식명령이었다.

유락중은 어찌는수없이 목표판에서 물러났다.

《혜불은 대장과 세포비서가 들고 목표판 량쪽에 서겠소.

동무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피땀으로 만든 우리의 총이 아닌가! 총알도 우리가 만든 총알이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200여정의 총은 어김없이 목표판을 명중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총이기때문이요. 사격!》

《땅! 땅! 땅!》

총성은 굴안을 뒤흔들며 런던아 울리었다. 기관단총총구에서는 불이 번쩍이고 잇달아 목표판에서는 탁, 탁, 탁 하는 총알 박히는 소리가 들리었다.

성능검사가 끝난 총은 총가에 세워졌다. 하나, 둘, 셋... 열... 스물... 서른,... 마흔... 기관단총들은 마치 줄을 지어선 병사들의 대렬마냥 총가에 절제있게 세워졌다.

《땅! 땅! 땅!》

총소리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끊임없이 울렸다.

굴안은 연기로 가득차고 화약내가 코를 찔렀으나 연방 화불을 갈아대며 성능검열사격은 계속되었다.

간고하고 긴장된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가!

드디어 마지막시험사격이 끝나자 굴안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결사대원들은 뛰고 소리치고 춤추며 불안고 돌아갔다.

이튿날 평양방어사령부에서 총을 받으려고 보위성 상급참모가 호송원들을 인솔하고 군자리굴안으로 들어왔다.

그때까지도 굴안에는 연기가 가득차있었고 화약내와 오염된 공기가 코를 찔렀다. 하루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결사대원들의 얼굴은 누구라없이 수척해지고 입술은 부르텔으며 상처입은 손들에는 붕대가 감겨져있었다. 그들은 굶으면서도 누구나가 다 성천약밤을 몇알씩 주머니에 간직하고있었다.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신화적인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고 불사신이 되어 계획보다 50정이 더 많은 750정의 기관단총을 기한내에 생산하게 하였다.

정예의 병사대렬처럼 화불에 번쩍거리며 총가대에 줄지어 늘어져있는 수백정의 기관단총을 바라보는 상급참모는 걱정이 북받쳐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동무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무들은 영웅입니다. 동무들이야말로 **김일성장군**님의 진짜배기 전사들입니다.》

한참만에 걱정을 터치는 상급참모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일성**장군 만세!》

상급참모를 비롯한 군인들은 지응모네들을 두팔로 들어올려 행가래를 쳤다.

《한번 또 한번… 다시한번 더…》

군인들은 결사대원들을 공중 띄웠다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굴이 떠나갈듯 소리치며 연방 추슬러 띄우고 또 띄웠다.

우리의 먼 후손들도 잊지 않고 기억해두어야 할 이날은 1950년 10월 18일이였다.

750정의 기관단총을 인수한 인민군용사들은 가지고온 점심밥들을 몽땅 결사대원들에게 안겨주고 떠나갔다.

결사대원들은 여러날만에 처음으로 밥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때 김정길이만은 밥도 먹지 않고 배낭이며 짐보따리들을 뒤지며 안타까와했다. 배낭주머니에 넣었던 쏘련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가 없어진것이다. 무서운 열독가인 그가 이번 전투기간에는 책을 배낭주머니에 꽂아넣은채 한줄도 읽지 못하였는데 그것이 없어진것이다. 그는 종시 책을 찾지 못하였으나 부산을 피우지 않고 혼자 속을 썩이였다.

결사대원들은 적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굴입구와 중요통로들을 죄다 매몰하고 다음날 늦은 저녁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총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한 기쁨을 안고 발걸음도 가벼이 북행길에 올랐다.

결사대원들은 성천읍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난관이 또다시 이들의 행군길을 가로막았다. 그때 성천읍엔 벌써 적들이 들어와있었던것이다. 동서남북 어디라없이 적들이 진을 치고있었다.

지웅모는 비류강의 벼랑길을 따라 상하리를 거쳐 온정리로 해서 은산으로 들어가기로 로정을 잡았다. 그들은 위험한 적후의 길을 헤쳐가면서도 **김일성**동지를 절절히 그리고있었다.

(장군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이제는 장군님께서 75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한데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것이다. 어디서 받으셨을까?) 하고 저마끔 마음속으로 그이를 그리고있었다.

9

김일성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덕천 서남부지역의 산기슭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있었다. 그이의 옆에는 방금 덕천지구에 도착한 연락군관이 그동안 진행한 사업정형을 보고하기 위해 수첩을 들고 앉아있었다.

자동차길옆으로는 2정보 될가말가한 논벌이 길게 누워있었다. 논 한가운데에 폭탄구덩이가 말라버린 늪처럼 우뚝하게 패워져있는데 그옆에 벼단들이 널려져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논바닥을 마구 파헤쳐놓은 폭탄구덩이를 가슴아프게 지켜보시였다. 해마다 가을이면 풍년노래 울려퍼지곤 하던 농촌마을, 현물세가마니를

실은 소달구지들이 팽과리를 울리며 줄지어 흘러가던 농촌길이 인적없는 침울한 정적속에 묻혀있었다.

벼단조차 제대로 실어들이지 못한 서글픈 농촌풍경을 지켜보시는 **김일성**동지의 마음은 무겁고 아프시였다.

문득 그이께서는 지난해 가을 평양교외의 농촌길옆에 차를 세우시고 누렇게 낱알이 익어가는 들을 바라보시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마을로 들어가는 동구길에 주런이 늘어선 과일나무들에는 가지가 휘도록 열매가 주렁졌고 밭이랑마다에는 녹두와 팥이 살찌가고있었다. 산기슭에서는 염소떼가 풀을 뜯고있었으며 어디선가는 풍년노래소리가 구성지게 울려왔다. 어찌보면 그 풍경은 만경대고향집에서 본 가을을 그대로 련상시키였다. 불현듯 만경대의 김보현할아버님과 리보익할머님의 그리운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모를 낸 논밭에 모살이가 끝나면 또 바쁘게 논감을 따라세우며 허리펼새 없이 일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을이 오면 벼 한알 허실할세라 모으고 쓸고 하여 가마니에 알알이 차곡차곡 집어넣던 조부모님들이시였다.

가을한 탈곡장에 벼가마니를 더덩실 높이 쌓고 풍악과 새납소리에 맞추어 북을 치고 징소리 울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풍년든 가을을 노래하던것이 온 나라의 행복넘친 농촌풍경이 아니였던가.

그러나 지금은 풍악소리는커녕 사람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빈 논밭에 벼단과 강냉이짚단들만 널려있을뿐이였다.

그이께서는 한참만에야 승용차시창에서 눈길을 떼고 련락군관을 돌아보며 사업보고를 하라고 하시였다.

련락군관은 먼저 군자리에 갔던 일과 현무광당위원장에게 그이의 친서를 전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고정한병기생산국장을 만나본 내용을 상세히 보고올리었다.

고정한은 병기공장대렬보다도 하루 앞서 후퇴의 길에 올랐지만 길을 헛갈려 강계쪽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한다. 련락군관은 희천지구에서 고정한을 만났었는데 그때 고정한의 옆에는 병기공장지배인도 있었다. 정주지구에 보관되어있는 솜옷, 담요, 탄약에 대한 문제를 채근하자 안전지대에 다 운반해놓았으니 걱정말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련락군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안도의 숨을 쉬시였다. 하지만 지배인의 일로 무척 불쾌하시였다. 지배인이란 사람이 공장대렬을 인솔하지 않고 무엇때문에 병기생산국장을 따라다니는가? 그이께서는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지배인과 당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다시 심중히 생각해보게 되시였다. 어쩐지 당위원장보다도 지배인에게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것 같으시였다. 원래 병기공장지배인은 유격대무기수리소출신의 항일투사였는데 전쟁직전에 그가 갑자기 병사하여 그 후임으로 지금의 지배인이 들어오게 되였다. 고정한을 비롯한 산업성의 요직간부들이 선발한 지배인이지만 그이께서는 아직 사업을 통해 지배인을 충분히 파악할만 한 시간적여유를 가지지 못하시였다. 고정한과 지배인이 수풍으로 가는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해 강계쪽으로 빠져들어갔다는것을 보면 두사람이 다 우리 나라 지리와 지형에 밝지 못한것이 분명하였다. 그런 소식들이 그이의 마음에 그늘이 지게 하였다.

10월 20일현재 적들의 선발대가 성천읍에 들어와있다는 통보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10월 18일에 기관단총 750정을 평양방어사령부에 넘겨주고 후퇴의 길에 오른 지웅모네도 못내 걱정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름깊은 표정으로련락군관을 돌아보시였다.

《박동무, 나는 이제 념변지구를 거쳐 창성, 대관, 동창쪽으로 가보자고 하는데 동문 룡천군에 가 봐야겠소.》

《룡천군에 말입니까?》

《그렇소. 지군일목사를 찾아 이 편지를 전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 흰 편지봉투를 손에 들고계시였다.

《룡천의 지군일목사가 지응모동무의 아버지요. 목사는 자기 아들이 설계하는 총에 대한 인식이 옳게 서있지 못하다고 하오. 지응모동무는 그게 맞겠지 않아 그런지 2년이 돼오도록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았소. 부자간에 이래서야 되겠소? 내가 그래서 목사를 리해시키는 편지를 썼으니 전하시오. 그러되 아들과 친한 병기공장의 어느 한 동무가 보내는거라고 하시오. 그래야만 이 편지에 대한 목사의 진정한 반향을 알수 있소.》

두손으로 편지봉투를 정중히 받아쥐는 련락군관의 유순한 두눈에 물기가 어리였다. 장군님께서 이런 사사로운 일일까지 마음을 쓰시자니 얼마나 힘이 드시랴!

《이제 조금 가면 신의주쪽으로 가는 길이 나집니다. 거기서 내리시오. 강계에서 만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칼날처럼 예리한 산릉선들과 송곳처럼 뾰족한 산봉우리들이 툇날형으로 길게 뻗어있었다.

승용차는 험준한 산밭들사이로 울퉁불퉁한 도로를 따라 달리였다. 길옆으로 자그마한 시내물이 흘러내렸다.

골짜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한발이나 떠올랐다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때부터 발동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차체가 불안스레 뒤뚱거리더니 한자리에 멎어버렸다.

승용차바퀴가 길바닥에 솟아난 바위코숭이에 부딪쳐 방아공이처럼 차체가 공중 솟구쳐올랐다가 내리쏘는 서늘에 차기관이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다.

얼굴이 시꺼멓게 질린채 차에서 뛰어내린 운전사는 부랴부랴 기관실덮개를 열었다.

《고장이요?》

운전사와 나란히 앉아있던 부관이 뒤따라 차에서 내려 퍼런 연기가 피여오르는 기관안을 들여다보았다.

《차를 어떻게 몰았기에 이 모양이요? 차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것 같소... 한심하단 말이요...》

부관은 얼굴이 수수떡처럼 되여가지고 운전사를 몰아냈다. 가뜩이나 급해맞아 정신이 아뜩해진 운전사는 부관의 지청구에 어쩔바를 모르고 돌아갔다.

적들이 멀지 않은 곳에 와있을뿐아니라 순천앞벌에 락하산륙전대를 투하할 잡도리를 하고있는 시각에 승용차의 발동이 꺼졌으니 여간 급하게 되지 않았다. 물론 그이께서는 적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미 양덕, 맹산지구의 고지들에 방어력량을 배치하시였으나 최전선에서 최고사령관의 승용차가 멎어버린것은 사고중에도 큰 사고였다.

런락군관까지 운전사를 몰아냈다.

《도대체 동문 자기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것 같소. 군사재판에 넘겨야 할 일이요.》

정황이 급해지면 리지적인 사람도 것처럼 사나와지는 모양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여 연락군관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으시었다.

《차가 고장나면 운전사가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오? 허허허... 이 승용차로 말하면 공을 많이 세운 차요. 영웅메달을 달아줄만 한 차요. 전쟁이 일어난 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수없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다녔으니 기관부속들이 많이 마모됐을거요. 차가 이만큼이라도 달리고있는것은 운전사동무가 일상적으로 차를 정성스레 관리한 덕이요. 그런데 군사재판이란게 무슨 소리요? 형벌되는 사람한테 그러면 못쓰요. 알아두요. 이 차가 남진때 름진강철교의 침목을 밟고 건너갔던 차요. 그러니 얼마만 한 수고를 했겠는가가 짐작되질 않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운전사곁에서 기관실안을 초조히 들여다보고있는 부관에게도 말씀하시었다.

《옆에서 북아대면 운전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니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우린 멀찌감치 저쪽에 가서 산구경이나 합시다. 박동무도 따라오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관과 연락군관을 데리고 맞은편 산기슭으로 걸어가시었다. 그이께서는 골짜기를 마주 향하여 위엄있게 서있는 산을 가리키시었다.

《동굴이랑 있는걸 보니 저 산이 석회암산같은데 아주 잘생겼소. 동무들, 저 산을 보니 뭐 생각되는게 없소?》

《언제 다른 생각을 할 형편이 못되어서...》

기실 부관과 연락군관은 산구경을 할 경황이 없었다. 그들은 얼핏 산주변을 둘러보았을뿐 줄곧 차가 서있는 곳에 시선을 주고있었다.

《산을 보라는데 어디에 고갯 돌리고있소? 나는 방금 이런 생각을 했소. 앞으로 저 산속에 자동차공장을 하나 차려놓으면 좋겠다고...》

그이께서는 높은 하늘가로 억세계 뻗어간 날카로운 산릉선들이며 아슬하게 떨어져내린 절벽이며 여기저기 둥그렇게 입을 벌린 자연동굴들을 이윽히 더듬어보시였다. 부관과 연락군관은 자동차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호기심을 느끼는듯 산쪽으로 시선을 돌리였다.

《여기서 자동차가 고장나길 아주 잘했소. 하마트면 여기를 스쳐지나갈뻔 했소. 저 산의 위치를 똑똑히 기억해두시오. 늦어서 한두달후에는 우리가 재진격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지질조사도 해보고 자동차공장을 설계합시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자동차도 많이 잃어버렸소. 평천리에서 군자리로 병기공장을 이설할 때만 하여도 짐을 싣으라고 200여대나 되는 자동차를 보내주었지만 이번에는 두대밖에 못 보냈소.》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여 오래도록 침묵을 지키시였다. 남쪽 어디에선가는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있었다.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해도 그렇고 군건설을 하자고 해도 그렇고 자체의 자동차생산기지가 있어야 하오. 여기는 지형조건도 아주 좋소. 명당자리요.》

그이께서는 주변의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이곳의 산들을 잘 리용하면 수많은 적들을 잡아엎앨수 있겠다고 하시였다. 지금 놈들은 교통이 좋은 큰 도로를 따라 썰기형으로 기여들고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함정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전쟁에서는 진공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소. 진공이 곧 승리가 아니요. 놈들이 지금 성천읍에까지 들어왔지만 그 좌우산지에는 우리 군대가 있소. 놈들을 주머니안에 집어넣고 답새길판이요, 허허허...》

그이께서 두손으로 주머니모양을 그려보이며 호탕하게 웃으실 때 운전사가 기분이 좋아 벌쭉거리며 달려왔다.

《장군님, 다 됐습니다.》

《벌써?! 내 보기에도 고장이 심했던것 같은데 동문 정말 기술이 용하오.》

김일성동지께서 운전사를 치하하시자 연락군관은 너무도 기뻐 운전사의 허리를 안아 공중 들고 빙빙 돌았다. 《운전사동무, 날 용서하시오. 사실 마음이 너무 급해지니 된욕이 나가더란 말이요.》

《그보다 더한 욕을 먹어도 할말이 없지. 하긴 연락군관동무가 군사재판에 넘기겠다고 할 땐 눈앞이 아찔해서 자동찰 고쳐낼것 같지 못했소. 그런데 장군님의 웃음소리를 듣자 배짱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자신심이 들더란 말이요... 장군님, 어서 차에 오르십시오.》

운전사는 성수나서 떠들며 차문을 열어드렸다.

《운전사동무, 차가 고장난 덕에 나라에 큰 재산이 하나 생겼소.》

김일성동지께서도 웃음을 지으며 차에 오르시었다.

《재산이 생기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운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재산이요. 동무, 저 산을 잘 기억해두시오.》

그이께서는 맞은편 산을 가리키며 자동차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었다.

후날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이곳 자동차공장은 이렇듯 준엄한 시절에 그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날은 1950년 10월 20일이였다.

승용차는 경쾌한 발동소리를 울리며 령길을 툭아올랐다. 그다음엔 골짜기를 꿰고 들판을 달리였다. 날이 어두워질무렵에는 차를 멈추고 차정비도 하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시였다. 그때 마침 농군복차림의 한 로인이 짐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를 끌고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고개길을 오르고있었다.

그가 바로 후날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강원도 법동(룡포리)로인이였다. 그는 문평제련소에서 수류탄을 만들던 아들이 군사정세의 변화로 강계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수류탄을 만들던 아들의 물건들을 몽땅 달구지에 싣고 먼 북행길을 가고있었던것이다. 어두운 밤이여서 **김일성**동지를 알아뵈지 못하고 그이앞에서 장군님을 믿고 따라가야 살길이 열리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말씀드린 그 유명한 일화도 이날 10월 20일 이 고개길에서 있던 일이였다.

1950년 10월 20일은 뜻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 류다른 날이였다. 룡천목사 지군일로인이 **김일성**동지의 친서를 읽은것도 10월 20일 밤이였다. 그밤 지목사의 가슴에서 어떤 파동이 일어났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락조의 붉은빛이 스러지자 거뭇한 땅거미가 기여들기 시작했다.

20명 결사대원들은 관서팔경의 하나로 알려진 비류강기슭의 백상루가 멀리 바라보이는 산기슭에서 행군을 멈추고 휴식하였다.

이 산기슭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대동강의 가지흐름인 금천강다리목이 나진다.

사흘동안 배를 굶으며 적후의 길을 헤쳐온 결사대원들은 림민회를 제외한 19명이 모두 만탄창을 한 기관단총을 메고있었다. 이미 순천과 안주에까지 적들이 들어와있어 이들은 최악의 경우 결사전을 벌릴 각오들을 하고있었다.

가장 걸린것이 식량이었어서 지응모는 이 지방의 지형을 잘 알고있는 기진이와 병혁을 식량구입을 위해 마을에 들여보냈다. 순천으로 들어가는 금천강다리목에 기진의 누이네 집이 있고 그 어방에 병혁이네 가까운 친척도 있다고 했다. 지응모는 피치못해 제일 나이어린 기진이를 마을에 들여보낸것이 사뭇 마음에 걸리었다. 더구나 기진이는 이틀동안 내내 침울한 기분에 싸여있었다.

알아보니 여태 친형제간처럼 다정하게 지내던 김정길이와 대두리싸움판을 벌렸다는것이다. 싸우게 된 까닭은 기진이가 이번 전투기간에 김정길의 배낭주머니에 있는 20여장이나 되는 종이를 휴지로 알고 다 써버렸는데 그것은 휴지가 아니라 김정길이 애독하는 쏘련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서 떼여낸것이였다.

김정길은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독서할수 있도록 장편소설같은것은 절별로 뜯어서 묶어가지고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이번 전투기간에도 책을 읽자고 몇개의 절을 뜯어냈지만 읽는것은 물론 그것을 정히 묶어놓을새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김정길이와는 무슨 물건이든 네것내것 없이 쓰는 장기진이가 그것을 휴지로 알고 써버린것이다.

김정길이 소설책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와할 때까지도 기진은 휴지로 써버린 그것이 소설책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군자리를 떠나는 날에 김정길이한테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기의 큰 실수를 알게 되었다.

김정길이 노발대발하였다.

《이 무식쟁이! 소설책을 휴지로 써버려? 너같은 멍텅구리하고 같이 일한다는게 정말 수치스럽다. 썩 물러가라!》

김정길이 동생처럼 사랑한 기진에게 이처럼 모욕적인 된욕을 해본적은 여태 한번도 없었다. 그만큼 기진의 신경도 곤두섰다.

《뭐 무식쟁이, 멍텅구리?... 사람을 어떻게 보는거야요? 내 눈이 시여서... 좋아요, 그 책은 내가 반환하겠어요. 그러되 나 역시 형님하군 결별이야요.》

《야, 너같은게 그 책을 어디서 구해? 1년 가도 책 한권 보지 않는게...》

《1년 가도 책 한권 안 본다구요? 저만 잘난체 말라요.》

기진은 너무도 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화해하였다.

《기진아, 내가 잘못했다. 형님이란게 책 몇장 잃어버린걸 가지구...》

정길이 년장자답게 먼저 사죄하였다.

《형님, 아니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애독하는 책을 휴지로 써버렸으니... 내 어떻게 하나 그 책을 구해보겠어요. 형님, 꼭 작가가 되랴요. 그래서 오늘의 일들을 쓰랴요.》

기진은 설음이 북받쳐 흐느껴울었다. 자기가 모욕당한 일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김정길의 애독작품을 휴지로 불살라버린것이 너무도 죄스럽고 가슴아파서였다. 그때문에 그는 이틀동안 내내 침울한 기분에서 행군했었다.

기진이네가 떠난지 한시간이 돼오고있었다.

지응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대장동지, 기진이네가 왜 오지 않을까요? 제가 가보랍니까?》

김정길이기도 몹시 초조해진듯 킁킁한 얼굴로 찾아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이때 별안간 금천강다리목쪽에서 자지러지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결사대원들이 일시에 긴장해졌다.

《전투준비!》

지응모의 구령이 떨어지자 결사대원전원이 기관단총을 비껴들었다.

《대장동무! 무슨 총소린지 아무래도 내가 먼저 정황을 알아봐야 할것 같소.》

유락종이 총소리가 울린 서남쪽을 쏘아보며 말하였다. 지응모는 민청원들인 영식이와 정길을 따라보내었다.

유락종이네 3인조가 순천읍으로 가는 소로길에 들어섰을 때 또다시 금천강다리목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었다.

뚜루룩뚜루룩 하는 기관단총소리와 따꿍따꿍 하는 소리가 겨끔내기로 들려왔고 검은구름이 덮인 하늘로는 빨건 불줄기가 길게 꼬리를 끌며 어지럽게 교차되고있었다.

《생포하라! 생포하라!》

적들이 고아대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명백히 들려왔다.

《영식이, 정길이, 저쪽둔덕을 차지하자!》

유락종이 다리목을 곧추 내려다볼수 있는 둔덕을 가리키며 비호같이 내달리었다. 총소리는 유락종이네가 매복하고있는 곳으로 가까와지고있었다. 적들이 병혁이와 기진이를 추격해오는것이 분명하였다.

병혁의 헉헉거리는 가쁜 숨소리와 함께 《기진아, 맥을 놓지 말라!》 하는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다. 문득 기진이를 등에 업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병혁이가 눈에 띄었다. 그뒤로 대여섯명의 적병이 추격해오고있었다.

유락종은 지체할수 없었다. 그는 벌떡 솟구쳐일어서며 소리쳤다.

《앞으로! 뒤놈들을 쏘라!》

셋은 앞으로 몸을 날리며 추격해오는 적들에게 런발사격을 안기였다.

《뚜루룩, 뚜루룩.》

세정의 기관단총이 세차게 불을 토하였다.

카빈총과 엠완총으로 탕탕, 파궁파궁 하고 위협사격을 하며 추격해오던 놈들은 3인조의 불의의 타격에 학춤을 추며 나동그라졌다.

적들이 쓰러진것을 보고 선참으로 병혁에게로 달려간 정길은 그의 등에 기진이가 맥없이 업혀있는것을 띠여보고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기진이가 왜 이럽니까?》

《여러발 맞은것 같네... 쟈장!》

헉헉 어깨숨을 쉬는 병혁의 온 얼굴에 비지같은 땀줄기가 줄줄 흘러내렸다.

《기진인 제가 업겠으니 빨리 선생한테 알려시오!》

김정길은 병혁의 등에서 기진이를 들쳐업으며 소리쳤다.

《야, 기진아! 자지 말라! 정신차리라! 자면 안된다!》

김정길은 언제인가 중상을 입고 잠을 자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던 생각이 뇌리를 쳐서 내쳐 자지 말라고 소리치며 내달렸다. 그가 둔덕을 넘어서자 결사대원들이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왔다.

김정길은 기진이를 풀밭에 눕히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민희가 기진이의 총상자리를 헤치었다. 여러발의 총알이 기진이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기진이를 업었던 병혁이와 정길의 잔등은 피로 질벽하였다.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기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검은구름째에서 이지러진 하얀 달이 머리를 쭉 내밀고 백랍같은 기진의 얼굴을 놀란듯이 내려다보고있었다.

《야, 기진아! 기진아! 자면 안돼! 눈을 뜨라! 깨라!》

정길은 기진이를 잡아흔들며 실성한듯이 그냥 《자지 말라! 눈을 뜨라!》 하고 소리쳤다.

《야, 기진아! 이게 어찌된 일이나? 기진아!》

지웅모도 기진을 잡아흔들었으나 기진은 눈을 감은채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기진의 가슴을 헤치고 심장의 박동을 가늠하던 민희는 그의 배허벅 허리춤밑에 꽂혀있는 피묻은 책 한권을 떼어보고 집어들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피자박이 된 책뚜껑에 12자의 새까만 글자가 눈동자처럼 사람들을 뵈히 올려다보았다. 이때 누구보다도 경악한것은 김정길이었다. 그는 수리개 병아리뎃치듯 럽민희의 손에서 부피 큰 소설책을 와락 나꿔챘다. 한껏 커진 김정길의 검은 동공이 금시 밖으로 튀어나올것 같았다.

《아니, 이 책이 어떻게?!》

피젓은 소설책을 거머쥔 김정길의 두손이 와들와들 떨리었다.

《바루 그 책때문에...》

병혁이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씻으며 세차게 어깨를 들먹이였다.

기진이가 적강점지역으로 된 누이네 집에서 쌀을 지고 나오다가 마당에서 망을 보고있는 병혁에게 잠간 기다리라고 하더니 되짚어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10분이 지나도록 기진이가 나오지 않았다. 농촌마을학교 교원인 누이와 매부는 그때 조직적으로 산으로 들어가고 집에는 사돈집할머니가 손자애를 데리고 혼자 있었는데 사돈집과 무슨 긴한 이야기를 하고있으리라고 짐작하고 마음이 조급한대로 그냥 기다리고있었다. 얼마후 배낭을 진채 책 한권을 들고 입이 함지박처럼 되여가지고 나온 기진이 《이 책을 찾느라고 누이네 집 고리짝을 발각 뒤흔었어요. 누이, 매부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책장에 있던 책을 몽땅 고리짝에 집어넣어서, 젠장... 이젠 됐어요. 이 책을 가져다주면 정길형님이 좋아서 춤을 출거예요.》 하고 법석 떠들어댔다.

《너 정신이 있니? 사방에 적인데 책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냈단 말이나? 도대체 그건 무슨 책이게?》

병혁은 어처구니가 없어 기진이의 손에 쥔 목침같은 책을 기웃이 넘겨다보았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책이에요.》

《거 정말 총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로구나. 정길해보다도 지음모기사가 좋아하겠다. 강쇠가 되느냐, 떡쇠가 되느냐 하는건 열처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거던.》

《하하하 …》

장기진은 폭소를 터뜨리었다. 책을 얻고 기쁨에 도취된 이 한순간이 그들에게 처절한 비극을 가져왔다. 책이야기에 잠간 정신을 파는 동안 그들은 미군병사들이 이 집으로 몰려오는것을 보지 못했던것이다.

조선전선에 나가면 집집마다 금이 있다는 거짓선전에 속아넘어간 미군고용병들은 강점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주민가옥들에 들어가 누런빛이 나는 물건들을 보면 닥치는대로 토색질하였다. 바로 이날 아침에 미제침략자들이 안주와 개천군의 일부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터여서 기진이 누이네 집에도 여라문명의 미군고용병놈들이 들이닥친것이다.

기진이가 소설책을 건사할데가 없어 내의밑에 집어넣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혁띠를 조이고있을 때 적탄이 날아들어와 기진이를 쓰러뜨렸다. 기관단총을 멘 기진이를 보고 놀란 놈들이 몰방으로 총을 갈졌던것이다. 그 순간 기진이의 뒤에 서있던 병혁이 놈들을 향해 기관단총을 휘둘러댔다. 마당에 쓰러진 기진이도 혼신의 힘을 다해 놈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몰켜서있던 놈들은 악악 비명을 지르며 너부러졌다. 무서워서 도망치던 세놈도 잔등에 기관단총의 철알을 맞고 몽땅 고꾸라졌다. 적의 카빈총이나

엠완총보다도 우리의 기관단총의 성능이 절대적으로 좋다는것을 이 소전투에서도 알아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꿈무늬에 적을 달고 힘겨운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배낭을 진 채 기진의 팔을 끼고 병혁이가 적들을 견제하며 자그마한 개울을 건넌을 때 기진의 생명은 이미 경각에 달해있었다.

뒤에서는 생포하라는 적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병혁은 배낭을 벗어 팽개치고 기진을 등에 업고 달리었다. 유락종이네 3인조가 비호같이 달려나와 추격하는 적들에게 기관단총의 불벼락을 안긴것은 바로 이때였다.

《기진아!... 기진아!... 기진아-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나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김정길은 풀밭에 반듯이 누워있는 장기진을 불안고 뒤채이며 통곡하였다. 그러나 기진을 불안고 마음껏 울수도 없는 위급한 시각이었다. 적들이 따라올수 있었던것이다.

지응모는 북동쪽에 솟아있는 이름도 모를 소나무숲속으로 대오를 이끌고 들어갔다. 정길이가 여전히 장기진을 업고 산을 뚫아올랐다. 다행히 적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고용병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고용병들에게 필요한것은 오직 돈뿐이었다. 죽은자에게는 돈이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은 위험한 곳에는 몸을 내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사대원들에게는 제 한몸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것이 조국이였고 내 나라 땅이었다.

결사대원들은 제일 나이가 어린 이제 18살의 새파란 젊은이를 이름도 모를 산언덕숲속에 묻었다.

김정길은 그 봉분앞에 꿇어앉아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들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기진아, 너는 나때문에 죽었구나. 속통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이놈때문에... 아, 원통하다. 네 어찌 그 책을 목숨과 바꾼단 말이나.》

꿇어앉은 김정길의 눈에서 락수처럼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이 누런 흙을 적시었다. 그는 어깨를 떨며 소설책의 한구절을 뜯금으로 외웠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은 생이다. 생은 사람에게 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한생을 목적없이 흘려보냈다는 가책때문에 빠져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비굴하고 너절하게 산 과거때문에 치욕감이 가슴을 허비지 않도록 그리고 운명하면서도 모든 생과 모든 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위업, 인류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바쳤다고 떳떳하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기진아! 네가 바로 그렇게 살았구나! 기진아, 네가 굶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만든 750정의 기관단총은 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무기이다.

너의 한생은 짧았지만 떳떳하고 깨끗한 한생이었다. 기진아, 나는 너를 잊지 않을테다. 일생토록 너를 거울로 삼을테다!...》

어둠이 깃든 숲속은 처량한 바람소리와 결사대원들의 울음소리로 소연해졌다.

지웅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오열하는 결사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널 한장도 깔아주지 못한채 애어린 기진이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다음 꼭 돌아와 잘 안장합시다. 오늘은 기진이를 이 숲속에 남겨두고 빨리 떠나야 합니다. 수풍으로 가야 합니다. 기진이가 지고온 쌀배낭이 여기 있습니다.》

지응모는 팽팽한 쌀배낭을 두손으로 높이 들어보이였다. 장기진은 배낭을 진채로 병혁의 등에 업혀왔던것이다. 병혁의 쌀배낭은 잃어졌으나 피묻은 장기진의 배낭은 동지들이 용감하게 사선을 뚫고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결사대원들은 어둠속에서 행군을 시작하였다. 장기진의 기관단총은 렴민희가 넘겨받았다.

(아, 장군님께서 기진이가 희생된것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렴민희는 울면서 걸어갔다. 기쁨 때나, 슬플 때나 **김일성**동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들이였다.

제 3 장

1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무검부레기와 해묵은 락엽들이 모래자갈에 버무려져 미끄덕거리는 산경사지를 뚫아오르고계시였다. 멀리 올려다보이는 산말기에는 시커먼 구름이 덮여있고 희뿌연 운무속에 잠긴 동북쪽 어디선가는 비가 내리고있는듯 이따금 천둥소리가 울려왔다. 찬바람이 소리치며 불어올 때마다 주변에 뽕뽕이 서있는 참나무들에서 서리맞은 누런 잎사귀들과 물방울들이 떨어져내렸다.

김일성동지의 가을외투자락과 어깨에는 나무잎사귀며 풀검부레기들이 붙어있고 검은 가죽신은 모래와 흙이 묻어 누런 목단화처럼 보이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운산지구 방어부대를 찾아가시는 길이였다. 지리적으로 지대가 높아 늘 구름이 끼고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하여 운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장은 전반적지역이 깊은 골짜기와 크고작은 분지들로 이루어졌다. 지금 그이께서 오르시는 이 경사진 산릉선은 운산 북쪽에 위엄있게 뻗은 피난덕산줄기의 한 지맥이였다. 그이의 뒤로는 나어진 병사 세명이 따르고있었다. 얼마전부터 그이께서 데리고다니시는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의 병사들이였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장군님의 친위병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이께 부담을 드리는 철부지들이였다.

경사지를 뚫아오르시던 그이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의 발굽옆에 썩은 나무토막들이 무저있었는데 그 한귀통이에 시커먼 구멍이 무슨 괴물의 아가리처럼 입을 썩 벌리고있었던것이다. 푸르틱틱한 이끼와 허연 곰팡이가 낀 나무토막들에선 벌거지들이 기여다니였다.

《너희들 이게 뭔지 아느냐?》

김일성동지께서 가까이 다가서있는 병사들에게 물으시였다.

《장군님, 이게 우물자리가 아납니까?》

불이 오동통한 병사가 시커먼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옆에 놓인 나무토막들은 구멍우물에 귀틀을 지었던 나무들일것이라고 제판의 분석까지 하였다.

《허허허, 우물자리다? 틀렸다. 이런 가풀막에다 무슨 우물을 파겠느냐? 이런덴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건 우물이 아니라 굴이다, 고굴이다.》

그이께서는 다시 경사지를 뚫아오르며 교시를 계속하시였다.

《이 운산군은 성천군 못지 않게 력사가 오랜 군이다. 옛날 운양, 운주, 위화 등으로 불리우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운산군으로 됐지. 운산 북진 지방에 금이 많아서 19세기부터 이곳에 눈독을 들인 외국자본가놈들이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게 몇푼 안되는 퇴물을 안겨주고는 제집처럼 드나들며 퇴물값의 몇천몇만배나 되는 금을 마음대로 캐갔다. 그중에서도 제일 교활하고 악착스레 이 땅의 내장을 긁어내간놈들은 미일자본가놈들이였다.

<노다지>란 말은 바로 이 지방에서 처음 생겨난거다. 금맥이 나타날 때마다 미국광주놈이 다치지 말라고 영어절반, 얼치기조선말 절반을 섞어 고함을 지르곤 해서 결국 광맥이 나오면 노다지가 나왔다고 했지. 이렇게 오랜 옛날부터 조선땅을 탐낸 미제침략자들이 기어이 그 탐욕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계속 발광하다가 마침내 전쟁의 불을 질렀다.》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이께서 평양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멀고 험한 강행군길에서 보신 모든 도시와 마을들의 근대력사에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잔인무도한 략탈의 기록이 새겨져있었다. 강동, 성천, 덕천, 녕변, 구장, 동창 그리고 여기 운산지구 그 어디에나 미일제국주의자들의 피물은 군화발과 략탈의 검은 손이 와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림도 없지. 오늘의 조선은 그놈들이 마음대로 로략질하던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거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격하신 어조로 교시하시고 룡선밑 깊은 골땅을 굽어보시였다. 그이를 따라가는 병사들의 눈에서도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분노의 불이 이글거리였다.

산룡선의 물매가 점점 더 급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참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며 급경사지를 뚫아오르시였다. 그때 뒤에서 따르던 병사가 경사지에 놓인 락엽을 밟다가 쭈르륵 미끄러져 뒤로 나동그라졌다. 같이 가던 두 병사가 옷을 털며 일어서는 어린 병사를 돌아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다치지 않았나?》

김일성동지께서도 웃으시였다.

《일없습니다. 그놈의 노다지생각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였습니다.》

애어린 병사는 열적게 웃으며 변명하듯 중얼거리였다. 그이께서 군복 옷자락에 붙어있는 나무잎사귀를 털어주고 앞장서 걸으시였다.

산의 물매가 점점 더 급해지다가 산말기가까이에 이르러 밋밋해지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드디어 산정에 오르시였다. 지형측량공들이 박아놓은듯싶은 삼각점세멘말뚝에 해발고가 새겨져있었다. 산봉우리 량옆으로 길게 뻗어간 산등줄기에 기관단총과 보총을 비롯한 저격무기로 무장한 인민군병사들이 늘어서있었다.

삼각점에서 10여메터 떨어진 평퍼짐한 공지 네귀에 나무기둥을 박고 방수포로 얼추 옷갓을 씌운 어설픈 건물이 있었다. 방어부대의 야전지휘부인듯싶었다. 삼각점 반대편경사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여러개의 갱도들이 보이였다. 방어부대병사들이 금탐사고굴들을 수리하여 지하병실로 리용하는것 같았다.

저쪽참호에서 기관단총을 멘 어린 병사를 데리고 걸어오던 군관 한명이 삼각점결에서 주변을 둘러보고계시는 **김일성**동지를 뵈옵고 우뚝 굳어졌다. 그는 어찌나 놀랐는지 눈이 화등잔처럼 되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히 서있었다. 군관을 따라오던 어린 병사도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듯 입을 딱 벌리고 서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시선이 그들에게 미치시였다.

《수고들 합니다.》

《아, 아... **김일성**장군님!》

군관은 그제야 소리치며 달려왔다. 《동무들! 최고사령관...》

《가만! 떠들지 마시오.》

김일성동지께서 소리치려는 군관에게 급히 손을 흔드시였다. 산바람과 포연에 그슬린 군관의 너부죽한 적동색얼굴에선 불시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있었다. 어린 병사는 여전히 자기가 꿈속에 서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이를 우러러보고만 있었다.

《모두 전투위치를 차지하고 긴장하게 전방을 감시하고있는데 내가 왔다고 소리치면 되겠소?... 그리고 군대식보고를 해야지 그게 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 부대는 참호에서 전투준비중에 있습니다. 부대장 중좌 유성복!》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하는 군관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있었다.

《오, 방어부대장이요? 마침 잘 만났소. 저리로 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삼각점아래 참나무들이 뺑뺑이 서있는 곳으로 군관을 데리고가서 진대통에 걸터앉으시였다.

《이 산에 참나무가 많구만. 동무도 여기 앉으시오.》

그이께서는 군관의 손을 끌어당겨 곁에 앉히시고 기관단총을 뎌 어린 병사에게 물으시였다.

《런락병인가?》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어린 병사는 그제서야 거수경례를 하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을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병사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나이는 몇살이고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들은 계시는가, 언제 입대하였는가 일일이 알아보시고 그의 등에 메워진 기관단총을 벗기시였다.

《음, 이게 평천리병기공장에서 제일처음 만들어낸 총이로군.》

그이께서는 총에 표시된 기호들을 보고 알아보시였다.

《이 총이 어때?》

《총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대대에 이런 총이 몇정 안됩니다.》

《몇정 안된단 말이지?》

그이께서는 기관단총을 한참이나 애뜻이 어루만지시고나서 병사의 어깨우에 도로 메워주시였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총이 보충될거요. 기관단총뿐아니라 포, 보총, 수류탄, 포탄이 팡팡 쏟아져나올거요.… 그건 그렇고… 이제 미군이 여기로 들어오면 막아낼 자신이 있나?》

《자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단매에 요정내겠습니다. 명령만내리시면 우리는 당장 반공격할수 있습니다.》

《허허허… 공격명령이 내리길 기다리고있다?》

그이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어린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주시었다. 문득 어제 어슬막에 동창마을에서 만나보신 나 어린 병사의 얼굴을 그려보시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행군하는 인민군대오속에 아직 소년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병사가 있어 담화해보시었다. 멀리 락동강근처에서부터 행군해온 전사의 군복은 여러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신발은 군화가 아니라 짚신인데 신총이 끊어져나간 부위에 천을 대고 끈으로 동여맨것이 어둠속에서도 알리였다. 군복과 신발은 너털이 났으나 그이를 우러르는 병사의 눈은 별처럼 생기있게 반짝이였다.

그 어린 병사도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으러 최고사령부를 찾아간다고 했었다. 지난 며칠동안 북행길을 걸으시며 그이께서 수없이 만나보신 인민들과 군인들은 하나와 같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었다.

《어딜 가보아도 우리 병사들의 정신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하고 교시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장에게 방어부대 병력수와 무장장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앓는 동무들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장군님, 없습니다. 모두 건강합니다.》

《식량은 얼마나 가지고있소?》

《보름은 넉넉히 먹을수 있습니다.》

《보름?... 방금 연락병동무가 반공격명령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머지않아 전쟁 제2계단작전을 총화하고 제3계단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전쟁 제3계단에서는 새로운 반공격준비에 기초하여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의 유생력량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우리의 전과를 38도선이남에까지 확대해나가자는거요. 한마디로 말하여 재진공하여 적들을 38도선이남까지 내쫓아버리자는거요.》

그이께서는 전쟁 제2계단작전을 지휘하시는 과정에 이미 전쟁 제3계단에 대한 작전적구상을 완전히 무르익히시고 실행단계에 이르신것이다. 이 시기 정규군의 대련합부대들로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하여 놈들의 사등뼈를 부러뜨릴 독창적이고도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었는데 한개 대대력량이 배치된 운산지구 방어부대도 앞으로 적후에서 반공격전을 벌려야 했다.

《동무네들은 이제 더는 물러서지 말고 운산지구에 침입한 적들을 방어구역에 끌어들여다 답새겨야 합니다. 지금 적들은 교통이 좋은 큰 도로를 따라 들어왔기때문에 많은 돌출부들을 형성하였소. 돌출부에 있는 적들을 자루속에 집어넣듯이 에워싸고 두들겨패야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장은 벌떡 일어나서 힘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부대장동무, 전투라는건 욕망 하나로 되는게 아니요. 한개 대대가 적후에서 싸워야 하니만큼 면밀한 작전을 세우고 전술적우세로 적을 타승해야 합니다.》

《자신있습니다. 싸워보니 미국놈들을 비롯한 <유엔군>들이란 세상 겁쟁이들입니다. 뒤명만 총에 맞아 너부러지면 저마끔 줄행랑을 놓습니다, 허허허...》

군관은 그이의 소탈하신 인품에 어느덧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크게 웃었다.

《그게 바로 놈들의 약점입니다. 술한 자본주의군대들이 달라붙었지만 허수아비들이요. 그들에게는 목숨과 돈밖에는 아무것도 필요한게 없소.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에게는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자각과 애국심이 있고 사랑하는 조국땅을 침범한 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있소. 바로 이런 정신적차이점으로 하여 적들은 종이범으로 되고 우리 군대는 문자 그대로 맹호가 되어 일당백의 용맹을 떨치는거요. 전패를 모르는 백전로장이라고 으시대는 맥아더가 이제 조선전쟁에서 어떤 참패와 수치를 당하겠는지 불보듯 뻔하오. 그렇다고 적을 너무 경시하면 안됩니다. 옛 병서에 경적필패란 말이 있소. 적을 알보면 언제나 실패한다는 성구요.》

그이께서는 조선전쟁에 참가한 적군들속에는 피를 물고 날뛰는 악질분자들도 있고 다년간 전쟁경험을 습득한 교활하고 로회한 전투지휘관들도 있다고 하시였다.

《내가 방금 여기로 올라오면서 보니 동무네들이 구축한 방어선에 일련의 결함이 있다는게 인차 알립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이께서는 고지정점으로부터 산등줄기를 따라 좌우 일직선으로 방어진을 친것이 결함이라고 하시였다. 이곳 지형은 고지정점으로부터 동서방향으로 기본산줄기가 길게 뻗어있는것과 함께 기본줄기의 직각방향으로 여러 릉선들이 내리뻗으며 많은 골짜기들을 형성하였기때문에 방어진을 일직선으로 칠것이 아니라 쇠스랑날모양으로

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다시말하여 기본등줄기의 갈래릉선들에도 방어진을 쳐야 적들을 자루속에 넣고 말끔히 소멸해버릴수 있었다. 이 산지에는 나무가 많아서 쇠스랑날모양의 매복진을 치기가 아주 유리하다고 하시였다.

《근거리매복전에서는 수류탄이 많이 요구될거요. 수류탄은 넉넉하오?》

《병사 한명당 두세개쯤은 돌아갑니다.》

《더 많아야 합니다... 산악지대에서의 근거리매복전을 예견하여 병기공장동무들에게 수품으로 가서 수류탄을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시뿌연 안개구름에 덮인 북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이제는 병기공장로동자들이 수품에 도착하여 수류탄생산을 시작하고있을지 모른다. 그이께서는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수많은 병기공장들을 그려보며 교시하시였다.

《이제 기관단총도 수류탄도 많이 생산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동무네 부대에 박격포소대가 있소?》

《박격포소대가 있긴 한데 포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지형에선 박격포가 아주 쓸모가 있는데 왜 그런지 우에서 박격포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박격포소대동무들은 자기네가 이북자식이라고 하면서...》

부대장은 김일성동지의 안색이 흐려지시는것을 보고 뒤말을 가무려버렸다. 군사부문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일부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이 박격포, 곡사포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리용조차 하지 않았기때문에 제1차진공시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었다. 지어는 포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귀중한 포들을 포격과

폭격의 피해를 받게 하기보다는 후방깊이 들여다 안전하게 배치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전선에 있는 포들을 제멋대로 후방에 들여보낸 사실도 있었다. 문경고개전투에서 포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애를 먹은것이 그 하나의 실례로 되었다.

그 어느 분야를 물론하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군사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하면 엄청난 후과를 빚어내게 되는것이다.

《현대전에서 포를 홀시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보병부대의 박격포소대를 이붓자식처럼 대한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문포공장을 건설하여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포들과 포탄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포부대를 강화하자고 합니다. 동무네들이 이번 전쟁에서 써보아서 잘 알겠는데 우리 병기공장에서 만든 무기들이 어떻소?》

《장군님,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건 우리 조선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만든겁니다. 쏘련제무기보다 쓰기가 편리합니다. 그저 유감스러운건 총과 탄알이 많지 못한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만 기다리시오. 부대장동무의 총을 좀 봅시다. 권총 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 진대통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내미시였다. 한옆으로 비켜선 부대장은 웬일인지 어줍게 웃으며 더수기를 굽적거리였다. 얼마후 그가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권총은 우리 병기공장생산품이 아니라 일본산제품이였다.

《우리 권총이 없어서 이걸 차고다니오?》

《아닙니다. 그 권총은 제가 로획한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제시기 창씨개명을 하라는데 대해 몇마디 불평을 한 <죄>로 왜놈의 권총에 맞아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왜놈의 권총으로 왜놈들을 쏘아죽여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자구
가지고다닙니다. 물론 그 권총의 임자도 제가 쏘아죽였습니다. 조선전쟁에 참가한
<유엔군>무리에는 일본군인들도 적지 않게 섞여있습니다.》

부대장의 눈이 숯불처럼 이글거리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글자가 새겨있는 권총을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비록 한줌에
드는 자그마한 총이지만 거기에는 매우 큰 미제의 범죄적인 군사정책이
기록되어있었다. 미제는 제2차대전의 전범국이며 전패국인 일본군의 머리에까지 《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 조선전쟁에 들이밀고있을뿐아니라 일본땅을 저들의
무기생산기지로 만들고있었다.

《그렇소, 미제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맥아더가 일본에 주둔하면서 해체하였던 일본군수기업체들을
재생시키고있을뿐아니라 일반민수공장들까지도 군사장비생산에 동원시키고있다고
하시였다. 일제패망과 함께 침몰위기를 겪고있던 일본군수공업은 조선전쟁과 때를
같이하여 급기야 부활되면서 황금소나기를 맞게 되었다. 세상사람들을 가장 경악하게
하는것은 전범자로서 극동군사재판에 의하여 교수형을 받고 죄많은 인생을 마친 도조
히데끼의 둘째아들로 태어난 도조 데루오가 일본의 병기부문의 최고책임자로
일하고있는것이였다.

전범자 도조 히데끼의 아들이 맥아더의 특별신임을 받으면서 미쯔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수많은 병기생산종합체들은 말할것 없고 일본의 크고작은 민수기업체들을 손에
쥐고 탄약, 약통, 대포, 박격포, 함정 등 각종 군수무기생산에 내몰고있었다.

최근 김일성동지께서는 맥아더의 지령에 따라 되살아난 일본병기창 미쯔비시중공업에 대한 내막을 밝힌 자료를 보고 맥아더의 인간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시었다. 피비린내를 풍기는 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있었다.

《…일미대전당시 수상으로서 전후 처형된 도조 히데끼의 2남으로 태어난 도조 데루오, 그는 현재 일본 병기부문의 최고책임자이다. 그의 동생 도시오는 항공계통을 맡아보고있다. 도조 데루오가 책임진 병기창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국방의 30프로이상으로 치닫고있다. 조선전쟁은 도조 데루오와 그의 동생까지도 지명해제하고 병기생산에 썩먹게 하였다. 리해관계가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체질에 절어있는 맥아더는 달리 행동할수 없었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미쯔비시중공업 시가마와라제작소는 일본 최일의 전차공장이다....

이 공장은 제2차세계대전후 처음에는 민수로서 트랙토르와 농기구를 만들고있었는데 1947년부터 맥아더의 지령에 따라... 민수생산을 전면중지하고 군수전문공장으로 되었다.

1950년에 조선전쟁이 터졌다.

그때부터 미쯔비시 시가마와라제작소에서 생산된 전차는 대형런결차에 실려 후지산기슭으로 수송된다.

전차들은 공장 한쪽구석에서 포장된채로 런결차에 실려 심야에 조선전장으로 실려가기때문에 누구도 모르게 제모습을 감추어버린다....

이 숨겨진 검은 내막은 후날 《일본병기창》이라는 도서가 이 세상에 나돌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운산지구 방어부대 부대장이 일본산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닐 때만 하여도 일본의 최대전범자 도조 히데끼의 두 아들녀석이 무기를 만들어 조선전쟁에 보내고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

맥아더는 미국정부의 뜻대로 굶어죽어가던 일본의 자본주의기업체들을 먹여살려 살찌게 하였다. 영양실조에 걸렸다가 피둥피둥해진 일본의 자본에는 조선인민의 피가 스며있었다. 이것을 알아야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장에게 권총을 돌려주며 교시하시였다.

《동무는 그 권총의 내막을 좀더 깊이 알아야 하겠소. 미제의 손길에 받들려 일본군국주의가 재생하고있습니다. 조선의 백년숙적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더 친밀히 결탁하여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놈들의 조선침략에 대한 야망은 망상에 불과하오. 이제 맥아더는 톡톡히 쓴맛을 보게 될거요. 자, 이제는 우리 병사들을 만나보러 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병사들이 총창을 비껴들고 서있는 참호를 향해 나무덩굴을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가시였다.

이때 그이께서는 벌써 미제침략자들을 38°선이남으로 때려내쫓을 전쟁3계단의 전망을 환히 내다보고계시였다.

하여 며칠후부터는 서방의 보도계에서 조선전쟁으로 하여 허둥거리는 맥아더의 어두운 생활을 지상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도쿄 마루 우찌에 자리잡고있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조선전쟁을 지휘하고있는 맥아더는 이날 아침 심기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한시간이나 늦어서 아침출근을 하였다.

가장 속기빠른 일본 교도통신사가 즉시에 《맥아더장군 아침출근 1시간 10분 늦었다》라는 통신을 날리었다. 수십개의 국내분사와 외국지부를 가지고있는 교도통신의 이 짧은 보도가 서방의 정객들에게 특히는 조선전쟁에 참가한 《유엔군》참가국의 군부와 정객들에게 강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였다. 도쿄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미국대사관에서 안해와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맥아더가 아침출근에 늦은적은 단 한번도 없었기때문이였다. 언제나 아침출근과 일과를 정확히 지켜온 맥아더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것은례외적인 일이였다.

왜 출근을 늦게 하였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싶어했으나 교도통신이 그 까닭은 밝힐수 없었다. 미국의 권위와 맥아더의 체면에 손상을 입힐수 없었기때문이다.

지난번 웨이커섬에서 트루먼을 만난 자리에서 맥아더는 감은절(그리스도교에서는 매해 11월 넷째주에 감은제를 지낸다.)을 전후하여 조선전쟁을 끝내고 늦어도 크리스마스(12월 25일)전까지는 8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며 모든 《유엔군》병사들이 1951년 새해명절을 자기 고향에서 쇠게 하겠다고 장담했었다. 트루먼은 이에 대해서 더없는 만족을 표시했었다.

의기양양하여 도쿄로 돌아온 맥아더는 조선의 순천으로 날아가 발표할 《승리의 선언》을 집필했었다.

그러나 조선의 전쟁상태는 맥아더의 예상을 뒤집어버렸다. 트루먼앞에서 아니, 세계면전에서 호언장담한것들이 모두 빈말공부로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초조감, 불안감, 공포감들이 맥아더로 하여금 아침출근시간을 잊어버리게까지 만들었던것이다.

사실 요즘 매일과 같이 조선에서 그에게 타전되어오는 전문은 청천벽력같은 무서운 소식들이었다.

지금 북조선의 한개 보병사단이 평강, 철원, 련천 등 아군의 후방깊이에 제2전선이라는것을 형성하고 활동하고있으며 또 한개의 사단은 소백산줄기를 타고 남으로 진격해오고있다는것이였다. 한편 대도로망을 따라 북으로 깊숙이 들어간 《유엔군》부대들이 인민군대의 유인매복권에 걸려 갈팡질팡하고있고 8군을 지휘하는 워커와 10군단을 맡은 아몬드간의 협동이 잘되지 않아 진군속도가 날을 따라 늦어지고있다는것이였다. 미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로부터는 엄혹한 겨울이 코앞에 닿았는데 그런 속도로 언제 압록강에 가닿겠는가고 독촉이 불같았다. 이상한것은 신통한 무기도 없는 북조선이 대무력을 가진 《유엔군》의 해일같은 공격에도 압살되지 않고 벌써 반공격태세를 갖추고있는것이였다. 더욱 불가사의한것은 미중앙정보국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비밀없는 전쟁을 하고있다고 왜재를 올린지가 오래지만 매번 불의의 타격을 받는것은 《유엔군》이라는 사실이였다.

교도통신사는 맥아더가 1시간이상이나 아침출근을 늦어한 바로 그날에 울화증이 나서 미중앙정보국 조선담당차관 잭슨에게 몇번이나 전화를 하려다가 그만둔 사실까지 알고있었다. 잭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외에는 누구도 간섭하기를 삼가해야 된다고 한다.

교도통신사가 맥아더의 아침출근정형에 대한 통신을 날린 거의 그 시각에 조선의 한 중년사나이가 워싱턴의 한 비행장에 내렸다. 그는 박이량이라는 사람이였다. 장대현교회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일망타진된 염화식이네 패당의 끈을 쥐고있던 그 박이량이었다.

미중앙정보국의 요원이 나와서 그를 마중하였다.

그가 바로 미중앙정보국 극동담당부서의 조선담당차관 잭슨이었다.

그는 최근 북조선에서 입수된 구체적인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북첩보책략을 세워 미중앙정보국의 비준을 받고 그 실행을 위하여 박이량을 미국으로 부른것이다. 미국의 최고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대학을 수석으로 마친 잭슨은 새파랗게 젊은 시절에 동방역사학박사칭호를 받고 교수가 되어 그 대학에서 10여년이나 역사학을 강의하다가 중앙정보국의 전신인 전략조사국 국장 도노반이 영국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안중에 들어 아시아극동 조선담당요원이 된자였다. 잭슨은 그후 델레스가 중앙정보국 장관으로 되면서 그와의 련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깊어져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되었다. 언제인가 델레스는 잭슨에게 《조선반도는 대륙의 교두보이네. 그때문에 재능있는 자네한테 조선을 맡긴거네.》 하고 귀땀하였다. 역사학전문가로서 그는 우선 조선의 역사와 지리, 문물제도, 주변대국들과의 관계 등 조선반도와 관계되는 일이면 무엇이냐 다 파고들어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여러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줄 아는 잭슨은 현대조선말은 물론 방언이며 성구와 지어 고사까지도 능숙하게 활용할줄 알았다. 이미 70대를 바라보는 잭슨은 천부적인 비상한

두뇌의 도움도 있었지만 보다는 무서운 노력과 정열로 이처럼 놀라운 지식을 소유할수 있었다.

미중앙정보국에는 머리가 비상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잭슨을 평가할 사람이 없었다. 학자풍의 번들번들한 이마밑으로 깊숙이 들어간 회청색의 예지로운 눈을 가진 잭슨은 박이량의 마음을 순간에 틀어잡았다.

다음날 잭슨은 미중앙정보국 특수1호밀실로 이량을 데리고 들어갔다. 방은 크지 않았다. 긴 소파와 앞상이 있을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다.

그들이 들어가자 청회색의 조명등이 켜지더니 해빛이 스며들던 창문을 자동접이식창가림대가 순간에 덮어버리었다. 해빛을 차단해버린 방안에는 조명등이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앞상우에는 프랑스제 고급위스키 한병과 햄버그를 담은 두개의 접시와 고뿌 두개가 놓여있었다. 잭슨이 앞상우에 있는 단추를 눌렀다. 앞벽에 영사막이 내리워지고 실내 가정용영사기가 고르로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평양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고있었다.

이량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이 튀어나왔다. 드디어 이량에 대한 세뇌공작이 시작된것이다. 직관물을 펼치며 시작되는 잭슨의 첫 강의였다. 화면에는 평양시의 낮익은 거리들이 흘러가고있었다. 크고작은 건물들과 땡땡 종을 울리며 지나가는 궤도전차들이며 대동교, 화신백화점, 공설운동장, 모란봉의 을밀대와 최승대도 보이였다.

다음 **김일성**장군님께서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열병식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화면이 펼쳐졌다.

《위대한 인간이요. 내가 존경하는 천재적인 명장이요.》

잭슨의 입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이 말이 튀어나와 이량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정탐가들은 적을 정확히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수 있습니다.》

화면은 다시 바뀌어 서리발총장을 비껴들고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시는 주석단앞을 씩씩하게 척척 발걸음소리 높이 울리며 지나가는 조선인민군열병대오가 펼쳐졌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는 이량에게 잭슨이 말하였다.

《저 기관단총을 똑똑히 보시오, 인민군대가 무장한 저 기관단총을... 지금 조선사람들이 저런 총들을 생산하고있소. 해방된지 불과 몇년밖에 안되는데... 자체로 생산하고있소. 그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인이 연구한 기관총을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압니까? 로씨야도 30년만에 기관단총을 생산했습니다. 이제 북조선을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우선 병기생산기지부터 징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제땅을 찾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첩자들이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임해두면 북조선에서 무엇이 나오겠는지 알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선사람 거기에 있는게 아니라 신화적인 인간들을 길러내는 **김일성**, 그 젊은 장군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책은 알릴락말락한 한숨을 내쉬며 유유히 흘러가는 화면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그가 수십년간 동서고금의 서적들을 들추어 조선을 연구한데 의하면 이 나라 사람들의 슬기와 재능은 비길데없이 뛰어났다. 8만대장경을 만들고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만들어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낸 조선은 이미 중국한자가 생겨나기 전에 신지글자를 사용하였다.

중세기에 조선사람들이 전쟁에 리용한 비거는 비행기의 원조상이고 신기전은 현대로켓의 시조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이렇게 뛰어난 문화와 군사무기를 창조한 이 나라가 중세기부터 계속 외래의 침략을 받으며 시달려온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상스러운것은 그 어느 나라도 조선을 쉽게 타고았지 못했으며 조선의 민족성을 없애거나 동화시키지 못한것이였다.

일본은 조선을 자기 나라에 동화시키려고, 말과 이름까지도 빼앗아내려고 별의별짓을 다하였으다 그것을 끝내 실현하지 못하고 쫓겨나고야 말았다. 미국도 조선을 먹어보려고 19세기 중엽부터 침략선들을 들여보내 무력침공도 하고 선교사요, 뭐요 하는것들을 시켜 별의별 오그랑수를 쓰며 여러가지 불평등조약을 맺었지만 조선을 타고았지 못하고 일본에 양도하였다.

이렇듯 민족성이 강한 조선이 어찌하여 무시로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아오고 수치스러운 식민지노예살이를 하였는가. 그것은 사대주의적유교봉건통치라는 완고한 제동기가 조선의 군사, 문화,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의 전진을 막아버리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 제동기를 없애버릴 힘이 바로 **김일성**장군께

있다는것을 잭슨은 알고있었다. 하기에 그에게 있어서 아니, 미국에 있어서 **김일성**장군은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

북조선을 잘 안다고 하는 잭슨까지도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는 자기 군대가 해주에서 아침을 먹고 평양에서 오찬을 한 다음 신의주에서 저녁밥을 먹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대의 결과가 빚어졌다. 그에 정신을 차린 미국의 전쟁도발자들은 세계 자본주의군대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것을 벌리였다. 이때에도 잭슨은 조선인민군이 중과부적으로 인차 소멸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맥아더는 늦어도 감은절전으로 조선전쟁을 깨끗이 종결짓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런데 맥아더의 그 전쟁시간표도 틀려나갈것 같았다. 맥아더의 고민과 불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사람도 잭슨이었다.

맥아더의 시간표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미국이 이겨야 했다.

잭슨이 박이량에게 말하였다.

《미국이 없으면 당신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정치는 기만의 예술이며 따라서 정치의 연장인 전쟁도 기만과 교활성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겨야 하는것이 전쟁이고 정치이기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네들이 하는 정탐과 적국에서의 파괴암해공작은 그 수단의 하나요.

당신들은 우리 정보국의 책략을 실현하는 돌격대원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책략에 초점을 맞추어 보람있게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평양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로출됐습니다. 제 얼굴은 북조선반탐기관의 사진카드에 올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이량은 낮빛이 거뭇하게 질려가지고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었다.

《일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박이량이 아니라 신동식으로 될것입니다. 유명한 정형외과박사의 정형수술을 받게 됩니다.》

박이량은 저도 모르게 전율을 일으켰다. 자기의 얼굴이 수술칼에 란도질을 당할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해지는것이였다.

《수술후에 신동식으로 되어 서울을 거쳐 곧 평양으로 들어가 박헌영의 부하가 되여야 합니다.》

《북조선의 박헌영외무상 말입니까?》

경악한 박이량의 눈은 사발처럼 되였다.

《서울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중국의 넓고넓은 땅, 씨비리의 광활한 대지가 알라스카의 백설과 입맞출 날을 위하여 미국의 리익을 수호하는 제1선사병이라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공산붉은마귀를 쓸어버리는 성전에서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목표가 북조선의 병기공장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기까지 말한 잭슨은 화면을 끄고 심중히 말을 이었다.

《이량씨, 지난 시기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대간첩정보정책은 성경책에 의거하는 교회였습니다. 20세기 중엽에 들어선 오늘 북조선에서의 미국의 교회정책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잭슨은 잠간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였다.

《미국의 성경정책은 이미 북조선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던 평양 장대현교회작전이 이미 실패했을뿐아니라 교인들이 거의 공산정책에 흡수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실례가 평양 장대현교회에 있다가 성천으로 간 서성덕목사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던 그는 예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판유다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말을 멈추었던 잭슨이 목청을 돋구어 장검을 들고 서성덕을 내리치듯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이랑씨, 오늘의 미국 대북첩보활동에서 기본은 폭력입니다. 간부살해, 생산지와 도로, 교량에 대한 파괴, 방화, 소각, 거기에서 첫 대상이 병기공장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암입니다. 미국이 100여년전부터 실시한 대조선정책은 아직도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한채 미혹세계에 빠져있습니다. **김일성**장군의 자력갱생의 산물인 병기공장을 하루빨리 하늘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떠나가기 전에 당신은 며칠 쉬면서 워싱턴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바다기슭에 나가 즐거운 휴식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합시다.》

잭슨은 탁상의 단추를 누르고 일어섰다.

영사기의 불빛이 꺼지고 영사막도 거두어졌다.

박이량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잭슨의 뒤를 따랐다.

정형수술을 마친 후 신동식이 된 박이량은 금발머리 아름다운 처녀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어느날 뉴욕에 가서 자유의 녀신상도 보고 어느 초고층건물에 올라가

뉴욕시내를 부감도 해보았으며 프리스미술박물관에 들러 이름있는 서양화가들이 그린 그림감상도 하였다.

다음날 오후에는 잭슨의 별장이 있는 대서양기슭 바다가에서 주인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어 룡승한 대접을 받았다.

미국을 떠나기에 앞서 잭슨은 박이량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다.

《당신은 북조선에 가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며 사법성 국장이라는 높은 직위를 얻게 됩니다, 북조선의 박헌영, 리승엽이들이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것입니다. 우리는 북조선에 병기공장이 창설될 때부터 거기에 첩자들을 침투시켰지만 모두 맥을 추지 못하고 죽거나 도망쳐왔습니다. 이제 유능한 첩자를 새로 박아넣어야겠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지휘해야 합니다.》

잭슨은 일본의 이름있는 대학 법학부 수석졸업생으로서 일정한 첩보경험도 가지고있는 박이량을 미중앙정보국에서도 몇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북조선의 최고위참복간첩과 줄을 쥐고 활동하도록 결단을 내린것이다.

그로부터 한달후 평양에 계획대로 침투한 신동식(박이량)은 공화국사법성에서 국장의 직분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신동식의 평양에서의 기본목표는 잭슨이 지령한 군자리병기공장이였다.

그는 이미전에 도봉숙이라는 이름으로 북조선에 침투한 로련한 녀첩자와 련계를 맺고 파괴암해책동을 조종하였다. 평천리병기공장에서 발생한 살인방화사건, 평천리병기공장의 군자리이설, 군자리에서 수풍에로의 소개, 이 전과정을 신동식은 도봉숙이를 통하여 손금처럼 알게 되였다. 박헌영, 리승엽의 우산을 쓴 신동식은 강계로

소개해간 중앙기관대렬속에 쉽게 끼여들수 있었으며 사법성 국장이라는 든든한 자리에 앉아 병기공장대렬을 와해분렬시키기 위한 암해책동을 즉시에 벌릴수 있었다.

이자가 선택한 첫 타격목표는 서울태생인 박홍근, 림민희였다.

2

금천강기슭의 이름없는 둔덕에서 기진이를 차디찬 땅속에 묻어야 했던 그 가슴아픈 밤이 있는 다음날 지응모네 결사대원들의 앞길에는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순천에 투하된 미제침략군 항공륙전대놈들이 순천일대의 도로를 모조리 장악하고 북행길을 차단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지응모네는 큰길을 버리고 산길을 따라 행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안주지구에 이르러 빨찌산부대를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대원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그 부근의 지세를 잘 아는 리병혁을 붙여 림민희를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위생가방을 메고 떠난 민희는 어느 한 산중에서 중상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생가방을 헤치고 부상자를 한창 처치하고있을 때 순천지구에 들어온 미군의 한 순찰대놈들과 불의에 조우하게 되었다. 이때 병혁이는 놈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적들의 선견대를 꼬리에 달고 산릉선으로 치달아올랐다. 그러나 치료에 여념이 없던 민희는 손쓸새없이 놈들의 후위대와 맞다들어 유격대원들과 함께 총격전을 벌리게

되었다. 그러나 잘 무장되고 수적으로도 우세한 미군수색대를 당해낼수 없었다. 결국 빨찌산들은 거의다 희생되고 몇명 남은 사람들은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민희도 총격전을 벌리던중 의식을 잃은채 체포되었다. 그는 어느 목조건물의 자그마한 방안 침대우에서 의식을 회복하였다. 알고보니 그 방은 미군전선지휘부에서 민희를 심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방이었다. 그가 의식을 차리자 방안에서 서성거리던 미군장교복우에 흰 위생복을 입은 군의인듯 한 외국인이 두팔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역시 미군장교복차림의 사나이가 방안으로 들어와 민희의 침대곁으로 다가왔다.

민희는 살아돌아갈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한채 눈을 감고있었다. 가까이 다가선 미군장교도 웬일인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문득 《민희야!》 하고 불렀다. 떨리며 울려나오는 그 정다운 부름에 민희는 놀라며 눈을 떴다. 미군장교복을 입은 그 사람은 동양인이였다. 처음 민희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다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침대우에 벌떡 일어나앉았다.

미국제군화에 미군장교복을 입은 그 사람은 지나간 어린시절에 것처럼 자기를 사랑해준 친오빠 민정이가 아닌가. 참으로 극적인 상봉이였다.

《민희야, 나다, 오빠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빠!》

민희는 본능적으로 침대우에서 뛰쳐일어났다. 민정은 민희를 꼭 그러안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결치는 동생의 어깨며 등을 어루만지었다. 정다운 오누이는 격렬한 포옹을 한채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지 못했다.

《오빠,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민희는 한참만에야 흐느끼면서 오빠의 미군장교복을 훑어보았다. 일체 이데올로기적인것과는 담을 쌓고 순수 그림만을 그리겠다고 하던 오빠가 군복을 입은것이, 그것도 미군장교복을 입고있는것이 현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군대는 정치, 정권과 직접 연결되어있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민희야, 인간의 의지나 지향에는 관계없이 자기대로 흘러가는게 인간의 운명이로구나. 나는 미군전선사령부에서 통역관을 하고있다. 숙명이란 어쩔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고싶어 하는 일은 아니다.》

여러 나라 말을 알고있는 민정은 《유엔군》을 지휘하고있는 미군전선사령부의 통역관으로서는 사실 적임자였다.

《그새 오빠의 모색이 꽤 변했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희는 때이르게 오빠의 이마에 지어진 주름살에 눈을 주며 또다시 울어버릴듯 어깨를 떨었다.

《내 모색이 달라질수밖에... 벌써 몇년이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와 홍근의 이야기를 하며 늘 우시였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시간이 없으니 네 얘기부터 들어보자. 넌 도대체 어떻게 되어 미군수색대와 맞다들렸느냐?》

민정은 여전히 물기에 젖은 눈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녀동생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민희 역시 그 사연을 한마디로 대답할수 없었다.

《빨리 말해라. 너는 일단 우리한테 체포된 몸이니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너와 함께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총살되었다. 전쟁이란 이런것이다. 선량한 사람도
야수로 만든다.》

순간 민희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였다. 적들을 유인하느라 총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달려간 리병혁의 생사여부를 알수 없었다.

(용접공아바이도 체포되어 총살당했을까?)

《미국놈들이 우리 사람들을 모두 총살했는데 왜 나는 죽이지 않고 이렇게 치료까지
해주며 살려두어요?》

한순간 해쓱해졌던 민희의 얼굴은 참을수 없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민희는 크게
상처를 입은것은 없었다. 놈들과 총격전을 벌리는 과정에 유격대부상자가 참혹하게
희생되는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혼절하여 쓰러졌던것이다.

《민희야, 지금은 여기에 우리 둘밖에 없으니 아무 말을 해도 되지만
미국사람들앞에서 그러면 큰일난다. 죽는다.》

《난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째서 우리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만은 살려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빠가 누이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절한게
아니예요?》

민희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방바닥을 차며 일어섰다.

《민희야, 진정해라.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널 처음 보았을 때 저승의 지옥에 들어선것처럼 여간 놀라지 않았지만 네가 누이동생이란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다. 미국사람들이 너를 특별히 살려둔것은 이것 때문이다.》

민정은 뚜껑의 모서리들이 닳아버린 푸른 색깔의 수첩을 내놓았다. 그것은 민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다니는 수첩이었다. 사람들의 상용수첩들이 대체로 다 그러한것처럼 민희의 그 수첩에도 별의별것들이 다 적혀있었다. 지어 유럽의 작가와 학자들의 명언을 영어로 적은것들도 있었다. 민희의 품속에서 이 수첩을 발견한 놈들은 그를 심문해볼 가치가 있는 녀자라고 생각하고 사령부통역관인 민정을 불러왔던것이다.

《민희야, 늙으신 부모님들과 이 오빠를 위해서라도 넌 살아야 한다.

나는 너를 살려낼수 있다.》

《부모님들은 이 딸이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는것보다 용감하게 죽는것을 더 장하게 여길거예요. 난 이제 오빠한테 북에 들어와 얼마나 보람있게 살았는가를 다 말해주고 땃땃이 사형장으로 나가겠어요. 오빠는 내가 어떻게 죽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전해주세요.》

《너는 어찌면 그리도 모진 말을 하느냐.》

민정의 목소리는 오열하듯 떨리었다.

《모질다고만 생각지 마세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시 침대에 걸터앉은 민희는 1946년 5월 밀선을 타고 북으로 들어온 이후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 홍근이를 만나게 된 경위이며 홍근이와 지응모의 주선으로 병기공장 병원의사로 입직하게 된 일이며 1948년 8월 **김일성**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은 후 조선로동당에 입당한것이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후 이야기들과 군자리에서 수풍으로 들어가다가 미군수색대와 조우하게 된 경위를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였다.

민희의 이야기는 민정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희가 흐느껴울면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민정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하느님같은분이지구나.》 하고 몇번이고 입속으로 뇌이였다.

민정은 그제야 오늘의 누이동생은 그전날의 누이동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민희의 정신세계를 리해할수 있었다. 4년이란 세월이 내 누이동생을 이렇게도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지난날의 일을 돌이켜보나 오늘의 민희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민정은 홍근이와 민희가 부모님들의 뜻대로 바른길을 걷고있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도 험난한것이였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조선의 정치가 옳다고 생각된다. 틀림없이 북조선은 정의의 전쟁을 하고 미군은 부정의의 전쟁을 하고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정의는 무효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전쟁의 승리는 미군에게 있다는데 비극이 있다.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내줄테니 쓸데없는 고집을 쓰지 말아라.》

민정은 사정하듯이 말하였으나 민희의 마음이 돌아설수 없었다.

《누가 승리하는가는 두고보아야 해요. 나는 굳게 믿어요, 우리가 승리한다는걸 ...》

《너는 왜 끔찍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 래일모레면 미군이 압록강에 가닿게 돼. 맥아더장군이 며칠전에 여기로 와서 승리의 선언을 하고 갔다. 원자탄을 가지고있는 미국을, 그것도 15개나 되는 술한 나라를 데리고 싸우는 미국을 조그마한 북조선이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

민정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민희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힘이 없는 정의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있는 정의예요. 원자탄에 대해선 코웃음을 쳐요. 오빠 내 말을 믿어야 해요. 미국은 종이범이예요.》

오누이는 오래동안 론쟁을 하였으나 아귀를 지을수 없었다.

《넌 정말 모질다. 미쳤구나. 죽겠으면 죽고 나도 모르겠다, 매정한 년!》

드디어 민정은 격노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왁살스럽게 나들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민희는 침대에 어푸러져 오래도록 흐느껴울었다. 차라리 여기서 오빠를 만나지 않았던들 마음편히 죽을수 있었다.

깊은 밤, 긴 그림자를 이끌며 웬 사람이 소리없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민희야, 빨리 나가거라. 지금 보초병이 바닥에 주저앉아 자고있다. 모든걸 운명에 맡긴다. 이 집뒤로 사과밭이 있는데 거기로 빠져라. 아, 내 동생 민희야... 잘 가거라!》

처절하게 울부짖는 사람은 민정이였다.

열려진 나들문으로 달빛이 스며들고있었다.

《오빠-》

민희는 오열을 터뜨리며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헤어졌다.

제 4 장

1

김일성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휘몰아치는 서북풍을 맞받아 밋밋한 언덕길을 치닫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전쟁 제2계단작전을 지휘하며 멀고 험한 수백리길을 종횡으로 밟아 압록강 가까운 자강도 내륙지구에 이르신것이다. 계절로 보면 아직 상강과 립동사이의 마가을철이지만 여기 북부내륙에는 서북풍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벌써 엄혹한 겨울의 추위를 예고하고있었다. 해발 2천메터가 넘는 메부리들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있다.

우리 나라의 산지체계의 기본골간을 이루는 백두대산줄기와 연결된 랑림산줄기와 묘향산줄기, 적유령산줄기 등 많은 산줄기들이 뻗어있는 자강도의 험준한 산발들에는 해발 2천메터가 넘는 와갈봉을 비롯한 높은 산들이 줄지어 솟아있고 오가산령, 가릉령, 황수령을 비롯한 해발 천메터이상의 수많은 령들이 무성한 산림지구를 형성하였으며 오수덕과 같은 수천정보의 현무암대지가 펼쳐져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지도를 보고계시었다. 평양에서부터 전쟁 제2계단의 작전을 지휘하며 여기까지 행군해오시는 동안 새 작전의 구상을 이미 무르익히신 그이의 작전지도에는 반격의 화살표들이 짙짙 그어져있었다.

얼마전에 순천에 날아와서 이른바 승리의 선언을 발표하고 돌아간 맥아더는 지금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공화국북반부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고용군대를 미친듯이 내몰고있지만 청천강 이북지역에서의 아군의 강력한 반타격과 전선동부에서의 완강한 방어로 적들은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었다. 서부에 침입한 적의 주력집단인 미8군과 동부에 침입한 보조타격집단인 미10군단 그리고 괴뢰1군단 부대들사이에는 계속 협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전선서부집단과 동부집단사이에는 큰 틈이 생기였다. 더구나 적들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아군부대들의 반격을 받자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들을 마음대로 이동시킬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의 적후투쟁부대들과 인민유격대들의 불의적인 드세찬 기습이 계속되어 후방보급로도 차단되고있었다.

전쟁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었다. 그렇다고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였다. 적들이 곤경에 처해 허우적거리며 뒤걸음질을 하고있지만 결코 공격기도를 버린것은 아니였다. 적들은 예비대를 진출시켜 력량을 보존한 다음 다시 공격으로 이전할수 있었다. 그때문에 우리는 반공격준비를 빨리 끝내고 남으로 진격해나가야 하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를 지도하러 가시는 길이였다. 전쟁 제3계단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 회의는 래일 10월 30일에 있게 된다.

승용차는 어느덧 언덕마루에 올라섰다. 거기서 차를 멈추게 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지형도 몇장을 손에 들고 나오시였다.

언덕아래 멀리 강의 희벗한 물줄기가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산굽이를 돌아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강건너편 서북쪽산악을 한동안 유심히 지켜보시던 그이께서 지형도의 어느 한 지점에 색연필로 《口》 표식을 진하게 새겨넣으시였다. 그이의 군사지형도들중에는 반격의 화살표가 그어진것도 있고 이처럼 《口》, 《×》, 《△》 등 각이한 형태의 부호를 표식한것들도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각종 병기공장들이 들어앉게 될 자리였다.

이때 사민복차림을 한 두 젊은이가 소달구지를 몰고 언덕길을 올라오고있었다. 그쪽은 어지간히 물매가 급해서 연방 이랴, 이랴 하며 황소엉덩이에 채찍을 안기였다. 달구지가 언덕마루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야 **김일성**동지를 알아뵈은 달구지군들은 놀라며 한자리에 굳어졌다. 그 서슬에 짐을 가득 실은 달구지가 뒤로 미끄러져내려갈듯이 몇바퀴 후진하였다.

《동무, 달구지가 내리굴겠소,》

그이께서 급히 아래로 내려가 뒤에서 달구지를 밀어주시였다. 달구지군들은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리며 황소엉덩이에 회초리를 안기였다. 달구지가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두 달구지군은 **김일성**동지께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장군님!...》

그들은 혀가 굳어진것처럼 인사말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한사람은 스물대여섯 나보이고 또 한사람은 이제 스무살도 안돼보이는 애어린 청년이였다.

《가만있자, 이 동문 내가 병기공장에서 본 청년같다. 병기공장동무들이 아니요?》

김일성동지께서 인사를 올리는 달구지군들중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청년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기계수리공 최성준입니다.》

《최성준? 글쎄 병기공장에서 여러번 본 동무요... 그런데 무슨 짐들을 이렇게 싣고가요?》

그이께서 달구지짐을 가리키며 최성준에게 물으시었다.

《수류탄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얻어가지고 수풍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소? 수고합니다. 그러지 않아 동무들을 만나보고싶었는데 저기 바위등에 앉아 수풍소식을 좀 들어봅시다. 정일룡부상을 통해 듣긴 했지만 체험자들의 이야기가 더 생동하겠지.》

그이께서는 마치 길손들의 다리힘을 위해 가져다놓은듯 한 너럭바위를 가리키시었다.

《자, 여기 앉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병기공장로동자들을 량옆에 앉히시고 그들이 입은 옷을 만져보시었다. 그들은 군자리를 떠날 때 입었던 여름옷을 아직까지 입고있었다.

《날이 추워지는데 아직 홑옷을 입고있구만.》

그이께서 안색을 흐리며 왼편에 앉은 애어린 청년의 잔등을 어루만지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자리병기공장 종업원들이 수풍에 도착하면 즉시에 솜옷을 입히고 잠자리도 마련해놓도록 산업성 병기국에 과업을 주시였으나 고정환은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었다. 그가 연락군관에게 정주에 보관되어있는 솜옷, 담요, 탄약 등속을

목적지에 가져다놓았다고 한것은 실태를 확인해보지 않고 미제의 고용간첩 방가놈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옮긴것이였다. 그도 역시 후방총국장처럼 아래단위에 지시를 떨어졌을뿐이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병기공장 경리부에 잠입한 간첩놈에게 지시를 내리떨구고 돌아보지도 않았으니 그 귀중한 물건들이 몽땅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였다. 신통히도 후방총국장과 같은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하여 군자리에서부터 수백리강행군을 하여 수풍에 도착한 병기공장사람들은 거처할만 한 방 한칸 온전한것이 없는 바람세찬 압록강반에 짐을 풀어놓고 홀웃바람으로 일을 하게 되였다.

며칠전 그이께서는 산업성부상 정일룡을 만나시여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생활을 료해하고 격분을 참지 못하시였다.

《틀려먹은 사람들이야!》

그이께서는 홀웃을 입은 어린 청년의 잔등을 감싸안으며 조용히 그러나 격한 어조로 뇌이시였다.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언덕마루를 휩쓸고 지나갔다.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무책임한 간부들때문에 수류탄을 만들수 있는 초보적인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빈터에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수류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자면 용선로가 있어야 했다. 병기공장로동자들이 배낭에 지고온 간단한 공구나 재료를 가지고는 하루에 수류탄을 몇개밖에 만들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류탄을 만들수 있는 초보적인 조건이라도 지어주라고 대형화물자동차 두대를 보내주셨는데 이 과업을 받은 고정환은 병기공장지도원

방가눔으로부터 병기설비들을 다 실어보냈다는 말을 끝이듣고 자동차에 다른 물건들을 실어보냈다.

한편 지배인 리환구는 성전권대표로 수풍에 파견된 한성룡에게 이런 형편에서는 수류탄을 생산할수 없다고 우는소리만을 하였다.

한성룡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방도를 토론해보자고 제기하였으나 지배인은 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직 수풍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군중토의는 그들이 다 온 다음에 하자고 하고는 먼저 고정한국장과 토론해보아야겠다면서 성간부들이 가있는 강계쪽으로 가버렸다. 그가 말은 그렇게 하고 갔지만 실은 집 한채 변변한것이 없는 압록강반의 거친 바람을 맞기가 싫어서 자리를 피한것이였다. 그는 강계로 가면서 노동자들앞에서 공개적으로 여기서 수류탄을 어떻게 만들라는건가, 보이는건 시퍼런 물뿐이요, 들리는건 넘어오는 동북땅의 세찬 바람소리뿐이 아닌가고 꾸밈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성룡이 지배인을 대신하여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수류탄생산을 위한 군중토의를 벌리였다.

그때 류일룡이 일어나서 군자리에서 20명 결사대원들은 전기도 없고 식량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짧은 기일에 75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하여 평양방어사령부에 넘겨주었다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투쟁한다면 왜 수류탄을 못 만들겠는가고 하였다. 아직 지응모네 결사대원들이 수풍에 도착하지 못한 때였으나 최고사령부에서 그들의 투쟁을 통보하였기때문에 병기공장사람들은 다 알고있었다.

류일룡의 선동연설에서 힘을 얻은 한성룡은 그 자리에서 용선로는 주물직장에서 자체로 해결하고 생산건물건설은 건설직장에서 책임지라! 그리고 기계설비구입은

포탄직장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자체로 수류탄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하였다. 그무렵에 마침 사동탄광로동자들과 강원도 문천군 룡포리 로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수류탄생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수풍에 찾아와 병기공장로동자들의 기세가 더욱 앙양되게 되었다. 수풍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가족들까지 떨쳐나섰다...

이것도 며칠전 **김일성**동지께서 정일룡부상한데서 들으신 이야기였다. 정일룡은 고정환의 건의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보았는데 병기공장이 무정부화되고있다는것, 가족주의적요소가 나타나고있다는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반영이라고 하였다.

당위원장과 지배인의 호홉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기본원인은 지배인때문이라고 하였다. 그가 무슨 일에서나 몸을 내대지 않으니 두사람사이에 자주 언쟁이 벌어진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정일룡의 이야기를 상기하고 최성준에게 물으시였다.

《동무들이 수풍에 와서 고생을 한데는데 앓는 동무들은 없소?》

《없습니다. 모두 기세충천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기세충천하다? 수류탄생산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있소?》

최성준은 주물직장로동자들이 신의주에까지 나가 용선로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해다가 벌써 용선로를 세우고 수류탄주형틀도 여러개 만들었다고 말씀올렸다. 선철을 녹여 수류탄을 생산한다는것을 알게 된 주변농촌마을 농민들이 저마다 파철을 달구지에 싣고와서 이제 며칠후부터는 수류탄을 대량생산할수 있게 되었다는것이다.

《우리 동무들이 룡천기계공장에서 용선로설비를 가져왔는데 글썽 룡천목사인 지응모기사의 아버지까지 수풍에서 수류탄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교인들을 시켜 쇠붙이들을 많이 실어보냈는지 않습니까. 그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해가 서쪽에서 뜬것만큼이나 놀랐습니다, 허허허.》

최성준은 어느새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웃으며 떠들어댔다.

《룡천목사가 쇠붙이를 보냈단 말이지?》

그이께서는 저으기 놀라며 기뻐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친서를 읽고 목사의 마음이 일변된 사실을 병기공장로동자들은 알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자신의 친서 한통이 목사의 마음을 이처럼 빨리 움직일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편지를 쓰다보니 글을 쓸수도 없으시였다. 다만 편지에서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오늘까지 후손들의 존경을 받고있는것은 임진왜란때 승병을 일으켜 손에 총검을 들고 싸웠기때문이라는것을 강조하시였을뿐이였다. 그리고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장군들이 대대로 이 나라 후손들의 칭송을 받고있는것도 병기를 들고 이 나라를 지켜준 명장들이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군비행기들이 북조선에 있는 례배당들을 거의다 폭격하여 마사버린 사실도 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몇줄의 글이 목사의 마음을 돌려세웠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으시였다. 어쨌든 지응모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섰다니 더없이 기쁘시였다.

《룡천목사가 쇠붙이를 보냈단 말이지?》 하고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뇌이시고 지응모네 결사대원들이 아직도 수풍에 도착하지 못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장군님, 왔습니다. 그들이 수풍에 도착한것을 보고 저희들은 여기로 떠나왔습니다.
현무광당위원장동지도 왔습니다.》

《그렇소? 20명이 다 무사히 도착했소?》

《...》

최성준은 정중히 일어섰다. 그러나 몸을 떨며 대답을 못 올리였다. 희생된 장기진,
실종된 럽민희, 오지 못한 그 두사람의 비통한 소식을 어떻게 말씀드릴수 있겠는가.

《왜 말을 못하나?》

그이께서는 갑자기 성준의 거동에서 벌써 불길한 예감을 받으시였다.

《장군님!... 두명이... 못 왔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두명이?... 왜 못 왔소?》

그이께서 놀라며 급히 물으시였으나 성준은 더 깊이 머리를 수그리였다.

《누가 못 왔소? 왜 못 왔소?》

그이께서 재차 물으시여 성준은 그이상 침묵을 지킬수 없었다.

먼저 말씀드린것은 장기진의 희생이였다. 짧게 할수 없는 이야기였다. 최성준은
도간도간 흐느낌이 터져나와 이야기의 두서를 헛갈리기도 하였다. 이름도 모를 숲속에
열여덟살 꿈많은 청년을 묻고 추도사대신에 김정길이 쏘련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의 한 대목을 읽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터지는 오열때문에 종시 끝을
맺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위들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장자강건너편의 첩첩한 산발들을 추연히 바라보시였다. 저 산발너머 낮은 이국의 광야와 숲속에 널 한장 깔아주지 못하고 묻은 전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해방후 오늘까지 그이께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하여 세상을 다 뒤지게 하시였다. 아직도 행방을 모르는 렬사들이 수없이 많다. 나라를 지키는 오늘의 싸움에서 또다시 그런 가슴아픈 일들이 반복된단 말인가.

불타는 락동강물속에, 수많은 조국의 산과 들에 이름없이 묻힌 애국렬사들이 얼마나 많을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을수 없는 상실의 아픔에 진정을 못하고 너럭바위주변을 거니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참만에 물으시였다.

《녀의사는 어떻게 되어 실종되었소?》

최성준은 렬민회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할수 없었다.

행군도중 렬민회는 안주지구빨찌산부대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하기 위해 리병혁을 데리고갔는데 불의에 미군수색대와 맞다들려 병혁이가 적들을 유인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살아돌아오고 렬민회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것이였다.

《후에 우리 동무들이 미군수색대와 맞다들렀던 곳에 가서 주변을 아무리 뒤졌어도 녀의사선생을 찾을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가 막혀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렬민회로 말하면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쳐온 녀의사인것으로 하여 그이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져있었다. 장기진청년은 비록

만나신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듣고나시니 티없이 깨끗한 청년의 모습이 그림처럼 선명히 떠오르시였다.

나라를 찾는 길에 못지 않게 나라를 지키는 길에서도 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이의 가슴은 아프기 그지없으시였다.

《또 두사람을 잃었구만... 너의사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이께서는 긴숨을 내쉬며 먼 하늘가를 침통히 바라보시였다.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전쟁이 아닙니까.》

최성준이 그이를 우러르며 간절히 아뢰었다.

《그래, 전쟁이지... 그러나 그들은 원쑤 백놈, 천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동무들이요.》

그이의 갈리신 음성을 들으며 최성준은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고 어린 청년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의 울음이 진정되었을 때 천천히 너럭바위앞으로 걸어오시였다.

《울기만 해선 안돼. 슬픔을 이겨내고 싸워야 해.》

그이께서는 어린 청년의 어깨를 다독이시고 최성준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750정의 기관단총을 만들고 돌아온 동무들의 건강은 어떻소? 알고보니 우리련락군관이 군자리에 갔을 때 그 동무들이 간첩놈때문에 전기고생을 한다는 말은 했지만 식량고생을 하는데 대해선 숨기였소. 아마 내가 걱정할가봐 그랬던것 같소. 그러니 그 동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소.》

김일성동지의 안광에서 물기가 번쩍이었다.

《장군님, 그러나 그 동무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그들이 온 다음부터 수풍전투장의 분위기가 짝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따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입니다. 지응모책임기사동무는 그에 대한 대답은 750정의 기관단총을 만든 자기네들의 전투과정이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아예 판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겁나는게 없다는겁니다.》

바위주변을 천천히 거니시던 김일성동지께서 우뚝 멈춰서시였다. 어려움도 잊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던 최성준이도 문득 입을 다물었다.

그이께서는 두 젊은이를 뜨겁게 바라보시였다.

그렇다. 바로 짧은 기간의 전투에서 20명 결사대원들이 강철의 인간으로 자라난 그것이 750정의 기관단총보다 더 귀중한 소득이었다.

《최성준동무, 그것이 귀중해! 그게 큰 소득이요.》

힘있게 하시는 그이의 교시의 깊은 뜻을 최성준이 아직은 다 알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성준의 손을 굳게 잡으시였다.

《최성준동무, 병기공장동무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시요. 우리 인민군대는 이제 곧 반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수류탄이 제일 요구됩니다. 동무들에게 솜옷을 보내도록 대책을 취하겠소. 자, 이젠 헤어집시다.》

《장군님-》

최성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장군님께 작별인사를 올리였다.

《성준이!》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그마한 격차도 두지 않고 젊은 두 로동자를 허물없는 다정한 친우처럼 꼭 그러안으시였다.

이튿날 10월 30일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규율이 없는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쌀, 솜옷, 담요, 탄약들을 안전지대에 가져다 보관할데 대한 군사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후방총국장과 병기생산국장을 엄격히 비판하시였다.

2

깊은 밤에 수풍에 도착한 최성준은 달구지를 세워놓고 압록강기슭의 산자락으로 달려갔다. 파란 잔솔들이 다문다문 앉아있는 산자락에 대충 바람갈망이나 할수 있게 지어놓은 기다란 판자집이 있었다. 그것이 당위원회 현장사무실이였다. 거기서부터 얼마간 떨어진 곳에 시커먼 물체가 달빛에 몸체를 번쩍거리며 서있었다. 용선로였다. 그뒤로는 좁은 골짜기가 깎아지른 산을 양옆에 끼고 깊숙이 꿰어들어갔는데 골땡어구에 통나무들이 무져있었다. 압록강쪽에서 세찬 바람이 아츠러운 휘파람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최성준은 판자집앞에서 우뚝 멎어섰다. 안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음빛새벽하늘 남쪽으로 은하수가 기울어진것으로 미루어 새벽 세네시쯤 되였을상싶었다.

《용선로를 건설하느라 이번에 연아바이가 정말 수골 많이 했습니다. 그래 언제면 출선할수 있겠습니까?》

딱 쉬어버린 현무광당위원장의 목소리였다. 그의 쉼 목소리를 들으니 최성준은 눈곱이 찌릿해졌다. 지난 행군기간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그는 만삭이 되어 함박골에 떨어어놓고온 최성준의 안해가 아들을 낳은 소식까지 알아가지고왔었다. 원래 현무광은 두호부녀를 찾으러 함박골에 되짚어갔었했는데 그들 부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데려오지 못하였다.

판자집은 조용하였다. 당위원장의 질문을 받은 연아바이가 잠시 무엇인가를 심중히 생각해보는것 같았다.

연아바이란 지난 여름에 희생된 김만수연공작업반장보다도 두살이나 우인 공장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주물작업반장이었다. 50을 훨씬 넘긴 몸에 용선로를 세울 자재를 구하느라 신의주와 룡천을 비롯하여 북부 압록강지구 기계공장들을 찾아다녔었다. 지응모기사의 아버지가 교인들을 시켜 파철을 실어보냈다는 그 기이한 소식도 연아바이가 가지고온것이였다.

《용선로바람통을 손질하면 곧 출선을 할수 있수다. 모레 아침부터 해보겠수다.》

연아바이의 목소리였다. 감기에 걸렸는지 쿨렁쿨렁 기침을 짓었다.

《모레 아침부터요?》

당위원장의 목소리는 사뭇 애바른 목소리였다. 수류탄제작의 첫 공정은 용선로이기때문이였다.

용선로에서 출선한 쇠물을 주형틀에 부어 수류탄본체를 만드는데 로체우에는 알탄, 용제, 금속파위의 장입물을 넣는 장입구가 있고 밑에는 공기를 불어넣는 바람통과 쇠물을 내보내는 출선구가 있다. 그런데 그 바람통이 말뚝을 일으켜 지금까지 출선을 못하고있었다.

《모레 아침엔 어떻게 하나 출선을 해야 하겠습니까. 선발대가 수풍에 도착한지도 10여일이나 되는데… 이거 간이 바작바작 마릅니다. 장군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것은 수류탄이 제일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수류탄을 대량생산한다는 보고만 들으시면 장군님께서 즉시 반공격명령을 내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위원장동지, 모레 아침엔 꼭 출선을 하겠습니까.》

연아바이의 굵고 석범한 목소리가 비장하게 울리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최성준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런데 용선로에 먹일 파철이 문제요. 용선로가 쇠물을 뽑기 시작하면 파철을 미처 대낼것 같지 못해.… 걸린게 한두가지가 아니니…》

지배인 리환구의 한숨소리였다.

《파철은 제가 해결해보겠습니다. 룡천기계공장걸 당겨오겠습니다. 수류탄때문이라면 그 동무들이 모른다고 안할겁니다. 용선로설비도 그들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지응모기사의 목소리.

《하긴 지목사님의 마음이 돌아섰다니 룡천기계공장교섭은 응모기사에게 맡기면 되겠소. 그런데 더 가고싶은 곳은 룡천보다 선천이겠는데… 거기엔 선천목사님딸이

있지 않소. 건우직녀도 일년에 한번씩은 오작교에서 만났다는데 우리 기사는 이태나 만나지 못했다니 이런 가공한 일이 어디 있소, 허허허.》

누구인가 반롱조로 하는 말에 웃음기가 떠올랐다.

《전쟁통에 선천목사님도 미국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을거요. <하느님의 나라>가 조선레배당들을 폭격해버렸으니 말이요. 참, 이번에 오면서 선천에 들려볼게지.》

부지배인의 목소리.

《기사동진 선천에 들릴새도 없었거니와 선천은 이미 적강점지역으로 됐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유락종의 목소리.

《자, 조용들 하오.··· 파철도 파철이지만 폭약이 걸리지 않소? 우리가 배낭에 몇집 지고온 폭약으로야 어림도 없지. 난사는 난사로군, 으흠...》 하고 말하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짜증에 가까웠다.

《폭약은 걱정마십시오.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박홍근기사였다. 녀의사가 행방불명이 되어 한껏 울적해진 그였으나 병기생산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있었다.

최성준은 그제야 《아니, 내가 왜 멍청히 서있나? 장군님을 만나뵈온 소식을 전하지 않고.》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쳐서 급히 판자집나들문을 두드리었다.

최성준의 급작스러운 출현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당위원장동지! 글썄 제가...》

최성준은 무작정 뛰어들었으나 원래 언변이 좋지 못한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동무, 무슨 일이에요? 이 밤중에...》

현무광은 둥그레진 눈으로 최성준을 치며보았다.

《글쎄... 장군님께서 이 최성준의 몸을 꼭 그리안아주셨단 말이웨다. 예, 제가 장군님을 만나뵈웠어요.》

《뭘, 장군님을?...》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극도의 흥분으로 하여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데 대한 최성준의 이야기는 전혀 두서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최성준을 따듯이 애무해주신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환히 그려볼수 있었다.

《장군님께서저는 저의 이 옷을 몇번이나 끌어만지시면서 날씨가 찬데 아직도 여름옷을 입고있으니 얼마나들 춥겠는가고 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솜옷을 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구 장기진이가 희생되구 려민회의사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구는 어찌나 상심해하시는지 막 눈물이 났어요... 괜히 그 말씀을 올렸다구 후회했습니다.》

판자집안은 기침소리, 눈물 마시는 소리로 소연해졌다. 박홍근은 슯제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돌아서서 어깨를 떨었다.

문득 연아바이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울리었다.

《당위원장동지! 용선로출선을 모레가 아니라 래일 12시에 하겠쎬다. 꼭 하겠쎬다.》

그는 판자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당장 주물공들을 깨워일कु어 용선로정비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연아바이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이튿날 정각 12시,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용선로의 첫 출선을 보려고 압록강반에 모이었다.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은 최성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었다.

《출선준비!》

현 밀짚모자를 빼딱하게 쓴 연아바이가 호각을 불고 소리쳤다. 그의 작업복자락은 불에 타서 너덜너덜하고 작업복 군데군데에 불구멍이 숭숭 뚫려있었다. 용선로를 정비하기 위해 악전고투한 피땀어린 노력의 과정사가 그 작업복에 적혀있었다.

쇠물바가지를 든 주물공들이 용선로앞으로 달려와 대기하였다.

첫 출선을 하는 날이여서 지응모, 박홍근, 류일룡, 유락중 등 공장의 중견기사, 기능공들이 모두 용선로곁에 서있었다.

주물공들의 작업준비상태와 모래를 다져넣은 수십개의 주형틀들을 빠른 시선으로 훑어본 연아바이는 포지휘관이 구령을 치듯이 힘차게 소리쳤다.

《출선!》

순간 출선구에서 붉은 쇠물이 불꽃을 튀기며 폭포처럼 쏟아져내렸다. 주물공들은 쇠물을 연해연방 담아들고 주형틀을 향하여 달려가고 달려왔다.

《주형틀이 다 찼소!》

주물공이 소리치자 연아바이는 새되게 호각을 불었다. 출선중지신호였다.

한 노동자가 삼을 들고 용선로출구앞으로 육박해왔다.

《야, 물러서라!》

연아바이가 삼을 들고 용선로에 달려드는 노동자를 발길로 내차고 진흙덩이를 획 내던졌다. 누런 진흙덩이가 포탄처럼 날아가 용선로출선구를 막아버렸다.

연아바이가 저쯤에 나동그라진 노동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해댔다.

《죽고싶어 그래? 그 얄팍한 삼날이 쇠물에 견뎌? 그다음엔 쇠물이 자넌 삼켜버릴걸세!》

봉변을 당한 노동자는 옷을 털고 일어서면서 시물시물 웃었다.

《내래 모르지요. 룡천기계공장에 있었지만 언제 용선로일을 해봤나요.》

《모르면서 덤벼치면 되나. 임잔 안전기술교양을 받아야겠네. 어디 다친텐 없나?》

연아바이가 룡천젊은이의 허리와 가슴통을 어루만졌다.

《아닌게아니라 뼈가 부스러지는줄 알았시여. 아바인 년세에 비해 발차기질을 참 잘합네다래. 이거 쭈악해서 견디겠시요?》

《하하하-》

작업장에 웃음판이 터졌다. 요즘 평북도, 자강도일대에서 술한 로력이 수풍으로 들어와서 생둥이들이 많았다.

《주형틀 해체!》

연아바이가 또 구령을 내렸다.

작업은 공정별로 착착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해체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똑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만세!》

로동자들이 주물된 수류탄본체를 저저마다 손에 들고 기뻐서 뽀뽀질을 하였다. 금방 주물한 제품이어서 뜨겁게 달아있었지만 그들은 손이 데는줄도 모르고 불안고 돌아갔다. 어떤 로동자는 수류탄벼락을 맞고 돼지는 미군고용병들의 흉내를 내서 통쾌한 웃음이 터졌다. 수류탄 한알에 미국놈 백놈을 잡는다고 하면서 살상된 적병수를 셈하여보는 로동자도 있었다.

《반장동무, 주형틀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소. 쇠물이 남아있단 말이요.》

한성룡이 용선로앞에 다가와 연아바이에게 하는 말이였다. 이때 리환구지배인이 곱지 않은 눈으로 한성룡을 흘겨보았다.

(저 사람이 이젠 아예 지배인행세를 할 차비로구만.)

그는 얼핏 당위원장쪽을 돌아보았다. 현무광도 방금 주물한 수류탄본체를 들고 기뻐서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지배인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당위원장동무, 나 좀 봅시다.》

리환구는 당위원장의 팔소매를 붙들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걸어갔다.

《당위원장동무, 류일룡동무문젠 어떻거겠소?》

《?...》

현무광은 느닷없는 지배인의 말에 어정쩡해져 검실한 눈을 슴벅거리며 서있었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친서를 받은 다음부터 지배인을 내세워주고 그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무진 마음을 썼다.

《조직문제를 봐야 하지 않소? 장군님의 지시인데...》

그제야 현무광은 지배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예. 나도 그 동무에게 경고책벌을 주어서 각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동무가 가족대렬을 책임적으로 인솔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군기간에 자기반성을 심각히 하고 당적수양을 쌓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굳이 조직문제를 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위원장동무, 류일룡동무의 조직문제를 보라는건 장군님의 지시가 아니요? 당위원장을 위해 내 힘든 말을 하는데 장군님께서도 당위원장이 기능공들을 너무 어루만지기만 한다고 걱정하셨다고 하오.》

리환구는 눈을 동그렇게 뜨고 무슨 변이라도 난것처럼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 말에 현무광은 기분이 언짢아졌으나 애써 좋은 낯을 지으며 부드럽게 말하였다.

《그에 대해선 나도 크게 반성하고있소. 장군님께서는 류일룡동무의 조직문제를 꼭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게 아니라 당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보고 필요하면 조직문제를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소. 그래서 나는 구체적인 실태를 다시 말씀올려 결론을 받자는거요.》

《그렇다면 류일룡동무문젠 아무쪼록 당위원장동무가 잘 처리하시오.》

리환구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권유조로 말하고는 현무광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내 언제부터 말하자고 했는데... 한성룡동무 말이요. 그 사람이 여기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것 같소. 토론도 없이 공장종업원들을 지시한단 말이요. 방금전에도 주형틀을 더 만들라는걸 보았지요? 도대체 성지도원이 무슨 큰 간부라고 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말이요. 돼먹지 않았거던.》

《지배인동무, 지도원동문 우리를 업수이 여기는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애쓰는 동무요. 주형틀을 많이 만들라는거야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요? 어떻게 하나 수류탄을 많이 만들자는건데...》

리환구는 더 말해야 쓸데없다고 생각했는지 돌아가버렸다. 현무광은 마음이 무거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번 친서에서도 당위원장은 키잡이를 하고 지배인은 노를 저어야 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셨지만 어쩐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날 현무광은 합숙건설장을 돌아보고 지배인의 일로 해서 또다시 마음을 쓰게 되었다.

합숙건설로력이 지배인의 지시에 의해 방공호작업에 동원되었기때문이었다. 지금 당장 급한것은 합숙건설이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지에 뚝막같은것을 지어놓고 숙식하고있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높은 산사이에 끼여있는 깊은 골땅에 반토굴식으로 합숙을 건설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폭격의 피해도 막을수 있었다. 그런데 합숙건설로력의 대부분을 방공호건설에 돌리었으니 리해할수가 없었다.

현무광이 합숙건설장에 온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배인이 혈떡거리며 달려왔다.

《당위원장동무, 내가 미처 말을 못했는데 합숙건설로력을 방공호건설에 좀 때돌렸소.》

《여기야 지하구조물들이 있는데 방공호를 따로 만들 필요가 뭘니까. 합숙을 건설하면 방공호대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산짐에 끼여있기때문에 폭격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말하는 방공호는 우에서 내려오는 국가간부들을 위한거요. 그분들을 노동자들과 같이 지하구조물에 들어가게 하겠소? 간부들이 와서 주무실수도 있게 방공호를 듬직하게 잘 만들자는거요.》

현무광은 그 말에 생각을 더듬으며 묵묵히 서있었다. 하긴 김책동지랑 내려오면 안전하게 숙식할 장소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몇명의 간부들을 위한 방공호는 적은 노력으로도 건설할수 있고 또 당장 급한것은 아니었다.

지배인이 얼른 말머리를 돌리었다.

《참, 그리구 주형틀이랑 용선로랑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소. 지금 있는것만두 철을 먹이기가 힘드오. 파철을 대기 힘드니 더 역사질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설비를 착실히 가동하는게 보다 합리적이요.》

《새로운 반공격을 하자면 수류탄이 수없이 요구된다는데 파철이 없어 수류탄을 대량생산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파철이야 왜 얻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지웅모기사가 파철을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계공장에 가서 비력질을 하겠다는 그게 그렇게 쉬울것 같소. 그 사람네도 말은 과제가 있소. 참 답답하오.》

지배인은 얼굴을 찌프리며 짜증을 냈다.

현무광은 바로 그것이 지배인의 결함이라고 생각했다. 무엇이든 하자고 하면 그에게선 할수 없다는 말부터 나왔다.

한성룡지도원이 여기 와서 지배인행세를 한다고 그가 고까와하지만 그것은 지배인이 못한다고 해서 할수없이 나서게 된것이였다.

지배인의 그 결함을 정면에서 강하게 비판한다면 레의 호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아니다, 비판을 해야 한다. 호흡을 맞추기 위해 적당한 비판도 삼가해야 한다는것은 일종의 타협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진정한 동지적비판이 있는 곳에 강한 단결이 있다고 하셨으니 비판을 통해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현무광은 주저없이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처럼 생각하면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세워놓은 용선로와 여기서 생산하는 수류탄은 다 지배인동무가 할수 없다던것들이지요. 지금은 또 파철걱정을 하면서 주형틀을 더 만들지 말자고 하는데 그것도 괜한 걱정입니다. 주형틀도 더 만들고 용선로도 더 세워서 수류탄을 대량생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맞추지 못했는데 호흡을 맞추시다. 우리가 호흡을 맞춰 함께 일을 내밀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리환구는 땅이 꺼지게 긴 한숨을 내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현무광에게 등을 돌려대고 물러났다.

《아, 정말 일하기가 힘들군.》

그는 현무광이 들을만큼 큰소리로 개탄하며 걸어갔다. 사실 그는 자기가 의도한것들이 매번 당위원장한테 걸려 막혀버리고 뒤집혀버리는데 화가 났다. 원칙을 놓고 따지니 꼼짝할수도 없었다. 실무능력에 있어서도 지배인은 현무광보다 훨씬 떨어졌다. 성진제강소출신인 현무광은 무기제작과 련관된 야금공업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일제시기 로조, 농조운동을 한 좌익투쟁경력으로부터 고정환을 비롯한

산업성의 요직간부들의 환심을 얻어 병기공장지배인자리에까지 올라왔게 된 리환구는 직위욕은 높았지만 병기공업을 비롯한 일반야금공업에 대한 경험이 매우 빈약하였다. 이런데로부터 그는 더부살이처럼 배경이 든든한 권력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야 한다는 자기 식의 생활관이 생기게 되었다.

리환구가 지금 듄직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방공호는 바로 고정한국장생산국장의 마음을 사기 위한것이였다. 쏘도전쟁시기 로씨야에서 도이췌란드항공대의 대폭격을 받은 때부터 고정한국장에 폭격공포증이 생겼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마침 사법성의 신동식이라는 신임국장한테서 같이 협력하여 수풍지구에 국가요인들을 위한 방공호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즉시 동의하였던것이다. 자재는 사법성에서 대줄테니 병기공장에서는 로력만을 내라고 하면서 도봉숙이라는 녀성후방일군을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필요하면 능력있는 녀성후방일군을 아예 병기공장사람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였다.

(도봉숙이란 녀자를 우리 후방경리부에 끌어와야 한다. 듣자니 그 녀자는 국가요인들을 많이 알고있고 사법성의 큰 간부와 친척간이라고 하니 그를 잘 휘동하기만 하면 로력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방공호를 잘 만들어놓으면 누구보다도 고정한국장이 좋아할것이다.)

당위원장에 대한 반발심이 생긴 리환구는 한번 본때를 보여줄 결심을 다지였다. 그는 고정한국장이 간단치 않은 인물이라는것을 이번에 더욱 잘 알게 되였다. 그것은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갖추기 위한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에서 왕별을 단 사람들이

간첩놈에게 리용당해 후방물자수송을 망쳐버린 고정환을 철직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김일성**동지께서 관대히 용서해주셨기때문이었다.

리환구는 고정한국장이 조선내각부수상 미꼬얀과도 그 무슨 인연을 가지고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고정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성간부들과 함께 자강도 강계쪽에 가있는 고정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었다.

3

11월에 접어들자 자강도 북부내륙지구는 완전히 겨울의 위세를 보이였다. 랑림산줄기와 련화산줄기를 타고 아아히 솟아있는 준봉들에서는 눈보라가 구름처럼 하늘을 가리우고 험한 산릉선사이에 함지박처럼 우묵하게 파고들어앉은 분지들에는 벌써 눈과 얼음이 덮이고있었다. 하기는 11월초는 전반적으로 겨울에 들어섰다는 뜻에서 립동철이라 부르고있으니 북부내륙지구와 같은 험한 산지에서는 한겨울처럼 추워질만도 하였다.

김책이 자강도 만포군 고산면 포상리 립성골에 찾아온 이날도 마전령의 눈바람이 휘몰아쳐와 고산면일대가 뽀얀 눈보라에 휩싸여있었다. 김책은 립성골 정승하로인의 집을 찾아왔다.

고산면주민들속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농가였지만 이 집으로는 장령으로부터 군관, 하사관에 이르기까지 각 병종의 군인들이 찾아오는것은 물론이고 사민복차림을 한 국가요인들, 작가, 예술인들, 교육, 보건일군들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 며칠사이에 정승하로인은 일약 유명한 사람으로 되었다.

김책은 10월 30일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를 진행한 이틀후 그이로부터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정계인사들의 생활편의를 돌봐줄데 대한 과업을 받고 만포읍근처의 외딴 농촌마을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다.

김책이 정승하로인네 집마당으로 들어설 때 마침 **김일성**동지께서는 토방에서 주인집 닭우리를 손질하고계시였다.

김책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굳어진듯이 서있는데 그이께서 알아보시고 《아, 김책동무! 그러지 않아 기다리던 참입니다.》 하고 옷자락에 묻은 짙검부레기들을 털며 돌아서시였다. 《로인네 닭우리가 어설퍼보여 좀 손질을 했습니다. 마침 다 끝냈습니다. 닭도 보금자리가 좋아야 하지요. 허허허.》

그이께서는 친위병이 떠드리는 대야물에 손을 씻으며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자,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이께서 계시는 방은 최고사령관의 지휘처로서는 지내 소박하였다. 그러나 이 자그마한 방에서 날아가는 화살표가 벌써 적진을 무너뜨리며 반돌격의 큰길을 열어놓고있었다.

《앉읍시다. 그래 김규식선생이랑 다 무고하시던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앉은책상에 마주앉으시며 김책에게 물으시였다.

《예, 모두 잘 있습니다. 장군님을 보좌해드리지 았구 왜 왔는가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한숨을 짓는 김책의 얼굴로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친위병이 차관과 고뿌 두개를 얹은책상에 가져다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차관을 들고 흰 고뿌에 차를 따르시였다.

《자, 뜨끈한걸 좀 드시오. 이 집 로인이 만들어준 보약차인데 맛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얼굴색이 좋지 못합니다.》

《박헌영이 남조선정계인사들한테까지 장군님께서 동북으로 후퇴해 들어가신다는 허튼소리를 했습니다. 공화국이 다 망한것처럼 말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였으나 별로 놀라지는 았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런 일도 있으리라는것을 예견하고 김책을 남조선정계인사들이 있는 곳인 별오마을로 보내셨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며칠전 강계에서 있었던 일을 새삼스레 생각해보시였다. 그날 김책, 정일룡이들과 병기생산문제를 토론하고계실 때 박헌영이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였다. 김책이들과의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았은 때여서 급한 일이면 먼저 말하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박헌영은 김책을 힐긔 스쳐보고는 중국외교부에서 보내온 문건을 그이께 보여드리였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동북에 오시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도모해드리겠다는 문서장이였다.

《수상동지, 교섭이 됐으니 인차 강을 건느십시오. 싸움은 저희들이 할터이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김책이 언짢게 내쏘았다.

《강을 건느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왜 자꾸 동문 그런 선전을 하며 다니요?》

《김책동문 외교문제에 참견마오!... 수상동지, 빨리 강을 건느셔야지 여긴 안전치 못합니다. 맥아더도 일본에 앉아 조선전쟁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순간 김책의 격노한 눈빛을 일별하고 박헌영이 하던 말을 뭉청 끊어버렸다.

두 부수상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김책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언젠가는 장군님께서 과업을 주시는데도 부수상직을 못하겠다고 찌부렁대던 사람이 전쟁은 내가 하겠으니 강을 건느시라구?》 하고 웨치는것 같았다.

박헌영은 김책의 불같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리었다.

《나는 어떻게 하나 나라의 운명이신 장군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자는거지요.》

김책이 주먹을 움켜쥐며 박헌영에게 격하여 어성을 높이였다.

《당신은 이 땅이 어떻게 찾은 땅인데 장군님께 압록강을 건느시라고 하는가?》

만약 **김일성**동지를 모신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김책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 《뒤에 돌아앉아 나쁜짓만 하는 가납사니같은 놈, 나가라!》 하고 소리쳤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는 문제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강을 건널 생각이 없으니 그 문제라면 돌아가시오.》

박헌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장을 걷어쥐고 문밖으로 맥없이 걸어나갔다.

이런 일을 상기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한번 시간을 내서 자신께서도 별오에 가보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후방총국장의 정신상태가 한심해진것도 박헌영의 영향을 받았기때문이라는것을 최근에 알게 되시였다. 지어 박헌영은 고정한에게 병기공장종업원들로 빨찌산을 조직해서 미군과 싸우게 하라, 그러되 너는 소련원동에 앉아서 빨찌산을 원격지휘하라, 그러면 영웅칭호는 물론 소련의 레닌훈장까지 수여받도록 김일성장군과 쓰딸린에게 말해주겠다고 꼬드겼다는것이다. 고정한이 군자리에서 한사코 빨찌산부대를 조직하려고 한것은 그때문이였다. 그러나 이번에 고정한은 적간첩인 병기공장 경리부 방가눔에게 어처구니없이 리용당한것을 비롯하여 전쟁기간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기비판을 하였다고 한다.

매양 자고자대하면서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해서 칭찬할줄 모르는 그가 지음모네 결사대원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열흘도 안되는 사이에 750정의 기관단총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 20명결사대원들을 영웅서사시의 주인공들이라고 격찬했다는것이다.

그러면서 행방불명이 된 럽민희와 박홍근에 대해서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간첩놈에게 놀아난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것이였다.

《고정한동무가 성당위원회에서 자기비판을 허심하게 잘했다는데 실지 개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심중한 표정으로 김책을 바라보시였다.

《예, 자기를 관대하게 용서해주신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분발해서 일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대주의병은 하루이틀에 고쳐질것 같지 못합니다.》

《간부교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헌영동무에 대해서는 나도 개별적으로 충고하겠지만 그가 별오에 가서 한 발언은 아주 엄중합니다. 그런데 전기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며칠전 김책에게 남조선에서 온 인사들을 잘 돌봐줄데 대한 과업을 주실 때 적들의 폭격에 파괴된 송배전설비들을 빨리 복구하여 강계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도 주시였었다.

김책은 그동안 료해한데 근거하여 강계지구에 전력을 공급하자면 평북도 맹중리에 가서 전원연결작업과 변전소수리를 해야 한다는것과 맹중리는 적구나 다름이 없는 곳이여서 그곳 송배전망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산업성 전기관리국 기사장 김성도에게 무장군인들을 몇명 붙여서 보내기로 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전기관리국 기사장의 고향은 맹중리 가까운 박천이지만 그의 부모들과 형제들이 모두 서울에 있었다. 그때문에 일부 간부들은 기사장을 적구가까이로 보내는데 대해 반대하였다고 한다.

《장군님, 기사장에게는 제가 차고다니는 권총을 채워보내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묵묵히 계시였다. 지금 김책이 차고다니는 권총은 전쟁전에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만든것을 그이께서 선물로 주신것이였다.

《김책동무가 자기의 권총을 전기관리국 기사장에게 채워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적들은 청천강이남으로 쫓겨났지만 청천강 바로 옆에 있는 맹중리는 아직 적구나 다름없습니다. 절대로 사고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비송전선을 늘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강계지구에 전기를 원만히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마음을 써오신 문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제때에 알아차리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김책의 비상한 사업능력과 충실성에 감탄하시였다.

《부수상동무, 병기공장 20명동무들이 전기가 끊어진 군자리 캄캄한 굴속에서 75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또다시 그들에게 전기가 없는 속에서 병기를 생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고 문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를 지도하러 가시던중 바람부는 언덕에서 만나보신 병기공장로동자들의 해진 흘뎂이 눈에 감쳐오시였다.

《병기공장동무들은 군자리를 떠날 때 수류탄 한개라도 더 만들자고 배낭속에는 옷이 아니라 병기생산용자재들을 넣었습니다. 그들이 수풍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집도 없었고 쌀도 없었으며 소금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옷도 없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병기생산국장과 후방총국장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제 잘못이 많습니다.》

김책은 뼈저린 자책감으로 하여 그이앞에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부수상동무가 언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이래라, 저래라 할새가 있었습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자는것은 병기공장동무들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수류탄생산을

하고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땅에서 용선로를 세우고 파철을 구해서 지금 수류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해진 여름옷을 입고 일하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두고 나더러 중국으로 넘어가 전쟁을 지휘하라니 말이 됩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격하신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나는 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인민들과 군인들을 만나보았는데 하나와 같이 훌륭한 인민, 훌륭한 군대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1월 2일과 3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지도하고 김책을 남조선정계인사들이 있는 별오에 보내신 후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모른다.

11월 3일 눈내리는 밤에는 창성을 떠나 여기 만포군 고산진을 향해 오시는 도중 11월 4일 멀리 경상북도 안동에서부터 원썩들을 쳐부시면서 2천여리를 행군해온 서울 제3보병사단 9련대 1대대 군인들을 만나시였다.

2천여리를 행군해오다보니 군인들은 모두 헌옷에 해진 신발들을 신고있었지만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행군하였고 모두가 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 명령을 주시면 즉시에 반돌격으로 넘어가 미국놈들을 때려눕히겠다고 하였다.

여기 고산진에 오시여서도 문화선전상과 조선인민군협주단 배우들 그리고 제2차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가할 대표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일군들을 만나시였다.

그들도 모두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었다. 문화선전상의 말에 의하면 우리 당을 따라 후퇴해온 작가, 예술인들과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1 000여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인민군협주단 배우들은 악기를 무기로 삼고 조국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도 얇은 군복을 입고있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전시환경이라도 당을 따라 천리길을 헤쳐온 모든 군인들과 노동자, 사무원, 지식인들에게 다 두툼한 솜옷을 해입혀야 하겠습니다. 그 많은 솜옷을 만들자고 해도 그렇고 각종 무기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자고 해도 그렇고 후방기지인 강계지구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장군님! 전기도 솜옷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책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결연히 말씀올리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일어나시여 김책의 손을 힘있게 틀어쥐시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없이 뜨거운 눈길로 오래도록 김책을 지켜보기만 하시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설한풍이 울부짖고있었다.

《행방불명이 된 녀의사가 걱정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적후에서 제2전선부대를 지휘하고있는 최현군단장이 여기로 오게 되는데 그에게도 녀의사를 찾아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지응모동무한테선 선천 최목사에게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았는지··》

한참만에 하시는 **김일성**동지의 걱정어린 말씀에 김책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렴민회의 행처는 아직 묘연하였다. 그러나 최학순목사에 대해서는 락관할수 있었다. 일전에 지응모가 아버지한테서 직접 최목사의 소식을 들었는데 후퇴시기 목사의 일가가 모두 무사했을뿐아니라 그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돌려 전쟁이 끝난 다음 딸의 성례를 치르겠다고 언약했다는것이다. 지응모와 박홍근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었다.

지군일목사는 선천소식을 전하면서 아들에게 결혼도 하기 전에 녀자의 집에 찾아다니는건 추한 일이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선천땅에는 눈을 돌리지 말고 병기생산에 전념하라고 다짐을 받았다는것이다.

《장군님, 그 령감들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넘어간것 같습니다. 허허허.》

김책은 그이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싶어 일부러 룡조의 말쑤를 올리며 크게 웃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11월 17일에 최현군단장을 만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전선부대에 제3계단 작전과 관련된 강령적교시를 주시고 련민회의 행처를 알아보도록 하시였다.

이틀후 11월 19일에는 그이께서 날도 밝기 전 어두운 새벽에 사족발이군마를 타고 만포 압록강쪽을 거슬러 달리시였다.

4

만포에서 압록강을 따라 20분정도 걸어가면 구오리가 있고 구오리에서 또 얼마쯤 가면 별오라는 고장이 나진다. 별오라는 말은 벼루(바다가나 강가의 위태로운 낭떠러지)라는 말에 까마귀 오자가 붙은 《벼루 오》의 발음이 줄어들어서 생긴것이라고 한다. 벼랑길이 마치도 까마귀부리처럼 사납고 뽕족하여 벼루오라고 했다는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장의 지명이 별오가 아니라 벼로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어떻든 이 지대의 벼랑길이 몹시 험한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명의 정식이름은 별오가 틀림없었다.

별오는 앞뒤에 높은 산이 병풍처럼 솟아있고 그 산협을 따라 길게 뻗어간 골짜기는 굉장히 깊어서 50리도 켜 넘는다고들 한다.

마을은 농가호수가 얼마 안되는데 그나마 깊은 골짜기를 따라 띠얌띠얌 널려있어 오붓한 맛이란 없고 그지없이 적막하기만 하였다.

바로 이런 고장에 **김일성**동지께서 새벽 벼랑길로 군마를 타고 오시였다. 그것은 이 외진 산간마을에 와있는 남조선정계인사들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일군들을 만나보시기 위해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사족발이를 타고 별오마을에 들어서시였을 때까지도 마을은 아직 새벽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군마의 요란한 코뚜레질소리를 듣고 제일먼저 일어난 사람은 새벽잠이 적은 최동오였다.

그다음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와 장군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저마다 앞에 나서 인사를 올리는 사람들속에는 김규식, 홍명희, 강랑욱, 조소앙, 안재홍 등 년로한 공화국요인들과 남조선정객들이 있었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급급히 달려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때 홍명희가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그이의 곁으로 다가가 《이 어두운 새벽에 수원들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부관이란 사람들은 도대체 무얼하고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되게 꾸짖어야 할가봅니다.》 하고 노여워하였다. 내각부수상의 중임을 맡고있는 그는 부관들을 신척할 권리가 있었다.

《선생님,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너무 곤하게들 자기때문에 글썽지를 써놓고 먼저 왔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러시면 어찌합니까. 그건 규률위반입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들 사시는지 집안구경이나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정계인사들이 숙식하고있는 집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별오마을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18차 확대상무위원회를 지도하시였다. 남조선정계인사들도 다 참가한 이 모임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감은절전으로 조선전쟁을 결속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적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으며 전선형편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어가고있다는것, 조성된 정세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전선사업을 강화하고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 등 전쟁 5개월동안에 일어난 정세변화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해주시고 앞으로 하여야 할 사업방향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점심때에는 회의참가자들에게 강냉이국수를 대접한다는것을 아시고 김이 서린 취사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 주방녀인들과 함께 친히 분들을 잡고 국수를 누르시며 백두산밀영 병기창에서 1937년 설명절을 쇠던 일을 회고하시였다.

국수분들에서 흘러내리는 국수발을 저가락으로 젓고있던 녀인들은 김일성동지의 말씀에 심취되어 일손들을 멈추고 듣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후방밀영에서는

탄약제작에 필요한 약통실, 퇴관, 점화약과 각종 저격무기의 부속품까지 마음대로 만들어냈다고 하시었다.

《국수분들도 자체로 만들어 국수를 눌러먹었습니다. 항일투사들은 모든것을 다 자체로 했습니다. 그해 설명절에 우리는 만두도 빚어먹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서 만두빚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두를 빚을 때 만두빚는 봉을 때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오른쪽손바닥으로 봉을 재빨리 밀어대면서 왼손으로 작두먹이를 먹이듯이 련속 만두살을 밀어넣어야 합니다. 1분에 20개이상은 만두살을 빚어야 괜찮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방녀인들은 마치 한식술처럼 다정하게 백두산밀영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친히 분들을 잡고 국수까지 누르시는 그이의 한없이 소탈하신 인품에 끌려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우리 장군님이 이런분이신가?)

남조선정계인사들은 장군님께서 주방녀인들과 함께 친히 국수를 누르며 무릅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눈들이 둥그래졌다. 그들로서는 한 나라의 수령이 음식차비를 하는 녀인들과 함께 국수를 눌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점심식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이께서 년로한 남조선정계인사들과 같이 수수한 농촌집 노전방에서 국수를 들며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강낭국수를 대접하지만 평양에 나가서는 맛있는 평양랭면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비록 강냉이국수이지만 평양랭면으로 생각하고 달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랭면이야기를 하시며 구수한 강냉이국수맛에 더욱 향취를 돋구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평양랭면이 유별나게 소문난것은 국수감과 국수를 마는 국물(육수) 그리고 국수를 담는 식기에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육수는 소뼈와 힘줄, 허파나 기레, 콩팥, 처넙 등 값도 높고 구하기 쉬운 내장부분을 가지고도 한다고 하시었다. 이런 재료를 가마에서 푹 고아가지고 기름과 거품, 고기찌꺼기를 다 건져낸 다음 소금과 간장으로 국물의 간을 맞추고 다시 뚜껑을 열어놓은채로 더 끓여 간장냄새를 없애버린것을 서늘한 곳에서 식힌다. 이렇게 만든 육수는 보기에 맑은 물과 같이 깨끗한데 그속에는 단백질과 칼시움성분이 가득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오늘 선생님들에게 평양랭면과 같이 메밀도 못되고 낫그릇에 담지도 못하고 고기, 닭알꾸미도 없고 좋은 고명도 못 놓은 강냉이국수를 대접하는것이 정말 안됐습니다.》

《장군님, 황공합니다. 옛날 궁중안의 수라간에서 주방내인들이 만들어 수라상에 차린 음식인들 이렇게 구수하고 맛이 있겠습니까.》

정객들속에 앉아있던 머리가 홀렁 벗어나서 이마가 흰하게 드러난 늙은이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나서 조심스레 물었다.

《일전에 김책부수상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적실합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오전회의에서도 말한것처럼 우리의 제3계단 1차작전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고 공격이 좌절된 적들은 청천강, 장진호반, 어랑천일대에서 갈팡질팡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2전선을 지휘하고있는 최현을 바로 이틀전에 고산진에서 만나보신 이야기도 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가 늦어서 보름안팎으로 평양을 해방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런데 박헌영부수상은 우리 군대가 싸움은 잘하지만 미국놈들에 비해 무기가 변변치 못하기때문에 장군님을 동북땅에 모시도록 중국, 소련과도 토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여기도 위험하다고 걱정했습니다. 두 부수상들의 말씀이 다르기때문에 감히 장군님께 무엄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압록강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사실 선생님들을 동북땅에 모시면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압록강은 지난날 선생님들이 망국의 설음을 안고 피눈물 뿌리면서 건너갔던 강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죽어도 제땅에서 죽지 다시는 압록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압록강을 건널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새해전으로 평양을 반드시 해방하고 평양에서 설명절을 쉴것입니다.》

《저희들은 장군님을 믿습니다. 옛 병법에도 병기보다도 장수의 슬기와 병사의 용맹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김규식이 일어나서 맞잡은 두손을 가슴노리에 붙이고 격한 목소리로 말씀올리었다.

《선생님말씀이 옳습니다. 인민군대의 정신상태는 미제 고용병들에게 대비할바가 아닙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좋은 총도 가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평양에 나가신 다음 우리의 병기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병기공장을 보면 힘이 생길것입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총도 있고 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병기공장동무들은 소개지에 와서도 수류탄과 총을 생산하여 제2전선부대에 보내주었습니다. 총은 넘려없습니다.》

《장군님의 고심이 헤아려집니다. 이 나라를 위해 장군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규식이 눈물 머금고 그이께 간절히 아뢰었다. 지난날 독립을 해보려고 문필활동도 해보고 정계에도 나서보고 멀리 상해에 가서 립정에도 관여해본 그는 4월남북련석회의를 거쳐 비로소 조선을 구원하실분은 오직 한분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불편한 몸으로도 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장군님을 따라 조국의 통일과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여생을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평양에 와있는 기간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보고 북은 흥하는 집안같고 남은 망하는 집안같다고 하면서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는 련석회의이후 서울로 나갔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패주할 때 놈들을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그냥 남아있다가 70고령의 몸으로 북행길에 올라 별오까지 온 사람이였다.

김규식은 지난 11월 1일 별오에 온 김책으로부터 김규식선생은 의리가 있는 애국자라고, 신의에는 신의로 대답하는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이 세상에 장군님같은분은 없소. 나는 장군님의 인품에 끌려 여기까지 왔소. 내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소. 허나 죽어서도 내 혼은 장군님만을 따라갈것이요.》 하고 걱정을 터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오랜 시간을 별오에서 보내고 고산진으로 가시였다가 이튿날 저녁에 또다시 별오에 오시였다. 간소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홍명희, 허헌, 강량욱, 김규식, 최동오, 조소양 등 인사들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리둥절해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제가 여기에 또 온것은 강량욱선생님의 생신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이께서는 술병을 들어 상우에 놓여있는 잔들에 골고루 부으시였다. 그 말씀에 모여앉은 모든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서 **김일성**동지를 우러르는데 본인인 강량욱의 표정은 더욱 놀라는 기색이였다. 이날이 자신의 생일날인줄은 생각지 못하고있던 강량욱이였다.

《선생님, 약소하나마 들어주십시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아니였다면 선생님은 오늘 댁에서 생일상을 받으셨겠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달리할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제 생일때문에 한초가 귀중한 때에 험한 벼랑길을 또 걸어오셨습니까!》

생일상을 받은 강량옥은 해방전 창덕학교시절이 생각되어 더욱 눈물이 나왔다.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에서 공부하고계실 때 가끔 집에 찾아오시면 기껏 해드린것이 비지밥이었다. 그런데 해방된 어느해 생일날에 강량옥이 **김일성**동지께서 차려주신 큰 생일상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때의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때는 **김일성**동지께서 베풀어주신 생일상이 크고 요란하여 온 가족이 울었는데 오늘은 술 한잔으로 생일을 축하해주시지만 그날의 생일상보다 더 뜨겁게 안겨오는 **김일성**동지의 인덕에 울었다.

모두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축배잔들을 들었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김규식이네들이 밤길을 삼가하시라고 만류하는데도 어두운 밤에 고산진으로 돌아가시었다.

그날 밤 홍명희는 김규식과 같이 수첩에다 이런 글을 적어넣었다.

따사롭기 봄별같아라

내 속 가득 쌓였던 근심

가뭇없이 사라졌노라

산간벽촌 조그마한 방에

그이 지금도 앉아계신듯

만길높은 영웅의 기상

내 눈앞에 뻗어올라라

살인장군 미국의 맥아더도

그이의 옹휘한 기상앞에서

사지를 떨고있으리

5

맥아더가 《전쟁승리》의 시간표로 정했던 감은절이 지난지도 며칠이 되었다. 살인장군의 《속전속결》의 흥책은 여지없이 분쇄되었다. 인민군용사들의 노도와 같은 반공격에 수많은 미군고용병들이 북부산악지대의 깊은 함정에 빠져 너부러졌고 겨우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대항할 엄두도 못내고 급급히 남쪽으로 도망치고있었다.

전쟁제3계단작전에서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만든 수류탄이 크게 은을 내고있었다.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이무렵에도 바람세찬 압록강변에서 여름옷을 입은채로 어려운 전투를 하고있었다. 사납게 휘몰아쳐오는 설한풍은 병기공장 로동자들을 위협하듯 승냥이울음소리같은 괴성을 지르며 압록강반의 모든것을 얼구어버렸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그들을 점점 불안하게 하는것은 추위보다도 고갈되는 파철이었다. 수류탄이 대량적으로 생산되면서부터 파철수요가 급격히 높아져 며칠있으면 수류탄생산이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지응모를 비롯한 여러 일군들이 주변의 기계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쇠붙이들을 긁어왔지만 그것도 한두번이었지 매번 남의 공장신세를 질수 없었다. 더욱 난처한것은 지응모와 같은 무기설계가가 파철수집에 시간을 빼앗기고있는것이였다.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수풍지구로 소개하여온 이후 지금까지 수류탄생산에 집중하면서도 각 직장별로 작업장들을 마련하고 종전대로 여러가지 병기들과 병기부속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병기공장 작업장들은 수풍지구만이 아니라 자강도 여러 지역에 꾸려져있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파철은 점점 더 긴장해지고있었다. 파철때문에 모두들 신경이 곤두섰는데 며칠전에는 수풍 용선로옆 파철무지속에서 검은 유지에 싼 폭약이 발견되어 사람들을 경악실색하게 하였다. 만약 그놈의 폭약이 용선로안으로 들어갔더라면 피땀으로 세운 용선로가 가뭇없이 날아나버릴번 하였다. 천만다행으로 그놈의 폭약유지가 후방경리부 녀지도원의 눈에 띄여 용선로를 구원할수 있었다. 도봉숙이라는 그 녀지도원은 원래 사법성 후방부서에 있었는데 리환구지배인이 발기한 간부방공호건설을 협력하기 위하여 수풍에 상주해있다가 보름전에 병기공장에 적을 옮기게 되었다. 본인은 오지 않겠다고 하는것을 지배인이 사법성에 드나들면서 사업을 하여 겨우 끌어다놓았다.

도봉숙의 놀라운 업무활동으로 하여 병기공장에서는 로력과 자재를 얼마 대지 않고 최신식철벽의 방공호를 완공하였다.

도봉숙은 병기공장에 오자마자 사방 뛰어다니며 활동을 벌려 쌀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부식물들을 차판으로 실어들이었다. 합숙의 식탁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고기를 비롯한 동서해의 해산물들까지 자주 오르군 하였다.

병기공장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수풍에 와서 새로 지은 합숙에 공동거처하고있었는데 누구를 물론하고 입을 모아 도봉숙을 칭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파철더미속에 들어박혀있는 폭약까지 발견하여 그를 《보배덩이》라고들 하였다.

폭약사건이후 지방수사일군들이 병기공장에 드나들며 암해분자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벌려 공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몇명의 사람들이 혐의에 걸렸는데 박홍근은 첫째 혐의대상이 되어 자주 불리워다니었다.

포탄직장 책임기사인 박홍근은 낮에는 수류탄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밤에는 폭약과 철갑모제조를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있는데 그가 다루고있는 폭약이 파철더미에서 발견한 폭약과 꼭같은것이였다. 이것이 첫째 혐의로 되었고 다음으로는 행방불명이 된 럽민회의사의 애인이라는 인간관계가 수사일군들의 의심을 사게 하였다. 그것은 럽민회가 공화국을 반대하여 고의적으로 남으로 도주했다는 여론이 돌고있기때문이었다. 수사일군들은 박홍근을 솥재 가두어넣으려고 하는것을 현무광당위원장이 완강히 막아나섰다.

《나는 당위원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박홍근을 나자신처럼 믿는다. 동무들이 사업상 그와 담화하는것은 허락할수 있으나 절대로 가두어넣을수는 없다.》

자기 당원의 정치적생명을 희생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이것이 당위원장의 몫이었다.

사태가 이처럼 엄중해지는 속에서 수류탄생산을 하고있었다.

아침이였다. 이날도 지응모는 파철때문에 주물작업반에 먼저 찾아갔다. 파철이 떨어져가는데다 폭약사건이 발생하여 요즘 그의 마음도 어수선했다.

새과란 호각줄을 목에 건 연아바이가 용선로주변을 분주히 왔다갔다하였다. 인차 출선을 하려는지 주물공들이 용선로가까이에 주형틀들을 가져다놓고 대기하고있었다.

《연이바이, 수고합니다. 용선로에 먹일 파철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웅모는 용선로곁에 무저있는 파철더미를 보면서 파철예비량부터 물었다.

《이틀만 지나면 저게 다 없어집네다. 정말 야단났수다.》

용선로의 먹새가 얼마나 좋은지 산처럼 쌓인 파철도 이틀사이면 다 먹어치운다는것이다. 그것은 크게 증대된 수류탄생산량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것이기도 하였다.

전쟁과 철은 이렇게 연결되어있었다. 누구나 여기에 와보면 조그마한 쇠붙이도 헛되이 버리지 않을것이다.

(야단이로군!)

지웅모는 막막하였다.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에서는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였다. 예비부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무기의 절대수요도 부쩍 높아진것이다. 저격무기나 포류 같은것들은 당장 해결할수 없지만 파철만 있으면 수류탄은 얼마든지 만들수 있었다. 그런데 파철이 없어 그것마저 전선에 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부 민수기계공장들에서도 수류탄을 만들고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2선 생산기지였다.

망연히 서있던 지웅모는 뒤에서 울리는 인기척에 흠칫 놀라며 돌아섰다. 현무광과 리환구가 와있었다.

리환구는 지웅모를 얼핏 스쳐보고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내 요즘 머리가 센다니, 폭약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정말 화약더미우에 올라앉아있는것 같소. 어제 밤에도 용선로가 폭발하는 악몽을 꾸었소.》

그는 파철을 얻어낼데도 없으니 남아있는 파철이나 먹어치우고는 당분간 용선로를 죽이자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당분간이란 암해분자를 적발할 때까지를 의미했다.

《구테기무서워 장 못 담그겠소. 지금 전선에서 수류탄, 수류탄하는데 용선로를 죽인다는게 무슨 소리요. 나쁜 놈은 한두놈입니다. 우리가 공장보위사업을 빈틈없이 잘하면 암해분자들이 준동하지 못합니다.》

현무광의 말이였다. 그는 실지 폭약사건이후 병기생산설비들이 있는 곳에 무장보초를 세우도록 하였다.

《내가 너무 속이 타서 그러는게지 용선로를 죽인다는게 말이 되오. 그런데 전쟁통에 파철이란 파철은 다 없어졌으니 야단이 아니요. 파철을 어디서 구해오겠소?》

《파철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요. 대단히 많습니다.》

《어디 있단 말이요?》

지배인이 의아해하였다. 지배인보다도 더 놀란 사람은 지응모였다.

《저 압록강 얼음밑에 있소.》

현무광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가리켰다.

《장군님께선 무슨 문제든 걸리면 군중에 의거해서 풀라고 하셨소. 그래 나도 며칠동안 주변마을을 돌아다니며 파철문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중 삭주태생의 압강마을 한 할아버지가 자기 마을 압록강근처에 일본놈들이 무엇을 만들다가 켜버리고 간 철구조물이 있는데 그놈의 물건이 원체 어방없이 큰데다 물속에 잠겨있기때문에 마을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꺼낼수 없다고 안타까운 소리를 했다는것이다. 압강마을이란 20여리밖에 있는 압강수산사업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당위원장동지, 20리길이면 당장 제가 가보고 건져내겠습니다.》

《나도 가보았는데 현재는 그림의 떡이요. 좌우간 보겠으면 나와 같이 가가요.》

지웅모는 현무광을 따라갔다. 압록강상류로 한시간가량 올라갔다.

연아바이가 이 사실을 알려주어 그들의 뒤로 한성룡지도원, 박홍근, 류일룡, 유락중, 최성준, 김정길, 김영식 등 공장핵심들과 청년들이 거의다 따라나섰다.

현무광의 말은 빈소리가 아니었다.

《L형강》, 《ㄷ형강》으로 된 철구조물이 강기슭으로부터 압록강북편으로 뻗어갔는데 그 옷부분이 얼음우에 빠죽이 솟아있었다. 어지간히 깊은 강물우에 구조물의 정수리가 솟아올라있는것으로 보아 구조물의 높이가 대단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당위원장이 그림의 떡이라고 한것은 철구조물의 기본동체가 강물속에 잠겨있고 그 한쪽꼬리가 강기슭에 코를 내밀고있기때문이었다. 그것을 꺼내오자면 우선 압록강얼음장을 까내고 구조물을 조각조각 뜯어내야 하였다. 원래는 철구조물이 강물속에 잠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강줄기의 방향이 이동되고 수역이 넓어지면서 지상의 건물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는것이다.

《이 구조물을 꺼내기만 하면 많은 수류탄을 만들수 있겠소. 지금 파철이 없어 용선로를 죽여야 할판인데 이걸 그대로 내버리고 간단 말이요?》

지웅모가 이렇게 휘둥하자 모두가 일판을 벌리자고 소리치며 호응해나섰다. 맨먼저 도끼를 들고 나서는 사람은 유락중이와 류일룡이었다. 수년세월 쇠붙이를 다루며 총을 만들어온 이 강철의 사나이들의 본을 받아 전투원들은 우선 얼음을 까내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도끼를 휘둘러대며 얼음을 까내는 소리가 쨍쨍 압록강반에 메아리쳤다.

아직은 초겨울이어서 얼음두께는 반미터를 넘지 못하였다. 얼음을 직경 1미터너비로
 까내니 시퍼런 압록강물이 발아래로 내려다보였다. 이런 얼음구멍을 여러곳에
 만들어놓았다. 그다음은 개미처럼 달라붙어 정으로 철근을 뜯어내기 시작하였다.
 얼음턱에 걸터앉아 뼈짚을 에이는 찬물속에 발을 잠그고 정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추위에 얼굴들이 새파랗게 질려 몸을 덜덜 떨고있었다. 용광로화구속에
 들어가 녹아붙은 쇠를 뜯어내는 작업보다도 추운 겨울 찬물속에 다리를 잠그고
 정대질을 하는 일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수 있었다.

《정으로 까서야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뜯어내겠소.》

누구인가 푸념조로 한마디 내던지고 수산사업소쪽으로 달려갔다. 용접공 병혁이었다.
 얼마를 지나 그는 잠수복을 가지고 나타났다. 물속에 들어가 수중용접으로 철구조물의
 각을 뜨자는것이였다. 동력부사람들이 전기줄을 늘이고 수중용접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병혁은 잠수복을 입고 압록강물속에 뛰어들었다. 물속에서 신비로운
 꽃보라가 날리기 시작하였다. 수중용접이 시작된 모양이였다. 부글부글 거품이 이는
 물속에서 뿌려지는 용접의 꽃보라는 실로 지상에서 볼수 없는 황홀한 광경이였다.
 사람들은 추위에 우들우들 떨면서도 그 황홀한 광경을 보며 탄성을 올리였다. 물에 젖은
 옷들은 대번에 얼어붙어 동태짝처럼 팻팻해졌다.

이때 마흔살안팎으로 보이는 검은색솜옷을 입은 사람이 강기슭에 서서 입에 손나발을
 하고 강관을 향해 소리쳤다.

《박홍근책임기사동무, 유락중작업반장동무, 빨리 간부방공호로 가보시오. 사법성
 신동식국장이 부르시오.》

도끼로 얼음구멍둘레를 따고있던 유락종이 허리를 펴고 강기슭에 서있는 사람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기다란 말상에 눈썹부리인 그 사람은 병기공장 로동행정부장 리백찬이었다.

《신동식이란분이 왜 부르답니까? 난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요.》

《행방불명이 된 녀의사때문인것 같소. 용선로폭약사건수사과정에 녀의사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어 사법성에까지 반영된 모양이요. 반장동문 그 녀자의 입당보증인이니 뭘 알아볼게 있는가보오. 큰 교훈인데 입당보증이라는것도 함부로 설게 아덱데. 큰 실책이요. 그놈의 폭약때문에 박홍근기사는 범죄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것 같소.》

공개장소에서는 삼가해야 할 말을 술한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껹껹 소리지르며 마구 해대던 리백찬은 찬바람이 목안으로 몰려들어서인지 껹껹 기침을 짓었다.

유락종은 불시에 기분이 잡쳐졌다. 그러지 않아 그는 박홍근이와 럽민회를 나쁜 사람으로 의심하는 일부 수사일군들과 이미 여러번 격렬한 언쟁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국장이라는 사람까지 박홍근이와 럽민회문제로 찾아왔다고 하니 신경이 곤두섰다. 더욱 기분이 나쁜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불쾌한 사건을 놓고 성수가 나서 떠들어대는 로동행정부장의 얄미운 행동이었다.

유락종은 좀해서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일단 성이 나면 사자처럼 무서워지고 웅은것을 위해서는 작두날우에도 올라서는 강직한 성미였다.

《부장동무, 우린 가지 못하겠습니다. 보다싶이 급한 전투를 벌리고있으니 지금은 자리를 뜰수 없습니다. 정 만나야 할 일이면 저녁에 만나자고 하시오.》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하오. 성간부가 범죄사건을 료해하러 오셨는데 못 만나겠다니 법에 도전하는거요 뭐요? 그럴수록 동무네한테 손해요.》

《글쎄 지금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로 하는 소리요?》

리백찬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이 유락종이 일구어언하는걸 언제 본적이 있습니까?》

유락종의 목소리도 곱지 않았다.

《종소. 동무네 뵈대로 하오.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리백찬이 성나서 뇌까리고 뺨 돌려서 가버렸다.

《반장동무, 가 봐야 하지 않을까?》

유락종의 곁에 서있던 박홍근이 불안스레 중얼거리었다. 무한정 고지식하고 어질어빠진 그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책임기사동무, 걱정하지 마시오. 뭐 빗진게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제 할일도 못하고 끌려다니겠소. 돼먹지 않게 죄없는 사람들을 달구어대면서...》

마침 이때 유락종의 격한 심정을 대변하듯 갑자기 췌-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세찬 바람이 지동치듯 몰려왔다. 년중 이맘때면 가끔 들이닥치곤 하는 광풍이었다.

해일처럼 사납고 무서운 이 미친 강바람을 두고 옛사람들은 물귀신의 조화로 해석하였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가만히 서있기조차 힘들었다. 구름모양의 시뿌연 눈보라가 파도식으로 밀려와 전투원들의 온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여기저기서 악악 비명을 내질렀다.

《이게 뭐요? 지진이요? 지진이 일어났소!-》

누구인가 소리쳤으나 그 소리는 은회색의 뾰얀 공간속에 삼켜들어갔다. 그러나 지진은 아니고 전투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는 자연의 희롱이었다.

얼음장밑에서 수중용접을 하던 리병혁이 드디어 물속에서 허연 물거품을 뒤집어쓰고 솟구쳐올랐다. 두부색갈로 보이던 물거품이 서걱서걱 하는 얼음버캐로 변해버렸다. 잠수복을 입은 병혁이 철구조물을 끌어내라고 손시늉을 하였다. 그것을 알아차린 지응모와 유락중, 류일룡이들이 현무광이 얻어온 바줄을 얼음구멍에 내던졌다. 용접으로 끊어버린 철구조물코에 바줄을 걸어 당기려는것이였다. 여전히 바람은 태질을 하며 아우성을 쳤다. 바줄을 철구조물에 걸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이때 누구인가 얼음구멍속에 몸을 던지였다. 그는 최성준이였다. 전투원들은 그가 무엇때문에 얼음구멍속에 한몸을 내던졌는지 알고있었다.

《야, 위험하다! 조심하라!》

얼마후 최성준이 얼음구멍으로 솟구쳐올라왔다. 유락중과 류일룡들이 그의 량쪽겨드랑이를 잡아끌어올리였다.

《바줄을 걸었다. 끌어당기라!》

물참봉이 된 최성준이 두손으로 얼굴을 씻어내며 소리쳤다. 지응모의 호각구령에 따라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바줄을 당기였다.

《어이샤! 어이샤!》

철구조물은 한치한치 힘겹게 물위로 떠올랐다.

한참만에 황소만 한 파철이 얼음판위로 끌려나왔다.

《만세!》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병혁이가 얼음판에 드러누운 《황소》를 가리키며 성수가 나서 떠들었다.

《철구조물을 몽땅 각을 뜨면 저런 황소가 수백마리는 될거요. 이제 겨우 여섯마리 각을 떴는데 좀 쉬고 또 뜯어내겠소.》

유락종이가 또다시 바줄을 얼음구멍에 내던지었다. 이번에는 김정길이가 날카로운 얼음쪼각들이 뚱뚱 떠있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쪽에서는 얼음판에 누워있는 《황소》를 강변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강기슭에서는 녀성로동자들이 모닥불을 피우고있었다.

《성준아저씨! 여기 와서 옷을 말리세요. 감기 걸려요.》

아직 소녀티를 벗지 못한 어린 처녀가 모닥불곁에 서서 물참봉이 된 최성준에게 소리쳤다. 서울에서부터 인민군대를 따라 후퇴하여온 은순이었다. 성준의 옷은 벌써 뽀뽀하게 얼어서 껏껏한 갑옷처럼 되었다.

얼음구멍주변에서는 지응모의 호각신호에 따라 바줄당기기가 계속되었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육중한 검정 《황소》가 연방 얼음구멍으로 끌려나왔다. 한두시간 지나자 전투원들모두가 장갑이고 모자고 다 거치장스러워 모조리 벗어던지고 흥에 떠서 일하였다. 사람들은 몸에서 나는 열기로 하여 몸과 얼굴에 하얗게 성애가 불려 마치도 북극의 흰곰무리들이 뛰노는듯 하였다.

이날 전투원들은 저녁늦도록 일하였다. 점심은 강변 여기저기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빙 둘러앉아 옷을 말리우고 몸도 녹이면서 녀성로동자들이 합숙에서 날라온 췌기밥으로 간단히 굶배었다.

이날 하루동안에 철구조물에서 각을 뜬 파철을 수많은 끈집어냈다. 그렇게 많은 파철을 꺼내고도 아직 그 몇배나 되는 구조물잔해가 얼음장밑에 잠겨있다고 했다. 이제는 파철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한톤이 넘는 중량물을 얼음구멍으로 수십번 끌어올리었으니 여간 힘든 로동이 아니었다. 이날 남자들중에는 물속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당위원장도, 지배인도, 한성룡지도원도, 전투를 지휘한 지응모도 철구조물에 바줄을 걸기 위해 한두번씩 물속에 뛰어들었다.

얼음덩이가 둥둥 떠다니는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살이 찍찍 들어붙는 찬 쇠붙이를 만지다보니 얼굴에 멍이 들고 손발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었다. 아직 겨울옷을 입지 못하고 살점마저 드러낸 로동자들도 있었지만 모두다 락천적으로 웃고 떠들며 흥겨워했다. 전투원들은 젖은 옷을 말리우느라 날이 어두워서야 합숙으로 돌아왔다.

유락종이와 박홍근은 밤 9시경에 로동행정부장의 합숙방을 찾아갔다. 모포를 깔고 방바닥에 누워있던 리백찬은 그들을 보자 대뜸 화를 내며 일어나앉았다.

《동무네 단단히 문제가 선줄 아오. 이게 어련애 놀음인줄 아는가? 신동식국장이 어떤분인지 알기나 하오? 엇그제 임명된 신임국장이지만 박부수상과 사법상이 제일 믿고있는 사법성의 기동국장이고 남에서 지하투쟁을 지도한 사람이요.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전권대표로 범죄사건을 료해하러 온 간부동지보고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처지에서 무슨 대통령이나 되는것처럼 못 만나겠다, 저녁에 오라 호통을 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희극이 어디 있소. 오죽하면 신국장이 동무네 같은 사람은 살아가다 처음 본다고 했겠소.》

상대가 말할 여유도 주지 않고 한참 성품이를 하고난 리백찬은 유락종이와 박홍근에게 16절용지를 각각 한장씩 내주었다.

얼결에 종이장을 받아쥔 유락종은 거기에 큼직하게 씌여있는 글을 들여다보았다.

《첫째, 자서전을 솔직하게 다시 쓰시오.

둘째, 립민회의 입당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동무가 김인호직장장으로부터 입당보증을 받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쓰시오.

셋째, 사망한 김만수와 그의 가족들과의 인간관계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쓰시오.》

유락종은 너무도 억이 막혀 종이장을 한손에 든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참으로 그것은 범죄자에 대한 심문장과 같은것이였다. 얼핏 옆을 돌아보니 박홍근이도 무슨 험악한 글을 읽었는지 얼굴빛이 시꺼멓게 질려있었다.

《그건 내가 신국장한테서 전화받은걸 적은것인데 모레아침까지 써서 나한테 가져오시오. 나더러 받아두라고 했소.》

리백찬은 두손으로 얼굴을 비비면서 목을 누르는 소리로 말마디들을 천천히 길게 끌었다. 그는 점점 눈찌가 사나와지는 유락종의 표정을 넋지시 돌아보고나서 천정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었다.

《박기사동문 셋째 조항을 특히 잘 써야 할것 같소.》

셋째 조항이란 무슨 목적으로 계획지표에도 없는 폭약과 철갑모에 대한 실험연구사업을 한사코 계속하였는가 하는것이였다.

《계획지표에 없는 일을, 되지도 않을 쓸데없는것을 한다고 병기국장과 지배인한테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그 노릇을 했다는게 이상하지 않소. 용선로에 먹일 파철더미속에 박기사의 폭약이 묻혀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오?》

《그걸 내가 설명해주겠소.》

유락종이 종이장을 구겨쥐면서 리백찬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폭약과 철갑모를 연구하고있는것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의 유생력량을 더 많이 소멸하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파철더미속에서 나타난 폭약은 나쁜 놈들이 박기사의 폭약을 훔쳐다가 집어넣은거요. 이만 한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스럽소. 도대체 이따위 심문장이 무엇에 필요하오?... 박기사동무, 우린 갑시다.》

유락종은 구겨쥐었던 종이를 내던지고 방문을 걷어차며 나가버렸다.

등뒤에서 뭐라고 야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은 캄캄하였다. 유락종의 발길은 저도 모르게 밤노을이 불타고있는 주물작업장으로 향하였다. 그는 치미는 격분을 묵새길수 없었다.

민희의사가 행방불명이 된 조건에서 환경이 복잡한 그의 입당을 보증한데 대해서는 얼마간의 의문을 가질수 있었다. 하지만 만수아바이나 김인호직장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뭇이 의심스러워 솔직히 쓰라 어찌라 하는것인가?

더구나 김만수아바이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희생된 로당원이 아닌가.

바로 그런 관계로 해서 유락종은 생명의 은인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한평생 잊지 말고 친혈육처럼 돌봐주어야 할 도덕적의무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기는 김만수가 희생되기 훨씬 이전에 벌써 그 무슨 인생의 연분인지 유락종과 만수의 딸 김순옥사이에는 류다른 관계가 맺어져있었다.

주물작업장을 향해 걸어가는 유락종의 눈앞에는 만수의 딸 순옥과 우연히 관계를 맺게 되던 작년 여름이 어제런듯 선히 떠올랐다.

그날 유락종은 새로 나온 조선예술영화 《내 고향》을 보러 합숙동무들과 함께 서평양기림영화관으로 갔는데 표가 벌써 다 팔리여 아쉽게도 영화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첫눈에도 망나니들로 보이는 세명의 청년이 휘파람을 불면서 영화관앞을 빙빙 돌아가더니 표를 들고 서있는 한 녀학생에게 다가가 지분거리였다.

《평양제1녀자고급중학교 아가씨로군. 표가 다 나가서 그러는데 거 손에 쥐고있는 표 좀 주구려. 함께 구경합시다.》

《이제 우리 동무들이 옵니다.》

날씬한 키에 얼굴이 말쑥한 녀학생은 손에 쥔 표를 등뒤로 가져가며 겁먹은듯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요거 꽤 굵구나. 통채로 삼켜도 비린내가 안 나겠는걸.》

팔목에 괴상한 입목을 한 녀석이 녀학생의 하얀 볼을 건드리더니 달려들어 그의 손에 들려있는 영화표를 앗아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두명의 망나니도 옆에 서있는 다른 두 녀학생의 영화표를 빼앗아냈다. 표만 빼앗아내는게 아니라 녀학생들의 옷옷을 잡아채 흰 어깨살이 드러나게 하고는 키득거리었다. 처녀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울었다. 당시 반동들과 결탁된 이런 무위배망나니패, 건달패들이 영화관이나 장마당 같은 곳에 싸다니며 말썽을 일으켰다. 그놈들이 판동을 부리는것을 보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욕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것들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기때문이었다. 사납고 포악한 망나니들에게 걸려들어 병신짝이 되도록 매를 맞은 사람이 한두명만 되지 않았다. 위험한것은 반동놈들이 망나니패거리들을 뒤에서 부추겨서 저들의 암해책동에 써먹고있는것이였다.

팔목에 입목을 한 녀석이 숫제 녀학생을 그러안고 희롱하려들 때 유락종이 더는 참을수 없어 고함을 질렀다.

《야, 너 대낮에 그게 무슨짓이야?》

그녀석은 고함소리에 피끗 고개를 돌리었다.

《뭐 어쨌다구? 이거 어디서 게바라온 말뻥다구야.》

녀석은 이마에 스자형의 상처자리가 있는 키가 성큼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유락종을 치떠보며 입을 실그리었다.

《너학생들을 희롱하지 말란 말이요. 표를 돌려주라!》

유락종은 주변을 에워싼 망나니들을 엄하게 둘러보았다. 상처자리가 있는 넓은 이마밑에서 서늘하게 번뜩이는 검은 눈이며 우뚝한 코며 꼭 다물린 묵직한 입이며 얼굴의 모든 선들이 조화롭게 그어진 미청년, 유순해보이면서도 끝이 치켜올라간 시커먼 눈썹이 그림에서 보는 고구려무사와 같은 억센 기상을 풍기는 유락종의 사내다운 모습이 망나니들에게 한층더 시기심을 자아낸것 같았다.

《이 새끼 뭐가 어쨌다구? 다시 아가리질 해봐라!》

팔목에 입목을 한자가 으르렁대는 승냥이처럼 찌프린 입술밑으로 이발을 드러내며 유락종에게 한걸음 다가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 너학생들을 희롱하지 말고 표를 돌려주라!》

《야, 희롱하든말든 네 새끼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 이마때기에 칼자리가 있는걸 보니 싸움쟁이나 해본 놈같구나. 내 오늘 네새끼 그 이마때길 아예 박살내고말테다.》

《너 사등뼈 부러지지 않겠으면 쫓랑거리지 말구 조용히 물러가라!》

유락종은 의젓하게 서서 물러가라는 손시늉을 하였다.

《뭐 사등뼈? 어디 이런 똥개야.》

팔목에 입목을 한자가 자기 패거리들에게 눈짓을 하더니 주먹을 빼들고 유락종을 향해 비호같이 날아들었다. 그 순간 유락종의 손이 망나니의 목대를 번개처럼 내리쳤다. 망나니는 캥- 하는 강아지소리를 지르며 모짜로 쓰러졌다. 이어서 유락종은 달려드는 두놈의 망나니들에게도 강한 손타격을 안겨 쓰러뜨렸다.

《격술을 하는 젊은이로군.》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었다. 녀학생들도 놀라운듯 눈이 울롱해서 자기들의 용맹한 구원자를 바라보았다. 5분도 안되는 사이에 망나니패거리를 요정낸 유락종은 같이 온 동무들에게 《가기요. 영화구경하러다가 기분나쁜 일만 생겼구만.》 하고는 큰길쪽으로 표연히 걸어갔다.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기림영화관앞에서 망나니들한테 행패를 당한 레의 그 얼굴말썹한 녀학생이 유락종의 합숙방에 찾아왔다.

알고보니 그 녀학생은 병기공장의 유명한 연공작업반장 김만수의 딸이었다.

《어젠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영화관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이마에 상처자리가 있고 격술을 했다는걸 보니 우리 공장의 선반작업반장 유락종이 아닌지 모르겠구나 하더군요. 그래 고맙다는 인사라도 올리자고 찾아왔는데 아버지의 짐작이 옳았군요.》 하고 김순옥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유락종을 몸으로 덮고 현장에서 순직한 후 평양제1녀자고급중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하고있던 순옥은 그길로 공장에 입직하여 처음에는 공장검사과에서 분석공으로, 그 얼마후에는 포탄검사원으로, 여기 수풍에 들어와서는 수류탄검사반장으로 일하고있다.

유락종은 김순옥이와 사귀는 과정에 그 집의 애국가풍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김만수아바이는 말할것 없고 합숙주방책임자인 순옥의 어머니 지금순 또한 모범적인 녀당원이었다. 그 집의 맏아들 김영옥은 바로 유락종한테서 절삭가공기술을 배운

로력혁신자였는데 지난해에 최영달간첩놈에게 희생되었다. 순옥의 남동생 김영식은 모범민청원이었다.

김만수아바이가 희생된 후 유락종과 김순옥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사랑이 움트게 되고 마침내는 서로 일생을 같이할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

유락종이 어느덧 주물작업장앞에 이르렀는데 산처럼 높이 쌓인 파철더미를 마주하고 서있는 세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당위원장과 지배인 그리고 지응모책임기사였다.

유락종의 기침소리를 듣고 그들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리었다.

《유동문 왜 나왔소? 오늘 얼음강판에서 제일 힘든 일을 했는데 일찍 누울게지... 래일 전투를 또 해야겠는데.》

현무광이 하는 말이였다.

유락종은 잠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시뚱이 서있다가 리백찬을 만나보고 나온 전말사연을 간추려 이야기하고 언짢게 반문하였다.

《내가 무엇때문에 죄인문책을 받듯이 그따위 자백서를 써야 합니까? 당위원회와도 토론이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유동무, 자백서를 쓰라는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당원들인가 하는 보증서를 쓰라는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소?》

유락종의 어깨에 손을 짚은 현무광의 검실한 눈이 용선로의 불빛을 받아 유난스레 번뜩거리였다. 그는 사법성 국장이 김만수와 김인호직장장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는것은 그들이 박홍근기사의 입당보증인들이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있던 지응모도 속이 뒤틀리는지 불쾌한 어조로 한마디 하였다.

《사법성 국장이란 사람이 좌익소아병에 걸린것 같습니다. 아마 박홍근기사에게 준 심문장 제1조항에는 이렇게 씌여있었을겁니다. <지응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쓰라!> 허허허.》

리환구지배인이 허구프게 웃고있는 지응모를 곱지 않은 눈으로 흘겨보았다.

《책임기사동문 거 무슨 쓸데없는 소릴 하면서 그러오? 말들을 좀 삼가하시오. 말들을... 유락종작업반장동무도 오늘 낮에 그게 무슨 인사불성이요. 대외기관의 간부동지가 우리 일을 도와주자고 힘든 걸음을 했는데 만나겠다 못 만나겠다... 뭘 믿고 그런 배짱들을 부리는지 모르겠거던. 이게 뭐 신국장이 자의대로 하는 일인줄 아는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고 우리 일에 관계하고있소. 내가 알고있기엔 고정한국장이 우리 공장에 유능한 범수사일군을 내려보내달라고 제기했다는것 같소.》

지배인은 그러면서 박홍근이를 간첩암해분자로까지 속단할수는 없지만 나쁜 놈의 손에 폭약이 들어가게 만든 그 하나의 죄과만으로도 무사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어질어빠진척 하면서 소죽은 귀신처럼 자기 고집만 쓰고 간부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고정한병기생산국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색깔이 다른 사람으로 보고있다는것이였다.

《되지도 않을 폭약과 철갑모연구를 집어치우라고 얼마나 말을 했는가? 로가 폭발했다면 어쩔번 했소? 우선 이 지배인의 목이 날아날거요. 이젠 그런 사람들이 막

땀소. 정말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고보면 역시 고정한국장의 눈이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지배인은 얼핏 당위원장을 스쳐보고 주머니에서 가치담배를 꺼내여 입에 물었다. 그러자 지응모가 또다시 불통스럽게 내뱉었다.

《그렇게 정확해서 방가놈한테 얼리워 넘어갔는가요?》

《지동무! 왜 자꾸 간질거려?》

리환구의 바른손이 격분에 떨리었다.

《동무 정말 이상하구만. 고정한국장하구는 한사코 해보고 킁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하구는 껴묻어돌아가고. 무슨 속심이요?》

《자, 자, 이젠 그만들 하시오. 왜들 그렇게 성이 나서 그러시오.》

현무광이 신경이 곤두선 두사람의 기분을 녹잡히느라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인차 정색을 짓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소. 무슨 교훈인가?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거요. 그렇다고 괜한 사람을 의심할 필요야 없지요. 간첩암해분자는 한두놈이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심해서야 되겠소? 물론 그 한두놈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각성없이 폭약을 관리한 박홍근동무에 대해 이미 당적으로 여러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위원장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보증하건대 박홍근, 럽민희는 당에 충실한 동무들이요.

유락중동무! 동무도 당적량심을 가지고 럽민희동무를 일단 보증한 이상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증해야 하오. 알겠소? 그게 조선로동당원이고 인간이요.》

현무광의 분노한듯 한 목소리는 유락종의 눈굽을 뜨겁게 하였다. 지배인은 한숨소리를 내며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군중이 각성하면 암해분자들이 준동하지 못합니다. 지배인동무도 마음놓으시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일합시다. 우에서 통보가 내려왔는데 그동안 사정에 의해 중단되었던 조선중앙방송을 인차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재진공을 시작한 우리 군대가 머지않아 평양을 해방하게 됩니다. 자, 저길 보시오. 공장직맹위원장이 방송을 듣게 하자고 전주대에 확성기를 달고있소.》

사람들은 당위원장이 가리키는 합숙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둠때문에 전주대도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다. 직맹위원장이란 바로 박홍근이와 유락종의 입당보증인인 포탄직장 직장장 김인호였다. 그는 무슨 일에서나 직접 자기가 손을 붙이고 이신작척하는 일꾼이었다.

《자, 그럼 얘기는 그만하고 래일 압록강에 나가 또 전투를 해야겠는데 이젠 들어가 눈을 붙입니다.》

현무광이 먼저 걸음을 뗐다. 그뒤로 세사람이 저마끔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걸어갔다.

(당위원장동지의 말이 옳아. 나는 칼날우에 올라서서도 당적량심을 버려서는 안된다.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박홍근, 럽민회동무들을 보증해야 한다.)

유락종의 결심은 한층더 굳어졌다.

7

압록강에 수장되어있던 철구조물들을 몽땅 끌어내는 데는 웅근 닻새가 걸리었다. 첫 이틀동안은 지배인이하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다 달라붙어 작업을 하였지만 사흘째부터는 20여명의 민청원들로 조를 무어 남은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다.

닻새만에 작업을 끝내고 얻어낸 과철량을 집계하여보니 무려 1 500여톤이나 되었다.

뜻하지 않게 생겨난 이 무진장한 과철예비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주었다. 게다가 이무렵에 더 정확히 말하면 12월 6일에 영용한 조선인민군대가 사랑하는 민주수도 평양을 해방하였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가 방송으로 울려나와 모든 일터가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합숙된 둔덕 전주대에 걸어놓은 확성기에서는 밤낮으로 조선중앙방송이 팡팡 울려나왔다.

요즘은 현무광당위원장도 노상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작업장들을 돌아보았다.

박홍근과 유락중한테서 수습장이나 되는 법문건들을 받아간 사법성의 신동식국장은 그후 웬일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잠잠하였다.

과철더미속에 누가 폭약을 집어넣었는가 하는 이 수수께끼는 조만간 쉬이 풀리지 못할것 같았다. 모두가 경각성을 높이고 경비를 강화해서인지 그후에는 반동들의 암해책동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아침도 일찌기 주물작업장으로 찾아가던 현무광은 누구인가 찾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교환수처녀가 할딱거리며 달려왔다.

《당위원장동지, 정일룡부상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빨리 고산진으로 가시랍니다.
장군님께서 부르신답니다.》

《뭐? 장군님께서!》

현무광의 눈이 둥그래졌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는 수풍으로 오는 길에
김일성동지의 친서를 받아보았지만 군자리를 떠난 이후에는 아직 한번도 그이를
만나뵈지 못하였다. 꿈결에도 뵈고싶은 장군님이시였다.

그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와 나들이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빗질을 하였다.
나들이옷이라야 색이 날은 곤색면직단긴옷이였다.

이때 조심스러운 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예, 들어오시오.》

이윽고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후방경리부의 도봉숙이였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보짐이 들려있었다.

《당위원장동지, 이걸 입으세요.》

봉숙은 보짐을 풀고 새까만 솜옷을 내놓았다.

《그건 웬 솜옷이요?》

《당위원장동지랑, 지배인동지랑 홉옷을 입고 다니시기에 몇벌 구했습니다. 접때는
리백찬부장동지가 속병이 심하다기에 겨우 한벌 구했었는데...》

살짝 눈웃음을 치며 말꼬리를 흐린 도봉숙은 산뜻한 풀색작업복을 입고있었다.
30대이라지만 몸매도 행동거지도 아직 20대의 젊은 녀성 같았다. 미국놈들의 폭격에
남편과 두 아이를 잃고 독신생활을 하고있다는 이 녀인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발긋한 닭알형의 얼굴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밝고 따뜻한 웃음이 누구에게나 친절감을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더우기 사람들을 탄복시키는것은 이 녀자의 이악스러운 일본새였다. 이 녀자가 일단 결심하면 못 구해오는 물건이 없었다.

현무광은 촌촌히 누빈 솜옷을 만져보았다.

《이 솜옷은 어디서 구했소?》

《사실은 구해온게 아니라 저에게 있던 천과 솜을 가지고 만든겁니다. 리백찬부장의 솜옷도 제가 바느질을 한건데 변변치 못합니다.》

《그렇소? 정성스레 잘 만들었소.》

현무광은 갈길이 바빠 서두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솜옷을 입을수 없소. 내가 후퇴조직사업을 잘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동무들이 홑옷을 입고 떨고있는데 당위원장이 혼자서 솜옷을 입고다니면 되겠소? 지배인도 이 솜옷을 입자고 하지 않을게요. 이 솜옷은 리백찬동무처럼 속병이 있는 동무들에게 줍시다.》

현무광은 솜옷을 사양하고 밖으로 나왔다. 서운한듯이 솜옷보자기를 들고 따라나온 도봉숙은 그냥 떠나지 않고 머뭇머뭇하다가 《당위원장동지, 제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소녀처럼 도두룩히 입술을 내밀며 몸을 꼬았다.

《뭐요? 어서 말하오.》

현무광은 또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절 후방경리부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한곳에 앉아 일하고 싶습니다. 례하면 교환수와 같은 자리에서... 교환수로 돌려주십시오.》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요?》

현무광이 의아해하였다. 지배인이 사방 뛰어다니며 사업을 해서 도봉숙을 끌어다놓은것은 바로 그에게 후방경리사업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아무 소리없이 일을 잘해오던 녀자가 느닷없이 후방경리사업을 그만두고 교환수일을 하겠다니 리해가 되지 않았던것이다.

《후방경리부에 있고싶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알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자리가 그전에 방무어라는 간첩놈이 일하던 자리라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막 무섭고 꺼름해서 꿈자리가 다 사나와집니다. 어제 밤에는 박홍근기사가 시퍼런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악몽을 꾸다가 깨여났습니다.》

《허허허... 그래서 자리를 옮겨달라는거요?》

부서를 옮기겠다는 리유가 그러루한 심리적불안때문이라면 잘 설복해서 그의 마음을 안착시켜야 했다. 더우기 중요비밀들이 통화되는 병기공장의 교환수자리는 경솔하게 아무 사람이나 앉힐 자리가 아니었다.

《봉숙동무의 신경이 좀 예민해진것 같은데 마음을 꼭 놓소. 한줌도 못되는 나쁜 놈들이 이제 더는 우리를 어찌지 못하오. 그리고 박홍근동문 아주 좋은 사람이요. 나는 그와 5년동안 같이 일했소.》

《하긴 사법성 신국장도 당위원장동지가 목숨을 걸고 그를 보증한다는 말을 듣고 심사숙고하는것 같습니다. 실은 신국장동지가 저의 외숙부벌되는분입니다. 그래서 박헌영부수상동지랑 리승엽동지랑 저를 혈육처럼 돌봐줍니다.》

《그렇소?》

그것은 현무광이 처음 듣는 소리였다. 도봉숙의 발갛하게 상기된 얼굴에서 떠도는 웃음에는 나는 이처럼 큰 간부들의 후광을 받고있는 녀자랍니다하는 자긍심이 비쳐있는듯 했다. 하지만 그 야릇한 표정으로 하여 도봉숙에 대한 현무광의 인상은 오히려 나빠졌다.

현무광은 더 긴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바람부는 뒤산 언덕길로 총총히 걸어가는 현무광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도봉숙의 눈에는 평시와는 다른,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다.



현무광은 오후 첫 시간에 정일룡이와 함께 고산진 립성골 정승하로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가슴은 바다의 파도를 안은듯 견잡을수없이 설레이었다.

수수한 농가의 노전바닥에 앉아 무슨 물건인가를 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 부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서는 정일룡, 현무광을 띄여보고 움쭉 일어서시였다.

《이게 누구요. 현무광이 왔구만. 자, 여기 앉소. 앉으라구...》

오매에도 그림던 **김일성**동지를 뵈옵는 현무광은 감격이 북받쳐올라 인사의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눈굽을 적시며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무광을 따듯한 아래목에 자리를 권하며 멍들고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보고 또 보시였다.

《몹시 얼굴이 상했구만. 고생을 많이 했지? 동무들에 대한 이야길 다 들었소. 동무네들이 얼음구멍에 들어가 파철을 꼬집어냈다는 말도 들었소. 얼마나들 추웠겠소. 아직도 여름옷을 입은 동무들이 많다던데...》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밖에서 웅웅 소리를 치며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여겨들으시며 현무광의 툭툭 부어오른 손을 쓸어만지시었다. 그 부어오른 상처가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고 결사전을 벌린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간난신고를 련상시켜 그이의 가슴이 저미는듯 아프고 쓰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시었다. 그들에게 얼마든지 두툼한 솜옷을 입힐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한 간부의 무책임성이 그런 엄청난 후과를 빚어냈다.

문밖에서 바람소리만 일어나도 추운 겨울에 홑옷을 입고 일하는 병기공장 전투원들때문에 가슴이 조여들군 하던 그이이시었다.

그러나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그 고난을 이겨냈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수많은 수류탄과 무기를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11월 17일 바로 이 방에서 최현을 만나신 일을 생각하시었다. 최현은 군자리에서 750정의 기관단총을 만든거며 아무것도 없는 압록강반의 얼음강판에서 수류탄을 생산한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리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수류탄 한개로 원쑤 백놈, 천놈을 죽여버리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였다. 그로부터 정확히 19일만에 우리 군대가 평양을 해방하였다.

그이께서는 현무광의 손을 그냥 끌어만지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애무가 억대우같은 사나이의 마음을 더욱 격하게 만드는지 현무광의 눈에서는 비오듯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았던 당위원장이 오죽하면 저러라싶어 그이께서도 눈물을 머금으시였다.

《현무광동무, 이제 그만하오. 동무가 그러니 내 마음도 좋지 않구만.》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 너무 기뻐서 그러합니다. 그리구 장군님을 속태워드린 일이…》

현무광은 그제야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다.

《동무가 무얼 속태운게 있소. 물론 병기국장의 건의서를 받고 다소 걱정도 하고 전쟁전에는 지배인을 존경하던 당위원장이 왜 새로 온 지배인한테는 그러지 못하는가, 왜 호홉이 맞지 않는가고 의문도 가졌됐지만 난 믿었소. 내 편질 받으면 모든 일을 바로잡을거라고, 고칠것이라고… 현무광의 본바탕이야 어디 가겠는가. 사실 동무들이 일을 많이 했소. 모두 고생들을 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는가. 평양이 해방된건 다 알고있겠지?》

《예,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현무광은 평양해방소식을 온 나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리상벽방송원이 분망히 뛰어다닌 사실도 알고있었다. 방송을 하자면 개시음악을 내보내야겠는데 그때 리상벽에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수록한 개시음악원판이 없었다. 바로 이날을 예견하여 김책은 자강도의 전기를 살려냈지만 방송개시음악원판이 없어 리상벽은

얼굴이 새까매서 돌아왔다. 더는 어쩔수 없게 되어 리상벽은 친위중대성원들과 최고사령부 교환수들을 동원시켜 개시음악을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합창대를 못하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와 전기사정으로 하여 중단되었던 조선중앙방송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 그때 노래를 지휘한 리상벽도 울고 노래를 부르는 비전문합창단 성원들도 울어서 노래가 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울면서 서툴게 부른 무반주합창의 그 생방노래가 청취자들에게 준 충격은 대단히 컸다.

《김책부수상이 전기를 런결시키고 방송을 살려내기 위해 수골 많이 했습니다. 그는 동무들이 만든 권총을 늘 차고다니었는데 그걸 전기관리국 기사장에게 주면서 이긴 장군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나라에서 만든 권총이다, 이걸 가지고 적구에 뚫고들어가 자강도에 전기를 런결시키라고 명령했소. 동무들이 쓰는 전기는 바로 그런 전기요. 동무들이 만든 권총이 자강땅에 전기를 가져다주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정에 매달려있는 60축 전등알을 의미심장히 올려다보시었다. 정일룡이와 현무광도 숭엄한 표정들을 하고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전등알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전기가 있으니 동무들이 외진 소개지에 와서도 수류탄을 많이 생산할수 있었소. 수류탄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수류탄공장들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크게 일떠세울 생각이요. 오늘 동무들을 부른것은 수류탄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병기공장 종업원전원에게 솜옷을 공급할수 있게 된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이께서는 이제야 발편잠을 자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빨리 솜옷을 입히자고 하시였다.

《장군님!》

현무광은 감격하고 죄송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사실 우리는 동무들이 수풍에 도착하면 곧 솜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먹으면서 일할수 있게 하자고 했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소. 우리는 이 문제를 사건화하고 엄격히 총화했소. 우리 일군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상기시키자고 하오.》

현무광은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송구스러이 앉아있었다.

병기공장 노동자들이 여름옷을 입고 고생한데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것이다. 후방물자운반을 병기생산국에서 맡았다 해도 공장당위원장으로서는 응당 그 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아야 했을것이였다. 지웅모네 결사대원들이 식량고생을 하게 된것도 그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지 않은 당위원장의 무책임성과도 관계되어있다고 생각하였다. 가장 큰 실책은 간첩암해분자들의 준동을 예견하지 못한것이였다.

문득 현무광은 평천리에서 당위원장사업을 갓 시작하였을 때의 일이 상기되였다. 그가 며칠동안 사무실에 들어박혀 당회의준비를 하고있던 어느날 밤 불시에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오시여 총신작업반장이 앓고있다는데 찾아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현무광은 요즘 회의준비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당조직사업이 복잡하게 제기되어 가보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신채 잠시 묵묵히 서계시다가 《현무광동무, 당사업이란게 무엇이요? 앓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머리로 짚어주면서 집에 먹을것, 빨것은 제대로 있는가도 알아보고 병을 이겨내도록 힘이 되는 고무적인 말도 해주는게 바로 제일 중요한 당사업이요. 앓고있는 작업반장의 집에도 안 가보고 어떻게 당회의보고서를 제대로 쓸수 있겠소.》 하고 엄하게 타이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한결음한결음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당위원장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장군님, 제가 일을 쓰게 못하여 장군님께서 안하실 걱정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좋소. 교훈으로 삼고 귀중한 노동자들을 친혈육처럼 돌봐줍시다. 그런 점에서는 김책부수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숨옷은 비단 병기공장 노동자들뿐아니라 전체 군인들과 당을 따라 소개지로 온 모든 노동자, 사무원, 지식인들에게 다 공급하여야 했다. 몇백만벌의 숨옷이 필요하였다.

《김책부수상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전기도 해결하고 숨옷도 해결했습니다. 남다른 재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군대와 노동계급에 대한 사랑, 인간애, 인민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것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일룡이와 현무광은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또박또박 수첩에 적어나갔다.

《참 현무광동무, 이번에 수풍에 온 공장가족들중에 해산한 아주머니들이 있지요? 부상동문 그걸 알고있소?》

김일성동지께서 정일룡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그는 넉가래처럼 크고 넓적한 손을 무릎에 얹어놓은채 머뭇거리였다. 그는 모르고있었다.

《세 아이가 태어났소. 그중 두 아이는 쌍둥이요. 내가 후방총국에 미역과 산골을 부탁해놓았는데 솜옷을 가지고 갈 때 그것도 받아가지고 가시오. 이왕 이렇게 모인 기회에 병기공장을 더 확장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벽아래 놓여있는 나무궤에서 지도첩을 꺼내시였다. 몇겹으로 접은 지형도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해방직후 동무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 병기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기관단총을 비롯하여 각종 포들과 여러가지 군사장비들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병기공장은 여러가지 불리한 정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를 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기간에 우리의 병기공업은 쇠퇴몰락한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보다싶이 이렇게 각종 병기공장들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자, 이 지형도를 보시오.》

등고선들이 조밀하게 그려진 지형도에는 신설된 병기공장들이 표시되어있었다.

《평양이 해방되었으니 머지않아 모체병기공장인 군자리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군자리로 가되 여기에 새끼친 공장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빈몸으로 나가면 됩니다.

전쟁기간에 병기공업부문 일군들과 기능공들이 많이 자랐고 설비들도 보충되고 갱신되었으며 총제조경험이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자리병기공장을 모체로 하여 병기공업을 확대발전시키며 전국도처에 병기공업을 일떠세우자는 구호를 내걸 때가 되었습니다. 자립적국방공업은 나라의 명맥이요!》

힘주어 말씀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 한장의 도면을 펼쳐놓으시였다. 그것은 군자리병기공장의 평면구조도였다.

《이 군자리병기공장의 현존직장들을 모두 폐내여 독립공장으로 발전시킵시다. 기관단총생산직장은 저격무기공장으로, 박격포생산직장은 독립적인 포생산공장으로, 포공장들도 76밀리, 82밀리, 120밀리 등으로 세분하여 독립공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포탄생산공장도 역시 대규모적인 포탄공장으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수류탄공장, 각종 화약을 생산하는 전문화약공장도 크게 일떠세워야 합니다. 동서해안의 조선소, 자동차공장, 장갑차공장들은 따로 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병기공장들을 실속있게 건설하자면 반드시 병기연구소들을 새로 꾸려야 합니다. 부문별에 따르는 각종 연구소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병기과학연구소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꾸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기생산공정을 보면 생산에 앞서 병기과학연구소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중간공장을 통하여 그 질이 담보된 조건에서 병기생산공장에 넘겨 제품생산을 진행하게 되어있다. 자본주의나라들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있고 사회주의나라인 소련도 예외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병기연구사업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소와 공장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방법으로 병기과학기술을 생산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을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발전된 나라를 따라앞서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군자리병기공장안에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공장대학도 꾸려볼 생각입니다. 대학도 연구소도 다 공장과 밀착시키자는거요.》

정일룡과 현무광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황홀한 심정으로 한마디한마디 심장에 새겨놓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형도를 아래우 량옆으로 여러장 이어놓으시고 거기에 새겨진 표식부호들을 짚어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형태의 표식점들을 가리키시였다. 그것은 앞으로 저격무기공장을 세울 자리라고 하시였고 《X》표식은 포공장의 표식이라고 하시였으며 《ㅎ》는 화학공장, 《口》는 수류탄공장, 《ㅈ》은 총탄공장, 《ㅅ》는 신관공장, 배표식은 함선건조공장, 비행기표식은 비행기수리공장, 건물표식은 병기연구소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도에서 《표》표식을 한 지점을 가리키시였다. 그것은 일제놈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다가 내버리고간 수로굴이 있는 곳이었다. 그이께서는 그 자리를 잘 조사해보고 거기에 포탄공장을 놓자고 하시였다. 전선형편이 긴장하지만 지하공장을 빨리 건설하기 위해 군인들을 붙이겠다고 하시였다.

《그러니 동무들은 빨리 수로굴조사대를 조직하여 현지에 보내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하지만 병기공장은 모두 지하에 넣어야 합니다. 든든히 산속에 두더지처럼 굴을 파고 들어가면 놈들이 어찌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현무광은 북반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있었다. 그이의 선견지명과 현명성에 탄복하기에 앞서 조국해방전쟁을 지휘하시는 그 바쁘고 긴장한 속에서 병기공업발전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어느 사이에 다 종합하고 확인하여 하나의 완결된 정책적로선으로 정립하셨는지 그 작업량의 방대성에 놀라고있었다. 월미도전투가 있는

후에 그이께서 착상하신 그 방대한 설계도가 불과 두석달사이에 실천단계에 오르고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간 사이를 두시였다가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민을 이겨낼수 없습니다. 인천상륙을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대비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졌던 맥아더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야말것입니다. 지금 미8군은 서부에 그리고 미10군단은 동부에 배치되어 서로 멀리 떨어져있고 놈들의 측면은 완전히 아군에게 노출되어있습니다. 10군단은 3개 중대로 나누어 북부산악지대로 들어가고있고 8군 역시 여러개의 중대로 분할되어 횡적인 연계는 거의 무시된채 넓은 전선에 널려있습니다. 익측이 무시되고 종적으로만 살아있는 대형이 어떻게 제구실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놈들은 황초령과 개천에서 거의 전멸될것이며 장진호반에 갇혀온 놈들은 저절로 얼어 죽을것ियो. 나머지 퇴각하는 놈들은 최현의 2전선부대에 걸려들어 깨끗이 소멸될것입니다. 이것이 맥아더가 인천상륙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움직임을 환히 내다보시며 호호탕탕히 말씀을 이어가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랭소와 같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조선을 잘 모르고 접어들었소. 전쟁을 해보고야 정신을 차리고 병력수와 무기를 기껏 늘이고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전쟁에서 기본은 군인의 정신ियो. 병기생산자들도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오. 첫째가 사람이고 그다음에 총ियो. 무장대비에서 적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맥을 못 추는것은 바로 그때문ियो. 이제 우리가 병기과학기술과 병기공업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범에 날개가 돋힌 격이 되여

놈들을 단숨에 요정낼수 있소. 우리는 앞으로 일반상용무기로부터 현대적인 무장장비에 이르기까지 다 갖추고 우리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 그 어떤 놈들도 감히 접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소련, 미국이 가지고있는 방사포를 비롯한 현대적인 미싸일과 로케트도 생산하여야 합니다.》

정일룡과 현무광은 민족적공지와 승리의 신심에 넘쳐 가슴을 들먹거리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첩에 유난히 뚜렷하게 적어놓은 《자립적국방공업은 나라의 명맥이요!》라는 글자를 다시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민족의 뼈저린 망국사에서 찾아내신 교훈이고 진리였다.

《동무들, 우리는 이제 조선전쟁에서 수치를 당하는 미제의 물골을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줄거요. 세계는 이제 우리 인민을 영웅인민이라고 부르게 될것입니다. 동무들은 솜옷을 신고가서 병기공장 로동계급에게 그것을 말해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더욱 힘을 얻고 무기생산에 분발할것입니다. 수류탄생산을 계속하는 한편 군자리로 나갈 준비를 미리미리 하여야 하겠소. 그리고 수로굴조사대를 당장 파견하고 두 동무가 다 강제로 나와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 참가하여야 하겠습니까. 제기할것이 있으면 말하시요.》

김일성동지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다 하신듯 두 일군을 정겹게 지켜보시였다. 현무광이 머뭇머뭇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일전에 장군님의 친서를 받고 류일룡동무에 대한 조직문제를 보자고 했는데 그 동무가 가족대렬을 인솔하고 수풍으로 가는 동안 자기반성을 많이 하고 저... 한명의 락오자도 한건의 사고도 없이 저...》

《허허허… 왜 그렇게 갑자르오? 류일룡동무의 조직문제를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거지요? 내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하면 됩니다. 당원대중의 의견을 받아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이때 문득 문밖에서 왈랑절랑하는 소방울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부관이 들어와 리당위원장이 솜옷을 실은 발구스무채를 끌고왔다고 보고올리였다. 그리고 후방총국에서 산모에게 보낼 미역, 산꿀, 닭알 등을 꾸린 지함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현무광동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따라가시오.》

김일성동지께서 밝은 웃음을 지으며 일어서시였다.

8

압록강의 눈바람은 세찼다. 높고 험한 산줄기를 타고넘어오는 하늬바람에 뽀얀 연보라빛눈보라가 뭉실뭉실하니 통구리를 지어 몰려왔다.

《애앵앵!》 하고 눈보라는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얼어든 허공으로 백룡처럼 치달아오르기도 하고 먹이를 본 날개달린 괴물마냥 꼬리를 저으며 무섭게 내리쫓지기도 하였다.

수천벌의 솜옷을 실은 20여채의 소발구가 주먹덩이같은 눈덩이를 날리는 폭풍속을 뚫고 억척같이 전진하였다. 그 일행속에 정일룡이와 현무광이도 있었다.

《당위원장동문 장군님을 처음 만나뵈온것이 언제요?》

밭구에 가득 실은 보위색솜옷을 생각깊이 바라보며 눈보라속을 헤쳐가던 정일룡이 현무광에게 묻는 말이었다.

《1947년 가을이지요. 성진제강소를 현지도하시는 장군님께 해방전 술한 조선로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원철로에 대하여 설명해드린 사람이 이 현무광입니다.》

《그렇구만. 나는 해방직후 문평제련소마당에서 보초를 서고있다가 뜻밖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웠소.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공장기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를 못하고 일상적으로 보초를 서고있다고 하자 참 좋은 동무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 태생인가, 해방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고 일일이 물으시였소.》

정일룡은 해방전 금야에서 태어나 12살때부터 흥남제련소에서 고역을 치르던 일이며 19살때 **김일성**장군 유격대를 찾아가려고 방향도 모르고 헤매이다가 함남도 지하조직에 들어 반일투쟁을 하는 과정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문을 받은 일이며 출옥후 문평제련소에 와서 고된 로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사실을 죄다 말씀올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생을 많이 한 로동계급이라고,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니 일을 잘해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정일룡은 그후 3달만에 제련소를 복구하고 첫 쇠물을 뽑아내여 그이께 기쁨을 드리였고 얼마 지나서 그이의 사랑으로 내각간부학교 (오늘의 인민경제대학전신)를 1기생으로 졸업하고 문평제련소 지배인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지배인이 된 이후 나는 회의장에서는 장군님을 여러번 뵈웠지만 그이를 몸가까이에서 단독접견을 받은것은 1947년이요. 장군님의 저택에서 만나뵈웠소. 그때

김정숙녀사도 처음 뵈웠소. 오늘 대, 중, 소 이렇게 규격별로 만든 솜옷을 보니 그때의 일이 자꾸 생각나서 하는 말이요.》

정일룡은 눈보라 휘몰아치는 아득한 공간을 올려다보며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었다....

1947년 여름 어느날 당시 문평제련소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던 정일룡은 평양으로 올라오라는 지령을 받고 평양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차에 오르고보니 옷주제가 말이 아니었다. 작업복차림 그대로였고 신발도 현장에서 신고다니던 낡아빠진 로동화를 그대로 신고 올랐었다. 집에 새옷 한벌, 신발 한켄레 온전한것이 없었던 그는 그대로 차에 올랐던것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대기실로 찾아가라는 지령을 받은 그는 그 꼴을 하고 갈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어느 역에서 무작정 뛰어내렸다. 내리고보니 고원역이었다.

우선 신발을 파는 상점에 들리였으나 자그마한 군소재지인 고원읍에는 자기가 신을만한 신발이 없었다. 그가 옷 한벌, 신발 한켄레 변변한것이 없는것은 결코 가난해서가 아니라 남달리 체격이 우람지고 발이 커서 그에게 맞는 옷과 신발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고원읍에 있는 상점이란 상점을 다 돌아보고도 종시 맞춤형 신발을 구하지 못한 그는 처음에 들렸던 역전상점을 다시 찾아갔다. 있는대로 신발을 꺼내들고 이리저리 훑어보던 정일룡은 그중 제일 큰 신발 한켄레를 들고 발을 넣어보았다. 역시 어렵도 없었다.

일룡은 하는수없이 그것이라도 샀다. 그리고 손칼을 꺼내여 뒤축을 쪽 찌머리니 발이 쪽 들어갔다. 신발을 파는 판매원이 눈이 둥그래서 정일룡을 쳐다보았다. 정일룡은 그것으로 만족하여 신값을 치르고 상점문을 나섰다.

다음은 옷이 문제였다. 고원읍에도 9척장신인 그의 몸에 맞는 양복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전당포에 들러 옷 한벌을 겨우 골랐는데 품이 좁기는 해도 그런대로 대충 걸칠수 있을것 같아 값을 치르고 역기다림칸으로 갔다 다음차를 타자면 아직 한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때에야 정일룡은 제정한 시간에 평양에 도착할수 없다는 생각에 몹시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아니나다를가 그가 인민위원회에 도착하자 성이 머리꼭뒤까지 오른 산업국장이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욕을 해댔다.

《장군님께서 점심도 못 드시고 동물 기다리시다 못해 택으로 가셨소. 지배인동무가 오면 즉시 택으로 보내라고 하셨으니 대기차를 타고 빨리 가오. 운전사가 기다리고있소.》

이렇게 되어 그는 저택으로 가서 장군님을 뵈옵게 되었다. 그이께서 마침 현관문앞에 나와서 정일룡을 기다리시던 참이었다.

정일룡은 장군님앞에 넋적 엎드려 큰절을 올리였다.

《장군님! 제 무엄하게도 시간을 어겼습니다.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잡아일으키며 무슨 죄를 졌다고 오자마자 처벌해달라고 하느냐며 크게 웃으시였다.

《정동무가 분명 차를 놓친것 같아 차시간표를 보니 낮 1시경에 도착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동무가 도착하면 보내라고 했습니다. 욕을 하자고 부른게 아닙니다.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이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흰적삼에 까만 치마를 받쳐입으시고 행주치마를 간편하게 두르신 김정숙녀사께서 시원한 랭수 한그릇을 들고 들어오시였다.

《일룡동무, 김정숙동무요. 나와는 구면이지만 정숙동무는 처음일거요.》

김일성동지의 말씀에 정일룡은 벌떡 일어나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깊이 꺾으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녀사님, 녀성의 몸으로 백두산에서 풍찬로숙하며 왜놈들과 싸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허우대가 큰 사람이 왜정때는 물론이고 해방된 땅에서조차 구실을 못하고 덧없이 세월을 보내고있으니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따뜻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지배인동무, 그러지 마세요. 장군님께서는 문평제련소 지배인이 일제시기 고생을 많이 한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일을 잘한다고 자주 외우십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 국사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일룡은 송구스러워 거북스럽게 하고 앉아있었다.

녀사께서는 불편스레 앉아있는 정일룡에게 제집에 온것처럼 마음을 폭 놓고 담배랑 태우며 편안히 앉아있으라 이르시고는 《장군님, 손님이 기차길에 시장하겠는데 제격 점심상을 차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올리고 돌아서 나가시였다.

잠시후 상이 들어오고 음식들이 쟁겨졌다. 점심식사는 소박하였다. 문천집에서 식사하던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쌀밥 두그릇, 통배추김치, 건텐이가 담긴 종지그릇, 부루, 쪽갓, 파접시, 터밭에서 금방 따온 풋고추가 담긴 접시가 전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일룡에게 수저를 쥐여주시였으나 그는 쉽게 수저를 놓릴수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가슴속에 가득히 고여오른 감격과 죄송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잦아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살아나 자꾸만 눈앞을 뿌옇게 해주었기때문이었다. 그러는데 김정숙녀사께서 오지그릇이 담긴 나무쟁반을 들고 들어오시여 장군님과 정일룡의 앞에 정히 놓아주시였다.

《송어탕인데 맛을 보십시오. 지배인동무가 온다기에 누구에게 부탁했더니 어제 대동강에서 잡았다는 송어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산에서 장군님한테서 대동강송어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 손으로 만들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장군님,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녀사께서는 김일성동지께 송어탕을 끓인 공정을 말씀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송어탕은 그렇게 찬물에 넣고 끓여야지 더운물에 넣고 끓이면 제맛이 안 납니다. 허허허... 지배인동무, 약소한대로 달게 드시오.》

김일성동지께서 음식을 권하시였으나 정일룡은 목이 짹 메여 상을 마주한채 그냥 앉아만 있었다.

(이 정일룡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귀빈이나 맞이한것처럼 이렇게 정성을 다해 점심상을 차리셨단 말인가.)

《일룡동무, 왜 그러고 앉아있소. 어서 드시오. 손님이 밥을 많이 들어야 주인의 마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정일룡은 그제야 수저를 들었다. 사실 어지간히 시장도 했지만 장군님과 녀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는 사양하지 않고 밥그릇과 국그릇을 말끔히 비웠다.

상을 물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제련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오늘 중요공장 지배인들을 부른것은 일부 공장 간부들이 노동자들을 잘 돌보지 않고 일제시기 공장주처럼 관료주의를 부리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 간부들중에는 노동자, 농민출신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속에도 노동자, 농민들과 간격을 두고 벼슬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며 무거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무리 청렴하고 결백하던 사람도 간부가 된것을 벼슬자리로 생각하면서 사상수양을 하지 않으면 군중의 지배자로 변질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간부는 과거급제를 해서 벼슬자리를 얻은 관료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부라는 말보다도 일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자고 생각합니다. 간부는 곧 일군입니다. 이 관점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변학도가 될수 있습니다.

정일룡동무도 해방후에 제련소를 책임진 일군으로 된 노동계급출신의 지배인인데 내 말이 리해됩니까?》

정일룡은 얼굴이 확 달아올라 고개를 수그리었다. 그는 지배인이 된 이후 어째서인지 일제시기 노동관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고있었다.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가에서 만나도 서먹서먹해하였다. 정일룡은 그이께 이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옛날의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는걸 보니 저도 뭔가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하고 더수기를 굵적거리었다.

《지배인이 노동자들과 간격을 두고 틀을 차리면 안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직명이 지배인이라고 해서 진짜 남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배인과 노동자들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공장일이 잘될수 없습니다. 제련소는 우리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라에서 병기공업을 발전시키자고 해도 제련소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는 동무가 앞으로 노동계급출신의 일군답게 당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조선과 중국의 고사들을 많이 들려주시었다. 그것은 지난날 봉건통치와 벼슬아치들의 전횡으로 하여 나라의 발전이 억제당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된 가슴아픈 이야기들이었다. 정일룡은 어찌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시간을 내어 그런 고사를 들려주시는지 잘 알고있었다.

이날 김일성동지의 저택을 나설 때 정일룡은 작별인사를 드리려 김정숙녀사를 찾아갔다. 그때 녀사께서는 나어린 경위대원을 앉혀놓고 옷을 재단하고계시었다. 정일룡은 녀사께 작별인사를 올리러 왔다고 하면서 옷 같은것은 양복점에 맡기면 되겠는데 어째서 경위대원의 옷까지 손수 지어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자 녀사께서는 군복을 입고 앉아있는 경위대원을 가리키며 말씀하시었다.

《며칠후 이 정호동무가 소련에 류학을 갑니다. 양복점에 맡길수도 있지만 내 손으로 옷을 지어 입혀보내고싶어 천을 마르고있습니다. 우리 정호동무의 할아버지는 전봉준농민군에서 싸우다가 왜놈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독립군에서 활약하다가 희생됐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늘 정호의 가정래력은 곧 일제의 총검에 의해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생활의 축소라고 하셨습니다.》

정일룡은 새삼스레 젊은 경위대원을 여겨보았다.

《녀사께서 손수 옷까지 지어주시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겠소. 소련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자고 하오?》

《전 원래 철학을 전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하고 전정호는 어줍게 녀사를 돌아보았다.

정일룡은 젊은 경위대원이 김정숙녀사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또 놀랐다. 전정호의 말과 태도에는 조그마한 가식도 없었다.

《예, 우리 정호동무가 철학을 전공하겠다는걸 내가...》

녀사께서는 철학은 우리 나라에서도 공부할수 있지 않는가, 썩어빠진 봉건통치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하여 우리 나라는 공학부문이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다고 하시였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자금이 부족하지만 해방직후부터 중학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골라서 류학을 보내는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시였다.

《우리 정호동무는 사립소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습으로 중학교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호가 학구욕도 있고 침착하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왜놈들의 총에 맞아 숨진 애국자들이기때문에 병기기술자로 키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호에게 금속을 전공하라고 했습니다. 금속을 모르고는 병기기술자가 될수 없으니까요.》

전정호는 우랄공업대학에 간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스웨르들롭스크에 있는 이 대학은 력사가 오랜데 특히 야금학부가 유명하다는것이였다.

정일룡은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한 경위대원의 장래를 사려깊이 보살피시는 녀사의 응심깊은 사랑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정일룡에게 있어서 더 충격적인 일은 그가 평양에서 일을 다 보고 떠나기 전날 밤에 있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산업국장이 지함 하나를 들고 정일룡이를 찾아왔다.

《지배인동무,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지함이요.》

그 지함에는 정일룡이 장군님댁에 왔을 때 현관에 벗어놓은 그의 신발을 보시고 김정숙녀사께서 신발공장에 주문하여 만든 구두가 있다고 하였다. 양복도 한벌 들어있는데 그것 역시 정일룡이 입고있는 옷이 남의 옷을 빌려입고온것 같아 녀사께서 피복공장에 긴급으로 주문하시여 지은것이라고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동무의 옷과 신발을 보고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하셨소.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많은 공장들이 생산계획수자를 올리기 위하여 제품을 규격별로 생산하지 않고 손쉽게 하나의 규격으로 생산하고있다는것이요.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인민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있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제품생산에서 이런 폐단이 나타나는것은 공장간부들의 사상관점과 많이 관련되어있다고 하시였소.

때문에 산업국에서는 앞으로 계획수행정형을 총화할 때 반드시 규격별로, 지표별로 따지려고 합니다. 액상계획수행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적인 생산을 갖 시작하고있던 때였다...

이것이 3년전에 있는 일이었다. 정일룡은 김정숙녀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미여지는데 하였다. 녀사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안계시였다. 하여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충실한 동지, 가장 유능한 보좌일군을 잃으신채 조국해방전쟁을 령도하고계시였다. 지금 녀사께서 계신다면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는가.

정일룡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현무광동무, 장군님께서는 전시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맞는 솜옷을 입을수 있도록 해주셨소. 솜옷을 규격별로 만들었던말이요. 병기공장동무들이 장군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성대한 행사를 조직합시다.》

《부상동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여채의 솜옷발구는 깊은 밤에 수풍에 도착하였다.

한밤중이었으나 현무광은 종업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솜옷에 깃든 사연을 전하고 즉시 직장별로 솜옷을 공급하게 하였다.

공장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일식으로 솜옷을 받아안아 병기공장합숙은 감격과 기쁨으로 끓어번졌다.

솜옷을 입고 너무 기빠 경충경충 뛰어다니는 젊은이들, 눈물을 머금은채 병실거리는 나이많은 노동자들, 감격이 극하여 솟제 흐느껴우는 녀인들... 특히 솜옷에 산꿀병과 미역지함까지 받아안은 산모들은 어린애들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고 일하는 병기공장사람들때문에 장군님께서 어느 하루도 발편잠 못주무시고 밖에서 바람소리만 일어도 수풍쪽을 바라보곤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는 누구라없이 오열하며 말하였다. 우리 장군님같은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으라고.

한편 병기공장 문필가인 신문주필은 김일성동지께 드릴 종업원들의 감사의 편지를 쓰느라 밤새껏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지었다. 종업원들의 고마운 심정과 감격을 표현할 말을 고르지 못해서였다. 일껏 쓴 종이를 내버린것이 수십장이였고 사람들이 밀려와서 이것을 쓰라, 이 말을 넣으라 하고 저마끔 내놓는 문구들을 적어놓은 종이가 또한 이십여장이나 되었다. 그는 온밤을 새워 글을 모으고 다듬어서 아홉장짜리 편지를 완성하였다. 물론 그것도 성차지 않은 편지였으나 종업원결의모임의 시간이 박두하여 어쩔수없이 당위원회에 가지고갔다.

편지를 읽어본 당위원장도 불만스러운듯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그러나 《장군님의 사랑이 뜸마다 스며있는 이 솜옷은 그 어떤 설한풍도 그 어떤 총탄도 다 막아주는 사랑의 호신복, 철의 갑옷이 되어 우리들의 몸을 따뜻이 감싸주고 튼튼히 보호해줄것입니다.》라는 표현은 괜찮다고 하였다.

종업원들의 결의모임은 아침 정각 10시에 수천명 보위색솜옷대렬이 모여선 압록강기슭에서 진행되었다. 이날도 설한풍이 사납게 휘몰아쳤으나 햇숨을 넣고 촘촘히

누빈 솜옷을 입은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뜨거운 장군님의 사랑에 온몸이 후더워져 전혀 추위를 느낄수 없었다. 그이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에 써여있는 그대로 그 어떤 설한풍도 다 막아주는 사랑의 솜옷이었다.

결의모임이 있는 다음 병기공장 부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일룡부상이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립적국방공업이 나라의 명맥이라고 하시면서 병기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군자리병기공장의 모든 직장들을 독립적인 병기공장으로 확대발전시킬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포탄생산직장은 포탄공장으로, 박격포직장, 총탄직장, 기관단총직장, 수류탄직장모두가 독립적인 전문공장으로 발족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 병기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장군님의 신임에 의하여 동무들과 수류탄을 같이 생산한 병기생산국 상급지도원 한성룡동무가 새로 발족하는 포탄공장 기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사장동무는 이제 곧 포탄공장으로 선발대를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한성룡동무, 앞으로 나오시오.》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있던 한성룡은 영문을 모른채 정일룡의 앞으로 걸어나갔다. 정일룡은 서류가방에서 **김일성**동지의존함이 모셔진 신임장을 한성룡에게 안겨주었다.

지응모, 유락중, 류일룡, 김인호, 동력부장, 공무부장 등 모임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이 열렬한 박수로 한성룡을 축하하였다. 이 모임에 지배인을 비롯한 몇명의 행정간부들이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재진격하는 인민군부대에 수류탄과 포탄을 인계하러 갔었다.

다음날 아침 수로굴자리를 탐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배낭을 지고 떠나갔다. 그 일행은 한성룡을 책임자로 한 김인호, 유락종 등 8명이였다.

9

포탄공장 기사장으로 임명된 한성룡이 수로굴탐사조를 데리고 떠나간 후 어느날이였다.

그동안 성간부들과 함께 강계에 있다가 수풍에 도착한 고정한국장은 리환구지배인이 안내하는 간부방공호로 찾아갔다. 흔히 간부방공호란 말로 통용되는 그 방공호는 리환구지배인이 도봉숙의 도움을 받아 지하구조물로 잘 꾸려놓은 방공호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것은 수풍발전소에서 5리가량 떨어진 산턱경사면에 10미터 깊이로 땅을 판 다음 벽과 천정에 30미리 환강을 그물처럼 얹어매고 거기에 고강도세멘트몰탈을 들이부어 대형폭탄이 떨어져도 끄떡하지 않게 만든 말그대로 지하요새였다.

이 요새는 벽체두께가 1미터를 훨씬 넘는데다 층막콘크리트두께는 무려 2미터이상 되었다.

요즘 중요회의들에서 여러번 두드러맞은 고정한은 리환구지배인을 따라 이곳으로 걸어올 때까지도 기분이 심란해있었다. 그도 인간이라면 자기때문에 온겨울 흘뎌

입고 일한 사람들앞에 나서기가 저어될것이다. 실지 그는 정신적압박감으로 하여 여태 이곳에 오지 못하고있다가 숨웃이 공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야 찾아오게 되었다.

지배인을 따라 요새안으로 들어선 그는 깜짝 놀라며 눈을 치떴다. 생각밖에 방안이 요란하였기때문이다. 벽쪽으로 개인용침대가 있고 하얀 명주천으로 휘장을 드리운 량쪽벽밑에는 편수와 앞차대들이 놓여있는데 윤기가 나는 편수책상우에는 상아빛전화기까지 놓여있었다.

후끈한 방안의 온기에 얼굴이 불깃해진 고정환은 벽에 걸어놓은 온도계를 들여다보았다. 정확히 21도였다.

《정말 방공호를 잘 꾸렸소. 국제적수준이요. 지배인동무의 수고가 알립니다. 그런데 지내 요란해서 장군님께서 보시면 욱하실것 같소. 장군님께선 간부들이 판가마밥을 먹으며 호강하는것을 제일 나쁘게 보시오.》

고정환은 방공호가 더없이 마음에 들었으나 속이 썩기여 미타한 얼굴을 하고 서있었다. 병기공장 군중대피호는 물론이고 합숙건물에 비해보아도 지나치게 요란한 방공호였다. 이 요새를 꾸리는데 들인 로력과 자재를 얼추 타산해도 정도를 지나친것이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로력과 자재를 들인게 하나도 없습니다. 접때 말씀드린 도봉숙이가 많이 관계했는데 적들이 원자탄을 떨어뜨릴수 있다고 하면서 사법성 신동식국장이 뒤에서 많이 밀어준것 같습니다. 리승엽동지를 비롯한 간부동지들이 밀어주어서 한 일이니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리환구는 도봉숙이가 사법성 신동식국장의 외조카딸이 되며 리승엽동지의 안중에도 있는 여자라고 하였다.

그제야 고정환은 마음이 놓이는듯 웃동을 벗어버리고 런닝그바람으로 편수책상에 마주앉아 상아빛전화기통을 만져보았다. 그 순간 리환구지배인은 며칠전에 전화선을 늘일 때에 있었던 일이 불쑥 떠올라 얼굴을 찌프리였다. 그날 동력부교환대 반장이 전화선을 늘이면서 《정말 방공호가 대단합니다. 고정한국장동지서켌 간부동지들이 이 승냥이굴에 와보면 대단히 만족해할것입니다.》 하고 말하여 환구는 눈꼬리를 치켜들었다.

《동무, 승냥이굴이라는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이 방이 승냥이굴이라면 간부님들이 승냥이란 소린가, 영?》

《지배인동지, 전 결코 나쁜 뜻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며칠전에 포탄직장 책임기사 박홍근동지가 여길 와보구 감탄하면서 유명한 <워로롤프>에 못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워로롤프》란 귀에 선 말이 지배인의 기분에 더 거슬리였다. 그것은 로씨야말도 아니고 발음이 좀 굳은것을 보면 그리스말 같기도 하여 《동무, <워로롤프>라는건 뭐요? 박홍근이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그런 말로 시까스르고 잣단 말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여긴 왜 왔댔소?》 하고 캐여물었다.

박홍근이는 그날 교환대반장의 부탁을 받고 지하요새에 왔다고 한다. 현재 공장에서 쓰고있는 수자식교환대가 일본놈들이 2차대전시기에 도이췌란드에서 가져다쓰던것인데 기술지도서가 모두 도이췌란드어로 되어있어 그 번역을 의뢰하려고

박홍근을 데리고왔던것이다. 박홍근은 기술지도서를 번역해주고나서 교환대반장을 도와 같이 전화선을 들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다가 방공호안에 이르렀을 때 입을 딱 벌리었다.

《그때 박홍근기사가 <과연 놀랍구만. 우리 병기공장동무들이 확실히 재간이 있소. 이쯤하면 원자탄도 막을것 같소. 이걸 <위로롤프>에 못지 않소. <펜젤네스트>나 <아돌레호프스>와도 견줄수 있는 방공호요.> 하고 탄복해마지 않았습시다.》

《동무, 긴말 하지 말구 <위로롤프>가 무슨 말인지 그걸 말하란 말이요.》

지배인이 성을 내며 고함을 질렀다.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박홍근기사에게 물으니 2차세계대전때에 히틀러가 뿔스까와 우크라이나의 가는 곳마다에 비밀방공호를 수없이 만들게 했다는겁니다. 그 비밀방공호들중의 하나가 <송냥이굴>이라는 대호를 가진 <위로롤프>였다는거지요. 그밖의 방공호들도 다 맹수맹금의 대호를 붙였는데 실례로 <펜젤네스트>는 <곰굴>로, <아돌레호프스>는 <독수리둥지>로 붙였다는겁니다. 이런 이름들은 히틀러의 안전을 지키는 <결사보호>의 대명사였다는겁니다.》

폭약사건으로 하여 가뜩이나 박홍근을 의심하고있던 지배인은 그가 간부방공호를 악명높은 히틀러독재자의 방공호와 대비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욱 신경이 날카로와졌다.

이런 일이 있는줄은 모르고있는 고정환은 여전히 전화기를 만져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있었다.

고정환이 방공호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은 앞으로 압록강국경지구에 대한 미제의 폭격이 극심해지리라고 생각하고있기때문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조선전쟁에 지원군까지 파견하였기때문에 앞으로 미제가 자기네의 전쟁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국경지역에 원자탄까지도 서슴없이 쓸수 있다고 예측하고있었다.

《방공호가 이만하면 걱정할게 없소.》

리환구는 태평스레 웃고있는 고정환에게 《그런데 박홍근이란 사람이 이 방공호를 놓고 좋지 않은 여론을 퍼뜨리는것 같습니다.》 하고 불쾌한 낯색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고정환은 책상을 짚고 일어서며 따지듯이 물었다. 그제야 밝지 못한 지배인의 얼굴이 심상치 않게 생각되었던것이다.

《별다른건 없지만...》 하고 환구는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나서 교환반장이 알려주던 《승냥이굴》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외워바치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고정환은 그야말로 승냥이상통이 되어 으르렁거리였다.

《여보, 그 사람 안되겠구만. 보자보자하니까... 내 박홍근이 그 작자를 의심한지가 오래입니다. 간부들을 모실 방공호를 히틀러의 <워로롤프>에 대비한단 말이요? 그자는 간부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있는자요.》

고정환은 병기공장은 미중앙정보국의 시선이 집중되고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박홍근이도 최영달이나 방가놈과 같은 미제의 고용간첩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자가 수풍에 와서 한 일이 뭐요? 남들은 수류탄생산을 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번저가며 일하고있을 때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었다면서? 평천리에 있을 때부터 한다던 그 화약인지 철갑몬지 그걸 연구한답시고 수류탄생산에 손두

안됐다는 말을 로동행정부장한테서 나도 들었소. 그리고 보오. 그 사람의 애인이라는 병원의사 럽민희는 수풍으로 오는 도중 행방불명이 됐소. 이게 바로 수수께끼요.》

그는 럽민희와 박홍근은 다 공산주의를 달가와하지 않는 우익교수의 집에서 자랐고 특히 럽민희는 미국선교사가 세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출신이니 미중앙정보국의 간첩망에 흡수될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하였다. 그것들이 남조선에서 무슨 꿑꿑이를 하다가 넘어왔는지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는가. 간첩놈들이 충실한 간부들을 혈뜬고 모함해서 잡아먹은 실례는 쏘련에서도 한두번만 있지 않았다. 뭐 우리의 방공호를 히틀러의 《승냥이굴》에 대비한단 말인가?

《고약한 놈! 십중팔구 이놈은 색깔이 다른 놈이요!》

리환구는 심각해졌다.

지금 국장이 걸고드는 박홍근의 화약연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따져보면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문제였다. 1950년 초여름 병기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어온 때부터 환구는 홍근이가 화약연구사업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포탄직장 책임기사인 홍근에게 있어서 화약연구는 기본사업과 밀접히 관계되는것이여서 그의 요구에 따라 방 한칸을 주어 그곳에서 째짤이 연구사업을 하게 하였다.

박홍근이 하고있는 화약과 철갑모에 대한 연구가 아무런 승산도 없는 쓸데없는짓이라고 하며 고정한국장이 극력 반대하는것을 본 다음부터는 물론 지배인도 덩달아 반대하였지만 강하게 막지는 않고 방임해두었었다.

지배인은 이것이 마음에 켜기여 입을 꼭 다문채 국장의 눈치를 살피었다.

《지배인동무, 내가 섬섬하게 생각하는것은 지배인동무가 어째서 박홍근이와 같은 정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의 행동을 경각성없이 대하는가 하는것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것도 모르고있소?》

그는 방가놈에게 속히워 엄청난 일을 저지른 다음부터는 정체가 아리송한 놈들을 보기만 하여도 눈에서 불이 난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지배인동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병기공장은 미중앙정보국의 시선이 집중되어있는 곳이요. 내가 항상 대렬을 정리하고 계급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바로 이때문이요... 어쨌든 폭약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아귀를 짓지 못했으니만큼 홍근이문제는 따로 좀더 연구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덮어버린 고정환은 송수화기를 들어 강계에 대라고 이르고는 전화감도를 알아보았다.

얼마후 환구는 설똥한 기분에서 수류탄생산현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압록강의 맵짠 바람이 사정없이 얼굴을 휘갈졌다. 멀리서는 적기의 둔중한 발동소리가 울려왔다.

(남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한 저놈들이 정말 원자탄을 쓰지 않을까?)

요즘 환구의 머리에선 원자탄에 대한 불안이 가셔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루먼이란 놈은 원자탄을 쓰기 위한 검토를 하고있다고 내놓고 지껄이고 맥아더놈은 조중국경지대에 수십개의 원자탄을 투하할 계획이라고 떠벌인 사실때문에 비행기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서늘해졌다.

멀리서 으릉으릉하는 비행기소리에 신경을 도사린채 얼마쯤 걸어가던 환구는 공무직장 제관작업반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가 철판우에 무엇을 올려놓고

함마로 두들겨패고있었던것이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방금전에 말밥에 올랐던 박홍근이었다.

그는 지배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씻어냈다.

《뭘 하는거요. 함마를 들고...》

리환구는 박홍근이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즉시에 짐작하였지만 이마살을 찌프리며 언짢게 물었다. 박홍근의 앞에는 꼬부랑글자가 새겨진 철갑모가 놓여있었다. 미국제철갑모였다. 그것을 지켜보는 지배인의 귀가에는 두개의 다른 목소리가 쟁쟁히 울리었다.

그중의 하나는 수풍에서 한 정일룡부상의 목소리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철갑모때문에 늘 마음을 쓰십니다.》

이러면서 정일룡은 **김일성**동지께서 강계로 가시는 행군길에서 한 병사의 찢어진 모자를 벗겨드신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계신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총탄이 스쳐지나가면서 낸 자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날 병사의 구멍뚫린 솜모자를 오래도록 쥐고계시다가 같이 가는 일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 병사들에게 철갑모를 썩우지 못하고있소. 나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우리 전사들이 지나갈 때면 모자를 살펴보군 합니다. 이 찢어진 병사의 모자는 우리에게 철갑모를 생산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박홍근은 정일룡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 요즘 철갑모제작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다른 한 목소리가 그것을 부정하고있었다. 방금 들은 병기생산국장 고정한의 목소리였다.

《렘민희와 박홍근은 다 공산주의를 달가와하지 않는 우익교수의 집에서 자랐고 특히 렘민희는 미국선교사가 세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출신이니 미중앙정보국의 간첩망에 흡수될수 있는 조건이 많소. 남조선에서 무슨 꿑꿑이를 하다가 넘어왔는지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소.》

두개의 다른 목소리에 머리가 혼란된 리환구는 두터운 근시안경을 낀 박홍근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찬찬히 뜯어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박기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소? 되지도 않을 철갑모요, 화약연구요 하는건 당분간 걷어치우고 수류탄생산에 집중하오.》

환구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려는데 박홍근이 따라와서 당위원회에서 철갑모연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환구는 이마에 주름살을 모으며 짜증을 냈다.

《동무 제발 고집부리지 말라! 정말 머리가 아프오. 그리고 동문 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간부들을 혈뜯는 소리를 하오?》

홍근은 밀도끝도 없는 지배인의 생똥같은 질문에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가 아연실색하여 멍하니 서있는 사이에 지배인은 벌써 멀리로 가버렸다.

홍근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나 함마를 휘둘러 철갑모를 여러 조각으로 낸 다음 시편감으로 쓸만한것들을 골라냈다.

10

그날 밤 박홍근은 고정한국장에게 불리워 간부방공호로 갔다. 성질이 급한 다혈질인 고정환은 박홍근이 나타나자 대뜸 얼굴을 찌프리며 간부들이 드는 방공호를 히틀러의 《승냥이굴》에 대비한데 대해 욕을 해댔다.

《여보, 박기사, 어쩌면 동무가 간부들을 그렇게까지 헐뜯는가? 그리고 동무는 수풍에 와서 화약연구요, 철갑모연구요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있다는데 내 동무에게 정식으로 말해주겠소. 병기공장은 연구소가 아니요. 다시는 생산과 관계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게 좋겠소.》

고정환은 가치담배를 입에 물고 코우로 연기를 훌 내뿜었다.

박홍근이 한참 지나 알았다고 대답하자 고정환은 물었던 담배를 손에 뽑아들고 《동무, 내 알고싶은것이 하나 있소. 이번 후퇴기간에 병기공장에서 더러 희생은 있었지만 실종된것은 유독 병원 의사 림민희 한사람뿐이요. 동문 그 의사와 어떤 관계요? 어떤 사람들은 오누이관계라고 하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다고들 하는 사람들도 있소. 누이동생인가 애인인가? 왜 이 문제가 석연치 않소? 남의 개인생활문제까지 캐물을건 못되지만 공장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수풍으로 오는 도중 의사가 실종된 이유를 밝히자니 그런것까지 거들게 되는거요. 의사의 행처를 동무도 모르고있는가? 우선 그것부터 솔직히 말해보오.》

《...》

박홍근은 고국장의 물음에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너무도 가혹한 질문을 받았기때문이었다.

고정환이 세번, 네번 연속 물었으나 박홍근의 입은 자물쇠가 채워진듯 열려지지 않았다. 그의 침묵을 일종의 도전으로 느꼈던지 고정환의 관자노리에 피줄이 살아올랐다.

《왜 말이 없는가? 얄팍한 입술을 놀려 히틀러의 승냥이굴이요, 승냥이굴짜기요 하면서 도이첼란드말을 번지던 그 혀바닥이 갑자기 얼어붙었는가? 나쁜 놈의 자식! 너 여기가 일본 가서 사각모자 쓰고 돌아치던 땅인줄 아는가?》

그 말에 홍근은 내려온 안경을 추슬러올려쓰며 두터운 유리알너머로 고국장의 이그러진 얼굴을 마주쏘아보았다.

《어서 대답하라! 의사의 행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때에야 박홍근이 입을 열었다.

《내가 수풍으로 떠날 때 민회는 결사대에 들어 군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난들 그의 행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긴 알고있어도 그 비밀을 볼겠소? 종소. 나는 지배인동무하고도 동무문젤 연구해보자고 했소. 내 당위원장동무에게도 말하겠소. 동무가 솔직히 안 나오면 법기관에 넘기겠소. 알겠는가?》

박홍근은 너무도 원통하여 어금이를 짹 깨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솔직히 말하라는것인가? 폭약사건이후 검찰소요, 사법성이요 하는 법기관의 문책이 눈서리같다가 그것이 좀 즈믄해지니 이제는 또 고정환이 못살게 구는것이다.

《나가라!》

이것으로 고정한국장과의 이야기는 끝났다.

박홍근은 손맥이 풀려 그길로 합숙침실로 돌아와 벌렁 드러누웠다.

수풍에 와서도 박홍근은 한성룡, 지응모들과 한호실에서 지냈는데 포탄공장 기사장으로 임명된 한성룡은 포탄공장으로 떠나가고 지응모는 일터에서 들어오지 않아 홍근이는 고독하게 홀로 누워있었다...

(민희, 너는 지금 어디에 가있느냐?)

박홍근의 길지 않은 생은 총과 련결되어있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일찌기 저세상으로 가게 된것도,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제의 병기창에 끌려가 갖은 천대를 받고 치욕을 당한것도 왜놈의 총때문이었다. 그는 왜놈의 총을 만드는 동북의 병기창에서 비로소 그 모든 불행의 화근이 내 총, 내 나라의 정의의 총을 가지지 못하는데 있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그때 총의 뜻을 정확히 깨우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병기창 감옥안에서 같이 지낸 김옥이라는 사람이였다. 그가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이라는것을 알게 된것은 출옥후 신의주에서 헤어질 때였다. 김옥은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이제 **김일성**장군님께서 꼭 병기공장을 건설하실거라고 하면서 평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김옥이와 헤어진 후 서울로 돌아온 박홍근은 어느날 민희와 함께 마장동집에서 왕십리역을 께질러 하왕십리동, 안협동을 지나 을지로, 충무로를 거쳐 서울역까지 긴 산책을 하면서 내 나라의 총을 만들기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찾아갈 결심을 말하였다. 그다음 한강기슭을 따라 내쳐 걷다가 길가에 있는 식당에 들러 간단히 요기를 하고나서 다시 한강기슭을 거슬러올라갔다.

그날도 한강기슭은 자갈모래를 채취하는 사람들로 끓고있었다. 청계천은 이른새벽에 달빛을 이고나와서 별빛을 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갈, 모래를 추어 명줄을 이어가는 빈민들의 고달픈 생활터전이기도 하였다.

허리를 펼새없이 삽으로 모래를 퍼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호미를 들고 철망광주리에 자갈을 퍼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쪽 선창가에는 크고작은 배들이 게딱지같이 붙어 정박하고있는데 그곳에서는 짐을 싣고 부리는 사람들로 하여 복잡거리고있었다.

이렇게 선창에 나와 일감을 얻어 뼈빠지게 일하고 얼마간의 샅전을 쥐면 그것을 더없는 행운으로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일감도 못 쥐면 서울시내를 헤매며 동냥걸식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갈을 채취하고 모래를 추는 사람들은 그래도 처지가 좀 낫다고 할는지 모른다.

강기슭에서 고역을 치르는 사람들을 생각깊이 바라보던 림민희가 조용히 속삭이였다.

《오빠 일본에서 공부할 때 저 로동군들처럼 강가에 나가 모래, 자갈을 추며 고생을 했지요. 학비가 모자라 고학을 하고 추운 하숙방에서 얼었지요?》

민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넌 무슨 소릴 하느냐. 난 부모님들이 학빌 넉넉히 보내주셔서 호강하며 공부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걱정할가봐 오빠 모든걸 숨기셨어요. 자, 이 편지 보세요.》

림민희는 두툼한 편지봉투를 꺼내더니 홍근이앞에 불쑥 내밀었다.

《리오영군에게》라고 쓴 새파란 만년필체가 눈에 밝히는 순간 홍근은 소스라쳐 놀랐다. 그것은 대학시절 홍근이가 인천근방에 있는 중학교동창생친우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 편지가 어떻게 민희의 손에 와있는가?

홍근은 서둘러 속지를 꺼내들었다. 3년전에 자신이 쓴 옛 편지를 읽어보는 감회는 참으로 류달랐다.

《그리운 벗 오영군.

군의 편지를 받고 회신한다는것이 공부에 쫓기고 잡사에 다몰리다보니 늦어졌네. 용서해주겠지. 집안은 다 편안하다니 다행일세. 낮에는 논밭에서 벌에 시달리고 밤에는 야학방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있다는 군의 고동색얼굴과 호미자루에 장알진 억센 손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네.》

홍근은 편지의 앞머리를 이렇게 떼놓고 일본류학생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지웅모라는 선배학우와 도쿄의 어느 다락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일요일과 과외시간마다 도쿄강(아라가와강)에 나가 자갈추기와 배짚부리우기를 하여 학비를 보태여쓰는 고학의 고달픈 생활을 하소하고는 《허나 서울 양부모님께는 보내주시는 돈이면 불편없이 공부할수 있다고 했으니 내가 고학한다는 소문을 내서는 안되겠네.》 하고 다짐을 두는 글을 덧붙였다. 사실 친자식 오누이와 홍근이까지 세 자식을 공부시키는 양부모님들의 부담은 여간이 아니었던것이다.

그때 홍근은 고학생활은 고달프지만 지응모라는 좋은 벗이 있어 외롭지 않게 지낸다고 하면서 그의 뛰어난 두뇌와 학구적인 열정, 열렬한 민족애와 숫눈처럼 깨끗한 양심이 자기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고 하였다.

《지응모에게는 어린시절 랑쪽부모들에 의하여 일생을 같이할 반려로 지목되어있는 최이순이라는 애인이 있네. 그들은 유년시절 곽산 초장부락에서 친오누이처럼 자란 소꿉동무이기도 하지.

지응모네처럼 나에게도 부모님들이 정해준 인생의 반려가 있으며 그 반려가 나의 스승이며 양아버지인 럼교수의 딸 럼민희라는데 대해서는 군도 잘 알고있는 사실이네. 이런 처지의 공통성이 지응모형에게 내 마음을 끌리게 한 세번째 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네.》라고 쓴 대목에는 특별히 붉은줄이 진하게 그어져있었다. 분명 럼민희가 그어놓은것 같았다.

박홍근은 가슴이 뻐근해졌다. 자기가 쓴 편지에서 것처럼 큰 감흥과 자극을 받는다는것이 이상스럽기도 하였다. 아니, 다름아닌 바로 자기의 옛 편지이기때문에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더욱 읽어보게 되었다.

박홍근은 편지에 지응모는 매달 꼭꼭 사랑하는 처녀로부터 곁봉에 자기 고향 거령산의 고사리를 원색으로 그린 편지를 받는다는것, 지응모 역시 처녀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곁봉에 도라지를 그려보낸다는것, 이러루한 사랑의 이야기도 가득 썼는데 거기에는 자기와 럼민희의 사랑의 감정이 짙게 표현되어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친우에게 썼다.

《민희를 생각하면 힘이 솟고 기뻐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자꾸만 그걸로 날아가질 않겠나.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나는 남자로서 민희를 열렬히 사랑하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아직 정면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네.》

박홍근은 편지를 더 읽을수 없었다. 민희가 간수해두고있는 편지종이는 그것이 전부였기때문이다. 물어보니 그 뒤장들은 본인의 누이동생이 가지고있다는것이였다. 이십여장이나 되는 이 긴 편지의 후반부는 모두 리오영이와 관계되는 이야기여서 실지 민희에게는 필요도 없었다. 슬픈 일은 이 편지가 수신인의 주소에 가닿았을 때 본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는것이다. 중학을 졸업하고 인천근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좌익운동을 하고있던 리오영은 가택수색을 하는 경찰놈들에게 대항하다가 총에 맞아 즉사했다고 했다. 그의 누이동생이 민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편지의 앞부분을 봉투채로 넘겨주고 갔다고 한다. 민희에게 필요할것 같아 그랬던가싶었다.

《오빠, 그 편지 주세요.》

민희는 벌겍게 이물린 눈을 습벅이면서 편지종이를 들고있는 홍근에게 손을 내밀었다. 홍근이의 사랑의 목소리가 울리는 그 편지를 영원히 품속에 간직하려는것이였다.

얼마후 그들은 한강기슭을 천천히 걸어갔다.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저녁해빛이 잔물결이는 강수면에 조용히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민희가 말했다.

《난 리오영씨한테 보낸 오빠의 편지를 본 다음부터 오빠를 강물로 생각하군 했어요. 저 강물은 굶은물, 감탕물을 모두 말없이 받아시고 멀리 서해로 흘러가며 깡치는

가라앉히고 검불은 기슭으로 밀어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오빠는 강물, 나는 넓은 강물의 품으로 안겨드는 자그마한 시내물... 그러면 함께 불안고 흘러흘러 바다에 가닿을게 아니예요. 나는 방금 결심했어요. 오빠를 따라 김장군님 계시는 평양으로 갈것을.》

《민희!》

박홍근은 뜨겁게 민희를 붙렸다. 그러자 민희는 불현듯 어지럼증이 일어나는듯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박홍근의 가슴에 몸을 기울이었다. 박홍근은 바른팔을 벌려 처녀의 몸을 가볍게 그러안았다...

《탕, 탕, 탕.》

별안간 대포소리같은 요란한 소리가 귀청을 때려 박홍근은 놀라며 추억에서 깨어났다.

누구인가 반토굴집문짝을 주먹으로 두들겨대고있었다.

《거 누구요?》

박홍근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안으로 걸었던 쇠고리를 벗기였다. 시뻘뻘한 로동부장의 얼굴이 불빛에 비치였다.

《무슨 놈의 문을 그렇게 요란하게 두드립니까. 조용히 찾지 못하고...》

박홍근은 언짢게 중얼거리였다.

《누가 할 소린지...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몇번이나 불러도 대답은 없지 문은 안으로 걸려있지, 그러니 주먹으로 두드릴수밖에 있소. 잠을 자냈소? 오늘은 왜 화약연군지 철갑모연군지 하지 않고 일찍 들어왔소?》

박홍근은 무엇인가 주먹같은것이 명치를 치반아 눈을 부릅뜨고 로동행정부장을 노려보았다.

《월권행위를 하지 마시오. 당신은 나의 기술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소.》

《누가 동무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는가? 이 량반이 정말...》

로동행정부장의 긴 말상이 사납게 이그러졌다.

《그만합시다. 왜 찾아왔소? 그거나 말하시오.》

《당위원장이 부르오. 누가 당신을 만나러 온것 같소.》

박홍근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고국장이 말한대로 법기관에서 찾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것이다. 로동행정부장은 줄지에 굳어지는 박홍근의 얼굴을 일별하고 《흥.》 하고 코웃음소리를 크게 내며 가버렸다.

박홍근은 자기가 어떻게 당위원장사무실에까지 갔는지 알지 못했다. 방에는 중사견장을 단 젊은 군인이 와있었다. 당위원장이 반갑게 그를 맞이하였다.

《현장에서 오는 길이요?》

《아니 저... 오늘은 좀 일찍 자리를 펴고 자냈습니다.》

《그렇소? 몸도 돌보아야 하오. 그러다 쓰러지면 큰일이요. 기사동무를 갑자기 부른것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민회의사의 행처를 찾아냈소.》

《예?!》

박홍근은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 방벽에 손을 짚으며 눈을 꼭 감았다. 두귀에서 웅웅 잡음이 일어나는 속에서 당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빨찌산부상자를 응급처치하다가 미군수색대와 조우하여 리병혁이와 헤어지던 일, 오빠와의 비극적인 상봉과 결렬, 그후 북쪽을 향해 산을 타고가다가 어느 한 령에서 최현이 파견한 인민군대 경찰병들의 구원을 받아 제2전선부대에 들어가 부상병치료를 하게 된 민희의 이야기는 모두가 극적인것이였다.

지금 당위원장방에 와있는 인민군중사는 이 소식을 전하러온 제2전선부대 경찰병이였다.

당위원장은 사무탁에 놓여있는 두툼한 글종이뭉음을 집어들었다.

《이게 민희의사가 당위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 후에 읽어보시오. 아무튼 민희의사의 행처를 알게 됐으니 큰 시름을 놓게 되였소. 나도 오늘에야 알게 되었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난 11월 17일 고산진에서 최현동지를 만나셨을 때 벌써 행방불명이 된 민희의사를 찾아보도록 과업을 주셨다고 하오. 민희의사가 우연히 구원된게 아니요. 장군님께서 민희의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으면 제2전선부대 병사들을 동원시켜 찾아보게 하셨겠소...》

현무광은 이야기를 계속할수가 없었다. 박홍근이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을 터뜨렸기때문이였다. 그의 울음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아 현무광이 진정시키였다.

《박기사동무, 이젠 그만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마저 들소. 우리한테 중요한 과업이 떨어졌소. 장군님께서는 수풍에서 진행한 수류탄생산정형을 료해하시고 그것을 민수공장에 일반화하라고 교시하시였소.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함북지구는 동무가, 함남지구는 지응모기사가 가서 기술강습을 주도록 결정했소. 동무들에게 할일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 일은 병기기술자들인 동무들에게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소. 그 사업을

끝내는 차로 동무들은 군자리로 나가야 하오. 드디어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공장
군자리로 돌아가게 됐소.》

목메여 말하는 현무광의 검실한 눈에도 굵은 눈물이 맺히었다.

당위원장사무실을 나선 길로 박홍근은 합숙방에 들어가 려민회의 편지를 읽었다.
려민회가 제2전선부대와 선을 맺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 해온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씩여있었다. 그런데 맨 마지막대목에 박홍근을 아연실색케 하는 려민회의 가정소식이
적혀있었다. 아버지 려교수는 이번 전쟁기간에 병사하고 《유엔군》 통역관으로 있던
만오빠 려민정은 괴뢰군 정보장교로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제2전선부대
정찰병들이 려민회의 가정소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니던 끝에 입수하게 된 비교적
정확한 소식이라고 하였다. 이 소식은 박홍근의 가슴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었다.

이튿날 새 임무를 받고 지응모와 함께 떠나가는 박홍근의 마음은 사뭇 무거웠다.

그 며칠후 현무광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 참가하라는
당중앙위원회 통지문을 받았다.

제 5 장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앞두고 분명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강계 연풍동에 자리잡고있던 내각청사에 나오시여 내각 제30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다음 그길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준비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 장강군 향하리로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준비를 위해 이미 20여일전에 이곳에 파견하신 허가이를 찾아가시였다. 허가이는 향하리 소재지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거처하고있었다.

독집에 들어앉아 술을 마시며 절제없는 생활을 하고있던 허가이는 그날도 술에 푹아떨어져있었다. 그러다가 김일성동지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와들쭉 놀라며 자리에서 뛰쳐일어났다. 그가 허둥거리며 방을 거두고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 나ער린 친위병 두명을 데리고 들어서시였다.

코를 찌르는 술냄새, 방안에 굴러다니는 술병, 여기저기 널려있는 종이장들, 엉거주춤 서있는 허가이의 게슴츠레한 눈... 이 모든것은 방주인의 정신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있었다.

《왜 이렇게 살고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뜻밖이시였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실줄은 모르고... 방안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며칠후에 오실줄 알았는데...》

허가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소리를 한껏 가다듬으려 하였으나 술에 마취된 허가 제대로 놀려지지 않았다.

허가이는 자존심과 우월감이 지나쳐서 사람들을 깔보며 독선적으로 나가는 때가 적지 않았지만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절제없이 살아가는 무정형의 인간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또한 자기를 《당박사》로 자처하는 자기과신과 사대주의로 하여 자기 동지들과 우리 나라를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는 매우 위험한 결함이 있었지만 사업과 생활에서는 언제나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것을 요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되였는가? 오늘의 조선전쟁은 우리 사람들을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더 억세고 강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하고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이 전쟁기간에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낙후해져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있었다.

(허가이도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몹시 실망하시였다.

《허가이동무, 회의날자가 박두해서 동무가 나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을것 같아 마음을 조이고있었는데 며칠후에 올줄 알았다는건 무슨 소리요? 동문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지 않소?》

허가이는 벽에 걸어놓은, 쏘련의 어느 출판사에서 찍어낸 달력을 건너다보았다.

《내가 오건말건 방을 이렇게 거두어서야 되겠소? 당중앙위원회의 큰 간부가 사업하는 이 방을 마을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허가이를 꾸중할 시간도 없어 그동안 준비한 회의문건들을 보자고 하시였다. 제일 중요한 문건은 보고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회의를 하든 보고서만은 자신께서 직접 집필하시였다.

그러나 전쟁의 새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는 11월, 12월은 너무도 분망하시여 전원회의보고를 허가이에게 위임하시였었다. 물론 보고서체계와 구성, 그에 따라 서술할 내용과 분석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여 쓰기만 하면 되게 하시였다.

허가이는 네댓장 되는 글종이를 그이께 가져다드리였다. 그것을 받아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만 아연해지시였다.

《전쟁 6개월간의 사업을 총화하는 전원회의보고서가 이게 다요?》

《제, 좀더 보충하겠습니다.》

허가이는 손을 내밀며 혀까부러진 소리를 하였다.

《그만두시오! 취해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그이께서는 선자리에서 《보고문》을 읽어보시였다. 분량도 어방없이 적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유치하게 씌여있어 이것이 《당박사》라는 사람이 쓴 글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드시였다. 그이께서 잡아주신 보고서체계와 분석자료들을 그대로 옮겨베껴도 이보다는 분량이 많을것이였다.

허가이의 수준이 과연 이 정도인가? 이것은 수준문제가 아니였다. 허가이는 과업을 받고 향하리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할수 없다고 생각한것 같았다. 압록강가까이에 후퇴해와있고 전쟁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는 긴장한 형편에서 언제 전원회의를 하고 앉아있겠는가? 전쟁에서는 1분1초가 운명적인것으로 되는데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부문의 큰 간부들이 회의장에 들어앉아있으면 전쟁을 누가 지휘하겠는가?

허가이는 미제의 강력한 무기를 당해낼수 없다고, 다 망했다고 생각한것 같았다.
그래서 술이나 마시다가 여차하면 쏘련으로 피난을 가자고 했는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에 들고있던 《보고문》을 놓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벌써 거의 다 향하리에 와있는데 아직 보고서가 준비되어있지 못하니
이처럼 난처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제는 다른 길이 없었다. 보고서의 구성체계와 기본내용, 분석자료들은
준비되어있으니 자신께서 직접 쓰시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에 비해
절대적인 집필시간이 모자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농촌집으로
급히 걸어가시였다. 그이께서 거처하실 집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니 부엌과 방안이
연기로 짙 차서 눈을 뜨기조차 힘드시였다. 나어린 친위병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연기가 꺼꾸로 쏟아져나와 그 모양이 되였다.

《불이 내면 부엌문을 열고 때야지 짙 닫아놓고있으니 곰을 잡겠구나. 방문도 다
열어놓아라.》

그이께서는 방안에 들어가 두리반을 마주하시였다.

《서류가방에서 백지를 한몽치 꺼내놓아라. 이제부터 글을 써야겠다.》

《장군님, 여기서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방바닥이 아직 랭돌입니다. 집을
웁깎시다.》

한 친위병이 방바닥을 짚어보며 한숨을 쉬였다. 열려진 방문으로 찬바람이
쏟아들어왔다.

《언제 집을 웁기구 어찌구 할새가 없다. 이제 좀 있으면 불이 들수 있다.…」

그이께서는 벌써 백지우에 《현정세와 당면과업》이라는 보고문의 제명을 달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였다. 만년필이 종이장우에서 쾌속으로 달리였다.

연기가 쉬이 빠지지 않아 그냥 문을 열어놓은채 그이께서는 담요 한장을 깐 랭돌바닥에 앉아 글을 쓰시였다.

그이께서는 격랑과 같은 론조, 수술칼과 같은 예리한 분석으로 전쟁의 매 단계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정신과 무비의 영웅성에 대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성과 취약성, 우매성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불과 한달반동안에 남반부지역의 90프로이상을 해방한 영웅한 인민군부대들,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들의 공세를 맞받아 싸운 월미도영웅들, 그리고 전기도 식량도 없는 캄캄한 굴속에서 75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한 병기공장의 20명결사대원들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렇게 쓰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아무러한 저항능력도 없는 식민지노예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와 땅크, 원자탄을 가지고 위협공갈하고 한번 호령하면 우리 인민이 항복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였습니다.》

그이께서 조선로동당이 당의 사상적통일을 강화하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한 부분의 집필에 들어서시였을 때에는 벌써 문밖이 캄캄해진 깊은 밤이였고 유엔기구를 파렴치하게 악용하여 15개 추종국가들까지 조선전쟁에 동원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침략성에 대하여 폭로한 부분의 집필을 끝내셨을 때에는 동녘하늘이 푸름푸름해진 새벽녘이였다.

그이께서는 날이 흰히 밝았을 때 과업부문집필을 끝마치시였다.

우리 당력사에 대문자로 크게 새겨져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의 보고 《현정세와 당면과업》이 이렇게 씌여졌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

그이께서는 보고문을 완성하시자마자 그길로 회의장으로 가시였다.

그날은 1950년 12월 21일이였다.

이날 중간휴식시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무광을 만나시여 군자리에 나갈 준비를 하고있는가 물으시였다.

《장군님, 벌써 선발대가 나가 복구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현무광이 정중히 말씀올리자 그이께서 곁에 서있는 당중앙위원회와 군사부문 간부들에게 《자, 보시오. 이 동무들은 무엇이든 지시하면 즉시에 집행합니다.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고 해도 뛰어들 사람들입니다.》 하고 병기공장 로동계급을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현무광을 돌아보시며 오래동안 비여놓은 굴간을 복구하는 일도 험치 않을것이라고 걱정하시였다. 매몰하였던 굴입구와 통로들의 흙과 모래, 바위돌들을 끌어내야 하고 동력선들을 이어놓아야 하고 상처입은 설비들을 수리정비하여야 하니 여간 품이 들지 않을것이였다.

《장군님, 걱정을 놓으십시오. 우리 동무들은 그까짓 일들은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히쭉 웃으면서들 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홑옷을 입고 빈땅에서 병기를 생산한 동무들이니 그럴수 있지. 그러나 굴간을 복구하는것이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닐거요. 회의가 끝나는 차로 당위원장이

빨리 군자리로 가야 하겠소. 나도 회의를 결속하고는 인차 평양으로 나가겠는데 그때 꼭 군자리에 들리겠습니다.》

3일동안 진행된 회의는 전당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우고 당을 강화하며 군대와 후방을 더욱 강화하여 전선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2

백양산은 시뿌연 눈보라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

살을 저미는 칼바람은 앵앵 승냥이울음소리를 내면서 눈덮인 군자리 골안을 마구 휩쓸어댔다. 험벗은 넓은잎나무들은 휘몰아치는 눈바람에 앙상한 가지들을 마구 휘저으며 아우성을 치고 새로 세운 전보대들은 추위에 웅웅 신음소리를 냈다.

군용승용차 한대가 앵앵거리는 눈바람을 헤가르며 군자리병기공장을 향해 미끄러져갔다.

얼마후 군용차는 굴입구가 가까이 보이는 늪은 소나무밑에서 멎어섰다. 차문이 열리더니 외투를 입으신 **김일성**동지께서 천천히 내리시였다.

《자, 공장에 들어가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 뒤따라 차에서 내린 수원들에게 이르시고 성큼성큼 굴입구로 걸어가시였다. 길바닥은 눈이 한껏 다져져서 미끄덕거리였다.

그이께서 오신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병기공장 간부들이 굴입구에 모여있었다. 그들은 살을 에이는 눈바람에 외투자락을 날리며 걸어오시는 **김일성**동지를 뵈옵는 순간 만세를 웨치며 달려나갔다.

《잘들 있었소? 고지를 점령한것처럼 왜 이렇게 요란스레 만세를 부릅니까?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며 일군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다. 현무광, 리환구, 당부위원장, 부지배인을 거쳐 지응모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이께서는 문득 안색을 흐리시였다.

《지응모로구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소?》

《장군님!》

지응모는 그이의 두손을 부여잡고 어깨를 세차게 떨었다. 얼마나 뵈고싶던 장군님이신가! 추위에 얼고 바람에 터서 거무튀튀해진 지응모의 량볼로 건잡을수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이께서도 물결치는 지응모의 어깨를 쓰다듬으시였다.

《지응모, 그만하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기쁜 날에 왜 우는거요... 지난해 10월초에 평양에서 이 동무한테 700정의 기관단총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고 헤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서북쪽하늘을 생각깊이 바라보시였다. 지난 몇달동안 시련에 찬 험난한 길을 헤쳐온 지응모의 행적을 더듬으시는 그이의 가슴은 찢릿이 젖어드시였다. 참으로 이 몇달새 지응모는 겹겹이 막아서는 고난의 장벽들을 용감히

뚝고 당이 준 과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행하여 자신이 어떤 인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준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그것이 기쁘고 대견하고 또 고마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에도 그가 여러 민수공장들을 찾아다니며 병기기술강습을 주다가 간부사업이 제기되어 급히 이곳으로 온 사실을 알고계시였다.

지웅모는 이번에 **김일성**동지의 신임에 의하여 병기공장의 모든 생산직장들의 기술사업을 총체적으로 관할지도하는 부기사장의 중책을 맡게 되였다. 그밖에도 일부 간부변동이 있었는데 류일룡은 강선작업반장으로부터 직장장으로 올라왔다.

《지웅모동무가 수풍에 있을 때 룡천에 계시는 아버지를 몇번 만나봤다지? 이번에 나올 때 선천에 들러보았소?》

김일성동지께서 최학순목사네를 생각하며 물으시는 말씀이였다.

《선천에 들릴새도 없었거니와 지목사님이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집 걸음을 하는걸 엄금해서 가볼 엄두도 못 낸것 같습니다.》

현무광이 웃으며 말씀올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이미 그런 소리를 들으신터여서 《지목사님이 엄하긴 엄한 모양이요. 허허허... 놈들이 박천, 정주, 선천에 들어와서도 못된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최목사네는 무사했다지만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씨원히 알아볼걸 그랬소.》 하고 못내 걱정되시여 또다시 서북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겁게 몇발자국 걸음을 옮기시였다. 지웅모는 그이의 다심하신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져 눈을 슴뻑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지웅모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난 시기 엥겔스는 군사를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맑스의 가정에서는 그를 때로 장군이라고 애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당시 영국군대를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군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자료를 보면 1869년 영국군사령관이었던 가네트 웰즈령경은 <우리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성공하는것을 불안스러운 일로 여기도록 교육하고있다. 이러한 허울좋은 감상적인 표현은 그들이 습작품이나 쓰는 말로서는 좋을수 있으나 군인들이 이 말대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칼은 영원히 칼집에 넣어둔채로 있어야 할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군인법규집에 쏘아박아넣고 군인들을 야수로 길들였습니다. 영국군대는 지난날 엥겔스가 말한것처럼 포악하기 그지없는 말그대로 야수적인 군대였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도이칠란드군대가 그 야수성에 있어서 영국군대를 꺾 령가했습니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는 그 당시 히틀러악당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을 상상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미국놈들은 히틀러도배를 훨씬 령가하였습니다. 그놈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습니다. 신천군에서만도 3만 5 380여명의 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여기 성천군에서도 많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무광이 이곳에 와서 료해한 자료를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평천리 병기공장에서 암해책동을 벌리다가 남으로 도주했던 최영달놈이 나타나서 미군정보장교놈의 조종밑에 《멸공단》이요, 《치안대》요 하는 반동단체를 조직하고 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고 한다.

현무광이 생사여부를 몰라 내내 걱정해오던 두호의 부녀도 강점기간 적들에게 희생되었다. 두호의 딸이 김만수아바이의 며느리라는것을 아시고 **김일성**동지께서 몹시 가슴아파하시였다.

《미국놈들이 어떤 놈들이라는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학순목사도 아마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여졌을게요.》

그이께서는 지응모에게 아무리 일이 바빠도 선천에 한번 가보라고 이르고 《자, 그럼 이젠 공장에 들어가볼가.》 하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미 동력선을 끌어들인 굴안은 대낮처럼 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수원들을 돌아보며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수풍으로 떠나갈 때 굴길 여러곳을 매몰하였기때문에 적강점기간에 한대의 설비도 손실보지 않았다고 치하하시였다.

바위너설들이 빠죽빠죽 돌아나온 굴벽을 손으로 만져보신 그이께서는 굴안에 습기가 많은것 같으니 방습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곧장 기관단총생산직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별안간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기관단총생산직장 첫탁에 있는 조규성이네 총신작업반 로동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그이를 에워쌌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기름뿜은 손들을 하나하나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불반이며 후라이스반같은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이 놓여있는 작업장을 둘러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업대우에 놓여있는 총신을 집어들고 총신강을 들여다보며 측정계기로 재여보고나서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총신의 정밀도와 정결도가 높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무들이 저격무기를 아주 잘 만듭니다. 우리의것이 다른 나라의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이께서는 손에 들고있던 총신을 작업대우에 올려놓고 그옆에 견본으로 세워놓은 기관단총 완제품을 집어드시였다. 탄창, 방열통, 격발기, 총가목, 총신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 곁에 서있는 지응모에게 물으시였다.

《이 제품의 원료와 자재는 100프로 우리의것이지요?》

《예, 금속제품은 100프로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로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총가목은 로씨야의 붓나무를 쓰고있습니다.》

《아직까지 로씨야의 붓나무를 쓴단 말이요?》

그이께서 총가목을 다시 끌어만지며 고개를 저으시였다.

《그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수백수천종의 나무들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아직까지 로씨야의 붓나무를 쓴단 말이요. 총가목은 꼭 로씨야붓나무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동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병기기술분야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입니다. 더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금속제품은 우리의것으로 하면서 왜 나무제품은 우리의것으로 못합니까? 우리 나라에 이깔나무, 피나무 등 총가목으로 쓸수 있는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실험연구를 거쳐 빨리 우리의것으로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일반공업제품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로 생산하여야 하지만 특히 병기제품은 100프로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나라를 보위하는 무기이기때문입니다.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가목에 대한 실험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응모의 결연한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기관단총을 내려놓고 다음작업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좁은 굴길을 지나 금속열처리장에 들리시었다.

열처리장은 뽕뽕거리는 전기로의 웅글은 소리와 기름가마의 당근질소리로 자못 소란스러웠다. 기다란 집게로 시뵈건 불덩이를 집고 급하게 뛰어다니는 로동자들, 열처리한 쇠판대기를 들고 실험실문을 드나드는 실험공들, 분주스러운 작업장이었다.

그이께서는 분석측정기구들이 설치되어있는 실험실로 들어가시었다. 금속시편을 다루던 실험공들이 놀라며 일제히 일어섰다.

《수고합니다. 일들을 하시오.》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한 측정기구옆에 놓여있는 금속시편을 집어들며 실험공에게 물으시었다.

《병기를 만들 때 어떤 소재를 씁니까? 일반강을 씁니까, 특수강을 씁니까?》

흰 위생복을 입은 젊은 실험공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듯 눈을 두부럭거리며 서있었다. 강쇠중에서도 제일 좋은 특수강을 골라 병기를 만든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상식이기때문이였다.

《무슨 그런 당치않은 질문을 하는가 하고 모두 놀라는것 같은데 좋은 쇠가 아니라 나쁜 쇠를 골라서 병기를 만들게 한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수행원들을 둘러보시며 중학교시절에 문학선생으로부터 기이한 소설책을 빌려보신 이야기를 하시었다. 중국 청나라때 나온 소설같았는데 책이 낡아서 소설의 제목도 저자도 알아볼수 없었다고 하시었다.

《이 소설을 보면 청나라가 중국을 다 먹은 후 인민들의 반란이 두려워 무기생산을 극력 제한하였습니다. 이 소설에 <하오티엔 부렌창>, <하오펜 부짱빙>이라고 쓴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한족말인데 <하오티엔 부렌창>이란 좋은 쇠를 가지고는 창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오펜 부짱빙>이란 좋은 사람은 군인노릇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좋은 쇠로 창을 만들고 똑똑한 사람을 군대에 복무시키면 통치배들을 반대해 일어날수 있기때문에 그런 해괴한 말을 한것 같습니다.》

웃음기를 띠고 말씀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 정색을 지으며 방금 열처리한 재빛강쇠판대기를 집어드시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인민들이 집에 쇠조각 하나 두지 못하게 하였고 국방력강화를 반대하였으며 시나 쓰고 하늘소나 타고다니면서 허송세월하였습니다.

조선봉건왕조 500년은 <중문경무> 즉 문관을 중시하고 무관을 경시한 정책을 실시하여 나라를 무장해제시킨 망국의 력사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난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는 제일 좋은 강재로 무기를 만들고 군인들과 병기생산자들을 가장 훌륭한 애국자,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는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대학과 병기연구소를 내오는 문제를 비롯하여 병기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무기는 총탄이 멀리 가고 위력할뿐아니라 명중률이 정확해야 하며 우리 군대의 체질과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게 편리하고 가볍게 만들며 또한 우리 나라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총생산의 세가지 원칙을 강조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겹쌓인 피로도 무릅쓰시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수십개나 되는 작업장들을 다 돌아보신 다음 당위원장을 따로 만나시었다.

《군자리에 온지 한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작업장들을 이만큼 정리하고 생산을 본궤도에 올려세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가지 알아볼것이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담화를 해보니 이 공장에도 강요에 못이겨 <치안대>완장을 두르고 다닌 사람들이 몇명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현무광은 죄송스러워 머리를 수그리었다.

병기공장 노동자들중에 《치안대》완장을 두르고 다닌 사람은 셋이었다. 그중의 한사람이 안해의 해산때문에 떨어졌던 전공 강덕근이었다. 그들은 지금 두문벌을 받고있었다. 법적으로 처리된 두문벌이 아니라 그들스스로가 적들에게 희생된 애국자들의 가족과 병기공장 노동자들이 무서워 문밖을 나서지 못하였다. 적강점시기에 희생된 열사자가족들은 《치안대》에 들었던 사람들만 보면 눈에 달이 올라 도끼를 들고 달려들었다. 특히 병기공장 노동자들은 강덕근이들이 최영달놈의 하수인이 되어

마을사람들을 군자리병기공장에 끌고다닌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최영달놈이 어떤 놈인가? 김만수연공반장의 아들 김영옥을 살해하고 공장합숙에 불까지 지르고 도망친 놈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반동놈의 심부름을 했던 말인가.

특히 최영달놈에게 형님을 잃은 김영식은 강덕근을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야단하였다. 강덕근은 이제 다시는 병기공장에 발길을 할수 없는 사람으로 되었다.

현무광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들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오래동안 병기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강덕근을 밀어버리는것은 가슴아픈 일이였다. 그이께서는 현무광을 돌아보며 심중히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반동단체가담자들에 대한 처리를 편향없이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강덕근이란 전공도 적들의 강요에 못이겨 할수없이 총을 들고 따라다녔을겁니다.》

그이께서는 그가 무엇때문에 우리 당을 반대하겠는가고, 정확히 알아보고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하시였다.

《장군님, 희생된 유가족들의 심정에 치우치다나니 제가 그 사업에 너무 등한히 하였습니다. 장군님의 뜻대로 반동단체가담자들에 대한 처리를 편향없이 하겠습니다. 악질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며칠 <치안대>완장을 두르고 다닌 사람들을 내버려서야 안되지. 그 사업에서도 병기공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겠소. 이 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좋아할자들은 원썩놈들뿐이요. 바로 원썩놈들은 이걸 바라고있소. 계급투쟁을

잘해야 합니다.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오. 원칙이란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 당, 우리 혁명, 우리 인민의 리익입니다. 그러면 나는 동무를 믿고 마음놓고 가겠소.》

그때는 이미 낮 2시가 넘었으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점심도 드시지 않고 병기공장을 떠나시였다. 여전히 밖에서는 눈바람이 휘몰아치고있었다.

3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받은 군자리병기공장에서는 종업원 및 가족들의 연합quel기모임을 조직하였다.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규모의 모임이였다. 지하공장 구락부 하나만으로는 모자라 여러 작업장들에 유선방송을 설치해놓고 앉아있게 하였다. 구락부에서 작업장들로 가는 갱도들에도 사람들이 빼곡이 모여앉아있었다.

모임은 현무광당위원장의 보고로부터 시작되였다.

보고에 이어 지응모, 류일룡, 유락종, 최성준, 리병혁 등 **김일성**동지를 여러번 만나뵈온 접견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노동자, 기술자들이 앞을 다투어 토론연단에 나섰다. 접견자들의 토론은 모두 눈물없이 는 들을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였다. 토론자들중에는 화승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독립군의 아들도 있었고 나라를 잃고 바람에 흩날리는 가랑잎마냥 원동,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를 방랑한 애국지사의 딸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총이 없고 군력이 약하여 일제의 망국노가 되었던 쓰라린 과거에 대한 울분을 토하면서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총기생산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칠것을 결의해나섰다. 17살의 나 어린 선반공처녀 은순이의 토론은 더욱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궐기모임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으로 끓게 하였다. 모임에서는 현무광의 결속발언에 이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의 한 조항에는 적들의 강요에 못이겨 《치안대》에 가담했던 병기공장 노동자 3명을 관대히 용서하고 원래의 초소에서 다시 일할수 있도록 조직사업과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가 찍혀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현무광이 결속발언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해설해가면서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튿날 아침, 잔뜩 주접이 든 3명의 사나이가 현무광의 방에 찾아왔다. 그들속에는 강덕근이도 있었는데 그는 무슨 목직한 보짐을 그러안고 비칠거리며 들어섰다.

현무광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세사람을 앉혀놓고 반동단체가담자처리문제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전달하고 병기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채택한 결의문의 한 조항을 읽어주었다.

세사람은 무릎에 얼굴들을 파묻고 오열을 터뜨리였다.

현무광은 그들이 실컷 울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한참만에 울음을 진정한 강덕근이 보짐을 그러안고 비칠비칠 걸어나오더니 품에 안은 그 물건을 현무광의 탁상우에 올려놓았다.

《그건 뭐요?》

현무광이 영문을 알지 못해 탁상우에 놓인 보짐을 어정쩡히 내려다보았다. 덕근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그안에서 네모난 나무함이 나왔다.

덕근은 나무함뚜껑을 제끼었다. 그안에 또 보라색비로도에 찢겨있었다.

《그 보자기는 당위원장동지가 푸십시오. 제 이... 더러운 손으로는...》

덕근은 비로도천에 찢 물건을 끄집어내놓고 비칠비칠 뒤걸음을 쳤다.

현무광이 비로도를 벗기자 시누런 동합금같은것이 번쩍거리었다.

《이게 뭐요?》

《금덩이올시다... 아하-》

덕근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도대체 이걸 무슨 금덩이요?》

《나무함에 두호령감이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현무광은 방금 금괴를 꺼낸 나무함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거기에는 자잘한 연필글이 삐뚤삐뚤하게 씌여진 글종이가 몇장 깔려있었다.

현무광은 서둘러 그것을 꺼내들었다. 《덕근이, 이 사람!》이라는 연필글이 눈에 밟히는 순간 현무광은 두호의 걸그렁한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는듯싶어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덕근이, 이 사람!... 나는 왕년에 저지른 잘못들을 만사람들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인사를 하고싶어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글을 쓰네. 병기공장 동무들과 함께 짐을 지고 떠났던 내가 어떻게 되어 지금 놈들의 감옥안에서 글을 쓰게 됐는지 먼저 그 사연부터 말하겠네.

내가 우리 딸 영숙이와 함께 수풍으로 가는 공장대렬에 끼여 얼마간 걸어갔을 때였네. 후방경리부 방지도원이 나를 조용한 곳에 데리고가더니 <령감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절대비밀을 말해주는데 법기관에서는 최영달사건때 령감을 용서해주었지만 실은 그놈과 연계된 암해분자로 의심하고 계속 감시해왔소. 중앙검찰소에 있는 내 친구가 하는 말인데 이번통에 령감처럼 의심스러운자들은 일정한 곳에 가서 다 처단해버린다고 하오.> 하고 마른벼락같은 소릴 하지 않겠나. 나는 깜짝 놀라 어쩔바를 몰라했네. 그 방지도원이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수풍으로 간다고 하지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놈들이 술한 비행기, 군함, 장갑차, 대포들을 조선전쟁에 들이밀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여내겠는가, 아, 우리는 다 망했다, 당원들이야 미국놈에게 붙잡히면 살아나지 못하지만 당원도 아니고 공화국의 의심을 받고 살아가는 령감이야 무엇때문에 제 죽을 곳으로 찾아가겠는가, 배낭속에 있는 시시부렁한 물건들은 다 췌버리고 돈냥이나 나가는 물건들이나 가지고 슬그머니 대렬에서 빠져 집으로 돌아가라고 곡진스레 이르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네. 그때 내 배낭안에는 값비싼 금강석날을 댄 최고급줄칼을 비롯해서 귀중한 공구들이 들어있었네. 그보다도 더 귀중한것은 훈장을 만들 때 쓰던 금 한덩어리가 있었지. 북새통에 국고에 미쳐 바치지 못한 금괴였네. 평시에 말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온 방지도원의 사람됨을 나는 진국으로 보았기때문에 그의 말을 죄다 사실로 믿었네. 그리하여 북행길에 오른 내 발걸음은 점점 떠지게 됐네. 더우기 배낭속에 들어있는 한덩어리의 금괴가 내 마음을 홀리기 시작했네.

(이 금덩일 몇번 굴리기만 하면 철공소 하나쯤은 넉넉히 꾸려놓을수 있지. 아직까지도 암해분자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판에 뭇때문에 부득부득 죽을 곳으로 찾아가겠나.)

그러자 내 본래의 두호가 안타까이 말했지.

(두호, 그러면 못쓰네. 해방전에 개, 돼지보다도 더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임자에게 사람대접을 해주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없이 살게 해준 나라의 은덕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건가? 나라의 금덩이를 돌려메고... 그건 훈장을 만드는데 쓸 금덩이가 아닌가?)

이렇게 두명의 두호가 50여리나 행군하면서 계속 싸움질을 하였는데 마침내 황금에 홀리운 두호한테 이쪽의 두호가 지고말았네.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당원이 아니다. 이 배낭속에 있는 금덩이면 내 팔자를 고칠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쳐들어 점점 걸음이 떠지기 시작한 나는 순천읍을 지나 함박골근방에 왔을 때 내 딸 영숙이한테 다리를 접질리고 몸에 병이 들어 못 가겠다고 했네. 가족대렬까지 모두 앞으로 지나간 때였네. 영숙이는 죽으나사나 공장대렬을 따라가야 한다고 내 손을 잡아끌었으나 나는 <내 몸은 병들었다. 수풍까지 가내지 못한다. 기여서라도 집으로 돌아가 내 집 방안에서 죽겠다. 정 가겠으면 너 혼자 가거라.> 하고 남쪽길로 걸음을 옮기었네. 영숙이가 애기를 업은채 나를 따라오며 발길을 돌리라고 애바르게 타이르는 동안 적강점지역이 돼버리고말았네. 이렇게 되어 우리 부녀는 군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네. 집에 돌아와 하루밤 자고나자 <치안대>완장을 낀 젊은 녀석들이 우리 부녀를 자기네 대장한테로 끌고갔네. 대장이란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부녀가 얼마나 놀랐겠나. 최영달, 그놈이 군자리에 나타날줄이야 어찌 알았겠나. 이것이야말로 원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격이지. 알고보니 그놈은 남으로 넘어간 후 <대북공작조>에 들어 훈련을 받았더군. 그 무리에 들어 머리가 터지고 살을

찢기우면서 훈련을 받은 놈은 성천군일대의 반동단체를 지휘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북진하는 미군을 따라 또다시 북반부에 기여들었다는것이네. 미국놈들이 그에게 성천지구 반동단체 부대장의 직권을 준것은 군자리병기공장을 장악하자는데 있었네. 이것은 우리 부녀앞에서 최영달놈이 자기 입으로 지껄인 말인데 아마 임자도 알고있을거네. 그놈은 먹이를 본 굶주린 송냥이처럼 우리를 바라보며 씨부렁댔네.

<두호아바이는 원래 나를 사위로 삼을 생각까지 했던 령감이니 내 말을 잘 들을것이다. 영숙이, 너도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들을수밖에 없다, 지금은 법의 칼이 내 손에 쥐여져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너만 죽는것이 아니라 저 두호아바이도, 네 등에 업힌 애기도 다 죽어야 한다. 알겠는가?>

<나는 너를 보는 순간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

우리 영숙이의 말이였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네. 아, 그놈의 금덩이때문에 내가 내 딸과 손자까지도 죽을 곳으로 몰아왔다는 생각으로 몸을 와들와들 떨었네. 그리고 나를 부추긴 방지도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였네. 나도 그때에 이르러서는 굳이 살 생각을 하지 않았네. 세상 너절한 인간인 이 두호도 최영달이놈한테 애걸해서 목숨을 부지할 생각은 없었던 말이네. 영숙이는 죄스러운 마음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있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웃으며 말했네.

<아버지, 우리 깨끗이 죽자요.>

<오냐, 오냐,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나는 세상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살만큼 다 살았다만… 가슴이 터지는것 같구나.…>

나는 딸을 붙안고 내 손자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네.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녀석은 에미 등에서 해죽해죽 웃고있었네.

불살을 실룩거리며 우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있던 최영달놈은 줄개놈을 부르더니 <이 로인과 아주머니를 특수감방에 잘 모시라! 나하구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그리구 래일 너는 병기공장 전공 덕근이와 함께 주민들을 다 동원시켜 매몰된 병기공장 갱구를 빨리 파헤치라!> 하고 명령하더군.

이렇게 되어 우리는 <특수감방>에 갇히우게 됐네.

사택마을에서 오리가랑 떨어진 산기슭에 외따로 지은 반토굴집이었는데 <치안대>완장을 팔에 두른 젊은이가 보초를 섰네. 노전을 칸 방 한구석에 곡괭이가 놓여있고 방바닥에는 종이장들과 연필이 있었네. <죄수>들에게 자백서를 쓰라고 가져다놓은것인지...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쓸수 있게 됐네. 나는 긴말을 더 하지 않고 한가지 부탁하겠네.

덕근이 이 사람, 나는 임자를 믿네. 임잔 평시에 부지런하구 마음이 고와서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었지.

전기사고로 기계가 안 돈다는 기별을 받으면 언제나 임자가 달려와서 고쳐주군 했어. 임잔 동네아낙네들의 부탁도 마다한적이 한번도 없네. 그러니 이 못난 놈의 마지막부탁을 잘 들어주리라고 믿네.

우리 집 살구나무밑에 한근이 훨씬 넘는 금괴를 묻어두었으니 우리 사람들이 돌아오면 당위원회에 반환해주게. 그게 어떤 금괴라는건 편지 앞머리에 썼으니 잘 알거네.

아, 나는 금을 탐내다가 이 지경이 됐네.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가슴에 달아줄 훈장을 만들어야 할 금을 제 주머니안에 넣자고 했던 말일세. 평시에 돈벌이에만 미쳐 돌아가더니 나중엔 그 정도로 환장하게 됐네. 돈에 환장을 하면 역적이 되고 제 신세를 망치게 된다는걸 나는 이 란리통에 똑똑히 알게 됐네. 늦게나마 이것을 깨달았으니 우리 딸의 말대로 깨끗이 그리고 피값을 하고 죽겠네... 이 글을 어떤 방법으로 임자한테 전하겠는지는 좀 생각해보겠네.

덕근이, 잘 있게. 내 평생에 이렇게 긴 글을 써보기는 처음이네. 우리 부녀가 어떻게 죽는가는 이제 임자가 꼭 보게 될거네. 군자리의 밤하늘에서 두견새가 울면 그게 내 혼인줄 알게.

김두호. 1950년 10월 19일》

두호의 편지를 읽고난 현무광의 마음은 더없이 괴로웠다. 두호의 얼굴이 편지글발우에 덧보이고 곁따라 또 공장교환수로 일한 그의 딸 영숙이의 모습이 자주 겹쳐보이기도 하였다.

현무광의 귀에는 영숙이의 물기에 젖은 목소리가 현실처럼 분명히 들려왔다.

《당위원장동지, 우리 아버지와 한번 담화를 해주십시오. 당위원장동지가 잘 타일러주시면 우리 아버지의 낡은 사상을 뿌리빼주실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위원장동지만을 믿습니다. 정말 저녁마다 울리는 아버지의 리기주의망치소리가 진저리납니다.》

이것은 어느날 지배인이 강연회에서 최근 공장에서 나타나고있는 공부정자료를 통보한 뒤끝에 영숙이가 찾아와서 한 말이었다. 지배인이 통보한 부정자료중 두호의 개인리기주의적인 비행이 가장 엄중했다.

그때 현무광은 영숙이의 제기를 받고 두호를 만나 담화를 했었다.

두호는 현무광에게 지난 시기 자신이 개인리기주의를 한 사실에 대하여 허심하게 인정하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단단히 결의를 다지였다.

그후 두호는 실지로 눈에 띄게 개진되었기때문에 그를 믿고 훈장작업반장의 중책을 맡겼던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두호가 나라가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간첩놈의 몇마디 말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을뿐아니라 황금을 탐내던 나머지 목숨까지 잃는 비극을 겪게 된것이였다.

현무광은 그에 대한 교양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뼈저린 죄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의 나쁜 근성은 한두번의 비판이나 교양으로써 고쳐질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현무광은 오래도록 두호의 편지를 들고 서있었다. 그리고 금괴에서 이윽도록 눈을 떼지 못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어리의 겉면을 새삼스럽게 만져보았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 금벌의 훈장을 가슴에 단 이 나라 영웅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두호가 말한것처럼 지금 그가 만지고있는 빛나는 물체는 이 나라의 영웅들, 위훈자들을 위해 마련해놓은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훈장제작도 병기공장 로동계급에게 맡기시었다. 얼마나 큰 믿음이신가. 그런데 이 믿음을 왜 그의 심장에 깊이 새겨주지 못했던가. 아...

《당위원장동지! 두호아바이는 심문하러 들어온 최영달이란 놈의 대갈통을 곡괭이로 까고 그 이튿날 딸과 함께 사형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김일성장군 만세!>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힌... 이제 한돌이 된 애기도...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꿰뚫은 총알이... 으흐흐...》

강덕근은 말을 잊지 못하고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곁에 앉은 《치안대》가담자들도 곁따라 흐느껴울었다.

《덕근동무! 두호아바이는 자기의 사상적결함을 똑똑히 깨닫고 죽었소. 정말 괴롭소. 동무는?!》

현무광은 검실한 눈에 엄한 빛을 띠우며 강덕근을 똑바로 지켜보았다.

《저는 두호아바이처럼 돈에 환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두호아바이가 저에게 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분자였습니다. 비겁분자 역시 위험에 처하면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이 된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비겁분자였기때문에 자기의 혁명동지를 죽이고 병기공장합숙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철천지원쭈 최영달이한테 굴종하였고... <치안대>완장을 끼고 그놈의 심부름을 했으며... 감옥안에 갇히운 애국자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나같은 더러운 겁쟁이는 죽어도 한번 죽는게 아니라 두번, 세번 죽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근은 준비해두었던 시험답안을 외우듯이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그리고보면 그가 스스로 두문벌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을 한것 같았다.

《그리구 이놈에게 제일 나쁜것은 의리가 없고 신념이 없는것이였습니다. 저는 해방후 5년동안 장군님의 사랑을 받을대로 받았지요. 그런데도 이놈은 장군님의 사랑이 어떤것인지 몰랐지요. 리창일작업반장이랑은 그 사랑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기어코 만삭이 된 처를 데리고 수풍으로 갔지요. 그리구 거기서 또 장군님의 사랑을... 미역이랑 꿀이랑 한가득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놈은... 으흐흑... 이런 천하 고약한 놈을 장군님께서서는... 용서해주라고... 령을 내리시였으니... 으흐흑...》

덕근은 하고싶은 말을 다 못하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목놓아 울었다.

현무광이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이들에게 다른 해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만단사연이 깃든 금괴를 비로도천에 정히 싸서 나무함에 넣었다.

덕근을 포함한 3명의 《치안대》가담자들은 그날부터 병기공장전투대렬에 들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1월 23일 밤 지방현지지도를 하고 최고사령부로 돌아가시는 길에 군자리병기공장에 들리시고 1월 28일에는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및 중국인민지원군부대 지휘관, 정치일군련석회의를 지도하러가시는 길에 군자리병기공장을 또 찾아주시였다.

그리고보면 그이께서 1월 한달에만도 군자리병기공장을 세차례나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땅거미 지는 최고사령부 앞마당을 거닐며 방금 도착한 김책이와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였다.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건지리는 자못 오붓하고 아담한 마을이였다.

김책은 사방을 둘러보며 자기는 평양주변에 이렇게 풍치좋은 아담한 마을이 있다는것을 평화시기에는 전혀 모르고 지냈다고 하였다.

건지리는 위치로 보아도 전시에 최고사령부가 사임하기에는 안성맞춤한 곳이였다. 그러나 김책은 김일성동지의 신변에 대한 걱정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하였다. 최고사령부에서 토론되는 군사적비밀이 즉시에 적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문한것으로 보아 상당한 국가요직에 나쁜 놈이 들어앉아있다는 의혹이 생긴다는것이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집무실도 적들에게 이미 노출되어있는것 같다고 하였다.

김책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을 김일성동지께 아뢰이려고 찾아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도 국가요직에 나쁜 놈들이 들어앉아있다는 생각을 하신지는 오래되였다. 그러나 박헌영이나 리승엽 같은자들을 양봉음위하고 동상이몽하는 견실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의심해본적은 한번도 없으시였다.

《장군님, 아무쪼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나쁜 놈들이 박헌영과 같은 입이가벼운 무정형의 인간들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비밀을 뺏아내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 놈들의 비행기가 항상 장군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건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김책동무의 신변이 마음놓이지 않습니다. 부수상이 가지 말아야 할 위험한 곳을 자꾸 찾아다니니 하는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지난 1월초에 있는 일을 상기하시였다.

1월 4일 서울시를 다시 해방하였을 때 그이께서는 즉시 김책을 부르시여 전기기술자들을 서울에 보내여 송배전설비의 파괴정형과 가동상태, 시의 전력수요와 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이때 김책은 가장 위험한 곳을 자신이 직접 찾아다니며 과업을 수행하였다.

《김책동무, 모험을 하지 마시오. 왜 위험한 곳을 자꾸 찾아다닙니까? 내가 김책동무한테 자주 어려운 과업을 주곤 하는데 모험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정 그러면 앞으로는 부수상한테 과업을 주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김책은 그이의 뜨거운 사랑에 눈곱이 젖어들고 가슴이 찢어터져 주먹을 입에 대고 가볍게 기침을 낚았다.

《제가 그만 장군님의 속을 태워드린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과업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 부수상한테 수고끼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는 추리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군자리병기공장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지금 그곳에서는 불이 붙고있었다.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은 그전에도 일을
 잘했지만 수풍에 갔다온 다음부터 이전의 2배, 3배의 능률을 내고있었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1월17일현지지도이후 군자리병기공장 로동자들은 종전에 볼수 없었던
 기적적인 생산성과를 올리고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정전이 되어 병기공장동무들이 생산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적들의 폭격이 아무리 심해도 병기공장만은 생산을 멈추지 않게 전기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놈들이 공장전기시설에 계속 폭격을 들이대는것을 보아도 비행기를 유인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것 같았다. 놈들은 전쟁전부터 병기공장에 간첩암해분자들을
 침투시켜왔으니 오늘에 와서는 그런 암해공작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리란것은
 너무도 명백하였다. 놈들은 강점시기에 군자리병기공장의 위치와 주변지형지물을
 정확히 알고갔으므로 안내자가 없이도 폭격지점들을 능히 선택할수 있었다. 지하에
 있는 병기시설은 어찌할수 없으니 지상에 있는 동력시설에 무단히 폭격을 가하여
 병기생산에 지장을 주려는것이였다.

《장군님! 반항공무력을 증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병기공장에 전기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눈이
 미칠수 없는 지대를 따라 새로운 송전선을 한회선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놈들은
 현재 병기공장의 송전선망에 대해서는 손금보듯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송전선망!)

김책은 전선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을 때의 그런 기쁨과 흥분에 가슴들먹이며 말씀올리었다.

《장군님, 그 일은 제가 조직하겠습니다.》

《새 지대에 우회선을 치되 로출된 지상으로가 아니라 지하우회선을 쳐야 하겠습니까. 물론 원래의 송전선망도 그대로 두고 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쪽선이 폭격을 맞아도 엇바꾸어 복구수리하면서 쓰면 전기의 지장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이길로 군자리에 가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래일 날이 밝은 다음에 떠나라고 하시였으나 김책은 그 저녁으로 건지리를 떠났다.

그는 병기공장에 내려가자바람으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토의하였다.

그리하여 병기공장 동력부장을 총대장으로 하는 청장년들로 돌격대를 뭋고 우회로선 전기공사를 위한 전투를 벌리었다. 돌격대안에 네명의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참모조를 조직하였는데 현무광의 제기에 의하여 까벨작업의 경험이 있는 유능한 전공인 강덕근이가 참모조에 망라되게 되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치안대》 완장을 두르고다니 그 강덕근이였다.

김책은 먼저 참모조성원들과 함께 군사지형도를 들고 자동차를 타고다니며 천여리구간에 대한 지하송전선망의 우회로선을 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수풍발전소에서부터 승호리지구를 멀리 에돌아 지상송전선을 늘였던것을 직접

땅속으로 늘이도록 하였다. 송전선을 땅속으로 늘이는 장거리지하까벨공사는 결코 험한 일이 아니었다.

강덕근은 김책에게 이런 의견을 제기하였다.

《부수상동지, 이 일을 빨리 해제끼자면 지방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도랑을 파는 작업을 지방행정기관들에서 맡아주기만 하면 까벨선을 늘이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낼수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은 내가 책임지고 동원시키겠으니 동무들은 기술지도를 하면서 까벨작업을 벼락같이 해제끼시오. 이 일은 될수록 소문을 내지 않고 빨리 해야 하오.》

이렇게 전투는 시작되었다.

지하송전선건설공사는 비밀리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어려웠다.

1월의 강추위속에서 낮에는 땅을 파고 밤에는 까벨선을 늘이는 전기공사를 하느라 돌격대원들은 하루 서너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

며칠사이에 전호같이 파놓은 긴 도랑은 산릉선으로 뻗어오르고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룡선을 따라 산정으로 치달아올라 남쪽으로 연연히 뻗어나갔다.

지하까벨공사는 김책의 사업영역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작업에 계속 붙어있지 못하고 시간이 생기는데 따라 며칠에 한번씩 와서 공사정형을 료해하곤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남달리 눈에 띄게 결사적으로 일하고있는 강덕근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강덕근은 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자진해서 제일 어렵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했다. 까벨선을 문을 깊은 도랑을 파다가 암반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을 제껴내고 함마질을 해대는데

체소한 몸에서 어찌면 그런 힘이 나오나싶게 백번이고 천번이고 암반이 부서져나갈 때까지 손에서 메를 놓지 않았다. 그가 언제 자고 언제 깨어나는지도 알수 없었다. 벼랑길이 생기면 의례히 그가 먼저 까벨선을 허리에 감고 툴아올랐고 예상밖의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가 언제나 앞장에 서서 길을 개척해나갔다.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어느 추운 날 점심때 김책은 산정에서 덕근이와 언밥을 같이 나누어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가 후퇴시기에 《치안대》에 가담했던 사람아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동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있는것을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거요. 나도 기쁩니다.》

김책이 강덕근의 잔등을 두드리자 그는 《부수상동지, 하실 일이 많겠는데 여기 일은 걱정마시고 장군님의 신변을 돌봐드리십시오. 여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을 꼭 믿으십시오.》 하고 목메인 소리로 진심을 터놓았다.

《고맙소. 털어놓고 말해서 나는 할 일이 많소. 내가 일을 쓰게 못하다보니 장군님께서 늘 밤을 깨며 일하십니다. 그럼 동무들을 믿고 나는 가겠소.》

덕근이와 이렇게 헤어진 김책은 그후 며칠동안 까벨공사장에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김책부수상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지하까벨공사장에 날아들었다.

현무광이 현장에 찾아와 김책의 서거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1951년 2월1일교시를 전달하자 돌격대원들은 일시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김책동무가 그제 밤에 최고사령부에 찾아왔을 때 보니 궤진 양말을 신고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그에게 나의 양말을 신겨보냈습니다... 김책동무를 잃고 더욱 가슴아프게 생각되는것은 그제 밤에 그를 최고사령부에서 채우지 못하고 떠나보낸것입니다. 나는 김책동무에게 최고사령부에서 자고가라고 몇번이나 말하였으나 그는 아침에 긴급히 포치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끝내 밤길을 떠났는데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상봉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김책이 아침에 포치할 사업이란 지하까벨공사와 관련된것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이 더욱 땅을 치며 통곡하였던것이다.

아, 총탄이 비발치던 곳에서도 끄떡없던 이 강철의 혁명가가 어찌하여 벌써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던 말인가.



새벽 3시.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시고 집무탁에 놓인 1대 5만 지형도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시였다. 조밀한 등고선들이 복잡한 곡선을 그린 지형도의 한 지점에 뚜렷이 새겨져있는 붉은 오각별, 거기에 김책의 령구가 안치되어있었다. 험한 산과 높은 령을 넘고 물매진 산자드락길을 굽이굽이 에돌아야 가닿을수 있는 적막한 깊은 산중에 김책의 묘소가 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수십일째 새벽이면 이렇게 그의 묘소를 표식한 지형도를 들여다보시였다.

김책과의 영결을 앞두고 그이께서 생각하고 생각하신 끝에 친히 잡으신 묘터였다.

적비행기들의 폭격과 간첩암해분자들의 책동이 심한 준엄한 현실이 그이로 하여금
깊고 외진 산중에 김책의 령구를 안치할 결심을 내리시게 한것이다. 김책의 묘소를
지키는 위병대도 무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을 짚고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김책의 사망은 너무도 뜻밖이였다.

지난 1월 30일 밤 김책은 갑자기 최고사령부를 찾아왔었다.

그이께서는 그때 무슨 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싶어 저으기 놀라시였다.

《장군님, 무슨 용무가 있어 찾아온게 아닙니다. 지난달 24일이 정숙동무의 생일인데
장군님께서 적적해하시리라는걸 알면서 일이 바빠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처신이 잘된것 같지 않고 또 자꾸 여기로 오고싶어져서 찾아왔습니다.》

《김책동무, 무슨 그런 소릴 하오. 지난해 12월이야 북반부땅에 들어온 미국놈들을
몰아내느라 눈에서 불이 일던 때인데 정숙동무의 생일을 생각할 경황이 있었소? 그런
일로 너무 마음쓰지 마시오. 자, 여기 앉아 이야기나 합시다.》

의자를 권하시던 그이께서는 김책의 양말뒤축이 꿰진것을 보시였다. 순간 가슴이
찌르르 하시였다.

《장군님, 오늘은 사업을 그만하시고 저하고 산보나 하십시오.》

그이께서는 김책이와 함께 밝은 달빛이 흘러내리는 소나무숲속을 거닐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에 대한 회포를 나누시며...

그때 그이께서는 김책에게 최고사령부에서 자고가라고 몇번이나 이르시였으나 그는 아침에 긴급히 포치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끝내 밤길을 떠나갔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몇시간도 못되어 그이께서는 김책이 사망했다는 천만뜻밖의 소식을 들으신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으시였다. 즉시 내각으로 차를 달려 김책의 방으로 들어가시였다. 그는 금방 잠이 든듯 조용히 누워있었다.

《김책이!》

그이께서 목메여 부르시였으나 김책은 눈을 감은채 대답이 없었다.

장군님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리였다.

(왜 그때 만류하지 못하였는가?…)

가슴이 미여지시였다. 언제나 곁에서 큰일, 작은 일을 다 맡아하던 김책이였다.

하바롭스크의 눈덮인 이국땅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한 다음부터, 해방후 민주건설시기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첫시기부터 제일 어렵고 위험한 바람받이에 막아섰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이며 전우였던 김책!…

그이께서는 사무치는 추모의 정에 눈물지으며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이미 그이께서는 평양공업대학을 김책공업대학으로 개칭하도록 하시였다.

함경북도 학성군을 김책군으로, 성진시를 김책시로 명명하도록 하며 김책공업대학과 흥남공업대학에 김책장학금제를 내오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1인당 매월 1 000원씩 김책장학금을 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제2중앙정치학교를 김책정치군관학교로, 유자녀군사학원을 유자녀김책군사학원으로, 근위

서울제4보병사단을 김책근위 서울제4보병사단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이중에는 벌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포된것도 있고 후에 공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있는것도 있었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김책이 생전에 조직하고 지휘해온 병기공장 지하까벨공사에 생각이 미치여 전화로 현무광을 찾으시였다.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서 안됐소.》

《장군님!》

현무광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있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부른건 아니요. 김책동무 생각을 하다가... 동물 불렀소. 지하까벨공사가 어떻게 됐소?》

《장군님, 기본적으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장군님께 보고를 올리려던 참입니다. 계획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끝냈습니다.》

《김책동무가 그 공사때문에 추운 겨울에 매일과 같이 산을 넘나들었지... 공사가 끝났으면 전기를 투입해야지.》

《예. 며칠후에 전기투입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의 책임간부들이 내려와 투입하면 의의가 있을것 같습니다.》

현무광의 목소리는 흥에 떠있었다.

《무엇때문에 간부가 내려가 투입하겠소. 거기에 강덕근이라는 노동자가 있지?...》

웬일인지 수화기가 잠잠하였다. 그이께서 뜻밖에 강덕근을 찾으시니 좀 어리둥절해하는것 같았다.

《내 생각엔 전기투입손잡이를 그 동무에게 넘겨주었으면 합니다. 김책동무가 있었으면 틀림없이 그 동무가 투입하게했을거요.》

《알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김책부수상의 말이라고 하시오. 병기공장동무들이 모두 건강해서 일을 잘하기 바랍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무광의 울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송수화기를 놓으시였다.

그로부터 3일후 지하까벨공사완공식이 진행되였다.

현무광이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돌격대원들에게 전하고 강덕근의 손에 전기투입손잡이를 넘겨주었다. 그것을 두손으로 움켜쥔 강덕근은 눈물을 흘리며 평양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죽어 눈에 흠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습니다.》

드디어 강덕근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두손으로 정중히 전기투입을 하였다.

웅웅 하는 전기의 흐름소리가 마치 지심속에서 전달되여오는 뜨거운 용암의 진동음처럼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지하병기공장으로 전기가 힘차게 흘러들어갔다.

《만세!》

돌격대원들이 웨치는 만세의 함성이 멀리 메아리쳐갔다.

이때부터 군자리병기공장은 적들의 송전선폭격으로 하여 정전이 되는 일은 없었으나 변전소가 폭격을 받아 전기공급이 중단되곤 하였다.

이것을 헤아려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병기공장을 위하여 건설한 3개의 변전소들도 지하에 넣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지하변전소건설장에 수백명의 군인들과 여러대의 자동차굴착기를 보내주시였다.

지하변전소건설은 20일도 안 걸려 완공되였다. 이로써 군자리병기공장에는 철벽의 지하전기요새가 형성되였다. 그러나 이것도 안전성이 완전무결한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발전원천지인 수풍발전소를 지하에 넣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송전의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바로 이무렵 미제의 우두머리들속에서는 조선전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벌어지고있었으니 그것은 《정전담판》이라는 군사회담문제였다.

5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월간국제자료들을 보고계시였다. 3-4월기간의 국제자료들중에는 미국대통령 트루먼과 국무장관 애치슨을 비롯한 미국의 우두머리들이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아시아정책을 놓고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을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직접 정전담판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미국회상원에 상정시킨 내용들이 실려있었다.

얼마전까지만도 무작정 군사적공세만을 주장하던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전담판을 진행할데 대한 모의를 하고있다는것은 저들의 위태한 운명을 놓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그러나 교활하고 비렬하기 짝이 없는 미제는 정전담판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가련한 처지에 빠져있으면서도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을 유지하고 담판에서 승리자의 행세를 하고싶은데로부터 각 방면에 걸친 비밀외교접촉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먼저 정전을 제기해나서도록 꾀하고있었다.

자료를 보고나신 **김일성**동지의 입가에는 쓰거운 웃음이 질게 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작전실을 천천히 거닐며 생각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계속해도 좋고 오늘의 정황에서 정전을 해도 좋다. 현재 우리는 승승장구하고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승리자가 먼저 정전담판을 제기하겠는가. 평화애호적인 우리 인민은 정전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에 손상을 주는 그따위 정전에는 응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정전은 외교적경로로써가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 정식으로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제기해와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정전담판에 응해줄수 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전쟁은 **김일성**동지의 줌안에 확고히 들어있었다. 지난 겨울에 있는 황초령일대에서의 적들의 대참패는 청천강변과 개천일대의 참혹한 패전으로 이어져 벌써 지난 1월부터는 적들이 한강, 북한강, 소양강이남으로 쫓겨가게 되었으며 4월에 와서는 범꼬리 잡고 놓지 못하는 격이 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들고 얼마전부터 산업상직을 맡은 정일룡을 찾으시였다.

《정일룡동무, 요즘에 병기공장에 나가보군 합니까?》

《가끔 나가봅니다. 그리고 병기생산국장 고정한동무가 계속 군자리에 나가있습니다.》

《산업성에서 병기공장을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정세를 더 유리하게 만들자면 전선에서 적들을 계속 강도높이 압박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병기공장에서 총과 총탄, 포와 포탄생산을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이것만 쌓아놓으면 문제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군자리를 비롯한 모든 군수공장들에서 생산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있습니다.》

정일룡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전류를 타고 힘있게 울려오고있었다.

《그렇소. 병기공장 노동자들의 기세는 언제나 좋소. 그러나 일부 간부들속에는 무슨 과업을 주면 못한다는 소리부터 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내가 후퇴시기 강제로 가는 도중에 희천에 들려 기계공장을 넣을 굴을 파라고 지시하고 포탄을 생산해야겠다고 하니 지배인이란 사람이 현재 형편에서는 포탄을 생산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앉아있던 한 청년은 로력만 조금 대주면 공장에서도 얼마든지 포탄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병기생산국 상급지도원 한성룡동무입니다. 그래서 그 동무를 포탄공장 기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간부교양을 잘하여야 합니다. 모든것이 간부에게 달려있고 가장 힘든것이 간부교양입니다.》

간부에 대한 교시를 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간부의 전형인 김책에 대한 추모의 정, 견디기 어려운 그리움에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잠자코계시었다.

김책이 없으니 중요사업을 료해하고 포치하실 때마다 빈자리와 구멍이 크게 눈에 뜨이곤 하시었다.

《정일룡동무, 다시말하지만 병기생산이 중요합니다. 그때문에 지금 전선형편이 긴장하지만 보위성 대렬보충국에서 많은 군인들을 뽑아 병기공장에 보내게 했습니다. 동무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것은 병기생산은 오늘의 전쟁뿐만아니라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것이요. 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군사와 병기공업은 제1차적인 요구로 남아있게 됩니다.… 포탄공장건설을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수로굴 확장공사가 끝나면 즉시 포탄공장을 지하에 넣어야 합니다. 함경도 공장들에 나가 병기기술장습을 주고있다는 박흥근동무가 아직 군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일룡은 그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다고 대답올렸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 동무가 화약과 철갑모를 연구하고있는데 도와주시요. 그리고 소개되었던 조선소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일을 하고있다는데 선박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세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의의가 큼니다. 조선소문제는 별도로 토론합시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화제를 바꾸시여 교시하시었다.

《군자리병기공장에 많은 로력이 보충되는 조건에 맞게 기능공양성사업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병기기술자양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에 김책공업대학 분교를 내오자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아직은 사람들의 입에 선 김책공업대학이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 음성이 몹시 갈리시였다. 끝없이 겸손하고 인정이 깊으면서도 원썩들앞에서는 성난 호랑이가 되고 비당적이고 비원칙적인것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은 김책, 그는 우리 시대 일군들의 본보기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간부들이 그를 따라배우도록 하실 생각을 하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정일룡동무, 군자리병기공장에 김책공업대학 분교를 내오는 문제를 얼마전에 교육성과 토론하였습니다. 대학분교의 교원문제는 김책공업대학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일군들을 공장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끝으로 지배인, 당위원장을 비롯한 병기공장 로동계급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이르고 송수화기를 놓으시였다.

×

김일성동지의 전화교시가 군자리병기공장 지배인, 당위원장에게 전달된 후 며칠 지나서 배치장을 받은 수백명의 제대군인들과 대학분교 설립을 위한 김책공업대학 실무일군들이 공장에 도착하였다.

현무광은 새로 배치되어온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하느라 눈코뜰 사이가 없게 되었다.

공장에 배치되어온 제대군인들은 거의다 평화시기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일자 총을 잡고 전선으로 탄원했던 동무들이었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골안에 들이닥치다보니 군자리일대가 여간 복잡하지 않았다. 공장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공장에 있다가 군대에 나갔던 동무들은 본래 자기들이 있던 직장과 작업반을 찾아다니며 회포를 나누었고 병기공장실정을 모르는 동무들은 이리저리 줄을 놓아 직장실정을 료해하느라 정보수집에 여념이 없었다. 어느 직장, 어느 작업반에 배치되는가 하는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운명문제처럼 귀중하게 생각되었던것이다. 몇백명을 헤아리는 제대군인들속에 무슨 사람인들 없겠는가.

제대군인들이 20일동안 로동안전교양을 받는 기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로동행정부에서 배치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견잡을수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배치받은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안 가겠다고 책상을 두드리며 야단하는 제대군인들이 더러 있었다.

전선에서 총을 잡고 미제원썹들과 싸우던 혈전의 고지에 놈들의 총탄에 쓰러진 사랑하는 전우들을 묻고 돌아온 제대군인들은 하나같이 총, 포생산직장이 아니면 전선의 군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부문으로 보내달라고 졸라댔다.

《동무들, 뻔히 아는 때를 쓰지 마시오. 병기공장엔 전후방이 따로 없소. 모두가 다 제1선이요. 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배치한대로 가시오.》

로동행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설도 하고 위협도 하고 구슬리기도 했지만 사선을 헤치고다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나이들이 말 몇마디에 수그러들리가 만무하였다.

제대군인들이 오자부터 당위원장방에는 매일과 같이 로동행정부사람들과 합숙관리일군들이 찾아와 돌쩌귀에 불이 일 지경인데 로동행정부사람들은 제대군인들의 성화에 못 견디겠다고, 사람들이 사나와서 대상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부서에 옮겨달라고 야단이고 합숙관리일군들은 반대로 제대군인들에 대한 칭찬을 하느라 입안의 침이 마를 정도였다.

방금전에도 합숙사감이 제대군인들을 한참 칭찬하고 갔었다.

《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이 다르긴 다릅디다. 호실이 모자라 정원보다 세명을 더 넣어 미안해하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감아바이, 우린 전선에서 잠자리 오지 않았으니 마음 놓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잠자리는 합숙호실이 아니라 작업장이 될겁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게 아닙니까. 제대군인들이 합숙일을 다 해주어서 사감의 손바닥에 털이 날 지경입니다.》

현무광은 서로 판이한 두 부서의 반영을 놓고 생각이 많아졌다.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 그들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가능한것 본인의 호소를 위주로 하여 배치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몇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본인의 요구대로 배치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무광이 그때문에 마음을 쓰고있는데 손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더니 왼쪽눈을
싸맨 로동행정부장 리백찬이 뛰어들어왔다.

《당위원장동지, 난 로동행정부장을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놓겠습니다.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어요?》

현무광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성나서 뇌까리는 로동행정부장을 어정쩡히
바라보았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이 눈을 보십시오.》

로동행정부장은 왼쪽눈을 싸맨 흰 가제천을 벗기었다. 눈부위는 먹칠한듯 시꺼멓게
멍이 들고 빨갧게 피가 진 눈자위에서는 진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장룡운이라는 제대군인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전선에서 싸운 재세를 하면서
형벌되는 사람의 눈통을 쳤단 말입니다.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지요. 설익은
사람입니다. 난 병원에 가겠습니다.》

로동행정부장은 눈을 도로 싸매더니 들어올 때처럼 붙잡을 사이도 없이 갑작스레
나가버렸다.

현무광은 어안이 병병해져 잠시 앉아있다가 장룡운이라는 제대군인을 만나보려고
사무실을 나섰다.

장룡운은 합숙에 누워있었다. 로동행정부장을 주먹으로 쳤으니 그도 마음이 편안치
않은 모양이었다.

현무광이 들어서자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장룡운이 벌떡 일어섰다.

《았소. 동무가 장룡운이요?》

현무광이 그에게 손짓을 하고 올방자를 틀고앉았다.

《예, 제가 장룡운입니다. 그러지 않아 당위원장동질 찾아갈것인가, 말것인가
생각하던중입니다.》

《동무가 로동행정부장을 쳤다면서?》

현무광은 장룡운의 얼굴을 찬찬히 지켜보았다.

턱이 보통사람보다 말았다. 상처를 입어 수술한 턱이었다. 한일자모양을 한 입이 몹시
커보였으며 입술은 두터웠다. 뚱뚱한 코, 크고 시꺼먼 눈... 그러나 한쪽눈은 깊숙이
꺼져들어갔다. 역시 상처입은 눈이 분명하였다. 입언저리와 턱주변은 갓 면도를 해서
푸릿하였다. 너부죽한 얼굴에는 좁이 쓴 종이처럼 구멍이 송송 나있었다. 온통 흠집으로
가득찬 얼굴이었다. 그것을 보는 현무광은 가슴이 빠근해져서 저도 모르게 긴숨을
뿜었다. 얼굴이 저 지경이 되고도 살아남은것이 천명같았다.

《고향이 어디요? 부모님들은 계시오?》

그의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군 송학리였다. 고향에는 량친부모가 생존해계시고
미혼자였다. 전선에서 화선입당했으며 지식정도는 국해, 나이는 28살이라고 하였다.

《전선에서 고생을 많이 한것 같구만.》

《그만한 고생이야 다 했지요. 군대가 아닙니까. 1차진공때 우리 부대는 락동강을
무려 세번이나 도하하였습니다. 사실 총이 조금만 더 많아도 우리는 놈들을 부산에까지
쫓 밀고나갈수 있었습니다. 팔공산전투때 총과 수류탄이 부족해서... 아, 그때처럼

총이... 사실 전 그래서 때를 써서 병기공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당위원장동지가 무엇때문에 저를 찾아왔는지 알고있습니다.》

장룡운의 우묵히 굵아들어간 눈이 푸들거리었다.

《제가 로동행정부장에게 란폭한 행동을 한것은 백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가지고 모욕할 때에는 참을수 없었습니다. 미국놈때문에 한쪽눈을 잃은것도 통분하기 짝이 없는데 공장에 와서까지 모욕을 받게 되니 누군들 참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로동행정부장이란 사람이 우리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로동행정부장이 무슨 말을 했소?》

현무광은 격분에 몸을 떠는 장룡운의 손을 잡으며 심중히 물었다. 그러나 장룡운은 그 물음에는 관계없이 자기 말을 계속하였다.

《저는 오늘 아침 배치문제때문에 로동행정부에 찾아갔습니다. 방에 지도원은 없고 부장이 후방경리부에 있는 여자지도원과 이야기하고있었습니다. 저는 부장에게 전선에서 싸우던 이야기를 하며 포탄이나 총을 만드는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의 분대장은 강호영입니다. 저는 분대장이며 세포위원장인 강호영동지의 보증으로 화선입당하였습니다. 다 알겠지만 우리 분대장동진 총탄이 떨어지고 두팔다리가 부상당하자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때 저도 이 눈을 잃었습니다.》

장룡운은 수류탄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전선봉대소에서 정신을 차린 그는 익측에서 달려온 증원부대에 의하여 무명고지가 사수되고 고지에 쓰러진 부상자들이 모두 후방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붕대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장룡운은 그후 병원에서 다행히 한쪽눈을 살릴수 있게 되어 제대명령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군인들이 군자리병기공장으로 뽑혀가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병기공장으로 군인들을 인솔해가는 군관에게 달려가 나도 병기공장으로 보내달라, 한눈이 살아있고 이 팔다리도 성해있지 않는가, 나는 전선의 병사들이 총과 탄알을 얼마나 목타게 기다리고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비록 눈 하나를 잃었어도 병기류생산에서 남의 두배, 세배 할수 있다고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런데 저더러 합숙로무자의 일을 하라는것이였습니다. 돼지도 치고 불도 때고... 저는 총과 탄알을 만들자고 왔으니 그런 작업반으로 보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때 창문곁에 돌아앉아 후방경리과 지도원이라는 녀자와 이야기하던 로동행정부장이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거 방안이 소란스러워 일을 해먹겠나? 군대에 있을 때두 타발질을 했소? 동무가 제1선에, 제일 힘든 곳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돼지치고 불때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 거기로 가란 말이야 하고 까박을 붙이기에 나도 거긴 제1선이 아니어서 못 가겠단 말이야, 총을 만드는데 가겠단 말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뜸 야, 우리 공장에선 원래 너같은 병신짝은 받지 않게 돼있어, 군대와 같아, 두눈을 가지고도 제품의 정밀도와 정결도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병신눈을 가지고 어떻게 총을 만든다고 그래? 작업장들을 돌아다녀보라! 너같은 애꾸눈이 있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언제 그 사람의 눈통을 쳐갈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뭐, 병신짝? 애꾸눈?... 이게 우리 사람이 분명합니까?》

장룡운은 용수철에서 튀어나듯 벌떡 일어나더니 새끼를 떼운 호랑이처럼 진정을 못하고 방안을 왔다갔다하였다.

현무광이 일어나서 그의 어깨를 꼭 눌렀다.

《장동무, 진정하오. 진정하라구. 자, 여기 앉소. 담배나 한대 피우게.》

현무광은 주머니를 뒤지었으나 담배가 없었다. 장룡운이가 가치담배를 내놓아 현무광은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뽀뽀뽀뽀 빨며 로동행정부장 리백찬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는 평시 물욕이 강하고 웃간부들, 특히 상급기관의 간부들에게는 아첨을 하고 아래사람들에게는 몰인정하게 굴어서 군중으로부터 신망을 잃은 사람이었다. 박흥근의 철갑모연구문제로 병기국장을 찾아가서 여러번 송사질도 했었다. 경리부 도봉숙을 통해 어느 사이 사법성 신동식국장과도 아주 가까워진 사이라고 하였다. 현무광은 물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장룡운의 말을 듣고는 경악할 지경이었다. 전선에서 부상당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어찌 병신짝이니 애꾸눈이니 하며 모욕할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장룡운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현무광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장동무, 동무는 강호영영웅의 보증으로 당원이 된 동무요. 도덕적으로도 동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범이 되어야 하오. 사람을 친건 아주 잘못된 일이요. 강호영영웅의 분대원이 사람을 치다니? 그것도 만형벌 사람에게...》

《예. 그건 제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저는 돼지나 기르고 불이나 때자고 여기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우리 분대장이 충! 충! 하고 안타까이 찼은 그 충을 만들어

전선의 병사들에게 보내고싶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남달리 손재간이 좀 있어 전선에서 총수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재간이 있고 총수리도 해봤단 말이지? 동무 그 문제 앞으로 토론해봅시다. 한데 동무의 고향이 회령군 송학리라고 했지? 송학리...》

《그렇습니다. 송학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장룡운은 당위원장의 얼굴을 빤히 지켜보았다. 회령군 송학리는 현무광의 인생행로에 특이한 자욱을 남긴 잊을수 없는 고장이었다.

회령에서 두만강을 따라 50리가량 거슬러올라가면 송학리소재지가 있고 그곳에서 무산쪽으로 얼마쯤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유년시절 현무광의 눈물이 스민 땅 사곡동마을이 나진다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빨리강이라는 내천을 따라 오불꼬불 사리여나간 오직 한가닥의 좁은 외통길로만 외계와 통할수 있게 된 심산유곡이다. 홍범도의병들이 화승총을 메고 뛰어다니며 왜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고장이래서 사곡동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날강도적인 《한일합병》이후 1920년경 홍범도부대의 주력이 중국동북으로 넘어간 뒤 얼마 안되는 소부대가 덕마에 남아있을 때 신식무기를 가진 왜놈들이 덕마에 달려들어 화승총으로 대항하는 무력한 의병소부대를 전멸시키고 그곳에 있는 로인, 아이, 남자, 여자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목을 베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 시체를 화염속에 집어넣어 피물이 온 골안에 내물처럼 흐르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울며 죽어갔다는 의미에서 사곡동으로 불리우게 된 비극의 땅이었다. 피젖은 이 땅은 그후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허로, 불모지로 되었다. 이곳에서 살던 현무광이도 어린

몸으로 피눈물을 뿌리며 떠나갔다. 그때부터 두만강을 건너 어디인들 안 가보았으랴. 멀리 황무지 개척장에도 가서 등골이 휘도록 땅을 뚜져보기도 하였고 오가는 룡선에서 잡부노릇도 해보았으며 집단부락에서 농사일도 해보았다. 그리고 립산벌목장에서 뼈빠지게 일도 해보았다. 이 시기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여러번 듣고 《반일전가》,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혁명가요를 불러보기까지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나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금도 현무광은 그때 부르던 노래를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비록 현무광이 유격대를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그날에 들은 **김일성** 장군님부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와 그 시절에 부른 혁명가요들은 그로 하여금 한생의 좌표를 선택하는데서 결정적인것으로 되었다. **김일성** 장군님은 현무광에게 있어서 그 존함처럼 민족의 태양이시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가랑잎마냥 정처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그가 장군님만을 믿고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새로 자리를 잡은 곳이 함경북도 성진제강소였다. 거기서 십장놈들의 채찍밑에서 고역을 치르던 그는 일제말기에 그 지긋지긋한 고역장을 뛰쳐나왔다. 그때 곳곳에서 징용바람이 불어 왜놈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간 곳이 바로 유년시절의 피눈물이 배여있는 회령군 송학리 사곡동이였다. 인적없는 그 골안에서 1년나마 부대기를 일구며 살아가다가 해방의 소식을 듣고 되짚어 성진제강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장룡운의 고향이 사곡동에서 가까운 송학리라고 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장동무, 회령군 송학리가 고향이라니 사곡동이라는 마을을 알수 있겠구만.》

《알다뿐이겠습니까. 해방후 저는 바로 사곡동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 군대에 탄원했습니다. 로인들의 말은 사곡동이 죽음터여서 죽을 사자에 골곡자를 쓴다고 하는데 실지 해방전에는 세상을 피해다니는 은둔자들이 몰래 부대기를 일궈먹었을뿐 집 한채 없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후 송학리사람들이 땅이 많은 사곡동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리로 갔는데 정말 빈땅이 많았습니다. 은둔자들이 부대기농사를 하다가 내버리고간 화전만 해도 몇정보 잘되었지요.》

그후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고 진료소, 학교가 생기고 동기와집들이 헐리고 문화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살기 좋은 신선마을이 되었다는것이다. 토지개혁으로 땅을 분여받은 장룡운이네는 은둔자들이 부대기를 일궈먹던 화전들도 가꾸어 농사를 지었다는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렇게 살기 좋은 새 나라를 세워주셨으니 그걸 빼앗길수 없어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거지요. 한데 당위원장동진 송학리 사곡동을 어떻게 아십니까?》

현무광은 무어라 말할수 없는 충격에 장룡운의 흠집많은 얼굴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며 앉아있다가 무릎을 짚고 움쭉 일어섰다. 장룡운이도 곁따라 일어섰다. 세상에는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있었다. 현무광은 어찌면 마주서있는 장룡운이가 해방전 자기가 일구던 바로 그 화전을 가꾸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이감에 가슴을 들먹거리고있었다.

현무광은 장룡운의 손을 뜨겁게 잡아쥐었다.

《장동무, 내가 바로 사곡동의 은둔자요! 해방전에 나는 거기에 숨어살면서 부대기농사를 했소.》

《?!》

《우리는 한고향친구라고도 말할수 있소. 장동무, 이 땅에 살기 좋은 새 나라를 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신선마을로 된 사곡동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일합시다. 총을 만듭시다.… 총! 그렇소. 총이 없이는 내 나라를 지킬수 없소. 나는 동무가 적들에게 한눈을 잃었기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병기기능공이 될수 있다고 확신하오.》

《당위원장동지!》

사곡동의 두 아들은 서로 힘껏 그러안았다.

6

현무광이 장룡운에게서 받은 충격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 당위원회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함경북도에 수류탄생산문제로 하여 교관으로 파견되었던 박홍근이가 문앞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현무광은 박홍근의 아래우를 유심히 훑어보았다. 펍수척해보이였다. 이전에 약간 두드러졌던 광대뼈가 더 자란것 같고 안경유리밑에서

언제나 조용히 숨벽거리는 유순한 두눈은 피가 저서 벌거우리해졌다. 어디서 무엇을 타고왔는지 모자와 옷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다.

《자, 앉지요. 그래 갔던 일은 다 잘되었소?》

《위원장동지, 북부지구 5개 탄광에 수류탄생산공장을 멋들어지게 꾸렸습니다. 지금 5개 탄광에서 나오는 수류탄생산량은 대단합니다.》

박홍근은 손에 쥔 작업모로 얼굴의 먼지들을 닦아내며 병싯 웃음을 지었다. 현무광은 박홍근에게 지난 1월에 김일성동지께서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을 현지도하신것을 비롯하여 그동안에 있는 일들을 간추려 이야기하였다. 지응모가 부기사장으로 임명되고 류일룡이 직장장의 직책을 맡게 된것 등 일부 간부변동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물론 제대군인들이 수백명 배치되어온 사실도 이야기해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기공장은 부글부글 끓고있소. 물론 아직 애로도 많소. 지응모동무는 부기사장이 된 이후 짐이 확 실려서 고생을 하오. 표일석이라고 설비지도원을 하던 동무에게 기관단총직장 책임기사의 일을 맡겼는데 경험도 기술도 없는 동무여서 지응모동무가 여전히 책임기사의 일까지 다 맡아하고있소. 얼굴이 반쪽이 됐소.》

그러면서 현무광은 김일성동지께서 여러차례 포탄공장에 대한 교시를 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박홍근에게 빨리 그곳으로 가보아야 되겠다고 하였다.

《포탄생산직장 책임기사가 가봐야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수 있을게 아니겠소. 포탄공장 굴확장공사로 현역군인들이 몇백명 들어가있었는데 그들이 다 그대로 공장에 눌러앉게 됩니다. 우리 나라 병기공업이 이 몇달새에 눈부신 변화를

일으키고있소. 병기공장들은 비상한 속도로 확장되어가고있는데 우리 일군들의 능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야단이요.》

현무광은 박홍근을 앉혀놓고 한시간 종이 이야기하였으나 그가 가장 궁금해하고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감 잊어버리고있었다. 그것은 물론 립민회에 대한 문제였다. 박홍근은 립민회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며 제2전선부대와 련계를 맺고 의료사업을 하고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수풍을 떠나간 이후로는 그의 소식을 모르고있는것이다.

뒤늦게야 립민회를 생각하게 된 현무광은 무릎을 치며 웃었다.

《이거 내 정신 보지. 박기사가 제일 듣고싶어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왕청같은 말만 했으니... 그새 민회선생때문에 궁금했겠소. 민회선생은 현재 1211고지계선에 있소. 불원간 공장으로 돌아온다는 편지를 보내여왔소. 동무에게 온 편지도 있소... 자, 그럼 오늘은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고 수염도 미시오. 동무가 여기 있는 동안은 기관단총직장 책임기사로 립시 류임해야 될것 같소. 표일석은 안되겠소. 그 문제 지배인과 토론해보겠소.》

현무광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민회의 편지는 주방책임자가 건사해두고있을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고정한국장이 지금 여기 계시는가요?》

박홍근이 배낭속에서 두툼한 편지봉투를 꺼내며 묻는 말이였다. 고정한은 여기에 와있다가 며칠전에 성으로 돌아갔었다.

《왜 그러오? 지금은 없소. 며칠후에 다시 올거요,》

《유선에서 떠날 때 고국장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전쟁이 일자 국장의 부인은 유선에
가있었던군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소? 고국장이 반가와하겠구만. 내가 전해주지.》

현무광은 박홍근이가 두손으로 받쳐주는 외국제봉투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당위원장과 헤어진 홍근은 그길로 합숙식당으로 달려가 김이 뽕얇게 서린 주방칸에서
지금순을 만났다.

몇달만에 홍근이를 보는 지금순은 물뿜은 손으로 홍근이를 잡고 기뻐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이렇게 성한 몸으로 공장으로 돌아왔는데 민희선생은 오지 않고 편지만
날아왔다네. 얼마전에 그 군관 있지, 늘 우리 공장에 와서 무기를 받아가던 그 군관,
중성 세알, 라운철이라고 했던가.》

《그래서요?》

《그 군관이 며칠전에 왔다갔다네. 민희선생이 글썽 최현동지부대에 있대. 그 영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만 박기사에게 보낸 편지에야 사연을 다 적었겠지. 얼마나
반가운가. 이제 민희선생이 돌아오면 잔치를 해야지. 잔치상은 내가 차려주겠네.》

박홍근은 얼굴이 불깃해져 게면쩍게 웃으면서도 편지를 달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다.

지금순이도 이야기바람에 편지를 줄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있다가 옆에서 한
녀인이 《아니, 책임자어머니, 기사동질 세워놓고 이야기만 하면 어찌자는거예요. 그걸
빨리 드려야지. 기사동지가 뭐 책임자어머닐 보고싶어 온줄 알아요.》 하고 반롱담으로
옆구리를 찔러서야 식모방에 들어가 편지를 가지고나왔다.

박홍근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기슭 애솔밭에 오금을 꺾고앉아 편지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곁봉에 백두산 수목화가 그려져있었다. 민희의 그림솜씨라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곁봉을 뜯자 민희의 검은 눈동자와 같은 새까만 먹글자들이 눈에 밝히였다.

사랑하는 오빠에게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최전선이에요. 오늘 뜻밖에 군자리에 기관단총을 넘겨받으러 갔던 라운철상좌동지가 무기를 잔뜩 싣고 전선에까지 나오지 않았겠어요. 군자리를 거쳐 다른 고장으로 간다기에 급히 수첩장을 찢어 몇자 적어요. 제가 왜 여기로 오게 됐는가는 아마 현무광당위원장동지를 통해 오빠도 대충 알고계실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후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선소식을 간단히 적겠어요. 오빠, 지금도 포탄을 연구하세요? 여기 전선에 와보니 우리 병기공장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지 절감하게 되는군요. 오빠, 지금 전선에서 당장 급한것은 철갑모예요. 외과의사인 저에겐 참으로 할일이 많아요. 전선에 와보고 제가 외과학을 전공한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부상자의 태반이 머리부상이예요. 그들을 보면서 오빠가 포탄과 함께 철갑모연구를 다그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인가 오빠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철갑모때문에 마음쓰셨다는 말을 했지요. 저는 장군님께서 왜 그토록 걱정하시는지 현실을 보고 알게 됐어요. 정말 오빠가 빨리 철갑모문제를 해결했으면 해요. 지응모기사동지와 잘 의논해보세요. 그럼 이만 편지 쓸래요.

언제나 오빠를 사랑하는 민희 올림.

1951년 4월 3일

박홍근은 가슴에 차오르는 뿌듯한 행복감에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는 얼마후 후방부 편의봉사소로 갔다.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병기공장에는 전시조건에서도 리발소,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소가 큼직하게 꾸려졌다. 박홍근은 먼저 리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목욕탕으로 갔다.

그가 더운 김발이 뽀얗게 서린 목욕탕에서 한창 머리를 씻고있는데 탈의실에서 찾는 소리가 들리었다. 지응모였다.

홍근은 목욕도 설치고 서둘러 탈의실에서 옷을 주섬주섬 주어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지응모가 이끄는대로 옥류천너머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그전에는 없던 식당이 옥류천기슭의 산턱에 꽤 큼직하게 서있었다.

두 친구는 오래간만에 식탁에 마주앉았다. 도교의 다락방에서 겨울이면 너무 추워 다리도 펴지 못하고 꼬부리고 토끼잠을 자던 고달픈 고학시절로부터 10여년세월 이들 두사람은 몸도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걸어왔다.

《민희한테서 편지가 왔다면서?》

지응모가 국밥 한그릇을 청해놓고 묻는 말이였다.

《방금전에 읽어보고 리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목욕탕에 들어섰는데 지기사가 달려들었네. 허허허...》

박홍근은 웃주머니에 집어넣은 편지봉투를 꺼내여 지응모에게 내밀었다.

《내가 보아도 일없겠나?》

《비밀이 많지만 그걸 안 보이구 견디겠나.》

박홍근은 우스개소리로 넘기고 선천형수님이 고사리를 계속 보내는가고 물었다. 그것은 최이순이한테서 편지가 오는가고 묻는 소리였다.

《한번도 받지 못했네. 나의 사업에 지장이 될가봐 편지를 안한다고 하네. 애인 생각은 하지 말고 병기생산에만 집중하라는거지. 허허허...》

지응모도 우스개소리처럼 넘기였으나 실지 지난 1월 룡천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그러루한 편지가 날아왔던것이다. 선천사돈집은 모두 무사하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결혼할 생각도, 최이순에게 편지하는 일도 삼가하고 오직 병기생산에만 몰두하기를 바라는것이 룡천아버지와 선천최목사의 뜻이라는데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미군이 선천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이후 미국에 대한 최목사의 견해가 달라져 지금은 그놈들을 철천지원주로 생각하고있다는것이였다.

동생의 편지여백에 지목사의 글이 몇줄 씌여있었는데 그것은 이러하였다.

《응모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선천출입을 하지 말고 편지도 하지 말거라. 오직 병기생산에 일심전력하거라. 옛사람들도 무술을 닦을 때는 처자생각을 하지 않았고 집출입을 금하였다. 유명한 온달장군도 그랬었지. 너의 이순이도 그런 뜻으로 편지가 없을테니 그리 알거라. 선천에선 모두 무사하다.》

지응모한테서 이런 말을 들은 박홍근은 일부러 아연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형은 결혼을 할수 없게 됐으니 이 동생도 그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지응모가 민희의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접대원이 그들의 식탁에 음식을 날라왔다. 흰쌀밥에 두부국을 받친 조출한 국밥이었다. 그들이 수저를 들고 국물맛을 보고있는데 후방정리와 녀지도원 도봉숙이가 새물새물 눈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아이, 두 기사동지가 어떻게? 박기사동진 오래간만이에요. 어디 먼 출장중이라더니... 어딜 가셨댔기에?...》

《그저 줌...》

박홍근은 폭약사건으로 하여 불쾌한 관계가 맺어진 녀자여서 씨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덤덤히 앉아있었다.

《박기산 오늘 왔소. 몇달만에 만났기에 요즘 소문이 자자한 이 식당에 데리고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원동문 어떻게?》

지응모는 분홍색봄외투를 입은 처녀처럼 날씬한 도봉숙의 세련된 몸매를 훑어보았다.

《네, 로동행정부장동지를 군병원에 입원시켜드리구 오는 길에 저두 방금 땡땡한그릇 사먹고 가려던 참이였어요.》

도봉숙은 여전히 애교있게 눈웃음을 치며 지응모네가 받아놓은 음식그릇들을 내려다보았다.

《로동행정부장이 입원했습니까?》

지응모가 의외로운듯 눈을 치떴다. 박홍근이도 다소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폭약사건때 사범성 신국장의 심부름을 들며 박홍근을 괴롭히고 화약연구를 하는데 대해 몹시 간질거린 로동행정부장이었다.

《아이, 리백찬부장이 다친걸 모르세요?》

도봉숙은 아침에 목격한 일을 로동행정부장의 편역을 들어 엄청나게 과장해서 말하였다.

《제대군인들속에도 나쁜놈들이 있는것 같아요. 반동들의 꼬임을 받고 일부러 소요를 일으키는자들이 있는것 같아요. 전 정말 놀랐어요.》

도봉숙은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짓고 호- 하고 한숨까지 쉬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지응모와 박홍근이도 심각해졌다.

《아이, 어서들 식사하세요. 국이 식겠어요. 그럼 전...》

도봉숙은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나갔다.

《로동행정부장이 군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상처가 대단한 모양이군...》

지응모가 국을 뜨며 중얼거리었다.

《병기공장병원에도 의사가 있겠는데...》

박홍근은 병원이야기가 나오자 민희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다.

《간호원 두명과 준의 한명이 있는데 민희동무에 비하면 수준이 아주 어린 처녀준의이네. 빨리 민희동무가 와야겠는데... 민희도 편지에 썼던데 수풍에서 철갑모재질을 분석한다고 벽적거리던건 어쨌나?》

지응모가 숟갈을 쥔채 박홍근을 의미있게 바라보았다.

《이젠 지형이 직속상급이니 보고해야 되는가?》

박홍근은 코등에 내려온 안경테를 추어올리며 일부러 빈정거리었다.

《이죽거리지 말구 말하게. 철갑몬 매우 중요한 문제네.》

지응모는 정색을 지었다.

《난 기어코 철갑모를 해보자는거네. 함경도에 가있을 때 철갑모때문에 일부러 성진제강소에 들러 강영창기사장을 만나보았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네. 알고보니 장군님께선 이미 오래전에 강기사장에게 철갑모걱정을 하셨더구만. 어떻게 하나 전사들에게 철갑모를 씌워야겠지만 그걸 외국에서 사올 형편이 못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고 하셨다네. 철갑물 만들자면 뿔간압연을 해야겠는데 언제면 성장에서 그걸 할수 있겠는가고 물으셨다네. 강영창기사장은 그때 장군님께 똑바로 대답을 올리지 못한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있던차였는데 내가 철갑모실험수치까지 내보이자 목마른 사람한테 물사발을 들고온것처럼 기쁘다며 정말 좋아했네. <동무는 애국자요. 우리 기술자들의 심장이 동무같으면 벌써 철갑모를 생산한지 오래일거요.> 하지 않겠나!》

박홍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응모가 급히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댔다. 원래 군수품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밖에 나가 할수 없게 되어있었다.

지응모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을 눌러 조용히 속삭이였다.

《오늘 당위원장한테 그걸 말씀드렸나?》

《그 애긴 미처 하지 못했네... 그러나 어쨌든 나의 실험에서 얻은 금속수치는 그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품질좋은 철갑모를 생산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네. 금속전문가인 강영창기사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네.》

박홍근이도 귀속말로 소곤거리였다.

《좋네. 철갑모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틀림없네. 하지만 그걸 계획지표에 물려 생산하게 하자면 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느고 벼랑길을 뚫아야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박홍근은 지응모의 말뜻을 잘 알고있었다. 지배인과 고국장이 반대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지배인은 원래 새 지표를 받는 일에 질색하는 사람이였다. 그것을 받았다가 질질 끌거나 못하는 경우 차레지는것은 비판과 법적추궁뿐이기때문이었다. 더우기 철갑모문제는 병기국장이 파악이 없다면서 한사코 반대하는것이여서 그에게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지배인이 계획지표에 물리자고 할수 없었다. 사실 실험실안에서는 성공된것이 공장의 대량생산단계에서는 실패한 실례가 너무도 많은것이였다. 그러므로 중간실험공정이라는것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금과 로력이 많이 요구되여 책임일군들은 새 지표를 내오는데서 줄타기놀음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계획에서의 과학성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하고 옳은것이다. 그러나 편안하고 무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보신주의자들과 소총명주의자들이 이른바 과학성과 경제성을 걸고 군중속에서 발휘되는 애국적창발성을 짓눌러버리는 폐단도 있는것이다.

지응모는 그것을 생각하며 홍근을 고무하였다.

《홍근이! 실험수치를 보여주게. 지배인과 고국장이 반대하지만 내가 밀어보겠네. 명색이 부기사장이 아닌가. 민희의 편지를 보고나니 부상당한 병사들의 머리가 자꾸 눈앞에서 서물거리네.》

《고맙네. 철갑모는 장군님께서 마음쓰시는 문제이고 해보라고 하신 과제이니 꼭 해야 된다고 보네. 강영창기사장이 도와줄거네. 그전에 총신소재두 그 기사장이 도와서 해결하지 않았나.》

《홍근이! 문제는 강영창기사장이 아니라 홍근이자신이네. 우리자신이란 말일세. 지배인이 래일 생산협의회를 조직하겠다고 하는데 보고 그때 철갑모문젤 제기해보세.》

박홍근은 조그마한 술잔을 아주 신중하게 집어들고 그안에 골숨하게 들어있는 10그램도 되나마나한 맑은 액체를 자신없이 들여다보다가 쓴약을 마시듯 눈을 지리감고 들이켰다.

이윽고 두사람은 말없이 수저를 놀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식당문을 나섰을 때에는 벌써 사위가 어둑시근해지고있었다. 멀리 평양쪽에서는 적기가 날아들었는지 은하수띠같은 탐조등빛이 하늘을 휘젓고있는 속에서 쿵당쿵당하는 고사포소리가 둔중하게 울려왔다.

7

공장지배인사무실에서는 생산협의회가 열리고있었다. 증산예비를 찾기 위하여 리환구가 조직한 협의회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피운 담배연기가 밖으로 빠지지 못하고 돌부리들이 삐죽삐죽 내민 굴천정에 안개마냥 뽕얇게 서리어 눈을 쓰리게 할 지경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라초, 가치담배, 곰방대, 물부리 등形形色색의 담배를 입에 물고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담배불을 비벼끄고 자세를 바로하였다.

《금강》담배를 입귀에 물고있던 리환구도 기다랗게 매달린 담배재를 재털이로 사용하는 오작품탄창에 털면서 헛기침을 몇번 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에- 오늘 이렇게 협의회를 조직한것은 증산예비를 찾자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군수 아니, 병기공업을 창설해놓았는데 세계전쟁력사상 가장 간고한 전쟁을 겪고있습니다. 세계 제2차대전시기 쏘련사람들이 히틀러도이첼란드의 선제타격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씨에 있는 많은 군수생산기지들을 우랄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피도 많이 흘리면서 참 고생을 약차하게 했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고생을 했다 한들 우리보다는 나았소. 땅덩어리가 큰데다가 공업잠재력이 우리와 대비도 안되게 컸으니까. 그러나 우린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군수 아니, 병기생산을 하고있소.

지금 다 꺾어보고있는 일이지만 동력문제가 의연히 긴장되어있소. 우회로선을 치고 변전소를 굴속에 넣었지만 발전원천이 제약되어있어 어찌겠소. 놈들은 매일과 같이 수풍과 장진강발전소에 폭탄을 쏟아붓고있소.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의 기준량을 이미 뛰어넘었던 말ियो.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수 없는것이 우리 병기생산자들이요. 싸우는 전선에선 매일과 같이 무기를 요구하고있소. 결정적으로 병기생산을 높여야 합니다. 증산예비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협의회취지가 여기에 있는것만큼 건설적의견들을 각자가 한두가지씩 내놓기를 바라오.》

리환구는 전에 없이 긴 연설을 하고 앞상우에 두팔굽을 올려놓은채 방안에 빼곡이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더듬어보았다. 그의 얼굴빛은 자못 심각해보였다.

그날 협의회에는 중요기술일군들과 여러 부서의 단위책임자들은 물론 핵심반장들과 생산공정원들까지 참가하고보니 자리가 모자라 지배인방문을 열어놓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줄레줄레 눌러앉아있었다.

방안을 둘러보던 지배인은 문가에 서서 까만 눈을 반짝이며 자기를 똑바로 지켜보고있는 도봉숙을 일별하고는 《봉숙지도원동무, 왜 서있소? 비집고라도 앉아야지... 보시오. 증산예비를 찾는데 따라 필요한 자재들을 가능한껏 구해오겠다고 후방경리부 지도원동무까지 협의회에 참가했소. 모두 저 동무만큼 열성이 있으면 참 좋겠소... 자, 썩썩 조이고들 앉소. 여기 내 곁상에도 한사람 더 앉을수 있소.》 하고 자기의자까지 내주며 빨리 자리를 잡고 앉으라고 재촉하였다. 그는 자리가 비좁아 혹은 엉치를 맞대고 앉은 사람 또는 이마가 닿도록 무릎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 외따로 모서리벽에 손을 짚고 회의집행석쪽에 등을 돌려대고 앉은 사람, 그렇게 각이한 몸자세를 하고 불편스레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한마디 덧붙이였다.

《이만하면 꽃이요, 내 옛날에 함흥법원에 기소되어 재판받고 옥살이를 할 때 앉아있는 감방에 비하면 꽃이요. 좁다좁다 해도 그 콩나물시루같은 감방이 어디 있겠소.》

지배인은 걸핏하면 사람들앞에서 자신의 과거 《혁명공적》을 상기하곤 하였는데 이날은 누구보다도 도봉숙이 들으라고 감옥살이경력을 이야기하였다.

봉숙은 지배인을 비롯한 필요한 몇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법성의 신동식국장의 외조카별이 되고 신동식은 리승엽, 박헌영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것을 일부러 로출시키였다. 자기가 남달리 용이하게 후방물자와 자재를 구입해오는것은 특별한 재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의 병기생산에 관심이 높은 박헌영, 리승엽과 같은 국가요인들의 도움을 받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지배인은 고정한에 못지 않게 큰 간부들의 후광을 받고있는 도봉숙에게 잘 보이면 박헌영, 리승엽 같은 사람들의 줄을 타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앉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의무성이나 사법성울타리안을 넘겨다보면 박헌영, 리승엽의 추천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지배인은 도봉숙이도 이제 머지않아 큰 녀성간부가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도봉숙은 지배인의 이런 속심을 환히 꿰뚫어보고있는 녀자였다.

도봉숙이가 병기공장에 침투된것도 미중앙정보국 극동 조선담당요원 잭슨의 연출각본에 따른것이였다.

이 요염한 녀자가 미중앙정보국에 처음으로 흡수된것은 17살때 미국 워싱턴의 어느 의학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이였다. 서울의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의 집안에서 태어난 봉숙은 미국을 제2의 모국으로 섬기고있는 애비를 닮아서 벌써 그 시절에 미국에 충성을 맹약하고 첩보세계에 뛰어들었다. 조선전쟁이 발발하자 도이쉴란드의 마타하리, 일본의 마쓰자끼나 중국의 리옥란이처럼 첩보계의 꽃으로 이름을 날릴 꿈을 안고 잭슨의 지령에 따라 북조선에 침투되어 활동하다가 최근 신동식으로 변신한 박이량리와 줄을 맺게 되였다.

현재 조선땅에서 박헌영과 리승엽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신동식과 도봉숙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군자리병기공장과 관계하고있는 간부들을 될수록 많이 줌안에 넣어 병기생산을 혼란시키고 적극분자들을 매장하라! 돈과 녀성의 특수무기, 이것이면 무엇이든 다 할수 있다.》

이것이 신동식이가 도봉숙에게 준 기본지령이었다.

도봉숙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 일이 싫어지는 때가 많았다. 40살이 가까와오도록 독신으로 집도 가정도 없이 얇은 얼음장을 밟고다닌 자기자신이 가련하고 서글프게 생각되는것이였다. 하기는 첩보생활을 한지도 20여년이 돼오니 만성적권태감에 사로잡힐 때도 되였다.

하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수 없는 깊은 함정이 또한 첩보계이다. 사춘기시절부터 남달리 사치와 물욕, 쾌락을 즐긴 봉숙이는 황금의 세계, 룬락의 세계에 대한 화려한 꿈을 안고 첩보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이제는 함정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헤어나올수 없게 되였다. 살아도 그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속에서 죽어야 했다.

봉숙은 병기공장에 침투된 이후 상전의 지령대로 몇명의 간부들을 어렵지 않게 줌안에 넣었다. 지배인 리환구, 로동행정부장 리백찬, 설비지도원 표일석은 완전히 좌지우지할수 있게 되였고 그밖의 고정한국장, 부지배인을 비롯하여 많은 간부와 로동자, 기술자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였다.

도봉숙은 지배인으로부터 그 어떤 협의회이든 병기생산과 관련된 회의에 마음대로 참가할수 있는 특전을 받았었다. 그런 모임들에 자기가 직접 참가해야만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물어올수 있다고 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도봉숙은 지금에 와서 병기공장에서 적극분자와 소극분자, 혁신자와 보수주의자, 실력가와 무능력한자, 근면한자와 건달뱅이, 진실한자와 비진실한자들을 대체로 갈라볼수 있게 되었다.

봉숙은 누구인가 내여주는 자리에 비집고 들어앉았다.

《자, 방이 좁은대로 좀 참고 건설적의견들을 내놓소.》

지배인이 여러번 재촉하여도 토론마당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협회의 분위기가 아주 따분하게 되자 부기사장 지응모가 연단에 나섰다.

《우리가 증산예비를 찾는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책임기사로 있을 때에는 대체로 기술일면에만 관심을 돌렸지만 부기사장의 중임을 맡게 된 다음부터는 자연히 기술문제뿐만아니라 행정관리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책임기사의 자리에서 공장을 들여다보는 눈과 부기사장의 자리에서 들여다보는 눈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단 말이요. 동무네들이 지배인자리에 한번 올라앉아보시오. 얼마나 골치아픈 일이 많은가.》

리환구는 제격 지응모의 말에 동을 달며 지배인사업의 고충을 뇌이였다. 그러나 지응모의 다음말이 그를 아연하게 만들었다.

《내가 며칠동안 작업장들을 쫓 료해하여본데 의하면 로력관리와 작업조직을 잘못하여 로력과 시간을 낭비하는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간은 곧 증산예비입니다. 작업조직의 낡은 틀을 마사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업조직을 잘못하여 시간을 낭비하고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제품을 기대에 설치하는 시간이 10분,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채는 시간을 개당 1분씩만 보아도 평균 1시간 30분이다. 이것만 하여도 벌써 1시간 40분이 낭비된다. 거기에 가공품을 검사대에 보내는 시간이 30분, 교대준비 및 기대청소시간이 30분 그리고 마모된 공구를 갈이돌에 가는 시간과 기타 소비되는 시간이 적어도 20분이다. 이것들만 타산하여도 480분중에서 3시간이 낭비된다고 하였다.

《동무들, 보시오. 이 시간을 작업반, 직장, 나아가서 공장적으로 계산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작업반인원을 10명으로 보면 30시간이 나옵니다. 30시간은 노동자 4명의 하루작업시간인데 따지고보면 10명 로력을 가진 한개 작업반에서 매일 4명의 로력은 노는것으로 됩니다. 매 작업반에서 하루에 4명 로력의 낭비, 정말 이것은 엄중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기업관리는 곧 계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내가 벌둥지를 뚫진것처럼 웅성거리였다.

결국 지응모는 지배인이 만들어놓은 인계인수사업준칙을 부정하고있었다.

《이로부터 모든 작업반들에서 준비작업을 비롯한 일체 부차적인 일들은 작업시간외에 하고 실지 작업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면 상당한 증산예비가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간은 곧 증산입니다.》

이때 하얀 살색에 얼굴이 나부죽한 30대사나이가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그가 바로 최근 기관단총직장 책임기사로 발탁되었다가 한달도 못되어 본래의 설비지도원자리로 굴러내려온 표일석이었다. 언변이 좋은데다 언제나 지배인을

변호해나설뿐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기 위해 웃사람, 아래사람들에게 다같이 아침을 하는 특이한 개성으로 하여 그에게는 《지배인변호사》, 《접대아가씨》, 《말자선가》 등 여러가지 해학적인 별명이 생겨났다. 최근에는 《고정재산설비》라는 새 별명이 보충되었다. 병기공장에 입직한 때부터 수년동안 내치 설비지도원자리에 앉아있기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였다. 어찌다 책임기사로 발탁되었다가 한달도 못되어 본래의 설비지도원자리로 굴러내려왔으니 실로 그는 설비과의 고정재산이였다.

표일석은 《접대아가씨》의 별명에 어울리게 매우 친절한 어조로 말하였다.

《저는 부기사장동지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증산예비를 찾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모색을 했습니까. 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단부제공장들에서 즉시 도입하여야 할 작업조직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공장과 같이 3교대를 하는 조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 맞교대를 하는 조건에서는 청소를 비롯한 기타 부차적인 작업들을 작업시간외에 할수 없지요. 그래서 지배인동지는 부득불 지금과 같은 작업조직의 틀을 만들었을겁니다. 역시 지배인자리에서 보는 눈과 부기사장자리에서 보는 눈은 같지 않습니다.》

표일석은 지배인변호사직을 충분히 수행하고 자리에 앉았다. 거뭇하게 질려있던 지배인의 얼굴에서 불긋하니 피기가 피여올랐다.

리환구는 달려가서 표일석을 꼭 안아주고싶은 심정이였다.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또 제기하시오.》

지배인의 말이 떨어지자 유락종이 일어섰다.

《맞교대를 하는 조건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작업반들에서 30분전에 기대를 세워놓고 청소랑 하고 인계인수를 하었는데 기계를 돌리면서 인계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거야말로 기계의 가동상태를 정확히 볼수 있는 진짜 인계인수입니다. 그리고 기대공들이 기대와 자기구역을 짬짬이 일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면 청소때문에 기계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부기사장의 의견을 받고 이미 그런 방법대로 하고있습니다. 됩니다. 작업조직에서의 낡은 틀을 마십시오.》

지배인의 불살이 불시에 푸들거렸으나 표일석은 오히려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지배인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부기사장의 비위도 과히 건드리지 않았으니 자기 할바를 다한것이다. 그까짓 자기 의견이 좀 부정당한들 무슨 대수랴.

뒤따라 류일룡이 수첩장을 벌컥벌컥 뒤지며 일어섰다.

《저도 부기사장동지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우리 기관단총직장에서도 낡은 틀을 깨버리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것은 총가목문제입니다. 쏘련에서 들여오는 붓나무가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기관단총직장에서는 총신가공작업반으로부터 방열통, 탄창작업반, 기관실 및 격동실작업반을 비롯해서 모든 작업반들의 생산이 잘 되어나가는데 유독 총가목작업반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 로씨야의 배료자인지, 백료자인지 그게 떨어졌기때문입니다.》

류일룡은 총가목작업반으로 말하면 제재기소리, 수압, 자동대패기회전소리, 푹푹거리는 망치소리로 제일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작업반이지만 이제 얼마 안있으면 숨죽이고 잠잠해질것이라고 하였다.

《베료자가 떨어졌다는건 무슨 소리요?》

병기공장적으로 제일 키가 큰 포탄직장장이며 공장직맹위원장인 김인호가 일어나서 물었다.

《떨어졌습니다. 총가목자재창고에 들어가보십시오. 개 때릴 몽둥이 하나 없습니다.》

《정말 놀랍구만. 여보시오, 내가 놀랍다는건 로씨야붓나무가 없어서 놀랍다는게 아니고 이미전에 장군님께서 총가목을 씨비리붓나무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나라에 흔한 이깔이나 피나무로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붓나무타령을 하고있으니 놀랍다는거요.》

김인호는 그렇지 않느냐는듯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지응모가 일어나서 사죄하듯 말하였다.

《이렇게 된데는 내 잘못이 많습니다. 장군님의 교시이후 우리 나라 피나무로 총가목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소조가 조직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국장동무가 피나무연구사업은 좀 천천히 해도 일없다고 하면서 소련과 붓나무계약이 다 되어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무역거래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제기될수 있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국장동무가 상동지와 토론하여 바로잡겠다고 하기에 피나무연구사업을 몇달 뒤로 미루게 했는데 차판으로 들어오던 붓나무가 어찌된 일인지 현재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병기의 원료나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바로 이런 뜻하지 않은 비상사태가 일어날수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것을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일꾼들이 그 뜻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지웅모의 말을 들으며 리환구지배인은 가슴이 찢리었으나 태연히 앉아있었다. 언제나 고정환에게 맹종맹동하는 리환구도 총가목문제에 대하여 국장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당시 부기사장으로 갓 임명된 지웅모를 눌러버렸었다. 피나무연구소조를 해산시킨것은 지웅모가 아니라 지배인이었다.

리환구는 류일룡의 너부죽한 철색얼굴에서 실룩거리고있는 허물자리들을 보며 가슴이 섬적해졌다. 그것이 류일룡의 성난 모습이였다.

《지배인동무와 국장동무는 정일룡상동지와 토론하겠다고 하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시다.

바로 어제께 정일룡상동지가 총가목작업장을 돌아보고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피나무로 하라는건 지상의 명령인데 왜 연구소조를 해산시켰는가고 비판했습니다.》

《여보 동무, 그 문젠 어제 간부들끼리 논의가 있었으니 빠치지 말라!》

될수록 아량을 보이려고 하던 환구는 성급히 소리치며 류일룡의 입을 막아버렸다. 《증산예비를 찾자고 조직한 협의회인데 왕청같이 붓나무소리를 꺼내며 그래? 증산예비를 찾지 못했으면 앓아나 있소. 결각질 하지 말고...》

언권을 빼앗긴 류일룡은 수첩을 신경질적으로 탁 덮으면서 《전 나가겠습니다. 예, 토론을 다 했으니 바쁜 일이 좀 있어서...》 하고 군중을 향해 절을 하고는 환구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비좁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어깨를 왁살스레 짚어가며 걸어나갔다. 누군가가 발을 짓밟혔는지 《아가- 가!》 하고 비명을 질러 웃음이 터져올랐다.

그가 나간 뒤에 리환구는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저 버릇 개새끼한테도 못 주겠군. 모두 기억하구 있겠지요? 수풍으로 가기 전 당회의를 하는 마당에서

고국장동지가 몇마디 충고했다고 해서 우둘쩍거리며 뛰쳐나간걸... 그후 김일성장군님의 심려의 말씀을 받고 좀 고치는 시늉을 하더니 또 저렇게 발작합니다. 직장장이란 사람이... 하긴 군중을 향해 절도 하고 나가겠다는 보고도 했으니 대단히 발전한셈이지. 허허허...》하고 고개를 젓히고 너털웃음을 터쳤다.

이어 리환구는 정색을 하고 심중히 말을 이었다.

《군중관점은커녕 초보적인 도덕도 지킬줄 모른단 말ियो. 도덕이란 말이 나왔으니 청년들의 도덕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싶은것이 있소. 알고들 있는지... 지금 로동행정부장이 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룡운이라는 제대군인한테 매를 맞아 그 지경이 됐습니다. 후방부로무자로 배치했다고 달려들어 두들겨팼습니다. 이제 무슨 판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한국장이 늘 규률을 강화하고 대렬을 정비할데 대해 강조했는데 나도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무슨 도깨비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숨을 돌린 리환구는 수첩을 몇장 번지고 목소리를 조금 가라앉히었다.

《본인이 없지만 총가목문제가 제기되었기때문에 명백히 말해주겠소. 총가목재료를 우리 나라 피나무로 해결하는 문제는 당장 실현할수 없습니다. 될지 안될지 아직은 막연한 일을 두고 어떻게 나무수입을 그만둘수 있소? 나는 병기생산을 나라앞에 책임진 사람ियो. 우리 나라의 피나무로 한다면서 로씨야 배료자수입을 그만두었다가 총을 전선에 못 보내게 되는 경우 누가 책임지겠는가?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의 나무로 총가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지 당장 배료자를 집어치우라고 하신게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선 따로 토론하겠으니 증산예비와 관련된 토론들을 하시오.》

리환구는 철갑모를 비롯한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꺼문어나올것 같아 이렇게 눌러버렸다. 그는 앞줄에 앉아있는 지응모, 김인호직장장, 며칠전에 돌아온 박홍근, 한쪽구석에 앉아있는 유락종작업반장을 더듬어보다가 뒤쪽에 앉아있는 도봉숙을 피끗 스쳐보았다.

《직접부문에 있지 않는 동무들도 의견을 제기하시오. 봉숙동무, 뭐 말할게 없소?》

《저야 뭐...》

봉숙은 수집음을 타는 처녀처럼 몸을 약간 꼬면서 일어섰다. 일단 지명을 받았으니 정중히 일어서는것이 례의라는 뜻이었다.

환구는 약간 가뭇한 살갓에 발기우리한 홍조가 비껴있는 봉숙의 얼굴을 넋지시 바라보았다. 한번도 화장을 하지 않는 천연그대로의 얼굴에 노상 눈웃음을 치는 이 녀자의 성실성, 근면성이 마음에 들었다. 실로 일이 사랑인것이다.

봉숙은 지배인의 령이 내린 다음에야 치마폭을 감싸며 자리에 앉았다. 그와 거의 동시에 유락종이 일어났다.

《지배인동지, 특별한 의견이 더 나올것 같지 않습니다. 부기사장동지가 시간이 곧 증산이라고 하였는데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협의회를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러자 지루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유락종의 의견에 공감하는듯 바람을 맞은 수풀처럼 술렁거리었다. 리환구도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 그만합시다. 돌아가서 각자가 계속 연구하시오. 좋은 안이 떠오르면 아무 때건 찾아오시오.》

협의회참가자들이 다 빠진 뒤 리환구는 혼자서 외롭게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었다.
이때 표일석이 사업수첩을 펼쳐들고 들어왔다.

《사실 협의회때 정식 토론에 상정시키려던것인데 류일룡이 퇴장하여 협의회가
갑자기 무산되는 바람에...》

표일석은 이렇게 중얼거리고나서 수첩속에 적혀있는 글을 큰소리로 읽어내려갔다.

《국가계획위원회 수입국 앞.

산업성 병기생산국 군자리병기공장의 다음설비들을 하반기중에 수입해줄것을
의뢰합니다.

설비명은 별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수입의뢰한 설비란 뭐요?》

리환구는 김빠진 소리로 물었다.

《기관단총생산직장 총신공이반 3대 대신에 쏘련에서 그 성능의 몇배 가는
수평단조기를 수입하려는것입니다.

수평단조기 1대면 낡은 공명기들을 죄다 없애도 됩니다. 이 동무들은 공명기 3대를
자체로 만들겠다고 본체만 부어달라는데 이것만 사오면 그런 시끄러운 일두
없어질겁니다. 그 동무들이 해방전에 쓰던 총신 강선기를 아직도 쓰고있는데 이젠 다
낡아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 쓰겠다는겁니다. 낡은 설비를 수리해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 설비를 만들겠다는건 리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주어주니 이젠 덧대놓고 제가 다 만들어쓴다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총가목을 봇나무대신 피나무로 하겠다는것도 지응모란 사람이 먼저 장군님께 말씀올렸는지 모릅니다. 공명주의자입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꿀같은 말을 하지만 조용한 밀담장소에서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며 남을 헐뜯을줄도 아는것이 표일석이었다. 어디에서나 딱딱대는 로동행정부장과는 아주 대조적이였다. 도봉숙은 그 두사람이 다 필요해서 벌써 그들을 좁안에 집어넣은것이였다.

지배인은 총가목문제를 놓고 지응모를 헐뜯는 표일석에게 성을 냈다.

《동무, 허튼소리 하지 말라! 알지도 못하면서… 총가목문제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착안하신거야… 설비문제 좀 연구해보지요. 그걸 수입하자면 돈이 약차하겠는데… 고국장하고 우선 토론해보겠소.》

《이미 국장동지와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공장 지배인이 동무요 나요?》

리환구는 결이 나서 손에 쥐고있던 담배를 껍 내던졌다. 앞끝만 약간 타버린 담배가치가 연기를 날리며 허공으로 날아가 퍼그나 먼곳에 떨어졌다.

표일석을 내보낸 리환구는 새 담배를 입에 물고 망연히 앉아있었다. 그의 심리는 몹시 복잡하였다. 일껏 마음먹고 조직한 협의회에서 체면이 깎이우는 일만 벌어져 심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배인변호사》라는 말을 듣고있는 표일석이까지 지배인을 제껴내고 고국장을 찾아다녔으니 화가 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들이 지배인을 뭘로 보는가? 그는 점점 군중의 눈에 나고 당위원장에게는 물론 아래일군들에게조차 놀리워 꿈쩍을 못하고있는 자신을 보고있었다.

사실 그는 일을 해보자고 일껏 마음먹고 조직한 큰 협의회가 그 모양으로 유야무야되고보니 분통이 터졌다. 그는 자기에겐 능력이 모자란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배인자리에서 물러나고싶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높은 자리가 탐났다. 그는 개별적간부들의 환심을 사서 병기공장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람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해방전 3년간의 옥살이, 열차여행의 무료한 시간에 우연히 통성을 하여 사귀게 된 고정한국장, 이것으로 하여 병기공장의 지배인자리에 올라앉게 된 환구였다. 고정한국장은 쏘련에서 태줄을 끊은 사람이지만 그의 부모들은 환구의 고향인 단천지방태생이었다. 해방후 군농맹지도원으로 있을 때 열차칸에서 고정한국장과 통성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어 그들은 서로 가까와지게 되었다. 그 우연한 사귀이 과연 환구에게 있어서 행운인지 불운인지는 인생의 행군을 좀더 해보아야 알게 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 또다시 무기생산을 더 많이 할데 대한 교시를 하셨다는데 지배인이란 사람이 똑똑한 증산예비를 찾지 못하고 앓아뉘고있으니 야단은 야단이야. 어쨌든 고국장에게 딱 붙어서 일하는 길밖에 없어.)

지배인의 마음은 어수선했었다.

8

김일성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골개강을 끼고 골짜길을 천천히 달리고있었다. 벼랑사이로 길게 뻗은 골짜길주변에는 방금 망울을 터친 진달래꽃들이 가담가담 피여있고 벼랑너머로 멀리 보이는 황색산밭들에는 연록색의 반점들이 무수히 찍혀있었다. 바야흐로 신록으로 단장할 차비를 하고있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무기와 탄약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색금속광산을 찾아가고계시였다. 각종 흑색 및 유색금속광산과 희유금속광산들은 병기공업의 전초선이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승용차의자동반이에 몸을 기대신채 적들의 최근동향을 놓고 사색을 더듬고계시였다.

지금 적들의 내부는 혼란상태에 있었다. 트루먼을 우두머리로 한 미국무성, 국방성을 한패로 하고 맥아더를 비롯한 미극동군사령부를 또 한패로 하는 두 패거리들이 조선전쟁에서의 패전의 책임을 상대방에 넘겨씌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모해하고 물고뜯는 놀음을 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맥아더가 이미 백악관의 칼도마우에 놓여있다고 보시였다. 왜냐하면 트루먼은 늦어도 크리스마스전으로 조선전쟁을 결속하여 조선에 있는 모든 미국병사들과 《유엔군》들이 자기 고향에서 1951년의 신년축배를 들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조선에 날아가 《승리의 선언》이라는 성명까지 란발해서 자기를 곤경에

빠뜨려놓은 맥아더에 대하여 사형선고를 내린지 오래기때문이었다. 다만 하도 큰 인물이어서 자중하고있을뿐이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의지를 본따 모략과 기만으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얻어 다음번 대통령자리를 바라보고있던것이 맥아더의 망동으로 해서 죽이 되고말았으므로 더욱 모든 책임을 늙은 패전장군에게 들씌우려고 하는것이다. 맥아더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있지만 어쩔수없는 처지에 빠져 터무니없는 여론만 돌리고있었다. 북조선병기창을 폭격하지 않고 조선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군수기재를 보장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자기가 《승리의 선언》을 현실화할수 없었다는것이다. 그리고 미중앙정보국에서 자기에게 정확한 군사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것으로 해서 자기들의 전선에서 항상 혼란이 일어나군 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그 말에 누가 공감하겠는가. 미국은 그에게 일본땅을 통채로 넘겨주었다. 일본땅 그 어디에서나 포탄과 폭탄이 쏟아져나왔고 일본의 모든 군함들과 배들은 미군의 전략물자수송에 동원되였다.

실상 미국이 맥아더에게 해줄수 있는것은 다 해주었다.

북조선병기공장을 폭격하지 않았다는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미국은 수천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조선땅 어디에나 폭탄을 퍼부어댔다. 그 조밀도는 전쟁력사상 있어보지 못한것이였다.

맥아더는 리치에 닿지 않는 여론을 돌리면 돌릴수록 브랫들리와 애치슨의 반박에 부딪쳐 더 험악한 함정에 빠지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전쟁의 각본을 작성하고 연출한 트루먼, 브렛들리(미합동참모본부의장), 애치슨(미국무장관)무리들이 맥아더의 《크리스마스총공세》의 허망한 작전으로 하여 미국이 받아안은 정치, 경제, 군사적손실을 집계하여 국회청문회에 제출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으시였다.

그 손실은 실로 막대한것이였다. 적들이 축소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크리스마스총공세》작전개시후 근 14만명의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포로되거나 죽었으며 탱크, 자동차, 장갑차의 손실은 제외하고도 격추, 격상당한 비행기수는 무려 수백대나 된다. 이 엄청난 손실은 동맹국들앞에서 미국의 지위를 시궁창 밑바닥에 떨어놓았으며 미국의 존엄에 수복할수 없는 흉한 허물을 입혔다.

지어 미국무성, 국방성패거리들은 71살이 된 맥아더의 생리적으로쇠로 하여 다시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자연법칙에 의해 그의 두뇌도 굳어지고 군사적감각도 무디어졌다고 개탄하고있다. 바로 그 로쇠증이라는 생리적요소가 트루먼으로 하여금 50년간 군복을 입고 많은 공적을 쌓은 맥아더를 자연스럽게 실각시킬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구실로 될지도 모른다. 아무튼 트루먼은 수하측근들에게 자기의 목적과 요구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스스로가 자기 목에 드리워지는 올가미를 맥아더에게 넘겨썩우도록 하는데 성공할수 있다. 하지만 트루먼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한다. 조선전쟁 10개월간의 경험은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못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기때문이였다. 16 대 1의 유리한 조건에서도 미국은 이기지 못하였다. 건국이래 수많은 침략전쟁을 하면서 단 한번도 저본적이 없는 최대 《강국》, 《신화의 나라》 미국이 조그마한 북조선도 당하지 못했다. 이런 수치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

참패의 원인이 맥아더 한사람의 잘못에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시킬수 없는 문제이며 트루먼자신에게도 풀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신화》는 깨지고 북조선의 신화가 새로 생겨난것이다. 이 풀길없는 수수께끼로 하여 최근 트루먼이 미중앙정보국의 유명한 조선담당요원인 잭슨을 불러다 밀담을 하였다는 소문이 떠돌고있다.

그 여러 소문들중 가장 신빙성있는것은 잭슨이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최고인물들앞에서 단 10분동안 이야기하였다는 《조선력사에 대한 단상》이었다.

《조선력사에 대한 단상》에서 잭슨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조선족을 다친것자체가 미국의 실책이다. 유태족은 물질로써 세계를 점유하였다고 하지만 조선족은 정신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것이다. 일찌기 어느 한 동방력사가는 조선족을 두고 천손민족이라고 하였다. 조선민족이 얼마나 력사가 오래고 문명한가 하는것은 조선반도땅에 남아있는 력사적유물을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세계에 널려져있는 고인돌의 50프로이상이 조선땅에 존재하고있는 이 사실이 력사학계를 놀라게 하고있다. 그리고 조선의 고대글자인 신지글자를 놓고보아도 그 력사의 깊이를 재여볼수 있다.… 세종때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바로 여기에 시원을 두고있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일은 이처럼 길고긴 력사를 가진 천손민족이 일시 망조의 그늘에 묻히게 되여 한울님이 **김일성**장군을 백두산에 구세주로 내려보냈다는 전설적이야기가 조선전국에 퍼져 이 민족의 심혼을 틀어잡고있는 사실이다. 얼핏 보면 이것이 과학세계와 인연이 없는 현대의 허구적인 신화로 보이지만 최근 20여년간에 이룩한 **김일성**장군의 항일혁명투쟁력사의 빛나는

실적은 신화가 아니라 과학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지금 북조선병기공업은 바로 **김일성**장군에 의해서 땅굴속에서 소리치며 일떠서고있다. 병기공업의 발전속도는 실로 우리들을 경악실색케 한다. 그것을 그대로 방임해두면 장차 미국의 력사에 어떤 험악한 그림자가 던져지게 될지 상상할수 없는데 현재 우리의 강한 무력으로도 땅굴속에서 소리치며 일떠서는 병기공업을 막아낼수 없다. 더우기 이상한것은 미중앙정보국의 최대의 노력과 최선의 대책으로 **김일성**장군은 비밀없는 전쟁을 하고있음에도 미국이 련전런패하고있는 사실이다.…」》

안개속의 인물 잭슨이 맥아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명백한것은 더글라스 맥아더의 해임문제가 기정사실화된것이다.

허나 **김일성**동지께서는 트루먼과 그리고 백악관을 뒤받침하는 미국의 모사인물들이 절대로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다는것은 잘 알고계시였다. 우리에게 대한 잭슨의 선전강의는 조선을 얕보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만무례한 그자들이 결코 최후의 《승리》를 포기할수 없었다.

흉악한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견해와 립장은 확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음흉한 트루먼이 머지않아 백악관행정청사에서 가지게 될 특별기자회견에서 슬픈 목소리로 맥아더의 해임에 대해 공개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으시였다.

바로 이렇게 전쟁 10개월간에 걸치는 모든 실패의 책임을 맥아더에게 걸머지게 만든 다음 트루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흥책을 벌리게 될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계속 사색을 더듬으시였다.

트루먼은 자기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고 그에 따라 백악관을 비난하던 여론도 자연히 숨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이 음흉한 근시안은 전쟁을 더욱 확대할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지도 모른다.

원자탄이냐? 아니면 정전이냐? 트루먼은 이 량자를 놓고 택일을 확정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역시 자신의 어깨우에 놓이게 된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이다.

일본에 두발의 원자탄을 떨어뜨린것으로 하여 세계의 원성과 비난이 우박치듯 하는데 이제 또 조선에서 원자탄을 쓰면 우선 자기가 모두매를 맞게 되며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미국땅에 휩쓸게 된다는것을 트루먼이 모를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지난해 10월 원자탄사용에 대한 검토를 했고 맥아더는 조중국경지대에 수십발의 원자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감히 실천에 옮기지 못한것은 제가 떨군 원자탄에 제가 죽을수 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 트루먼이 정전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그것 역시 미국대통령의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 덩치큰 나라가 먼저 정전을 요청하는것은 결국 세상이 보는 앞에서 희기를 드는것이나 같기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택할 길은 명백하였다. 원자탄공포증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영예로운 정전》을 피하는 한편 그뒤에서 침략무력을 한층 더 증강하여 전쟁의 실패를 만회하려는것이다.

그때문에 조선전쟁은 장기성을 띠게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사색끝에 결단을 내리시였다.

(장기전을 준비하자! 방어진지들을 모두 갱도화하여 공격하며 방어하고 방어하며 공격하자!)

장기전을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병기공업을 강화하는것이였다. 우리 군대와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상태는 적들에게 대비도 되지 않게 준비되어있으니만큼 무기와 탄약만 보장되면 승리의 전망은 확고한것이다.

승용차시창으로는 광산마을이 내다보이였다. 광산의 역사를 말해주는 높은 버럭산, 그뒤로 뻗어간 산릉선들과 산기슭에 웅기중기 솟아있는 시추탑들, 콘크리트원형갱구와 통나무틀을 댄 제형의 갱구들, 우르릉거리는 광차들의 동음... 병기생산의 원료원천지 유색금속광산은 힘있게 숨쉬며 약동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으로 수송되는 무기와 탄약을 상상하며 광산마을을 의미심장하게 지켜보시였다.

9

김일성동지께서는 병기공업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유색 및 흑색금속광산들을 직접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산업상 정일룡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추리나무들이 서있는 최고사령부마당가에서 봄볕과 산바람에 얼굴이 거뭇게 그슬린 정일룡을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집무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친히 물 한고뿌를 따라 정일룡에게 들려주시며 얼굴이 펴 축간것 같다고 걱정하시였다.

《김책부수상이 돌아간 후부터 상사업을 맡아하느라 동무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산업성사업이 제일 힘들고 또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아픈데는 없소? 장수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축났소?》

《장군님, 저는 건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나라의 산업을 맡고 일을 망치는것 같아 죄스럽고 걱정될뿐입니다.》

정일룡은 군인들처럼 차렷자세를 하고 정중히 말씀올리었다.

《김책동무도 산업부문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기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우리 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병기공장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나라 제철, 제강, 제련소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는 김책동무의 발자취가 어려있습니다. 군건설에 바친 김책동무의 공로 또한 대단합니다. 나는 동무도 김책동무의 모범을 본받아 앞으로 일을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결을 떠나간 김책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오시여 한동안 침통히 앉아계시였다. 정일룡이도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상실의 아픔에 눈물을 머금고 서있었다.

《상동무, 앉으시오.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나는 오늘 병기공업을 비롯한 모든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며 유색금속광물생산을 증대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론하자고 동무를 불렀습니다.》

그이께서는 지금 제국주의침략정책실천자들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극도로 격화되고 무력침공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커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있어 침략의 원흉 트루만이 살인귀 맥아더를 미국동군사령관의 자리에서 해임한다는 《

대통령명령서》를 발표하여 저들의 비관적전망을 스스로 세계면전에서 드러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나 적들은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하면서도 기어이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4월부터 이른바 대공세라는 모험적인 공격을 준비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은 장기성을 띠게 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장기전을 벌리자면 병기공장을 비롯한 모든 기계공장들을 활성화하고 무기, 탄약생산의 원료원천지인 금속광산들을 다 살려내어 광물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정일룡은 송구한 몸가짐을 하고 앉아있었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러차례 병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나라의 병기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지만 자신의 무능력으로 하여 교시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고 생각되어 죄송하기 그지없었다.

김책부수상이 서거한 이후 산업성과 병기공장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었다.

기관단총 총가목을 로씨야의 붓나무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혼한 나무로 할데 대한 교시도 관철하지 못하고있고 기술일군들과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장에 공장대학과 전문학교를 내올데 대한 과업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엄중한것은 군자리의 포탄직장을 아직 해당지역에 이설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만약 김책부수상이 살아있다면 그이께서 주신 이 모든 과업들을 수행한지도 오랫동안것이였다.

《정일룡동무, 현무광동무의 말에 의하면 기관단총 총가목을 우리 나라의것으로 하기 위한 연구조를 조직하였다가 해산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알고있습니까?》

《예, 최근에… 늦게야 알았습니다. 고정한국장이 로씨야와 체결된 붓나무수입계약을 취소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피나무연구사업은 당장 급한것은 아니니 로력이 긴장하므로 해산시키라고 했답니다. 상급과 토론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후 동무와 토론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옳지 않습니다. 누가 붓나무계약을 당장 취소시키라고 했습니까? 피나무연구가 완성되는 차제로 하반기도나 내년도부터 계획에 물려 우리 나라의것으로 하자는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로력이 그렇게 긴장되어 몇명 되지도 않는 피나무연구조를 해산시킵니까? 상동무가 그 동무를 단단히 비판해야 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정한이 피나무연구조를 해산시킨것은 로력이 긴장해서가 아니라 기관단총 총가목은 로씨야의 붓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1월 군자리병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실무렵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 작전회의에서 있었던 한가지 사실을 정일룡에게 알려주시였다.

그날 회의에서 한 군단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공격을 하기 전에 포병화력으로 적을 진압하고 돌격하는데 우리도 그 전법을 따라배우자고 토론하였다. 그의 토론을 들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아연하시였다. 포병화력으로 적을 진압하고 공격하는것은 정규전의 가장 초보적인 상식이기때문이었다. 인민군대는 조직된 첫날부터 이 전법으로 훈련하여왔으며 또 지금도 그런 전법으로 공격전투를 진행하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법을 마치 다른 나라에서만 하는 새로운 전투방식인것처럼 알고 따라배우자고 하는것은 남의것만 쳐다보고 자기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허무주의적인 태도로서 군사에 무식하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한것이였다. 그 군단장은 사대주의가 우심한 나머지 우리의 야전규정을 읽어보지 않다보니 다른 나라에서 쓰는 전법을 마치 새로운 전법인것처럼 알고있었던것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이렇게 머저리로 됩니다.

고정한동무 역시 기관단총 총가목은 로씨야처럼 붓나무로 해야 되며 그것이 가장 선진적인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로씨야에서 기관단총 총가목을 붓나무로 하게 된것은 그 나라에 붓나무가 많기때문이였습니다. 결코 다른 나무로는 할수 없기때문에 붓나무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로씨야에 대한 사대주의가 가득차다보니 피나무연구조를 해산시켰습니다. 상동무는 그걸 비판해주어야 합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룡은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들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넣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분야에서의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지난 전쟁행정에서 엄중한 후과를 미쳤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적들의 불의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작전을 전개할 때 일부 군사지휘관들은 다른 나라의 전투방법대로 태도로를 따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적들을 밀고나가기만 한 사실을 지적하시였다.

《그러다보니 적들에게 력량을 수습하여 락동강계선에서 방어를 조직하고 대병력을 끌어들일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상동무에게 이런 말을 하는것은 기관단총 총가목을 로씨야 봇나무에 의존하는것과 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병기공업부문에서 다시 나타나서는 안되겠기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피나무는 립자가 조밀하기때문에 결이 좋고 또 가볍습니다. 이런 나무로 총가목을 생산하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집어드신 문건을 몇장 번지시였다.

《산업성에서는 이제부터 병기공장을 중심으로 한 기계공업을 꾸리는데 기본력량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전쟁이 장기성을 띌수 있는 조건에서 병기공장을 비롯한 모든 중요기계공장들을 지하에 꾸려야 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장래발전과 군사전략상요구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산업배치를 잘하여야 한다, 특히 병기공장과 주요기계공장들을 지하에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빨리 다그쳐야 한다, 굴속에 공장을 넣으면 좋은점이 많다, 우선 전시에 안전성견지에서 유리하며 비밀보장이 담보된다, 다음으로 경제적문제에서 리득이 많다, 첫째로 여름철에 시원해서 좋고 둘째는 난방시설을 하지 않으니 귀한 무연탄이 절약되고 거기에 복무하는 많은 로력과 설비, 전기가 절약되여 좋을것이며 셋째는 비와 눈의 피해로부터 공장이 보호되니 실리가 매우 크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 제2계단작전당시 강계로 들어가는 길에 대규모의 자동차공장자리를 보아두신 이야기도 하시였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깊은 골짜기들에 적들을 몰아넣고 모조리 때려잡을 작전적구상도 하시였다. 인민군용사들은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재반격을 개시할 때 김일성동지의 구상대로 그 지구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대승리를 이룩하였다.

《공업배치에서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문제, 지하병기공장, 지하기계공장들을 이미 토의된 지역에 빨리 건설하는 문제는 병기공업건설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기계공업건설에서 하나의 혁명입니다. 군사전략상요구에 따라 이 방대한 공사를 빨리 해제껴야 하기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정일룡은 말아안은 방대한 과제로 하여 눈앞이 아찔해졌다. 만년필을 쥔 손이 떨리었다. 그는 산업상으로 임명된 후 군자리병기공장 하나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였다. 포탄공장을 앞힐 수로굴정리작업이 다 되어가지만 설비이설문제로 머리를 앓고있는중이였다. 열차편성, 적기의 공습, 중량설비운반 등등의 수십가지 애로가 제기되고있었다. 그런데 이제 군자리병기공장만이 아닌 병기공업을 중심으로 나라의 전반적기계공업을 군사전략상요구에 따라 배비변경을 하여야 하였으니 자기 능력으로써는 도저히 해낼것 같지 못하였다. 너무도 막막하여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짓는 정일룡의 표정을 일별하신 **김일성**동지께서 크게 소리내어 웃으시였다.

《허허허...상동무, 왜 그렇게 울상을 하고 한숨을 짓소?》

《장군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상자리에 앉아있을 재목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사실 부상의 임무도 제대로 못해서 늘 장군님께 부담을 끼쳐드렸는데...》

《그래 부상자리에 도로 내려앉겠다는거요? 허허허... 좌우간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상이 되든지 부상이 되든지 그건 후에 토론합시다. 산업성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 아니니 상동무의 눈이 정말 뒤집혀질것 같소, 허허허...》

그이께서는 우스개소리처럼 하시고 손에 집어든 문건을 몇장 번지시였다.

《그다음 산업성에서는 광물생산을 증대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광물생산이자 병기생산입니다. 해당 나라의 군사적잠재력은 철생산량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온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광물생산은 나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전시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며 우선 연정광생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규모가 큰 모든 광산들의 선광장을 지하에 넣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우리가 연, 중석, 동광산들에 지하선광장들을 잘 꾸려놓고 노동자들의 임시숙소들까지 갱안에 차려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면서도 군수용광물생산과 병기생산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산업성에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방대합니다. 상동무, 자신이 있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너그러운 웃음을 짓고 물으시였다.

정일룡은 엄숙한 자세로 서있었다. 그이께 시원한 대답을 올릴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김일성동지께서 천천히 일어나시였다.

《상동무, 무슨 일을 하든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오, 김책부수상이라면 이 방대한 과업을 어떻게 수행했겠는가고... 그는 어떤 어려운 과업도 나에게서 받은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었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몇발자국 걸어나오시며 탁상전등줄을 의미심장히 지켜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난 1월 놈들의 폭격으로 군자리병기공장의 전기가 자주 끊어지곤 하여 내가 김책동무에게 지하송전선을 하나 더 설치해서 병기공장동무들이 전기의 지장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김책이 책임지고 한 장거리지하까벨공사에 대해서는 정일룡이도 잘 알고있었다. 사실 그것은 공장종업원들이 다 동원되어도 1년이상은 걸려야 완공할수 있는 아주 품이 많이 드는 공사였다. 그런데 병기공장 동력부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20여명의 청장년돌격대원들이 두달 남짓한 사이에 그 방대한 공사를 끝내지 않았던가.

정일룡은 그때의 일을 추억에 떠올리며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새겨들었다.

《그 마지막결속작업을 바로 정일룡동무가 했지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

정일룡은 고개를 숙인채 목이 짹 잠긴 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부수상의 비결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하여 묘안을 찾고 일단 묘안을 찾은 다음에는 군중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이신작착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가 말처럼 쉬운것은 아닙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이와 대조되는 조선인민군 전 후방총국장과 고정한병기생산국장을 실례로 드시였다.

정일룡은 비로소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나도 전 후방총국장이나 병기생산국장처럼 아래에 지시나 하고 위에 가만히 앉아있었기때문에 피나무연구조가 해산되는것도 모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상이 된 다음부터 산업성산하 여러곳에서 혼란이 일어나고있지 않는가?)

《상동무! 김책부수상처럼 일하면 됩니다. 책임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부단히 자기를 수양하여야 합니다. 전 후방총국장도 본래부터 나쁜 사상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해방직후에 국가기관의 주요한 직책에서 사업하였으며 그때에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전쟁이 개시된 후에는 최고사령부 주요직책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기때문에 머리에 녹이 쏠게 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장군님, 제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꼭 집행하겠습니다.》

《물론 힘든 과업입니다. 그러나 동무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을 맡긴게 아닙니까. 산업성에 200대의 자동차를 내려보내주겠으니 합리적으로 잘 쓰시오.》

《아니, 200대를?!》

정일룡은 놀라며 만년필을 떨구었다. 나라의 한 성에 배속되는 자동차 200대가 결코 많은 수자여서 놀란것은 아니었다. 1950년 7월 평천리병기공장의 설비를 군자리로 옮길 때에도 최고사령부에서는 200대의 자동차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이 수풍으로 들어갈 때에는 산업성에 2대의 자동차밖에 보내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2대의 100배나 되는 200대의 자동차를 보내줄수 있도록 여유가 생겼으므로 그 높은 장성속도에 놀라게 된것이다.

《200대가 어디서 나왔는가? 김책부수상이 있을 때 제11자동차수리대를 조직하여 지난해 12월경에 벌써 1 000여대의 자동차를 수리하여 가동시켰습니다. 그후 곳곳에서 자동차수리대가 조직되어 많은 자동차들을 재생시켰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주먹을 쳐들며 힘주어 말씀을 이으시였다.

《전쟁의 불구름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있습니다. 현재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간의 련계가 더욱 복잡해지고있는데 따라 우리는 앞으로 조만간 산업성을 몇개의 성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정일룡은 확장되고있는 나라의 경제규모를 상상하면서 밝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금 이 방에서 자기의 정치적기도 우뚝 자라고있는것 같은 긍지감에 환호성을 터치고싶은 심정이였다.

《동무에게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군자리병기공장에 들려 당위원장에게 전하시오. 내가 자강도에 있을 때 남조선에서 온 통일인사들에게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7월초에 그들을 데려다 참관시키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공장에 대한 해설은 지응모부기사장이 하게 합시다.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병기공장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통일인사들에게는 보여줍시다.

나는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불러 식사라도 한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 병기공장동무들이 만든 모든 무기들에 대한 평가와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듣자니 감악봉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강호영영웅이 쓰던 기관단총은 총신강이 다 마모되어 더는 쓸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말을 듣고 강호영영웅이 얼마나 많은 적들을 싸눴혔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병기공장에서 총을 보낼 때 반드시 예비총신을 끼워보내야 하겠습니다.》

정일룡은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에 목이 메여올라 오래도록 아무 말도 못하며 수첩에 《예비총신》이라는 글자를 큼직하게 써넣었다.

《참, 내가 중요한걸 한가지 잊었군. 상동무가 딸부자라면서? 그래서 부인한테 팔세를 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허허허.》

이 갑작스러운 뜻밖의 질문에 놀라고 당황한 정일룡은 얼굴을 붉히며 더수기를 긁적거리었다.

《장군님, 집안망신같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 무식한 사람이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딸만 낳는 죄는 남자에게 있다면서... X염색체가 어찌구 Y염색체가 어찌구 꼬부랑말을 하면서...》

《그러니 부인이 과학적으로 증명했구만, 허허허... 딸부자면 어땡구 아들부자면 어땡소? 남녀평등권시대에... 중요한건 아들이냐 딸이냐가 아니라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거요. 상동무가 팔세를 받는걸 보구 내가 가만있을수 있소? 나하구 함께 힘을 합쳐서 상동무의 딸들을 모두 애국자로, 혁명가로 보란듯이 잘 키웁시다. 내가 적극적으로 동지적인 방조를 하겠소, 허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으나 정일룡은 눈썹리가 확 달아오르며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얼른 고개를 수그리었다.

그로부터 두달후 1951년 6월 29일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지리에서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그들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은 제327군부대관하 전체 장병들의 이름으로 전호속에서 수를 놓아 만든 축기와 함께 공화국영웅 한계렬동무가 쓰던 권총과 공화국영웅 강호영동무가 쓰던 기관단총을 김일성동지께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영웅들이 쓰던 권총과 기관단총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찬찬히 여겨보시였다. 그것은 평천리병기공장에서 만든 총들이였다.

그이께서는 강호영영웅이 쓰던 기관단총의 총구를 해빛에 비쳐보시면서 《총신강이 정말 다 마모됐구만. 지금은 병기공장에서 총을 보낼 때 예비총신을 꼭 끼워보낼거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소.》 하고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그때 내외의 군사정세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몇달전에 예견하신 그대로 번져졌다.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릿지웨이를 올려놓은 미대통령 트루먼은 6월 23일 유엔 《평화의 기치》 방송을 통하여 쏘련 외무성 부상 말리크의 연설이 나가자 조선전쟁에 참가한 추종국가 대표들을 불러다놓고 정전을 제의하는 《공동성명서》라는것을 발표하게 하였으며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에게 공화국정부와 정전교섭을 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이것은 조선전쟁에 참가한 미제침략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놈들이 침략의 흥심을 버리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정전담판을 통하여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며 시간을 얻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려고 시도하고있다는것을 환히 꿰뚫고계시였다.

6월 30일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로부터 정전담판을 개시할데 대한 제의서를 보내여왔다.

바로 그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무광에게 병기생산을 더욱 다그칠데 대한 교시를 하시고 며칠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일행이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을 참관하러 간다는것을 알려주시였다.

제 6 장

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일군들이 병기공장을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지응모는 출근하는 길로 곧장 당위원장방으로 찾아갔다.

탁상을 마주하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던 현무광은 지응모가 들어서자 담배재를 재털이에 털며 일어섰다.

《손님들이 오전 10시경에 도착할것 같소. 부기사장동문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고있어야겠소.》

이렇게 말하는 현무광은 어딘가 불쾌한 표정이었다. 그의 검실한 두눈이 날카롭게 번뜩이였다.

《당위원장동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응모가 현무광의 이상한 기색을 보고 묻는 말이였다.

《어제 밤에 당위원회에 알리지도 않고 강선작업반에서 일하는 장룡운동무를 붙들어갔소. 왜먹지 않게.》

《아니, 붙들어가다니요. 그가 어디에 붙들려갔습니까?》

지응모는 눈이 둥그래졌다. 한눈이 실명된 제대군인 장룡운은 기관단총직장에 배치된 이후 기능전습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머리가 비상하여 공장적으로 소문을 내고있는 노동자였다. 공장에 배치된지 석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벌써 강선치는 어려운 일을 담당하여 한몫 하고있을뿐아니라 공구창의안을 3건이나 제기하여 노상 공장속보에 오르고있는 제대군인이였다. 장룡운은 피나무로 기관단총 총가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식으로 강도와 부식도시험까지 하여 피나무가 붓나무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기술문건을 제출한 일도 있었다. 특히 그는 강호영영웅의 보증으로 화선입당환당원인것으로 하여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었다. 그런데 군중의 신망을 받고있는 이런 뛰어난 재간둥이모범로동자가 무슨 일로 붙들려갔단 말인가?

《석달전에 노동행정부장의 눈통을 친 사건에 불집이 생겼소. 리백찬동무의 한쪽눈이 최근에 완전히 실명되고 앞으로 다른 한쪽눈까지도 실명될 우려가 있다는데 법의감정에 의하면 석달전에 타격을 받은것이 원인이라고 하오. 형법조항에 의해 장룡운은 3년내지 5년의 교화를 받아야 한다면서 도내무국에서 잡아갔다고 하오. 검찰소에 넘겨 예심을

받게 하자는것 같은데 어떤 나쁜놈의 작간이 있는것 같소. 이삼일 치료받고 아무일 없었던 리백찬의 눈이 몇달이 지나 그것때문에 실명됐다는게 믿어지질 않소.》

지응모는 문득 그전에 식당에서 만난 도봉숙이한테서 로동행정부장이 눈통을 얻어맞고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던 생각이 났다. 그때 당위원회에서는 장룡운이와 리백찬 두 당원을 다 비판했다. 그들은 성근하게 자기 비판들을 했고 병원에서 이삼일 치료받은 리백찬의 눈은 그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서조차 삭막해진 사건이 갑자기 불집을 일으키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나는 아무래도 도내무국에 올라가 장룡운동무의 문제를 알아봐야 하겠소. 그러니 부기사장동문 빨리 옷이랑 갈아입고 손님맞을 준비를 책임지고 해주시요.》

현무광은 기름에 찌들고 불구멍이 숭숭한 지응모의 작업복을 살펴보며 서둘러 재촉하였다. 지응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섰다. 장룡운이 없어진다면 강선작업장에 빈자리가 크게 생겨날수 있었다. 작업장도 작업장이지만 재능있는 한 청년의 운명이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정말 모를 일이군. 법조항을 리행하는데서도 정치성, 계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반동놈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힌다 해도 3년 교화형을 받아야 하는가?》

지응모는 리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내저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약속한 시간에 군자리병기공장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지하공장을 참관하기에 앞서 돌부리들이 들쭉날쭉한 굴복도에 서서 지응모로부터 지하공장에 대한 개괄해설을 들었다.

지응모는 전쟁의 드바쁜 시기에 정계의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스럽게 공장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평천리병기공장이 군자리로 이설해온 경위와 공장이설에 바쳐오신 **김일성**동지의 사랑과 배려, 그이의 선견지명에 대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나서 지하병기공장의 생산능력과 생산면적을 자료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지하병기공장자리는 해방전 태평양전쟁당시 일본놈들이 군수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아연광을 캐먹던 굴자리입니다.》

지응모의 말에 참관자들은 일시에 지하공장의 규모가 상상외로 크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을 돌아보고 머지않아 개학하게 될 김책공업대학 부속공장대학까지 참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원들은 군자리병기공장에서 룡승한 점심대접까지 받고 떠나갔다. 병기공장간부들이 그들과 함께 동석식사를 하였는데 당위원장 현무광만은 제기된 일때문에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였다.

지응모는 저녁에 당위원회에 찾아가 사업보고를 하였다.

《수고했소, 참관자들이 모두 신심을 얻고 기뻐했다니 우리로서도 큰 성과요.》

이렇게 말하는 현무광의 얼굴은 웬일인지 침울한 표정이였다.

《도내무국에 가셨겠습니까?》

지응모는 도내무국에 불들리여간 장룡운의 문제가 불리하게 번져지지 않는가 하는 예감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장룡운은 내가 데리고왔소. 리백찬동무의 눈이 앞으로 실명될수 있다면서 장룡운을 문제시하도록 범의감정서를 작성한 그놈이 나쁜놈 같소. 다른 안과의를사를 붙여 다시 감정하겠다고 하니 규정상 그렇겐 못한다고 우기더군. 왜 못한다 말이요? 그게 의심스럽지 않소? 어쨌든 원인을 다시 밝혀보기로 했소. 걱정되는건 그보다도 그리스도교련맹에 갔던 일이...》 현무광은 말끝을 흐리며 긴 한숨을 쉬었다.

《거기엔 왜 갔됐습니까?》

《좌우간 거기 좀 앉소.》

현무광은 대답을 피하며 의자를 권하였다. 그들은 바위벽을 등에 지고 서로 마주앉았다. 현무광은 오래도록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입을 열었다.

《부기사장동무, 내가 도에 올라갔다와서 그리스도교련맹으로부터 전화로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소.》

《무슨 소식이기에?...》

지응모는 가늠할수 없는 현무광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부기사장동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겠소. 그리스도교련맹의 한 일군이 최근 장군님의 지시를 받고 선천에 갔다왔소. 다름아닌 최학순목사네 소식을 알아보려... 아, 이 당위원장이란게 마음편히 있을 때에도 장군님께서서는 동무의 일때문에 늘 마음을 쓰고계셨단 말이요.》

담배를 떨군 현무광은 비통하게 중얼거리며 두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가 쑥 내리쥘었다.

《전 지금 당위원장동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오. 마음을 굳게 먹소. 선천 최목사네 집이 다 무사하다고 한 동생의 편지는 사실을 숨긴 편지였소. 지난 후퇴시기 최학순목사의 일가는 몽땅 학살됐소… 최이순이도 역시…》

순간 벌떡 일어난 지응모는 눈앞이 아찔해져 의자를 넘어뜨리면서 쓰러졌다. 현무광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였다.

《부기사장!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쓰러지다니… 총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뭐가!…》

《당위원장동지, 그게 사실인가요?》

가까스로 의자에 올라앉은 지응모는 최이순이가 눈앞으로 다가서는것 같은 환각에 두팔을 허우적거리었다.

《부기사장동무 어찌겠소… 그건 사실이요.》

현무광의 통절한 목소리가 아득히 멀리에서, 그러나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귀청을 때리며 울려오는것 같았다.

《응모동무, 난 기다리겠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라도…》

지응모의 귀에 최이순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의학에서 말하는 환청이었다.

새해에 들어와 지응모의 나이는 서른한살이고 최이순은 서른살이었다. 여러가지 극절로 이렇게 나이가 차도록 가정을 이룰수 없었던 그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혼하기로 굳게 약속했었다. 그러나 순정을 지켜온 최이순을 이제는 영영 볼수 없게 되었으며 가정을 이루자던 그 약속과 꿈은 산산이 깨여지고말았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지응모의 눈에서 비오듯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기사장동무, 진정하오. 굳게 마음을 먹고 내 말을 듣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아야 하오.》

지응모는 눈을 감고 앉아 당위원장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최목사는 속이 뜬뜬해 앉아있었소. 하느님의 나라인 미국이 목사네 집은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거요. 조직적으로 후퇴하려는 딸들까지도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놓았소...》

그런데 최목사가 것처럼 신사군대로 믿고있던 미군은 선천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죽이고 눈뜨고 보지 못할것들을 하였다. 한 교인의 딸이 미군병졸에게 릉욕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이런 변사가 날마다 계속되어 최목사는 선천에 주둔해있는 미군정보장교를 찾아가 일찌기 미국선교사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한테서 신학교육을 받은 자기를 소개하고 하느님의 나라인 미국의 군병들이 어찌 짐승도 낮을 불힐것을 하느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정보장교는 미국선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목사를 알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하면서 나쁜것을 하는 군졸들을 신척할터이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승용차에 최목사를 태워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최목사네 집에 자주 찾아다닌 정보장교가 하루는 영어에 능통한 최이순의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데리고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총상을 입은 최이순의 시체가 강변에 나타났다. 미군정보장교놈이 그를 겁탈하려다가 필사적인 항거에 부딪치게 되자 총으로 쏘아죽이고 마치 공산군에게 희생된것처럼 만들어 시체를 강변에 내던졌던것이다. 이것은 후에 정보장교 운전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였다. 딸의 시체를 발견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쳐버리고 막내딸은 미군정보장교놈에게 찾아가 언니의 사인을 밝혀달라고 하였다. 일이 시끄러워지게 되자 미군정보장교놈은 최학순일가가 성경책을 들고 빨갱이의 스파이질을 하는 집안이라고,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하는 일에 매번 항의해나선다고 하며 막내딸은 아예 공개적으로 죽여버리였다. 줄지에 두 딸을 잃어버린 최학순목사도 미칠 지경이 되였다. 그는 선천거리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미국은 사탄의 나라, 유다의 족속, 악마의 소굴이옵니다. 그놈들이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죄없는 주민들을 총칼로 참살하고 어린이들을 불에 태워죽이는것을 이 눈으로 보았소이다. 미국놈들에게 벼락을 내리옵소서. 나는 죽어 지옥으로 찾아가겠나이다. 거기 염라대왕에게 미국놈들을 모조리 끌어다 불가마에 집어넣으라고 하겠나이다. 하늘의 모든 벼락이 워싱턴의 《흰집》을 때려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해주옵소서. 나를 피이고 홀린 미국선교사놈들이 지금 천당에 가있으면 지옥으로 내쫓아버리옵소서...

사람들은 최목사도 미쳤다고들 하였다. 허나 그것이 어찌 미친 사람의 말이겠는가. 미국놈에게 미쳤던 머리가 이제 비로소 바른 정신으로 돌아온것이다.

최목사도 그의 부인도 며칠 못있어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었다.

몸서리치는 비극담을 마친 현무광은 가까스로 신음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응모는 당위원장방에서 언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는 사무실타상을 마주하고 앉아 갓난애기 손바닥만 한 최이순의 사진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1948년 겨울 평천리병기공장 담장밖에서 이순을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닭알형의 얼굴에 끝이 약간 말려올라간 중발머리, 반듯한 이마밑에 갈매기날개모양으로 가지런히 펼쳐진 눈썹, 휘우듬히 내려쳐올라간 속눈썹밑에서 새까만 두눈이 조용히 웃고있었다.

그가 얼없이 처녀의 사진을 들여다보고있을 때 현무광, 리환구, 박홍근, 유락중, 류일룡, 김인호, 조규성, 최성준 등 평천리병기공장때부터 고락을 같이해온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오래도록 최이순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지응모는 목각상처럼 까딱없이 앉아있었다. 한참만에 고개를 쳐든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뭐라고 혼자소리로 쏙얼거리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오?...》

리환구가 눈을 홉뜨며 서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1948년에 받은 최이순의 편지를 읽고있습니다. 시로 쓴 편지입니다. 그 시를 늘 저 사람이 가슴에 품고다녔습니다.》

《회답편지를 시로 썼단 말이요?》 하고 묻는 지배인뿐아니라 거기 서있는 사람들모두가 그 시의 사연을 알고있는 사람이 없었다.

박홍근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시 《당신의 반생명》을 읽어주었다.

하느님은 나더러 님을 버리라 하고

님의 밋들은 님더러 나를 버리라 하니
 내 직녀처럼 천리 먼곳에서
 견우를 바라보듯 님보며 울고있었네

허나 이제는 내 알았노라
 님의 사랑 지켜주시는분
 저 먼 하늘이 아니라
 님곁에 계시는것을

그분은 지상의 하느님 **김일성**장군님
 님이여 믿어다오 님의 뜻대로
 님 부르는 그날에 내 찾아가
 장군님 모시고 백년가약식하리라

님이여 안심하시라
 만약 그날을 기약할수 없어도
 내 백발할머니 될 때까지
 처녀의 순정을 지켜 님을 기다리겠노라

 믿어다오 님의 사랑 지켜주신 장군님께

깨끗한 사랑으로 의리를 지키리라

변치 않으리라 사랑의 이 맹세

거령산이 바다로 변한다 해도

《아- 응모야, 장군님 모시고 백년가약식하겠다던 너의 최이순이가, 백발할머니 될 때까지도 처녀의 순정을 지켜 기다리겠다던 이순이가 널 남기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박홍근은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였다. 지응모는 분연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가슴을 섬찍하게 하는 무서운 빛이 번뜩이였다.

《나의 이순이를 네놈들이 감히?... 이 미국놈들아!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무기설계가이다. 조선사람들을 수없이 학살한 네놈들을 모조리 콩가루로 만들테다! 두고봐라!... 이놈들!》

지응모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생활은 이렇게 준엄하였다. 그래서 총을 만들어야 했다.

지응모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다시금 큰소리로 웨쳤다.

《장군님! 기어이 원썩을 갚겠습니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최고사령부집무실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른아침부터 평양시주변과 평남도 일부 지역을 다니며 애국렬사유가족과 전사자가족, 전상자, 무의무탁자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이께서는 애국렬사, 전사자가족들과 전상자, 무의무탁자들을 잘 돌보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고 내각결정으로 안전지대에 유자녀학원, 영예군인학교, 애육원, 초등학교, 양로원들을 설치하도록 하시여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방랑고아나 집없이 헤매이는 전쟁리재민을 볼수 없었다. 전쟁시기에 방랑고아와 방랑리재민이 없는것은 세계력사상 류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앞으로 걸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갑자기 밀려드는 피로에 눈을 감으시였다. 이날 현지도도를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내내 최학순일가의 참사에 대해서 생각하시였다. 참을수 없이 가슴이 아프시였다. 미제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가. 더는 최학순일가와 같은 일이 없어야 했다. 그때문에 사람들을 더 각성시키고 더 위력한 총을 더 많이 만들어야 했다.

그이의 집무탁에는 문건들이 높이 쌓이고 그앞에 있는 일력장옆에는 수십장의 글종이가 놓여있었다. 그이께서 자리를 뜨신 사이에 여러 기관들에서 보내온 문건들이였다. 몇시간동안에 것처럼 높이 쌓인 문건들이 그이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7월에 들어서면서 그이께서는 두개의 전쟁을 지휘하시느라 여간 바쁘지 않으시였다. 하나는 총과 총,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문자그대로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총소리도 포연도 없는 전쟁,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심리전, 두뇌전을 해야 하는 정전담판이라는 전쟁이었다.

바로 며칠전 1951년 7월 8일에 개성시 고려동에 있는 래봉장이라는 조선식기와집에서 조선정전담판의 서막으로 되는 쌍방련락군관회의가 열리었다.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쌍방수석대표들이 마주앉아 조선정전담판을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일력장옆에 놓인 글종이를 집어드시었다. 맨 옷머리에 군자리병기공장 당위원장 현무광의 이름이 기록되어있었다. 그아래로 내무상 방학세, 부수상 홍명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소부장, 산업상을 비롯하여 그이를 만나보오러 왔던 당, 경제, 군사부문 책임일군들의 이름이 찾아온 순서대로 적혀있었다.

책임부관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장군님, 식당에 점심을 차려놓았습니다.》

《점심은 다니다가 한술 뜨고 왔소.》

그이께서는 서해안의 어느 농촌마을에서 풋강냉이 두이삭을 건뎡이젓과 오이김치에 받쳐서 드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들고 군자리병기공장 당위원장을 찾으시었다.

《군자리병기공장 당위원장 현무광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에서 현무광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리었다.

《당위원장동무, 건강하오?... 오전에 날 만나러 왔댔다는데 제기할 문제가 뭔지 말하시오.》

《장군님, 수로굴공사가 다 났습니다. 이제는 군자리포탄직장설비들을 이설해야 되겠는데 수송문제가 걸렸습니다. 중량물들이 많아서 기차방통만 해도 수십방통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세기를 비롯하여 황해제철소와 동평양기계공장에서 우리한테 넘겨주게 된 설비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본위주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현무광의 말투에는 응석기가 섞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포탄공장이설사업을 예견하고 정일룡상에게 직접 병기공장에 내려가 풀어주도록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나 짐짓 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런거야 산업성에 제기해야지 최고사령부에 찾아다녀서야 되겠소? 산업성에 제기하시오. 그러면 산업상이 풀어줄게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문제를 제기하라고 하시였다.

《장군님, 그밖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다면 됐소. 수로굴공사가 끝났다니 빨리 공장이설작업을 다그쳐 포와 포탄생산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박격포생산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서 박격포는 가장 쓸모있는 병기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정전담판이 시작되였는데 혹시 조만간 정전이 될줄로 알고 긴장을 늦추지 않소?》

《아닙니다. 정전담판과 관련한 해설제강도 내려왔기때문에 모두 정전담판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병기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병기공장동무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오. 지응모부기사장이 상심하지 않도록

당위원장이 잘 위로해주시오. 정말 가슴아픈 일이요. 그동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소.

》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고 또다시 최목사일가의 참사를 생각하며 침통히 앉아계시였다. 한참 지나서 내무상을 전화로 찾으시여 20여분 종이 이야기하시였다. 그다음은 홍명희부수상을 부르시였다.

그와 한창 이야기하실 때 부관이 집무실에 들어와 최고사령부 포병사령관이 찾아왔다고 말씀올리였다.

《좀 기다리라고 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부수상과 교육문제에 대하여, 특히는 전문학교와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전선에 나갔거나 다른 부문에 조동된 사람들 그리고 대학에 다니다가 군대에 나간 사람들과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일부 군인들을 내각협의회에서 토론한대로 빨리 소환하여 대학에 보낼데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30여분 전화를 하고 일어서시려는데 정전담판대표부에서 긴급전화가 걸려와 무려 2시간가까이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고 겨우 찜을 내여 포병사령관이 대기하고있는 마당으로 나가시였다.

벌써 땅거미가 기여들기 시작하는 저녁이 되었으나 낮동안 달아오를대로 달아오른 대지는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내뿜고있었다.

마당에는 82미리박격포와 포탄을 실은 두필의 공골말이 코투레질을 하고있었다. 군마옆에 서있던 포병사령관과 코투레질하는 군마의 고삐를 잡고있던 나이지극한 인민군전사가 그이께 거수경례를 올렸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그이께서는 82미리박격포와 포탄을 길마에 실은 두필의 군마를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길마우에 얹혀있는 포신을 만져보시였다. 그이를 따라나온 부관도 회한해하며 박격포와 포탄을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그때까지 누구도 군마의 길마에 박격포를 싣고다니는것을 본 일이 없었던것이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착안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포수들이 박격포를 분해하여 지고다닌다는것을 아시고 10여일전에최고사령부 포병사령관 김봉물을 부르시여 박격포와 포탄을 말길마에 싣고다니면 전사들의 짐을 덜어줄수 있겠다고 하시며 포를 싣고다니는 길마와 포탄을 싣고다니는 길마 두개를 만들어보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포병사령관이 길마시제품을 가지고온것이다.

먼저 82미리박격포를 실은 길마를 자세히 살펴보신 그이께서는 말잔등우에 가름대를 만들고 그우에 포신을 올려놓게 한것을 《이렇게 우에 가로 실으면 산으로 다닐 때 거치적거립니다. 포신을 말잔등과 평행 일직선이 되게 실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결함을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길마에 실은 짐이 꼭 붙지 않고 흔들리는것을 보시고 짐을 길마에 바짝 붙여서 힘을 고르롭게 받도록 실어야 산에서 행군할 때 짐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시였고 길마의 가름대가 수평으로 된것을 보시고는 말이 다칠수 있으니 바깥쪽으로 좀 후려 활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길마에

달린 맬고리가 끈을 조일 때에 벗겨져서 빠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용접을 하라고 하시였다.

포병사령관과 인민군전사는 순간에 말길마의 결함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시는 그이의 통찰력에 사뭇 놀라는 표정들이였다. 그이께서는 포탄을 실은 말길마도 보아주시였다.

《포탄을 실은 말길마는 크게 고칠게 없습니다. 두엄을 실은 소길마와 같은것이니까, 허허허... 그런데 이보다 포탄을 좀더 실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이께서 길마에 실은 포탄의 전체 무게를 가늠해보시며 물으시였다.

《더 실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포병사령관의 대답을 들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문포탄공장이 생겨 이제부터 포탄이 팡팡 생산될수 있으니 좀더 신도록 연구해보라고 이르고 《포와 포탄을 싣고다니는 군마들이 아무리 험한 길도 잘 다닐수 있도록 편자를 든든히 박으시오. 말길마의 결함을 며칠이면 다 고칠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장군님, 이틀이면 고칠수 있습니다.》

인민군전사가 자신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좋소. 이틀후에 고쳐가지고 오시오. 다시 봅시다. 박격포가 중요하기때문에 우리는 해방후 평천리에 병기공장을 차려놓을 때에도 저격무기와 함께 박격포와 박격포탄생산을 먼저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틀후에 박격포와 박격포탄을 실은 말길마를 다시 보아주시였다. 그것은 포와 포탄을 싣고 어떤 험한 산도 마음대로 다닐수 있게 만든 말길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을 사진찍어 군자리병기공장에 보내시었다. 더 많은 포와 포탄을 생산하라는 뜨거운 격려이고 고무이시었다.

3

군자리병기공장의 포탄생산직장을 포탄공장으로 이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7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정일룡은 포탄공장이설문제때문에 군자리병기공장에 나흘이나 묵으면서 실무적처리를 해주고서야 떠나갔다

그 기간에 그는 현무광이 우려하던 문제를 다 풀어주었다. 우선 가장 크게 해결한것은 보위성 군사교통국과의 연계밑에 군사전용방통 20개 차량을 역굴간에다 끌어다놓은것이고 다음은 포탄직장의 중견들인 박홍근, 유락종을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동평양기계공장과 황해제철소에 나가 중량설비들을 받아오도록 조직사업을 해준것이였다.

이 중량설비문제는 접때 현무광이 김일성동지께 보고드렸던것처럼 오래동안 애를 먹이던것이였다. 설비지도원 표일석이 설비를 이관받으려고 동평양기계공장과 황해제철소에 다녀와서 보고한데 의하면 해당 공장들에서는 설비이관문건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딱 잡아땀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일룡을 따라 동평양기계공장과 황해제철소에 내려가보니 표일석의 말과는 달랐다. 해당

단위들에서는 모두 지도서에 밝혀진대로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이관받을 설비는 황해제철소에서는 축세기이고 동평양기계공장에서는 300톤공기함마기와 대형샤링그 한대였다. 인수조직사업을 다 해놓고 돌아와서 박홍근이 사실여부를 지배인에게 보고하면서 설비이관문건이 없어 설비를 못 받아왔다고 한 표일석의 말은 완전히 허튼 소리라고 분개해하였다. 유락종은 한술 더 떠서 이것은 해독행위라고 하면서 표일석을 설비지도원에서 떼버려 주물작업장의 쇠물내를 맡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럴만도 하였다.

설비이관문제는 이미 두달전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배인은 표일석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표일석은 이런저런 구실을 붙이며 질질 끌어오다가 겨우 한번 갔다와서 태평스레 하는 말이 이관지도서가 없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와 정일룡상이 왔을 때 설비문제를 제기하여 홍근이와 락종이 직접 따라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제철소 해당 일군의 말에 의하면 그날 군자리병기공장에서 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철소문서부에 보관되어있는 문건을 꺼내다가 등록날자까지 보여주었다.

박홍근이와 유락종이 지배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있을 때 어느새 밖에서 엿듣고있던 표일석이 들어와 조금도 성을 내지 않고 새물새물 웃으며 말하였다.

《설비거래를 처음 해보니 그럴수 있는데 거짓말은 내가 아니라 그쪽 공장녀석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설비를 내놓지 않으려고 별오그랑수를 다 씁니다. 천진하게 생각지 마시오, 허허허. 상동지가 내려갔으니 꿈쩍 못하고 설비를 내놓겠나고 한거요.

동무네들끼리만 가보시오. 어림두 없어. 이미전에 상동지가 나와 함께 가보았더라면 벌써 해결되었을거요.》

표일석이 이렇게 말하자 환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였다. 상이 직접 가는것과 공장의 자그마한 설비지도원이 가는것과는 대비도 안되게 다르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박홍근은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다.

《지배인동무, 설비지도원은 설비이관에 대한 지시조차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보시오 홍근기사, 내가 제철소에 갔을 땐 지도서가 내려온것이 없다고 했던 말이요. 그것 역시 상이 가니까 거짓말을 못했지 동무들끼리만 갔더라면 개 바위돌에 갔다온 격이 되고말았을거요.》

《아무렴 공장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소?》

박홍근은 《말자선가》라는 별명을 들을만치 달콤한 말로 모든것을 굶때고 어려운 일에 몸을 잠그지 않는 표일석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표일석의 눈살이 조금 꺾였었다. 그러나 크게 성을 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박홍근의 급소를 찔렀다.

《기사동문 그러니까 나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거요? 좀 섭섭하구만. 이 표일석일 왜 그렇게 미워하오. 내가 기관단총직장 책임기사로 올라갔다가 내려온게 박기사때문이라는 여론이 돌았는데 정말 생각해보게 되누만. 동무가 지금 지배인동지한테 나를 쫓고있는것처럼 당위원장, 부기사장한테 쫓았다는거요. 안경을 코에 걸구 세상 못된것을 다 한다고 모두 말하는걸 난 부정했소.

가뜩이나 간첩혐의랑 받고있는 동무가 불쌍해서요. 그리고 난 능력도 없거니와 책임기사자리뿐아니라 일체 벼슬자리가 부럽지 않소. 설비지도원이 딱 제일이요.

기사동무, 정 믿지 못하겠으면 나하구 같이 황해제철소와 동평양기계공장에 가서 껌을 하기로, 이제 당장!》

《아, 표동무! 왜 이래?》

지배인이 손을 내저으며 두사람을 화해시키는 말을 하였다.

《동무들의 말을 들으니 난 다 이해되요. 표일석지도원의 말인즉은 상동지가 왔으니 대방에서 거짓말을 못했다는것이고 박기사는 또 박기사대로 그 동무들이 군말없이 설비를 내놓으니 표지도원을 오해할수도 있는거요. 서로 이해해야지 가시둔힌 말들을 하면 되요? 아이들처럼 무슨 껌을 한다는거요. 어쨌든 설비는 이관받을수 있게 되었으니 목적을 달성한셈이 아니요. 그러니 홍근동무는 빨리 차조직을 해서 설비를 끌어오도록 하요. 축세기 1대에 부속설비들이 따르니까 자동차가 가야 할거요.》

《알겠습니다.》

홍근은 대답을 하고 지배인방을 나왔으나 마음이 개운치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불쾌한것은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눈이었다. 이제는 표일석이까지 만장판에서 자기더러 간첩혐의자라는 말을 하고있었다. 참으로 통분할 일이였다.

박홍근은 앉아서 지시만 하고있는 지배인에 대해서도 여간 불만스럽지 않았다. 방금도 지배인은 설비이설할 차조직을 자기가 하지 않고 홍근이더러 하라고 하였다. 그는 전탕 일을 이렇게 하였다.

아무튼 박홍근은 뛰어다니며 차조직을 하여야 하였다. 그는 일주일후에야 백원역에 축세기를 대형짐차로 실어올수 있었다. 축세기는 보기만 하여도 어마어마한 설비였다. 박홍근이가 축세기때문에 것처럼 안타까와한것은 강철포탄생산에서 그것이 필수적인 설비로 되고있기때문이였다. 2천톤수압프레스는 축세기가 없으면 쓸수 없으며 강철포탄을 찍어낼수가 없다. 수압프레스에 물과 공기를 보내주는 설비가 바로 축세기이다. 축세기는 프란자뿔프, 물탱크, 전동기까지 합치면 그 부피가 2층건물 한동만큼 요란하였다. 축세기를 싣는데 열차 3개의 차판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

다음은 대형샤령그를 동평양기계공장에서 끌어다 실었다. 샤령그란 강재와 20밀리강철후판을 절단하는 설비로서 포탄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설비였다. 이 설비 역시 한개 차판을 다 차지하였다. 그다음 각종 공작기계류, 전동기류, 공구, 지구장비류 등을 15개 차판에 골고루 나누어실었다.

정일룡상이 보위성 군사교통국과의 연계밑에 군사전용방통 20개를 해결했다는것이 바로 이 차량들이였다.

설비들을 싣는 일에 포탄직장 노동자들뿐아니라 직장장 김인호를 비롯하여 책임기사 박홍근, 선반작업반장 유락중 등 온 직장이 모두 동원되였다.

현무광도 매일 백원역에 나가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날도 그가 새벽참으로 백원역에 나가보고 공장에 돌아오니 당위원회사무실앞에서 류일룡이 서성거리고있었다.

《당위원장동지, 몇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하고 성급히 말하는 류일룡의 기색은 좋지 않았다.

《들어가지요.》

현무광은 그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를 권하고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세간나는 포탄직장을 도와주자고 하는 당위원회의 지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새 공장을 꾸리고 나가는 동무들을 응당 도와줘야지요. 그렇다고 내장까지 뽑아가게 하면 됩니까?》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내장을 뽑다니... 좀 차근차근 말하오.》

탁상을 마주하고앉은 현무광은 무우먹고 체한 사람처럼 찌뿌둥해있는 류일룡을 의아히 지켜보았다.

《기관단총직장의 원통연마반을 포탄공장에 보내라는 지배인의 지시문건이 떨어졌습니다. 원통연마반을 가져가면 기관단총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이거야 내장을 뽑아가는게 아니고 됩니까?》

《원통연마반을? ...》

현무광은 반사적으로 눈섭을 구뿔하였다. 원통연마반은 기관단총직장에서 말그대로 눈알과 같이 없어서는 안될 설비이고 한대밖에 없는 기대였다.

《지금 돌아가는 말은 리환구지배인이 포탄공장지배인으로 소환되여간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가구 알쥔한 설비들을 모두 빼내가려고 한다는 여론이 돌고있습니다.》

《제멋대로 억측하지 말라고 하오! 좋소, 원통연마반은 내 알아보겠소. 다음 또 뭐요?》

현무광은 사업일지에 《원통연마반!》이라고 적어놓고 류일룡을 건너다보았다.

《다음은 도봉숙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들 그 여자를 보배덩이라고 하지만 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류일룡은 지배인을 비롯해서 리백찬, 표일석이 같은 머리 큰 사람들이 다 그 여자의 줌안에서 놀아난다고 하였다. 그 여자한테서 무엇을 받아먹고 그러는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그 여자가 하자는대로 한다는것이였다.

《리백찬이 법의사를 찾아다니며 불집을 일으킨것도 그 여자가 부추겨서 한 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폭약사건으로 박홍근기사를 못살게 든장질한것도 그렇고요. 당위원장동지가 막아나서지 않았더라면 박홍근기사는 물론이고 장룡운이도 감옥살이를 할번 했습니다. 리백찬의 한쪽눈이 실명됐다는것도 거짓말입니다. 조작입니다.》

《류동무, 너무 억측하지 마오. 실지 며칠동안 백찬동무의 눈이 잘보이지 않았소.》

현무광은 리백찬이 실속이 없고 먹을 알이 보이는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법문건을 조작하여 생사람을 물어메치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 실지 그런 인간은 아니였다. 그러나 현무광이도 리백찬, 표일석 이들이 도봉숙이한테 쥐여다니는것 같은 느낌을 받은지는 오래다. 그래서 도봉숙을 티없이 깨끗한 여자로는 볼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류동무.》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려던 현무광은 문득 울리는 문기척에 고개를 돌리였다. 이윽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도봉숙이였다.

《당위원장동지, 한가지 알고싶은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이번에 저도 포탄공장으로 가게 됩니까?》

도봉숙은 몸을 외로 꼬면서 교태를 부리었다. 살짝 눈웃음을 치는 발긋한 얼굴이
요염해보이기까지 했다.

새로 생겨난 포탄공장으로 간접부문들에서도 일부 성원들을 선발하여 보내게
되어있는데 후방경리부에서는 도봉숙을 보내기로 내정되어있었다.

《그건 왜 묻소? 가고싶어서? 아니면 그 반대요?》

현무광은 빙긋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전 여기에 있어도 좋고 그곳에 가도 좋습니다. 가게 된다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며칠후에 포탄공장종업원명단을 발표하니 기다리시오. 아직 토론중이요. 준비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봉숙은 각듯이 인사를 하고 회색양복치마를 감싸며 밖으로 나갔다. 류일룡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 여자가 보통여자가 아닙니다. 지배인동지도 저 여자의 손안에서
놀아나고있습니다. 저 여자의 뒤에 큰 간부가 있으니 모두 굽신거립니다...》

현무광은 도봉숙이 나간 나들문을 생각깊이 지켜보았다.

8월초에 리환구지배인이 포탄공장종업원명단을 발표하였다. 군자리병기공장 포탄직장전원이 그곳으로 가게 되고 기술부, 설비부를 비롯한 기타 사무, 보장부서들에서도 몇명씩 선발되었다. 그들중에는 리백찬, 표일석, 도봉숙 등 지배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다 들어있었다.

포탄공장종업원명단을 발표한 이튿날부터 이설사업이 시작되었다. 제1진으로 먼저 녀인들과 나이많은 축들이 떠나게 되었다.

공장에서 모두 떨어져나와 떠나는 사람들을 바래워주었다. 아주 헤어지는것도 아니고 더우기는 같은 병기공장산하에서 일하게 되건만 녀성들은 잘 가라, 잘있으라 하며 눈물을 흘리었다. 나어린 선반공 김은순은 수풍에 있을 때부터 친언니처럼 따르던 김순옥이와 헤어지게 되어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김만수아바이의 딸인 김순옥은 공장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유락종이와 범상치 않은 사이가 되어 공장당위원회에서는 그 처녀뿐아니라 어머니 지금순이와 남동생 김영식이까지도 그쪽으로 보내게 하였다. 병원의 림민희도 박홍근이와의 관계를 보고 포탄공장종업원명단에 넣었지만 녀의사는 아직도 최현부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깊은 밤, 사람들을 가득 실은 석대의 대형화물자동차는 떠나려고 부릉부릉 발동소리를 울리고있었다.

《이렇게 헤어지면 우린 언제 만날가요? 흑흑...》

김은순이 적재함가턱에 앉아있는 김순옥의 손을 붙잡고 흐느껴울었다.

《은순아, 뭐 판세상으로 가니? 같은 병기공장이니 자주 만날거야. 공장대학생이 된 처녀가 어린애처럼 울기는...》

은순이를 달래는 순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있었다. 이번에 공장대학 첫 개학을 앞두고 입학생들을 모집하였는데 은순이는 학력이 모자라서 대학예비반에 들어갔었다.

남자들까지도 석별의 눈물을 흘리었다.

이렇게 제1진으로 이설대렬이 자동차를 타고 군자리를 떠난 이튿날 저녁에는 백원역에서 유락종이 책임진 설비호송원 10여명이 열차화물방통앞에서 공장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들에게는 이날 천만뜻밖의 기쁜 일이 생기었다. 정일룡을 통하여 포탄공장이설사업에 대해 보고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 열차로 수송하는 포탄공장설비들을 적기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사포 한개 소대를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고사포병들과 열광적인 상봉을 한 설비호송원들은 고사포의 발통을 차판에 꺾쇠를 박아 든든히 고정시키고 4개 다리를 바줄로 차판고리에 결박하였다. 포탄상자도 역시 움직이지 않게 바줄로 차판에 고착시키었다.

유락종이네들은 3문의 고사포중 2문은 열차앞쪽에, 1문은 뒤쪽에 배치하였다.

밤 10시, 20개의 방통을 단 열차는 어둠속을 가르며 쾌속으로 철길우를 달리였다.

유락종은 고사포를 세운 뒤방통에 자리를 잡았다. 호송원들은 거의다 공구형타기구들을 실은 유개차에 올랐으나 유락종은 공장축구선수인 리태히라는 청년을 데리고 일반설비들을 실은 무개화차에 탔다.

(잘있거라, 사랑하는 군자리여! 다시 만나자, 군자땅아!)

유락종은 멀어져가는 백양산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1년도 못되게 있는 곳이지만 잊을수 없는 추억과 인생의 깊은 흔적을 남긴 곳이었다.

백원역을 떠나 굴간을 빠진 열차는 점점 속력을 높이며 기운차게 달리고있었다.

유락종은 모포를 깐 자리에 벌렁 드러누웠다.

《태히도 여기 누우라구.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구만, 고사포를 척 걸어놓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편안히 호강하는 때가 다 있구. 아, 좋다!》

무더운 삼복철이었지만 어둠속을 달리는 무개화차로는 맞바람이 불어쳐 이틀데없이 시원하였다. 풀향기, 약초향기, 각종 나무들에서 설새없이 내여뿜는 산촌의 그윽한 향기로 가득찬 서늘러운 밤공기를 뚫고 벌써 성천을 지나 열차는 여전히 기세좋게 달리였다.

《반장동지, 방통은 내가 지킬테니 눈을 좀 붙이십시오. 그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리태히가 자기 옷저고리를 유락종의 가슴에 덮어주며 하는 말이였다.

《그렇가, 정말 내 일생에 이런 편안한 때가 다 있구나. 누워있으니 눈이 절로 감기는데... 내 좀 눈을 붙일테니 정황을 잘 살펴보게. 앞뒤에 호위고사포를 달고간다고 방심말고...》

사실 이 며칠동안 호송원들모두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만 유락종은 정말로련일 철야전투를 하였다. 밤은 밤대로 설비를 상차하느라 북이였고 낮은 낮대로 굴안에서 설비를 끌어내느라 역사질을 하였으니 언제한번 눈을 붙여볼새가 없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정일룡산업상을 따라다니며 축세기를 끌어오느라고 뛰어다니였으니 온 한달동안 눈을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였다.

단박에 굳잠에 든 유락종은 입으로 푸푸 풀무질을 하며 중얼중얼 잠꼬대를 하였다.

《순옥이, 여기로 오라… 가까이 내곁에… 내 품에 안겨…》

《하하하… 세상 모르게 끓아떨어진 속에서도 순옥이로구만, 하하하…》

리태히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깊은 꿈나라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것인가? 열차는 여러시간 종이 순조롭게 달리였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무엇에 충격을 받은듯 덜커덩거리더니 열차의 속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자 별안간 땡! 하는 총소리가 야무지게 울리였다. 그 소리에 유락종이 소스라쳐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캄캄한 밤, 열차는 칙칙 숨가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태히, 무슨 일이야?》

태히도 눈이 둥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차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어디론가 달려갔다가 돌아온 그가 하는 말이 순천-개천철길이 폭격으로 하여 통과할수 없게 되었다는것이다.

《개놈새끼들…》

유락종은 놈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차판에서 내렸다. 달없는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였다.

날이 밝아올무렵 유락종은 호송원전원이 차에서 내리도록 구령을 주었다. 동쪽하늘의 가장자리가 벌써 연보라색으로 물들고 별빛들이 퇴색되고있었다.

유개차에 탔던 호송원들이 철길옆에 모이자 유락종이 긴장한 어조로 말하였다.

《동무들, 인차 날이 밝겠는데 열차를 위장해야겠소. 재간껏 풀과 나무가지를 가져다 수풀처럼 씌워야겠소. 자, 빨리들!》

위장전투가 시작되었다. 그사이 유락종은 순천역으로 달려가 사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순천역을 지나 룡원역어방에 철길이 여러군데 파괴되어 지방인민들이 동원되어 복구사업에 떨쳐나섰지만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것이였다. 그가 순천역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날이 다 밝았다. 길게 늘어선 방통들이 풀과 나무가지들을 뒤집어써서 짜장 숲처럼 보였다. 위장에서 미흡한데가 없는가 하고 차판을 돌아보는데 군복차림의 웬 사람이 나무가지를 한아름 안고 유락종이쪽으로 터벅터벅 다가왔다. 군복차림인데다 나무가지에 얼굴이 가리워 고사포소대원인줄로 알고있었다. 그런데 그가 공장병원의 림민희선생이 아닌가!

유락종은 그쪽으로 달려가 나무가지를 받으며 소리쳤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늘에서 떨어졌소, 땅에서 솟아났소?》

군자리에서 평양방어사령부에 기관단총을 인계해주고 수풍으로 가는 행군도중에 헤어진 후 10달만에 만났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물론 림민희의 소식은 알고있었지만 열차행군과정에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민희도 반가와 어쩔줄 몰라하며 여기로 오게 된 사연을 말하였다.

《내가 군자리에 들어서는데 당위원장동지와 만났어요. 백원역에서 오신다면서 나도 포탄공장에 가게 됐다더군요.

그래 말할새도 없이 백원역으로 달려가 무작정 차에 올랐지요. 마침 호송원들이 탄 방통이 아니겠어요. 유동지한테 찾아가려는데 차가 떠나지 않아요. 아유, 너무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툴아떨어졌다가 깨어나니 차는 멎어있고 동무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얼마후에야 풀단을 안고 다니는 동무들을 보고 나도 한아름 안고오는 길이에요.》

《참 일은 잘된셈입니다. 홍근기산 우리보다 먼저 자동차로 갔으니 민희선생이 온걸 모를거요.》

《유동지와 같겠지요 뭐.》

살짝 얼굴을 붉히는 럽민희의 얼굴에 아침노을의 여광이 비치여 한떨기 장미꽃을 보는듯싶었다.

(이 소식을 알면 박홍근기사가 얼마나 기뻐할까?)

서른살 가까운 나이가 되어 비로소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된 유락종은 이제 맞이하게 될 박홍근의 기쁨이 어떤것인지를 절감하고있었다.

《좌우간 회포는 후에 나누고 피곤하겠는데 어서 올라가 쉬시오. 난 철길이 끊어졌다는 룡원역에 나가 형편을 좀더 알아보고 오겠소.》

유락종은 피끗 하늘을 올려다보고 총총히 룡원역사를 향해 걸어갔다. 어디선가 꾸르릉 하고 천둥이 울었다. 아침노을이 비긴 동쪽하늘 한끝에 시커먼 매지구름이 걸려있었다. 초벌장마가 지나간 8월초, 이제 또 늦장마가 질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5

백양산을 뒤덮고있던 시커먼 구름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번개불이 번쩍 하고 산발을 쳤다.

《짱 파르릉!》

하늘땅을 통채로 쪼개버릴듯 퇴성벽력이 군자마을을 세차게 뒤흔들어놓았다. 이때 옥류천제방이 터지면서 쏟아져내리는 강물이 군자마을로 미친듯이 쓸어들고있었다. 런 3일째 폭우를 쏟아붓더니 오늘 이런 란리가 났다. 사람들은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사방으로 쩍충쩍 뛰며 아우성이었다.

집집승을 끌고다니는 사람, 물건들을 높은 지대로 옮겨놓는 사람, 아이들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는 소리, 마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둔덕진 산턱에 지은 식당만이 물란리의 위협을 받지 않고 표연히 서있었다.

도봉숙은 문을 열어놓고 살기어린 눈으로 수라장이 된 마을을 둘러보고있었다.

도봉숙은 포탄공장종업원명단에 올랐으나 사무부서사람들은 제2진으로 떠나도록 지배인을 꼬드겨서 로동행정부장과 설비지도원도 다 남아있게 만들었다. 이미 리환구지배인도 줌안에 집어넣은 도봉숙은 공장의 행정조직사업까지도 뒤에서 조종할수 있게 되었다. 리환구지배인이 도봉숙이한테 쥐여다니게 된것은 그 녀자의 뒤에 법의 칼을 쥐고있는 신동식이와 법의 칼도 좌지우지하는 박현영이나 리승엽 같은 큰 인물이 있기때문이었다. 그러니 로동행정부장이나 설비지도원따위를 잡아 혼드는것쯤은 20년가까이 안개속의 얇은 얼음장을 밟고다닌 도봉숙에게 있어서 온돌방에 앉아 승냥마시기였다. 이날 옥류천제방이 터진것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요사스러운 첩보의 독버섯이 일으킨 재화였다. 그는 폭우가 쏟아져내리고있을 때 시한탄과 함께 파괴력이 강한 두개의 지뢰를 은밀히 제방에 묻어놓았다.

(퇴성벽력과 폭우소리로 천지가 소연할 때 폭발했으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벼락치는 소리로 들었을테지... 수많은 비행기가 1년가까이 수십번의 폭격을 가하고도 어찌지

못한 지하병기공장을 내가 간단히 처리해버렸으니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지금쯤 병기공장굴간으로 물사태가 쓸어들고있을게다.)

도봉숙은 미칠듯 한 기쁨으로 쾌재를 부르고있었다.

사실상 이 시각 옥류천제방에 대한 이년의 폭파사건은 병기공장에 엄청난 재난을 들썩웠다. 삽시에 군자리일대에 물란리가 들어 여러대의 전주대가 뿌리채 뽑혀달아났고 지하까벨로 묻혔던 예비동력선마저 수십미터구간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군자리병기공장은 순간에 암흑세계가 되고말았다.

지하공장만 아니라 물사태는 갯밖에 있는 노동자합숙과 그 부속건물들인 후방창고를 여지없이 쓸어버려 적지 않은 후방물자들과 재산이 삽시에 흙탕물에 잠겨버리었다.

공장구내의 전화는 그럭저럭 살아있었으나 외부와의 통화는 마비되어 군자리지하공장은 마치도 룡지와 동떨어져있는 무인도와도 같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격폐된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1951년) 8월에 있던 물사태는 우리 나라 기상관측자료에 100년만에 처음 보는 큰물로 기록되어있다.

현무광은 불의에 들이닥친 이 엄중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장지도일군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사업분담을 면밀히 했다.

비상회의에서는 공장내부의 생산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안전 및 설비보호사업에 대한 총적지휘를 공장지배인 리환구가 맡게 하였다.

지응모부기사장은 생산직장들을 통솔하고 현무광당위원장은 옥류천제방복구전투를 지휘하였다.

자연의 폭군은 무섭게 광란하였다.

백양산을 짓누르고있던 검은구름장사이에서 또다시 번개가 번쩍하며 나무뿌리같은 불줄기가 사방으로 내뿜었다.

《뽕, 우지끈 딱, 파르릉!》

물사태는 기관단총직장의 짜리형탄창을 찍어내고있는 프레스작업장을 제일먼저 위협했다. 프레스작업반은 지대가 비교적으로 낮은 굴입구에 자리잡고있었다. 작업장은 굴안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밖에서 밀려드는 비물이 합쳐져 대번에 물에 잠기고말았다. 현장에 쓸어든 물은 벌써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있었다.

전동기가 위협했다. 프레스공들은 비상용모래가마니로 출입구를 막느라고 악전고투를 하고있었다.

벌써 옥류천은 바다로 변했다. 옥류천제방이 터지면서 쏟아져내리는 물과 런 3일째 동이처럼 쏟아부은 물이 합쳐 일격에 군자땅을 물천지로 만들어버렸기때문이다.

동력선과 보급로가 파괴되어 무엇보다도 군자리지하공장은 때식이 문제로 되었다. 쫓강냉이 한두이삭으로 끼니를 에워야 했다. 전기불이 없는 굴안에서 기름불, 가스불을 켜놓고 손으로 기계의 주축을 돌리면서 부속품들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결사전에 나선 화선의 용사들을 방불케 했다.

한편 굴밖에서는 현무광의 지휘하에 김인호직장장과 민청원들이 범람하며 사품쳐흐르는 옥류천에 뛰여들어 떠내려오는 수십명의 리재민들과 가족들을 비롯하여 가장집물들을 구원하고 제방을 막아내기 위한 필사전을 벌리고있었다.

이러한 때 지배인 리환구는 시시각각으로 엄중해지고있는 사태앞에서 공포감에 사로잡혀 어쩔바를 모르고 헤덤비고있었다. 그는 공장이 처한 위급한 정황을 상급기관에 알리려고 군용전화기를 연방 돌리었다.

《지배인동지, 통화되지 않습니다.》

교환수의 목소리에 환구는 벼락치듯 소리질렀다.

《야, 교환대반장은 뭘해? 왜 아직 못 고쳐? 그 동물 당장 여기로 보내라!》

송수화기를 내동댕이친 환구가 불맞은 황소처럼 허둥거리며 방안을 왔다갔다하는데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교환대반장이 숨을 헐떡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흙탕물을 뒤집어써서 마치 어리광대의 분장을 한것 같았다.

《도대체 동문 뭘해? 이 란리통에 지배인 통화 하나 보장 못하는게 무슨 교환대반장이야?》

《란리통이니 고치지 못하지요. 천하없는 사람을 가져다놓아보십시오, 고쳐내는가. 이게 내탓입니까? 나두 못해먹겠수다.》

교환대반장은 얼굴에 묻은 시커먼 흙탕물을 손바닥으로 씻어내며 지배인에게 대들었다. 이 순간 환구는 수풍에서 교환대반장과 박홍근이가 도이첼란드의 《승냥이굴》이니, 뭐니 하며 뒤소리를 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벌써 고정환이 교환대반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한것을 여태 놓아두고있었다. 마침 기회가 왔다.

《동문 언제봐야 뵙뵙 달려들어. 뒤에 돌아가선 간부들 시비질이나 하구... 동무, 반장질 못해먹겠다니 소원대로 해주겠소.》

환구는 내동댕이쳤던 송수화기를 들어 로동행정부장을 찾았다. 얼마후 송수화기에서 로동행정부장 리백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배인동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기에 식당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풋강냉일 가득 삶아왔습니다. 도봉숙지도원이 조직한겁니다. 어서 와서 한이삭 맛보십시오. 정말 도봉숙동문 무엇에나 일등입니다.》

로동행정부장의 수다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지배인은 자기가 점심을 번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먹을 사이도 없었거니와 먹을것도 없었다.

《언제 풋강냉일 먹고 앉아있을새가 있소? 이봐 부장, 이제 당장 집행하고 보고하라! 교환대반장 있지. 오늘중으로 주물직장에 용해공으로 파견장을 떼서 보내라. 알겠소? 당위원회에는 내가 통보하겠소.》

지배인은 교환대반장을 돌아보며 《들었지? 동무의 소원대로 해주었으니 가보오. 현장에 나가 일을 잘하오.》 하고 손짓을 하였다. 교환대반장은 두주먹을 움켜쥐고 지배인을 노려보다가 발을 탕탕 구르며 나가버렸다.

이때 전화종이 울리었다. 지배인이 급히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나요, 병기생산국이 나왔소? 선이 살았소?》

《아니예요. 저예요, 도봉숙이에요.》

리환구는 어깨를 흠칫하며 수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 녀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수화기에서 쫓알대는 도봉숙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지배인동지! 큰일났어요. 로동안전기술부장이 그러는데 5호계구간이 통채로 락반될것 같답니다. 5호계구간이 무너지면 지압이 사방에 번져져서 갯도전체가 무너질수 있습니다. 저도 일제때 굴안에서 일해봤는데 굴간이란 그런거예요. 제방복구전투에 나갔다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식당에서 전화합니다.》

《5호계구간이 통채로?》

환구의 얼굴빛이 새까맣게 질렸다. 5호계구간은 기관단총의 격발기부속품을 생산하는 설비들이 자리잡고있는 작업장으로서 100여명이 넘는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다.

환구의 눈앞에는 암반이 통채로 허물어지면서 기계와 사람들이 순식간에 매장되어버리는 무서운 참상이 펼쳐지였다. 바위돌에 깔려 숨지는 사람들속에는 자기 리환구도 있었다. 생각만 해도 머리끝이 곤두서고 몸서리가 쳐지였다.

그는 굴속에서 당장 뛰쳐나가고싶은 전율을 일으키면서 《봉숙동무! 안전기술부장이 어디 있소?... 그 사람한테 내 명령을 전하시오. 당장 사람들부터 대피시키게 하라고 하시오. 굴밖으로 모두 철수시키도록 사업조직을 하게 하시오.... 그리고 봉숙동무가 로동행정부장에게 좀 말하오. 각 부서책임자들을 내 방에 모이게 하라고...》

환구는 상대방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박홍근이 방에 들어와 서있는것을 보고 눈을 홑떴다. 10여일전에 포탄공장으로 갔던 사람이 들어와있기때문이였다. 박홍근의 옷도 온통 물참봉이 되어있었다.

《동무가 어떻게 여기 왔소? 과연 홍길동이로구만... 포탄공장엔 모두 무사히 도착했다지?...》

《예. 그런데 설비를 실은 기차방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백원역을 떠난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아마 기차길이 끊어졌을거요. 이놈의 장마비가 왜 이 지랄이요? 구외전화선이 다 끊어져서 알아나보겠소? 한테 책임기사동문 어떻게 여길 왔소?》

《전 성진제강소에 출장갔다고자고 당위원장동질 만나러 왔습니다. 뭘 좀 물어볼 일이 있어서… 한테 당위원장동지 어딜 가셨습니까?》

《옥류천제방이 터져서 그쪽으로 갔소. 보다싶이 여기는 수라장이요. 방금 5호계구간이 통채로 무너져내릴것 같다는 통보가 와서 부서책임자들을 다 불렀소, 성진제강소엔 무슨 일로 가겠다는거요?》

《일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진제강소에서 철갑모소재를 뽑아냈다고 말입니다.》

《여보, 정신이 있소? 지금 포탄이 걸렸는데 포탄책임기사가 똥판지같이 철갑모소리를 하고있다니… 그건 후에 한가할 때 할 일이요, 짝 걷어치우시오.》

《아닙니다. 철갑모도 포탄만큼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한성룡기사장의 허락을… 아니,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여보! 포탄공장의 주인은 한성룡이가 아니라 바로 이 리환구요! 조만간 내가 지배인임명장을 받고 포탄공장으로 내려간단 말이요. 포탄생산이 떨어지면 내 목이 날아난단 말이요. 똑똑히 알고 처신하시오! 병기생산국장동지도 철갑몰 반대하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책임기사, 한심하오. 직장장 김인호란 사람두 여기서 어물거려, 책임기사란 사람도 자리를 떠. 그러니 포탄공장꼴이 뭐가 되겠어?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본때야? 싹 거두고 빨리 직장장하고 포탄공장으로 들어가오.》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로와져있는 리환구는 철갑모소리가 나오자 화가 치밀어 실성한 사람처럼 고아됐다. 김인호가 포탄공장대렬에 섞여가지 못한것은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회의에 참가하느라고 떨어졌었는데 거기에 장마가 겹치여 부득이 군자리에서 목계 되었다.

이때 부서책임자들이 지배인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아직 오지 못한 부서책임자들이 많았으나 지배인은 그 자리에서 명령조로 엄격히 지시하였다.

《동무들! 위험이 조성됐소. 5호계구간이 통채로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모두 자기 부서동무들을 굴밖으로 철수시키시오. 5호계구간에 락반위험이 조성된것은 온 갯도가 통채로 무너져내릴수 있다는 신호요.》

이때 리환구는 굴간벽체가 드르륵 떨어지는것 같은 느낌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오. 암반이 흔들리지 않소? 급하오. 빨리 돌아가서 사람들을 몽땅 철수시키시오.》

이렇게 말하는 환구는 진정 무리주검이 날것 같아 가슴이 떨리였다.

《설비들을 다 내버리고 철수한단 말입니까? 생산도 중지하고... 그럴수 없습니다.》

류일룡이 대뜸 거절하며 손을 획 내저었다.

《동무, 사람이 귀중한가, 설비가 귀중한가? 장군님께서도 제일 귀중한건 사람이라고 하셨소. 설비냐, 사람이냐? 생산이냐, 사람이냐? 나는 사람을 살리겠소. 그다음엔 내 목이 날아나도 좋소. 잔말 말고 철수시키라! 이 명령을 거절한자는 용서치 않을테요!》

리환구는 불복하는자를 당장 총살해버릴듯이 옆구리에 손을 가져갔다.

병기생산국장과 병기공장지배인은 보신용권총을 차고다니었다. 문득 리환구는 언제인가 병기생산국장이 기관단총직장에 들어갔다가 자기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약을 올리는 류일룡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댔던 일이 상기되었다. 그때 류일룡은 작업대우에 놓여있는 기관단총을 꼬나들고 고정환에게 마주 소리쳤다.

《총은 나도 있다. 너 한방이면 나도 한방이다.》

이 사건이 큰 물의를 일으켜 두사람이 다 성당위원회에 불리워 올라가 비판서를 썼었다. 류일룡은 것처럼 사나운 사람이였다.

환구는 슬그머니 옆구리에서 손을 내리우고 구슬리듯 말하였다.

《동무들! 지금 구외전화선이 다 끊어져서 상급에 문의할수도 없는 형편이요. 그런데 위험은 눈앞에 닥쳐왔소. 때문에 나는 지배인으로서 결심을 채택한거요. 설비는 잃어도 사람을 살리자! 생산은 죽여도 병기공장 로동계급부터 살리자! 이게 잘못됐소?》

지배인의 열정적인 웅변은 사람들의 입을 열어붙게 하였다. 이때 갱도 어디에선가 꾸르릉 하는 무서운 울림이 또 일어났다. 굴간에 지압이 번져올 때 바위벽들에서 일어나는 신음소리인지도 모른다.

지배인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는 자기 발목에 차오른 어지러운 흙탕물을 얼핏 내려다보고나서 단호히 웨치였다.

《저 소릴 듣소? 명령을 집행하시오! 모두 철수시키시오.》

《그건 안됩니다. 어째서 굴간이 무너질것부터 생각합니까. 철수시켜도 안되고 또 우리 동무들이 철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게 어떤 설비인가?》

온몸을 흠뻑 적신 부기사장 지응모가 언제 들어왔는지 문가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위엄있게 말하였다.

《방금 지배인동지는 사람이 귀중하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중합니다. 제일 귀중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죽으나사나 이 지하갱도와 저 병기설비들을 지켜내야 하며 한시도 병기생산을 중지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저 설비들을 잃어버리고 병기생산을 중단한다면 전선에 있는 수천수만의 우리 병사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자신들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그렇다, 이 굴간의 설비들이 우리 인민모두의 생명을 지켜주고있다는것을 병기공장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지응모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절절하게 말을 계속하였다.

《지금 전선에서는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어제 강연회에서도 모두 들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후부터 쏜전을 아껴가며 장만한 저 많은 설비들을 내버리고 굴밖으로 도망쳐나가야 합니까?》

굴간을 내리누르는 지압과 같은 무거운 그 무엇이 부서책임자들의 머리를 내리눌렀다. 지배인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비칠거리었다. 그도 강연회에서 들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하기공세》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운 《공세》를 통하여 1211고지를 비롯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을

점령함으로써 전선을 원산-이천-금천-개성계선으로 올리밀어 《영예로운 정전》을 실현하려고 망상하고있다는것을...

며칠전 8월 11일에는 《박격포를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훈령 제00468호가 하달되었고 조국해방 6돛을 맞이한 바로 엿그제 8월 15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461호가 하달되었다. 명령 제461호 다섯번째에 후방일군들이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을 제때에 여유있게 전선에 공급할데 대한 문제가 밝혀있었다. 며칠전 **김일성**동지께서는 말길마에 박격포와 포탄을 실은 두필의 군마를 사진찍어 보내시면서 병기공장 로동계급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더 많이 생산하자고 호소하시였다.

리환구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였다.

류일룡이 주먹을 쳐들며 구호를 부르듯 큰소리로 웨치였다.

《동무들! 목숨으로 설비들을 지켜냅시다. 우리는 한순간도 병기생산을 중지할수 없소.》

부서책임자들이 일제히 호응하였다. 그들이 지배인방에서 뛰쳐나가려 할 때 지응모가 손을 들어 제지하였다.

《가만, 너무 덤비지들 마십시오. 급한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현재 갱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각 부서, 각 직장들에서 전투를 지휘해야 합니다. 굴간이 통채로 다 무너져내릴수 있다고 하는 말은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이 굴간은 견고한 바위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5호계구간은 단렬대가 지나간 구간으로서 암석이 파쇄된 제일 약한 고리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동무들이 5호계구간

천정에 1미터간격으로 철관을 가로 대고 그밑에 철기둥을 받치고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위원장동지가 지방행정기관들과 힘을 합쳐 제방공사를 하고있으니 굴간으로 흘러드는 물은 점차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어 모든 작업장에서 신심을 가지고 전투를 하게 하십시오.》

지배인의 방은 텅 비여버렸다. 홀로 남아있던 리환구는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걸어나갔다. 무엇에 놀리운 사람마냥 허리를 구부리고 물탕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여기저기 달아맨 화불이 그의 앞길을 희미하게 비쳐주고있었다. 그제야 리환구는 자기가 암반이 통채로 무너져내린다는 문제의 5호계구간에 와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동무들! 철관과 통나무를 이쪽으로 가져오시오. 여기 천정밑에다 우물정자로 굴천정을 받쳐야 하오. 백년, 천년, 만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히 쇠기둥을 세웁시다.》

목소리의 임자는 분명 당위원장 현무광이었다.

(강뚝을 막으러 갔다는 사람이 언제 여기에 와있는가?)

환구는 앞으로 걸어가려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쳐여 물바닥에 꼬꾸라졌다. 암석뿌리에 짓쪼은 무릎이 뼈가 부서진듯 아팠다. 환구는 안간힘을 써서 일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동발목을 메고 그의 앞으로 달려가고있었다. 그런데 화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공장사람들같지 않았다. 리환구는 눈을 비비고 서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때 당부위원장이 한 군관을 데리고 지배인앞으로 다가왔다.

《지배인동무, **김일성**장군님께서 영화촬영가들과 수해복구를 위한 군인동무들을 우리 공장에 보내주셨습니다.

군인들중 일부는 옥류천제방으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왔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지배인은 군관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다.

《오늘 새벽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부대 군인들에게 명령하시였습니다. 이번 큰물에 군자리전화가 두절된것을 보면 그곳형편이 심상치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 부대 동무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떠나올 때 촬영가동무들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인솔군관이 이렇게 말하자 촬영가가 환구의 앞으로 나서서 거수경례를 하였다.

《지배인동지!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의 전시무기생산투쟁모습을 촬영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우리 종군촬영단이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당위원장동지한테는 이미 보고했습니다.》

《아, 그렇소? 장군님께서 촬영단을 보내주셨단 말ियो?》

리환구는 벌어진 현실이 꿈만 같이 생각되었다.

(아, 내가 이 자리를 비웠더라면 어찌할번 했는가?)

리환구는 절벽 한끝을 걸어온것처럼 온몸이 자릿자릿하였다. 촬영가의 목소리가 그의 귀청을 세차게 울리었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전시무기생산투쟁모습을 기록영화로 찍어두었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인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리환구는 불현듯 현기증이 나 굴벽을 짚고 비칠거리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전투를 지휘하느라 너무 무리하신것 같습니다.... 어디 좀 누우셔야겠습니다.》

촬영가가 리환구를 부축하며 걱정하는 말이였다.

《아니, 일없습니다.》

리환구는 손을 내젓고 또다시 목적없이 걸어가다가 우뚝 멎어섰다. 굴벽에 주먹같은 붓글이 나붙은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전시생산에 많이 리용된 병기공장기계들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병기공들이 발휘한 위훈을 후대들에게 보여주자고 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 오늘은 또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기록영화로 찍었다가 전쟁후 인민들과 새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종군촬영단을 보내주셨다.》

리환구는 오도가도 못하고 망두석처럼 서있었다.

갱도는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동발을 올리는 소리, 꺾쇠를 박는 소리...

《공장동무들은 기계를 돌리시오. 굴복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환구의 귀청을 때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군인들과 로동자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지고 일자리가 폭폭 났다. 옥류천제방복구공사도 착착 진척되는지 굴안에 찻던 물이 썰물이 지나가듯 쪽 찌버리였다.

집단의 단결된 힘에 의해 이튿날 지하병기공장은 말끔히 정리되고 옥류천제방복구사업도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그런데 그날에 들은 뜻밖의 소식이 리환구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옥류천제방이 터진것은 장마비때문이 아니라

암해분자들의 작간이었다는것이다. 강뚝의 화강암 석축들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나갔는데 그 주변에서 시한탄과 지뢰의 파편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지배인이 기분이 설뚱해 서있는데 도봉숙이 찾아와 말을 걸었다.

《지배인동지, 옥류천제방이 무너진게 간첩암해분자들의 작간이란 말을 들었습니까?》

《제방주변에서 시한탄쇠조박들이 나왔다누만. 이거 아짜아짜해서 견디겠소?》

지배인은 머리를 저으며 중얼거리었다. 간첩암해분자들이 언제 또 무슨 장난질을 할지 모를 일이었다.

《제방이 무너지는 날 박홍근기사가 여기 왔댔다지요?》

도봉숙이 눈을 샅뜨며 입을 뚝뚝하게 내밀었다.

《철갑모때문에 성진에 가야했는데 당위원장을 만나러 왔다더군. 내 그 사람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오. 철갑모, 철갑모 하며 돌아가니 넌장... 고국장은 철갑모에서 손을 떼게 하라는데 말을 듣소? 정말 고집이 소힘줄이요. 찌찌...》

지배인은 세차게 혀를 갈기며 진저리를 떨었다.

《난 그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성진에 갈 사람이 뭇때문에 여길 오는가 말이에요. 내놓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방뚝을 폭발한게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것을 하자고 폭약을 연구하는지도 몰라요.》

《뭐, 박홍근이가?》

지배인이 눈을 홑떴다.

《글쎄 그 사람이 왜 여기로 왔는가 하는거예요. 당위원장을 만나러 왔다는건 하나의 구실이에요.》

《박홍근인 정말 모르겠어… 걸보기엔 그럴 사람같지 않는데…》

지배인은 낮빛이 컴컴하게 질린채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긴 간첩이라는게 바로 겉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한척 하면서 뒤에서 못된것을 하지요. 박홍근이가…》

도봉숙이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며 뒤말을 삼켜버렸다.

현무광이 그들쪽으로 걸어오고있었던것이다. 현무광은 지배인을 보자 반색을 지으며 환성을 질렀다.

《지배인동무, 성공이요. 성공!》

《성공이라니?》

현무광은 어정쩡해하는 지배인에게 우리 나라의 혼한 나무로 기관단총총가목을 만드는 연구사업이 완전히 성공하였다고 하였다. 그동안 나무가 꼬이고 금이 가서 애를 먹었는데 주되는 원인이 나무속에 배여있는 진을 잘 빼지 못한데 있다는것을 알아낸 지웅모를 비롯한 실험공들은 밀폐식건조로를 만들어 그 결함을 퇴치했다는것이였다.

《성공했다니 한시름 덜었구려.》

지배인도 기뻐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일감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현무광은 옆에 서있는 도봉숙을 잠간 스쳐보고 말을 이었다.

《유락종이네 설비호송조가 폭격에 철길이 끊어져 가지 못하고 전원이 개천근방에서 철도복구작업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보름이상 기일이 걸릴것 같다고 하니 그동안 그들이 먹을 쌀과 부식물을 보내줘야 하겠습니다. 유락중동무를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철길주변에 떨어진 불발탄을 세개씩이나 안전지대에 날라다 폭발시켜 객화차의 위험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철도국에서 우리 당위원회에 정식 통보해왔습니다. 병기공장사람들이 다르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사뭇 기분이 흡족해진 리환구는 이제 곧 후방부서에 말해서 쌀과 부식물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우선우선하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포탄공장의 기술력량을 강화할데 대하여 여러차례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군사정세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정일룡상동지의 말에 의하면 포와 포탄생산을 높일데 대한 군사위원회 명령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포탄공장에 갈 사람들을 한명도 남기지 말고 빨리 다 보내야겠습니다.》

현무광은 옆에 서있는 도봉숙을 돌아보며 동무는 왜 아직 포탄공장에 가지 않고있소? 하는듯 한 의문의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현무광은 지배인에게 옥류천제방폭파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혁명적경각성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고 자리를 떴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도봉숙의 눈에는 독기가 서려있었다.

제 7 장

1

어느덧 추분이 가까와오고있다. 아침저녁이면 소슬한 칼바람이 불면서 나무잎들이 떨어져내렸다.

오전 한것 군사위원회모임을 하고 최고사령부작전실로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을 마주하고앉아 방금 타자문으로 찍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명령 제008호를 심중히 들여다보시였다.

그것은 이미 군사위원회명령으로 내려보냈던 금년도 박격포 및 기관단총생산과 포탄, 총탄, 탄약생산계획을 무시하고 4. 4분기부터 생산계획수자를 2배이상 더 높일데 대한 명령서였다.

제008호명령서 별지란에는 120미리, 82미리박격포와 기관단총생산계획은 매달 2배이상 높이고 주물포탄은 2. 3배, 82미리, 72미리강철포탄과 총탄은 2. 5배로 높이도록 되어있었다. 별지란에는 탄창을 비롯한 병기부속품생산수자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밝혀져있었다.

전반적인 무기생산을 2배이상 높일데 대한 이 명령을 집행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지난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의 기간은 음흉하고 교활한

미제침략자들과 가장 간고하고 긴장한 판가리싸움을 벌린 기간이었다. 7월과 8월은 자연의 포악한 광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큰 손실을 입은 달이기도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허헌이 대학개교준비를 위하여 범람하는 강물을 건느다 희생된것도, 군자리병기공장이 몽땅 침수되어 온 종업원이 결사전을 벌린것도 이해의 장마철에 있는 일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이 피의 언덕을 넘어야 했던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정전담판이라는 연막을 쓰고 이른바 하기공세라는 이름을 단 가장 악착스럽고도 가장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감행하였기때문이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놈들의 《하기공세》는 사실상 7월 하순 정전담판에서 군사분계선문제가 토의되던 그때에 벌써 조작되고있었다.

적들이 먼저 횡기를 들고 제기한 정전담판은 군사분계선문제로 하여 논란이 벌어졌었다.

적들은 38도선 훨씬 북쪽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전담판장에 세가지 색깔로 줄을 그어놓은 조선지도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군사분계선이 지나가는 비무장지대를 38도선으로부터 우리측 지역으로 80키로메터나 들여다가 그려놓은것이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차지하고있는 지역인 개성과 남연백지역, 용진의 일부는 물론 38도선 이북의 용진군 송원동으로부터 금천-고성에 이르는 도합 1만 3천여평방키로메터, 다시말하여 전조선면적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측 지역을 통채로 집어삼키겠다는것이였다. 이것이 이른바 영예로운 정전을 망상하는

강도적주장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전담판에서 계속 집요하게 들고나오는 놈들의 강도적주장을 세계에 공포하게 하시였다. 우리의 정의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자 놈들의 머리우에 규탄과 항의의 불소나기가 쏟아져내리게 되였다. 이렇게 되어 궁지에 빠진 놈들이 정전담판장에서 이루어보지 못한 령토적야망을 《군사적압력》으로 실현해보려고 책동한것이 바로 《하기공세》의 목적이였다.

맥아더 대신 《유엔군》사령관자리에 올라앉은 릿지웨이와 미8군사령관으로 된 밴플리트 그리고 그자들을 조종하는 트루먼을 비롯한 워싱턴의 우두머리들은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최대규모의 《하기공세》를 준비하였다.

워싱턴의 각본에 따라 8월 18일부터 《하기공세》를 시작한 적들은 8월 하순 8일동안에만도 정전담판장 우리측 구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무려 25차례에 걸쳐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정전담판은 결렬되고 놈들의 《하기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대격전이 벌어지게 되였다.

조선에서의 산악전의 요구에 맞는 《최대의 면밀성을 기한 작전》이요, 《과도식공격》이요 하면서 전선에서 그 무슨 전환이라도 가져올듯이 요란스레 떠벌인 놈들은 전선에서뿐만아니라 공화국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며 대폭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등 여러 발전소들이 무참히 파괴되어 군자리 지하병기공장이 무시로 캄캄한 암흑속에 잠기게 되어 화불을 들고 수동식으로 기계를 돌리는 간고한 전투가 자주 벌어지곤 하였다. 병기설비들을 화차로

수송하던 유락종이네가 폭격에 철길이 끊어져 20여일이나 길가에서 고생하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놈들의 <하기공세>를 분쇄해버렸다.》

작전실을 거니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벽에 걸린 대형조선지도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1211고지와 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983. 1고지 그리고 773. 1고지의 격전장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그 산밑에는 지금 적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시체가 산을 이룬 그 고지들을 《피의 고지》라고 하면서 공포에 떨고있었다.

놈들은 1211고지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였다.

적들은 1211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매일 14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최대의 폭격을 들이대고 《불바다전술》을 운운하면서 수만발의 포탄을 쏘아댔으나 갱도진지에 의거한 우리 인민군의 적극적인 방어를 돌파할수 없었다.

적들은 《하기공세》기간에만도 무려 7만 8천여명의 병력을 잃었다. 적들은 1211고지를 바라보기만 하여도 뱀이 끊어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하며 《단장의 봉우리》, 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상한다고 하여 《상심령》, 살아서 돌아갈수 없는 곳이라고 하여 《함정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9월 17일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는 마침내 우리측에 정전담판을 재개하자는 편지를 보내여왔다.

그것은 물론 적들이 우리의 강력한 타격에 수그러들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적들의 간교한 계책이 또 숨어있다. 《하기공세》에서 된매를 맞은 놈들이 잠간

숨을 돌리면서 정전담판의 뒤에서 보다 더 큰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꾸미려고 하는것이다.

군자리병기공장과 포탄공장에 내려보내기 위하여 그이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명령 제008호는 바로 적들의 새로운 공세, 즉 《추기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전투준비의 일환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김일성동지의 사색은 중단되었다. 아침에 부르신 정일룡산업상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던것이다.

얼마후 부관의 안내를 받으며 정일룡이 몹시 긴장한 얼굴을 하고 최고사령부작전실에 들어왔다. 그의 인사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벽가에 놓인 의자에 자리를 권하시고 《몇가지 토론할 문제가 있어 상동무를 불렀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시오.》 하고 군사위원회명령서를 내놓으시였다.

정일룡은 여러번 곱씹어 읽어보는듯 퍼그나 오래동안 명령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엇때문인지 이따금 그의 눈썹이 구뿔거리고 거뿔게 탄 두볼편이 실룩거리였다.

드디어 정일룡이 고개를 쳐들었다.

《장군님, 병기공장 로동계급은 군사위원회명령을 무조건 집행할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업이요. 상동무가 병기공장동무들을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장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저력있게 말씀하시였다.

《상동무도 알고있겠지만 적들이 요란스럽게 떠들던 <하기공세>는 파탄되고 현재 전선은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릿지웨이는 정전담판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 쌍방련락군관회의를 가지자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에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습니다. 적들은 참패를 거듭하고있지만 1211고지와 문등리, 까치봉, 월비산계선을 장악하는 한편 나아가서 원산이북지역으로 확대해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먹으로 집무탁을 꺾 누르고 일어나시여 대형조선지도가 걸려있는 맞은편 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시였다.

《전선이 38도선일대에 고착되어 진지방어전에 넘어간 전투환경은 병기공장에서 포와 포탄을 더 많이 생산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정일룡은 수첩을 펼쳐들고 그이의 교시를 적어나갔다.

《왜 그런가? 앞으로 모든 전선에 포병타격밀도를 높여야 하기때문이요.》

그이께서는 이미 최고사령관훈령 제00468호에서 지적한것처럼 박격포를 널리 리용하는것과 함께 앞으로 직사포와 고사포까지도 고지에 끌어올려놓고 적을 답새겨야 한다고 하시였다.

《1211고지에서 실전을 통해 이미 증명된것처럼 직사포와 고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리면 산악지대에서도 잘 써먹을수 있습니다. 포의 조준경사각도만 잘 조절하면 적들을 40~50미터 근거리까지 접근시켜놓고도 소멸할수 있습니다. 고지에 포를 올려다놓으면 포탄운반이 문제될수 있기때문에 포사령부에 말길마를 만들어

포탄수송에 리용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말길마를 리용하면 박격포의 위치를 기동성있게 옮겨가면서 적들을 불의에 답새겨댈수 있습니다.》

직사포를 고지우에 올려놓고 적의 공격부대를 소멸하는것은 전쟁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전법이였다.

《앞으로 방어공사를 더 잘하여 더 깊숙이 파고들어가야 하며 참호와 전호도 잘 만들고 교통호를 전전선에 걸쳐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굴속에 들어가있다가도 적들이 달려들면 쉽게 때려부실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부단히 습격전을 벌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갈팡질팡하게 만들며 땅크파괴조, 비행기사냥군조 등 여러가지 전투조법들을 전투정황에 맞게 활용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동적으로 적들을 족칠수 있습니다. 병기공장에서 무기만 잘 대주면 됩니다. 특히 지금은 포무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때문에 포와 포탄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상동무가 군사위원회명령 제008호를 작성한 우리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병기공장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까.》

《장군님, 알겠습니다.》

정일룡은 활기있게 대답을 올렸으나 내심으로는 걱정스러웠다. 적들의 폭격으로 하여 전기공급이 무시로 중단되어 병기생산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있기때문이였다.

《제기할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 집무탁우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간중그리시였다.

정일룡은 잠시 바재이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제일 걸리고있는것이 전기입니다. 송전선망과 변전소까지도 지하에
넣었지만 수풍, 장진강, 부전강발전소들이 놈들의 폭격으로 심하게 파괴되어
병기생산에 큰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거운 안색을 지으신채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렇거요. 얼마전에 민주도이첼란드에서 원호물자로 디젤발전기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모두 병기공장에 보내자고 합니다.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동무에게 말했으니 상동무가 이번에 직접 가져다주도록 하시오.》

정일룡은 눈이 번쩍 띄여 고개를 쳐들었다.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사령부로 오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정일룡의 가슴속에 연추처럼 매달려
괴롭히던것이 전력문제였던것이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전기문제만 풀리면 됐습니다. 전기가 끊어질 때마다
포탄직장장 유락중동문 손으로 피대를 돌려 선반기를 가동시키곤 했습니다.》

《나도 알고있습니다. 유락중동물 내가 왜 모르겠소. 성실한 당원이요. 작업반장이던
그가 최근 직장장이 됐지만 계속 선반기를 하나 맡아가지고 돌린다고 합니다. 동력선이
끊어지면 그렇게 손으로 기대를 돌려 모든 기대공들이 다 그 본을 따르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계를 돌리게 할수는 없습니다.
디젤발전기를 빨리 가져다주어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병기공장에 가져다주겠습니다.》

정일룡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며 서성거리였다.

《오늘중으로 가져다주시오. 전기뿐만아니라 베아링이 모자라 병기공장에서 애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걱정이요.》

《장군님, 베아링은 걱정없습니다. 공장에서 자체로 재생하고있습니다. 현무광당위원장이 장군님께서 오시면 보여드리겠다고 자체로 재생한 베아링 308 두개를 지금 서류함에 보관하고있습니다. 기계수리공 최성준동무가 기술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308이란 전동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베아링이지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겨울 홑옷을 입고 파철달구지를 끌고가던 최성준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308베아링을 재생리용한것은 하나의 베아링공장을 건설한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 로동계급중에서도 가장 혁명성이 높고 선진적이며 창조성이 강한 로동계급이 병기공장 로동계급이라고 격찬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본보기가 바로 군자리병기공장 로동자들입니다. 공장에 가면 나의 감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장군님!...》

정일룡은 감격에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이날은 어쩐지 최고사령부작전실이 조용하였다. 늘 밖에서 돌아치던 적기의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고 끊임없이 오가던 총참모부일군들의 발걸음소리와 간단없이 울리던 전화기의 신호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마치도 김일성동지께서 정일룡이와 하시는 담화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것이 정숙을 지키고있는듯 하였다. 실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일룡이와 담화하시는 동안 일체 전화연락도, 외인들의 방문도 중지하고 기다리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만큼 산업상과의 담화를 중시하시였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으며 그이의 귀중한 시간을 그이상 더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정일룡은 서류가방에서 하얀 모조지뚜껑을 정성스레 씌운 문건을 꺼내여 그이의 집무탁우에 올려놓았다.

《장군님, 병기공장의 한 노동자가 장군님께 올려달라고 현무광당위원장에게 부탁한 편지를 제가 가지고왔습니다. 김은순이라는 어린 처녀가 쓴 편집니다.》

《김은순이?》

그이께서는 그 이름을 월미도전투상보를 통해서도 익히셨고 김책이한테서 직접 들으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천방어전투시 월미도방위자들에게 포탄을 날라다준 서울 룡산철도공장의 한 녀성애국렬사의 딸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병기공장에 입직하였다는 말을 현무광으로부터 전해듣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조지뚜껑을 번지고 편지를 읽으시였다.

《자나깨나 뵈고싶고 언제나 그립고 그리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자기 소개를 정확히 하고 고향과 부모들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한 다음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자기를 공장대학 예비반에서 공부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학비를 댈수 없어 학교에 못 가는 자기를 붙들고 눈물짓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품에 안겨 병기공장 노동계급이 되고 오늘은 대학생까지 된 자기를 본다면 어머니는 땅속에서도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릴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잊지 않고 장군님의 참된 딸, 참된 병기기술자가 되어 사랑하는 내 나라를 튼튼히 보위하는 정의의 총을 만들겠다고 뜨거운 맹세를 다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도록 편지를 손에 쥐신채 묵묵히 앉아계시였다.

해방후 오늘까지 그이께서는 얼마나 많은 편지를 받으셨던가. 그것은 수백수천을 헤아리였다. 최근에 받으신 편지만 하여도 수백통이나 되였다. 불타는 고지에서 써보낸 피젖은 편지가 있는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신상의 괴로움을 하소연하는 편지도 있고 나라를 위해 한목숨을 바칠 결사의 맹세를 다진 편지, 지어 숨지는 순간 림종의 침상에서 적어보낸 유서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편지를 통해 인민의 소원과 감정, 인민의 맥박과 숨결, 인민의 희로애락을 헤아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편지를 손에 드신채 말씀하시였다.

《상동무, 편지를 감사히 받았다고 전해주시오. 군자리병기공장은 우리 나라 병기공장의 모체공장이고 군자리병기공장에 내온 대학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입니다. 공장대학을 내온 목적이 바로 병기공장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적으로 준비시켜 확대발전하는 나라의 병기공장의 간부들로 키우자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업성이 교육성과 련계를 가지고 공장대학운영에 일상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고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건강에 대한 교시를 하시였다.

전쟁이 일어난지도 벌써 1년 석달, 그 기간 병기공장 노동계급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공기가 희박하고 습기찬 굴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병기생산을 위하여 모든것을 참고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아마 검진을 해보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병기공장 종업원들에 대한 검진을 일제히 해보고 입원할 사람들은 입원치료를 해주고 료양대상자들은 료양을 보내며 건강한 사람들도 차례차례로 휴양을 보내여 몸보양을 시키자고 하시였다.

《이제 며칠후에 노동성 우산장휴양소의 문을 열게 되는데 병기공장에서 1차로 한 20명 선발하여 보냅시다.》

원래 언제부터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휴양단을 무어 보내달라고 김일성동지께 정식 초청장을 보내왔지만 어느 누구도 불타는 조국을 두고 갈수 없다고 하여 국내에서라도 휴양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이께서 노동상에게 몇개의 안전지대들에서 휴양소를 운영하도록 과업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우산장휴양소가 문을 열게 되었던것이다.

《전시조건이라고 하여 모든것을 다 쥐여버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잘 짜고들면 못할것이 없습니다. 1211고지의 전투지휘관들은 매일과 같이 치열한 전투를 벌리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의 의견을 받고 전선휴양소를 꾸리어 몸이 허약한 군인들을 휴양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왜 휴양소를 운영하지 못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종이장을 꺼내여 우산장휴양소에 보낼 병기공장노동자, 기술자들의 이름을 10여명 적으시였다.

《이 동무들은 내가 생각한것이고 공장당위원회에서 토론하여 한 열명 더 넣어서 제1기 휴양에 20명정도 보내도록 합시다.》

정일룡은 그이께서 친히 쓰신 이름들을 들여다보았다.

제일 첫 머리에 지응모의 이름이 있었다.

휴양생들의 이름을 더듬어보는 정일룡의 눈굽에는 수은같은 물방울이 번뜩이고있었다.

현재 조국의 군사형세는 얼마나 긴장해지고있는가?

적들이 야수적인 《하기공세》에 이어 발악적으로 새 공세를 벌리려 하는것으로 하여 전선에서는 말할것 없고 후방에서 총포탄생산을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피어린 증산투쟁을 벌리고있는 병기공장 전투원들에게도 역시 한명의 로력이 더없이 필요한 때였다. 그런데 후방은 물론 전선지대에서까지 휴양소를 운영한다는것은 참으로 상상할수 없는 일이였다.

《전시조건이지만 할것은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청년들을 외국에 류학을 보내는 조치를 취했는데 상동무의 만딸을 류학명단에 넣었습니다. 딸들을 잘 키웁시다.》

정일룡은 별안간 눈뿌리가 확 달아올라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했다.

언제인가 딸부자인 자기를 고무해주시던 그이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이 가슴을 쿵쿵 울리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병기공장휴양단일행이 우산장으로 떠나갔다. 바로 그날에 **김일성**동지께서는 1211고지의 인민군전사들을 만나보시기 위하여 전선으로 떠나시였다.

1211고지는 조선의 명산 금강산을 지키는 호위장군마냥 금강산남쪽에 우뚝 솟아있었다. 예전에는 이 고지에도 나무가 무성하고 풀이 우거지고 못짐승들이 뛰어다니였으리라. 하지만 전화의 그 가을에는 나무와 풀들이 다 타버리고 투구를 쓴 장수의 머리처럼 봉긋하던 고지의 정수리가 폭탄과 포탄에 부서져 평퍼짐해졌다. 산의 지리적높이는 총포에 부서져 1미터나 낮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산의 명예의 높이는 수백수천미터나 더 높아졌다.

전투원들은 **김일성**동지를 모시여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혜산을 돌아보시고 1211고지를 지켜싸우는 부대 지휘관들과 오래도록 담화하시였다.

방어진지를 갱도화하고 직사포들을 고지에 끌어올려다 배치하여 적의 유생력량과 군사시설들을 소멸하는것 등 우리 식 전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콩나물을 길러 군인들에게 채도 만들고 국도 끓여주어야 합니다.... 전선휴양소를 운영하고있습니까?》

《예, 몸이 허약한 군인들을 휴양시키고있습니다.》

어느 지휘관이 활기있게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내가 떡쌀을 보내주겠으니 그들에게 떡을 해먹이시오. 그리고 이동영사반을 보내여 고지의 용사들이 영화도 보게 합시다. 최근 종군촬영단이 군자리병기공장동무들의 투쟁모습을 기록영화로 찍은것이 있는데 그걸 보여줍시다. 고지의 용사들이 총 한자루, 탄알 한발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결사전을 벌리고있는 그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보면 깊은 감동을 받고 더 용감하게 싸울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고지의 용사들과 헤어져 차에 오르셨을 때 포연이 서린 북쪽산발들을 바라보시며 1947년 가을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여러 일군들과 함께 금강산에 가셨던 일을 회고하시였다.

《그때 김정숙동무는 나의 식사를 보장하느라 금강산을 제대로 구경 못했습니다. 한끼의 밥이 그리웠던 지난날 우리 인민들의 고달픈 생활이 만들어낸 금강산식후경이란 말을 룡조처럼 외우면서 나의 식사보장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느라 만물상도 못 보고 구룡연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놀러왔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 사흘을 묵었다고 하는 삼일포에는 함께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권총사격을 했습니다. 그날에 울린 총소리가 지금도 울리고있는듯 합니다. 악기명수들이 하루도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는것처럼 혁명가들은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김일성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포연을 헤치면서 지혜산기슭 자드락길을 달리고있었다.

이날은 1951년 9월 23일이였다.

2

1951년 10월 15일 정일룡은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또다시 최고사령부집무실로 찾아갔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문으로 된 외국신문을 읽고계시다가 정일룡을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상동무, 거기 앉소. 이 신문은 10월 3일부로 된 미국 <뉴욕타임스>지의 어느 기사를 로씨야사람들이 옮긴것인데 한 구절을 읽어줄테니 들어보시오.》

그이께서는 로문으로 된 글을 천천히 조선말로 번역하여 읽으시었다.

《럿지웨이는 때때로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야영하고있는 고지로 올라가 멀건 눈을 뜨고 무엇인지 혼자 중얼거리며 왔다갔다하며 거닌다. 그의 시중군의 한사람은 이 산보하는 모양을 보고 <그것은 무서운 광경이다.>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고개를 드시었다.

《장군님, 럿지웨이가 정신이상이 생겼습니까?》

정일룡은 그 문장의 의미가 석연치 않아 물었다. 하기는 그이께서 앞뒤문장을 연결시키지 않고 중간토막만 번역해주시었으니 그럴법도 하였다.

《미치기야 뭘 미쳤겠소. <추기공세>가 또 여지없이 파탄되고보니 속이 타서 혼자서 중얼거리고있다는거지.》

《대아메리카》를 《총동원》하여 준비한 대규모적인 《추기공세》는 10월 초순에 벌써 완전히 파탄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문을 밀어놓고 말씀하시였다.

《놈들의 구걸에 의해서 이제 열흘후 10월 25일부터 판문점에서 정전담판이 열리게 되오. <하기공세>, <추기공세>로써 담판에서 주도권을 쥐려던 놈들의 야망이 산산이 부서져 머리를 숙이고 담판장에 나서게 된거요. 정전담판이야기를 하자고 상동무를 부른것은 아니니 그 이야긴 그만합시다. 나는 오늘 병기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새로운 기계공장을 더 많이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동무를 불렀소. 지금 어떤 나라 사람들은 기계를 힘들게 만드느라 하지 말고 수입하여 쓰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 기계는 외국에서 수입할수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기계제작공업의 자립적토대를 축성할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산업성일군들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누가 도와주든말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기계공장건설을 내밀어야 되겠다고 하시였다.

《새로 건설하는 기계공장을 지하에 넣어야 하겠소. 그리고 포탄공장에 아직 부지배인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류일룡동무를 부지배인으로 보내는게 좋을것 같소. 상동무의 의견은 어떻소?》

《일룡동무를 말입니까?!》

정일룡은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자기 이름과 같은 기관단총직장장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류일룡동무가 성격상 결함은 있지만 조직력이 강합니다. 후퇴시기 그가 인솔한 가족대렬에서는 한건의 사고도 없었소. 그가 기관단총직장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일을 잘했지.》

《그런데 성미가 너무 사나와서... 그저 좌충우돌하는데...》

정일룡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하였다.

《그러나 그 동무가 좋은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는것 같소. 간부선발에서는 신중해야 하니 좀 더 생각해봅시다.··· 산업성에서 기계공장건설과 관련한 예산서를 빨리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까. 늦어도 금년 12월중에는 기계공장건설에 착수하여야 하오. 그때쯤 되면 포탄공장을 확대하기 위한 군사위원회명령을 떨구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중공업공장들이 급진적으로 많이 생겨나 상동무의 사업이 더 힘들어질게요. 내가 늘 말하지만 김책동무처럼 일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수 있습니다.》

정일룡은 저녁녘에 최고사령부마당을 나섰다.

오늘 또다시 김책이처럼 일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수 있다고 격려해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오래도록 그의 가슴을 울리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철케안에서 붉은 비로도에 쓴 수첩을 꺼내었다. 그것은 김책이 생전에 가지고다니던 병기부문 교시수첩이었다. 김책은 서류가방에 부문별로 된 여러개의 수첩들을 가지고다니다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을 때면 해당 부문의 수첩을 꺼내여 숙기하곤 하였는데 그가 서거한 이후 정일룡이 인계받았었다.

정일룡은 겹가위가 퇴색된 가지빛수첩을 번지였다.

략자와 기호들이 많은 수첩의 글자들에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깊이 적어놓으려는 김책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엿보이였다.

1945년부터 해수로 7년동안 병기부문에만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속기한 수첩이
무려 수십권이냐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병기부문에 대한 현지도와 교시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김책의 속기집은 그대로 병기공업경영학의 백과전서였다. 그
수첩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명백히 써여져있었다. 김책의 교시수첩 맨 마지막권에는
1월 17일, 1월 23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교시들이 적혀있는데 정일룡은
눈물이 앞을 가리워 읽을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 가장 충실한 혁명전사의 뜨거운 심장이 1951년 1월 30일교시까지
적어놓고 1월 31일 새벽에 고동을 멈추었던것이다.

정일룡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였다.

김책의 수첩은 우리 나라 병기공업발전력사의 갈피갈피에 **김일성**동지의 깊은 사색과
위대성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었다. 그리고 그이의 령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받아들여온 김책의 충실성을 직관도처럼 보여주고있었다.

《장군님, 김책동지처럼 일하겠습니다!》

정일룡은 움쭉 일어나 정면벽에 모신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러 맹세를
다지였다.

정일룡은 새로운 기계공장을 앓힐 자리와 포탄공장을 돌아보기 위해 그날 밤
출장길에 올랐다.

그로부터 한달가량 지나 우리 나라 산업성이 중공업성과 경공업성으로 갈라지면서 정일룡이 중공업상으로 임명되었다. 산업성이 두개의 성으로 분할된것은 우리 나라 산업이 장성확대되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3

자강도의 높은 지역에서는 벌써 설한풍 휘몰아치는 사나운 겨울을 예고하고있었다.

아직은 11월 하순이지만 랑림산줄기, 백삼봉산줄기와 같은 높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자강땅사람들은 거의다 겨울옷을 입고다니었다. 포탄공장사람들도 모두 솜옷차림들을 하였다.

요즘 이 공장 종업원수가 부쩍 늘어나서 골안이 밤낮으로 범석거리였다. 신설기업소가 대체로 그러하듯 복잡한 일들이 계속 제기되어 이 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어온 리환구는 노상 얼굴을 찌프리고 다니었다. 더우기 요즘 그의 기분이 어두워진것은 부지배인으로 류일룡이가 임명되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때문이었다. 대바르면서도 성깔사나운 류일룡이와는 도저히 마음을 맞출수 없는 환구였다. 그는 병기생산국장의 도움을 받아 리백찬, 표일석, 도봉숙이와 같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행정후방부서에 들여앉혀놓았는데 왕청같이 류일룡이가 부지배인으로 내려온다니 속이 여간 껄름직하지 않았다.

포탄공장에서 가장 복잡한 시간은 합숙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였다. 수백명의 합숙생들이 한곳에서 나오는 밥을 타다 먹어야 하므로 기다랗게 줄을 지어야 하였다. 합숙생들에 비해 주방인원이 훨씬 적기때문에 속도가 매우 더디었다.

이날 점심때도 합숙생들은 나들문까지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대부분이 다 질서를 지키지만 몇명의 청년들이 새치기를 하여 소동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들은 모두 고참탄광에서 모집되어온 청년들이었다. 포탄공장 로동행정부장 리백찬이 데려왔는데 입직시키고보니 말썽꾸러기들이었다. 언제인가 박모라는 한 녀석이 밥을 받아가지고 돌아서는 김순옥에게 다가가 《이 처녀가 유락종직장장총각님의 색시감이라지? 꽤 곱게 생겼는걸.》 하고 밥을 걸쳐여 넘어뜨리는 바람에 밥그릇, 국그릇이 쟁반과 함께 곤두박질을 하면서 누런 장국물이 처녀의 얼굴과 흰저고리에 마구 들썩워졌다.

이것이 온 군중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어디서 저따위들이 기여들어왔는가? 내쫓으라!》

한줌도 못되는 그들은 수백명군중들의 압력에 어찌지 못하고 잘못을 빌고야말았다. 그후 공장민청조직과 직맹단체에서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청년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 과정에 그 박모라는 청년이 간첩의 조종을 받고있는 암해분자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하여 박모놈은 법기관에서 묶어가고 나머지청년들은 교양개조하여 제자리에서 일하게 하였다.

포탄공장에 그런 청년들을 끌어들이게 한것도 도봉숙의 작간이었다. 민심을 소란시키고 포탄생산에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봉숙이 그런 놀음까지 벌렸지만 어느

누구도, 지어 박모와 그리고 그놈을 조종하다가 함께 붙들리워간 잠입간첩까지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숨씨가 보통이 아닌 도봉숙은 아주 묘한 방법으로 술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며 악랄한 해독행위를 하였다. 박가놈을 뒤에서 조종한것도 이 녀자였으나 박가는 자기의 망책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채 저승으로 갔다. 당시 도봉숙의 간첩활동에 대해서 알고있는자는 박현영, 리승엽, 신동식 이 세놈뿐이었다.

박홍근을 괴롭히며 병기공장사업에 큰 혼란을 일으킨 수풍에서의 폭약사건, 군자리에서의 제방폭발사건, 참으로 도봉숙이 끼친 해독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큰일을 벌릴듯이 요동을 쳤을뿐 크게 성사시킨것은 없어 상전으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한 도봉숙은 독을 품고 새길을 개척할 착상을 하였다. 그것은 련민회가 일하는 병원으로 침투하여 공장안의 핵심력량을 야금야금 소멸해버릴 악독하기 그지없는 착상이었다. 때마침 그무렵에 포탄공장의 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따라 군자리병기공장에서 수십명의 고급기능공들이 포탄공장으로 소환되여오고 군수기계공장들이 건설되고있는 지구들에 수천명의 건설자들이 모여들고있었다.

한편 그때 즉 1952년 1월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와 전선에서 전투원들을 소환하여 대학에 보낼데 대한 지시문을 내려보내시여 세계가 놀라고있었다. 미제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시기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전쟁과는 아주 상치되는 그런 지시를 내리시는것은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군사적잠재력이 있는것이 아닌가? 아니면 최근에 거대한 위력을 가진 그 어떤 기이한 병기가 발명되었는가?

적들은 공포의 전율을 일으키고 인민들은 환호성을 올리였다.

그것은 도봉숙에게 있어서도 이해할수 없는 무서운 일이였다. 사실 그가 병기공장에 침투된지는 오랫동안이나 아직까지도 군자리나 포탄공장의 내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었다. 규정상 누구도 공장작업장들을 필요없이 찾아다닐수 없기때문에 그는 공장내부시설의 극히 일부분밖에 본것이 없었다.

도봉숙은 병기공장이 가지고있는 기계설비들을 알아내기 위해 표일석에게 접근하였지만 그가 관할하고있는 설비도 한두개 직장에 국한되어있었다.

이로부터 도봉숙은 기계설비보다는 유생력량소멸에 힘을 넣는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병원에 침투하면 치료받으러 오는 각이한 여러 생산직장종업원들로부터 해당 부서의 비밀들도 뽑아낼수 있으니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었다.

드디어 어느 일요일 저녁 도봉숙은 지배인사무실에 찾아갔다. 마침 그때 로동행정부장 리백찬이 와있었다.

《지배인동지, 제 한가지 긴한 요구를 할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도봉숙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입술을 내밀며 어리광을 부리였다.

《뭐요? 봉숙동무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줘야지.》

이 녀자의 귀염상스러운 교태는 언제나 지배인의 기분을 밝게 해주었다.

《다름이 아니라... 류일룡이란 사람이 지금 단기간부양성소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그 사람을 공부시키는걸 보면 우리 공장 행정부지배인으로 온다는 말이 뜬소문같지 않습니다. 전 곰같이 우직한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행정부지배인은 경리부의 직속상급이 아닙니까.》

도봉숙은 그러면서 지금 공장병원에 간호원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자기를 그리로 보내달라고 졸라댔다. 병원에 가기 위해 그동안 공부를 해서 이미 간호원자격증을 받아놓았다는것이였다.

외국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한 도봉숙의 과거래력을 전혀 모르고있는 지배인과 리백찬은 그 녀자의 활동력에 다시금 놀라게 되였다.

며칠후 도봉숙은 병원간호원으로 직종을 옮기였다. 도봉숙은 신임을 얻기 위해 병원에 들어와서 비상한 열성을 발휘하여 고정한국장으로부터 《조선의 나이팅게르》라는 치사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가 많은 보약과 값비싼 치료약들을 구해다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환자간호를 하기때문에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럽민희도 더없이 좋아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김만수의 아들 김영식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가 욱신거린다면서 병원에 찾아갔다.

럼민희는 환자를 간간히 진찰해보고 도봉숙에게 3일분 감기약을 떼주라고 하였다. 그무렵은 김영식이가 박홍근이 실험중에 있는 철갑모용강재절단작업을 하느라 밤을 패다싶이 하고있는 때였다.

도봉숙은 3일분 감기약을 환자에게 떼주고 한봉지는 병원에서 먹고 가도록 더운물을 받쳐주었다. 그 한봉지는 감기약이 아니라 수면제알약이었다.

그날 김영식은 철갑모용강재절단작업을 하다가 샤프그날에 왼손가락 둘을 뭉치기
잘리우는 큰 실수를 하였다. 작업중에 졸다가 그렇게 되었다.

온 공장에 소동이 일어났다. 지배인은 박홍근을 불러내다 되지도 않을 그놈의
철갑모역사질로 이제 무슨 일을 또 저지르게 되겠는지 모르겠다며 욕을 퍼부어댔다.

이것은 도봉숙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룬 첫 성공작이었다...

바야흐로 겨울이 물러나면서 꽃샘을 하는 계절이었다.

4

포연을 헤치고 찾아온 봄.

이해의 눈석이물소리는 류달리 소연하였다. 강과 시내, 골짜기와 산협에 겨우내
얼어붙어있던 눈과 얼음장들이 봄별에 갑작스레 녹아버려 마치도 여름철 장마비에
불어난 홍수처럼 사방에서 눈석이물이 요란스레 소리치며 흘러내렸다.

김일성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봄시위물의 사나운 격류를 헤치며 백여리길을 달려
군자리병기공장앞에 도착하였다.

차체는 흙탕물에 얼룩지고 차바퀴에는 진흙덩이들이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그이께서
오신줄은 누구도 몰랐다. 부관이 공장당위원회에 찾아갔을 때에야 현무광이 급기야

옷차림을 바로하고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굴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단총직장의 선반기작업장에 들어와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작업장입구에서 나ער린 처녀선반공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오신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대를 돌리고있던 로동자들은 당위원장 현무광이 그이께 인사올리는 소리를 듣고야 모두들 와들쭉 놀라며 고개를 돌리였다. 로동자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이께서는 나ער린 처녀기대공결으로 천천히 다가가시였다. 그 처녀가 바로 지난해 가을 장군님께 편지를 올린 김은순이라고 현무광이 소개해드리자 그이께서는 《오, 네가 은순이로구나. 용타, 용해.》 하고 처녀의 잔등을 두드려주시였다.

처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좌르르 흘러내렸다. 그이께서 여러차례 군자리병기공장을 찾아오셨지만 일이 공교롭게 되여 한번도 그이를 만나뵙지 못했던 은순이였다.

지난해 1월 17일만 하여도 그는 밤교대가 되여 그이를 만나뵙지 못했고 1월 23일에는 반대로 낮교대가 되여 뵈옵지 못했었다. 너무도 분해서 울고올다가 외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위원회에 찾아가 자신이 쓴 글월을 장군님께 올려달라고 졸랐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은순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신채 밑을 굽어보시였다. 처녀는 매생이같이 큰 남자용군화를 신었는데 키가 작아 발판을 고이고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릎을 꿇고앉으시여 은순이의 군화에 손을 가져다대시였다. 군화목에 와닿은 처녀의 바지를 약간 올리시고 구두목으로부터 구두끈이며 구두코숭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시였다.

《구두가 지내 크구만. 매생이같은 남자용군화를 신었으니 불편할거요. 은순이, 발에 안 맞지? 크단 말이요.》

은순이는 구두가 맞는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사실대로 크다고 하면 장군님께서 걱정하실것 같아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당위원장동무, 동무가 어디 한번 구두를 만져보라구.》

현무광은 오금을 꺾고 은순이의 신발을 만져보았다. 이 작업장을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아직 한번도 처녀의 신발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현무광이었다.

《장군님, 신발이 대단히 큼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둘러서있는 수원들에게 교시하시였다.

《동무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있다고 해도 병기공장 처녀들에게 이렇게 크고 볼품이 없는 신발을 신겨서야 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처녀의 신발을 다시한번 만져보고 허리를 펴시며 그가 입은 솜옷을 찬찬히 살펴보시였다. 솜옷을 누빈 바늘뚝으로부터 소매기장이며 솜옷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솜옷에 달려있는 단추들을 눈여겨보시였다. 세개의 단추는 보위색군복솜옷에 어울리는 누런 금속이고 두개는 모양새가 다른 새까만 단추였다.

《단추들이 오합지졸이로군, 허허허... 이 새까만 단추도 솜옷에 달려나온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 두알의 단추를 쥐여보며 물으시었다.

《아닙니다. 단추가 달려있지 않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은순이가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이며 매생이군화코숭이로 바닥에 금을 그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들어 단 단추를 다시한번 쥐여보시며 사뭇 대견스러워하시었다.

《현무광동무, 은순이 재간있습니다. 단추 깎은걸 보시오. 오각별도 부각되어있고 형태가 얼마나 맵시있습니까.》

이때 정일룡이 헐레벌떡이며 작업장으로 달려왔다.

《장군님, 제 그만 늦었습니다.》

《동무가 늦은게 아니라 내가 약속보다 앞당겨 왔소.》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원들을 둘러보며 하시던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지난날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유격대원들에게 신발과 군복을 떨구지 않고 신기고 입혔댔소. 우리는 전투에서 로획한 물자가운데서 여성들에게 필요한건 하나도 버리지 않았소. 화장품 같은것은 모두 여성대원들에게 가져다주었더랬소. 여성유격대원들의 옷과 신발은 특별히 맵시있게 해주려고 마음을 썼소. 아름답고 맵시있는것을 좋아하는 여성들이기때문이요. 아무리 어려운 전쟁시기라도 공장여성들에게 신발 하나야 왜 온전한것을 신기지 못하겠소.》

김일성동지께서 잠간 말씀을 끊으시고 나들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었다. 부관이 새까만 여성용군화와 군복단추를 들고와서 김일성동지께 보고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 부관이 가지고온 녀성용군화와 오각별이 새겨진 군복단추를 은순이의 손에 쥐여주시었다.

《은순이, 군화를 신어봐라, 발에 맞겠는지… 최고사령부 교환수들중에도 너처럼 어린 처녀가 하나 있어서 내가 구해가지고 오던 참인데 마침 잘됐다. 먼저 네가 신어라. 교환수들은 아무때건 구해줄수 있다.》

순간 은순이는 손에 쥔 단추를 떨구며 김일성동지의 넓은 품에 와락 안기었다.

《아버지… 장군님!…》

처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사정없이 김일성동지의 옷깃을 적셔놓고있었다. 은순이의 잔등을 어루만지시는 그이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행원들의 눈에도 맑은것이 괴여오르고있었다.

《됐다. 은순이, 이젠 그만하구 신을 신어봐라.》

김은순은 한참만에 울음을 그치고 그이께서 보시는 자리에서 새까맣고 윤기나는 녀성용군화를 신었다.

《신이 작지 않느냐?… 발에 맞지 않으면 다른 군화를 구해보자.》

《장군님, 꼭 맞습니다.》

김은순은 또다시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울었다.

이날 현장을 다 돌아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위원장방에서 공장 당, 행정, 기술일군협의회를 조직하시였다. 협의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전선형편과 국제정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공장이 수행하여야 할 당면과업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동무들, 이미 이리로 오기 전에 내각에서 정일룡동무에게도 말했지만 오늘 나는 동무들에게 어려운 과업을 하나 주자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병기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고 그 범위가 비할바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수생산기지들인 총탄공장, 수류탄공장, 기관단총공장, 포탄공장 등 수많은 병기공장들이 일떠서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군자리병기공장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조선소들이 거의다 파괴되었습니다. 때문에 군자리병기공장에서 조선소복구사업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군자리공무직장에서 조선소를 도와 소해정을 한 20척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소는 소해정무이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 동무들에게는 설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리동무들이 그들과 합심하여 소해정을 무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듣는 순간 협의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긴장해졌다. 소해정은 정박장구역에 설치해놓은 기뢰차단물을 해제하는 작은 함선이였다.

지응모부기사장이 벌떡 일어섰다.

《장군님, 저희 공장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도울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해정을 못게 된 현실적인 요구에서 저는 전쟁의 승리를 예감하게 됩니다.》

《허허허... 지응모동무가 몹시 흥분한것 같은데 내가 이미 혼란상태에 빠진 적들의 내부실정을 이야기했으니만큼 각자가 판단하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이 필승의 신념은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이한 울림을 가진 김일성동지의 음성이 바위벽들에 쩡쩡 반사되어 우뢰처럼 방안을 진동하였다.

《동무들,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말한것처럼 최근 트루먼은 다음기 대통령으로 출마하는것을 단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릿지웨이드 머지않아 <유엔군>사령관자리에서 밀려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정전담판 미국측 수석대표 죠이도 하고싶지 않은 그 자리를 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들이 얼마나 궁지에 빠져있는가를 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새로 들어앉는 대통령과 <유엔군>사령관은 반드시 제 낮을 한번 내보자고 모험을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릿지웨이드 그전에 <하기공세>요, <추기공세>요 하고 얼마나 큰소리를 질렀습니까. 이제 놈들이 모험을 하면 또 답새겨댁시다. 전선의 병사들이 말하기를 미군고용병따위나 때려엎는것은 짚신짜으로 개구리치기라고 합니다, 허허허.》

방안은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흥성거리었다. 그이께서 교시를 계속하시였다.

《이제는 동무들이 전선에 무기와 탄약만 잘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 포탄생산을 2배이상 늘일데 대한 군사위원회명령 제008호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해포탄생산계획을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높이도록 세웠으니만큼 포탄공장에 기술생산력량을 더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따로 구체적으로 토론하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생활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어진 처녀선반공이 매생이같은 신을 신고 키가 작아 발밑에 발판을 높이 고이고 일하는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처녀가 우리를 찾아온 눈물겨운 사연에 대해서는

동무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녀한테 매생이같은 신발을 신겨 일을 시키고있으니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당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동무들이 나 어린 처녀가 그런 신발을 신고있는것을 봤겠는데 정말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엄중히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을 깔보는 매우 유해로운 자본주의적관료주의의 표현이기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신발들을 내려다보시오.》

김일성동지의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모든 일군들의 가슴을 강하게 들이쳤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잠시후 류일룡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기간부양성소를 졸업하고 엿그제 돌아왔었다.

《장군님, 모든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양성소에 가기 전에 그에게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러니 석달동안 매생이같은 신발을 끌고다녔겠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억이 막혀 긴숨을 지으시였다.

《예, 신발이 바르데 언제 남녀신발을 가리랴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신발공업이 발전한 체스꼬의 구두라고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류일룡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다.

뒤이어 현무광이 일어나 자기반성을 하였다.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비판을 했지만 그 시각 마음속으로 자신의 사업을 두고 뼈아프게 반성한 사람은 정일룡이었다.

얼마전 쓰팔린이 밀가루 5만톤을 보내온것을 비롯하여 중국과 유럽의 형제나라들에서 저마끔 원호물자들을 보내왔는데 체스꼬에서는 남자신발을 보내왔다. 그리하여 그중에서 적지 않은 몫을 병기공장에 보내주도록 조직사업을 한것이 바로 정일룡이었다. 그후 군자리병기공장에서 녀자신발이 부족하다는 제기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그만 이 지경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사실상 신발에 대해 말할 때 정일룡이야말로 평생 잊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일화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아닌가. 해방직후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에 작은 신발을 신고 **김일성**동지의 저택에 갔을 때 김정숙동지께서 그것을 알아보고 친히 옷과 신발을 주문해주시여 오늘까지 두고두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자식들과 동지들에게 이야기하고있는 자신이 어찌하여 오늘 노동자들의 신발문제에 대하여 그리도 수수방관해왔는지 알수 없었다. 정일룡은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장군님, 사실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원호물자처리를 제가 완전히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였습니다.》

《상동무까지 자기사업을 가지고 비판하였는데 여기 모인 모든 동무들이 자기사업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고 노동자들의 생활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군들을 평가하는데서 인간성, 인민성, 군중성을 첫자리에 놓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이 바로 당성과 애국심의 기초로 되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병기공장노동자들이 그 어느 부문의 노동자들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노동자들의 휴양문제에 대해 교시하시였다.

《최근 로므니아정부에서 휴양단을 무어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형제나라들에서 휴양단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우리 동무들이 모두 안가겠다고 버티여서 못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사명령을 채택해서라도 보내야겠습니다.

중로동, 고열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부문별로 한명씩만 뽑아도 수십명이 되지만 병기공장에서도 몇명 보내자고 합니다. 우선 기술자 한명, 노동자 한명...》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조직되는 외국휴양단에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보시듯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이런 심중한 문제에 대한 의견제출에서 언제나 선코를 떼여 제1번수라고 하는 류일룡이가 이번에도 먼저 일어나서 기술자로는 지응모부기사장을 보내고 노동자로는 최근 308베아링을 재생리용하는데서 큰 공을 세우고 고생도 많이 한 최성준을 보내자고 제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제격 동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반대가 없다시며 밝게 웃으시였다.

그러나 지응모본인이 일어나서 소해정건조작업을 빨리 추진시키자면 자기가 있어야 한다며 휴양을 사양하였다. 곁따라 현무광이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아무래도 이번기에는 지응모를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겁게 뇌이시였다.

《음... 아직 지응모동무를 대신할 기술자가 없단 말이지?》

그것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이제 1~2년이 지나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한 공학부문 기사, 전문가들이 나오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1947년에 소련 스웨르들롭스크의 우랄금속공업대학에 류학을 보낸 경위대원 전정호를 생각하시였다. 그가 이해 8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다고 하였다. 경위대원이 금속기사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것이다. 그이께서는 격세의 느낌에 감개가 무량해지시였다. 그이께서 지응모를 애뜻이 바라보며 교시하시였다.

《그동안 지응모동무한테 부담이 많았소. 기사가 부족했거던... 그러다보니 부모친척, 애인과도 자주 만날 시간이 없었소. 지응모동무, 소해정걱정은 말고 휴양을 가시오. 전정호라고 금속기사 한 동무가 소련류학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뒤따라 국내대학졸업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응모, 박홍근동무들이 허리를 펴게 될거요.》

《전정호?!》

정일룡은 부지중 그 이름을 부르며 검은 눈섭을 구뿔하였다. 소련에 류학을 가는 나어린 경위대원 전정호의 옷을 지으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상동무, 왜 그리 놀라오? 전정호를 아는가?》

《예, 생각이 납니다. 그가 류학을 갈 때 김정숙동지께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전정호가 철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는것을김정숙동지께서 철학은 조선에서도 공부할수 있으니 금속공학을 전공하라고, 우랄금속공업대학을 지망하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엇그제 일같은데 벌써...》

김정숙동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장내는 갑자기 숙연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도 한동안 생각에 잠겨 묵묵히 계시었다. 불현듯 밀물처럼 밀려드는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젖어드시었다.

《그렇소. 정숙동무가 전정호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었소. 전정호는 부모를 잃은 불쌍한 동무였소. 그 동무의 할아버지는 전봉준농민군에서 싸우다 돌아가고 아버지는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되었소. 사실 전봉준농민군이 무기만 좋은것이 있었다면 일본군을 이길수 있었소.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정신상태도 좋았으니까. 그러나 일본군에 비해 무장상태가 너무도 한심했지.… 내가 늘 말하지만 이처럼 통절한 피의 교훈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병기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요.》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좋은 총을 만들려는 결사의 맹세였다.

그날 협의회는 외국휴양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응모의 강경한 제기에 의하여 지응모대신 유락종을 보내기로 초보적인 합의를 보았다. 소해정을 건조하자면 기계공학전문가인 지응모의 방조가 꼭 필요하다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를 결속하고 마지막으로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 말하라고 하시었다.

현무광이 기다린듯이 움쭉 일어났으나 웬일인지 바재이면서 입을 열지 못하였다.

《왜 말을 못하오? 무엇이든 서슴지 말고 제기하시요.》

《저… 장군님, 몹시 바쁘시겠지만… 저, 우리 동무들이 준비한 공장로동자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변변치는 못하지만 어떻게들 조르는지…》

현무광은 두서없이 중언부언하며 더수기를 굵적거리었다.

김일성동지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뽕뽕 갑작랐소? 병기공장동무들이 일하면서 예술소조활동도 하는것 같은데 그거야 아주 좋은 일이지. 내 백사를 제껴놓고라도 보겠소.》

별안간 회의장에 박수갈채가 요란스레 울리였다. 현무광은 병실병실 웃으며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약속대로 이날 오후 병기공장로동자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된 모든 공연들은 조그마한 꾸밈도 없이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재현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자리병기공장 로동계급의 투쟁이야기가 무대우에 그대로 실감있게 펼쳐졌다고, 로동속에서만 이런 훌륭한 예술이 창조될수 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공장의 박식가, 열독가, 혁신자로 소문난 김정길이가 자작시 《축하문 받던 날》을 랑송하였을 때에는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면서 병기공장동무들은 총만 잘 만드는데가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짓는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정길이가 읊은 시 《축하문 받던 날》은 상반년도병기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여 내각순회우승기를 받던 날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에 대한 군자리병기공장으로동계급의 충정을 그대로 담고있었다.

그리하여 장내는 수령과 전사사이에 혈연적으로 뜨겁게 련결된 그 믿음과 사랑, 그 뉴대로 영킨 사상감정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폭풍쳐 터져나왔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무광을 돌아보며 교시하시였다.

《내가 아까 함숙에서도 만나보았는데 저 정길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문학에 취미가 있습니다. 저 동무가 읊은 시도 얼마나 생동하고 사상이 뚜렷합니까. 생활이 곧 예술이고 문학입니다. 생활속에서 단련된 저런 동무들을 공부시키면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당위원장동무, 저 동무를 앞으로 꼭 작가로 키우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들이 무대에 올린 예술작품들을 가지고 평양모란봉지하극장에 나가 평양시민들에게도 보여주고 포탄공장에도 가서 공연하라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편의 훌륭한 시나 소설, 무대소품이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이 항일혁명시기의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진리라고 이르시면서 앞으로 이런 문학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병기생산에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밤이 펴 깊어서야 군자리를 떠나가시였다.

5

그로부터 몇달후 밤 10시, 조용한 집무실에서 8. 15해방 7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실
로작 《조선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위하여》를 집필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일룡중공업상과 현무광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년필을 집무탁에
내려놓으시였다. 이윽고 부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선 정일룡, 현무광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한쪽에 엉겨주춤 서있었다. 몹시 긴장한 얼굴표정들이였다.

《밤중에 불러서 안됐습니다.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거기 앉으시오.
》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곁에 놓인 의자를 권하시고 방금 쓰신 글종이들을 간중그러
옆으로 밀어놓으시였다.

지난 상반기기간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으로 분명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전선과 후방,
공장과 농촌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것만도 수만리를 헤아리고 중요회의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신것, 최고사령관명령, 군사위원회지시를 내리신것, 외국대표단과
손님들을 만나신것, 당, 경제, 교육, 과학부문들에 교시하신것들을 종합하면 수백건이
되였다.

《포탄공장을 더 확장하고 병기공업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자리병기공장 기관단총직장 직장장 류일룡을 포탄공장 부지배인으로 임명했다는것, 그를 그 공장으로 보낼 때 군자리병기공장의 고급기능공 100명을 따라보내려고 한다는것, 외국휴양단에 망라되어 로므니아로 간 유락중, 최성준들을 휴양후 3개월동안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기계공장과 병기공장들을 참관시키도록 하였다는것, 소해정건조작업을 방조하기 위하여 조선소로 간 지응모를 비롯한 군자리병기공장 기술자, 기능공들이 큰 성과를 달성하고있다는것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려주시였다.

《포탄공장을 비롯하여 지하공장들의 력량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그러자면 지하공장건설을 빨리 다그치는 한편 군자리병기공장에서 기술자, 고급기능공 100명을 포탄공장에 보내주어야 하오. 보내줄수 있소? 이걸 알아보자고 현무광동무를 불렀소.》

현무광은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포탄공장에 이미 군자리병기공장의 많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보냈으므로 이제 또다시 보통로동자도 아니고 기술자, 고급기능공 100명을 떤낸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던것이다.

《기능공로력을 뭉청 떤내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잘 짜고들면 예비가 나옵니다. 포와 포탄만 있으면 진지방어전에 들어선 모든 전선을 철벽의 요새로 만들수 있으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소멸할수 있소. 포탄공장의 력량을 더 강화하려는것은 전쟁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무광은 순간이나마 장군님의 지시를 놓고 주춤거린 자신에 대한 심한 가책을 느끼며 힘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이나 지시는 무조건 집행하여야 할 지상의 과업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포와 포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현재 포탄공장에 소속되어있는 장약직장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장약공장으로 승격시키며 시험사격장을 떼내어 독자적인 기술시험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다 정일룡의 수첩에 얼핏 눈길을 주신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이상한것을 보신듯 수첩을 집어드시였다.

《장군님, 수첩이 어지럽습니다.》

정일룡은 수첩에 쓴 글줄이 모두 급하게 받아쓴 란필이여서 당황해하였다. 그이께서 정일룡의 수첩을 집어드신것은 거기에 류달리 크고 뚜렷하게 《미국》이라는 한문자가 썩여있는것을 띄여보셨기때문이었다. 《미국》이라는 한자를 쓰면서 왜서인지 정일룡은 획수가 많고 복잡한 곱팡이 미자를 썼던것이다. 그나마 정확히 쓰지 못하였다.

《상동무, 미국이란 한문자를 왜 이렇게 썼소?》

그제야 정일룡은 **김일성**동지께서 사업수첩을 집어드신 까닭을 알아차리고 어쭙은 웃음을 지었다.

정일룡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워서 가끔 일부러 곱팡이 미자를 쓴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나라의 상이 된 정일룡에게 아직 동심적인데가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웃으시였다. 그리고 그가 정확히 쓰지 못한 곱팡이 미자를 백지에 바로 써서 보여주시였다.

《곰팡이 미자는 이렇게 씹니다. 미국을 썩은 나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아주 신통합니다. 그러나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니 미제를 답새길 병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낼 생각을 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욕하는 미국은 미국통치자들이지 미국인민이 아닙니다.》

정일룡은 자기의 수첩에 적혀있는 매개 글자들이 정의의 총검으로 솟아올라 원썬들에게 죽음의 불벼락을 안기는 장쾌한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상동무, 지하병기공장들을 더 크게 확장합시다. 내가 지난봄에 군자리공장에 갔을 때 말한것처럼 조선의 병기공업을 떠메고나갈 새 세대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월말이면 김책공업대학 금속공학부, 기계공학부졸업생들이 병기공장들에 배치될것입니다. 소련에서 류학을 마친 전정호동무도 돌아옵니다. 군자리병기공장에도 대학졸업생을 한 두어명정도 보내자고 합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엔 국내대학생을 보내주십시오. 류학생은 싫습니다.》

현무광이 일어나서 성급히 말씀올리었다. 소련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한 고정환으로 하여 너무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정색을 짓고 말씀하시였다.

《현무광당위원장동무가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는것 같은데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쓴 조기천, 최고사령부 포병사령관으로 사업하고있는 김봉률, 지금 정전담판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미제와 총포성없는 싸움을 하고있는 남일은 다 소련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당에 충직한 애국자들입니다.》

그이께서는 전쟁이 개시되자 남진하는 인민군용사들을 따라 종군하면서 창작활동을 맹렬히 벌린 조기천을 생각하시였다. 그가 창작한 《조선은 싸운다》, 《나의 고지》를 비롯한 여러편의 시들은 오늘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는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서사시를 쓰다가 작년 7월 31일에 희생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으로 아까운 시인을 잃었다고 못내 애석해하시였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도 여러층이라고 하시였다. 쏘련에 있는 조선이주민들은 거의 다 망국의 비운을 안고 두만강을 건너간 사람들이였다. 그때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약소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다. 쏘련은 물론이고 일본놈들과 제정으로씨야는 대포와 기관총을 쏘아댔는데 우리 조선사람들은 화승총을 메고 뛰어다녔으니 해외이주민들에게는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가 생길수 있는 조건이 많았다. 약소민족으로 태어난것을 한탄하면서 타국만리에서 숨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대주의가 생길수 있는 환경의 요인 즉 외적요인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보다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것은 내적요인이라고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일룡과 현무광을 번갈아보시였다.

《노상 약소민족을 한탄하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큰 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기천동무처럼 조선의 력사, 지리, 문화를 깊이 학습하고 슬기로운 민족전통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다시말해서 조선을 잘 아는 사람은 민족허무주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나라를 보잘것없이 보고 민족의 력사는커녕 모국어조차

배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큰 나라를 부러워하기만 한 사람에게는 애국심이 생길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적요인입니다. 우리 당은 외적요인보다 내적요인 즉 본인의 사상정신상태를 더 중시하며 기본으로 봅니다. 조기천동무는 해방직후 조선에 나오자바람으로 서정시 <두만강>을 발표하고 인차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썼지만 고정환은 조선말을 아주 서툴게 하였습니다.》

정일룡이와 현무광은 심각한 얼굴빛들을 하고 서있었다.

나는 어떻게 자랐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에 도달한 나, 그 인간형성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은 어떤것인가?

그들은 여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깊이 돌이켜본적은 없었다.

《환경을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됩니다. 그건 그렇고 본이야기를 합시다. 상동무는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이고 장약공장과 시험소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늦어서 11월말전으로 끝내야 하겠소. 그래야 인차 군사위원회 명령을 내릴수 있소. 류일룡동무도 하던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11월 하순부터는 포탄공장으로 가서 본신사업을 하게 해야 하겠소. 100명의 기술자, 기능공도 11월 30일을 기한으로 해서 단계별로 보내든 단꺼번에 보내든 무조건 보내시오.》

정일룡이와 현무광은 저마끔 자기들의 수첩에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적어넣었다.

동평양 곡산공장방향으로 뻗어간 강안도로를 따라 얼마쯤 가면 사범전문학교가 있고 그곁에 2층양옥들이 몇채 늘어서있는데 그가운데서 눈에 띄도록 제일 좋은 집이 고정한의 집이었다. 해방전에 일본 미쓰비시채벌의 한 상회직원이 살던 집이라는데 납작한 붉은 벽돌로 가쁜하게 쌓은 울타리까지 둘러쳐놓은 집이었다. 고정한이 쏘련에서 나왔을 때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집이었다.

고정한은 이 집을 손 한번 대지 않고 그대로 쓰고있다. 그가 이 집에 와서 무엇을 한것이 있다면 전쟁이 일자 방공호를 뒤뜰에 요란하게 만들어놓은것이였고 그다음 승용차고를 품을 들여 울타리모서리에 번듯하게 지어놓은것이였다. 그리고 승용차가 마음대로 나들수 있게 담장을 까고 수종이 고급한 나무로 짝대문을 달고 그옆에 나들문을 간편하게 낸것이였다. 이 집이 고정한에게 퍼그나 마음에 드는것은 단출한 식구에 쓰기 편리하도록 부엌, 식당, 목욕탕이 달린 위생실, 전실과 후실, 서재와 응접실까지 있는데다 집의 구조가 좋기도 하지만 보다는 안해가 교편을 잡고있는 사범전문학교가 코앞에 있고 자기자신이 매일 출근해야 하는 청사가 집에서부터 멀지 않기때문이었다.

그리고보면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두고 이 집을 마련하셨는지 알수 있었다.

고정한은 이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생활하다가 전쟁이 일자 아들딸들을 쏘련대사관을 통하여 파슈겐프로 들여보내고 안해 허린정이라도 폭격이 심하지 않은 안전지대인 함경북도 유선으로 보냈었다.

그런데 며칠전에 안해가 평양으로 돌아와 오래간만에 그들은 옛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기이한것은 주변의 모든 집들이 폭격을 맞아 번번해졌지만 유독 자기 집만이 성스러운 신전처럼 남아있는것이였다.

이날 저녁 고정환은 전실에서 벽에 걸려있는 쏘련의 이름난 화가인 아이바좁스끼의 그림 《9번째 파도》를 감상하고있고 안해 허린정은 라디오앞에 앉아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퍼그나 귀에 익은 전금선녀성방송원의 쉿쉿한 목소리가 기백있게 흘러나오고있었다. 방송원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라는 제명으로 8. 15해방 7돏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문을 낭독하고있었다.

《전선과 후방에서 조선녀성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녀성들은 전선에 나간 오빠와 남편,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장과 농촌에서 영웅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전투적위훈과 로력적공훈으로 하여 수천명의 우리 녀성들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허린정은 심각한 얼굴빛을 하고 앉아있었다. 그는 먼 북방의 안전지대에서 한가하게 지내다가 바로 **김일성**동지의 이 연설을 듣고 평양으로 돌아왔었다. 벌써 세번째 들어보는 보고문이였다.

안해는 방송에만 정신을 팔고있었다.

방송원의 낭독이 끝나자 라디오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나왔다.

허린정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으며 일어섰다.

고정환이 그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쏘파에 앉히고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왜 눈물을 흘리는거요? 장군님의 연설을 듣고 감동했소? 아니면 무슨 슬픈 생각을 하고있소?》

《두가지 의미가 다 섞여있는 눈물이에요. 우리부부는 누구보다도 장군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전쟁기간에 배은망덕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고정한은 낮빛을 흐리며 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안해가 왜 그런 말을 하고있는지 알고있었다. 결혼생활을 한지도 17년이 지났으니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안해에 대하여 알것은 다 알게 된 고정한이었다.

허린정이 고정한과 결혼한것은 파슈켄트의 어느 10년제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때였다. 허린정의 부친은 홍범도부대의 마지막전투원이었다. 홍범도를 따라 연해주로 간 허린정의 부친은 홍범도부대가 자취를 감추자 하바롭스크근교에 정착하여 살았다.

허린정이 하바롭스크에서 사범대학졸업을 앞둔 어느날 그의 가족들은 하루밤사이에 화차에 실려 황막한 사막을 지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실려가야 했다. 이것으로 씨야력사에 기록되어있는 로씨야연해변강 조선족대이동이였다. 그 시절 허린정은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설움을 실체함을 통하여 가슴저리게 맛보았다. 천성이 그렇듯 정의감이 강하고 마음고운 허린정의 심중 한구석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향수가 어렴풋하게나마 남아있었다. 갈매기가 날아예고 처절씩 큰 파도를 일으키며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넓고넓은 푸른 바다가마을, 해당화 붉게 피는 백사장과 잇닿아있던 그림같이 아름다운 송치마을, 그것이 린정이 태를 묻고 자라난 고향이였다. 매일과 같이 풍풍 솟구쳐오르는 정갈한 박우물이 있는 크지 않는 뜨락, 여름이면 짹짹

내려비치는 해빛을 따라 봉선화며 채송화가 곱게곱게 피어나던 추녀낮은 초가집,
아버지는 운명하실 때 허린정의 손을 꼭 잡고 유언했었다.

《너희들만은 꼭 조국으로 가거라. 우린 총이 없어 나라를 먹혔지만 너희들은
조국으로 갈 날이 꼭 올게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빨찌산이
해방전의 총소리를 높이고있다더라. 아무렴 백두산천손민족인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장수가 없겠느냐. 내 10년만 젊었어두 **김일성**장군을 찾아 백두산으로 가련만. 이젠
그른가부다.》

조국에 나온 허린정은 희망대로 교원이 되었다. 교편을 잡은 학교가
평양사범전문학교였다. 그는 모든 정열과 지식을 교수사업에 다 바쳤다. 실무가 높고
마음씨 고운 허린정은 모범교원으로 교직원들과 학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김일성동지로부터 치하의 교시를 받은적도 있다.

허린정은 남편 고정한과는 달리 겸손하고 소박하며 허세가 없었을뿐더러 가식과
위선을 제일 싫어하고 멀리했다. 허린정은 한생을 고향집샘물과도 같이 깨끗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고있었다.

허린정은 언제나 남편과 같이 있으면서 그의 뒤바라지를 잘해주고싶어했고 남편을
위하여 바치는 헌신이 그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17년간 그들부부는 떨어져살아본 일이 거의 없다.

쏘도전쟁때 남편이 씨비리땅크공장으로 전근되어갈 때에도 따라갔고 남편이 조국이
해방되어 평양에 자리잡았을 때에도 모든것을 제쳐놓고 그의 곁으로 달려온

린정이었다. 그러고보면 그들이 결혼후 별거생활을 제일 길게 한것이 전쟁통에 유선으로 들어가있는 2년남짓한 세월이다.

허린정이 유선에 가있을 때 남편의 소식을 들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1950년 겨울 박홍근이 수류탄생산기지들을 꾸리기 위하여 유선탄광에 와있을 때였다. 하지만 린정은 그때 박홍근앞에서 자기가 고정한의 안해라는 말을 몇몇이 할수 없었다.

이 나라의 모든 공민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때에 안식처에 찾아와서 무위도식하고있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보다도 그가 더욱 박홍근앞에서 자기를 선뜻 소개할수 없은것은 그무렵 모든 당원들이**김일성**동지의 1950년 10월 30일연설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에 대한 학습을 하고있던 때였기때문이었다. 그 연설문은 지금도 모든 정치조직망들에서 계속 학습하고있는 필독문헌인데 거기에 바로 후방총국장과 그의 남편인 병기생산국장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비판의 교시가 적혀있는것이다.

《…우리는… 후방총국장과 병기생산국장에게 정주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보관되어있는 솜동복과 담요, 탄약을 안전한 지대에 가져다 보관할데 대한 임무를 주었으나 그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헌을 읽고 허린정이 얼마나 놀랐던지 모른다.

그는 박홍근이가 유선탄광에 수류탄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떠나갈 때에야 그새 수고했다고 인사하면서 자기가 고정한국장의 안해라고 소개하였다. 그 순간 허린정은 박홍근의 얼굴로 스쳐지나가는 이상한 빛을 읽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 녀자는 남편에 대한 박홍근의 감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인차 알아차렸다....

유선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한 허린정은 남편에게 간절히 말하였다.

《여보, 쏘련에 가있는 애들을 빨리 데려오자요. 당신도 그 애들이 보고싶을거예요. 그 애들도 이 전쟁을 보아야 조국을 알고 조국을 사랑하게 될게 아니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장군님앞에 죄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눈을 꼭 감고있던 고정환은 천천히 무겁게 웃눈시울을 치켜올리면서 안해를 서글프게 바라보았다.

《여보, 아이들을 이제 도로 데려온다는건 간단한 일이 아니요. 나는 그 애들을 안전한 곳에 보낸것이 오히려 장군님마음의 짐을 덜어드린 일이라고 생각하요. 그러니 아이들때문에 마음을 쓸진 없소.》

고정환은 안해를 이렇게 위로하고는 불시에 얼굴빛이 시뻘겋게 되도록 흥분하면서 《지금 내가 안타까운것은 나를 해치려는자들이 많아 기술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있는거요. 특히 내 웃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식하고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야단이요. 바로 그 사람때문에 내가 장군님으로부터 신임을 잃고있소.》 하고 소리쳤다.

고정환이 자기 웃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란 정일룡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는 최근 박헌영이한테서 정일룡이 자기에 대해 장군님께 나쁜 일만 보고드리고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나서는 사람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있다는 말을 들은 때부터 정일룡에 대한 감정이 급작스레 나빠졌다. 신동식국장과 도봉숙이한테서도 그러루한 암시를 몇번 받았었다. 지어 정일룡은 상자리를 빼앗길가봐 반쏘분자들을 규합하여 자기를 물어메칠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언제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장동무의 집에는 쏘련풍경화만 있고 조선풍경화는 한점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요.》 하고 가볍게 나무람하셨는데 그것도 분명 정일룡이 보고드린것 같았다.

고정환은 벽에 걸린 아이바좁스끼의 그림 《9번째 파도》를 피끗 올려다보고 별안간 발을 구르며 쏘파에서 일어나더니 흥분할 때엔 흔히 그리하듯 로씨야말로 고향을 질렀다.

《아, 괴롭다! 그가 있는것이 나에겐 무척 고통스럽다.》

이것도 역시 정일룡을 원망하는 소리였다. 고정환은 방안을 왔다갔다하며 그냥 실성한듯이 로씨야말로 소리쳤다.

《빌어먹을, 제기랄것.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구만. 반공분자들, 반쏘분자들!》

고정환은 로씨야말로 계속 험한 욕지거리를 하고는 안해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을 더는 하지 말라고 다시금 강요하였다. 그리고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면서 조선전쟁이 장차 어떤 무서운 재난을 가져오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고 하였다.

《린정이 생각해보오. 최근 몇달동안 미국놈들은 전선에서도 얻어맞고 정전담판에서도 얻어맞는데 나는 그럴수록 불안하오. 그놈들이 막다른 골목에 빠지면 무슨짓을 할지 모르오. 무슨 말인지 알겠소? 박헌영부수상도 불안해서 나에게 직접 말한바가 있소. 정 어쩔수 없게 될 때에는 그놈들이 그걸 쓸수도 있다고, 원자탄! 박헌영부수상은...》

《여보!》

허린정은 남편의 말을 가로채며 분개한듯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어쩌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가요? 난 박현영부수상이 무슨 목적으로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사고가 뺏겨졌어요. 그러니 좋은 사람은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고 옳은 말을 틀린것으로 생각해요. 장군님께서서는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바로...》

이때 서재에서 전화종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그들부부사이에 어떤 비극적인 말싸움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고정한은 서재로 들어가 탁상우에 놓여있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고정한이 전화받습니다.》

《고국장입니까? 정일룡입니다.》·

반갑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고정한은 반사적으로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허린정선생이 돌아왔다는데 건강이 어떤가요? 벌써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서요?》

《그런가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고정한은 이마살을 찌프린채 시뻘뻘하니 반문하였다.

《국장동무가 또 수골 좀 해야겠습니다. 래일 군자리에 가서 기관단총생산정형을 알아보시오. 거기에 갔다와서 쏘련류학생을 데리고 포탄공장으로 가시오.》

《류학생이라니요?》

고정한은 눈을 치뜨며 큰소리로 물었다.

《예. 우랄공대를 졸업한 류학생 하나가 포탄공장 주물직장 책임기사로 임명되어갑니다. 래일 아니면 모레쯤 평양에 도착하는데 그를 데리고가서 그곳 동무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포탄생산을 현재보다 2배이상 늘이기 위한 대책안토론을 하시오. 11월중으로 대책안을 세우고 12월부터는 그 계획량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사위원회명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정환은 거의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이마에 더욱 날카로운 주름살을 일궈세웠다.

(금년도 상반기계획도 죽을내기를 해서 겨우 해냈는데 2배이상?...)

고정환은 기분이 언짢은 속에서도 반갑게 생각되는것은 우랄공업대학졸업생이 오게 된다는것이였다. 그는 쏘련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운 류학생은 자기와 감정이 통할뿐아니라 기술적견해에서도 일치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류학생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벌써 배치장을 떼놓았던 말인가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하기로 하고 전정호라고 좋은 동무가 옵니다.》

《전정호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고정환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었으나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상동무, 작년 군사위원회명령 제008호에 의하여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였는데 이제 또 2배이상 높일수 있을가요? 이걸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있소. 박홍근기사가 전에 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할데 대한 설계안을 제기하지 않았소. 그걸 성공시키면 로력을 절반이상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몇배로 높일수 있다는거요. 그걸 토의해보라는겁니다.》

《박홍근이요? 그런 도깨비같은 소리를 믿는가요. 생산공정을 단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만 전화를 놓겠습니다.》

고정한은 정일룡에게 화를 내며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지배인이라는게 손탁이 약하니 박홍근이 같은것들이 날치거던.》

고정한은 옷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며 적의에 찬 눈으로 허공 한점을 쏘아보았다.

7

외무성에 들러 필요한 수속을 하고 나온 전정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몇년만에 조국의 품에 안긴 그는 감격도 컸지만 아픈것이 더 많았다. 조국의 파괴상이 너무도 비참했던것이다.

서문거리를 지나온 정호는 화신백화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쏘련으로 떠나던 그때는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비던 백화점이 지금은 지붕이 뭉청 내려앉아 하늘이 보이였고 백화점앞으로 줄지어 늘어서있던 집들이 모두 파괴되어 인기척이 없었다.

《미화사진관》이며 《서도려관》, 그옆에 평양제3중학교, 그뒤로 높이 솟아있던 장대재교회당도 뭉텅 허리가 잘리워 벽체만 앙상하게 서있었다. 남산재기슭에 자리잡고있던 평양영화관은 형체조차 볼수 없고 그 맞은편 학당골에 비좁게 들어앉아있던 창밖은 학교들은 폐허로 되었다. 손님들을 한가득 태우고 종을 뽕뽕

울리며 지나가던 궤도전차들도 볼수 없고 다만 엇가락처럼 꼬여 길복판에 덩굴고있는 레루들이 미제공중비적들의 야만성을 온 세상에 대고 피터지게 고발하는듯 했다.

전정호는 언제인가 신문 《쁘라우다》에 실렸던 조기천의 시 《조선은 싸운다》의 한구절이 문득 떠올랐다.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실로 조국의 파괴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중공업성 병기생산국이 있는 동평양으로 건너가려고 대동문선창가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전정호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고 멍청하니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그전날 밀물과 썰물을 타고 오르고내리던 짐배들이 한척도 보이지 않았고 선창가주변에서 흥성거리던 물고기매점들도 번번해졌다. 하지만 조기천의 시에 씌여있는것처럼 어디선가 북구대의 힘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삼과 곡괭이를 든 십여명의 녀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대동문옆으로 지나가고있었다.

전정호는 얼마후 배를 타고 동평양으로 건너가 병기생산국을 찾아갔다. 통이 좁은 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우에는 검은색잠바를 입은 40대의 사나이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병기생산국장 고정환이었다.

《오, 전정호동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랄공대!》

고정환은 로씨야사람들처럼 두팔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연방 《하라쇼, 하라쇼.》 하였다.

전정호는 반갑게 맞아주는 그를 고맙게 여기었다.

《우랄공대!...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있소. 정세는 매우 엄혹하오. 동문 벌써 포탄공장에 배치장을 받았는지? 상동문 나더러 당신을 당장 포탄공장으로

데리고가라는데 어찌겠소. 량해하오, 전쟁이니까... 여기선 이렇게 잠시도 쉬지 못하고있소. 오자마자 고생을 시키게 됐으니 정말 미안하오. 량해하시오.》

《팬쑤습니다, 국장동지. 제스스로 빨리 보내달라고 제기했습니다. 모스크바대사관에서 로므니아국제휴양소로 가는 유락종이라고 하는 포탄공장 직장장을 만났습니다. 최성준이라는 기계공도 있었습니다. 그 동무들한테서 조국의 병기공장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중공업상동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조국에 도착하면 빨리 병기공장에 보내달라고...》

고정환은 불시에 얼굴빛을 흐리였다. 유락종, 최성준이들은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며 그들 또한 병기생산국장 고정환이라면 머리를 내젓는 고급기능공들이였다.

고정환은 순간에 기분이 잡쳐져 담배갑에서 가치담배를 빼물며 의자에 앉았다.

《유락종이 동무한테 무슨 말을 함데?》

고정환은 어떤 예감을 느끼며 실눈을 지었다.

전정호는 자기가 야금학부에서 흑색금속학을 전공한 우랄공대졸업생이라고 하자 유락종이 몹시 기뻐하며 포탄공장에서 당신과 같은 기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다는것, 지금 거기서는 박홍근기사가 인민군대철갑모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오래전부터 하고있으나 여러가지 기술적문제가 걸려서 애를 먹고있다는것, 특히 일부 간부들이 박홍근기사의 철갑모연구를 달가와하지 않아 심리적고충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어서 가서 그를 힘껏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그 사람은 외국에 가서도 간부들을 헐뜯누만.》

고정환은 대뜸 눈꼬리를 치켜올리면서 《뽀로호! 뽀로호!(나쁘다! 나쁘다!)》 하고 머리를 세차게 내저었다.

《지응모, 박홍근은 야뽀스끼 인첸네르(일본기사)인데 믿을수 없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사람들때문에 순진한 노동자들뿐아니라 간부들까지 모두 나쁜 물이 들고있소. 철갑모는 계획에 물리지도 않은거고 또 조선사람들의 기술로는 만들지 못하오. 그 사람은 심지어 선진국가에서 제정한 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하겠다는 도깨비같은 소리를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있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계속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놓고 로력, 자재를 낭비하고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소. 박홍근은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지금 병기공장에서 의사질을 하고있는 그 사람의 애인은 서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녀자요. 이런것들이 무엇때문에 북조선에 들어와 병기공장에 침투했는가?... 좋소. 그런 애긴 여기서 할게 아니요.... 어쨌든 내가 오늘 기쁜것은 비로소 손을 잡고 일할수 있는 기술자가 우리한테 온거요. 나는 믿음이 가오. 함께 일해보기요.》

《예,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국장동지, 포탄공장에 언제 가시겠습니까?》

《래일 아침에 떠나기요. 오늘은 쉬면서 출장준비를 하시오. 동무에게 털어놓고 말하면 병기국을 지도하는 상이란 사람이 병기공학에 무식하기때문에 일하기가 힘드오. 동무가 오니 내 마음이 든든해지오. 동무에 대해선 내가 특별히 돌봐줄테니 걱정하지 마오. 이젠 나가보시오.》

국장실에서 나온 전정호는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상과 병기생산국장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전정호는 류학을 떠나기 전 **김일성**동지의

저택에서 잠간 보았던 정일룡에 대한 인상이 아직 뚜렷이 남아있었다. 그때 그는 문천제련소 지배인이라고 했지만 간부티는 하나도 없고 쇠내가 폭 배인 전형적인 노동자형이었다.

(중공업상이 정말 무식하기때문에 병기생산국장을 괴롭히는것이 아닐가?)

쏘련에서도 과학을 모르는 간부가 과학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독선적인 행동을 하여 산업발전에 본의아니게 해독을 끼친 실례가 없지 않았다.

얼마후 본평양으로 건너온 전정호의 발걸음은 모란봉쪽으로 옮겨졌다. 그의 마음은 모란봉에 계시는 김정숙녀사께로 달리고있었다. 조국을 떠나있은 6년세월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숙녀사!

급한 걸음으로 해방탑까지 오른 정호는 현무문을 지나 을밀대로 갔다. 을밀대를 지나자 더욱 어머니가 그리워지며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정호는 어머니의 묘소를 룡감으로 알아보았다. 8월의 폭양속에서도 새파란 잔디가 조금도 시들지 않고 녀사의 봉분에 포근히 덮여있었다.

크지도 않은 너무도 소박한 봉분을 대하는 순간 정호의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순간에 솟구쳐오르며 설음이 울컥 목으로 터져나왔다.

정호는 저만치 앞에서 어푸러지듯 달려와 묘소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어머님!》

정호는 소리쳐불렀으나 목이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잔디를 거머쥐고 연방 어머니를 부르고부르며 목놓아울었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류학갔던 정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류학을 떠날 때 친히 새옷을 입혀주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병기공업발전에 힘껏 이바지하라고,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어머님께서 어찌하여 한마디 대답도 없이 묵묵히 계시는것인가.

《어머님을 만나뵈을 날만을 손꼽아기다리며 공부하였는데 어머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머님, 어머님-》

정호의 울음소리는 좌- 하고 소리치며 불어오는, 눈물같은 물기를 머금은 바람을 타고 최승대상공으로 끝없이 날아갔다.

아버이장군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고계시는데 어이하여 어머님께서 곁에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 모란봉산중에 홀로 와계신단 말인가.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어머님께서 장군님곁에 계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시겠는가.

정호는 흐느껴울면서 새삼스레 어머님의 묘소를 빙 둘러보았다. 어찌면 어머님의 룡이 이다지도 소박하고 평범할까? 류학기간 어머님의 묘소가 모란봉에 모셔져있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지만 이렇게도 소박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정호였다.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끝없이 소박하셨던 녀사의 생전의 모습그대로 묘소를 소박하게 꾸리라고 일군들에게 거듭 지시하신 사실을 정호는 알수 없었다.

푸른 잔디우로 깃털같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자 문득 어머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 같아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오, 정호가 왔구나! 이게 몇해만이나. 해수로 6년이지... 류학을 끝마치고 기사가 되어 돌아왔으니 참 대견스럽구나.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와 인민을 튼튼히 지키는 훌륭한 병기들을 만들어내거라. 변변치 못한 병쟁기를 가지고 왜놈들과 싸우다가 한을 품고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나라의 병기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뿌리며 녀사의 묘소앞에 엎드려 큰절을 드렸다.

봉분뒤에 서있는 소나무와 비슬나무가지들이 우수수 설레이었다.

비를 머금은 바람이 좌 하고 소리치며 지나가더니 어디선가 뻐꾹새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정호는 이날 어머님의 산소에서 실컷 울고 해질무렵에야 산을 내렸다. 이때에야 정호는 누군가가 묘소를 정성스레 관리하고있다는것을 느끼였다. 봉분앞에는 키가 크게 자란 비슬나무 두그루가 말없이 서있고 두리에는 겨울이면 찬 눈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내려쬐이는 폭양을 막아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주기라도 하려는듯 푸르디 푸른 수십그루의 소나무가 풍성한 가지를 펼치고 열을 지어 서있었다.

전정호는 모란봉을 내리면서 굳게 맹세하였다.

(어디에 가나 어머님의 생전의 바라심대로 살며 싸우리라. 장군님께 충포탄생산으로 충정다하리라.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보위하시기 위하여 심장을 내대고 적들을 향하여 싸창으로 서리발총탄을 날리시던 위대한 친위전사 김정숙어머님의 그 불굴의 모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장군님을 보위하는 멸적의 충포탄을 만들리라!)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내각협의회에서 북부고지대개발사업을 할데 대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속에서도 그이께서 인민생활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몹시 바쁘게 지내시던 때였다.

하여 전정호는 그이를 만나뵙지 못한채 고정한국장과 함께 포탄공장으로 떠나갔다.



고정환은 포탄공장에 도착하자 즉시 작업반장이상급 공장지휘성원들을 집합시켜놓고 주물직장 책임기사로 임명되여온 전정호를 소개하였다. 그는 선진적인 쏘련사회주의나라에서 공부한 전정호에게 누구를 물론하고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고 이어서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이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박홍근기사가 30여개 거치는 포탄생산공정을 대폭 단축시킬데 대한 설계안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하여 가뜩이나 성미가 마른 고정환이 극도로 흥분하여 목청을 돋구었다.

그는 오랜 포탄생산력사를 가지고있는 쏘련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박홍근이만 못해서 그런 복잡한 공정을 지키겠는가, 포탄생산에서 단 한개의 공정이라도 제멋대로 뛰여넘으면 오작품을 내는것은 물론 위험한 사고를 저지룰수 있다, 공정단축론은 포탄생산을 망쳐버리게 하는 해독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홍근이 무엇때문에 폭약이요, 철갑모요 하는 계획지표에도 없고 되지도 않을 일을

벌려놓고 로력과 자재를 낭비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고 다블러세웠다. 그는 지배인이란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손탁이 약하다보니 별 도깨비가 다 나온다고 리환구를 되게 나무람하기도 하였다.

고정환은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 기술협의회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동무들이 잘 알고있는것처럼 나는 후퇴시기 방가놈에게 속혀서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거요. 그 어떤 사소한 반동적요소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을거요. 수풍에서 있는 폭약사건은 아직 해명되지 않았소. 때문에 나는 중앙법기관에 병기공장에 대한 수사와 감시를 하도록 제기하겠소. 우리모두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환이 진심으로 한 말이였다. 그는 그후 한달남짓이 포탄공장에서 지내다가 성으로 올라왔다.

이날 고정환이 조직한 모임에 참가했던 순옥은 전정호로부터 유락종을 모스크바에서 만났던 소식을 전해듣고 밤늦도록 어머니 지금순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유락종이 하면 지금순의 눈에는 진짜사나이로 인박혀있었다. 미끈하게 생겼겠다, 사내다운 이글거리는 눈이며 가슴속에서 울기가 뻗칠 때면 얼굴에 그대로 표현되는 그 다혈질의 남아다운 성격 또한 얼마나 진실했던가. 불깃불깃한 얼굴에 바위처럼 굳센 의지가 배인듯 두드러진 관골모습을 보기만 하여도 정말 저 사람은 분명 사내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 일손을 놀리다가도 그런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는 행복감으로 하여

마음이 스스로 든든해지는 지금순이었다. 이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라도 하는듯 지금순은 순옥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애, 옛말에 사나이는 산이고 아릅드리나무와 같다고 했단다. 그러고보면 처자는 지의초이고 덩굴에 불과한거야. 지의초는 산이 있어야 살고 덩굴은 나무에 의지하여 칭칭 감겨사는게 아니겠니. 그러니 여자란 뭐니뭐니해도 서방을 잘 만나야 하는거야. 락종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지.》

《어머니, 뭘 벌써 그런 말 다하세요.》

《쯔쯔, 저것 보지. 내가 네속을 다 몰라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더없이 좋아하면서도... 야, 이 에민 못속여. 난 네 눈을 보고있다. 그 눈이 뭐라는지 아니. 엄마, 엄마말이 십분 옳아요 하는데두.》

《참, 엄만 오늘, 누가 뭐라나요?》

《...》

마침 오늘이 유락종의 생일날이다. 합숙식당 주방장일을 오래 한 지금순은 공장합숙생들의 생일을 뜬금으로 알고있었다.

《그 사람이 있었다면 내 손으로 밥 한끼라도 해주는건데 그곳에서도 어린하련만 유럽사람들이 어떻게 조선사람들의 식성에 맞게 음식대접을 해주겠니.》

그 말을 들으면서 순옥이는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에 가슴뭉클해왔다. 어머니는 또 말을 이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유락종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남자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군 한다. 사내대장부란 척 세워놓으면 기둥같이 꺾끗하고 남이 집적거리면 시뻘건

쇠꼬쟁이처럼 달아올라야지 그러지 않고 해벌에 시들어버린 풀잎마냥 후줄근해서 남에게 굶신거린다면 그런걸 어찌 사내라고 하겠니. 그거야 사내깍질을 헛쓴거지. 안 그렇냐?》

《어머니두 참, 오늘은 별스럽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모녀는 유락종의 이야기로 밤깊도록 시간가는줄 몰랐다.

8

방금 점심식사를 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군자리병기공장 당위원장 현무광이와 사업토의를 하고있던 정일룡은 전화기신호종이 울려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수화기에서 울리는 **김일성**동지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듣고 그는 별떡 일어섰다. 맞은편 창가에 앉아있던 현무광이도 왼손으로 목단추를 여미는 정일룡의 정숙한 표정을 일별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해안지방을 현지도하시다가 어느 한 농촌리에서 전화를 건다고 하시였다.

《해안방어상태와 농사형편을 알아보자고 서해안지구를 돌아보다가 포탄공장일이 궁금해서 전화를 겁니다. 군자리에서 로력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동지의 음성은 몹시 갈리시였다. 피로에 젖은 음성이지였다.

정일룡은 창가에 서있는 현무광을 얼핏 스쳐보고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걱정마십시오. 고급기능공 100여명을 벌써 다 보냈습니다. 지음모부기사장까지 포탄생산기술협조를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지금 제 방에 현무광동무가 와있습니다.》

현지지도의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도 병기공장의 일로 마음을 못놓으시는 그이에 대한 가슴저린 생각으로 하여 정일룡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리었다.

《그러니 지금 지음모동무가 포탄공장에 있습니까?》

《거기 있다가 포탄을 인수하러 온 인민군대동무들과 함께 이틀전에 전선중부로 갔습니다. 박홍근동무도 갔습니다. 전선참관도 하면서 최근에 만든 철갑모에 대한 군인동무들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철갑모를 만들었습니까?》

김일성동지의 음성이 불현듯 높이 울리었다.

《예. 박홍근동무가 끝내 완성했습니다. 지음모동무와 포탄공장 주물직장 책임기사로 임명되어간 전정호동무가 성의껏 방조했습니다.》

정일룡은 간단히 말씀올렸으나 수십번의 실패를 걸쳐 몇년만에 실현한 철갑모의 완성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간고한것이였다.

《전정호동무가 일도 잘하고 품성도 좋아서 노동자들이 좋아합니다. 군중의 신망이 높습니다.》

전정호는 포탄공장에 오자마자 주물직장의 용선로를 현대적으로 개변시키었다. 그리고 박홍근의 철갑모연구에 필요한 특수강재를 구하기 위해 성진제강소에까지 가서 강영창기사를 만나 특수강후판소재를 한차 실어왔다.

이때 박홍근의 편지를 통해 철갑모연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응모도 당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기능높은 형타공을 데리고 포탄공장으로 찾아갔다. 그리하여 박홍근은 전정호, 지응모의 방조를 받아가며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여 철갑모를 만드는데 거의 성공하게 되었다.

모두가 기뻐하였다. 특히 계획에 없는 일을 불안고 로력과 자재만 랑비하게 만든다고 가운데서 노상 압력을 받아오던 한성룡기사장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고정환은 믿을수 없다고 하며 얼굴빛이 땡땡해져서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 시험결과는 고정환의 예측대로 좋지 못하였다. 열개의 철갑모를 걸어놓고 총을 쏘았는데 거의다 구멍이 평평 뚫리었다.

고정환은 철갑모를 집어던지었다.

《여보, 이런걸 철갑모라고 말해? 일반철판으로 만들어도 이만큼은 견딜수 있겠소. 전정호동무까지 이 놀음에 끼여드니 한심한 일이요. 오첸 찰로! 찰로!(대단히 유감스럽소! 유감스러워!) 싹 걷어치우시오! 19세기 중엽에 명치유신으로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일본도 아직은 철갑모를 미국에서 사다쓴단 말이요. 아무리 봐도 박홍근이 하는 일은 이해할수 없소. 노동자 한 동문 철갑모소재를 절단하다가 손가락을 잘리웠다면서?》

《예. 두개씩이나 잘리웠습니다. 김영식이라구 김만수연공아바이의 막둥이아들입니다.》

표일석이 손가락 두개를 내보이면서 일러바치었다. 김영식이 철갑모용강재를 절단하다가 상한 손을 지금까지 석달이나 치료받고있지만 좀체로 호전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덧붙이었다.

고정환이 지배인을 돌아보며 소리질렀다.

《지배인은 그런 놈을 왜 가만 놔두고있소? 계획지표에도 없고 하지도 못할 일을 붙잡고 로력과 자재를 낭비하고 노동자의 손가락까지 잘라놓은 그자의 본심이 뭐야? 포탄생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자는게 아닌가?》

《예.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배인이 킁킁하게 얼굴이 질려있는 박홍근을 흘겨보면서 고정환에게 굵석거리었다. 일은 이렇게 심각해졌지만 박홍근, 지응모, 전정호 세 기사는 철갑모를 전투원들에게 썩우자는것은 장군님의 뜻이기때문에 머리가 백쪼각이 나도 그 연구사업을 멈출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세 기술자는 실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여 철갑모의 결함의 원인이 프레스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특수강을 누를 때 균열이 생기는데 있다는것을 알아내고 자동속도조절장치를 프레스에 설치함으로써 철갑모생산의 돌파구를 끝내 열어놓고야말았다. 마침 이때 포탄을 받으러 인민군대인수원들이 포탄공장에 도착하여 지응모와 박홍근이 그들과 함께 포탄과 철갑모의 첫 생산품을 싣고 전선중부로 떠나간것이다. 전화로써는 그 사연을 **김일성**동지께 다 아뢰일수 없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헤아리신듯 《수고했구만, 수고했소...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도 또 포탄과 철갑모를 가지고 전선으로 나갔단 말이지?》 하고 갈린 음성으로 뇌이시고는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였다.

1분, 2분... 정일룡은 그이의 침묵을 더는 기다려낼수 없었다.

《장군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상동무, 지금 전선중부에서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지난 5월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우리 포로들에 의해 수용소소장이 포로로 사로잡히는 전쟁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비상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용소장의 고백장으로 하여 포로들에 대한 미제의 만행이 세계의 면전에서 들장나서 죄상을 감출수 없게 된 적들은 정전회담을 휴회로 선포하고 담판장에서 퇴장하는 추태를 부리였습니다. 놈들은 이때부터 보다 더 악랄한 군사적공세를 감행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군사정세가 긴장해지고있는 때에 지응모, 박홍근이가 포탄과 철갑모를 가지고 전선으로 떠나갔다니 대단히 감사하지만 그들의 신변이 걱정된다고 하시였다.

《그들이 총은 잘 만들지만 자기들의 몸건사는 잘할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선동무들에게 그들을 잘 돌봐주라고 말해주어야겠소. 그건 그렇구. 전정호동무가 박홍근동무랑 잘 도와주고있다고 하는데 내려가서 실지 일을 잘합니까?》

《장군님, 아까도 말씀올린것처럼 전정호동무가 포탄공장 주물직장에 몇쟁이용선로를 새로 만들어세워서 주물포탄생산에서 큰 혁신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정일룡은 전정호가 온 다음부터 기술혁신운동이 세차게 벌어져 가공직장의 5축볼반이 15축으로 개조되고 포탄가공에 긴장을 조성하고있던 축구명가공기와 나사치는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말씀올리었다.

그런데 포탄공장에서조차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전기였다. 적기의 폭격에 전선이 자꾸 끊어져나갔고 때로는 발전소가 피해를 입어 며칠씩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노동자들이 강짜 수동식방법으로 힘내기를 해서 기대를 돌리곤 했는데 속도가 어방없이 더딜뿐아니라 노동자들의 육체적부담이 말할수 없이 컸다. 종일 그렇게 기대와 씨름을 하고나면 녹초가 되어 폭폭 쓰러졌다.

정일룡은 이 사실을 솔직히 말씀올리었다.

《내가 오늘 상동무한테 전화를 건 첫째 목적이 바로 전기문제를 토론하자는데 있었소. 얼마전에 민주도이첼란드의 웰헬름 피크대통령이 나에게 최신식발전기를 특별히 제작하여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군자리병기공장에 있는 발전기보다 성능이 더 높습니다. 그걸 포탄공장에 보내겠습니다.

최고사령부에 놓으라고 보낸것이지만 나야 초불을 놓고도 얼마든지 작전회의를 할수 있고 작전지도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탄공장에서는 전기가 없으면 일할수 없습니다. 오늘 보냈으니 곧 도착할거요.》

《장군님!》

정일룡은 무어라 말할수 없는 감동으로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짊 움켜쥐었다.

《상동무, 내 말을 듣소. 발전기를 보냈다고 <만세>를 부를건 못됩니다. 모든 공장의 전기를 어떻게 디젤발전기로 해결하겠소. 내가 얼마전 내각소회의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전기문제를 풀자면 파괴된 발전소와 중요전기시설들을 빨리 복구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반항공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먼저 힘을 집중하여 복구하여야 할 대상은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부령발전소들입니다. 발전소복구에서 제기되는 중요전기기계설비의 수리는 강서전기공장에서 맡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큰 발전소들에서는 수리직장을 설치하고 전기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수리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반항공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에 고사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멘트나 목재 같은것으로 방탄벽을 든든히 쌓도록 해야 합니다. 일군들이 머리를 쓰고 달라붙으면야 왜 전기문제를 풀지 못하겠소.》

《장군님, 죄송합니다.》

정일룡은 죄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오늘 처음 교시하신것이 아니였다.

《상동무, 중앙에서 중요발전소들에 전권대표들을 파견하여 지방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함께 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고사포병부대들과 련계를 가지고 발전소와 주요 전력시설들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나간 지응모, 박흥근동무들을 위험한 곳에 오래 있게 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게 하시오.》

《장군님, 알겠습니다.》

《11월이 다가오고있습니다.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이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능합니까?》

《기술혁신방안들이 나와서 토론들을 하고있습니다. 장군님, 그들은 꼭 해낼겁니다.
》

《철갑모도 만든 사람들인데 해낼거요. 해내구말구... 11월경에는 상동무에게 아주
어려운 새 과업이 또 맡겨지게 됩니다. 몸을 돌보시오. 현무광동무도 와있다니 내
인사를 전하시오. 오늘은 이만합시다.》

《장군님, 부디 건강하시기를...》

전화는 이미 끝났으나 정일룡은 그냥 송수화기를 손에 든채 오래도록 서있었다.

정일룡은 그밤으로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김일성**동지의 전화교시를 전달하고
이튿날에는 평북도와 자강도안의 수력발전소들과 포탄공장에 나가기 위한 출장준비를
하였다. 한편 현무광이도 군자리로 돌아가 **김일성**동지의 전화교시를 전달하고 지응모와
박홍근이 나가있는 전선중부로 총총히 달려갔다.

그무렵 정일룡은 인민군대인 맏딸 춘경이와 둘째딸 숙경이가 곧 류학을 하러 집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딸부자인 정일룡의 맏딸의 이름을
류학생명단에 친히 써넣으셨다고 하셨는데 둘째딸까지 류학을 가게 된것이다.

정일룡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수풍발전소로 승용차를 몰아갔다.

9

정일룡이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주요발전소들에 찾아다니며 전력생산문제에 대한 기술협의회를 하고있을 때 포탄공장에서는 한성룡기사장방에서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이기 위한 기술협의회를 하고있었다.

리환구지배인도 걱정에 싸인 침울한 표정을 하고 한성룡기사장과 함께 집행석에 앉아있었다.

한성룡이 이틀전 정일룡상에게 주신 **김일성**동지의 전화교시를 재침투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미 우리 포탄공장에 100명의 고급기능공을 보내주도록 은정어린 대책을 취해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지어 최고사령부에 놓게 된 발전기까지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일수 있는 확고한 기술대책안을 세우지 못하고있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내야겠습니다.

전정호책임기사동무, 기술대책안을 여기 나와서 설명하시오.》

기사장의 지시를 받고 이미 도면을 준비해두고있던 전정호가 종이두루마리를 들고 나와 집행탁에 펴놓았다.

《사실 이 도면에 대한 설명은 박홍근책임기사가 하여야겠는데 부재중이기때문에 제가 대신합니다. 모두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박기사동진 오래전부터 강철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하여 포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검토해보니 십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기사의 연구자료에 기초해서 주물직장에서도 생산공정을 대담하게 뜯어고칠…》

《가만, 가만…》

어두운 얼굴색을 하고 앉아있던 리환구가 전정호의 말허리를 꺾으며 도면을 끄당졌다.

《이 도면이 바로 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한다는 박홍근의 도면이요?》

《박기사의 도면은 아니고 그에 기초해서 저도 한장 만들었습니다.》

《동무네 정말 청개구리야! 생산공정을 단축해선 안된다구 고국장이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였는데 또 들고나와? 싹 걷어치우라! 그래 기사장동문 이걸 토론하자구 사람들을 모이게 했소? 청개구리란 말이야. 청개구리…》

리환구는 끄당졌던 도면을 홀 밀어버리었다. 그러자 전정호는 설계도면을 두드리며 짜증에 가까운 애바른 소리를 하였다.

《지배인동지, 왜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이 도면은 발전된 나라 군수설비들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한겁니다. 이 설계대로만 하면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배로 높일수 있습니다.》

그 말에 환구의 눈꼬리가 옆으로 쪽 찌지면서 가뜩이나 작은 눈이 눈꺼풀속에 콕 묻혀버리었다.

《동문 이 공장에 온지 얼마인데 벌써부터 독선이 그리 심해? 그래 그따위 설계도 하나로 만사가 다 풀릴줄 알아? 동무, 철갑모를 보라! 몇년이나 씨루다가 겨우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로력과 자재를 얼마나 낭비했는가? 그뿐인가. 거 누구야... 김만수의 아들이 손가락을 두개나 잘리워 지금두 고생하고있지 않는가?》

리환구는 손가락 잘리운 소리를 또다시 꺼내면서 집행석의 탁상을 주먹으로 두들겨댔다. 그는 고정환한테서 지배인의 손택이 약하다고 되게 추궁을 받은터여서 단단히 날을 세울 작정이였다.

《동무, 좀 자중하오. 외국물을 먹어서 그러나? 왜 그리 우쭐렁거리? 동무의 설계도가 얼마만 한 가치를 가지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천만금의 가치가 있다 해도 그 덕을 보자면 5년이 걸려야 할지 10년이 걸려야 할지 모르고 또 많은 사람을 병신짝 만들어야 해! 철갑모경험이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당장 포탄생산을 2배이상 늘여야 한단 말이요. 될지 안될지도 모를 그따위 설계도에 공장의 운명을 맡길수 없소.》

전정호는 지배인의 몰상식한 폭언에 분노의 피가 끓어올랐지만 대중앞에서 마주 소리칠수도 없어 안타까이 한숨을 지으며 한성룡기사장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그의 방조를 바라는 의미였는지 모른다. 한성룡은 전정호가 자리에 앉자 지배인에게 말하였다.

《지배인동무, 저 동무의 설계도는 나와 지응모, 박홍근동무들과 초보적으로 토의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십분 가능하며 짧은 시일에 실현시킬수 있습니다.》

한성룡은 덧붙여서 이 설계도는 하루아침에 생각해낸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박홍근, 지응모를 비롯하여 경험있는 기사, 선반공들이 구상해오던 문제가 이번에 세 기사의 집체적인 힘에 의해 완성되였다고 하였다.

《여보, 기사장동무, 지배인을 무슨 눈뜬 소경으로 보고있소? 나도 박홍근이가 이런 도면을 들고 다니는걸 고망엿적부터 보았소. 고정한국장과 다투는것두... 그걸 군검수국에서도 벌써 알고있소.

우리 포탄공장에서 제멋대로 생산공정을 단축해서 포탄생산을 한다는 소리가 돌아간다면 군사재판장에 오르겠으면 그따위짓을 하라고 나한테 위협전화가 걸려왔소. 내 오늘 아침 그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앉아있었는데 이런 도깨비도면을 내놓는단 말이요? 포탄생산공정을 제멋대로 단축했다가 오작사고를 내면 어찌자구 그래. 이걸 토론하자고 모였으면 기술협의회구 뭐구 짝 걸어치우시오.》

리환구는 사실 그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누구를 찾는듯 눈섭을 푸들거리며 방안을 쪽 둘러보았다.

《전탕 마구재비야, 군검수국에서 하는 말이 포탄상자도 도면에 맞지 않게 마구 찢다고 하오. 도면에 없는것을 왜 망탕 하는가 말이야, 엉? 포탄상자 도장도 철저히 에나멜을 쓰게 됐는데 아무것이나 막 췌바른대. 련관부서, 왜 그따위짓을 해?》

리환구는 독을 풍기며 중국산 《대중산》담배 한대를 뽑아 입에 물었다. 그는 입과 코구멍으로 담배연기를 확 내뿜으면서 다시금 소리쳤다.

《자재부장, 일어나라! 왜 특함재 하나 제대로 보장 못해? 동문 도대체 밥먹고 뭘하는 사람이요? 나무로 뒤덮인 이 랑림산을 통채로 깔고앉아서 그 특함재 하나 제대로 보장 못해 지배인얼굴에 흠칠을 하는가?》

리환구는 소리치는 바람에 침에 개기여 쿨럭쿨럭 기침을 몇번 짓고나서 계속하였다.

《혼자 산에 올라가 그 실직한 어깨에 나무 한대씩만 메날라왔어도 포탄상자문젠 안 걸릴거요. 자기 사업에 무책임하단 말이요. 동무, 못하겠으면 자리를 내놓소! 자재부장 할 사람은 많아. 도봉숙일 동무자리에 앉혀도 얼마 잘할거요. 경리업무부문에 얼마나 노랑둥이들이 앉아있으면 그 녀자가 못 있겠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갔겠는가?》

그 말에 자재부장이 울컥하였다.

《예, 제발 저를 자재부장자리에서 내쫓아주시오.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십리평에 있던 아득포제재소가 한달전에 놈들의 폭격으로 하늘로 날아나 특함재가 걸리게 된건 여기 있는 동무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지배인동무에게 공장에서 특함재를 자체로 해결할테니 성강에서 띠톱감만 해결해달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동무 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강에선 지금 계획에 물려있는 포탄소재도 보장하기 어려워 찢찢 매는데 거기다 계획이 없는 띠톱자재를? 멍청이같은 소리 짹 거두라.> 하고 딱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차를 가지고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해올테니 휘발유만 달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때에도 지배인동무는 <휘발유가 어디 있어? 금주고 사오는게 휘발유야. 휘발유가 긴장해서 만들어놓은 포탄도 못 보내는 형편인데 썸판도 모르누만. 짹 거두라.> 하고 면도칼같이 잘라버렸지요. 그래놓구 이제 와서 저만 잘못했다면서 책임을 따지니 이거 어디 억울해서 견디겠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이 시각부터 자재부장자리를 내놓고 제일 어려운 직장에 나가 마음편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자재부장은 발로 사무실문을 걷어차고 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놀란 눈길로 자재부장이 나간쪽을 지켜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사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배인은 담배곽을 손에 쥔채 성이 나서 씨근거리다가 로동행정부장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좌우간 규률이 없소, 없단 말이요. 무정부주의관이야. 로동행정부장, 저 사람이 요구한대로 사락작업반 제일 힘든 곳에 내려보내시오! 현장로동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보라구 해! 내 당위원장에게 통보하겠소. 누굴 꼭 닮아가누만...》

지배인의 그 마지막말은 류일룡을 빗대놓고 한것이였다.

자재부장을 내려보내라는 사락작업반은 주물품(포탄체)에 붙어있는 모래알갱이를 털어내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순수 수공업적방법으로 하고있는 사락작업은 쇠물을 바가지로 퍼서 주형에 부어넣는 일에 못지 않게 힘든 유해로동이였다. 모래먼지의 뽀얀 장막속에서 하루일을 하고나면 눈도 코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현재 이 작업반의 반장은 그전에 로동행정부장의 눈통을 쳐서 말썽을 일으켰던 장룡운이가 하고있었다. 이 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거의 다 지배인과 로동행정부장의 눈에 난 사람들이였다.

《자, 동무들 보라! 지배인이 일을 해먹겠는가. 반동놈의 새끼들이 간부들을 혈뜯고 모함질을 하니 이젠 나ער린 로동자들까지도 이 지배인을 뜨물에 내버린 쉼밥만큼도 여기지 않아. 반동놈의 새끼...》

이렇게 소리친 환구가 이번에는 포탄가공1직장장인 김인호를 일으켜세우고 다불러댔다.

공장직맹단체를 책임지고있는 김인호직장장이 부정적현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주고있기때문에 공장규률이 문란해지고있다고 하였다. 그 하나의 실례로 과오를

범하고 사락작업반에 내려가 로동단련을 하고있는 전 교환대반장이 합숙방에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는데도 직맹위원장이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

《여보, 교환대반장을 하던 그 리영룡이란 사람은 간부방공호를 보고 승냥이굴이요 뭐요 하고 박홍근이와 맞장구를 친 동무요. 그가 합숙방에서 부화한 생활을 하는데도 직맹위원장이 비호하면서 공개비판도 못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되겠소? 찌찌.》

지배인이 혀를 차며 머리를 내젓자 김인호가 느릿느릿 일어나며 입을 열었다.

《예, 그 동무가 부화했다는건 헛소문입니다. 그 동무가 스스로 제가 부화했다고 실없는 룡담을 한것이... 썩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허허허》

김인호의 웃음소리에 협의회참가자들도 모두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성이 났던 지배인도 어처구니가 없어 고개를 젓히고 웃었다. 바로 이때 온통 흙투성이가 된 사람이 비칠거리며 회의장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는 박홍근이었다.

일순 놀란 시선들이 박홍근에게 쏠리었다.

찢어진 옷, 흐트러진 머리카락, 두꺼운 안경알속에 확대된 멍청해진 눈동자, 실성한것 같은 박홍근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박홍근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더니 머리와 가슴을 쥐여뜯으며 통곡하였다.

《저 사람이 전선에 나갔다가... 돌지 않았소?》

지배인이 기사장을 돌아보며 겁질린 소리를 하였다.

이때 현무광이 역시 비칠거리며 사무실로 걸어들어왔다. 피를 뿜히운듯이 창백한 그의 얼굴에는 피와 흙이 말라붙었는지 붉고 누런 반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그는 금시 쓰러질것 같았다.

《당위원장동지! 무슨 일입니까?》

한성룡이 불길한 예감에 온몸을 떨면서 현무광을 부축하였다.

《동무들... 지응모동무가 전사했소. 죽었다단 말이요...》

콜수에서 숨새나오는 피기름에 젖은듯 한 목소리였다. 사무실벽에 손을 짚었던 그는 통나무처럼 방바닥에 모자로 넘어졌다.

《당위원장동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절한 당위원장을 불안았다.

일시에 터지는 울음소리가 방안을 진동하였다.

10

박홍근은 오래도록 오열하고나서 방안에 한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지응모, 박홍근이들이 전선참관차로 포탄상자와 철갑모들을 말길마에 싣고 전선중부에 있는 무명고지에 올랐을 때 고지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있었다. 1개 대대가 고지를 지키고있었다.

대대지휘부에서는 포탄과 무기, 탄약에 철갑모까지 신고온 지응모, 박홍근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신변이 걱정되어 빨리 고지를 뜨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총포탄으로 원썩들을 쓸어눕히는 광경을 보고싶었고 철갑모를 쓴 인민군용사들과 함께 결전의 대렬에 서있고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제원썩놈들에게 잃은 지응모가 어찌 그대로 고지를 떠날수 있었겠는가. 지응모들은 고지에서 전투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싸웠다. 아쉬운것은 철갑모수량이 많지 못해 대대전원에게 다 씌우지 못한것이였다.

병사들은 서로 철갑모를 양보하였다. 그들은 우선 지응모와 박홍근에게 씌우려고 하였으나 지응모가 《군인들에게 씌우자고 가져온 철갑모를 우리가 쓰면 되겠소? 내 생각엔 나이순서로 철갑모를 쓰게 하면 될것 같소.》 하고 제일 어린 병사에게 철갑모를 씌워주었다. 이렇게 되어 소대장이하의 전체 병사들은 거의 다 철갑모를 쓸수 있게 되였다.

놈들이 쏘아대는 포탄과 적기의 폭격은 고지를 삼시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땅과 하늘이 부르르 떨고 발각 뒤집히는것 같았다. 썩 썩 썩 쿵! 썩 썩 썩 쿵! 승냥이울음소리처럼 별의별 소리를 내며 포탄이 연방 날아와 터지고 폭탄이 쉴새없이 하늘에서 떨어져내렸다.

초연에 흐려진 공간, 내장이 드러난 전호, 동강이 난 빈 통로, 폭격에 형체가 없어진 참호, 포탄에 산산이 부서져날아가는 바위들의 아츠러운 소리, 불타는 나무토막들,

하늘을 향해 곤두선 나무뿌리, 폭격으로 하여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흙먼지기둥, 한치의 앞도 분간하기 힘든 고지였다.

폭격과 포격이 몇자 미제고용병들이 고지를 까맣게 덮으며 기여올랐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중기와 기관단총이 불을 뿜어대고 박격포들이 은폐지에서 기동성있게 빠져나와 적진지와 공격해오는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자기들이 만든 박격포와 기관단총의 높은 성능을 전투장에서 직접 목격한 지응모와 박홍근은 《만세》의 환성을 올리였다. 이때처럼 기쁘고 이때처럼 삶의 긍지와 보람을 느껴본적이 과연 언제 있었던가.

적들은 무리로 쓰러지고 고지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이때 고지익측룡선을 따라 적땅크들이 기여오르고있었다. 전투원들은 고지를 들었다놓는 승리의 함성으로 하여 땅크의 진동소리를 듣지 못했다. 고지에서 적땅크를 발견한 사람은 오직 지응모 한사람뿐이었다. 승리후 5분이 중요하다는 군사적격언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른다. 우리의 병사들은 공격하는 적들을 소멸하였다는 기쁨으로 잠시 방심했던것이다. 전투경험이 없는 지응모는 누구에게 알릴 생각은 미쳐 못하고 수류탄묶음을 안아든채 적땅크를 향하여 소리치며 달려갔다. 고지의 용사들은 그때에야 적땅크를 발견하고 지응모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수류탄이 작렬하고 적땅크들이 나동그라졌다.

박홍근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동무들! 지응모동무는 고지에서 이렇게 가장 위험한 순간, 위험한 모퉁이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진 그를 안아다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미 숨져있었습니다. 수류탄파편이 그의 머리와 바른쪽가슴에 여러개 박혀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불안고 통곡하였습니다. <기사동지! 우리가 그만큼 쓰라고 했는데 왜 철갑모를 쓰지 않았습니까. 철갑모만 썼으면...>

그렇습니다. 그가 철갑모를 썼다면 희생되지 않을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많은 파편이 박혔지만 심장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개의 파편이 그의 뇌수에 박혀들어갔기때문에 그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아아, 그는 영원히 우리의 곁에 돌아올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숨지였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것을 유언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늘 걱정하신 철갑모, 철갑모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것을!...》

박홍근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슨 물건인가를 꺼내었다.

그것은 지응모의 당원증과 편지봉투였다. 가죽주머니와 두터운 유지 그리고 특수강쇠곽속에 간직되어있는 당원증은 피자욱 한점없이 생생하였으나 두툼한 편지봉투는 파편에 짓이겨지고 피에 함뼉 젖어있었다. 사랑을 맹세한 최이순의 시가 봉투속에 있는것이다.

박홍근은 편지봉투에서 너털너털해진 속지를 꺼내었다.

《이 편지는 최이순동무가 지응모부기사장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다싶이 피에 젖고 파편에 짓이겨져 글자를 볼수 없습니다. 다만 1950년 11월 12일이라는 날자와 최이순 올림이라고 쓴 몇몇 글자만을 겨우 뜯어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미국놈을 몰아낸 다음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백년가약식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은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일시에 방안은 또다시 통곡소리로 가득찼다.

누구보다도 절통스럽게 가슴을 치며 운 사람은 기사장 한성룡이었다.

전쟁전에 지응모, 박홍근, 한성룡은 병기공장 한합숙방에서 고락을 같이한 딱친구들이었다. 그들의 우정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함모,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깊이 련결되어있었다.

지응모의 희생에 대한 비보를 뒤늦게 전달받은 지금순, 김순옥, 김은순을 비롯한 많은 녀인들이 달려와 울음은 더 커졌다. 그 시각 군자리병기공장에서 울음바다가 되었다. 지응모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우리 나라의 첫 병기기술자였다.

지응모의 장의식은 군자리에서 기관장으로 조용히 그러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새로 생긴 봉분앞에 성에서 보내온 화환과 지응모가 포탄과 철갑모를 신고나갔던 전연구분대에서 보내온 화환이 놓여있는데 그우로 이름모를 산새들이 구슬피 울며 날아왔다. 애도사도 있었고 두주먹을 부르짖고 혁명동지를 빼앗아간 원썩미제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의 불타는 결의도 있었다.

마지막에 현무광이 봉분의 흙에 눈물을 뿌리며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당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지응모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 친우로서 저세상으로 간 벗의 넋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말그대로 눈물겨운 초혼의 속삭임이었다.

《…여보게 지응모! 동무는 이 현무광을 떼버리고 어디로 갔나? 동무야말로 참인간이었지. 동무처럼 **김일성**장군님께 충직하고 동무처럼 나라와 우리 인민, 우리 벗들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동무는 말이 없고 조용했으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를 안고있었지.

동무는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만들어 우리 나라 병기공업의 초행길을 걸은 재능있는 첫 기관단총의 설계자였네. 동무는 우리 나라 첫 기관단총을 위대한 장군님께 만들어올린 병기공업로동계급의 지식인이었네. 동무는 가장 준엄했던 시기에 평양방어사령부에 수백정의 기관단총을 보내준 결사대 대장이었네. 동무는 총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우리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총을 쏜 사람들이 장군님과 조국을 어떻게 보위하여야 하는가를 제 한몸으로 보여준 불굴의 투사였네.

우리는 동무가 최이순이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잘 알고있네. 지응모! 나도 끝없이 동무를 사랑했소.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소.》

현무광은 봉분을 그러안고 젖은 흙에 얼굴을 묻었다.

당위원장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일시에 목놓아울었다.

《지응모! 지응모! 한평생 거짓을 모른 무한히 깨끗하고 정직했던 나의 친구야! 임자는 숨을 거두고 저세상으로 갔지만 임자의 넋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네. 죽어서도 임자의 령혼은 영원히 **김일성**장군님을 따라간다는것을 나는 믿어의심치 않네.

고 지응모여! 동무의 위훈은 우리 나라 병기공업력사에 아름다운 별로 새겨져 영원히 빛날것이네. 친구! 우리가 무기를 많이 생산해서 미국놈들을 몰아낼테니... 안심하고 편히 누워있게.》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현무광은 비로소 얼굴을 쳐들고 저쪽 소나무밑에 외따로 떨어져있는 한 로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묵연히 서있는 로인, 그는 지응모의 아버지 지군일목사였다. 현무광은 목사에게 깊이 허리를 굽히었다.

《목사님, 죄을 면목이 없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늘 저에게 지응모동무는 나라의 국보라고, 당위원장이 항상 그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군님의 뜻대로 일을 못해서... 아드님이 너무도 일찌기 떠나갔습니다.》

《당위원장님도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하느님결, 천당으로 갔습니다.》

지목사는 손을 들고 태양이 빛나는 10월의 푸른 하늘을 가리키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고 천당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끝 우주밖에 있는것이 아니외다. 우리 장군님의 품, 그것이 바로 하느님 계시는 천당이외다. 내 아들은 장군님의 품속에 영원히 안겨있습니다. 방금 애도사와 당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나라의 진정한 하늘이신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겠습니다.》

지목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더한층 높아졌다. 현무광은 오열하는 군중을 향해 분연히 웨치였다.

《동무들, 이제는 울음을 그칩시다. 우리의 이 슬픔을 원쑤에 대한 증오로 바꿉시다. 마지막으로 지응모동무의 명복을 빌어 그가 설계한 기관단총으로 조총을 쏙시다.》

그러자 이미 준비하고있던 10명의 청년들이 기관단총을 비껴들고 봉분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들중 누구인가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지응모기사는 자기가 설계한 기관단총제원에 대한 해설문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이란 어떤 사람의 손에 쥐여지는가에 따라 그 사용가치와 위력에서 예민한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적기구이다. 총을 사랑하는 인도주의자와 총을 미워하는 인도주의자의 인도주의무계를 천평에 달아보면 총을 사랑하는 인도주의자쪽이 훨씬 더 무겁다.>

진정한 인도주의자 지응모동지여! 승리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습니다. 이제 곧 조총이 울립니다. 동지가 사랑하는 기관단총이 불을 토합니다.》

드디어 차렷구령이 내렸다.

10명의 끝끝한 청년들이 서서사격자세를 하고 기관단총의 총구를 하늘로 들었다.

《조국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지응모동무를 위하여 련발로 쏙!》

한성룡기사장의 구령이 떨어지자 열개의 기관단총이 일시에 시뻘건 불을 뿜어댔다.

뚜루룩, 뚜루룩, 뚜루룩... 우뢰처럼 울리는 요란한 총성은 하늘땅을 진감하며 아득히 먼 공간으로 메아리쳐갔다.

그로부터 10여일 지나 정일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부수상으로 임명되었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결정이 신문, 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그무렵

포탄공장 주물직장 책임기사 전정호는 포탄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야금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류일룡이 군자리기관단총 직장장사업을 인계하고 포탄공장 부지배인으로 정식 사업을 시작한것도 그무렵이었다.

정일룡이 부수상으로 임명된지 며칠후 포탄공장에서 1952년 12월부터 포탄생산계획을 종전의 2배이상으로 높일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지시가 떨어졌다.

11

전정호는 야금부장으로 임명된 후 매일과 같이 현장에서 밤을 꽤다싶이 하였다. 야금부장은 기사장 제1대리인과 같아서 부서일이 여간 힘들고 복잡하지 않았다. 야금부산하의 직장들만 하여도 단조, 주물, 열처리 등 공장적으로 덩치가 제일 큰 직장들이 세개씩이나 되는데다 그밖의 수십개나 되는 공장의 모든 직장들의 생산통계들을 종합하고 해당하는 지시를 주어야 했으므로 공장적으로 제일 부담이 큰 기술간부가 야금부장이었다.

주물직장 책임기사로 있을 때 이미 용선로를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대수도 늘이게 한 전정호는 야금부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룬환식주물품생산방법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을 2배로 장성시키면서도 로력을 절약하고 힘든 고열로동의 부담도 훨씬 덜어줄수 있게 하였다.

륜환식주물품생산방법이란 종전에는 용선로에서 쏟아지는 쇠물을 바가지로 받아 주형틀에 부어넣는 방법으로 주물포탄탄체를 생산하던것을 벨트콘베아에 실려오는 주형틀에 쇠물이 자동적으로 주입되게 하는것이였다.

전정호는 주물직장 기술혁신1단계목표가 실현되자 사락작업도 기계화할데 대한 목표를 내걸고 진공적으로 내밀고있었다.

공장적인 가장 큰 성과는 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하기 위한 박홍근의 설계안을 실현시켜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이면서도 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반대한 병기생산국장과 지배인이 승인하지 않아 생산제품들이 군검도장을 받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있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할수없이 전정호는 기사장과 토의하고 군검을 받지 못했으나 일단 포탄들을 전선으로 실어보내게 하였다. 지금 모든 전선에서 포탄이 긴장되어있기때문이였다.

이날도 전정호가 군검문제로 지배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로동행정부장이 달려와서 고정한국장이 부른다고 하였다.

《국장동지가 내려왔습니까?》

군검문제로 병기생산국장을 기다려온 전정호였다.

고정한은 공장에 내려오면 방공호안에 꾸려져있는 자기 사무실에 들어박혀 지배인이나 로동행정부장을 통해 사업을 포치하고 좀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비행기를 몹시 무서워하기때문이였다.

소문에 의하면 쏘도전쟁당시 고정한은 도이칠란드폭격기 《메셰르 슈미트》에 의해 폭풍에 날려갔던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는 비행기폭격공포증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비행기발동기소리만 들어도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베취쉐! 우베취쉐!(방공호! 방공호!)》 하고 허둥거린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지배인은 포탄공장에 와서도 수풍에서보다 더 요란하게 많은 로력과 자재를 들여 고정한의 지하요새를 꾸려놓았다.

전정호가 로동행정부장의 전갈을 받고 고정한이 있는 방공호로 들어간것은 해가 질무렵이었다. 그가 처음 가보는 방공호였다. 밖에서 여러개의 계단을 내려 깊숙이 들어가서 문을 열면 전실 겸 복도가 나지고 그 좌우에 두개의 방이 있었다. 오른쪽은 침실이고 왼쪽방은 식사칸이었다.

문기척을 내자 고국장이 문을 열고 정호를 건너다보며 반색을 지었다. 이때 주사기를 든채 두사람사이로 조심스레 걸어나가는 여성이 있었다. 공장병원 간호원도봉숙이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여자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고정한이 《아주 성실한 녀자요. 내 기침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사를 놓아주었소. 조선의 나이팅게르요. 림민희라는 녀자한테선 단 한번도 치료를 받아본 일이 없소. 께름해서 그런 녀자에게선 치료를 받고싶지도 않소.》 하고는 전정호를 방으로 안내하였다.

정호는 고정한을 따라 식당칸으로 쓰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선 순간 전정호는 놀라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식탁우에는 여러가지 값진 음식들이 가득히 놓여있었고 목이 긴 중국의 소문난 《모태주》도 놓여있었다.

자리를 권한 고정한은 전정호의 기분을 살펴보며 친절히 말하였다.

《동무를 부른것은 사업상용무가 아니라 오늘이 내 귀빠진 날이라 저녁이나 한끼 나누기 위해서이네. 내가 여기를 몇번 다니면서도 동무를 만나보진 못했지만 언제한번도 동무를 잊은적이 없네. 난 오늘이 자기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지배인이 어떻게 알구 한상 차렸구만. 이러지 말라는데두 그 사람이 어디 말을 들어야지. 해놓은 음식이야 먹어야지. 누구 올 사람도 없으니 술이나 들면서 회포나 나누세.》

고정환이 말하는 회포란 쏘련에서의 생활을 넘두에 둔것이였다.

《자, 들자구. 합숙밥이야 어디 성차겠나.》 하고 고정환이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려 하자 정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고정환의 잔에 술을 부었다.

《국장동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외지에서 생일을 쇠시니 집에서 무척 섭섭해하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고정환은 거둬 로씨야말로 사의를 표하고 하얀 유리잔에 가득찬 술을 쭉 들이켰다. 도수가 70프로인데도 단번에 잔을 다 비웠다.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활랑거리는 체질인 전정호는 술잔을 입에 댔다가 뺐다.

고정환은 연거퍼 술 석잔을 마시고나서 전정호의 술잔을 넘겨다보며 눈을 치떴다.

《아니, 왜 술을 안하나?》

《전 체질적으로 술을 못합니다. 술냄새만 맡아두 얼굴이 빨개집니다.》

《허허허, 그래? 그럼 이 고기볶음이나 들게. 나는 아직도 보라슈, 비로스끼 같은 로씨야료리가 입에 맞지만 보다싶이 여기엔 로씨야료리가 없네.》

고정한은 소고기볶음과 돼지순대접시들을 전정호에게 밀어놓으며 부어놓은 술만은 다 마시라고 또 권하였다.

술이 연거퍼 몇고패 들어가자 열근해진 고정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입고있던 제복잠바를 훌렁 벗어 걸상에 걸쳐놓았다. 샤쯔바람의 고정한은 어깨가 당기는지 두줄로 넘어간 팽팽한 멜빵을 당겨놓으며 몸의 균형을 잡는데 허리에 달린 권총집이 좌우로 흔들거렸다.

병기생산국장이라는 류다른 직책으로 하여 늘 권총을 차고다니는 고정한의 그 모습은 무자비성의 상징이라 할지 술이 거나해진 속에서도 엄한 기상을 잃지 않고있었다.

《여보, 정호. 동무의 모교인 우랄공대가 있는 스웨르들롭스크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아네. 내가 그 근방에서 살았으니까.》

고정한은 스웨르들롭스크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 지방 주민구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곳에는 조선족이 적지 않게 살고있다고도 했다. 고정한이 한 소리는 사실이다.

우랄지방은 쏘련의 대군수공업지구이다. 여기서 생산된 땅크들과 포무기들, 저격무기들이 꾸르스크땅크격전장과 쓰딸린그라드와 레닌그라드로 끊임없이 실려갔던것이다.

얼마간 사담을 하던 고정한이 술잔을 식탁에 소리가 나도록 놓으면서 전정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쏘련은 위력하며 위대한 나라요. 씨비리철도를 달려보면 야, 정말 넓고넓은 나라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광활한 씨비리 넓고 맑은 바이칼호수를 지나서도 꼬박 며칠낮 며칠밤을 달리지 않는가. 과시 넓고넓은 위대한 나라요.》

잠자코 듣고있던 전정호가 한마디 하였다.

《웁습니다. 첫 사회주의국가 쏘련엔 배울게 많습니다.》

전정호의 말은 고정환의 내심을 그대로 끄집어내었다.

《여보, 전정호. 난 요새 생각이 많아. 그 정 부수상이 있지 않나. 정일룡 그 사람 말이야. 무식하지. 머리에 글이 없는데다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야단이네.》

전정호는 듣기가 거북하였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고정환은 계속 열을 올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동무를 믿고 털어놓고 말하네만 현무광이란 사람도 정일룡부수상과 똑같은 기질이네. 무식하고 심술이 바르지 않네. 지응모, 박홍근이와 같은 자본주의탁류에 오염된 기술자들을 심복으로 끌어다놓고 쏘련에서 공부한 사람하고는 한사코 해보네. 맑스가 말했지. 무식은 아직 한번도 누구를 도와준적이 없다고, 무식은 악마와 같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 무식쟁이심술균들때문에 속을 썩이고 피해를 입은데 대해 다 말하자면 끝이 없네.》

열을 올리던 고정환은 묵중히 앉아있는 전정호의 얼굴표정을 얼핏 살펴보고는 거뭇한 곰고기덩이 하나를 저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자, 음식을 들면서 이야기하세.》 하고는 접시들에 담겨있는 물고기들을 가리키며 일일이 설명하였다.

《여기에 있는 이 물고기는 랑림호수에서 건져온거래. 랑림칠색송어요. 그리고 이건 장자강의 산천어야. 이건 동해의 명태와 고등어구.》

고정환은 실눈을 짓고 향수의 애달픈 감정을 담은 서정시를 읊듯이 목소리를 길게 끌면서 계속하였다.

《물론 이것들이 모스크바교외에 있는 이름난 그루지야식당에서 먹던 바이칼의 연어나 불가강에서 건진 칠색송어, 아랄해연안의 광어료리엔 견주긴 힘들어. 곰고기두 같아. 알타이곰고기엔 대비도 안돼. 쏘련에서 갓 나왔으니 우리 음식이 입에 붙지 않을수 있어. 6년을 빠다만 먹었으니 왜 안 그렇겠나. 나도 처음엔 그랬어. 차차 습관되니 건딜만 하더군. 그래두 힘이 들어.》

전정호는 물고기나 짐승고기마저도 조선의것은 쏘련의것보다 못하다고 력설하는 고정환의 말마디들에서 민족허무주의의 녀두리를 듣는것 같아 몹시 괴롭고 언짢았다.

하지만 고정환은 전정호의 기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열변을 토하였다.

《까놓고말해서 우리 나라야 인구상으로 보나 면적상으로 보나 쏘련하고야 대비가 되는가?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허리까지 잘리다나니 그것도 반쪽밖에 안되지 않는가. 부족한것이 너무도 많고 없는것이 너무도 많고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은것이 우리 조선이네. 우물안의 개구리다보니 이 척박한 땅에다 병기공장 몇개 세워놓고 만족해서 쏘련의 힘을 멀리하고 쏘련의 기술을 배울 생각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속이 타는 일일세.》

고정환은 주먹으로 뒤통수기를 툭툭 두드리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이며 전정호를 뵈히 지켜보았다.

《전동무, 이 조용한 기회에 자네를 위해 긴히 할말이 있네. 년장자의 충고라 생각하고 심중히 들어주기 바라네.》

고정한의 표정에서 무엇인가를 예감하면서 전정호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예, 어서 하십시오. 그러지 않아 저도 국장동지와 의논할 일이 있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동무가 포탄공장에 와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나도 몹시 기쁘게 생각하네. 그런데 유감스러운것은 계급적각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하는것이네.》

《그것은 무엇을 넘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전정호는 고정한의 느닷없는 말에 의아해졌다.

《동무는 왜 박홍근이 하는 일에 자꾸 끼여드나? 그는 국가지표에도 없는 철갑모를 만든답시며 몇년동안이나 자재와 로력을 낭비했는데 지금은 또 포탄생산공정을 제멋대로 단축해서 병기생산에 해독을 끼치고있네. 그런데 동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해줄뿐아니라 직접 손을 대서 도와주고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고정한은 의자에 걸쳐놓은 가죽잠바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면서 엄하게 물었다.

《예, 사실입니다. 박홍근은 성실한 지식인입니다. 저는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철갑모도 그렇고 생산공정을 단축해서 강철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이게 한것도 저는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적인 소행? 선진국가에서 과학적으로 제정한 강철포탄생산공정을 제멋대로 뜯어고친 그게 애국적소행인가? 그렇게 해선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그만큼 말하였는데 상급의 지시도 무시하고 군검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포탄을 생산해서

전선에 보냈으니 보통 엄중한가. 따지고보면 군사재판감이야. 그와 공모한자들이 이제 툭툭히 값을 치르게 되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로 해서 국장동질 기다렸습니다.》

《동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있으니 안 듣겠네. 자, 이거나 보게.》

고정환은 잠바주머니에서 꺼낸 글종이를 전정호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한성룡, 지응모, 류일룡, 유락중, 림민희, 김인호, 장룡운을 비롯한 열세명이름이 적혀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 박홍근이와 짝패가 되어 나쁜짓을 한 사람들인데 신통스러운것은 이들이 다 평시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던 놈들이란거네. 동무의 이름도 적혀있는걸 내가 지워버렸네. 이제 며칠후 리승엽동지가 검열그루빠를 인솔해가지고 포탄공장에 내려오네. 무사하지 못할걸세. 사실 매우 엄중한 반당적행위를 했거던... 여기 올라있는 이름들중 지응모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유락중은 로므니아에 가있는데 이제 불리워나올걸세. 우에서는 박홍근패들이 한짓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있네.》

전정호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고정환은 특별히 붉은줄을 밑에 그어놓은 림민희의 이름을 가리키었다.

《특히 박홍근의 애인인지 누이동생인지 하는 이 병원의사가 문제요. 이 녀자의 오빠는 괴뢰군장교를 하는 놈인데 최근 이 녀자는 서울에서 넘어온 간첩을 통해 오빠한테서 비밀편지를 받았소. 같이 일하는 간호원 도봉숙의 눈에 그게 발각됐네. 이런 녀자의 애인이 바로 박홍근이네. 각성을 높여야 하네.》

고정환은 수풍에서 있는 폭약사건과 군자리에서 있는 강뚝폭파사건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그 사건들이 다 박홍근이와 련관되어있다고 하였다.

전정호는 여간 놀라지 않았다. 럽민희의 오빠가 괴뢰군장교라는 말은 들었지만 럽민희가 간첩의 손을 통해 오빠의 비밀편지를 받았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지난 기간 포탄공장에서는 기능공 세명이 원인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십중팔구 럽민희의 작간일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홍근이 연구하는 철갑모의 소재를 절단하다가 샤링그날에 왼손가락 둘을 뭉청 잘리운 김영식청년이 럽민희한테서 치료를 받고있지만 손가락의 상처가 좀처럼 낫지 않고 날을 따라 더해간다는것이다.

《정호! 계급적각성을 높이게. 검열그루빠앞에서 립장을 똑바로 가져야 하네. 그앞에서까지 박홍근을 두둔해나서면 끝장이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리승엽동진 내각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이야. 그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천당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네.》

전정호는 고정한의 말을 더 듣고싶지 않아 일어섰다.

《벌려놓은 일이 있어 전 그만 가야 하겠습니다. 식사를 잘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정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정한의 지하요새에서 빠져나왔다.

고정한의 말은 빈소리가 아니었다. 그 며칠후 점심녘에 포탄공장으로 검은색승용차 한대와 보위색군용승용차 석대가 밀려왔다. 마침 공장합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때여서 전정호도 걸음을 멈추고 느닷없이 밀려들어온 승용차들을 놀랍게 지켜보았다.

누구인가 검은색승용차문을 열어주자 양복차림을 한 눈썹사나운 사람이 나오더니 마중나와 인사를 하는 리환구지배인에게 대뜸 욕을 퍼부었다.

《동무, 길이나 좀 닦고 살라! 앞으로 장군님께서 자주 다니실 길인데 이게 무슨 꼴이야. 강계에서 70리도 못되는 길에 내 영치가 다 거덜이 나는줄 알았다.》

그가 바로 리승엽이었다. 리환구는 굽혔던 허리를 펴지도 못한채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가지고 《예, 길을 당장 닦겠습니다. 가실 때에는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굽신거리고는 옆에 서있는 리백찬로동행정부장에게 직장들에서 사람들을 뽑아 당장 길닦이를 하라고 하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내가 리승엽이다.》 하고 소리치면 날아가던 산매도 깃이 얼어들어 땅바닥에 굴러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날 오후 4시경에 공장 기술, 행정간부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이였다.

사법성 국장 신동식이 여러명의 검찰일군들을 달고 들어와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인민검열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포탄공장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알리고 검열요강을 발표하였다.

신동식은 약간 비린청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자한자에 그루를 박으며 요강을 읽었다.

《포탄공장에서의 포탄생산을 저해하고있는 해독행위를 적발청산하기 위하여 본 검열그루빠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검열사업을 진행한다.

1) 포탄생산에서 국가병기심사위원회와 합의없이 자의대로 기술문헌을 고쳐 생산함으로써 군검제도를 마비시키고있는 문제

2) 국가계획에도 없는 지표 철갑모를 생산하여 전시병기생산에 무정부성을 조성하고 막대한 국가자금과 자재를 낭비한 문제

3) 노동규율이 문란하여 각종 사고를 발생시켜 군수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문제, 아울러 수풍에서 발생한 폭약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이상의 검열사업에 본공장 종업원들은 직위, 공로에 관계없이 누구를 물론하고 성근히 대하여야 한다.》

검열성원들은 검열요강을 발표한 다음날부터 정식 사업을 시작하였다.

첫날에는 박홍근, 한성룡, 림민희들을 불러내어 몇시간씩 담화를 하더니 다음날 첫시간에는 전정호를 호출하였다.

검열그루빠책임자 신동식이가 직접 그를 취급하였다.

《이미 검열요강을 주었는데 그동안 연구해보았소?》

신동식은 매우 온화한 목소리로 점잖게 물었다. 원래 요강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정호는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의 온긋지 않은 태도를 일별한 신동식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생산공정을 제멋대로 단축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군검제도를 마비시키고 포탄생산에 해독을 끼친것, 이것부터 알아보시다. 당신은 이 일에 어느 정도 끼여들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오? 그것부터 말해보시오.》

단긴형양복을 단정히 입고 앉아있는 신동식은 상대방의 대답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받아쓸 잡도리인지 손에 든 펜을 하얀 종이우에 곤두세우고 전정호의 얼굴을 얼음같은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말하겠습니다. 책임문젤 따지기 전에 우리 공장에서 무엇때문에 생산공정을 단축하게 되고 국가병기심사위원회의 합의를 볼수 없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전정호는 신동식이가 정확히 기록할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를 해나갔다.

《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1952년 12월부터 포탄공장에서 포탄생산을 배로 늘일데 대한 과업이 제기된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 주물포탄생산을 용선로설비를 개조하고 룬환식주물품생산방법을 도입하여 2배이상 높이고있고 강철포탄생산은 생산공정을 단축하여 2~3배이상 높이고있습니다. 생산공정을 단축한 이것이 바로 문제로 되고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정호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강철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강철포탄 한발을 생산하자면 무려 30회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공정이 특수강소재를 40센치의 길이로 자를수 있게 산소노즐로 자리를 냅니다. 그다음 그것을 권양함마로 내려쳐 자릅니다. 다음공정은 절단한 소재들을 밀차에 실어 가열로로 운반해다가 로에 집어넣고 무연탄불로 1 000도에서부터 그 이상의 온도를 높여 가열합니다. 그다음 로에서 꺼낸 소재가 프레스로 넘어갑니다.》

전정호는 계속하여 프레스공정에서 착출된 제품들은 선반에서 규격대로 절단하여 쉘타(축구멍)를 가공하고 외부1차가공을 거친 제품은 두번째가공에서 편육(포탄살의 두께)을 제거한다는것, 계속하여 약통실가공, 저부가공, 중사상가공을 거쳐 외부9차까지 끝내면 2차가공공정으로 넘겨 탄구단면과 신관좌가공을 하여 외부완성작업을 끝내고 뒤이어 경도검사, 돌부절단, 홈파기, 동띠감기, 프레스작업, 휘발유세척, 도장작업 그리고 포장을 해서 하조하여 작양장으로 넘기면 강철포탄생산의 30개 공정작업이 기본적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였다.

강철포탄생산공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속적인 설명을 마친 전정호는 신동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계속하였다.

《국장동지, 보다싶이 공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배치되어오니 박홍근기사가 찾아와서 이 복잡한 공정을 절반 줄이면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속도를 2~3배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이전부터 연구해온 도면을 내놓고 같이 협력해서 완성시키자고 했습니다. 내가 포탄의 질문제를 놓고 뜨아해하자 그가 포탄의 질문제는 목숨을 내걸고 담보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마적에 지응모부기사장도 우리 공장에 내려와있는 때여서 한성룡기사장, 지응모부기사장과 같이 저도 협력하여 박홍근책임기사의 공정단축설계도면을 완성시키였습니다.》

그것은 단능설비들을 많이 들어내고 지구형타들을 제작하여 만능설비들을 가능한것 최대한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생산공정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한계렬로부터 두계렬의 병렬생산체계를 수립하여 생산을 2~3배이상 늘이면서도 포탄의 질을 손색없이 보장하는 혁신적인 창안이였다.

전정호와 기사장은 이 도면을 들고다니며 국가병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배인과 병기생산국장에게 제기하였으나 그들은 도면을 료해하지도 않고 일축해버렸다.

전정호는 신동식에게 이런 내용을 죄다 말하고나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야금부장이었던 제가 생산부장으로 임명된 후 기사장에게 보고하고 군검을 받지 못했지만 자체결심으로 공정단축설계대로 강철포탄을 생산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제품의 질이 확고히 담보된 조건에서 그런 용단을 내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위원회 명령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한다면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관료주의적으로 묵살해버리는 지배인과 병기생산국장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부장동무의 말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웃간부들이 왜 승인을 하지 않았는가? 생산공정을 단축하면 제품의 질을 보장할수 없기때문이요. 쏘련에서랑 동무네만 못해서 그 복잡한 공정을 다 거치겠소? 전문가가 아닌 나도 병기생산국장의 말이 충분히 납득된단 말이요. 그렇지 않소, 부장동무? 동무도 쏘련에서 공부했으니 잘 알지 않겠는가? 쏘련병기기술이 우리와 대비나 되는가?》

신동식은 책상을 두드리며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제품의 질은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험치수가 말해줍니다. 쏘련에 비해 우리의 병기기술은 아직 낮습니다. 그렇다고 쏘련사람이 못한것은 절대로 우리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 동무 말하는거 보라, 점점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당신네들이 조작할수 있는 그따위 실험치수는 보지도 않겠소. 이 해독적행위에서 주모자는 박홍근이요. 박홍근이 어떤 놈인지 아는가?》

신동식의 목소리는 호령조로 나왔다.

《박홍근은 성실한 기술자입니다. 굳이 책임문제를 론하고싶으면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박홍근은 생산을 책임지고있는 나의 소속입니다. 공장의 생산문제는 생산부장인 내가 책임지고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동무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군검수제도를 마비시켜 출하하지 못한 포탄을 더미로 쌓아놓고있는 이 엄중한 상태를 동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거요? 지금 강철포탄생산은 령이나 다름없소. 국가병기심사위원회와 합의를 보지 않고 생산한 포탄은 전선에 보낼수 없소. 박홍근의 머리로 만들어낸 포탄을 이제부터 절대로 전선에 못 보내오. 그놈의 포탄이 전선에 배치된 우리 포들을 몽땅 못쓰게 만들거요, 군자리동쪽을 폭파하듯이.》

《포탄은 오작품이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다만 군검의 도장이 없을뿐입니다. 기술적담보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었기때문에 우리는 포탄을 생산하였고 현재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있습니다.》

《닥치라! 누가 동무에게 그런 무정부주의적인 권한을 주었는가?》

신동식의 점잖아보이던 기풍은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먹이를 본 굶주린 승냥이처럼 사나와졌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할것도 없다. 다음 철갑모에 대해서 물어보자! 철갑모도 동무의 결심으로 했다고 동무자신이 쓴 반성문을 보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철갑모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전선에서는 철갑모가 없어서 희생되는 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선참관을 나갔던 지응모부기사장도 철갑모를 썼더라면 목숨을 잃지 않을수 있었습시다. 철갑모를 연구하고 생산한게 무슨 잘못입니까. 철갑모에 대한 계획지표를 받지 못한것도 지배인과 병기생산국장때문입니다. 그들이 반대했습니다. 악랄할 정도로 반대했습니다.》

《동문 아까부터 병기생산국장과 지배인을 걸고드는데 아주 옳지 못해! 법앞에서 똑똑히 말하라! 지표없이 생산한 철갑모도 정말 동무가 책임지겠는가?》

신동식은 전정호를 아예 죄인दार듯 하였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뿐아니라 계속 생산하겠습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생명을 위하여...》

《너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어? 좋다, 네 요구대로 해주겠다.》

신동식은 정호앞으로 종이 한장을 쑥 내밀었다. 정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어보았다.

《나는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편안하게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쏘련류학을 마치고온 일군으로서 상급단위와 토론도 없이 기술문헌을 자의대로 고쳐 전시생산에 반당적, 반혁명적해독행위를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계획생산체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실지행동으로 도전해나선데 대하여 인정하며 그 어떤 법적제재도 받겠다는것을 서약한다.

1952년 12월 7일 전정호》

그것을 다 읽고난 전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국장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소. 왜 전선에 포탄을 못 보내게 하는가? 국장동무가 진정한 법일군이라면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인다루듯 하기 전에 생산공정을 단축하여 생산한 강철포탄의 품질에 대한 군검수부터 하게 했을거요. 당신네 검열그루빠의 첫째 임무도 바로 전선에 더 많은 포탄을 보내는데 있기때문이요.

여기 병기공장 로동계급을 머저리로 생각지 마시오. 여기 사람들은 군자리에서 있는 장룡운사건을 잊지 않고있소. 법일군이라고 다 애국자가 아니란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소.》

신동식은 전정호의 비수같은 눈길을 받으면서도 태연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소. 그때 장룡운을 취급한 도검사는 제기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보지 않고 형법조항에 기계적으로 매달리는 오류를 범했소. 그것을 시정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고있는가? 허허허, 바로 이 신동식이요. 그래서 장룡운은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소. 동무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박홍근은 색깔이 다른 놈이야. 그의 애인 림민희의 오빠는 국방군대령이야. 얼마전에 서울에서 들어온 첩자가 그의 편지를 가지고와 민희에게 전달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 그 조서에 수표하고 본래대로 생산하라! 솔직히 반성하면 용서해준다.》 하고 말을 마친 신동식은 정호가 쥐고있는 조서를 손에 쥐려고 했다. 순간 전정호는 몸을 획 돌려 그 종이장을 들고나가다가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고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 신동식의 얼굴에 쥐여뿌리고 나가버렸다. 신동식은 가랑잎처럼 훑날리며 떨어지는 종이장을 얼빠진 눈으로 멍청히 바라보았다.

신동식에게 등을 돌려대고 걸어가는 전정호의 귀전에서 《김일성장군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자들과 타협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신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메아리치는듯 하였다.

검열그루빠는 그후 김인호, 김영식, 장룡운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관계자들을 심문하였으나 《반당》이요, 《반혁명분자》요 하는 문구들이 들어있는 조서장에 수표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검열그루빠는 12월 중순에 갑작스레 철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가 열리게 되어 전원이 평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것이였다.

제 8 장

1

전쟁이 일어 해수로 세번째로 되는 1952년도가 바야흐로 저물어가고있었다.

새벽 2시, 며칠후(12월 24일) 조선인민군 고급군관회의에서 하실 연설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를 집필하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만년필을 놓고 천천히 집무실을

거닐며 지금까지 집필한 내용들을 더듬어보시었다. 조선전쟁의 본질과 성격, 인민군대의 성격, 조국해방전쟁행정에서 조선인민군의 장성과 그 상태, 우리의 당면과업체계로 서술하고있는 연설문은 3년째 계속되고있는 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총화인 동시에 조선전쟁을 통해 인류전쟁사를 비취보는 실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로작이었다.

최근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아이젠하워는 지난 12월초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떠벌이면서 전쟁확대계획을 모의하고 이른바 신공세를 준비하였다. 그는 조선전선에서 트루만이 당한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12월초부터 매일 정상적으로 700~1 000대의 비행기를 전선이북지역에 들여보내어 맹폭격을 감행하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아이젠하워의 속심을 뻔히 꿰뚫어보고계시었다.

최근 한달동안에만도 내각 제25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등 각 부문 중요회의들을 지도하시면서 보고서, 연설문, 정치로작, 축하문과 명령서 등 수없이 많은 집필을 하고 전선과 후방의 여러 지역을 종횡무진으로 다니며 현지시찰을 하신 그이께서 한해를 마감짓는 12월 하순에 또다시 밤마다 집필하시는 로작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는 미제의 《신공세》준비에 대한 우뢰와 같은 조선의 대답을 세계에 공포하는것이기도 하였다.

그이께서는 수술칼같은 예리한 필봉으로 죄악과 만행으로 가득찬 미국군대의 전쟁력사를 해부하시었다.

20세기초까지만 하여도 미국군대는 114차의 야수적략탈전에 참가하였다. 미국의 원주민들인 인디안인들에 대한 전멸은 미국군대의 류혈적력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첫째지였다. 하와이섬과 메히꼬, 필리핀, 아르헨띠나와 그밖에 다른 많은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참혹한 학살은 미국군대의 더러운 역사를 잘 말하여주고있다.

건국 이래 백수십차례의 전쟁에서 아직 한번도 저본적이 없다고 거드름 피우는 오만한 미제, 허나 오늘 조선전쟁에서 처음으로 참패의 쓴맛을 보고있다. 아이젠하워가 이 수치를 만회해보려고 《신공세》를 떠들고있지만 안된다! 인민군대를 더 강화하여 이놈들에게 또 한번 된 방망이를 안겨야 한다.

그이께서는 집무탁앞으로 걸어가시였다.

장방형의 넓은 집무탁에는 공격의 화살표와 진지방어의 톱날표들이 그려진 작전도들과 미구에 인민군부대들과 병기공장들에 내려보낼 최고사령관명령 제00841호와 군사위원회명령 제331호가 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군사위원회명령 제331호를 오래도록 심중히 들여다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실 때 작성된 군사위원회명령 제331호는 오늘 적들의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격파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군사적조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만년필을 들고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미행정부무리들의 물결을 그려보며 집필을 계속하시였다. 그이의 활달한 글발이 공격의 화살처럼 백지우에서 쪽쪽 뻗어나갔다.

그이께서 밤새워 연설문집필을 끝내고 일어서시었을 때 집무실 벽시계는 아침 6시 30분을 가리키고있었다.

부관이 집무실에 들어와 그이께 말씀올리었다.

《장군님, 정일룡부수상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수상이?》

그이께서 다소 의아해하시였다. 부수상으로 임명된 다음부터 정일룡은 김책의 본을 받아 매일 아침 그이께 찾아와 그날 할 사업과 전날 한 일들을 보고올려 가르치심을 받곤 하지만 7시도 되기 전에 온적은 극히 드물었던것이다.

《급한 일로 온것 같은데 빨리 들여보내시오.》

이윽고 부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선 정일룡은 긴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한밤을 꼬박 새우신 그이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따뜻이 답례하시였다.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에 왔소?》

《장군님, 포탄공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다니?》

그이께서 놀란 기색으로 정일룡에게 다가가시였다.

《이번 당5차전원회의에 참가한 한성룡기사장한테서 들었는데 사태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정일룡은 리승엽이 조직한 검열그루빠가 포탄공장에 내려가서 한것들을 거의 한시간 품을 들여 구체적으로 말씀올리였다.

《한성룡동무는 김열그루빠가 회의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걸 뺀다고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환대까지 통제하면서 전화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렇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없이 격분하시였으나 조용히 입속말로 뇌이시고 집무탁앞으로 걸어가시였다.

《부수상동무가 포탄공장에 가보아야 하겠습니까. 김열그루빠사업도 료해하고 이걸 부수상동무가 가지고가서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타자문으로 찍은 군사위원회명령 제331호를 정일룡에게 주시였다. 거기에 찍힌 글자들을 한자한자 새겨읽는 정일룡의 검은 눈썹이 구뿔거리고 검실한 두볼이 움썹거리였다. 군사위원회명령 제331호가 채택된데 대해서는 부수상 정일룡도 이미 알고있는 문제이지만 두개의 큰 병기공장이 또다시 소리치며 일어서는 광경을 금시 눈으로 보는것 같아 자못 흥분된것이였다.

《리승엽이 조직했다는 김열그루빠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소. 부수상동무가 빨리 내려가서 그곳 실태를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겠소.》

《장군님, 그 사람들이 양력설을 쇄고 포탄공장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들보다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에는 평양에 있고싶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묵묵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1952년 12월 24일은 김정숙동지의 탄생 35돛이 되는 날이였다.

방안에는 엄숙한 정적이 깃들었다. 정일룡은 김일성동지의 침묵이 얼마나 길었던지 알지 못했다.

《12월 24일에는 부수상동무가 꼭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포탄공장동무들에게 군사위원회명령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정숙동무의 생일 35돛을 기념하여 글을 하나 썼으니 그거면 정숙동무는 만족해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집무탁앞으로 돌아와 두툼한 글종이뭉음을 집어드시였다. 그것은 바로 간밤에 쓰신 연설문 《인민군대를 강화하자》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의 탄생 35돛이 되는 1952년 12월 24일에 조선인민군 고급군관회의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긴 연설을 하시였다. 그로부터 한주일후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41호 《진지방어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하달하시고 1953년 1월 1일에는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1953년 새해를 맞이하여》라는 축하문을 내려보내시였다. 그후 한주일 남짓이 지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53차회의에서 미제의 《신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주제로 강령적인 말씀을 하시였다.

이 문헌도 군사위원회 제53차회의가 있기 전날 한밤을 꼬박 새워 쓰신것이였다. 언제나 바쁘신 그이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군잠에 든 한밤중밖에는 집필하실 여유가 없는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전선과 후방의 모든 력량을 적들의 <신공세>기도를 분쇄하는데 집중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이 문장을 흰 종이에 써나가시던 때는 밤 2시였으나 워싱턴에서는 밝은 대낮이였다.

아이젠하워는 그무렵 《눈이 나쁜 트루먼은 조선전쟁을 바로 볼수 없다.》고 빈정거리면서 조선전쟁을 역전시킬 비상한 《숨씨》를 보이려고 매일과 같이 모사들과 마주앉아 머리를 쥐어짜고있었다.

2

미중앙정보국 극동담당차관 잭슨은 아이젠하워의 부름을 받고 새로 국무장관자리에 올라앉은 덜레스의 밀실로 가고있었다.

그곳은 워싱턴에서도 유명한 캐피틀언덕에 자리잡고있었다. 미국회의사당패거리들이 집중되어 살고있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화려한 주택들이 있는 곳이다.

이 화려한 한 저택에 특수하게 꾸려진 덜레스의 밀실이 있다.

덜레스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살았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자 그가 이보다 좋은 집을 해결해주어 가족족속들을 데리고 집을 옮기다보니 지금 이 저택에서는 그의 정부가 하인들을 데리고 살고있었다.

잭슨이 이 집으로 오고있을 때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브렛틀리와 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도 아이젠하워의 부름을 받고 여기로 오고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오늘 덜레스의 이 밀실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선전선에서 새 대통령으로서 벌리게 될 《신공세》작전의 서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려는것이였다.

달리는 차안에 앉아있는 잭슨의 마음은 무겁고 번거로웠다.

우선 대통령이 자기를 찾는 리유를 알지 못하는것이였다. 아침에 불시에 텔레스로부터 대통령이 부른다는 기별을 받았을뿐이기때문이였다. 그리고 북조선에 파견되여간 첩자들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지난밤에 거의 눈을 붙여보지 못하고 교신기결에 서있었기때문이다.

어제 저녁 10시경에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에 파견되여있는 요원 캐놀로부터 비극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은어로 표현한 캐놀의 전화내용은 평양에 들어가있는 박헌영, 리승엽의 망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것이였다.

그 내용은 전부 암호문으로 타전되여왔다. 암호가 변신원을 통하여 풀이된 내용이 즉시 잭슨의 책상우에 놓여졌다. 그것이 잭슨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

《(극비: No 141호 1953년 1월 20일 서울발)

평양의 박헌영의 타전내용

포탄공장에 나가 <검열>중에 있던 신동식(박이량) 급히 <검열>을 중지하고 평양으로 철수, 그의 망원들이 꼬리달려 활동정지. 모두 3국으로 탈출시도. 리승엽 전전공공 시급히 대책 요함. 1953년 1월 20일》

잭슨은 교신기결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망원들에게 들이닥친 엄중한 사태를 놓고 머리를 췌짚지만 신통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짤막한 타전문을 날렸을뿐이였다.

《국익은 당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탈출은 허용할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도 정보일군답게 처신할것. 잭슨. 1953년 1월 21일 미국 워싱턴》

잭슨이 막연한 전보문을 날렸을 땐 날이 희뵤히 밝아오고있었다. 그는 박이랑에게 임무를 주던 밀실에 들어가 안으로 문을 걸어 침대에 꼬꾸라져 깊은 잠에 들었다. 이날 아침 잠간 눈을 붙인 시간에 델레스의 전화가 왔던것이다.

델레스의 밀실에는 다섯사람이 모여 이야기하고있었다.

안락의자에 앉아 길쭉한 얼굴에 유별나게 흰자위가 큰 눈을 가지고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고있는 사람이 34대미국대통령인 아이젠하워다.

그앞에 무릎이 올라오도록 쏘파에 엉치를 깊숙이 박고있는 두사람중 오른쪽은 이번에 국무장관이 된 델레스이며 왼쪽은 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이다. 그리고 오른쪽쏘파에 앉은 사람은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렛틀리이고 그 왼쪽사람은 이 자리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미중앙정보국 동양력사학 박사인 극동담당차관 잭슨이다.

사람들을 일별해보고난 아이젠하워는 극한점에 이른 조선전쟁을 놓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조선전쟁해결방도를 두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원자탄에 의한 전쟁확대인가 아니면 현 계선에 주저앉아 영예로운 정전을 실현하겠는가. 어느쪽인가?》

이것은 그가 며칠전에 비밀리에 듀폰재벌의 본거지에 찾아갔을 때 마이코가 한 말을 생각하며 한 말이였다.

마이코란 피에르 듀폰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최대의 화학독점체를 지배하고있는 전쟁상인이다.

마이코는 아이젠하워에게 말했었다.

《나는 대통령각하가 조선전쟁을 우리의 념원대로 능숙하게 지휘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트루먼을 누르기 위한 선거유세때에 <체이스맨하탄>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아낌없이 지원한것은 각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선거유세지원금을 정치적빚으로 얹어놓고 훈시조로 뇌이는 마이코의 이 말은 아이젠하워의 기분을 잡쳐놓았으나 그는 내색하지 않고 참아야 했다.

속담에 빚진자는 썩은 새끼오리에도 끌려온다는 말이 있다.

미국대통령들은 미국전쟁상인들의 리익과 요구를 절대로 외면 못한다. 아이젠하워는 빚을 내여 미국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국회에서 한 첫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는 전쟁경제이며 미국의 번영은 전쟁번영이라고 내놓고 말해서 전쟁상인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말은 미국전쟁상인들의 요구를 발벗고 지켜나서겠다는 그의 언약이기도 했다.

미국에는 《포트녹스》라는 유명한 금저장고가 있다.

그곳은 미국의 최첨단고도기술에 의하여 철통같이 보호되고있지만 그 주변에는 잘 훈련된 군견들이 항시적으로 우글거리고있다. 금저장고를 지키는 개새끼들이다. 미국의 역대대통령들 역시 《포트녹스》의 군견들처럼 미국의 대문앞에서 전쟁상인들의 리익을 지키는 개에 불과했으니 미국땅 수십개주에 군수생산종합체를 가지고 군수공업의 명맥을 틀어쥐고있는 마이코앞에서 빚진 종의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아이젠하워는 말 한마디 똑바로 못했다.

나라의 경제와 군수명맥을 틀어쥔 독점재벌인 전쟁상인들앞에서는 대통령도 굽신거리지 않으면 안되는 미국사회이고보면 아이젠하워인들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속마음을 꿰뚫고있는 덜레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선전쟁이 미국을 불안케 하고있습니다. 날을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커가고있지 않습니까? 38도선을 우리가 전쟁을 시작할 때 계획했던것처럼 압록강, 두만강계선으로 밀어올리지 못하면 국민앞에 나설 면목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인 우리모두는 신임대통령각하를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조선전쟁도발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덜레스의 이 말은 아이젠하워의 마음에 들었다.

한쪽손에 파이프를 든 맥아더가 덜레스의 말꼬리를 물었다.

《웁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가야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본인의 참가없이 조선전쟁의 참패원인을 나에게 들쭉위 군직과 권위를 빼앗아낸 민주당패의 처사에 나는 지금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나를 다시 서울로 보내주시오. 그러면 이번엔 서울에 틀고앉아 민주당것들에게 본패를 보여주겠소.》

서울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맥아더의 이 객기에는 자신의 군직을 부당하게 처리한 민주당패의 처사에 반발하는 심리와 함께 최근에 자신에게 참을수 없는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우화적인 사건을 고안해낸 민주당패거리들에 대한 울분의 감정이 담겨있었다.

지난해부터 미국 서부에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썬프런씨스코에서 미국무성소속 국회의원 앤드루의 발기에 의해 《조선에서 손을 떼라》회가 조직되어 반전활동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반전단체에서 고안해낸 《조선전쟁유물전시회》에

미국병사들을 조선전쟁에 파견할 당시 조선에 가면 금이 많아 주민들이 집에서 쓰는 화식기재들도 다 금으로 되어있다고 선전한 맥아더의 연설자료와 그 선전을 곧이 듣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달려간 병사들이 낫제품들을 미친듯이 긁어모으다가 개죽음을 당한 자료가 그대로 전시되어 큰 웃음거리로 되고있는것이다.

입부리가 사나운 방송원들과 유모아의 명수들인 신문기자들이 앞을 다투어 경쟁적으로 이 사실을 특보감으로 보도했다. 어느 한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려있었다.

《전 <유엔군>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씨, 대통령에게 선물한 조선 마지막황후인 명성황후의 애용품 <금요강> 경매에 출도, 월가의 딸라주인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낫동이, 낫대접, 낫대야, 낫요강 등 무려 30여가지나 되는 그 명세서에 《맥아더씨는 조선전쟁기념으로 트루먼대통령에게 명성황후의 <금요강>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십중팔구 낫제품일것이다.》라는 야유의 글이 덧붙여있었다.

그리하여 한생을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싸운 미국의 유명한 맥아더원수를 두고 향간에서는 《낫바리장군 맥아더》, 《금요강장군 맥아더》라는 낱말이 생겨나 울분과 치욕속에서 노상 부아를 터치고있던 맥아더였다.

맥아더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아내기 힘들어 씨근거리며 전쟁확대소리를 연발했다. 《대통령각하, 핵무기를 써야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길썩한 얼굴을 들며 서둘러 동을 달았다.

《덜레스장관과 맥아더씨의 이야기는 막중한 대통령의 임무를 지니고있는 나로 하여금 생각을 깊이 하게 합니다. 나는 우선 맥아더씨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한생을 미국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친 로장군의 애국충정에

머리를 숙입니다. 현재 조선전쟁상황을 볼 때 매우 위태롭습니다. 1950년 8월위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조선을 평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선전쟁을 현상태에서 결속하자는 의견도 나돌고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얼마전에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한 군사평론가의 글을 읽어본것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선전쟁을 조건부없이 중지하겠는가 아니면 시급히 동족간의 전쟁으로 밀어붙이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는가. 또는 조선의 가장 좁은 허리에서 현재보다 짧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공중과 바다에서 동시에 상륙 및 돌파전을 개시하여 현 전선을 압록강으로 밀어올리면서 중국 본토에로 전쟁을 확대해야 할것인가. 미국의 전략문제와 관계된 이 세가지 문제를 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아이젠하워는 차잔을 들어 목을 추기고 얼핏 브렛들리의 표정을 살피었다. 그는 조선전쟁의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사람이 브렛들리라고 생각하였다. 덜레스가 분계선을 싸다니면서 전쟁도발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트루먼에게 보고한 내용을 제일 정확히 알고있는것도,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고 그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썩워 조선문제를 세계화하여 유엔에 제소할 모략을 꾸민 사람들중의 한사람도 역시 브렛들리인것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은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킬수 없다는데로부터 6월 25일에 전쟁의 불을 지르게 하고 그후 미국의 전쟁형세가 기울어지자 그 책임을 맥아더에게 넘겨썩워 그를 군직에서 제거할 모략을 꾸미고 그것을 트루먼의 입을 빌어 실현시킨 사람도 다름아닌 브렛들리였다.

아이젠하워의 시선을 받은 브렛틀리는 자기 의사를 표명하려고 헛기침을 몇 번 하였다.

《심중히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 동맹국들의 동향문제입니다. 영국은 더는 조선전선에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칠수상의 동의를 받아 영국정부의 공식립장을 표명한 타전문을 영국국방부에서 어제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기타동맹국도 같은 립장입니다. 다만 대만의 장개석과 일본의 요시다 그리고 리승만만이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대세의 추이에 맞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렛틀리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말하자는것이 명백했다. 한마디로 전쟁확대를 반대하는것이였다.

맥아더와 델레스는 못마땅한 표정이였다.

맥아더가 불쑥 내쏘았다.

《원자탄은 뭘하는건가? 끼고만 있는것이 원자탄인가. 쓰지 않으면 있는것도 없는것이나 같지 않는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우리는 이미 재미를 보지 않았소?! 우리가 그때 원자탄을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보다 먼저 로씨야가 일본땅에 들어갈수 있었을지도 모르오.》

델레스가 맥아더의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무기란 쓰기 위해 만드는데있어요. 한두개 써보면 알아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시기 20대의 시절부터 미국의 외교사절로 유럽지역에 나가 맹활약을 한 델레스는 맥아더와 달리 타협조가 비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브렛틀리는 물러서지 않고 말하였다.

《조선지형에서는 원자탄이 의의가 없습니다. 산악이 령토의 78프로이상입니다.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서 적아가 머리를 맞대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습니까? 일본땅에는 아군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제적환경입니다. 소련에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공산권나라의 국제적뉴대와 련대는 미국식사고방식으로는 리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의 워싱턴상공에서 원자탄이 폭발한다면...》

브렛틀리는 뒤말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여보 늑다리, 한번 빠진 구덩이엔 개새끼도 안 빠진다는데 당신은 조선전쟁에서 그렇게 쓴맛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자칫하면 조선전쟁으로 하여 미국의 력사가 끝장날수 있다는걸 생각해봤는가?》 하고 맥아더를 꾸짖고있었다.

잭슨은 지금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덜레스가 잭슨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당신은 대통령각하의 신임으로 이 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통령각하는 새 작전수행에서 미중앙정보국을 크게 믿고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품들여 키운 정보원들을 써먹을 때는 드디어 왔습니다. 잘 준비하여 대통령각하의 기대에 보답하기 바랍니다.》

잭슨은 지금 덜레스가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있는지 알고있었다. 오래전에 품들여 평양에 보낸 박헌영, 리승엽들에게 준 행동강령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는것을 말하고있었다.

전쟁전 중앙정보국 장관으로 있을 때 덜레스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와 미국동군사령부 항공정보관 니콜스를 비롯하여 버트(미24사단 헌병사령관), 비취(하지의 정치고문), 노블(서울주재 미국대사관성원)을 통하여 많은 첩자들을 평양에 들여보냈다.

그 당시 미중앙정보국의 대북첩보활동을 막후에서 조종한자가 바로 덜레스의 모사인 잭슨이었다. 그때 원대한 첩보의 경륜을 뒀던 잭슨은 지금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하고있는터여서 아무런 발언도 하고싶지 않았다. 어제 서울에서 보내온 캐논의 타전문은 눈앞에 천길벼랑턱을 세워놓은듯 그를 아찔하게 만들었던것이다.

하지만 아이젠하워가 꺾은 보리자루처럼 곁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를 이 밀실에 불러온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묵묵히 앉아있는 잭슨을 돌아보며 현 북조선의 군사정치정세의 실상에 대하여 말해보라고 하였다.

잭슨은 일어나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 북조선에서는 당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김일성**장군의 보고에 대한 토의사업이 벌어지고있는데 이것으로 하여 우리 첩보망의 보루가 허물어질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꼭지를 댔 잭슨은 원자탄에 의한 전쟁확대냐, 영예로운 정전으로 조선전쟁을 결속하느냐 하는 운명적인 논의가 벌어지고있는 이 마당에서 모든것을 사실그대로 이야기할 결단을 내리었다.

《대통령각하, 여기에 최근 영국의 로이터통신에 실린 **김일성**장군 회견기가 있습니다. 이 기사 한건이면 북조선의 실상을 다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친 잭슨은 가방안에서 통신자료들을 꺼내여 대통령과 그 수원들에게 한부씩 나누어주었다. 대통령의 《신공세》문제를 두고 심각한 얼굴로 아이젠하워의 눈치를 살피던 사람들이 모두 잭슨이 내여준 자료에 눈길을 주었다. 방안은 일시에 잠잠해지였다. 아이젠하워의 눈길은 통신자료에 깊숙이 박혀지고있었다.

…윌리엄의 회견요청이 **김일성**장군님께 전달된것은 그이께서 모란봉지하극장휴계실에서 공화국의 이름있는 과학자들과 담화를 하고계실 때였다.

윌리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중요협의회로 하여 낮에는 손님을 만나주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손님이 불편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잘 돌봐주라고 하시였다.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과학자들과 백두산대홍단지구를 개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계시였다.

《전쟁은 멀지 않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백두고원에 대한 조사사업을 빨리 끝내고 그곳에 군인들을 전선에서 뽑아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백두대지를 잘 개간하여 감자농사를 발전시키면 백두대지를 이름난 감자생산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이어서 서해안의 넓은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지금 전쟁을 하고있지만 우리의 승리는 불보듯 명백하기때문에 동요없이 이 개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서해안의 작은 섬들을 모두 연결하고 간석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전변시키면 조국의 지도가 달라질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간석지를 개간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지만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사대주의정치와 민족문화발전을 가혹하게 탄압한 일제의 반민족적식민지통치때문에 얼마전에야 비로소 과학원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 걸어야 하며 또 걸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기과학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상설적인 병기과학연구소도 나오게 될것입니다. 병기과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분야는 금속, 기계, 약전, 화학 등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입니다. 특히 강철생산과 알루미늄합금, 주라늄합금, 티탄합금 등 금속합금에 대한 전망적인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금속연구사업에서는 콕스를 쓰지 않고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한 강철생산체계를 반드시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김일성장군님의 교시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는 우선 멀리 가고 위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기의 질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병기생산에서 우리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첫째가는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총을 우리 군인들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들면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것입니다. 군인들의 체질에 맞게 하라는것은 우리 군인들이 서양사람들에 비해 몸집이 크지 않다는것을 고려해야

한다는것이며 자연지리적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산지가 평지보다 더 많다는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무기를 기동에 편리하게 가볍게 만들면서도 그 위력을 높이는것, 이것이 병기생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무기생산에서 경량화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병기생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병기제품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우리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총의 질을 높여 멀리 가고 위력하며 우리 군인들의 체질과 지형조건에 맞게 모든 무기를 자력갱생하여 만들어내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무장장비생산의 3대원칙인것입니다.

나는 해방직후 우리가 병기공업을 일떠세울 때 벌써 이 원칙을 내놓고 병기공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장군님의 교시에 더욱더 심취되었다.

《병기공업은 전쟁일반에 필요하지만 평화를 위하여 더욱 필요합니다.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는 말로 담보되는것이 아니라 강한 물리적인 힘,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의해서만 담보됩니다.

병기공업은 나라의 공업구조에서 핵심공업으로 되며 나라의 생명선으로, 명실공히 나라의 명맥으로 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병기공업발전에 선차적주목을 돌리고 거기에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이 전략적방침은 지구상에 미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리승기선생이 진행하고있는 비날론연구사업과 계응상박사에 의하여 추진되고있는 비단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데 이어 어학, 력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부문의 학자들과도 담화를 하시였다.

각 부문의 과학자들과의 담화를 마치시였을 때는 밤 12시가 가까와오던 때였다.

밤 0시, 바로 이때 윌리엄은 하루의 사업을 끝내고 새날을 맞이하신 김일성동지의 첫 손님이 되였다.

윌리엄이 깅듯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당신은 우리 나라의 최대의 적대국인 미국의 동맹국에서 온 손님입니다. 먼길에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당신을 만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례의도덕이 밝은 조선민족의 한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차버리는 조선사람은 없습니다.》

윌리엄은 또다시 감동되였다.

《나는 오늘 대단히 바쁩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구대로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전쟁때문에 바쁘신 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심정 그대로 말씀올렸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조용히 부정당했다.

《아닙니다. 전쟁때문에 내가 바쁜것은 없습니다. 전후에 할 일때문에 바쁩니다. 전쟁은 다음해 상반기에 전후하여 끝날것입니다.》

《?!》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한 강토안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매우 선량한 평화애호적인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의아니게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탐욕스럽게 강점하고도 그것이 성차지 않아 전쟁을 일으켜 공화국을 강점하고 조선반도를 아시아대륙을 침략할 교두보로 만들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 야심적이며 탐욕적인 전략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절대로 이길수 없습니다. 미국은 걸핏하면 원자탄을 쓰겠다고 호통을 치는데 참 가소롭습니다. 원자탄은 결코 만능이 못되며 또 그것이 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은 조선에서는 원자탄이 크게 효력을 내지 못할뿐아니라 적아가 붙어돌아가는 조선전선에서 원자탄을 쓰면 오히려 미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자, 보시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있는 이 지하극장이 몇미터깊이에 들어와있었는지 압니까? 우리 나라는 전선과 후방이 모두 이처럼 원자탄도 막아낼수 있도록 요새화되어있습니다.》

월리암은 저도 모르게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큐리 뵘에르는 라듐을 발견하고나서 만일 라듐을 나쁜 놈들이 쓰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는가고 걱정했다는데 그의 부인 큐리 마리가 한생을 바쳐 연구한 소중한 유산이 현실적으로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무고한 근로인민을 학살할 살인무기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원자탄을 휘둘러대며 인류를 위협하고있지만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입니다. 이것은 력사가 밝혀준 진리입니다. 히틀러, 도쥬, 무솔리니 등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력사의 교훈으로 하여 전쟁기간에도 병기공업을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그 발전속도는 눈부십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한다고 해도 이 지구에 미국이 있는 한 우리는 병기공업과 병기과학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을것입니다. 나는 조금전에 우리 과학자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병기공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전략적목표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때 **김일성**장군님곁으로 부관이 한 일군을 데리고 들어왔다.

부관이 나가자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이분은 영국 로이터기자입니다. 개의치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일군은 들고들어온 종이두루마리를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지도에는 여러가지 색으로 표시된 부호들이 뚜렷이 찍혀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지도를 주의깊게 보시고 말씀하시였다.

《여기에 표기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총탄공장과 자동무기공장, 포무기공장들의 위치는 내가 이미 오래전에 보아둔 자리들입니다. 빨리 공장건설을 끝내고 시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장군님, 알았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떠나면서 장군님께 결론을 받자고 들렸습니다.》

그 일군이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나가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윌리엄에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병기공업부문 일군입니다. 이미 우리는 병기공장들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곳에 공장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장건설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나는 전선에서 군대를 뽑아 군수공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감공사를 하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병기를 생산하게 될것입니다.》

월리암은 순간 큰 방망이로 머리에 타격을 받은것처럼 어리뻑뻑해졌다.

(아이젠하워는 동맹국들에 병력지원을 요청하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군대를 뽑아 후방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런 정신력을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심어주어 미국을 상대로 병기공업을 일떠세우신 **김일성**장군님의 출현은 일찌기 타고르가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예언한 그 빛에 대한 상징이 아니겠는가.

다음순간 월리암은 부정했다. 타고르의 표현은 지금에 와서는 취약하다. 타고르가 표현한 빛이라는 단어보다 그 자리에 태양이라고 쓰는것이 시대의 공정한 주장일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미국의 첩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도깨비감투를 쓰고 돌아다니지만 하느님의 눈은 속일수 있어도 인민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미국이 환기를 드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침묵속에 한참 통신을 읽고난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측근들의 눈은 별거우리하게 달아있었다.

아이젠하워는 통신에서 받은 심리적압박을 애써 참으며 브렛들리에게 말했다.

《의장각하는 원자탄이 조선전선에서 무의미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신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곳으로 찌르는듯 한 대통령의 질문에 브렛틀리는 선뜻 《각하, 저는 <신공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전쟁확대안에 많은 연합국들이 동요하고있는 형편에서 어느 한 요충지역에서 미연합군의 저락된 사기를 돋굴수 있는 《시범전투》를 조직하면 전쟁형세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신공세》의 서막에 적군을 소멸하는 짙은 피비린내를 풍겨야 한다는것이였다.

브렛틀리는 랭담한 얼굴로 이렇게 덧붙이였다.

《우리 미군의 위력을 눈으로 볼수 있게 하는 피사체가 필요합니다. 현재 영국이 조선전쟁에 더는 군대를 증파하지 못하겠다는 공식립장을 표명해왔지만 우리가 시범전투를 조직하여 성공시키면 그들의 립장을 순간에 돌려세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시범전투다! 장소는?... 연합군사령관은 정형고지를 중시하고있다. 정형고지를 타고앉아야 한다. 폭탄, 포탄을 들썩워야 한다. 조선전쟁의 《모범전투》, 대통령의 《시범전투》를 조직하자!)

아이젠하워는 불시에 흥분하면서 덜레스와 맥아더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도 파문이 일어나고있었다.

《시범전투에 대한 말이 나오니 나뿔레옹이 보로지노전투에서 애꾸 꾸뚜조브에게 패하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아, 저 절벽! 저 절벽때문에 우리가 패했구나!> 하고

통탄했습니다. 나뽤레옹군대에는 절벽이 불가항력적인 장애물로 되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절벽도 다 날아 넘을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비행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수백대의 비행기로 시범전투장소에 불의에 선제타격을 가하면 아무리 신화적인 **김일성**장군이라도 안됩니다.》

맥아더가 손에 든 파이프를 흔들며 호기있게 말하였다.

보로지노에서 모스크바로 들어가자면 절벽밑으로 난 길을 통하여야 하는데 꾸뚜조브는 이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나뽤레옹군대를 소멸하고 로프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전투가 꾸뚜조브에게는 로씨야군대의 사기를 양양시킨 승리의 시범전투로 되었다는것이다.

《웁습니다. 무릇 전쟁사에는 전쟁형세를 역전시킨 시범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맥아더장군이 말한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와 비행대가 있으므로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비행기 300대만 시범전투에 동원하여도 개미새끼 한마리도 살아날수 없게 할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장담하는 목소리가 밀실안의 공기를 크게 울리였다. 덜레스도 귀를 도사려 그 목소리를 만족스럽게 들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자 맥아더는 한층 더 기고만장해졌다. 오직 잭슨만이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였다.

조선민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한 동양력사학자이고 그리스도교인이며 정보전문가인 잭슨은 종교적인 눈과 과학적인, 역사학적인 눈으로 어울러본 오늘의 북조선과 **김일성**장군에 대한 견해를 털어놓았다.

《조선에는 여러 갈래의 종교들인 불교와 유교를 비롯해서 천부경을 신봉하는 민족교인 대종교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현대의 조선사람들이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맹자,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자체민족교의 한울님 이상으로 **김일성**장군을 우러르고 신뢰하는것입니다.》

잭슨은 불현듯 귀전을 스치는 거친 숨소리에 잠간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였다.

《그래서 지금 조선인민은 단두대우에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고있고 불과 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싸우고있는것입니다. **김일성**장군이 영국 로이터기자와의 회견에서 이야기한 조선인민의 무한한 정신력이란 사실상 **김일성**장군에 대한 신앙심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입니다. 이 정신력에 군사무력이 안받침되고있습니다. 제일 무서운것은 최근 포무력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의 첩자들이 북조선의 포생산에 장애를 놓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활약하고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잭슨은 대통령앞에서 감히 말하기 힘든 문제들을 다 터놓은 다음 이렇게 결구를 달았다.

《대통령각하, 각하께서는 지금 정형고지에 대한 시범전투를 시도하시는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김일성**장군은 실지 신령스러운 장군입니다.》

잭슨은 이러면서 캐놀, 박헌영, 리승엽으로부터 받은 타전내용을 공개하였다. 순간 아이젠하워는 앞상을 두드리며 불쾌하게 뇌까렸다.

《잭슨씨, **김일성**장군을 찬양하고 북조선을 선전하라고 당신을 여기로 불러오지 않았소. 우리 미국을 모욕하고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다시한번 더 하면 하느님이 용서치 않을거요.》

아이젠하워의 성난 목소리를 듣고 맥아더도 손에 들고있던 윌리엄의 회견기를 앞상에 휘뚜루 내던지었다. 아이젠하워가 잭슨을 노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잭슨! 당신은 아주 위험한 신앙을 불어넣고있소.》

잭슨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방안에는 찬공기가 떠돌았다.

잭슨의 의견을 문질러버린 대통령은 《신공세》의 서막으로 정형고지에서 《시범전투》를 단행할 결심을 내리었다. 그는 앞으로 미국본토에 있는 예비대의 병력을 포함한 막대한 병력과 수많은 함선, 비행기를 비롯한 전투기술기재들을 조선전쟁에 들이미는 한편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조선전쟁에 일본무력을 더 많이 끌어들이뿐아니라 장개석군대까지 끌어올 생각을 하였다.

그는 밀실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시범전투》를 성공시켜야만 《신공세》의 전략을 용이하게 실현시킬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요즘은 포탄공장에서조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문헌에 대한 학습열풍이 불고있었다.

이 문헌학습을 하면서부터 포탄공장의 적지 않은 종업원들은 검열그루빠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일성동지의 보고에는 《검열은 검열을 위한 검열로 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검열은 결정실행을 위한 조직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합니다. 검열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결점들만 들추어내려고 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에 퇴치하도록 당단체들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검열은 반드시 일정한 목적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되 준비된 책임간부들로 조직할것이며 나타난 결함들의 원인을 밝혀주고 그것을 시정할 방침을 명확히 가르쳐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라고 지적되어있었다.

그런데 설을 쇠고 다시 포탄공장에 내려온 검열그루빠는 여전히 강철포탄생산제품이 군검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산자들과 생산지휘자들에게 법규를 위반한 《반당반혁명분자》의 감투를 씌워놓고 조서장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강박하였다.

한번은 포탄제1직장 직장장이며 공장직맹위원장인 김인호가 그들의 심문을 받을 때 당신네들은 장군님의 교시와 어긋나게 검열사업을 하고있다, 전번에 내려왔다가 올라간 정일룡부수상도 당신네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고 책상을 치며 들이댔다. 그러자 검열그루빠책임자인 신동식은 《여보, 그건 당사업부문의 검열과 관련된 교시요. 반혁명분자들에게는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쇠몽둥이가 적용될뿐이요. 부수상도 법앞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오. 우리 검열그루빠는 내각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인

리승엽동지가 조직한 그루빠요. 내각인민검열위원회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법으로 만드는 최고검열권력기구요. 그걸 알아야 하오.》 하고 올리메였다. 검열그루빠는 매일과 같이 《범죄혐의자》 들을 불러내여 묶아댔다.

럼민희는 이날도 검열그루빠에 불리워가서 시끄러운 취조를 받았다. 그들의 요구는 오빠의 비밀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와 어떤 방법으로 접선하고있는지 자백하라는것이였다. 그리고 박홍근이가 국가지표에 없는 철갑모를 연구하고 생산공정을 단축하여 강철포탄을 생산하게 만든것도 간첩의 임무를 받고 한것이 아닌가고 다블러댔다. 1월 31일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묶어가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다.

그것은 작년 12월초에 있던 일이였다.

어느날 김영식이네 집에 왕진을 갔다가 어두운 밤에 의무실로 돌아오는데 불현듯 검은 색안경을 낀 사나이가 길을 막으며 《럼민희씨이지요? 서울에 계시는 오빠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고 편지봉투를 쥐여주고 어둠속으로 바람처럼 사라졌다. 민희는 널뛰듯 하는 가슴을 안고 의무실로 돌아와 속지를 꺼내보니 영문으로 쓴 편지였다.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이제 미국사람들이 전쟁유사이래 처음보는 대공세를 하게 된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북조선의 우리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다. 너도 우리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홍근이한테도 잘 말해주거라. 병기공장에 있는 너희들에게 할 일이 많다. 우리 사람들을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빠 럼민정 1952년 12월 1일》

럼민희는 그날로 그 편지를 당위원회에 바치고 밤중에 박홍근에게 알려주었다. 박홍근이나 당위원회에서도 모략인것 같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민희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편지를 영어로 썼기때문에 더욱 오빠의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의 영어필체와 비슷하였다.

지난해에는 이밖에도 민희의 신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위병과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던 3명의 노동자가 급작스레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박홍근이 하고있는 철갑모소재를 절단하다가 샤링그날에 두손가락을 잘리운 김영식의 상처도 낫지 않고 골수염으로 번져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마적에 민희의 책상빠람으로 드문히 괴이한 편지쪽지가 날아들곤 하여 경악실색하곤 하였다.

《오빠는 산에서 민희를 지켜보고있다. 불원간 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가닿게 된다. 너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해서 간부들을 모조리 독살하라...》

럼민희는 이즈음에 와서야 《오빠의 편지》가 적들의 모략일수 있다고 한 박홍근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그것은 《오빠의 편지》에서 받아안은 룩감이였다. 어쩐지 그 편지에서는 오빠의 체취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웬일인지 병원에 같이 있는 간호원 도봉숙의 애교있는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섬쩍해지곤 하였다. 그것은 손가락치료를 받고있는 김영식이한테서 도봉숙이라는 간호원이 좋은 녀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때부터 생겨난 이상한 감정이였다.

럼민희는 어느날 도봉숙이와 함께 군사위원회명령 제331호에 의하여 포탄공장에서 떨어져나가게 된 장약직장과 시험사격장직원들에 대한 검진을 하고 어슬막에 김영식의 손을 치료하러 그의 집에 왕진을 갔다.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없고 김순옥이와 지금순이 천조각들을 벌려놓고 가위질을 하다가 민회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영식은 진단서를 받고 집에서 안정치료를 하게 되어있는데 공장에서 도장붓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틀전부터 산돼지를 사냥하러 다닌다는 것이었다. 도장붓재료는 지금까지 대체로 집돼지털을 써왔는데 최근 포탄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유하고있던 돼지털을 다 써버려 생산부장이 자체로 산돼지를 잡도록 사냥조직을 하였다고 한다. 전쟁통에 가축을 기르는 집이 얼마 없기도 하거니와 집돼지털보다 산돼지털이 더 좋다는 말도 있었던 것이다.

《글쎄 검열그루빠가 무정부주의적으로 포탄생산을 망탕 하는 우리 공장에 벌칙을 적용해서 일체 자재공급도 끊어버리게 했는지 않아요. 그래 오늘 기사장동지가 정일룡부수상동지한테 전화로 보고를 올렸다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야 일을 못하게 하는거지 뭐예요.》

김순옥이가 격분하여 손에 든 가위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푸념을 하자 어머니 지금순이도 《포탄생산을 2배, 3배로 높이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벌을 내리다니. 부수상동지한테 보고가 올라갔다니 이것들이 이제 무사치 못할게다. 그게 반동놈들이 하는것이지 뭐냐. 그러지 않아 전번에 부수상동지가 군사명령 331호때문에 우리 공장에 내려왔다가 자료를 묶어가지고 올라갔다더라. 장군님께 꼭 말씀올릴게다.》 하고 검열그루빠에 대한 원성을 터뜨리었다. 지금순은 합숙주방책임자를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탁아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지금 이들모녀는 집에 간수해두고있던 무명천으로 탁아소어린이들의 침받치개를 만들고있었다. 애국가풍이 있는 이

집안에서는 김만수연공아버이가 그러했던것처럼 공장을 위한 일에 모두 극성이었다. 하기에 김영식에도 상처받은 몸으로 공장에서 당장 걸린 도장붓을 해결하려고 사냥터에 나간것이다. 하지만 의사인 림민희로서는 김영식의 무리한 로동이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지난 몇달동안 림민희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김영식을 치료해주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손가락은 어째서인지 림민희의 정성을 알아주지 않았다. 신약도 쓰고 고려약도 써보았지만 상처부위는 호전되는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것이였다. 지난 여름에는 상처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려고 랑림의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해매이다가 길을 잃고 사나운 짐승과 맞다들려 큰일날뻔 한 일도 있었다.

정말 무슨 치료인들 안해봤으랴. 독미나리뿌리, 왕지네, 범싱아, 황경피나무껍질, 복숭아나무뿌리, 말벌집, 뱀껍질, 단너삼 등을 처방에 있는대로 가루도 내고 물에 달이거나 술에 타서 매일 두세번씩 먹여도 보았으며 그것도 잘 안되자 찜질치료도 꾸준히 해보았다. 너삼뿌리를 넣고 달인 물에 수건을 적시여 농이 생긴 곳에 하루에 여러번 발라주는 방법으로도 치료해보았으며 겨자찜질을 비롯하여 소태나무와 땀싸리재물을 받아 따뜻하게 덥혀가지고 그속에 손가락을 잠그었다가 그것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재물로 교체하여 농을 빼내는 방법도 써보았다. 그의 이 정성에 대해서는 김영식은 물론이고 지금순모녀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백가지 약이 다 효력이 없었다. 민희는 김영식을 데리고 강계 도병원에 여러번 다니면서 실험도 하고 현대적인 약물치료도 하였으나 낫지 않고 골수염으로 번져진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달분

진단서를 발급하고 집에서 안정치료를 하도록 하였는데 환자가 계속 일을 하고있을뿐아니라 추운 대소한철에 사냥을 다닌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집에서 영식동무의 상처가 얼마나 위중한지 모르는것 같아요. 제 잘못으로 골수염이 생겼는데 이걸 잘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추운 때에 그 손을 가지고 사냥을 다니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럼민희는 지금순과 김순옥에게 골수염의 위험성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니 김영식을 도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며 나무람하였다.

《민희선생이 우리 애녀석의 상처를 고쳐주겠다구 것처럼 애면글면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이 덜통하다보니 애녀석의 병을 덧치게 한가보오. 안됐소. 이제부터 그녀석을 딱 붙들어놓구 선생속을 안 태우게 하겠소.》

지금순이 럼민희의 손을 잡아쥐며 사죄하였다. 민희는 웬일인지 눈뿌리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확 쏟아져나왔다.

《어머니, 영식동무가 손가락을 잃은것도 우리 홍근오빠때문이 아닌가요. 그 일만도 죄스러운데 제가 치료를 잘못해서 골수염까지 가져다주었으니... 전 지금도 전쟁전에 장군님께서 리병혁용접공의 상처입은 손을 보고 가슴아파하시면서 꼭 고쳐주자고,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장군님께선 그때 황도현의 의서 <방약합편>에는 <의사는 환자가 들어오면 머리숙여 인사하라.>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사는 우선 환자를 선생처럼 존경하고 혈육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장군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못해...》

억제할수없이 설음이 북받쳐올라 림민희는 종시 뒤말을 잊지 못하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의사가 환자의 집에 왕진을 와서 오열을 터뜨리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민희는 그동안 가슴에 쌓이고쌓였던 설음이 터져서 건잡을수가 없었다. 검열그루빠로부터 간첩혐의까지 받고있는 림민희의 고민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김순옥이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주었다.

《민희언니, 너무 서러워말아요. 그 사람들이 민희선생에게 별 혐구를 다 씌우지만 공장 전체 종업원들이 언니를 보증해줄거예요. 그리고 언니의 정성은 헛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어머니도 말한것처럼 이제부턴 집에서도 영식일 잘 통제할테니 걱정마세요. 사실 병을 고치자면 의사의 정성만으로도 안되지요.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요.》

《민희선생, 우리 순옥이의 말이 옳소. 우린 영식이가 아프다는 소리없이 늘 뛰여다니기에 병이 그렇게까지 위중해진줄은 몰랐다오. 이제부턴 집에서도 선생의 정성에 발을 맞추어 단단히 신칙을 하겠소.》

지금순은 또다시 림민희의 손을 따듯이 감싸쥐었다.

《어머니, 고마와요. 우리 힘을 합쳐 아들의 병을 꼭 고쳐주자요.》

《고맙다는 말이야 내가 해야지. 선생은 박홍근기사의 잘못으로 그애가 손을 다쳤다는데 그건 당치 않은 말이요. 손을 다친거야 그녀석이 주의하지 못한탓이지 왜 박기사의 잘못이겠소.》

지금순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것처럼 졸다가 손을 다쳤으니 제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식이가 그날 졸게 된것이 수면제때문이라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야 영식은 간호원 도봉숙이가 병원의 약들에 검은손을 대는것 같은 의혹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랬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민희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저 그 여자를 주의하라고 귀띔해주었을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영식이의 손을 고쳐줄수 있을까? 왜 점점 상처가 더 심해질까?)

민희는 또다시 그 생각에 골몰하였다. 시름에 잠긴 민희의 표정을 살피던 지금순이 무릎을 꿇고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갔다. 이윽고 두툼한 편지봉투를 들고 내려온 그는 민희의 등을 다독이었다.

《선생, 아직도 뭘 그렇게 생각하오. 요즘 선생이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은데 이제 모든 일이 다 바로잡히게 될테니 걱정마오. 심심풀이로 이거나 읽어봐요.》

그가 내보인것은 로르니아휴양지에서 순옥에게 보내온 유락종의 편지였다.

불현듯 민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의 입당을 보증해준 유락종, 민희에게 있어서 유락종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였다.

(우리 홍근오빠가 폭약사건으로 해서 시련을 겪을 때에도 이 유락종동무가 홍근오빠와 나에 대해 목숨을 걸고 보증한다고 했다지.

홍근오빠의 입당보증인인 김인호직장장도 지금 홍근오빠와 나의 당적생명을 희생적으로 보호, 보증해주고있지 않는가. 금순어머니의 말이 옳아.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나는 절대로 간첩의 루명을 쓰지 않는다.)

민희는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검고 칙칙한 순옥이의 술많은 머리태를 쓸어만지였다.

《이제는 유락종동무가 올 때도 됐구나... 그런데 이걸 내가 읽어봐두 일없을가?
애인의 편진데...》

《어마나... 그저 휴양생활에 대해서 쓴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순옥이의 말쑥하고 하얀 얼굴이 익은 앵두빛으로 물들여졌다.
지금순이가 봉투에서 속지를 꺼내여 럽민희의 무릎위에 올려놓았다. 순서를 헛갈릴가봐
번호까지 매겨가며 쓴 장문의 편지였다. 앞의 몇장은 없는것으로 보아 아마도 거기에는
깊은 속삭임이 적혀있던가보았다.

럼민희는 호기심에 잠겨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국제휴양단이 로므니아의 오뽀메리비행장에 착륙하자 로므니아정부에서는 여러 나라
국제휴양단들중 오직 조선휴양단성원들만은 모두 승용차에 따로 태워 부꾸레슈띠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까지 실어다주었다는것, 휴양생활은 로므니아정부청사에서 마련된
연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른 나라 휴양단들에서는 단장만이 연회에 참가하였지만
조선국제휴양단만은 단장 외 18명 전원이 다 참가하였다는것 그리고 연회에서
로므니아정부수상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겨주고계시는 **김일성**동지를
동방의 영웅이라고 극구찬양하면서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영웅의 나라 조선의
변영을 위해 축배를 들자고 하였다는것 등 유락종의 편지는 감동적인 소식들로
가득차있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유락종이와 최성준이들이 들어있는 호실관리원처너 이리나
로지오마의 아버지가 1940년대에 원동국제련합군에서 **김일성**동지의 강의를 여러번

받은 군인출신으로서 그때 받은 강의학습장을 아직까지 소중히 보관하고있다는것이였다.

휴양이 끝나고 기계공장들을 참관하는 기간에 휴양소관리원 이리나의 아버지가 유락종이와 최성준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오늘 조선인민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과 싸워 련전련승하고있는것은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원동시절 나는 **김일성**동지의 강의를 통해 총의 철학을 배운 사람이다, 그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아 영웅조선의 병기공장 로동계급인 당신들을 특별히 초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휴양기간이 끝난 다음 유락종이네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속에 여러 형제나라들을 다니며 공장견학을 하고있는데 가는 곳마다에서 《영웅조선! 영웅인민!》 하고 자기들을 열렬히 환영하여 민족적공지를 느끼고있다고 하였다.

유락종의 편지를 한창 읽고있을 때 웬 젊은 녀자가 느닷없이 헐레벌떡이며 방안으로 뛰어들어와 민회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 녀자는 탁아소수직을 서던 보육원인데 사냥을 나갔던 사람들이 말같은 노루 두마리를 탁아소마당에 메쳐놓고 되짚어 어디론가 바빠 갔다면서 저 노루를 어찌라는건지 모르겠다고 설레발을 쳤다.

그 말을 듣고 지금순이도 《도장뿔때문에 산돼지사냥을 갔던 사람들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왔단 말인가? 그걸 탁아소에 가져다놓은걸 보면 아이들에게 해먹이라는것 같은데 모르겠군... 그런데 무에 그리 바빠서 말도 미처 못하고 돌파서 갔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였다.

럼민희는 편지를 놓고 일어섰다. 당장 달려가서 김영식을 붙들어오고싶었다. 그러나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간 사냥군들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 이 밤중에 급히 돌아섰는가?

럼민희는 알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4

흰눈덮인 골짜기로 뻗어간 길을 따라 기관단총을 멘 세사람이 바빠 달려가고있었다. 그중 한사람은 무기호송차로 포탄공장에 주재하고있는 총참모부 병기총국의 하사관이고 다른 한사람은 사략작업반 반장 장룡운이었으며 또 한사람은 김영식이였다. 깊은 밤이었으나 쪼각달빛에 반사되는 설광으로 하여 주변의 모든것이 선명히 보이였다.

내쳐 달리던 그들은 전쟁전에 삭도가 오르내리던 십리평어방에서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밤도 어지간히 깊어 인적기없이 조용한데 저쪽산턱에 한점 불빛이 어둠속에서 유난스레 반짝거리였다. 세사람은 불빛을 향해 은밀히 다가갔다. 전쟁전부터 삭도를 타고다니는 려객들을 위해 국영급양망에서 《십리평식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하던 간이음식점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였다. 지금은 적들의 폭격으로 삭도를 타고다닐수 없게 되어 폐업하다싶이 된 음식점인데 이날은 일곱명의 손님들이 그리

크지 않은 방안에 미닫이사이문까지 열어제끼고 긴상에 둘러앉아 송아지넙적살로 불고기를 하고있었다.

안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다. 김영식이 방안의 높은 온도로 하여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불고기를 하고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새겨보았다. 검열그루빠성원들 다섯명과 표일석, 리백찬들이었다. 그밖에 긴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낀 로인이 있었는데 그는 십리평식당 주인이었다.

장룡운, 김영식이들은 십리평에서 20여리 떨어진 수림속에서 종일 사냥을 하였으나 산돼지를 잡지 못한채 겨우 노루 두마리를 둘러메고 내려오다가 우연히 먼발치에서 십리평식당으로 밀려들어가는 무리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포탄공장 탁아소마당에 노루를 메쳐놓고 총을 멘채로 되짚어 급급히 십리평쪽으로 달려간것은 그때문이었다. 김영식이뿐아니라 장룡운이도 언제부터인가 신동식, 도봉숙들이 의심스러워 심상치 않게 보았던것이다.

대형전지불을 세개씩이나 켜놓은 방안은 대낮처럼 환히 밝고 밖은 어두워서 세사람은 마음놓고 방안사람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들여다볼수 있었다.

7명의 사람들이 숯화로불 2개에 갈라앉아 술추렴들을 하고있었다.

《오늘은 송아지갈비와 송아지뒤다리살로 불고기를 하지만 래일은 범불고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랑림지구에는 노루, 산돼지, 곰, 범 없는 짐승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강계포수를 일러주었는데 그건 자강도가 랑림산을 끼고있기때문이웨다.》

벌써 술이 몇순배 돌았는지 얼굴이 벌거우리해진 로동행정부장 리백찬이 얇게 썰어 양념에 재운 고기살을 꼬챙이에 꿰여 숯불에 구워낸 산적을 질근질근 씹으면서 하는

소리였다. 시뻘건 참숯불이 이글거리는 화로에서는 소고기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불길의 한뼘이나 솟구쳐오르곤 하였다.

《여보, 여보, 무슨 짐승이 많다고 그래? 이번 전쟁통에 랑림산의 짐승들도 놀라서 다 달아났소. 포탄을 인수하러온 인민군하사관이랑 장룡운, 김영식서꺼 도장뵈때문에 어제부터 산돼지사냥을 한다는데 허탕을 친다는것 같소. 허허허.》

표일석이 알잔에 담은 술을 쪽 들이키고 기름이 부질부질 끓는 산적을 입안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였다. 이 약은 인간은 검열그루빠와 엇서면 피해가 돌아오는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노상 아침을 하며 밀정질을 하고있다.

《그래두 랑림산이지 왜 짐승이 없겠소. 그루빠선생님들, 내 다음번에는 범불고기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슴도 산채루 잡아다 피를 마시며 술추렴을 합시다.》

리백찬이 하는 말에 표일석이 넝름 받아물고 말꼬리를 이었다.

《범술이랑 담그었다가 대접하겠습니다. 평양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리백찬이와 표일석은 벌써 혀꼬부라진 소리들을 하였다.

신동식이 이마살을 찌프리고 그들을 쏘아보았다.

《여보, 우리가 술추렴이나 하구 되물이나 받아먹자구 여기로 온게 아니야. 홍타령을 부를 때가 아니란 말이요.》

일순 술좌석이 조용해졌다. 신동식은 뜨직뜨직 그러나 마디마디에 칼을 박듯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래 퇴물에 침흘리는 사람들같소? 리승엽위원장동지는 우리를 내려보내면서 이런 술추렴과 퇴물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고 여러번 강조했소. 검열성원들이 퇴물행위에 용해되면 본신임무를 옹게 수행할수 없을뿐아니라 범죄자들한테서 반공격을 받아 뺏다꼐지울수 있기때문이요. 리백찬, 표일석동무들은 우리 검열그루빠성원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하겠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인식을 바로 가지겠습니다, 국장동지.》

표일석이 술에 취한 속에서도 발라맞추기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로 왔는가? 비밀리에 중요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요. 공장안에서는 숙소도 그래 사무실도 그래 그 어디서든 비밀토의를 할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들이 우리를 주시하고있소. 검열그루빠의 숙소와 사무실에 도청기를 달아놓았는지도 모르요. 동무들도 다 본것처럼 우리한테 걸려든 범죄자들이 보통 사나운 놈들이 아니요. 그리고 그놈들도 간단치 않은 백이 있기때문에 배짱을 부리는거요. 이를테면 한성룡, 박홍근, 김인호, 전정호같은 놈들은 정일룡부수상을 끼고있소. 그때문에 우리의 검열총화가 대단히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벌써 리승엽검열위원장과 정일룡부수상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있소.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졌소. 자칫하면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수 있소. 그렇게 되면 두편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요. 예로부터 정적들의 싸움에서 이기면 충신이 되고 지면 역신이 된다고 했소. 정신을 차려야지. 사슴의 피나 빨아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돼!》

대번에 술기운이 말짱 달아났는지 리백찬, 표일석이들이 겁먹은 얼굴을 하고 멀뚱멀뚱 신동식을 쳐다보았다.

신동식은 한성룡, 박홍근, 전정호, 김인호, 림민희, 류일룡을 비롯한 《반동가족주의자들》의 《죄행》을 자료적으로 잡아쥐고 결투를 벌릴 준비를 단단히 하고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너를 꺼꾸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문제는 이렇게 날카로워졌소. 저편에서도 그런걸 알고있기때문에 결사적으로 나올거요. 떠도는 말은 간첩혐의를 받고있는 박홍근, 림민희들이 반대로 도봉숙이를 간첩으로 몰아붙일 꿑꿑이를 한다는것 같소. 형편은 이렇단 말이요.》

《국장동지, 그건 틀림없이 김영식이놈 작간입니다.》

리백찬이 자기가 중요한 비밀이라도 알고있는듯 혀까부러진 소리로 중얼대며 그 이유를 말하였다. 우선 김영식은 박홍근, 림민희의 일이라면 제 친형님, 누나 이상으로 극성스럽게 돕는 녀석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 손가락을 잘리우면서까지 박홍근의 철갑모연구를 도와주었다는것이다. 그러한 김영식이한테 도봉숙이가 두번씩이나 이상한 녀자로 오해를 받을수 있는 재미없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12월초 어느날 밤 도봉숙이가 의무실수직을 서면서 림민희의 책상에서 영어로 무슨 글을 쓰고있을 때 김영식이가 손기척도 없이 갑작스레 의무실에 뛰어들어오더니 근처집애기가 설사를 한다면서 약을 청하였다. 그때 도봉숙은 쓰던 영문글종이우에 얼른 책을 덮어놓았는데 영식이가 그 책을 번져놓고 영문글종을 이상스레 유심히 들여다보았다는것이다. 《간호원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가?》 하는듯... 그때로 말하면 림민희가 오빠의 비밀편지사건으로 고민하고있던 때였다. 또 한번은 아주 밝은 낮에 도봉숙이가 의무실문을 걸어놓고 약물제조를 하고있을 때 요란스레 나들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밖에 김영식이 서있더라는것이였다. 그는 대뜸 《왜 대낮에 의무실문을 걸어놓고있소?》 하고 성난 어조로 언짢게 말하고는 역시 이상한 눈으로 의무실안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는 손상처에 바를 물약을 타가지고 나갔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니 놀랍게도 영식이가 그 물약병을 내던지더라는것이였다. 《그것은 도봉숙이가 준 물약이여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내버린것이 분명합니다.》

리백찬은 자기의 비상한 추리로 수수께끼를 풀어낸듯이 어깨가 으쓱해서 말을 끝맺었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신동식이 불쑥 물었다.

《그런데 동무가 그런 일이 있는줄은 어떻게 그리 잘 알고있소?》

《봉숙동무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영식이한테 접근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상적으로 감시해달라구 해서 알게 됐지요.》

《그래 감시했소?》

신동식의 눈이 칼날의 섬광처럼 번뜩이였다.

《감시했습니다. 국장님의 외조카가 무슨 루명이라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 어느날은 영식이녀석을 불러다가 술 한잔을 먹이면서 임잔 왜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도봉숙을 의심하나? 임잔 언젠가 도봉숙이가 꼬부랑글자를 쓴걸 보구두 의심했다는데 그건 라틴어약명을 쓰는 법을 공부하느라고 써본거야, 영어가 아니야, 했지요. 그러자 그녀석이 내가 뭐랍니까? 난 도봉숙아주머닐 의심한적이 없는데 그건 무슨 소립니까 하고 제편에서 의아해하더군요. 그때 사략작업반동무들 몇명이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도봉숙이한테 해주었소?》

신동식의 눈빛은 한층더 날카로와졌다.

《뭐 그런 말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저 영식인 전혀 의심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했지요.》

신동식의 부엌부엌한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두볼편이 경련을 일으키듯 실룩거리었다.

《이런 머저리한테 로동행정부장을 시키고있으니 무슨 일이 잘되겠소. 도적놈 제발 재려하듯이 그따위 말을 하니 오히려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더구나 술한 사람이 있는데서... 술을 처먹구 지금처럼 혀까부러진 소리로 별의별 말을 다 했을테니...》

신동식은 씹어삼킬듯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로동행정부장을 노려보았다.

이때 갑자기 문밖에서 귀청을 켰는듯 한 기관단총소리가 뚜루룩 뚜루룩 콩뿔듯이 울리었다. 술상에 마주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눈을 까뒤집고 뛰쳐일어났다. 그중 제일먼저 문을 차고 달려나온 사람은 음식점주인이었다. 뒤따라 여러 사람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그들이 마당에 나왔을 때 총에 맞은 까마귀 몇마리가 다리를 쭉 뻗고 날개죽지를 푸들거리고있었다. 신동식이 토방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는 순간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또 한마리의 까마귀가 그의 발치에 굴러떨어졌다. 지붕우에 떨어졌던 까마귀가 바람에 날려온것이였다. 신동식은 마지막숨을 내쉬며 빠드럭거리는 까마귀를 집어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때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이 쥐죽은듯 고요했다. 이따금 쉬익, 쉬익 하는 설한풍소리가 유령의 소리처럼 들려왔다.

《무슨 총소립니까? 간첩단이 따라온게 아닙니까?》

리백찬이 겁에 질려 두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신동식의 팔을 붙들었다.

《심상치 않소. 모두 무기를 준비하시오.》

신동식이 권총집에서 총을 꺼내자 검열그루빠성원들이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중 한사람은 방안에서 기관단총을 들고나왔다. 매사에 주도세밀한 신동식은 여기로 오면서도 무기를 지참하게 하는것을 잊지 않았던것이다. 그후 반시간이 지나도록 어디에서도 총소리가 없었다.

《이상한 일로군.》

신동식이 마당에 널려있는 5마리의 까마귀를 내려다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었다. 얼마후 그는 전지불로 집주변을 살살이 뒤져보고나서 사람들을 방안으로 들여보내고 검열그루빠 부책임자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불길한 징조요. 우리를 감시하고있는 어떤 놈이 은밀히 여기까지 따라온것 같소. 그런데 왜 총을 쏘았을가? 혹시 까마귀사냥을 다니는 사람들인가? 불고기냄새를 맡고 까마귀들이 여기로 몰려온것 같은데...》

《요즘은 웬일인지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듭니다.》

부책임자가 권총을 손에 든채 마당가에 높이 서있는 들메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까마귀무리들이 그 나무가지들에 올라앉아있었던것 같았다.

《우리가 두달만 참고 이겨내면 락을 보게 되오. 아이젠하워대통령의 <신공세>작전은 <하기공세>나 <추기공세>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 작전이요. 원자탄을 쓸지도 모르오.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말고 견디여내라는것이 미중앙정보국의 지령이요. 리승엽위원장과 박헌영부수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있으니 든든하오. 김두봉, 허가이, 고정환이들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써먹을수 있소. 앞으로 **김일성**장군앞에서

재판을 해도 우리가 이기지 정일룡이 혼자서 어찌지 못해.··· 이제 올라가면 도봉숙이를 없애치우라. 아까운 여자인데 거치장스럽게 됐소.》

신동식은 보통 로숙하지 않은 도봉숙이가 이번에 큰 실책을 했다고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설한풍 휘몰아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신이여! 구원의 손을 내밀어주십시오.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가 우리를 살려주도록 보살펴주옵소서!》

리백찬, 표일석은 물론이고 검열그루빠성원들까지도 이자들이 미중앙정보국의 조종을 받는 고용간첩들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오랜 잠복간첩인 검열그루빠 부책임자도 최근에야 신동식, 도봉숙이들이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5

한낮이 훨씬 기울었을 때였다.

지군일목사가 보내온 편지를 읽으신 **김일성**동지께서 희생된 지응모에 대한 생각이 감쳐들어 집무실을 거닐고계시는데 부관이 무슨 종이장을 들고 급히 들어섰다.

《장군님, 방금 급전된 통보문입니다.》

그이께서는 선자리에서 통보문을 받아 읽으시었다. 적들의 《신공세》와 관련된것이였다.

적들의 모험적인 《신공세》는 1953년 1월 5일 인천근방의 해상에 떠있던 《미주리》호 전함에서 미국동군사령관을 비롯하여 미8군사령관, 미5공군사령관, 미7함대사령관 등의 모의에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는것, 그 이후 아이젠하워가 서울에 왔다가 돌아간 덜레스, 맥아더, 브렛들리 등과 최종토론을 거쳐 1월 25일 전선중부 철원 서북쪽 14km지점에 있는 205고지에 대한 《모범》전투를 강행하기로 결정되었다는것, 이것이 《신공세》의 서막으로 된다는것 등이 적혀있었다. 이 고지가 고무래 정(丁)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정형고지라고 불렀다.

아이젠하워의 이 작전목적은 조선전쟁에서 고갈된 병력을 동맹국들로부터 보충받을 대의명분을 세우고 조선전쟁을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쟁을 영예롭게 끝냄으로써 땅바닥에 굴러떨어진 제놈들의 명예를 올려세우자는데 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격계선에 3개 사단이나 되는 병력과 수많은 비행기, 탱크, 포들을 집결시켜놓고 자기들의 《위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와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추종국가 기자들에게 이제 공산군을 《소멸》하는 《시범전투》를 하겠으니 모두 와서 구경하라고 했다.

미8군사령관 밴플리트의 지시로 준비한 놈들의 극비초대장에는 1953년 1월 25일 5시라는 시간표까지 찍혀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적들의 공격개시시간까지는 10여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정형고지방어계선에 배치된 아군의 병력은 한개 연대밖에 없었으며 포도 얼마 되지 않았다. 적아간의 역량상 대비가 너무도 심하였다. 만약 정형고지를 돌파당하면 30리 마장벌은 물론 안협(철원) 썩 이북으로 물러나야 했으므로

1211고지도 포위될수 있었다.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자면 늦어도 래일 새벽 4시전까지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은밀히 방어계선에 도착시켜야 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시간타산이 맞지 않았다. 작전일군들은 모두 당황해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긴박한 시각에 16년전의 먼 과거를 회상하며 점도록 한자리에 앉아계시였다. 그것은 1937년 홍두산전투때에 오중흡이 7련대를 데리고 하루밤새에 수백리길을 달려 그이의 곁으로 찾아온 기적적인 행군에 대한 회상이시였다. 항일의 전통을 이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을 믿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결단을 내리고 조선인민군 포병사령관에게 명령하시였다.

《강원도 금강군 금강원리에 주둔하고있는 18곡사포려단의 두개 대대와 곡산군에 주둔하고있는 대련합부대의 204곡사포련대 그리고 양덕계선에 있는 예비부대들을 25일 4시까지 강원도 철원군 내문리와 밀암리, 마방리에 각각 은밀히 전진배치시키고 차지한 계선에서 전투준비를 완료한 다음 차후 명령을 기다릴것.》

명령을 받은 인민군부대들의 행군시간은 9시간의 여유밖에 없었다.

곡산에서 떠난 포병련대는 도로조건이 좋고 행군거리도 88km로서 멀지 않기때문에 시간당 10km씩 행군하면 목적지에 작전개시시간전에 가닿을수 있지만 제18곡사포려단은 로상에 고개와 강하천을 비롯하여 장애물들이 많고 행군거리가 137km나 되기때문에 시간당 15km씩 행군하여도 계획된 시간내에 가닿기가 힘들었다. 그이께서는 련락군관들을 각 부대들에 급파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결사적으로 초강행군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작전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들에게 로출되지 않도록 최대의 은밀성을 보장하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30분간격으로 포병사령관 김봉률과 련계를 가지고 자신께 보고할데 대한 과업을 리을설부관에게 주시였다.

그때부터 리을설은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30분간격으로 행군정형을 보고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무거운 장구류들을 지고 시간당 거의 40리씩 350리를 행군해야 하는 제18곡사포려단에 대해 제일 신경을 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마당을 거닐며 보고를 받으시였다. 대한날이 방금 지난 그때의 밤날씨는 여간 맵짜지 않았다. 사위는 흰눈속에 싸여 추위에 얼어붙은듯 끝없이 조용하였다. 하늘에는 상현달이 진주빛을 뿌리는 별들을 거느리고 최고사령부뜨락을 환히 밝혀주었다.

30분간격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숨웃자락을 헤치고 새벽바람을 맞으며 전사들의 간고한 행군길을 그려보시였다.

림진강벼랑길은 지난날 나라의 방위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안일과 향락만을 일삼아온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이 림진강의 수려한 풍치를 부감하기 위해 백성들을 몰아 벼랑바위를 까고 뜯어내여 닦아낸 길이였다. 작전구역인 마장, 마방은 말을 방목하였다는데로부터 생겨난 이름인데 부귀향락에 이골이 난 서울량반들이 이곳에서 봄여름내 살찌운 소와 말들을 겨울이면 모조리 끌어다가 소새끼는 저들의 술놀이와 경복궁의 식용으로 써먹고 좋은 말들은 궁중의 수레를 끄는 역마로 리용했다고 한다. 꿀이 많기로 소문난 밀암리의 단꿀도 죄다 량반부자들의 입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썩어빠진 통치배들이 룰곡의 10만양병설을 외면하고 날마다 술놀이와 풍월에 사대주의와 당쟁만 하다나니 임진왜란때 한양성이 무너져 임금이 이곳에 피신했다가

의주로 도망간 부끄러운 기록이 적히게 되었다. 왕피리란 그래서 생겨난 치욕의 지명이다.

림진강의 벼랑길, 마장리, 마방리, 왕피리, 밀암리의 이름들에는 군사방비는 아랑곳없이 하늘소타고 음풍영월하면서 사대주의의 썩은 정치로 망국의 길로 줄달음쳐온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의 죄악의 발자국이 찍혀있다. 그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기에 지금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이 림진강의 벼랑길과 얼음강판을 지나 마장리, 마방리, 왕피리, 밀암리 등 작전지역을 향해 달리고있는것이다.

리을설이가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장군님, 21시 40분 현재 결사적인 초강행군을 하여 모든 부대가 계획보다 시간을 앞당겨 전진하고있습니다.》

(그럼 그렇겠지.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동무들, 고맙소, 고맙소.)

그이께서는 마음속으로 행군하는 전사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이렇게 30분간격으로 최고사령부로 날아오던 부대의 행군보고가 4시 40분에 이르러 마침내 결속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즉시에 우리와 같은 소리로 명령하시였다.

《모든 포병부대들이 신속히 사격준비를 끝내고 대기하며 적들의 공격개시와 때를 같이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어 적들의 모험적인 (모범전투)가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나게 하라!》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18곡사포려단의 1대대는 내문리앞 곰고개에, 2대대는 마방리 마방산릉선에 화력진지를 차지하고 사격준비를 끝냈으며 곡산 204포병련대는

마방리 역곡천 우안과 밀암리의 부암산기슭에 화력진지를 차지하고 멸적의 포문을 열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때의 시간이 1월 25일 새벽 4시 45분이였다.

이 시각 미제8군사령관 뱀플리트를 비롯하여 미군고위장성들도 전호에 따뜻한 화독을 가져다놓고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아 작전개시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마장별이 펼쳐져있다. 강원도땅에서 안변별 다음가는 30리별이였다.

《丁》형고지가 바로 이 지대에 자리잡고있었다. 놈들은 경기도 련천군에 높이 솟아있는 천덕산의 유리한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거기에 출발위치를 정하고 정형고지를 단숨에 덮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지응모가 희생된 곳이 바로 천덕산과 밀암리 부암산계선이였다.

아군포병들이 진지를 차지하고 전투준비를 완료한 밀암리의 마방계선에서 적들이 차지한 야월산계선까지는 불과 4km 내외였다.

지금 적들의 전호주변에서는 유피통신사 워싱턴특파원 프랑크 엘리저를 비롯하여 동맹국들에서 《모범전투》참관을 위하여 쓸어들 관광객들과 기자들이 붐비며 돌아갔다.

적들은 이미 1월 21일부터 사흘동안 뱀플리트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해발 205m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고지에 하루 평균 200발이상의 포탄을 퍼부었고 비행기는 무려 140여회나 출동시켜 맹폭격을 감행했었다. 하여 뱀플리트는 지금쫓은 상처투성이의 인민군 한개 연대가 고지주변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잠자고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정형고지는 조용합니다. 밤새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4시 50분 현재에도 뱀플리트는 그런 정찰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불길한 소식이 날아왔다. 전쟁전 평양에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미국의 녀류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의 아들 포웰(그는 반전단체 기자였다.)이 미국의 유명한 정보장교인 잭슨의 부고가 실린 신문장을 참관기자들에게 나누어주고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창시자 도노반박사의 유지를 이은 동방조선문제전문가인 미중앙정보국 정보장교 앵글레인 잭슨박사 자결, 71살을 일기로 1월 24일 워싱턴저택에서 영원히 하느님곁으로 갔다. 미국정보계의 최고수뇌진 상실감으로 고민, 미국무성과 국방성 조의표시, 잭슨박사의 유가족 위문, 저택에 조기...》

그 소식을 들은 뱀플리트의 눈이 한순간 사기알처럼 굳어져 움직일줄 몰랐다. 세계를 진동할 정형고지공격전투를 앞두고 날아온 잭슨의 부고가 대단히 기분잡치는 일이었다.

드디어 새벽 5시가 되었다.

적들은 이미 폭격, 포격을 당한 아군진지에는 태반이 부상자로 된 인민군대 1개 연대밖에 없고 몇문 안되던 포도 거의다 마사졌을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놓고 일제히 소리치며 돌진하였다.

이날의 전투에 대하여 유피통신사 특파원 프랑크 엘리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연합군의 비행기들과 포병화력으로 이 고지(정형고지)를 그야말로 돌쪼각밖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살살이 폭파하였다. 그러나 연합군 보병들이 산등성이를 향하여 돌진하자 공산군포화력이 아군의 머리위에 불소나기를 쏟아부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아났는가 북조선에 것처럼 많은 강한 폭발력을 가진 포탄이

있다는것은 하느님도 모를 일이었다. 이날의 정형고지에 대한 연합군의 전투는 《모범전투》가 아니라 아이젠하워대통령의 앞날을 어둡게 한 최대로 실패한 전투였다.

24일에 잭슨의 사망으로 팔에 검은 땀기를 들렀던 밴플리트를 비롯한 미국의 고위장성들이 25일 정형고지에서 북조선의 포화력에 괴멸된 미국병사들을 위하여 조의를 표시하여야 했다.》

1월 25일 새벽 미국녀류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의 아들 포웰이 정형고지전투 참관자들에게 내돌린 반전단체의 신문에는 잭슨의 부고와 함께 그가 남긴 유서도 편집되어있었지만 갑자기 전호에 쏟아져내리는 포탄세례에 기자들은 그 글을 읽을 겨를이 없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잭슨의 유서 몇구절을 적는다.

《...동방의 옛글 하나를 미국앞에 인용한다.

<알인욕존천리>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욕심을 누르고 하늘의 섭리를 보존해두라는 뜻이다. 만고의 이 격언을 미국이여 잊지 말지어다. 재앙과 화는 이 욕심때문에 생기는것이다. 미국이 살길은 욕심을 버리는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조선을 정복할수 없다. 나는 북조선과 싸우기 싫다. 미국에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그래서 나는 이승을 떠나련다.

미국을 향하여 열어놓은 천국의 문이 더 넓어질것을 기도드리면서...

1953년 1월 24일 밤 12시 잭슨》

잭슨의 죽음은 리성의 판단으로부터 받아안은 절망감으로 하여 빛어진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반전단체 기자들이 1953년 1월 25일 그날로 정형고지전투에 대한 소식을 날리며 각국의 보도계가 벅적 끓어댔다.

《아이젠하워의 <신공세>는 첫걸음부터 다리뼈가 부러져 넘어졌다.》, 《정형고지전투는 인민군대정신력의 신화, 북조선병기생산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정형고지전투로 하여 아이젠하워대통령의 앞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었다.》

이것이 세계보도계의 종합된 목소리였다.

6

김일성동지께서는 정형고지전투에서 열친 적들에게 련속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3호를 하달하여 적들의 간담을 얼어들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73호명령서문에 조선인민군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량적으로,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신식무기와 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정규군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밝히고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한다면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그들의 운명을 서산락일의 비운으로 만들며 우리의 중국적승리에로의 전국의 위대한 전환을 조성하라고 명령하시였다.

이날에 평양, 남포, 원산, 함흥에서 일제사격으로 축포를 쏘았다. 하여 조국의 하늘에 수천발의 축포의 꽃보라가 날리였다.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예고하는 축포였다.

그로부터 10여일후 **김일성**동지께서는 포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기 위해 한밤중에 평양을 떠나시였다. 그이께서 포탄공장에 도착하시였을 때 동쪽하늘에 시뻘건 해가 뻘쭙히 솟아오르고있었다. 포탄공장 굴입구가 저만치 바라보이는 곳에서 차를 내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지하공장이 들어앉은 좌우산밭을 주의깊이 둘러보시였다. 북쪽으로 우람하게 뻗어간 산밭들은 이불같이 두터운 흰눈을 뒤집어쓰고 아직도 깊은 잠에 들어있는듯 조용히 누워있었다.

바람이 쉼- 하고 지나갈 때마다 나무가지들에 무겁게 얹혀있던 눈이 은가루같이 날리며 해빛에 번쩍거리였다.

《여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눈에 익힌때문인지 정이 듭니다. 명당자리에 포탄공장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것들은 무엇입니까? 객차들이 아닙니까?》

김일성동지께서 수행한 정일룡, 현무광들에게 낡은 객차 몇차량이 이어져있는 산기슭을 가리키시였다.

《저... 그게... 이 공장 탁아소입니다.》

현무광이 얼굴을 붉힌채 약간 떠듬거리며 말씀올리였다. 그는 보름전에 당중앙위원회 지시로 포탄공장을 료해하고 돌아갔으므로 이곳 실태를 잘 알고있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객차가 탁아소라니...》

김일성동지께서 의아해하시였다. 이곳에 공장이 들어온 이후에 탁아소를 미처 짓지 못하여 낡은 객차 몇차량을 가져다놓고 탁아소를 운영하고있다는 말에 그이께서는 더욱 의아해하시였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 나무고장에서 탁아소를 짓지 못한다는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객차차량을 가져다놓는 로력이면 탁아소를 짓고도 남겠소. 저기 저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반대편 산기슭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을 가리키시였다.

《그 집은 국가간부들이 내려올 때 협의회장소로 쓰는 건물입니다.》

이번에는 정일룡부수상이 대답을 올리였다. 리승엽이 하루밤 그 집에서 자고갔고 그가 조직한 검열그루빠성원들이 그 집에서 모임도 하고 숙식도 하였다. 그 건물은 밑으로 지하방공호와 련결되어있었다.

《어디 탁아소라는 곳에 좀 가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 객차가 서있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 객차안에 들어서시였을 때 아직 출근전이여서 아이들은 없고 차칸 한쪽귀에 걸어놓은 가마결에서 장작불을 지피고있던 두 녀인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그중 한 녀인이 지금순이였다.

《수고들 하십니다.… 아니, 이게 누구니까? 지금순어머니로구만요.》

김일성동지께서 그를 대뜸 알아보시였다.

《장군님!…》

깊이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는 지금순의 두볼로 벌써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어머니를 만나본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순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으나 그 녀인은 자꾸 울기만 하였다. 남편과 맏아들, 며느리, 손자를 잃은 그는 막내아들마저 지난 1월말 화약창고를

폭파하려는 암해분자들과의 격투끝에 희생되었다. 그날 박홍근이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간호원 도봉숙은 타살되었는데 살인자를 아직 잡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정형고지전투가 있기 전에 포탄공장에서 벌어진 가장 큰 비상사건이었다. 화약창고를 폭파하려던 반동암해분자들중 두놈은 현장에서 우리 사람들의 총에 맞아 즉사하고 나머지놈들은 도망쳐버렸는데 죽은 두놈은 전혀 정체를 알수 없는 놈들이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김일성**동지께 보고되어 그후 당중앙위원회소조가 사건해명을 위하여 포탄공장에 내려오게 되었다. 결국 포탄공장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두개의 검열소조가 사업하고있었다.

《지금순어머니는 이번 전쟁통에 너무도 많은것을 잃었습니다.》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지금순은 더욱 설음이 북받쳐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아소안을 찬찬히 둘러보시였다. 흰 종이로 도배를 하고 바닥에는 장판까지 하여 차안은 살림집방안처럼 아늑하였다.

《차칸이지만 알뜰하게 잘 꾸렸습니다. 누가 도배도 하고 장판도 발랐습니까?》

《우리 보육원들이 꾸리느라고 했지만 변변치 못합니다. 장군님께선 우리 나라에서 아이들이 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잘못으로...》

겨우 울음을 진정했던 지금순은 또다시 어깨를 떨며 오열을 터뜨리였다. 따뜻한 웃음을 지으신 그이의 자애로운 존안을 뵈오니 견잡을수 없이 설음이 터져올랐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지금순의 한손을 잡아쥐신채 저으기 갈린 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영식이 어머니, 이젠 그만하시오. 영식이 어머니가 이러니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김만수아바이도 가고 영옥이도 가고… 최근에는 또 영식이까지 잘못됐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장군님- 제 그래서 우는게… 아닙니다. 장군님을 뵈오니 그저…》

《그만하시오. 이젠 그만하시오.… 집의 세 남정이 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희생되었습니다. 김만수아바이는 병기공장의 설비들과 유락종동무의 생명을 구원했고 김영옥, 김영식동무들은 공장을 살려냈습니다. 며느리도 잘 싸웠습니다. 병기공장사람들은 어머니의 남편과 아들, 며느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물결치는 지금순의 잔등을 어루만지시며 정일룡에게 고개를 돌리시였다.

《부수상동무, 우리가 무엇때문에 혁명을 하고있습니까? 무엇때문에 이 험한 산골에 들어와서 포탄을 생산하고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탁아소어린이들을 낳은 객차에 밀어넣고 간부들은 궁전같은 집을 쓰고있으니 말이 됩니까.

내 생각에는 간부들의 협의회장소로 꾸렸다는 그 집으로 탁아소를 옮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굴간에서도 할수 있고 여기서도 할수 있습니다. 토론해서 탁아소를 바꾸게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점심도 미루시고 포탄공장 작업장들을 다 돌아보고 잠시 휴식하신 다음 공장구락부로 향하시였다.

공장구락부는 포탄공장굴입구가 바라보이는 맞은켄 산 골속에 자리잡고있었다. 500여명정도 수용할수 있는 구락부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수를 헤아릴수가 없었다. 구락부안이 좁아서 마당에 확성기를 걸어놓았으나 어찌 장군님의 음성만 들겠는가고 하며 저마다 구락부안으로 쓸어들어 질서를 잡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류일룡부지배인이 구락부안에 있는 책상, 의자들을 모두 들어내여 자리를 몇배로 넓히었으나 그래도 어방없이 모자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있었다. 밤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쉬던 노동자들, 가두주민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과 교직원들까지 모두 구락부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가렬치절한 전쟁의 3년세월 오로지 장군님만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고향을 멀리 떠나 여기 외진 산골에 들어와 병기생산을 다그쳐온 노동계급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는가. 구락부안은 말할것도 없고 구락부마당이며 지어 산등성이에까지 사람들이 밀려들어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후 정각 3시.

김일성동지께서 연단에 나오시자 구락부안은 일시에 만세의 환호성이 폭풍같이 터져나왔다. 골밖에서도 만세의 환호성이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환호성이 잦아들자 드디어 **김일성**동지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장내를 흔들며 울려나왔다.

《나는 오늘 무슨 연설을 하자고 여기로 오지 않았습니다.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보고 싶어 구락부에 다 모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병기공장 로동계급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동무들, 나는 전쟁기간 어느 한순간도 병기공장동무들을 잊어본적이 없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을 폐시기 바쁘게 녀인들은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하고 훌쩍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3년간 군자리로동계급과 포탄공장의 로동계급은 참으로 잘 싸웠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지금 전선에서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날에 날마다 전과를 확대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바로 얼마전에도 아이젠하워의 <신공세>의 서막으로 되는 정형고지전투에서 전쟁사에 특기할 영웅적위훈을 세웠습니다. 이 빛나는 전투성과에는 여기 포탄공장로동계급의 헌신적이며 영웅적인 로력투쟁의 열매가 뚜렷이 깃들어있습니다. 정형고지전투에서 적들의 머리위에 들썩은 포탄이 바로 여기 포탄공장동무들이 만들어보내준 포탄이었습니다.》

동무들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희생된 동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기관단총의 첫 설계자인 지응모동무도 이제는 영원히 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쪽 부르시었다. 병기공장 열사자들의 이름을 뜬금으로 죄다 외우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에는 목석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오늘 새벽 탁아소로 쓰고있는 낡은 려객차량에서 지금순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적들에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며느리까지 잃었지만

조금도 비판하지 않고 병기생산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애국적인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와 같은 애국적인 병기공장 로동계급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굳건하고 우리 나라가 강하며 우리 군대가 용맹한것입니다.

그때문에 우리 인민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자처하는 미제와 그놈들이 그러모은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과 싸워 련전련승하고있습니다. 나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시기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압록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에도 병기공장 로동계급, 바로 동무들을 믿고 건너가지 않았습시다.》

《김일성장군 만세!》

구락부안에서는 또다시 요란한 박수갈채와 함께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이 시각 지금순은 구락부마당에서 확성기를 통해 **김일성**동지의 연설을 듣고있다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울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순의 가정에서 벌어진 모든것을 다 알고계시였다. 도장붓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이가 손에 상처를 입은 몸으로 산돼지사냥을 다닌것도, 산돼지를 잡지 못하게 되자 김순옥의 발기에 의해 심형공, 도장공처녀들이 모두 머리태를 잘라 도장붓을 보장한 사실도 그리고 림민희가 김영식의 손을 치료해주기 위해 랑림의 험한 산밭을 타고다니며 수십가지의 고려약을 만들어낸것도...

김일성동지께서 그 모든 수고를 낱낱이 다 헤아리시고 높이 평가하시여 녀인들은 목놓아 울고 남성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울음소리, 박수소리, 목메인 환호성은 오래도록 그칠줄을 몰랐다.

7

구락부에서 군중모임을 하고나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행정, 기술 간부들의 협의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길로 소회의실로 가시였다. 그이께서 정일룡, 현무광들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서시자 대기하고있던 공장일군들과 핵심기술자들, 고급기능공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자리에는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인민검열위원회의 이름을 가지고 공장에 내려와있는 사범성검열그루빠의 일부 성원들과 새로 파견한 당지도소조성원들도 있었다.

김일성동지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탁상옆에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포탄의 생산공정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 만든 직관물결그림이 걸려있고 그앞 진렬대에는 포탄모조품들이 주련이 놓여있었다.

《모두 앉으시오.··· 굴간에 좋은 방들이 많구만. 그런데 무엇때문에 술한 자재를 들여 간부협의회장이라는걸 따로 지어놓고 간부들을 군중과 유리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아침에도 말했지만 그 건물을 탁아소에서 쓰게 합시다. 그밑에 잘 꾸린 방공호도 있으니 탁아소로 쓰기는 맞춥할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왕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왕대접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배인에게 오늘래일중으로 당장 탁아소를 옮기도록 하라고 이르고 《자, 그럼 기본문제를 토론합시다.》 하고 회의참가자들을 쭉 둘러보시였다.

그이께서 교시하시는 기본문제란 중앙당 및 내각인민검열위원회의 명의로 사법성
성원들이 몇달동안 진행하여온 포탄공장검열사업에 대한 총화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툼하게 묶어놓은 검열사업총화자료들을 얼핏얼핏 번져보시였다.
무려 200장가까이 되는 자료묶음이었다. 중앙당지도소조가 종합한 자료도 100여장
싹히 되였다. 자료철을 잠깐 번져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시였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거의다 참가하였다. 그밖에 사략작업반의 장룡운반장과
검사반의 김순옥반장을 비롯한 몇명의 작업반장들도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반드시 앉아있어야 할 사법성검열그루빠책임자 신동식이와
병기생산국장 고정환이가 보이지 않았다.

《사법성과 병기생산국 국장동무들이 왜 보이지 않소?》

김일성동지께서 물으시자 정일룡부수상이 일어나서 말씀올리였다.

《신동식동무는 며칠전에 리승엽위원장동무가 급히 찾아서 올라갔다고 하고
고정환동무는 철갑모수입문건을 가지고 올라온것을 제가 부결한 후로는 성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있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자료묶음을 들어보이며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얹혀있는것 같은데 하나하나 문제별로
따져가며 토론해봅시다. 여기에 기술문헌을 마음대로 고쳐 군검제도를 마비시키고
병기생산에 혼란을 조성시켰다는 자료가 제기되였는데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오.》

그러자 사법성검열그루빠 부책임자가 붉은색수첩을 펼치면서 급히 일어섰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녀달이 돼오도록 이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마구 포탄을 생산하고있습니다. 군검도장을 받지 않은 포탄을 전선으로 실어보내고있습니다. 생산공정을 절반이상이나 단축하여 생산한 포탄이니 그 질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을 중지시키고 원래대로 정상적인 생산공정을 밟을것을 요구하고있으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동무들에게는 법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엄중하게 보는것은 이자들이 끼리끼리 싸고돌면서 규합하여 조직적으로 반당적행위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이른바 군사명령집행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순진한 노동자들을 열려넘겨 상급의 지시를 받아몰지 않고 마구 포탄을 생산하게 하고있습니다. 녀달째나 군검도장을 받지 않은 포탄을 전선에 보내고있으니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놈의 포탄에서 무슨 사고가 생겨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호호탕탕히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격렬한 론조로 거침없이 엮어대는 검열그루빠 부책임자의 사리정연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때를 놓치지 않고 리환구가 일어나서 밑에서 가족주의자들이 지배인을 밀어제끼고 공장을 좌지우지하고있으니 일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장을 둘러보며 교시하시였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시오. 어째서 현행생산체계가 군검과 말썽이 생기고있는가? 왜 군검도장을 받지 않고 포탄을 전선에 보내고있는가? 그걸 말하시오.》

이때 전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전에 주물직장현장에서 처음으로 전정호를 만나보시었다. 그러나 그때는 검열사업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기술혁신자료들만을 료해하시었다.

《전정호동무, 여기 앉아있는 동무들이 다 리해할수 있도록 자세히 말하시오.》

《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공장에 내려오니 박홍근기사가 지금 포탄 한발 생산하는데 수십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공정들을 절반으로 줄이면 로력문제도 해결되고 시간도 단축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가 생각해온 문제를 도면을 놓고 설명하였습니다. 박기사가 그런 착상을 하게 된것은 그전날 항일투사들이 무기제작을 할 때 설비가 없어 작업공정을 단축하고도 질을 보장할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신심이 생기였습니다.》

정호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온 략도형식으로 그린 도면을 그이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계속하였다.

《그때부터 저도 그렇고 기사장동무도 그렇고 박기사동무의 창안사업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상부로부터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이기 위한 방안토론을 하라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은 박기사의 기술창안을 완성시키는데 총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생산공정을 줄이는 기술문헌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공정에 의거해서 한개의 계렬이 아니라 한 계렬을 더 놓아 병렬포탄생산체계를 완성하면 생산을 어렵지 않게 3배, 4배로 끌어올릴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공정도를 고쳐 병렬생산체계라? 리해가 됩니다.》

병렬생산체계의 기술적문제를 인차 이해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정호의 설명을 계속 주의깊이 들으시었다.

《새로운 공정체계에 의한 포탄생산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포탄의 질을 검사해본 결과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고친 제품설계문건을 병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지배인동지와 병기생산국에서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검열그루빠 부책임자동지도 말했듯이 생산공정을 단축하면 절대로 포탄의 질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검사한 포탄실물을 보라고 해도 보지 않고 무작정 부결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포탄생산을 2배로 늘일수 없었고 따라서 군사정세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탄의 질을 목숨으로 담보할수 있었기때문에 우리의 주전대로 포탄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검에서는 병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새 공정체계의 생산품이여서 도장을 찍어줄수 없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선의 포탄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데다 포탄생산을 2배이상 높일데 대한 군사위원회명령까지 떨어져 우리는 군검도장을 받지 못한 포탄을 그냥 전선에 실어보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군검도장을 받지 못한것인데 그것은 상급의 제동으로 하여 빚어진 잘못입니다.

검열그루빠는 이 점을 가지고 일면적으로 문제시하면서 포탄생산을 중지하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우리는 공장을 세울수 없었습니다. 전선에서 포탄을 요구하는데 포탄생산을 어떻게 중지할수 있겠습니까.》

전정호는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검열그루빠성원들을 보며 설명을 끝마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윽도록 침묵을 지키시었다. 하여 한껏 긴장해진 협의회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전정호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가슴이 조여들었다.

《현재 생산해놓은 포탄의 질문제를 실지 담보할수 있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뜨리시었다.

이제껏 한마디 말도 없던 기사장 한성룡이 그제서야 일어섰다.

《예, 포탄의 질문제는 수십번의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믿음성있는것은 바로 그 포탄으로 전선중부의 적들을 수많은 살상한것입니다. 장군님께서도 교시하신것처럼 정형고지전투에서 사용한 포탄들중에는 최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포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공정을 단축하여 생산한 포탄들입니다.》

협의회장이 수선거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전정호를 돌아보시었다.

《동무네가 포탄의 질문제를 목숨으로 담보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했소?》

전정호가 **김일성**동지께 기술실험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위해 일어섰다.

《나를 대상해서 말하지 말고 여기 있는 동무들이 다 알도록 이앞에 나와서 설명하시오.》

전정호는 수첩과 연필 한자루를 들고 협의회장앞으로 걸어나왔다.

《포탄시험사격은 생산하여놓은 제품들을 조별로 진행합니다. 첫 시험은 포탄을 사격하여 집중성을 판정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견고성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전투장약을 하지 않고 가장약을 하는데 모래나 톱밥을 넣고 합니다. 포탄이 착탄되었을 때 깨지지 말아야 하며 동파가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다 정상이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험이 폭발성시험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정호의 설명을 거들어 교시하시였다.

《포탄시험에서 이 시험이 중요하오. 이때 집중성시험도 같이 보게 되지. 여기서 중요한것은 포탄이 폭발하는가 안하는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는것이요. 두번째 시험도 만족할수 있었소?》

《예, 폭발력이 대단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세번째 시험이 또한 중요합니다. 포탄안에 장약한 드로필이 놀거나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세번째 실험 역시 결과가 좋았소?》

《모두 합격치수에 들어갔습니다. 대비사격을 해본데 의하면 0. 01%도 떨어지지 않았습나다.》

《포탄시험에 대해서 의문되는것이 없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협의회참가자들에게 도거리로 물으시였다.

《없습니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울려나왔다.

《그럼 정호동무, 나왔던김에 포탄생산공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오. 생산공정을 절반이나 단축하여 포탄을 생산한 문제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시오.》

전정호는 누구인가 가져다주는 직관물을 걸개에 걸어놓고 지시봉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복잡한 기술공학적문제여서 비전문가들도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이 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종전에는 포탄 한발을 생산하자면 무려 30회이상의 복잡한 작업공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공정이 특수강소재를 40cm의 길이로 자를수 있게 산소노즐로 자리를 내는겁니다. 그다음은 권양함마로 내리쳐 자릅니다. 그다음은 그것을 가열로에 가지고가서...》

전정호는 이렇게 열처리공정, 프레스공정, 제관공정, 연마공정 등 30회이상이나 되는 작업공정을 통속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중언부언하였으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이어서 종전의 작업공정을 절반이상 단축한데 대하여 공정별로 설명하였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는 더 힘들었다.

단능설비를 많이 쓰던 기대공들이 기능수준을 높여 만능설비들을 리용함으로써 노력도 절약하고 생산공정도 단축할수 있었다고 갑자기 설명하는 전정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웃으며 설명을 보충하시였다.

《듣고보니 어렵게 생각할게 없는것 같습니다. 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면도할 때 먼저 더운 비누물을 솔로 바른 다음 뜨끈한 물로 적신 수건을 얼굴에 덮어서 낙신탁신탁하게 수염의 숨을 죽이고나서 다시한번 더 더운 비누물을 바르고 이렇게 서너번 공정을 거쳐 수염을 깎지만 이 동무들은 면도기술을 높이고 면도칼을 잘 갈아서 아프지 않게 단 한번에 수염을 깎아버렸다는것입니다. 정호동무, 그렇지 않소? 동무가 길게 설명했지만 본질이야 그 말이 아닌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 정호의 충격은 실로 컸다. 까다로운 기술실무적문제들로 가득찬 복잡한 공정들에 대해 통속적으로 리치에 맞게 설명하시여 듣는 사람들모두에게

명확한 표상을 안겨주시는 **김일성**동지의 표현력, 분석력, 판단력에 참으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현무광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일성**동지께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이제는 흑백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 당지도소조가 공장에 와서 료해한데 의하면 공장이 기록하고있는 포탄실적은 지난해의 실적에 비하여 2배를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나간다면 금년 상반기중에 지난 시기에 비하여 5배이상 장성할것으로 추산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열그루빠의 개입으로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검열그루빠동지들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공장동무들이 포탄시험자료들을 내놓으면서 빨리 군검을 받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여러번 안타깝게 제기하였는데 왜 동지들은 시험자료들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생산을 중지하라고 법적제재를 가했는가요?》

검열그루빠 부책임자는 피끗 현무광을 치며보았다. 그는 이미 얼굴빛이 꺼멓게 질려버렸으나 태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면서 뜨직뜨직 입을 놀리었다.

《예- 그것은 공장지배인과 병기생산국장이 생산공정을 단축하여 생산한 포탄은 절대로 질을 보장할수 없다고 했기때문이에요. 그들이 생산을 중지시키도록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쏘련기술문헌에 기초해야 한다는 그들의 말을 믿었고 그 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원인인가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들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불현듯 큰소리로 말하는 현무광의 검실한 눈에서 시퍼런 불길이 펄펄 일었다.

《현무광동무, 됐소. 그만하고 앉으시오.》

김일성동지께서 격노한 현무광을 진정시켜 앉히시고 검열자료철들을 한쪽으로 밀어버리며 일어서시었다.

《방금 현무광동무도 말한것처럼 오늘 여러 동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 분석해보면 사범성과 최고검찰소 연합검열조사업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국 군검제도를 마비시키고 병기생산을 혼란시킨것은 여기 공장동무들이 아니라 바로 검열조성원들입니다. 이렇게 된데는 병기생산국장과 지배인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기생산국장에게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칠데 대하여 여러번 충고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있습니다. 그의 교조주의는 사대주의로부터 생겨난것입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같은 뿌리에서 생존하는 두 독초입니다. 그것들은 늘 붙어있습니다.

이 동무는 그전에 기관단총 총가목은 꼭 쏘련의 기술문헌에 적혀있는대로 쏘련의 붓나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이번에도 또 쏘련기술문헌을 절대시하면서 포탄생산공정단축을 창의고안한 사람들에게 반당반혁명분자이니, 미국간첩이니 하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회는 변화발전합니다. 어제는 50공정을 거쳐 포탄을 생산하였지만 오늘은 20공정을 거칠수 있고 래일은 더 적게 다섯공정을 거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동무는 쏘련기술문헌을 영원히 고칠수 없는것으로 보고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형이상학적인 사고가 아닌가? 누구보다도 맑스주의를 잘 알고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변증법을 무시하고있습니다. 교조주의는 형이상학이며 따라서 반맑스주의입니다.

반당분자들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하는 고정관동무를 리용해서 많은 애국자들을 모해하고 우리의 병기생산에 해독을 끼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쪽에 몰려앉아있는 검열그루빠성원들을 엄한 눈길로 내려다보시였다. 그들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수첩에 적고있었다.

《사법성검열그루빠는 우리가 세운 군검제도를 악용하여 병기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군검사업의 목적은 병기의 질을 높이고 병기생산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며 생산된 모든 병기류들이 나라의 방위에 제때에 리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동무들이 다 군검수사업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군검사업은 병기제품생산을 통제하고 감독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울타리를 치고 생산자들의 제품에 검열의 칼질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검수를 하는 사람이나 검수를 받는 사람이나 다같이 호상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나라의 병기생산을 만들어나가는 동지적관계로 되어야 합니다. 군검사업이 병기생산을 제약하거나 생산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억누르는것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내려온 검열그루빠는 군검제도를 가지고 룡간을 부려 병기생산에 장애를 조성하고 애국적인 병기생산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점점 격해지시였다.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흘러넘치던 안광이 근엄하게 번쩍거리고 음성은 흥분으로 하여 더욱 웅글게 울려나왔다.

《지금도 전선에서는 포탄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을것입니다. 최고사령부에서 하루밤만 자고나면 작전탁우에 포탄을 보내달라는 전선용사들의 요청편지가 수북이 쌓이곤 했습니다.

검열소조에선 전선용사들의 이 소원을 풀어줄 대신 생산해놓은 포탄을 이 타발, 저 타발 하면서 군검수를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도면일면에 걸쳐 포탄을 억류해놓은것을 알면서도 뜬뜬해 앉아있는 군검수자들의 무사태평한 행동에 대해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군검과 생산자들사이에 무슨 동지적관계가 있습니까. 군검은 마땅히 공장에 찾아가서라도 제품의 질을 따져보고 최선을 다하여 포탄이 빨리 전선으로 나가도록 협력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대목에서 너무도 격하시여 잠간 교시를 끊었다가 근엄한 눈길로 좌중을 쪽 둘러보시였다.

《오늘 제함직장에 가보니 포탄상자가 없어서 포탄을 쌓아두고 내보내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포탄상자제작용 특함재가 들어오지 않아 상자를 만들지 못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체로 나무를 찍어내려다 상자를 만들어놓으면 상자도색을 하지 못해 포탄을 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장붓재료가 없어 심형공과 검사작업반 처녀들이 머리태를 잘라 도장붓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군수창고에는 도장붓이 쌓여있지만 검열그루빠가 포탄공장에 벌칙을 주어 일체 자재를 출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지배인, 일어나서 말해보라!

포탄상자에 칠을 못했으면 상자에 포탄규격만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도 못하겠으면 가마니에라도 넣어 소화물처럼 꼬리표를 달아 거기에 포탄규격과 수량을 밝혀 보내주어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지배인이 검열그루빠의 장단에 맞추어 포탄을 못 나가게 만들고 생산까지 멈춰세우려고 했다는데 동무가 포탄공장의 지배인이 맞소?! 우에는 아침하여 발라맞추고 아래는 묵살하여 내리누르고... 여기 자료에 동무가 한 행동과 발언내용이 다 종합되어있소. 동문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똑똑히 말해보라!》

김일성동지의 안광에서 무서운 불길이 일어나고 파르릉 하고 퇴성처럼 울린 음성은 방안을 진동하며 우르릉우르릉 지하공장 멀리까지 메아리쳐갔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정일룡이와 현무광이도 그이께서 오늘처럼 노하신것을 한번도 뵈온적이 없었다. 리환구는 온몸을 사시나무떨듯 하였다. 포탄생산이 어떻소, 생산공정이 어떻소 하며 별의별 못된 말로 포탄생산을 악랄하게 반대하던 무리들은 얼굴색이 까만 돼지털빛으로 변하여 진땀을 빼며 앉아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깨를 오그라뜨리고 앉아있는 검열그루빠성원들을 엄하게 내려다보며 교시하시였다.

《동무네들이 공장에 내려와서 한 일들은 어느 하나도 잘한것이 없습니다. 철갑모를 놓고도 봅시다. 사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다른 나라에서 철갑모를 사오자고 했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여태 사오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알고 박홍근동무를 비롯한 공장동무들이 악전고투하여 철갑모를 만들어냈습니다. 박홍근동무는 지배인이 철갑모를 계획지표에 넣어주지 않아 자체로 자재를 구해다놓고 기본과업을 수행하면서 밤마다 잠잠이 연구하여 끝내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동무를 높이 평가해줄 대신 검열그루빠에서는 그를 불러다놓고 지표에 없는 일을 했소, 로력과 자재를 랑비했소, 해독분자요, 뭐요 하며 정치적으로 매장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지표가 없으면 지배인이 병기심사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에 뛰여다니며 지표를 만들어넣도록 바로잡아야 옳지 않겠는가? 철갑모가 성공한 다음에도 지배인은 계획에 넣을 생각은 안하고 검열그루빠와 장단을 맞추며 돌아갔다니 정말 틀려먹었소. 지응모동무가 왜 희생됐는가? 철갑모만 썼다면 지금도 살아있을게 아닌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너무도 격하여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누구인가 그이께 고뿌에 물을 따라드리였다.

정일룡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였다.

《장군님, 그렇게 된데는 우선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철갑모문제를 단순히 기술실무적인 문제로 보고 심중히 취급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검열그루빠사업도 내각인민검열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문제로 보고 깊이 관심을 돌리지 않았기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장군님께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철갑모도 그렇고 여기서 벌어진 모든것이 다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였소.》

김일성동지께서 물을 한모금 마시시고 엄하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는 모든게 명백해졌소. 철갑모를 만들고 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한 사람들은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였고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군들이였소. 그런 식의 검열은 백해무익합니다. 검열그루빠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총화하고 좀 더

깊이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다 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소회의실안의 사람들을 쪽 둘러보시였다.

이때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검열그루빠 부책임자가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정중히 일어서더니 절절히 반성하는듯 한 침통한 표정을 지은채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병기기술에서는 문외한이다보니 이번에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화국적으로 병기공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고정한국장과 공장의 최고행정책임자인 지배인의 말만을 믿었기때문에 철갑모를 만든 사람들과 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한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법적체재를 가하는 등 사람평가를 잘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박홍근이로 말하면 간첩혐의를 받고있는 정체가 아리송한 사람이고 그의 애인인 림민희 또한 괴뢰군장교인 오빠와 련계를 가지고 반란음모를 기도하고있는 여자라고 하기에 박홍근이 발기한 포탄생산공정단축설계안에 불순한 목적이 담겨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는것이였다.

《그때문에 저희들은 박홍근동무뿐만아니라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의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피살된 도봉숙이 죽은 원인도 아직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고있는데 고정한국장, 리환구지배인, 리백찬로동행정부장 등 많은 사람들이 림민희의사가 자기 죄과를 숨기기 위해 그 여자를 독살했을거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특히 고국장과 리지배인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기때문에...》

별안간 리환구지배인이 일어서는 바람에 검열그루빠 부책임자는 저도 모르게 말을 끊었다.

리환구의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바래졌다가 죽은 피가 엉키듯 점점 시꺼멓게 변색되었다. 그의 눈썹, 입술, 눈까풀, 볼살들이 모두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웬일인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쓰러지듯 의자에 도로 주저앉았다. 더부살이모양으로 고정환에게 붙어 살아가는 리환구에게 있어서 이 봉변과 창피는 언제이건 꼭 맞다들리게 되어있는 필연적인 운명의 귀결인지도 모른다. 리환구의 처참한 몰골을 일별한 부책임자는 기고만장해져서 목을 조인 넥타йма듭을 쥐여흔들며 당당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지배인동무네가 제기한 부정확한 자료때문에 검열그루빠사업에 혼란이 조성되고 검열사업이 정상궤도에서 탈선하게 됐습니다. 보다 더 엄중한것은 동무네들이 올려보낸 그 부정확한 자료때문에 우리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고있는 박헌영동지와 리승엽동지의 사업에까지 혼란을 조성시킨겁니다. 이 동무네들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사업을 옳게 지도할수 없었고 사람평가를 정확히 할수 없었습니다.》

장내가 수선거리였다. 부책임자는 장내의 소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려는듯 피곤했던 뒤를 돌아보고나서 울먹거리며 말을 이었다.

《본의아닌 저희들의 과오는 사실 엄중합니다. 우리는 고국장과 지배인의 말을 지나치게 믿었기때문에 리승엽위원장동지의 사업에까지...》

《이젠 그만하시오! 더 들어볼 필요도 없소.》

김일성동지께서 탁상을 두드리시고 근엄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저 부책임자라는 사람이 박헌영과 리승엽을 크게 믿고있는것 같은데 이번에 전당적으로 당 제5차 전원회의문헌을 토의하는 과정에 그들의 죄행이 드러났습니다. 리승엽은 미제의 고용간첩이라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더는 환상을 가지지 마시오.》

순간 장내가 바람맞은 수풀처럼 술렁거리었다. 경악의 소음이 일어나는 속에서 어디선가 콧! 하고 통나무가 굴러떨어지는듯 한 소리가 울리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었다. 검열그루빠 부책임자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그자는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 의자에 몸을 짓조으면서 방바닥에 굴러떨어졌던것이다.

도봉숙을 살해한자는 바로 검열그루빠 부책임자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연탁앞으로 일어나오시여 긴장과 놀라움으로 하여 까딱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교시하시였다.

《동무들, 보시오. 당과 정부의 요직에 간첩이 들어앉아있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미제와 비밀없는 전쟁을 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우리는 싸움판에서도 이기고 정전담판장에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있었습니다. 박헌영은 지난 기간 반당반혁명분자들을 높은 자리에 끌어들여 별의별 나쁜짓을 다하였는데 리승엽을 요직에 추천한것도 박헌영입니다. 그가 리승엽의 간첩행위와 어떤 련계를 가지고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제 더 검토해보면 알게 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반간첩투쟁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교시를 계속하시였다.

《가렬처절한 전쟁은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그 기간 동무들은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병기생산을 잘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박헌영, 리승엽이와 같이 당과 정부의 고위요직에 들어앉은 놈들의 압력과 박해에도 굴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오직 우리 당의 뜻대로 견결하게 싸운 로동계급의 대부대를 여기서 보게 된것입니다.》

그이께서는 훌륭한 병기들을 만들어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병기공장들에서 훌륭한 인간들이 자라난것이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병기생산공로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외우시였다.

그들중에는 지응모, 김만수, 김영식, 장기진 등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다.

눈물에 젖은 얼굴들을 뜨겁게 바라보며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마침내 미제침략자들을 해어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미제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도장을 찍을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동무들은 더욱 긴장하게 병기생산을 다그쳐야 합니다.

나쁜놈들때문에 최근에 공장의 한 청년이 희생되고 박흥근동무는 치명상을 입었다는데 그를 성의껏 치료하여 빨리 회복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괴뢰군대령이였던 럽민희의사의 오빠 럽민정이 병사들을 데리고 최현부대에 의거해서 지금 군단휴양소에서 학습하고있는것입니다.》

조용하던 장내가 돌연 바다에 격랑이 일듯 세차게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그 시각 박홍근은 병원침대에 누워서 확성기를 통해 그이의 교시를 듣고있었다. 마음대로 운신할수 없는 그는 그리운 장군님의 교시를 버릇없이 누워서 듣고있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여 더욱더 눈물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다시말하지만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병기생산을 계속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완전한 평화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대무기를 만들자면 병기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현대적인 병기시험소를 꾸려놓고도 아직 소장을 임명하지 못하고있었는데 이 시험소 소장으로 포탄공장의 책임기사 박홍근동무를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확성기에서는 요란한 박수갈채가 울려나왔다.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던 박홍근은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만장에 울리는 저 박수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자기 박홍근에게 보내는 동지들의 신임이고 사랑이었다. 그 사랑과 신임은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것이였다.

《동지들! 우리는 앞으로도 조국땅 곳곳에 더 위력한 병기공장들을 수폴처럼 일떠세울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머지않아 평화의 성새로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전변될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끝났다.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그칠줄 모르고 오래도록 울려나왔다. 그 환호성은 저 멀리 끝간데없이 뻗어간 백두대산줄기의 푸른 지맥, 랑림산줄기의 맑은 하늘가로 올라가고있었다.

옛사람들은 랑림산줄기를 말할 때 《룡반호거》라고 하였다. 룡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듯이 웅장하고 위엄스러운 산세라는 뜻이다. **김일성**동지께서 10대의 어린시절에 랑림산줄기에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의 위대한 자국을 남기실 때 벌써 이 땅은 조선민족의 수호자, 백두산의 옹위자로서의 미래를 약속하였던지 모른다.

실로 룡반호거의 기상이 어린 랑림산줄기의 천연바위처럼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억센 병기로동계급으로 자라난 정일룡, 현무광, 유락중, 류일룡, 전정호, 한성룡, 김인호, 지금순, 김순옥, 장룡운, 김정길, 리태히 등 수천명의 사람들이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만세의 환호성을 올린 이날은 1953년 2월 27일이였다.

그날부터 공화국의 모든 병기공장들에서는 생산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 싸우는 전선과 고지들에 무기와 탄약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었다.

이렇게 녀달남짓이 지난 7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전투상보를 전국에 전하는 중대방송이 있었다.

녀성방송원의 박력있는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세계에 울려퍼졌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7월 중순 종합보도!

…정전협정조인을 앞두고 담판장 안팎에서 벌리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과 그에 숨겨진 기도를 환히 꿰뚫어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기도를 최종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1953년 7월 13일 타격전을 개시할것을 드디어 명령하시였다.

이날 밤 전선중부의 아군부대들은 우리 병기공장에서 만들어낸 수백문의 강력한 포화력의 지원밑에 30km의 전선에서 일대 섬멸적인 공격전을 벌리였다. 우리의

부대들은 공격을 개시한 후 불과 30분~1시간사이에 적들이 근 2년동안에 걸쳐 축성한 견고한 방어선을 단숨에 돌파했으며 일부 부대들은 하루밤사이에 기관단총을 휘두르며 10km이상이나 전진하였다. 하여 괴뢰군 제3사, 6사, 8사 및 수도사단의 부대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160여㎢에 달하는 지역을 해방시켰다.

…우리의 무자비한 타격전으로 비참한 패배를 당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었다.

7월 14일 서울발 <유피>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전쟁개시 이래 가장 격렬한 전투의 결과 동부와 중부의 18mile 전선에서 연합군진지는 돌파되었다. 정세는 매우 위급하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것은 인민군대가 사용한 화력높은 수백문의 포와 마술을 부리는 기관단총과 강한 파괴력을 가진 수류탄이 모두다 북조선 병기공장에서 생산된것이라는데 있다.>

<뉴욕 데일리미터>지는 <만일 미국이 무릎을 꿇고 북조선에 애걸하기 전에는 정세는 변하지 않을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타격에 넋을 잃은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부랴부랴 긴급전략회의라는것을 열고 모의를 거듭한 끝에 <휴전조인의 방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야 한단데 의견을 보았다>라는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다고 하며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미합동참모본부와 토의를 계속하였으나 더이상 출로를 찾지 못하게 되어 하는수없이 그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7월 15일 담판장에 나온 미국측 대표들은 모두가 기가 죽은 물골을 하고 완전한 저자세를 취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측에 최후통첩식요구를 들이냈다.

<당신들은 아직도 뻔쳐볼 심산인가. 진짜 정전을 하겠는가, 아니면 싸우겠는가?
싸울테면 싸워보자!>

그에 완전히 위압당한 적측 수석대표는 찢찢매면서 정전협정리행을 접수한다고 간신히 말하고 담판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마구 헤덤비며 달아나는 추태를 부렸다.

7월 19일 정전담판 본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는 정전협정준수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10가지 조건으로 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발표가 끝나자 미국측 수석대표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우리는 당신측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다 예스라고 대답합니다.>라고 절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정전담판을 현지취재하던 미국의 통신을 비롯한 적측의 통신보도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유엔군측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보도를 세상에 날리었다.

7월 19일에 열린 158차 본회의는 미제가 우리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우리측의 최후승리로 장식된 역사적인 회의였다. 이것으로써 정전담판 본회의는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되었다.

<진짜 정전을 하겠는가, 아니면 싸우겠는가? 싸울테면 싸워보자!>

우리의 이 물음에 미제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중대방송은 이렇게 끝났다.

며칠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람홍색기발과 침략군의 상징인 《유엔군》의 푸른 기발을 가운데 놓고 드디어 정전협정에 관한 역사적인 조인식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2시간후인 7월 27일 밤 10시 가렬처절하던 전선에서는 전투행동이 완전히 정지되었다.

지동치던 포성과 총성이 급작스레 멎어버린 고요한 밤 10시 아니, 고지와 참호의 진지에서 승리한 인민군대장병들의 만세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밤 10시. 그러나 이밤에도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로동계급은 여전히 무기생산을 다그치고있었다. 각종 기계소리와 은백색화광을 내뿜는 소재를 두들겨대는 공기함마의 거센 음향이 용선로의 불빛속에서 끝없이 울리고있었다.

마감이야기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병기공업건설의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고 그 위대한 업적을 빛내이시기 위해 나라의 군수공업을 국사중의 최대의 국사로, 선군정치의 명맥으로 틀어쥐시고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오늘 우리 나라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진 핵보유국으로 그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였다.

1953년에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오늘까지 반세기넘는 세월 조선에서는 세계의 《최강국》이라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의 포성없는 전쟁을 끊임없이 벌려왔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1994년의 민족의 대국상이후에 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의 정치군사적대립은 최절정을 이루었다. 하기에 오늘 세계는

웬만한 나라같으면 열백번도 더 붕괴되었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 나라가
런전런승한 신화적인 기적을 두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신화의 기적처럼 순간에 손쉽게 이루어진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국방건설에 바쳐오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과 뜨거운 인간애에 의하여
그리고 두분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병기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의 고귀한 피땀으로 이루어진 창조물이였다.

1990년대의 조선의 현실을 목격한 일본의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 니다 다카시는 《
김정일, 자주와 존엄의 상징》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력사는 단순한 시간의 루적이 아니다. 위대한 력사-거기에는 그것을 창조한
위인의 용지와 거인적인 용단, 위인의 뜻을 받든 그 시대 인간들의 피와 땀, 뜨거운
숨결이 숨배여있다.》

다카시는 1990년대에 벌어졌던 극적인 사변들인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복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끈질긴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 우리 인민이 겪은 피눈물의 대국상, 여러해째 전국을
휩쓴 치명적인 자연재해 등 이 모든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에 대하여 떨거하고 그속에서
조선은 무엇을 이룩하고 무엇을 깨우쳐주었는가라는 수사학적질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김정일**동지의 자주적인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였다.

《언제인가 나는 공화국의 한 관계일군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공화국의 첨단과학기술성과들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창조물은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 미래의 강성대국을 준비하고 지켜주신 우리 장군님의 피타는 노력과 헌신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우리는 지하핵시험에서도 완전히 성공하여 세계앞에, 미제의 연합세력앞에 통장훈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클린튼때의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총한방 쏘지 않고 대통령의 경수로제공에 대한 담보서한을 받아낸이래 우리 인민이 미국의 척추를 부러뜨려버린 또 한차례의 통쾌한 대승리였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공화국의 이 관계일군은 김정일령도자의 가까이에서 군수공업사업을 보좌한 유능한 금속공학전문가로서 지하핵시험에도 참가한 과학기술일군이였다.》...

다카시가 소개한 공화국의 관계일군이란 해방후 경위대원이며 전쟁시기 포탄공장 생산부장이였던 전정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후에는 포탄공장 기사장을 하다가 평양에 올라온 그는 현재 공화국의 이름있는 2중로력영웅중의 한사람이다.

인디아의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인 비슈와나스는 《김정일,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백전백승》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사선행의 선군정치론에서 주체적인 국방공업건설사상을 천명하시고 실현하시여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힘을 무한대한것으로 만드시였다. 그분께서는 이 론에서 나라의 국방공업의 방향을 자립, 자립 또 자립으로 그어주시였다. 그분께서는 총이 없어도 패전이고 망국이며 빌려다 쓰는 총도 패전이고 망국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조선은 1960년대에 월남에 10만정의 각종 무기를 보내주고 군복을 한꺼번에 100만벌씩 그것도 련이어 두번이나 지원하였으며 1980년대에 꾸바에 10만정의 자동보총과 수천만발의 총탄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의 자립적국방공업의 크기를 보여주는 실례들로 될것이다. 나는 물론 군사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이 수자들이 결코 가벼운 수자가 아니라 20만명의 병사들을 무장시킬수 있으며 한번의 국부전쟁을 치를수 있는 큰 군사장비라는것만은 짐작할수 있다.

참으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사상정신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강대한 군대, 그 누가 나라의 자주권을 해치려고 감히 덤벼든다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자이건 일격에 파멸시킬수 있는 타격력을 가진 강군으로 만드시였다.

그리하여 제3차 세계대전과 세계대열핵전쟁을 막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시였을뿐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군사적내리막길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한 대공적을 이룩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전정호, 유락종, 한성룡, 류일룡들은 80객이 된 고령의 나이에도 군수공업부문에서 일손을 놓지 않고있었다.

그 과정에 한성룡은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고 유락종은 수십년동안 큰 군수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였으며 년로하여 직무를 놓은 후에도 병기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뒤바라지를 하고있다. 류일룡은 전후부터 병기부문의 공장책임일군으로 수십년간 사업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였으나 90살에 이른 고령에도 새 세대 병기생산자들과 뜻을 같이하며 살고있다.

박홍근 역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병기시험소 소장으로 임명하여주신 그때로부터 수십년간을 나라의 화약공업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그 공로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었다.

지금도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오르면 정일룡, 현무광, 지응모, 최성준 등 병기공업의 공로자들을 만나게 된다.

